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이상정

김지민·류정희·허은영·박세경·임성은·김지연·황정하·김무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하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김무현 워싱턴대학교 박사과정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0. 3. 20.)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6
제2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9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11
제2절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30
제3절 소결	34
제3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해외 실태조사	37
제1절 미국의 NYTD	39
제2절 영국의 SSDA903 OC3	48
제3절 소결	56
제4장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61
제1절 조사 개요	63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7
제5장 건강 영역	73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건강 실태	75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실태	81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99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01
제5절 소결	107
제6장 심리정서 영역	111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113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145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64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68
제5절 소결	173

제7장 사회적 관계 영역 175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177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184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99
제4절 조사결과 비교	201

제5절 소결 208

제8장 주거 영역	211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거 실태	213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실태	223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및 조사결과 비교	244
제4절 소결	249

제9장 교육 영역 251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 실태	253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실태	268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285
제4절 조사결과 비교	290
제5절 소결	295

제10장 고용 및 경제 297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고용 및 경제	299
-----------------------------	-----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및 경제	317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360
제4절 조사결과 비교	362
제5절 소결	376
 제11장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379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경험	381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388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412
제4절 조사결과 비교	415
제5절 소결	417
 제12장 결론 및 제언	421
 참고문헌	437
 [부록 1] 보호종료예정아동용 설문지	443
 [부록 2] 보호종료아동용 설문지	473
 [부록 3] FGI 결과 요약	509





〈표 1-1〉 우리나라 전체 아동인구 대비 보호대상아동 비율	3
〈표 2-1〉 자립 준비 지원 대상 아동 현황	12
〈표 2-2〉 자립 준비 지원 대상 아동 현황	12
〈표 2-3〉 보호종료아동 현황	13
〈표 2-4〉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심리정서적 현황	17
〈표 2-5〉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부모 생존 현황	19
〈표 2-6〉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부모 연락 빈도	20
〈표 2-7〉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주거 현황	21
〈표 2-8〉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고용형태	27
〈표 2-9〉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구직 어려움, 구직 기간	27
〈표 2-10〉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자립지원 욕구	29
〈표 2-11〉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도움정도 및 만족도	29
〈표 2-12〉 2008년~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비교	30
〈표 2-13〉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대상자 변화(2008~2020)	31
〈표 2-14〉 2008년~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 및 문항 수	32
〈표 2-15〉 2012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문항 - 보호종료예정아동	33
〈표 2-16〉 2012년~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문항 - 보호종료아동	34
〈표 3-1〉 NYTD 조사 현황	42
〈표 3-2〉 NYTD 경제·고용영역 문항	43
〈표 3-3〉 NYTD 교육영역 문항	43
〈표 3-4〉 NYTD 사회적 관계 영역 문항	43
〈표 3-5〉 NYTD 주거 영역 문항	44
〈표 3-6〉 NYTD 건강 및 위험행동 영역 문항	44
〈표 3-7〉 NYTD 경제·고용 영역 조사결과	45
〈표 3-8〉 NYTD 교육 영역 조사결과	46
〈표 3-9〉 NYTD 주거 영역 조사결과	47
〈표 3-10〉 NYTD 건강 및 위험행동 영역 조사결과	48
〈표 3-11〉 NYTD 사회적 관계 영역 조사결과	48
〈표 3-12〉 SSDA903 OC3 조사 현황	50
〈표 3-13〉 SSDA903 OC3 경제·고용·교육 영역 조사내용	51
〈표 3-14〉 SSDA903 OC3 주거 영역 조사내용	52

〈표 3-15〉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 고용/직업훈련율	52
〈표 3-16〉 SSDA903 OC3 NEET 상태인 보호종료아동 비율	53
〈표 3-17〉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 재학률	54
〈표 3-18〉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과 부모와의 동거율	54
〈표 3-19〉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의 준자립/자립주택 주거율	55
〈표 3-20〉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의 노숙위험 경험률	55
〈표 3-21〉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의 부적합거주지 주거율	56
〈표 3-22〉 미국과 영국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개요 요약	57
〈표 3-23〉 미국과 영국의 보호종료아동 2018년 주요 실태조사 결과	58
〈표 4-1〉 표본 설계 내용	64
〈표 4-2〉 2020년 조사 내용	66
〈표 4-3〉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7
〈표 4-4〉 가정외보호 특성	69
〈표 4-5〉 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0
〈표 4-6〉 보호종료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72
〈표 5-1〉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75
〈표 5-2〉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77
〈표 5-3〉 주관적 건강상태	78
〈표 5-4〉 장애여부	79
〈표 5-5〉 장애종류(중복 응답)	81
〈표 5-6〉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82
〈표 5-7〉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	83
〈표 5-8〉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	86
〈표 5-9〉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던 경우) 치료 여부	88
〈표 5-10〉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으나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경우) 미치료 이유	90
〈표 5-11〉 주관적 건강 상태	92
〈표 5-12〉 장애여부	93
〈표 5-13〉 장애종류(중복 응답)	94
〈표 5-14〉 건강보험 종류	95
〈표 5-15〉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97
〈표 5-16〉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98
〈표 5-17〉 최근 건강검진 수검율	99
〈표 5-18〉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100
〈표 5-19〉 주관적 건강 상태	100

〈표 5-20〉 장애여부	101
〈표 5-21〉 주관적 건강상태 - 시계열 비교	101
〈표 5-22〉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 비교	102
〈표 5-23〉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 비교	102
〈표 5-24〉 주관적 건강상태 - 타 조사 비교	103
〈표 5-25〉 주관적 건강상태 - 시계열 비교	104
〈표 5-26〉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104
〈표 5-27〉 치료여부 - 시계열 비교	105
〈표 5-28〉 치료받지 않은 이유 - 시계열 비교	105
〈표 5-29〉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종류 - 시계열 비교	105
〈표 5-30〉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와의 비교	106
〈표 5-31〉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와의 비교	106
〈표 5-32〉 주관적 건강상태 - 타 조사와의 비교	107
〈표 6-1〉 자립 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114
〈표 6-2〉 자아존중감 문항	115
〈표 6-3〉 자아존중감	115
〈표 6-4〉 심리행동문제 문항	116
〈표 6-5〉 심리행동문제	117
〈표 6-6〉 심리행동문제 - 공격성	118
〈표 6-7〉 심리행동문제 - 정서조절감	119
〈표 6-8〉 심리행동문제 - 불안우울	120
〈표 6-9〉 삶의 만족도	121
〈표 6-10〉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122
〈표 6-11〉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124
〈표 6-12〉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	127
〈표 6-1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	130
〈표 6-14〉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	132
〈표 6-15〉 걱정되는 경우, 걱정되는 이유	134
〈표 6-16〉 걱정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부분	137
〈표 6-17〉 기대되는 경우, 기대되는 이유	140
〈표 6-18〉 기대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	143
〈표 6-19〉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146
〈표 6-20〉 자아존중감	147
〈표 6-21〉 심리행동문제	148

〈표 6-22〉 심리행동문제-공격성	149
〈표 6-23〉 심리행동문제-정서조절감	150
〈표 6-24〉 심리행동문제-불안우울	152
〈표 6-25〉 삶의 만족도	153
〈표 6-26〉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154
〈표 6-27〉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156
〈표 6-28〉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	159
〈표 6-29〉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	162
〈표 6-30〉 경제적 자립 준비 정도,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164
〈표 6-31〉 자아존중감	165
〈표 6-32〉 심리행동문제	165
〈표 6-33〉 삶의 만족도	165
〈표 6-34〉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166
〈표 6-35〉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166
〈표 6-36〉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	167
〈표 6-37〉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	168
〈표 6-38〉 삶의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168
〈표 6-39〉 자아존중감 - 타 조사 비교	169
〈표 6-40〉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 타 조사 비교	169
〈표 6-41〉 심리정서 지표 - 시계열 비교	170
〈표 6-42〉 자아존중감 - 타 조사 비교	171
〈표 6-43〉 삶의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171
〈표 6-44〉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 타 조사 비교	172
〈표 6-45〉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 타 조사 비교	172
〈표 7-1〉 부모 유무	177
〈표 7-2〉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178
〈표 7-3〉 부모와 만남 정도	180
〈표 7-4〉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181
〈표 7-5〉 사회적 지지 (총점)	183
〈표 7-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84
〈표 7-7〉 부모 유무	185
〈표 7-8〉 현재 부모 동거 여부	186
〈표 7-9〉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187
〈표 7-10〉 부모와 만남 정도	189

〈표 7-11〉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191
〈표 7-12〉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위탁부모님과 관계	193
〈표 7-13〉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 또는 만남 빈도	194
〈표 7-14〉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이 연락한 이유(중복 응답)	196
〈표 7-15〉 사회적 지지 (총점)	197
〈표 7-1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98
〈표 7-17〉 부모 유무	199
〈표 7-18〉 부모와 만남 정도	200
〈표 7-19〉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200
〈표 7-20〉 사회적 지지 (총점)	201
〈표 7-21〉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201
〈표 7-22〉 부모 유무 - 시계열 비교	202
〈표 7-23〉 부모와 연락(만남) 여부 - 시계열 비교	202
〈표 7-24〉 부모와 연락하지(만나지) 않는 이유 - 시계열 비교	203
〈표 7-25〉 부모와 연락(만남) 여부 - 타 조사 비교	203
〈표 7-26〉 사회적지지(총점) - 타 조사 비교	204
〈표 7-27〉 부모 유무 - 시계열 비교	204
〈표 7-28〉 부모(가족)과 현재 동거 여부 - 시계열 비교	205
〈표 7-29〉 부모와 향후 동거 희망 여부 - 시계열 비교	205
〈표 7-30〉 부모와 연락(만남) 여부 - 시계열 비교	206
〈표 7-31〉 부모와 연락하지(만나지) 않는 이유 - 시계열 비교	206
〈표 7-32〉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 또는 만남 빈도 - 시계열 비교	207
〈표 7-33〉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 또는 만남 이유(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207
〈표 7-34〉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관계 - 시계열 비교	207
〈표 7-35〉 부모와 현재 동거 여부 - 타 조사 비교	208
〈표 8-1〉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	214
〈표 8-2〉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217
〈표 8-3〉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219
〈표 8-4〉 보호종료 후 주거자금 마련 계획(중복 응답)	221
〈표 8-5〉 주거지원 필요 여부	222
〈표 8-6〉 필요한 주거지원	223
〈표 8-7〉 현재 주거 유형	226
〈표 8-8〉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수	229

〈표 8-9〉 함께 살고 있는 사람(중복 응답)	232
〈표 8-10〉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234
〈표 8-11〉 주거자금 마련 방법(중복 응답)	236
〈표 8-12〉 이사 경험	238
〈표 8-13〉 취약 주거 경험(중복 응답)	240
〈표 8-14〉 취약 주거 경험(중복 응답) _ 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 제외	242
〈표 8-15〉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245
〈표 8-16〉 현재 주거 유형 - 시계열 비교	246
〈표 8-17〉 동거인 수 및 동거인 유형 - 시계열 비교	247
〈표 8-18〉 주거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 시계열 비교	248
〈표 8-19〉 동거인 수 및 1인 가구 비율 - 타 조사 비교	248
〈표 9-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에 따른 교육수준 현황	254
〈표 9-2〉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요 이유	255
〈표 9-3〉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주된 이유	255
〈표 9-4〉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별 주관적 학업성적	256
〈표 9-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258
〈표 9-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중복 응답)	261
〈표 9-7〉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263
〈표 9-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우선 진로 계획	266
〈표 9-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267
〈표 9-10〉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	270
〈표 9-11〉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미 진학 이유	272
〈표 9-12〉 보호종료아동의 휴학 혹은 학업 중단 이유	275
〈표 9-13〉 보호종료아동의 등록금 마련 방법(중복 응답)	277
〈표 9-14〉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280
〈표 9-15〉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계획	282
〈표 9-16〉 보호종료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284
〈표 9-17〉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	286
〈표 9-18〉 보호아동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287
〈표 9-19〉 보호아동의 휴학 혹은 학업을 중단한 이유	287
〈표 9-20〉 보호아동의 등록금 및 생활비의 마련 방법(중복 응답)	288
〈표 9-21〉 보호아동의 진로 계획과 희망 교육수준	289
〈표 9-22〉 보호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290
〈표 9-23〉 학교생활 - 타 조사 비교	290

〈표 9-24〉 학업성적 - 타 조사 비교	291
〈표 9-25〉 향후 진로 계획 - 타 조사 비교	291
〈표 9-26〉 희망 교육수준 - 타 조사 비교	292
〈표 9-27〉 교육수준 - 시계열 비교	292
〈표 9-28〉 등록금 마련 방법(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293
〈표 9-29〉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294
〈표 9-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 - 타 조사 비교	294
〈표 9-31〉 향후 진로 계획 - 타 조사 비교	295
〈표 10-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300
〈표 10-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303
〈표 10-3〉 희망직업	306
〈표 10-4〉 진로활동 참여(중복 응답)	308
〈표 10-5〉 진로활동 만족도	309
〈표 10-6〉 진로체험 경험(중복 응답)	311
〈표 10-7〉 진로체험 만족도	312
〈표 10-8〉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취업 준비 사업	314
〈표 10-9〉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 월 생활비	316
〈표 10-10〉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318
〈표 10-1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321
〈표 10-12〉 직장 그만둔 경험 여부	323
〈표 10-13〉 직장 그만둔 이유	326
〈표 10-14〉 취업하고자 할 때 어려움	329
〈표 10-15〉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취업 준비 사업	332
〈표 10-16〉 취업자 현황	334
〈표 10-17〉 직업	337
〈표 10-18〉 일자리 형태	339
〈표 10-19〉 고용형태	340
〈표 10-20〉 고용기간	341
〈표 10-21〉 세후 월급	343
〈표 10-22〉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경험	344
〈표 10-23〉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347
〈표 10-24〉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349
〈표 10-25〉 실업률	350
〈표 10-26〉 월평균 소득	352

〈표 10-27〉 월평균 생활비	353
〈표 10-28〉 부채여부	355
〈표 10-29〉 부채액	356
〈표 10-30〉 부채 발생 사유(중복 응답)	358
〈표 10-3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360
〈표 10-3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361
〈표 10-33〉 희망 정부지원 취업준비 사업	361
〈표 10-34〉 아르바이트 경험 - 시계열 비교	362
〈표 10-35〉 아르바이트 이유 - 시계열 비교	363
〈표 10-36〉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 월 생활비 - 시계열 비교	364
〈표 10-37〉 희망직업 - 타 조사 비교	364
〈표 10-38〉 진로활동 참여 - 타 조사 비교	365
〈표 10-39〉 진로활동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365
〈표 10-40〉 진로체험 참여 - 타 조사 비교	366
〈표 10-41〉 진로체험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366
〈표 10-42〉 아르바이트 경험 - 시계열 비교	367
〈표 10-43〉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 시계열 비교	367
〈표 10-44〉 직장 그만둔 경험 - 시계열 비교	368
〈표 10-45〉 직장 그만둔 주된 이유 - 시계열 비교	369
〈표 10-46〉 구직 시 어려움 - 시계열 비교	369
〈표 10-47〉 취업상태 - 시계열 비교	370
〈표 10-48〉 현재 직업 - 시계열 비교	370
〈표 10-49〉 일자리 형태 - 시계열 비교	371
〈표 10-50〉 임금근로자의 고용 현황 - 시계열 비교	371
〈표 10-51〉 부채 현황 - 시계열 비교	372
〈표 10-52〉 아르바이트 경험 - 타 조사 비교	372
〈표 10-53〉 아르바이트 이유 - 타 조사 비교	373
〈표 10-54〉 고용율과 실업율 - 타 조사 비교	373
〈표 10-55〉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 타 조사 비교	374
〈표 10-56〉 현재 직업 - 타 조사 비교	375
〈표 10-57〉 임금근로자의 고용 현황 - 타 조사 비교	375
〈표 10-58〉 현재 일자리의 세후 월급 - 타 조사 비교	376
〈표 11-1〉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381
〈표 11-2〉 대리양육체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무경험 비율	382

〈표 11-3〉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83
〈표 11-4〉 대리양육체별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383
〈표 11-5〉 보호종료 후 필요 지원	384
〈표 11-6〉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가정위탁센터선생님 적정 연락 빈도	386
〈표 11-7〉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387
〈표 11-8〉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88
〈표 11-9〉 대리양육체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389
〈표 11-10〉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89
〈표 11-11〉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무경험 비율	390
〈표 11-12〉 자립정착금 금액	390
〈표 11-13〉 자립정착금 사용처	393
〈표 11-14〉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	395
〈표 11-15〉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사용처	397
〈표 11-16〉 자립수당 사용처	400
〈표 11-17〉 기타 현금지원 금액	402
〈표 11-18〉 기타 현금지원 사용처	404
〈표 11-19〉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406
〈표 11-20〉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407
〈표 11-21〉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408
〈표 11-22〉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가정위탁센터 선생님의 적정 연락 빈도	409
〈표 11-23〉 선호하는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411
〈표 11-24〉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중복 응답)	412
〈표 11-25〉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도움정도	412
〈표 11-26〉 자립 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중복 응답)	413
〈표 11-27〉 자립 관련 서비스 경험의 도움정도	413
〈표 11-28〉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414
〈표 11-29〉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 - 시계열 비교	415
〈표 11-30〉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 - 시계열 비교	416
〈표 11-31〉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시계열 비교	416
〈표 11-32〉 지원금 받은 금액 - 시계열 비교	417
〈표 11-33〉 경제적 서비스별 사용처	418



[그림 2-1] 우리나라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8개 영역	26
---	----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매년 약 2,600여 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성인으로서의 자립생활을 시작함. 준비되지 않은 보호종료와 퇴소는 보호종료아동을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노숙, 조기임신, 성병, 범죄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킴
-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후의 자립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자립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후의 자립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자립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 보호종료 및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준비 및 성인기 적응 과정의 실태 및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준비 및 자립생활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방법

가.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 2020년 9월 17일부터 11월 31일까지, 보호종료 후 1년~3년차 아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립수당 이용자의 연락처를 수령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4, 5년차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 요청 후, 스노우볼링 방법을 통해 표본 수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함

나. 표본

- 모집단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에서 가정외보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아동 1~5년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836명이 본 조사에 참여함. 최종 표본 수는 모든 문항에 응답한 아동만을 포함하였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 보호종료아동 3,104명으로 구성됨

다. 조사방법

□ 보호종료예정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내 생활하는 아동은 각 시설의 담당자를 통해 설문을 수행함. 258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위한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발송하여 기관의 담당자가 대상 아동에게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별 지정된 담당자에게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발송하여, 각 센터 관할 내에 있는 보호종료 예정아동에게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전달하여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함

□ 보호종료 1년~3년차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보호종료 1년~3년차의 자립수당 이용자 리스트¹⁾ 6,431명을 2개 그룹으로 무작위추출함. 1차, 2차 대상 그룹으로 나누어 전체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조사 안내 유선 연락을 수행하여, 1년~3년차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짐

□ 보호종료아동 4년, 5년차

- 보호종료아동 4년, 5년차와 연락을 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1) 휴대전화번호만 수령(연령, 성별 등 개인 식별 정보 없음)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웹 링크(URL)를 제공하고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함

라. 조사표

□ 보호종료예정아동용과 보호종료아동용으로 2종을 구성함.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서비스의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됨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주요 지표	문항 수	주요 지표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 기간, 현재 보호 상태	6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 기간	8(8)
건강	건강검진, 구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4(5)	건강검진, 구강검진,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건강보험	7(11)
심리 정서	주관적 자립 준비 정도,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보호종료 앞둔 심정	6(13)	주관적 자립 수준,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5(8)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3(6)	부모와의 관계,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5(11)
주거	희망하는 주거지·주거유형, 주거비 마련계획,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주거지원 필요도	5(6)	주거유형·비용, 동거인, 주거비 마련방법,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취약 주거 경험	6(8)
교육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주관적 학업수준, 등록금·생활비 마련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7(9)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등록금·생활비 마련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5(7)
고용 및 경제	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직업, 진로활동 경험 및 만족도, 진로체험 참여 및 만족도, 취업지원	6(9)	아르바이트 경험, 직장 그만둔 경험, 취업시 어려움, 필요한 취업지원, 취업상태, 실업률, 직업, 고용형태, 급여, 생활비, 부채(빚)	8(20)
자립 지원 서비스	자립교육프로그램·서비스, CDA, 종료 후 연락 주기,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자립지원 정보 제공 방법	5(8)	보호당시 자립프로그램·서비스, 자립정착금·CDA·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보호 종료 후 어려움, 필요한 지원	7(17)

주: ()는 보조문항을 포함한 문항 수를 의미함

3. 주요 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일반적 특성

4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732명으로, 남자와 여자 아동이 각각 366명(50%)씩 포함됨. 평균 연령은 19.3세이며 이 중 만 17세가 14.1%, 만 18세가 39.2%,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 46.7%임.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56.4%가 고등학교 재학·졸업·중퇴·휴학, 43.3%가 2-3년제 대학 혹은 4년제 대학교 수준임. 응답자의 51.9%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가 없거나(34.2%), 존재를 모르는 경우(13.9%)는 48.1%임
- 보호종료예정아동 응답자의 보호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35%, 공동생활가정 7.5%, 가정위탁 57.5%이며 전체 아동의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은 10.9년임. 응답자의 65.7%가 만 18세 이상으로 연장보호 상태이며, 34.3%는 만 17세로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일반적 특성

-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3,104명으로, 남자가 47.1%, 여자가 52.9%임. 평균 연령은 21.3세이며 이 중 만 20~21세가 41.5%로 가장 많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2.8%, 2-3년제 대학 재학·졸업자가 27.4%, 4년제 대학 재학·졸업자가 24%임. 학교에 재학 중인 19.9%의 아동을 포함하여 59.2%가 미취업 상태이며 전체 응답자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임. 응답자의 48.7%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가 없거나(38.6%), 존재를 모르는 경우(12.7%)는 48.1%임
- 보호종료아동 응답자의 보호종료 당시 보호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45.7%, 공동생활가정 10.7%, 가정위탁 43.7%이며 전체 아동의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은 11.8년임. 보호 종료 유형은 만 18세의 만기 퇴소가 57.2%, 만 18세 이후 연장보호 종료가 42.8%로 나타남. 응답자 중 83.8%는 보호종료 1~3년차, 4, 5년차는 16.2%임

나. 건강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건강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은 53%, 구강검진 수검율은 58.7%임. 건강검진 수검율은 아동양육시설 93%, 공동생활가정 74.5%, 가정위탁 25.9%, 구강검진 수검율은 아동양육시설 84.8%, 공동생활가정 69.1%, 가정위탁 41.6%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에 비해 건강검진, 구강검진 수검율이 크게 높음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3.8(5점 척도)점으로, 응답 아동의 57.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했고 5.5%가 매우 나쁘거나 나쁘다고 응답함.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아동양육시설(76.5%)과 공동생활가정(72.7%)에서 많고, 나쁜 편이라는 응답은 가정위탁, 4학년제 대학교 이상, 만 19세 이상에서 가장 많음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1%이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경우 9.1%,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8.2%로 가정위탁 아동(2.6%)보다 3배 이상 높아 보호유형에 따른 장애아동 비율이 두드러짐

□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실태

- 보호종료아동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은 47.1%,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은 45.3%이며 보호종료 1년차 또는 자립수당 대상 응답자의 수검율이 높게 나타남. 보호종료 당시 보호유형별 차이는 건강검진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 가정위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구강검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보호종료아동의 35.8%는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43.3%로, 질병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전혀 또는 완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음
- 보호종료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3.4점(5점 척도)으로, 응답자의 41.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했고, 12%가 매우 나쁘거나 나쁘

다고 응답함. 보호종료아동 중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이며, 공동 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7.2%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2.7%)보다 크게 높아 보호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 보호종료아동이 가입한 건강보험종류는 의료급여 57% 직장가입 30.9%, 지역가입 12.0% 순으로 나타남. 전체 보호종료아동 응답자의 9.7%가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체납 경험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39%로 높게 나타남. 보호종료 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립수당 대상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많았고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는 ‘돈이 없어서(39.2%)’,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26.2%)’ 등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실태 비교

- 최근 1년 내 구강검진 수검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 58.7%, 보호종료아동 45.3%로 나타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13.4%p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 3.8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3.4점에 비해 높음. 특히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매우 나쁨+나쁨)가 보호종료예정아동은 5.5%, 보호종료아동은 12%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실태가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은 53%, 구강검진 수검율은 58.7%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12~17세 아동(건강검진 수검율 39.6%, 구강검진 수검율 56.1%)에 비해 높으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좋음+매우 좋음)한 비율은 57.5%로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13~19세 응답(80.3%),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응답(70.0%)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최근 1년 내 질병 경험은 64.2%로, 2016년 53.9%에 비해 높아짐. 질병을 경험했으나 완치 또는 치료 중인 경우는 43.3%로 2016년 (50.7%)에 비해 높아졌고 전혀 또는 완전히 치료받지 않은 이유 중 ‘치료비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37.7%로 2016년 35.8%에 비해 높아짐.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종류는 의료급여가 57%로 2012년 28.8%, 2016년 41.1%에 비해 높아짐

- 보호종료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 '매우 나쁨-나쁨'은 22.4%로 2016년 14.1%, 2012년 21.7%에 비해 증가한 반면, ' 좋음-매우 좋음'은 77.6%로 2016년 85.9%, 2012년 78.3%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은 47.1%로 2018년 국민건강통계 19-29세 응답(46.1%)와 비슷했으나,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은 45.3%로 2018년 국민건강통계 19~29세 응답(34.8%)에 비해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좋음+매우 좋음)한 비율은 41.5%로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20-29세 응답(69.4%), 2019년 복지패널 일반 응답자(79.6%)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2019년 복지패널 저소득 응답자(38.8%)와 비슷하게 나타남

다. 심리정서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자립준비정도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각각 11점 척도(0=전혀 준비가 되지 않음, 10=완벽하게 준비됨)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자립준비는 4.8점, 심리정서적 자립준비는 6.1점, 사회적 자립준비는 6.0점으로 경제적 자립 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장 낮았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정도 인식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점이고 전반적 심리행동문제는 5점 만점에 2.3점으로 보통이하의 문제 행동 수준임. 11점 척도(0=가장 나쁜 상태, 10=가장 좋은 상태)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평균은 5.9점으로 보통 수준임
- 자살 생각 경험과 관련해 42.8%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가족

갈등 등 가정생활문제가 32.9%,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14.7% 등이었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38.3%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도움으로는 34.8%가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보호 종료를 앞두고 기대되는지, 걱정되는지 묻은 결과 4명 중 3명 정도 (76.2%)의 아동이 걱정된다고 응답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걱정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짐. 걱정된다고 응답한 경우, 걱정되는 이유는 취업·진학 (39.1%), 생활비·학비 등 경제적 문제(32.4%), 거주할 집 문제(14.0%) 등이고, 걱정되는 와중에 일부라도 기대되는 부분은 ‘아동이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신의 자립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자립정도는 5.1점, 심리정서적 자립정도와 사회적 자립정도는 각각 5.7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적 자립 정도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모유무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9점이고 전반적 심리행동문제는 5점 만점에 2.5점, 삶의 만족도 평균은 5.3점임
- 보호종료아동의 50%는 죽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33.4%,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문제가 19.5%, 정신과적 질환이 11.2%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대처한 방법으로는 37.4%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생각과 관련해 필요한 도움으로는 27.0%가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비교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생각하는 자립 준비 정도와 보호종료아동이 생각하는 자립 정도를 비교하면, 경제적 자립의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생각하는 준비

정도는 4.8점인 것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이 인식하는 자립정도는 5.1점으로 더 높으나, 심리정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의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6.1점, 6.0점)에 비해 보호종료아동(5.7점, 2.3점)이 더 낮음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각각 3점, 5.9점으로 보호종료아동(2.9점, 5.3점)에 비해 높고, 심리행동문제 수준은 보호종료아동(2.5점)이 보호종료예정아동(2.3점)에 비해 높음. 자살 생각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약 7.2%p 높음. 즉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수준이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부정적임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6.45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은 3점으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2.85점)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응답은 42.8%로,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13.1%),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1.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은 2.9점으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5.2점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0.28점) 증가함. 2019년 한국복지패널 일반 패널(3.22점)에 비해 낮고 저소득 패널(2.92점)과 비슷함
-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19~29세 응답 6.0점,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9~24세 응답 6.5점에 비해 낮음
-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생각 비율은 50%로 2019년 한국복지패널의 일반 패널(2.61%), 저소득 패널(3.29%), 2018년 자살실태조사 19~29세 응답(16.3%)에 비해 매우 높음.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의 경우,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9~29세 응답자는 성적·진로 문제(29.9%), 남녀 문제(24.4%) 등을 높게 응답한 것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인 문제(33.4%), 가정생활 문제(19.5%)가 높게 나타남

라. 사회적 관계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1.9%는 부모가 있는 반면, 34.2%는 부모가 없고, 13.9%는 부모의 생존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가 있는 아동의 48.4%는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고 응답함.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의 만남 정도는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7%로 가장 많고, 만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7%,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응답이 24.4%임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18.3점(24점 만점)으로 보호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아동양육시설(18.9점)’, ‘공동생활가정(18.1점)’, ‘가정위탁(17.9점)’의 순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24.6%)’, ‘조부모(17.8%)’, ‘학교나 동네 친구(14.9%)’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 보호종료아동의 48.6%는 부모가 있는 반면, 38.7%는 부모가 없고, 12.7%는 부모의 생존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있는 경우의 10.9%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부모와의 만남정도는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고 만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음
- 보호종료 이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의 관계는 가깝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았고 매우 가깝다는 의견도 22.3%로 절반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이후에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관계가 가깝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의 연락이나 방문 빈도는 주 1회 24.1%, 연락 또는 방문 안함 18.6% 순임. 연락이나 방문한 이유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8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립서비스 지

원 제공(21.1%)', '혜택 관련 정보 제공(20.0%)' 등임

-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17.1점이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학교나 동네 친구'(20.5%),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17.7%), '형제·자매'(12.1%)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비교

- 부모가 있다는 응답은 보호종료아동(48.7%)보다 보호종료예정아동(51.9%)이 더 높음. 부모가 있음에도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3.7%, 22.9%이며,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각각 56.7%와 61.8%로 가장 많음
- 사회적 지지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24점 만점에 각각 18.3점, 17.1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이 더 낮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24.6%)', 보호종료아동은 '학교나 동네 친구(20.5%)'에게 요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차이를 보임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보호종료아동 중 부모가 있는 비율은 48.6%로 2016년(81.3%)에 비해 적고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10.9%로 2016년(27.0%)에 비해 적음. 부모와 연락하지(만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과거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으며 2012년 조사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의 연락이나 만남 빈도는 18.6%로 2016년에 비해 5.8%p 감소였고 2016년, 2020년 모두 연락(만남) 이유가 주로 안부 인사임.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의 관계는 2020년에 2016년 대비 '가깝다'는 응답이 8.2%p 감소한 반면, '매우 가깝다'는 응답은 10.2%p 증가함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10.9%만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반면,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56.7%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해 큰 격차를 보임

마. 주거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거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47.3%이고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은 '나 혼자 사는 집'이 69.9%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은 '잘 모르겠다(10.8%)'는 응답도 많아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1명이 보호종료 후 주거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알 수 있음.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순위는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이 47.3%,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9.9%)' 등임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주거자금 마련 계획(중복 응답)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이 55.5%로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은 '자립정착금(43.0%)', '디딤씨앗통장(CDA)(32.2%)', '자립수당(24.2%)' 순으로 보호종료 후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음
-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9명 이상(93.2%)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한 주거지원 1순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52.3%)', '월세(임대료) 지원(26.5%)', '전세자금(보증금) 대출(13.3%)' 등의 순임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실태

-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주거 유형은 (정부지원)전세임대주택이 43.2%, (정부지원)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이 4.7%로 보호종료아동 대상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을 이용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7.9%로 절반 정도임. 본인 포함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수는 평균 1.9명이며,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이 61.6%임. 동거인의 유형(중복 선택 가능)은 친인척·조부모가 38.2%, 부모·형제(35%)가 순임
- 보호종료아동이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순위는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이 48.1%,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가 17.5%,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가 8.7% 순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자금 마련 방법(중복선택 가능)은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이 45.8%, '자립정착금'이 26.4%, '자립수당'이 24.1%, '디딤씨앗통장(CDA)'가 18% 등으로, 공적인 자산형성 및 현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근로소득(21.6%)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한 경우는 응답자 5명 중 1명 정도임

- 보호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지인의 집, 구금시설, 노숙,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영구적인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경우는 20.6%로,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2명 정도가 취약 주거를 경험함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실태 비교

-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것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음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실태 시계열 특성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영구/공공/국민임대, LH·SH 등 전세임대의 비율이 증가함. 영구/공공/국민임대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20년 현재 3.3%p 증가하였고, 전세임대는 40.1%p 증가함. 주거비 마련 방법(중복 선택 가능)은 2016년에 비해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11.6%p, '디딤씨앗통장(CDA)'가 7%p, '보호 중 받은 후원금'이 1.8%p씩 증가함. 보호종료아동 주거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보호종료아동의 혼자 사는 비율은 62.5%로 '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와 비교한 결과 보호종료아동의 가구원 수는 평균 1.9명으로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2.39명) 보다 낮고,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1인 가구 비율이 32.3%p 높아 주거 지원 시 1인 가구 수요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바. 교육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고등학교 이하가 56.7%, 2-3제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포함)이 17.7%,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2.5%, 4년제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포함)이 20.9%, 졸업이 2.3%로 나타남. 특히 4년제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 시설에 비해 가정위탁 아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음’이 51.2%로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이유로는 ‘학교 공부에 흥미 없고 따라갈 수 없어서’가 28.0%,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은 평균 5.7점이었고, 연령, 교육수준, 장애 유무, 보호유형, 보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임.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비장애아동, 가정위탁 아동, 연장보호 아동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7.0점이었고, 연령, 교육수준, 보호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의 아동이 2-3년제,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아동보다, 가정위탁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연장보호 아동 중)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방법 관련, 등록금 마련의 경우(중복응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85.5%, 학교장학금 26.5%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생활비 마련 방법의 경우(중복 응답) 아르바이트가 46.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8.8%로 주된 방법으로 응답함
- 최우선 진로 계획 관련하여, 취업이 60.9%, 상급학교 진학이 26.6%, 진로 미정이 7.7%, 창업이 2.9, 이직이 0.7% 순이었으며, 기타가 1.2%였음. 희망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만 19세 이상일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가정위탁 아동일수록, 연장보호 아동일수록 4

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했음.

□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실태

-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37.2%, 2-3제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포함)이 16.8%,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16.8%, 4년제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포함)이 15.5%, 졸업이 12.9%로 나타남.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대리양육체계의 가정위탁 아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음’이 52.1%로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이유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가 33.1%,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방법 관련, 등록금 마련의 경우(중복응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82.4%, 학교장학금 22.2%로 주된 방법으로 응답하였고, 생활비 마련 방법의 경우(중복 응답) 아르바이트 54.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0.1%로 주된 방법으로 응답함
- 최우선 진로 계획 관련하여, 취업 56.7%, 진로 미정 19.4%, 창업 8.1%, 이직 7.5%, 상급학교 진학 6.8% 순이었으며, 기타 1.5%였음. 희망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실태 비교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로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모두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를 각각 51.2%, 52.1%로 가장 높게 응답함
- 휴학 및 학업 중단의 이유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를 상위 응답으로 선택하여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냄
-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등록금 마련의 주된 방법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생활비 마련의 주된 방법으로는 ‘아르바이트’를 응답

합

- 진로계획 관련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취업(60.9%) 및 상급학교 진학(26.6%)을, 보호종료아동은 취업(56.7%) 및 진로미정(19.4%)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희망 교육수준은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향후 진로 계획의 경우,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각각 82.1%와 93.5%의 주요 계획으로 응답된 반면, 2020년 본 조사에서는 상급학교 진학(26.6%)보다 취업(60.9%)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보호종료아동의 등록금 마련방법은 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 12년도, 16년도, 20년도 모두 과반수 이상의 1순위로 응답됨. 생활비 마련 방법은 아르바이트가 12년도(90.5%), 16년도(55.2%), 20년도(54.3%) 모두 1순위로 응답되었으나, 20년도에는 그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40.1%)와 자립수당(22.3%)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사. 고용 및 경제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고용 및 경제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63.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2-3년제, 4년제 대학교 이상 아동은 학비와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유가 고등학교 이하 아동보다 높고, 가정위탁 아동은 시설 아동보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취업 준비 사업으로 장려금지원사업(24.9%)과 연수 체험 사업(21.6%)을 가장 많이 응답함

- 희망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2.9%), 서비스 종사자(16.7%), 관리직 종사자(9.8%), 사무 종사자(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2.9%) 순으로 나타남
- 자립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168.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예상 생활비를 높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및 경제 실태

- 87.4%의 보호종료아동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장애인일수록, 건강 보험이 지역가입자 일 때, 보호유형이 가정위탁인 경우, 연장종료 아동일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 필요가 64.1%, 독립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13.2%로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 48.8%가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직장을 그만둔 경험률이 높았음.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23.4%,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21.9%로 가장 높았음
- 보호종료아동 41.4%가 취업상태였으며, 그 중 임금근로자는 94.4%로 다수를 차지함.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63.6%로 비정규직 36.4%보다 높았음. 고용기간은 상용직이 74.7%, 임시직이 21.3%, 일용직이 3.9% 순이었음.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2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3%), 사무 종사자(15.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0.5%), 단순 노무 종사자(7.6%), 판매 종사자(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9%), 관리직 종사자(3.8%),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0.6%) 순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보수 수준(세후 월급)은 평균 182.2만원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유무, 건강보험종류, 보호종료 연차, 자립수당 대상에 따라 세후 월급에 차이를 나타냄.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직장가입자일수록, 보호종료연차가 높을수록(자립 4~5년차) 세후

월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79.6만원 이었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가입자일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남.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채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보호종료 4, 5년차는 각각 34.3%, 34.5%의 응답률을 나타냄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및 경제 실태 비교

- 아보호종료예정아동은 63.8%가, 보호종료아동은 87.4%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음.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용돈이 필요해서’가 각각 70.2%와 64.1%로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높았던 응답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및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높게 쌓기 위해’를,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를 선택함
- 정부에게 바라는 취업 준비 사업에는,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장려금지원사업’ 및 ‘연수체험 사업’을 가장 높게 선택함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2년에는 83.9%이었고, 2020년에는 63.8%로 응답함.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는, 2012년에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56.6%)’와 ‘학비를 벌려고(13.2%)’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020년에는 ‘용돈이 필요해서(69.8%)’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6.6%)’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보호종료아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12년에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가 63.4%, 2016년에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가 77.4%, 2020년에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6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15-29세)의 고용률이 43.5%, 실업률이 8.9%인데 반해, 2020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고용률이 40.8%, 실업률이 16.3%를 나타냄

아. 자립지원서비스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9.8%가 자립준비 프로그램 8개 영역 중 최소 1개 영역 이상의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보호 유형에 따라 가정위탁(66.7%), 공동생활 가정(12.7%), 아동양육시설(2.3%) 순으로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91.3%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보호 유형에 따라 가정위탁(14.3%), 공동생활가정(1.8%), 아동양육 시설(1.2%) 순으로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 후 필요 지원 관련(중복 응답), 경제적 지원이 90.6%, 주거지원이 77.3%, 건강지원이 47.5%, 취업 및 직업 관련 지원이 3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차원의 적정 연락 빈도에 대해, 월 1회가 31.7%, 2-3개월 1회가 22.0%, 주 1회가 18.4%, 6개월 1회가 12.0%, 필요하지 않음이 8.1%, 1년 1회가 5.2%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과 학령이 낮을수록, 일반 만기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일수록 빈번한 연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관련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이 41.7%,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이 32.1%, 시설부모님(위탁부모)이 20.1%,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가 5.7% 순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자립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관련, 보호종료아동의 64.2%가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보호 유형에 따라 가정위탁(63.5%), 공동생활가정(24.1%), 아동양육시설(12.1%) 순으로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87%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보호 유형에

따라 가정위탁(25.8%), 공동생활가정(4.8%), 아동양육시설(2.5%) 순으로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 후 현금 지원과 사용처 관련, 자립정착금 평균 금액은 498.3만원으로, 연령과 보호종료 연차가 낮을수록 자립정착금 금액이 높은 추세를 나타냄. 사용처는 식비(28.9%), 주거관리비(27.7%), 저축 및 보험(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식비 지출이, 가정위탁인 경우 저축 및 보험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디딤씨앗통장의 평균 저축액은 612.1만원, 표준편차 366.1만원으로 개인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저축액은 아동양육시설(668.7만원), 공동생활가정(535.2만원), 가정위탁(491.7만원) 순으로 나타남
- 자립수당의 경우, 가장 높은 사용처가 '식비(40.9%)' 및 '주거관리비(19.5%)', '교통/통신비(11.1%)'로 나타남
-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및 필요 지원 관련하여, 생활비 및 학비 등의 필요한 돈, 거주할 집 문제,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자격에 대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으며,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보호종료 사후관리 차원의 적정 연락 빈도에 대해, 월 1회 27.9%, 2-3개월 1회 20.3%, 필요하지 않음 18.9%, 6개월 1회 12.3%, 1년 1회 6.6%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과 보호종료 연차가 낮을수록 빈번한 연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관련하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이 41.0%, 자립지원전담요원 27.5%, 시설부모님(위탁부모) 16.7%,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13.7% 순으로 나타남.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선호하고, 양육시설은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선생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비교

-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련, 보호종료예정아동은 40.2%, 보호종료아동은

35.8%가 참여 경험이 부재하다고 응답함

- 자립 관련 서비스 경험은 보호종료예정아동 8.7%와 보호종료아동 13%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또한, 두 집단 모두 ‘디딤씨앗통장(CDA)’ 이용 경험을 각 66%, 72.8%로 응답하며,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임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원은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의 시계열 특성 및 타 조사와의 비교

-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시계열 추이를 비교하면, 2012년보다 2020년이 646.6만원으로 약 270만원 높아지면서, 과거 2012년 저축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의 시계열 추이를 비교하면, 2016년도에는 생활비 및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31.1%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도에는 거주할 집 문제(23.6%),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과 자격 부족(22.1%)의 응답률이 더 높음. 경제적 지원의 확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한편, 주거와 취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지원 금액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은 증가, 기타 현금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자립수당과 더불어 공식적인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됨

4. 결론 및 시사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심리정서,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자립준비 상황과 자립 실태, 그리고 자립 지원 욕구를 살펴 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건강 영역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이 가정위탁에 비해 보호종료 예정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장애가 가장 많음.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별화된 보호 및 자립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함
- 질병에 대해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그 이유로 '치료비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도 높아짐. 건강관리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자립준비 교육을 내실 있게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건강보험과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이해도가 낮아, 보호종료 전 건강보험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심리정서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삶의 만족도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고 자살생각 비율은 높음. 특히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심리정서적 지표가 부정적임. 보호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교육이 필요하며, 보호종료 후의 사후 관리 및 관련 지원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보호종료아동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필요시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의 심리상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기관을 연계하고, 정기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 보험 내용 개선 및 지원 기간의 확대, 또는 비용 지원이 필요함
- 가정위탁, 그 중에서도 대리 또는 친인척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시설 아동에 비해 낮음.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사례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생활, 보호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 관계 영역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1순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

님'으로 주양육자 중심의 연속적인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원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회적 지지집단의 연계, 관리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지원이 필요함. 자립 계획 및 준비 과정에 원가족 참여의 유도,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탐색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낮음. 가족, 선생님, 멘토, 친구 등 의미 있는 주변인을 자립계획과 준비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호종료 후 사회적지지 체계를 발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주거 영역

- 보호아동이 15세에 도달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희망하는 주거유형과 영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후 주거 유형으로 '나 혼자 사는 집'을 선호하였고, 보호종료아동의 1인 가구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시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개인별 주거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주거지원제도로의 이동이나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영속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 영역

- 보호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교육 수준은 향후 취업의 질, 소득 수준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상급학교 진학을 독려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과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과정에

서의 흥미·적성 개발의 기회 제공,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고용 및 경제 영역

- 보호종료아동의 고용율과 실업률, 고용의 질, 소득은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열악함. 고용의 질이 함께 고려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특화된 고용율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금융·경제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종료 후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득 마련 방안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차가 높아질수록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지표가 부정적임을 확인함. 청년 고용과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현재와 같이 열악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화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함

□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남.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과정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 지출과 필요한 소득 수준, 이에 따른 가용 자원과 일자리 마련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만족도가 높은 자립지원서비스도 주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자립수당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로 나타남. 자립정착금의 전국적 상향 조정, 자립수당의 제공, 디딤씨앗 통장 금액 상승 등으로 인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자립수당은 법적 사후관리기간인 보호종료 5년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는 4년제 대학 교육 및 진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교육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직업을 찾을 수 있고, 향후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질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별 아동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 자립지원기관의 전국적 설치와 운영, 아동 보호와 자립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주요용어: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실태, 자립지원서비스 욕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양육체계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010년 34,273명에서 지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약 만 명이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23,91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아동인구 대비 보호대상아동 비율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0세 ~17세 아동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의 절대적 숫자는 감소 추세이나 그 비율은 2010년도의 0.00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표 1-1〉 우리나라 전체 아동인구 대비 보호대상아동 비율

(단위: 명, 비율)

구분	0-17세 아동 인구	보호아동 수	보호대상아동 비율
2010	10,063,702	34,273	0.003406
2011	9,833,885	33,040	0.003360
2012	9,605,674	31,640	0.003294
2013	9,377,026	31,115	0.003318
2014	9,125,709	30,410	0.003332
2015	8,897,409	29,185	0.003280
2016	8,680,581	28,102	0.003237
2017	8,439,359	26,459	0.003135
2018	8,163,359	25,113	0.003076
2019	7,888,218	23,918	0.003032

자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898&page=1

2) 보건복지부, (2020). 2019 보건복지백서,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이 가운데 매년 약 2,600여 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성인으로서의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2,587명이며 이 중 만기 퇴소자가 1,312명(50.7%), 연장보호 종료자가 1,275명(49.3%)으로 약 50%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를 기점으로 대리양육체계를 떠나 혼자만의 자립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정을 떠나서도 상당 기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자립을 이루어 가는 일반 아동과 달리, 보호아동은 보호종료와 함께 대리보호체계의 보호와 지원이 단절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자립 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보호종료와 퇴소는 보호종료아동을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노숙, 조기임신, 성병, 범죄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킨다(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후의 자립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자립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후의 자립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자립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3항에는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가 4년을 주기로 수행되어 왔으며, 2020년도 조사는 2016년도에 이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관한 4번째 조사이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자사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년도와 2012년도에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연장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위탁가정 혹은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6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퇴소 아동을 모두 포함하였지만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의 실태조사 자료는 전체 대리양육체계 퇴소 아동의 보호종료 전·후의 자립과정에 대한 실태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호종료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건강, 심리·정서,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립준비, 자립상황, 서비스 및 정책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과거의 조사는 일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의 일부분 혹은 단편적인 파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보호종료아동 특성상 연락두절 등 표본 모집 및 예산 상 제약으로 표본의 수 및 대표성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신뢰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 및 확산에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2020년도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2019년도 4월부터 도입된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구축된 보호종료아동과의 연락망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종료아동의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동을 포괄적으로 조사에 포함함으로써 그 간의 한

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보호종료 전·후의 자립 준비 및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고, 보호종료 및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준비 및 성인기 적응 과정의 실태 및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준비 및 자립생활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대리보호체계에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대리보호체계에서 퇴소하여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삶을 살펴 보았다. 건강, 심리정서,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과 같은 다 영역의 현황을 분석하여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반영되어야 할 지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에서 2016년도까지 수행된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조사 개요와 결과를 분석하여 2020년도 조사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연구 방법 및 지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국외 사례에 대해 문헌 분석하였다. 미국의 보호종료아동 실태 조사인, National Youth Transitional Database(NYTD)와 영국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통계, SSDA903²⁾ OC3³⁾를 검토하여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반영할 지표를 탐색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시사점을 모색 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와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의 영역과 문항, 조사방법을 설계·확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보호아동과 보호

2) SSDA903: Statistical return on children looked after by the local authority. 강혜규 외(2012). p.106.

3) Statistical return on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who leave care on their 19th birthday. 강혜규 외(2012). p.106.

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으로 조사 비용, 기간 등의 조사 상황을 고려하여 4,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선정하였으며, 보호종료 직전 및 연장보호 아동 약 1,000명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3,000명을 모집하였다. 조사표는 보호종료 및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심리사회,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와 같은 다양한 성인기 적응 영역,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도 조사 문항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웹기반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양적 분석을 통해 각 영역에 대해 자립 실태와 욕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과거 조사 결과와의 비교, 국내외의 유사집단과의 비교·제시⁴⁾를 통해 보호종료 및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4) 유사 연령의 일반 아동·청소년·청년과의 실태 비교를 위해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지만, 조사시기와 방법이 다르고, 특히 조사 대상자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2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 제2절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 제3절 소결

제2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본 절에서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리양육체계 아동의 자립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호아동 중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 준비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종료 후 사후 관리와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과 이들이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영역의 핵심 영역에서의 실태와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1. 보호종료(예정)아동 현황

가. 보호종료예정아동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대리보호체계에서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은 약 3만 명에 달하고 매년 약 4천 여 명을 신규로 보호조치하고 있다.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준비지원은 사실상 입소 또는 위탁이 결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 본격적인 자립준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있고 원칙상 보호종료 시기가 18세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자립준비지원 기간은 보통 3년⁵⁾ 정도이며, 연장보호⁶⁾를 받을 경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

5) 연장보호 아동의 경우, 18세 이후의 연장 기간에 따라 더 길어 질 수 있음.

6) 사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②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이 외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사실상 주거 등 자립준비 여건이 미흡한 경우를 포함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적인 보호종료아동을 준비하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은 연간 약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전체의 6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동양육시설(30.0%), 공동생활가정(9.8%) 순이다. 자립 준비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대를 보면 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16~18세 아동이 가장 많다(표 2-1).

〈표 2-1〉 자립 준비 지원 대상 아동 현황

(단위: 명)

	보호유형별			전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16~18세	1,722	539	2,727	4,988
19세 이상	1,050	416	1,230	2,696
연장아동	392	82	2,404	2,878
전체	3,164	1,037	6,361	10,562

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 중 87명은 일시중지아동(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질병 등의 사유 등에 해당하여 연장보호된 아동 중 군입대로 인하여 보호가 일시중지된 아동)임.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23.

나. 보호종료아동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에 따르면 2019년 보호종료아동은 2,587명이며 이 중 만기 퇴소자가 1,312명(50.7%), 연장종료자가 1,275명(49.3%)이다.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당시 생활했던 아동복지시설 유형은 가정위탁이 1,423명(55.0%)으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992명(38.3%), 공동생활가정이 172명(6.6%)순이다.

〈표 2-2〉 자립 준비 지원 대상 아동 현황

(단위: 명)

	보호유형별			전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만기퇴소	645	120	547	1,312
연장종료	347	52	876	1,275
전체	992	172	1,423	2,587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103.

2018년도 기준, 2,606명의 보호종료아동은 2011년도의 3,644명에서 약 천 명 정도 감소하였지만, 2015년도 이후 최근까지 2,6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자는 약 12,000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보호종료 전 자립 준비가 필요한 보호종료예정아동 11,865명을 포함하였을 때, 2018년도 기준 33,865명이 자립지원 대상자로 분석되며 연간 약 3만 명 이상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 전·후의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보호종료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종료 및 퇴소아동 수			
		소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2011		3,644	945	227	2,472
2012		2,995	900	200	1,895
2013		2,207	1,065	85	1,057
보호종료 5년차	2014	2,172	1,008	82	1,082
보호종료 4년차	2015	2,677	980	140	1,557
보호종료 3년차	2016	2,703	1,042	139	1,522
보호종료 2년차	2017	2,593	1,034	153	1,406
보호종료 1년차	2018	2,606	1,065	192	1,349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 2019 보건복지백서,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2.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영역별 실태

가. 건강

선행 연구들은 보호 아동의 건강 상태가 평균적인 수준에 비하여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양정선, 김수지와 이지선(2016)는 경기도의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신체건강 상태를 2015년도 학생 건강검사의 표본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보호 아동 중·고등학생의 신장과 체중이 전국 평균적인 수준에 비하여 낮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해당 연구에서는 보호 아동의 건강 상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 격차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설 보호기

간이 길수록 보호의 안전성이 높아짐으로써 아동기의 성장 격차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는 응답 비율 역시 전국 평균 다소 낮은 수치(전국 평균 96.6%, 보호 아동 90.9%)를 나타내는데, 특히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이 전국 평균 수치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고, 이는 신체적으로 왜소한 특성과 주관적 건강 상태 간 관련성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신장과 체중으로 살펴본 보호 아동의 건강 상태는 이 연구에서 조사한 보호 아동의 식사행태 조사 결과와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시설 보호 중인 중·고등학교 아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2.3%가 아침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국 단위의 해당 응답 비율인 16.4% 보다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저녁 식사 행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호 아동 3.3%, 전국 평균 0.6%), 항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보호 아동 70.4%, 전국 평균 84.2%)에 대하여 보호 아동과 전국 평균 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보호 아동의 건강하지 못한 아침·저녁 식습관은 이들의 낮은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높은 건강 수준은 긍정적인 학교생활 및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성인기의 높은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사회적 성취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자형, 2016). 건강 격차는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자 시발점으로, 아동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한 학습 과정에서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이자형, 2016). 특히, 신체적 건강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의 필수 요소로 보호 아동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에 따르면 응답자의 14.1%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6.1%는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다.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었던 응답자 중 41.6%는 질병을 일부만 치료하였고 7.8%는 전혀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보호종료아동 2명 중 1명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거나 전혀 치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치료비가 없어서’가 7.8%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자립생활기술 표준화프로그램에 식습관,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만 실제로 자립한 후에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보호종료아동은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이정애·정익중, 2020, p86). 건강은 학업,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여러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 생활 습관 실태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질적 연구를 통해 건강 문제와 관련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가정외보호종료아동 5명의 건강 관련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이정애와 정익중(2020)의 연구에서는 식사와 생활이 불규칙하고 병원비를 가장 아까워하는 등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삶이 포착되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권지성·정선옥, 2009)에서는 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는데, 퇴소 후에는 끼니를 스스로 해결 하는 것이 어려워 굶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인 건강, 의료 문제와 관련해 지원 내용을 내실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 체납자 구제 및 의료지원이 개선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아름다운재단, 2019).

나. 심리정서

원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죽음과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많은 가정 외 보호아동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상정, 강현아, 노충래, 우석진, 전종철, 정익중, 2017).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분노, 불안, 상실감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상태가 취약할 수 있다(이정애, 김시아, 김지선, 정익중, 2019).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공격성 평균은 24.8점(18문항, 3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인데 이러한 수치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해당 연령 아동의 공격성 평균인 22.7점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치이다(양정선, 김수지, 이지선, 2016). 조사의 결과는 또한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이 다소 높았다(25.9점 > 23.8점)(양정선, 김수지, 이지선, 2016). 보호 아동의 우울/불안 평균은 17.6점(13문항, 3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인 16.3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았다

(양정선, 김수지, 이지선, 2016). 보호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26점(4점 척도로 조사)으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인 2.16점보다 다소 높았다(양정선, 김수지, 이지선, 2016). 정선옥(2004)은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보호 아동이 경험하는 단절되고 불안한 사회적 관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보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정선옥, 2004).

한편, 심리정서적 지표는 보호 아동의 학업 성취 등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안은미와 정익중(2019)의 연구에서는 보호 청소년의 낙인감이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보호 아동의 낙인감은 학교에 적응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낙인감 인식이 감소할수록 학교에 적응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짐을 언급한다.

이상정 외(2019a)에서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대한 동기와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특성이나 태도와 관련된 사적 자본 영역(Caspi et al., 1998; 이상정 외, 2019에서 재인용)에서,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행복도, 걱정, 우울, 생활 만족도), 회복탄력성(원인 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감사하기, 생활 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한 이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8점으로 좋은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연령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정 외, 2019a). 긍정적 정서 경험의 행복도, 부정적 정서 경험의 걱정과 우울, 삶(생활)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가치와 변명 정도를 의미하는 유데미니아 항목이 포함된(심수진, 이희길, 석주영, 2015; 이상정 외, 2019a에서 재인용) 주관적 웰빙의 경우 평균 6.8점으로 나타났는데, 위에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정 외, 2019a).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년이 높고,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고 연령 아동이 다른 저 연령 아동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상정 외, 2019a)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상정 외(2019a)의 조사 결과는 보호 아동의 정신 건강 제고를 위해 특히 주목하여야 할 대상자가 학년 또는 연령이 높고, 취업 등을 앞두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보호종료 아동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보호종료 후 사회에 나와 경험하는 시설 출신, 결손 가정 출신에 대한 낙인과 편견, 차별 등의 상처는 아동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장정은·전종설,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경험을 질적 분석한 장정은과 전종설(2018)의 연구에서는 보호종료 초기에 자립을 해 나가고 있는 아동이 스스로를 아직 어리고 자립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인식하고 느끼며 자립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은 보호종료아동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경우 오랜 공동생활에 지쳐 보호종료 후 독립된 생활에 대해 기대했지만 막상 독립한 후에는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장혜림·정익중, 2017; 이정애 외, 2019). 자유로 인한 기쁨과 함께 이제 삶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불안감도 느끼기도 한다(장혜림·정익중, 2017).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에서 파악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2.9점으로, 2018년 복지패널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자아존중감이 3.2점으로 나온 것에 비해 낮고 저소득층의 자아존중감(2.9점)과 같은 수준이다. 삶의 만족도 역시 2019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20대 삶의 만족도 평균이 6.0점으로 나온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상정 외(2019b)는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비슷한 연령의 일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

〈표 2-4〉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심리정서적 현황

(단위: 명, %)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219	2.90	.42
유능감	1,219	2.51	.69
공격성	1,220	2.30	.87
정서조절감	1,219	3.39	.78
불안 우울	1,220	2.88	.90
행복감	1,221	2.53	.34
삶의 만족도	1,218	5.02	2.24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p.170~177. 재구성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영역은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자립의지와 자립생활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립지원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신지혜·강현아, 2017).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한 개입방법으로는 또래 멘토나 전문성이 있는 멘토를 결연하는 서 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장정은·전종설, 2018; 양은별 외, 2017)

다. 사회적 관계

보호 아동이 원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죽음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아동의 주요한 사회적 유대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양정선, 김수지, 이지선, 2016), 이는 보호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미영과 이강이(2005)은 시설 보호 아동은 일반 가정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보이고, 자신이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하여 특정한 물건과 시설을 먼저 누려야 하고, 내 것을 중시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설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또래집단 간 낮은 지지를 지각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논의(유안진 등, 2002, 최일경, 1996;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3에서 재인용) 역시 보호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부정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양정선, 김수지, 이지선(2016)은 경기도 시설 보호 아동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일반 아동에 비하여 보호 아동이 친구관계가 원만한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보호 아동이 경험한 공동체 생활이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삶의 부정적 경험과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은 보호종료 후 자립과정에서 지지체계 부재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보호 아동의 원가족은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나 긴 가정 외 보호 기간 동안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정선, 김수지, 이지선(2016)은 경기도 시설 보호 아동의 원가족과의 교류 빈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응답자의 39.1%가 현재 교류할 가족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가족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기회될 때마다 자주 만나
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1%인 것으로 보고한다. 이상정 외(2019a)는 15
세 이상의 보호 아동 5명 중 1명은 부모를 1년에 한번 미만으로 만나고 있으며, 학령
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교류 빈도가 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관련 연구
들은 보호 아동과 원가족의 교류 및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와 개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보호종료아동의 관계는 혈연관계, 대리보호 체계에서의 선생님, 또래 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등이 있다(이정애·김시아·김지선·정익중, 2019). 먼저 혈연관계는 가정
외 보호 아동에게 양가적인 요소로,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정애, 2018). 보호종료아동의 원가족 관계 경험을 현상
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퇴소 이후에 원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다양한 형태
의 지원을 받는 경우 더욱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반해 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친구 등 원가족이 아닌 새로운 대안관계를 통해 자립해나
가고 있지만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김지선·정익중, 2017). 보호종료
후 무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원가족은 기댈 수 없는 존재이
며 오히려 자립정착금을 가족에게 쓰게 되는 등 부정적인 관계가 부각된 바 있다(장혜
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 2017)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에 따르
면 보호종료 1~5년차 아동 중 44.3%는 부모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11.4%는 부모가
없는 상태로 총 55.7%의 아동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또한 부모
가 생존해 있고 아동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30%정도는 1년에 한 번도 연락
을 주고 받지 않아 사실상 소원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표 2-5〉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부모 여부 현황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총계
아동양육시설	2,437 (56.5)	306 (7.1)	1,570 (36.4)	4,313 (100.0)
공동생활	350 (70.3)	57 (11.4)	91 (18.3)	498 (100.0)
가정위탁	781 (24.1)	556 (17.2)	1,903 (58.7)	3,240 (100.0)
합계	3,568 (44.3)	919 (11.4)	3,564 (44.3)	8,05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p.120~125. 재구성

〈표 2-6〉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부모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동거중	매달	2-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두번	2-3년에 한 번	연락없음	총계
아동양육시설	318(13.0)	728(29.9)	475(19.5)	353(14.5)	65(2.7)	498(20.4)	2,437(100.0)
공동생활	37(10.6)	81(23.1)	55(15.7)	74(21.1)	6(1.7)	97(27.7)	350(100.0)
가정위탁	111(14.2)	118(15.1)	81(10.4)	75(9.6)	20(2.6)	376(48.1)	781(100.0)
합계	466(13.1)	927(26.0)	611(17.1)	502(14.1)	91(2.6)	971(27.2)	3,568(100.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p.126~131. 재구성

혈연관계가 모든 아동이 가지고 있지만 가정 외 보호 아동에게 특히 양가적인 감정을 제공하는 요인이라면,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형성된 관계는 가정 외 보호 아동만이 가지게 되는 고유의 관계 영역이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은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선생님, 시설에서 함께 지낸 친구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주거지 선택시에도 시설 근처에 집을 얻거나 함께 퇴소한 친구와 동거하며 가족으로 지내는 등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이정애, 2018; 박지윤, 2017; 장혜림 외, 2017; 김명성, 2013; 권지성, 2007). 보호종료 후에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만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시설 선후배와 동거하는 경우는 6.1%로 가족(24.1%), 친구(8.2%) 다음으로 많았고 일자리를 구할 때에도 시설이나 가정위탁센터 선생님 또는 시설 선후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26.7%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보를 구하는 경우(44.4%) 외에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2019년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상정 외, 2019b)에서 보호종료 후 가장 많이 연락하거나 만난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 22.5%의 응답자가 연락하거나 만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해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었다.

라. 주거

보호 아동의 주거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보호종료 이후, 즉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벗어난 다음 단계에서의 주거 문제와 욕구에 주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에서의 아동 기준 연령인 18세 이후 시설 등의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퇴소해야 함으로, 주거문제는 자립의 주요 이슈(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이상정, 2020에서 재인용)이다. 특히, 보호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호종료 후 위기와 탈위기의 반복 속에서 아동의 자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이상정 외, 2020). 주거를 구하지 못해서 또는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연장보호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정선욱 외, 2018), 시설에서의 단체 생활에 지쳐 퇴소 후 혼자 사는 것에 기대를 했다가 적당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실망하기도 하는 등(이상정 외, 2019b), 가장 기본적인 자립의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2019년도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3.5%가 보호 종료 후 5회 이상 이사를 했고 5.3%가 지하 및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33.1%는 노숙, 일시보호쉼터 이용, 친구 집 등에서 임시 거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 종료 후 주거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19b).

현재 주거 현황은 자립수준평가 항목 중 하나로, 자립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보호 유형에 따라 주거 현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다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50%는 LH 지원으로 집을 구하거나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1.9%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36.7%가 위탁가정에 계속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위탁가정의 대부분이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양육이기 때문에 보호가 종료되어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의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7〉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주거 현황

(단위: 명, %)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정부지원	LH지원	1,803 (41.8)	219 (44.0)	369 (11.4)	2,391 (29.7)
	자립지원시설	229 (5.3)	15 (3.0)	1 (0.0)	245 (3.0)

	공동생활가정	53 (1.2)	3 (0.6)	1 (0.0)	57 (0.7)
	기타	79 (1.8)	13 (2.6)	15 (0.5)	107 (1.3)
	소계	2,164 (50.1)	250 (50.2)	386 (11.9)	2,800 (34.8)
정부지원 외	전세	76 (1.8)	18 (3.6)	52 (1.6)	146 (1.8)
	월세	755 (17.5)	122 (24.5)	819 (25.3)	1,696 (21.1)
	자가	30 (0.7)	1 (0.2)	56 (1.7)	87 (1.1)
	친인척	125 (2.9)	19 (3.8)	255 (7.9)	399 (5.0)
	기숙사	553 (12.8)	30 (6.0)	168 (5.2)	751 (9.3)
	고시원	25 (0.6)	4 (0.8)	14 (0.4)	43 (0.5)
	친구집	126 (2.9)	6 (1.2)	44 (1.4)	176 (2.2)
	귀가	327 (7.6)	29 (5.8)	68 (2.1)	424 (5.3)
	위탁가정	-	-	1,190 (36.7)	1,190 (14.8)
	기타	132 (3.1)	19 (3.8)	188 (5.8)	339 (4.2)
	소계	2,149 (49.9)	248 (49.7)	2,854 (88.1)	5,251 (65.2)
	총계	4,313 (100.0)	498 (100.0)	3,240 (100.0)	8,05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p.111~119. 재구성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은 전세임대 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정착금 정책이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같이 수요자인, 보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이상정 외, 2020).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에 근거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2년 동안 사례관리를 받으며, 그 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무료로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상정 외, 2019b). 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응답자의 87.2%가 안정적인 집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고 84.2%는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등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보호종료아동의 물리적, 정서적 안정감과 자립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어 본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불안정한 주거가 다른 영역에서의 자립지원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의 우선 해결, 또는 주거 중심의 통합적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이상정, 2019b).

마. 교육

보호아동의 교육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

지 못하며,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학업성취,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업 동기나 목표 결여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은미, 정익중, 2019, 재인용). 안은미와 정익중(2019)은 실증 분석을 통해 보호 아동이 느끼는 낙인감의 초기 수치 및 변화가 학업 성취 및 학교 생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양정선 외(2016)는 경기도 지역 시설 보호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단계 리커트형 척도 변수로 측정된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평균 4.8점으로 보통 이하인 반면, 전국 평균 아동의 응답 수치 평균은 6.3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낮음을 보고한다. 반면, 학교생활만족도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호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와 학업동기나 목표 결여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특성이 지적된다(정선욱,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 김지은, 임혜리, 2018). 자립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기회 확대가 사회적 격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진학 및 학업 지속 지원의 확충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정선욱,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 김지은, 임혜리, 2018).

보호종료아동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심리·사회적인 유예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더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정선욱, 2015),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은 직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정선욱, 2018). 그러나 2017년 기준 자립지원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13.7%만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인 68.9%와 큰 격차가 있다(허민숙, 2018).

보호종료아동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경제적인 여건, 대학 적응에 대한 걱정이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양하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보호종료아동의 경험에 대한 양은별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아동에 비해 가정 외 보호아동은 진로와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라난다.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를 생각

할 기회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자격증 취득 기회를 많이 제공받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시설 선생님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취직을 권유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한 경우도 있다(장정은·전종설, 2018). 또한 보호종료 후 스스로 모든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고,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대학 진학에 따르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양은별 외, 2017).

대학 진학을 포기한 아동이 우려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대학 진학을 선택한 아동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의 생활경험을 질적 분석한 장혜림과 정익중(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된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발견되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생활비, 교재비 등을 충당하지 못해 휴학을 반복하거나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하며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장혜림·정익중, 2017).

대학 생활 중 경험하는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2016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의 대학생 응답자 76.6%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55.2%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7.5%가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었다고 응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바. 고용 및 경제

보호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습득 기회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금융 사기 등 좋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이상정 외, 2019a). 따라서 보호 아동은 보호 종료 이후의 자립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정 외(2019a)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가운데 자립 준비 대상 연령인 만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자산 관리나 계획적인 소비 등에 어려움을 느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 아동의 경제적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자산 관리 훈련, 신용 등급 관리 교육, 명의 도용 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는 보호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이상정 외, 2019a, 수정 인용).

보호 시설 퇴소 및 연장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신혜령 외 (2012)는 퇴소 아동의 87.5%, 연장아동의 83.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생활비 충당(퇴소아동 63.4%, 연장아동 56.6%인 것으로 보고한다. 퇴소아동이 취업을 준비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적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30.2%), 교육수준이나 기술, 자격 등이 부족하다거나(20.8%), 경험이 부족하다고(18.8%)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보호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적성을 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 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신혜령, 노충래, 정익중, 이동욱, 곽유정, 2012).

우리나라의 고용 및 경제와 관련된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의 자립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분된 8대 영역 중(그림 1), 돈 관리, 직업찾기, 직장 생활의 3개 영역이다(노충래, 강현아, 이동욱, 송유진, 손유경, 이종은, 서지은, 2018). 고용 및 경제와 관련된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돈 관리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 요금 납부, 저축 등의 돈 관리와 신용카드 사용, 신용관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 찾기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취업 준비를 포함하고 있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사내 규칙 지키기, 직장 내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퇴사 등을 포함한다(노충래외, 2018).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호 아동의 실질적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전달 방법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이상정 외, 2019a).

[그림 2-1] 우리나라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8개 영역



자료: 노충래, 강현아, 이동욱, 송유진, 손유경, 이종은, 서지은, 2018,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 p.15.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앞서 교육 영역에서도 밝혔듯이 보호종료 후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와 돈을 벌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양은별 외, 2017). 또한 안정된 직장,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생각하는 ‘자립’의 필수 조건으로 주거지의 독립과 함께 가정 많이 언급하는 요인이다(이상정 외, 2019a).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에 따르면 취업중인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40%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연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1,483만원이다.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23만원으로, 하루 8시간씩 월 25일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6,150원으로 최저시급(2016년 기준 6,030원) 수준이며 2016년 29세 이하 평균 소득 182만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통계청, 2016).

〈표 2-8〉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고용형태

(단위: 명, %, 만원)

구분	고용형태			연간 근로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계	
아동양육시설	1,718 (63.7)	977 (36.3)	2,695 (100.0)	1,540 (286명)
공동생활	128 (45.9)	151 (54.1)	279 (100.0)	1,444 (23명)
가정위탁	832 (53.3)	729 (46.7)	1,561 (100.0)	813 (23명)
합계	2,678 (59.1)	1,857 (40.9)	4,535 (100.0)	1,483 (332명)

자료: 고용형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p.84~95. 재구성
연간 근로소득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124

보호종료아동이 취직을 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력, 기술 등 자격 부족(24.1%), 경험 부족(18.2%), 적성을 모름(18.0%) 등이 있었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격, 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아동이 보호종료 전에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 기간은 평균 25개월 정도로, 약 2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에 취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구직 어려움, 구직 기간

(단위: 명, %, 개월)

	취업 시 어려움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
	취업 정보 부족	적성을 모름	경험 부족	근로환경 시간이 안맞음	학력·기술, 자격 부족	보수가 맞지 않음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기타	계	
아동 양육시설	129 (12.6)	190 (18.6)	186 (18.2)	104 (10.2)	237 (23.1)	75 (7.3)	18 (1.8)	85 (8.3)	1,024 (100)	26.1 (214명)
공동 생활가정	4 (4.7)	13 (15.3)	18 (21.2)	5 (5.9)	25 (29.4)	4 (4.7)	2 (2.4)	14 (16.5)	85 (100)	22.8 (12명)
가정위탁	8 (9.5)	12 (14.3)	13 (15.5)	10 (11.9)	26 (31.0)	8 (9.5)	1 (1.2)	6 (7.1)	84 (100)	15.9 (9명)
전체	141 (11.8)	215 (18.0)	217 (18.2)	119 (10.0)	288 (24.1)	87 (7.3)	21 (1.8)	105 (8.8)	1,193 (100)	25.6 (235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147, p.159

사.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

2007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면서 보

호대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0여년 동안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정선욱 외, 2018). 그러나 자립지원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은 자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자립지원서비스의 수요자인 보호아동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정선욱 외, 2018).

이상정 외(2019a)는 15세 이상의 자립준비 중인 보호아동의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3% 이상의 보호아동이 디딤씨앗 통장을 가지고 있으나 약 22%는 유무를 몰랐으며, 위탁가정 보호아동의 보유 비율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보다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립체험관 경험 비율 또한 시설 보호아동보다 위탁가정 보호아동의 경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직업 교육이나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멘토링, 용돈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여 자립서비스의 보호체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이상정 외, 2019a).

보호종료아동은 정부의 자립지원 서비스 중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 특히 주거지원 중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이용률은 LH지원 다음으로 높지만 2012년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율이 낮아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 또한 자립생활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청소년 자립생활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립지원관과 서비스 제공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유정원, 2020)

보호종료아동의 87.9%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립 지원 기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활비와 주거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6), 최근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도 상위의 서비스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19b).

〈표 2-10〉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자립지원 욕구

(단위: 명,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필요성		자립 지원 기간 5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복선택)								
	필요	불필요	생활비	주거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아동 양육시설	912 (87.1)	135 (12.9)	406 (39.3)	391 (37.9)	46 (4.5)	48 (4.7)	61 (5.9)	27 (2.6)	12 (1.2)	23 (2.2)	18 (1.7)
공동 생활가정	79 (90.8)	8 (9.2)	39 (44.8)	27 (31.0)	4 (4.6)	1 (1.2)	6 (6.9)	3 (3.5)	0 (0.0)	3 (3.5)	4 (4.6)
가정위탁	81 (94.2)	5 (5.8)	49 (58.3)	19 (22.6)	0 (0.0)	5 (6.0)	5 (6.0)	1 (1.2)	0 (0.0)	3 (3.6)	2 (2.4)
전체	1,072 (87.9)	148 (12.1)	494 (41.1)	437 (36.3)	50 (4.2)	54 (4.5)	72 (6.0)	31 (2.6)	12 (1.0)	29 (2.4)	24 (2.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76, p.83

지원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지원과 학업지원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법률, 자립, 상담 지원의 도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0%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1〉 보호종료 1~5년차 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도움정도 및 만족도

(단위: 명, %)

	전혀 도움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도움 안됨 (만족 안함)	도움됨 (만족함)	매우 도움됨 (매우 만족함)	응답자수
생활비지원	2 (0.4)	11 (2.2)	200 (40.8)	277 (56.5)	490
주거지원	3 (0.4)	23 (2.8)	235 (28.9)	553 (67.9)	814
건강지원	2 (0.4)	11 (1.9)	237 (41.7)	319 (56.1)	569
학업지원	2 (0.4)	14 (2.7)	150 (29.0)	351 (67.9)	517
자립지원	3 (1.9)	11 (7.0)	84 (53.2)	60 (38.0)	158
상담지원	6 (3.8)	11 (6.9)	90 (56.6)	52 (32.7)	159
법률지원	2 (5.1)	8 (20.5)	16 (41.0)	13 (33.3)	39
활동지원	4 (1.4)	11 (3.8)	118 (40.7)	157 (54.1)	290
기타	4 (21.1)	1 (5.3)	2 (10.5)	12 (63.2)	19
만족도	62 (5.1)	181 (14.9)	710 (58.4)	263 (21.5)	1,216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p.71~72. 재구성

제2절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시작되어 4년에 한 번 씩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시설 퇴소아동에서 보호종료아동으로 변화함에 따라 조사명도 ‘시설 퇴소 및 연장 청소년 실태조사’,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로 변경되었다. 조사 표본 수는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예산 등에 따라 상이한데, 2020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만큼 4차의 조사 중 가장 많은 표본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인 2주만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연장되어 2020년에는 약 10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2008년에는 전수 우편 조사로 진행하였으나, 이후 조사 대상이 인터넷에 더 익숙한 세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조사가 도입되어 2012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고 2020년에는 전수 모바일 웹링크 조사로 진행하였다. 온라인·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2012년과 2016년 조사는 혼합조사로, 조사방법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지는 모드효과(mode effect)로 인해 자료의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단일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2008년~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비교

연도	2008년 조사	2012년 조사	2016년 조사	2020년 조사
조사명	시설 퇴소 및 연장 청소년 실태조사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표본수	2,206	962	1,221	3,836
조사 기간	2008. 9. 4.~9.26. (약 2주)	2012.9.26.~10.2. (약 4주)	2016.8.11.~10.10. (약 8주)	2020.9.17.~11.31. (약 10주)
조사 방법	우편	우편, 이메일	우편, 웹	모바일 웹링크

2. 조사 대상

2008년과 2012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유형 중 아동양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장보호 아동과 퇴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을 조사하였다. 2016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유형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으로 확대되었으나 조사 대상은 연장보호 아동을 제외하고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으로 축소되었다. 조사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조사 대상자 연락처 목록을 확보해 연락하거나, 시설 선생님 등을 통한 눈덩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보호종료아동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응답률이 낮고 응답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유형 3가지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아동의 상황 역시 보호종료 직전인 만 17세 아동, 연장보호 아동, 보호종료아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2019년에 자립수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사 대상자 중 보호종료 1~3년차 아동의 목록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립수당 수령자 목록을 활용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여 과거 조사에 비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자립수당 수급 아동의 연락처는 자립수당 수급시 동의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근거하여 수집하였다.

〈표 2-13〉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대상자 변화(2008~2020)

(단위: 명)

조사대상		2008	2012	2016	2020
보호종	보호종료 직전 (만 17세)	×	×	×	251
	연장보호	490	306	×	481
보호종료		1,573	656	1,221	3,104
총 응답자 수		2,206*	962	1,221	3,836
대상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주: 2008년의 경우 총 응답자 수는 보호상태 결측 143건을 포함한 값임

3. 조사 영역 및 문항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전반적인 자립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 주거,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해왔다. 2020년 조사에서는 과거 조사를 참고하여 조사 영역을 수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6년 조사의 ‘II.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영역을 세분화하여 ‘II. 건강’, ‘III. 심리정서’, ‘IV.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였고 2016년 조사의 ‘VI. 취업현황’과 ‘VII. 경제현황’은 상호 연결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VII. 고용 및 경제’로 통합하였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역 및 문항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2-14〉 2008년~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 및 문항 수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보호종 아동	I. 인구사회학적 특성	I. 인구사회학적 특성		I. 일반적 특성
	II. 주거현황	II. 주거현황		II. 건강
	III. 진학현황	III. 진학현황		III. 심리정서
	IV. 자립현황	IV. 자립현황		IV. 사회적 관계
	V. 심리사회적응 현황	V. 심리사회적응 현황		V. 주거
				VI. 교육
				VII. 고용 및 경제
				VIII. 자립지원서비스
문항수	-	32개	-	43개
보호 종료 아동	I. 인구사회학적 특성	I. 인구사회학적 특성	I. 일반적 사항	I. 일반적 특성
	II. 주거현황	II. 주거현황	II.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II. 건강
	III. 진학현황	III. 진학현황	III.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III. 심리정서
	IV. 취업현황	IV. 취업현황	IV. 주거현황	IV. 사회적 관계
	V. 자립현황	V. 자립현황	V. 진학현황	V. 주거
	VI. 심리사회적응 현황	VI. 심리사회적응 현황	VI. 취업현황	VI. 교육
			VII. 경제현황	VII. 고용 및 경제
				VIII. 자립지원서비스
문항수	-	58개	74개	53개

주 1) 조사 문항 수는 응답자의 상황(재학 여부, 취업 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2008년 조사의 경우 설문지 자료 불충분으로 구체적인 문항 수 파악 불가

앞서 조사 영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와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해 조사 문항을 구축하였고 이는 조사 차수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었다. 2020년도 조사표 설계의 기본 방향은 ①일반 청소년·청년 비교 가능 문항, ② 시계열(2016, 2012) 비교 가능 문항, ③2020 보호아동(보호종료 직전, 연장보호), 보호종료아동 비교 가능 문항으로, 기존 문항을 활용하되 일반 청소년, 청년들과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민감도가 높고 응답률이 저조해 활용도가 낮은 임신(출산)경험 관련 문항,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이성친구 관계 관련 문항 등이 제외하였다. 반면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율과 청년 실업 상황을 고려하여 자살생각 관련 문항과 실업현황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이 경우 일반 시민들의 자살 생각 또는 청년 실업률과 비교할 수 있도록 ‘2018 자살실태조사(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조사표 문항을 차용하였다.

〈표 2-15〉 2012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문항 - 보호종료예정아동

영역	2012	2020
I.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현 거주지, 최종학력, 보호종결연도, 보호종결 당시상황, 시설생활기간, 현재 상황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 기간, 현재 보호 상태
II. 건강		건강검진, 구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III. 심리정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경험, 이성친구 및 관계, 임신(출산) 경험,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사회적지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수, 스트레스 대처, 공동체 의식, 낙인감, 가족과의 관계	주관적 자립 준비 정도,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보호종료 앞둔 심정
IV.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V. 주거	현재 주거 형태, 희망 주거형태 및 지역	희망하는 주거지·주거유형, 주거비 마련계획,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주거지원 필요도
VI. 교육	대학재학 현황, 대학 재학 중 학비 및 생활비 마련방법,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생활 만족도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주관적 학업수준, 등록금·생활비 마련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VII. 고용 및 경제		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직업, 진로활동 경험 및 만족도, 진로체험 참여 및 만족도, 취업지원, 실업현황
VIII. 자립 지원 서비스	수급경험, 자립생활기술, 지원금	자립교육프로그램·서비스, CDA, 종료 후 연락 주기,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자립지원 정보 제공 방법

주: 2020년 조사 영역을 기준으로, 과거 조사 문항을 재배열함

〈표 2-16〉 2012년~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문항 - 보호종료아동

영역	2012	2016	2020
I.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현 거주지, 최종학력, 보호종결연도, 보호종결 당시상황, 시설생활기간, 현재 상황	성별, 연령, 보호종결연도, 시설생활기간, 보호기간 중 거주지, 보호종결사유, 보호종결당시 상황, 현재 상황, 현재 거주지, 교육수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 기간
II.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경험, 이성친구 및 관계, 임신(출산) 경험,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사회적지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수, 스트레스 대처, 공동체 의식, 낙인감, 가족과의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생활기술, 심리행동문제, 원가족 현황, 장애여부, 자율적행동지표, 행복감, 삶의 만족도 인지수준,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질병경험	건강검진, 구강검진,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건강보험
III. 심리정서			주관적 자립 수준,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IV. 사회적 관계			부모와 관계,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V. 주거	과거 희망 주거·현재 주거, 동거인, 노숙경험, 타 시설 입소경험, 이사경험, 거주환경만족도	주거유형·비용·마련방법, 동거인, 주거 이력 및 계획, 타 시설 입소경험, 주거부담, 취약거주, 주거복지지원 욕구	주거유형·비용, 동거인, 주거비 마련방법,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취약 주거 경험
VI. 교육	대학재학 현황, 대학 재학 중 학비 및 생활비 마련방법,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진학여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방법,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재학현황,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등록금·생활비 마련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VII. 고용 및 경제	현재 취업·직업·고용형태, 구직경험, 이직·실직경험, 실직기간, 근무기간, 현재 직업, 월 급여, 직업생활 만족도, 희망직업	취업·직업·고용형태, 구직·이직·실직경험, 급여·소득, 기초생활 수급여부, 건강보험종류, 명목별 월평균 생활비, 부채현황	아르바이트 경험, 직장 그만둔 경험, 취업시 어려움, 필요한 취업지원, 취업상태, 실업률, 직업, 고용형태, 급여, 생활비, 부채(빚)
VIII. 자립 지원 서비스	자립서비스 경험, 보호종결 후 시설과의 관계,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액, 사용처	서비스 욕구·이용도·만족도, 법적 자립지원기간 욕구, 보호종결 후 어려움, 시설 및 위탁가정과의 관계, 자립지원금 현황	보호당시 자립프로그램·서비스, 자립정착금·CDA·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보호 종료 후 어려움, 필요한 지원

주: 2020년 조사 영역을 기준으로, 과거 조사 문항을 재배열함

제3절 소결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정외보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아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보호종료 후의 자립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지원체계의 부재로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

강 영역에서 보호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종료 후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원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 부모의 이혼·별거, 원가족과의 분리 등과 같은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인해 보호아동은 공격성,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호종료아동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종료 후에 느끼는 외로움은 보호종료아동이 흔히 경험하는 정서로, 자립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동반되기도 하며,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원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죽음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아동의 주요한 사회적 유대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호아동의 사회 적응 및 대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보호종료 후 지지체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원가족은 긴 가정외보호 기간, 관계 개선의 기회 부족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보호 당시 선생님(위탁부모), 또래 등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며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호종료 후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주거비의 부담과 함께 잦은 이사,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주거의 취약성 나타났으며,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기와 탈위기의 반복 속에서 다른 자립지원서비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거지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 영역에서는 우선, 보호아동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으며, 학업 동기나 목표가 결여되어 있어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것을 파악되었다. 한편, 대학과 같은 상급학교 진학은 자립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유예기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 아동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진학은 직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진학을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고용 및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보호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습득 기회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보호종료 후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와 돈을 벌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학력, 기술 등 자격 부족, 경험 부족, 혹은 적성을 몰라서 취업이나 취직의 어려움을 흔히 경험한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소득 또한 낮은 편으로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호 및 보호종료예정아동 모두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운데 보호 중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보호 아동의 경험률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이용 경험이 있는 한 자립관련서비스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살펴보았듯이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은 자립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조사시, 다양한 영역에서 보호종료아동의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문제가 과거, 보호당시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고, 자립은 과정이므로 보호종료 전·후를 연속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립지원의 체계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실태 조사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대리양육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3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해외 실태조사

제1절 미국의 NYTD

제2절 영국의 SSDA903 OC3

제3절 소결

제3장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국외 실태조사

제1절 미국의 NYTD

1. 조사 개요

미국은 2011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National Youth Transitional Database (이하 NYTD)를 통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Children's Bureau, 2017). NYTD는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에 지원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체이피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법 477조 f항⁷⁾을 그 근거로 탄생하였다.

사회보장법 477조 f항
(f)데이터수집과 성과 평가 (1) 일반적으로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정부, 지방정부와의 협의 하에 (A)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성과 지표(교육성과, 고졸 유무, 고용, 피의존성, 노숙, 미혼출산, 고위험 행동을 포함)를 개발한다. (B) 이하의 내용들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를 조사한다. (i)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의 수와 특징들 (ii)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양 (iii) 성과 지표와 관련한 주정부의 실적 (C) 이 조항의 공포일 이후 두 번째 회계연도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상호협력 하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주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호아동 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성과, 고졸 유무, 고용, 피의존성, 노숙, 미혼출산, 고위험 행동 등의 항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Children's Bureau, 2017). NYTD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2008년에 신설된 연방규정집 45편 1356부 80조에서 86조⁸⁾를 따른다.

7)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Sec.477. [42 U.S.C. 677], https://www.ssa.gov/OP_Home/ssact/title04/0477.html

이 규정은 조사방법(조사대상 선정, 표집방법, 조사문항의 종류 등), 주정부의 보고 방식, 규정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등 매우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NYTD의 조사 개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자

NYTD의 기초모집단(baseline population)은 만 17세가 45일 이상 지난 모든 보호 중인 아동이다. 이 기초모집단에 해당하는 아동 중 세부 조사대상요건에 해당할 경우 조사대상이 된다. 세부 조사대상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초모집단(baseline population)에 포함된 자
- ② 만 17세가 지난 자 중 조사 당일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 ③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
- ④ 만 17세가 된 후 45일 이내에 조사에 참여한 자
- ⑤ 37-58번 성과문항(the outcome questions)⁹⁾중 하나라도 유의미한 응답을 한 자

위의 조사대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 17세가 된 지 45일 이내의 모든 보호아동은 NYTD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17세에 기초조사에 응답하게 되고, 이후 동일대상자들에 대해 만 19세와 만 21세에 걸쳐 추적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나. 조사방법 및 현황

1) 조사방법¹⁰⁾

NYTD의 조사주체는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정부 내 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조사결과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정책실(Administration for

8) 45 CFR § 1356.80-86,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1356.80>

9) NYTD의 1-36번까지는 주정부에서 해당보호아동 혹은 해당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아동의 인구학적 정보, 특성, 자립지원 등 관련서비스 수혜 종류 및 이력 등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임.

10)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2008)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

Children and Families)로 보고하게 된다. NYTD는 만17세에 선정된 코호트(cohort)를 대상으로 추적조사가 진행되는 종단설문조사(longitudinal survey)로써, 코호트 당 총 3회(만 17세, 만 19세, 만 21세)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조사대상자들은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는 이 자발적 참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보호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기초적인 인구학적 데이터는 활용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데이터는 조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비교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2차와 3차 조사는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확률표집을 이용하여 표본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2차와 3차 조사에서 확률표집을 이용할 경우, 1차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하며, 2차와 3차 조사 모두 1차 조사 후 추출한 동일표본만을 써야 한다. 또한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활용하는 확률표집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단순무작위 표집(simple random sampling)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가족정책실의 허가가 있을 경우, 다른 방식의 표집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 내 조사대상집단의 규모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법령¹¹⁾이 지정하는 표집방법으로, 5천명 미만일 경우, 유한모집단보정(Finite Population Correction)을 적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정한다.

2) 조사 현황¹²⁾

2011년부터 시작된 NYTD는 2011년 첫 번째 코호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이후, 3년 간격으로 새로운 코호트를 추가하여 조사 중이다.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코호트에 대한 조사는 모두 종료된 상태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코호트에 대한 추적조사는 진행 중인 상태이다. 코호트별 조사대상자 수와, 조사 연도, 조사 당시 응답자의 연령, 각 조사별 응답자 수, 그리고 최초 조사대상 대비 응답률은 <표 3-1>과 같다.

11) 45 CFR Appendix C to Part 1356 (5) p.1037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08-02-26/pdf/E8-3050.pdf> 참조.

12)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NDACAN], 2016),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NDACAN], 2019),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NDACAN], 2020)의 자료를 취합한 후 재구성함.

〈표 3-1〉 NYTD 조사 현황

코호트 모집단(명)	시작 연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 진행 상태
		조사 연령	응답자 수(명)	응답 률 (%)	조사 연령	응답자 수(명)	응답 률 (%)	조사 연령	응답자 수(명)	응답 률 (%)	
코호트 1 29104	2011	17	15596	54	19	7710	26	21	7707	24	조사 종료
코호트 2 23780	2014	17	16480	69	19	8906	37.5	21	7813	32.9	조사 종료
코호트 3 24469	2017	17	16276	66.5	19	8922	36	21	조사 예정		진행 중
코호트 4 발표예정	2020	17	조사 중		19	조사 예정		21	조사 예정		진행 중

주: 만 연령

다. 조사내용¹³⁾

NYTD의 기초자료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총 58개 항목의 정보를 통해 수집된다. 이 58개 항목 중 1~36번까지는 보호아동 혹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 특성, 서비스 수혜 정보가 포함된다(NDACAN, 2019). 나머지 37~58번까지의 항목은 보호아동 혹은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부분이며(NDACAN, 2019), 이 글에서 조사내용이란 보호아동 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37~58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의미한다.

1) 경제·고용 영역

37-45번까지의 문항이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설문문항에 해당되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고용, 취업 관련 기술획득 혹은 참여, 각종 지원금 및 사회부조의 수혜 여부 등에 대해 묻게 된다. 단, 공공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42~44번의 문항들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각 문항들에서 묻는 세부내용과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13) (DHHS, 2008, p. 10,375 - 10,378)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3-2〉 NYTD 경제고용영역 문항

문항	문항 내용	선택지
37	전일제고용 여부 (기준: 주35시간 이상 근무)	예/아니오/응답거부
38	시간제고용 여부 (기준: 주34시간 이하 근무)	예/아니오/응답거부
39	1년 이내 취업관련기술 취득(인턴, 직업 교육/훈련 등) 여부	예/아니오/응답거부
40	사회보장소득(Social security income) 수혜 여부	예/아니오/응답거부
41	교육 관련 지원금(장학금/학비지원/학자금 대출 등) 수혜 여부	예/아니오/응답거부
42	기초생활지원금(Public financial assistance) 수혜 여부	예/아니오/해당사항 없음/응답거부
43	기초식비지원금(Public food assistance) 수혜 여부	예/아니오/해당사항 없음/응답거부
44	기초주거지원금(Public housing assistance) 수혜 여부	예/아니오/해당사항 없음/응답거부
45	그 외의보조금(Other financial support) 수혜 여부	예/아니오/응답거부

2) 교육 영역

46번과 47번 문항이 교육 영역에 해당되며, 최종학력 및 재학 관련 정보를 묻게 된다. 각 문항들에서 묻는 세부내용들과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표 3-3〉 NYTD 교육영역 문항

문항	문항 내용	선택지
46	최종학력	고졸/전문기술자격증/전문기술면허증/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이상/ 보기에 없음/응답거부
47	고등학교/검정고시 준비과정/전문기술학교/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지 여부	예/아니오/응답거부

3) 사회적 관계 영역

48번 문항이 사회적 관계 영역에 해당되며, 조언이나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인과의 교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이 문항에서 묻는 세부내용과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표 3-4〉 NYTD 사회적 관계 영역 문항

문항	문항 내용	선택지
48	현재 사례관리자를 제외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성인을 통해 조언이나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예/아니오/응답거부

4) 주거 영역

49번 문항이 주거 영역에 해당되며, 노숙 경험을 묻는다. 이 문항에서 묻는 세부 내용과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표 3-5〉 NYTD 주거 영역 문항

문항	문항 내용	선택지
49	노숙 경험이 있는지 여부 (1차 조사용) 최근 2년간 노숙 경험이 있는지 여부 (2, 3차 조사용)	예/아니오/응답거부

5) 건강 및 위험행동 영역

50~58번 문항이 건강 영역에 해당되며, 약물, 구류 경험, 자녀 유무, 미혼출산,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묻는다. 각 문항들에서 묻는 세부 내용과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표 3-6〉 NYTD 건강 및 위험행동 영역 문항

문항	문항 내용	선택지
50	술/약물 관련 상담 혹은 진단을 받은 경험 여부(1차) 지난 2년 간 술/약물 관련 상담 혹은 진단을 받은 경험 여부(2, 3차)	예/아니오/응답거부
51	범죄 관련 사실로 인해 구류된 경험 여부(1차) 지난 2년 간 범죄 관련 사실로 인해 구류된 경험 여부(2, 3차)	예/아니오/응답거부
52	자녀를 출산하거나 아빠가 된 경험 유무(1차) 지난 2년 간 자녀를 출산하거나 아빠가 된 경험 유무(2, 3차)	예/아니오/응답거부
53	(52번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자녀를 출산할 당시 자녀의 친부 혹은 친모와 혼인한 상태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응답거부
54	현재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	예/아니오/모름 /응답거부
55	현재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부	예/아니오/모름 /응답거부
56	(55번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적용되는지 여부	예/모름/응답거부
57	(55번과 56번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예/아니오/모름 /해당사항 없음/응답거부
58	(55번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이 약을 처방 받을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예/아니오/모름 /해당사항 없음/응답거부

2. 주요 연구 결과

현재 NYTD의 코호트 1과 코호트 2에 대한 조사만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두 코호트에 대한 조사결과 및 관련연구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가. 경제·고용 영역

먼저 취업률과 관련해서 NYTD 코호트 1 조사와 코호트 2 조사에서 모두 응답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률 증가했다. 특히 만 21세 조사에서는 코호트 1과 코호트 2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응답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수혜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이 한 가지 이상의 공공부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19세 당시보다 만 21세가 된 후의 수혜율이 조금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3-7〉 NYTD 경제·고용 영역 조사결과

조사영역	코호트 1			코호트 2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취업률 ¹⁴⁾	13%	33%	52%	15%	41%	55%
취업훈련율	21%	30%	32%	21%	31%	31%
공공부조 수혜율 ¹⁵⁾	해당없음	34%	38%	해당없음	30%	31%

한편, 보호종료아동을 주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NYTD의 데이터는 위탁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이하 AFCARS)와 결합하여 보다 심층적인 통계적 분석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 AFCARS와 NYTD를 결합한 텍사스 지역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과 고등교육비 지원이 각각 증가함에 따라 범죄사실로 인한 유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ssorio & Carvalho, 2019).

나. 교육영역

교육 관련 문항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 취득에 대한 문항에

14) 전일제 취업과 시간제 취업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

15) 세 가지 공공부조(주거, 식비, 재정 보조)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자인 것으로 간주하였음. 한편, 공공부조 수혜와 관련된 문항들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보호가 종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만 17세 아동 대상 조사의 경우, 이 문항들이 반영되지 않음.

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위취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1과 코호트 2에서 모두 만 19세 조사에서 고졸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만 21세 조사에서는 7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학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만 20세를 전후로 하여 대학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재학률이 낮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 AFCARS와 NYTD를 결합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교육관련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동들보다 고졸 이상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과 고졸 이후 전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가능성, 그리고 전일제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Ju, Rosenberg, & Farmer, 2019), 사회적 소외¹⁶⁾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Lee, & Ballew, 2018).

〈표 3-8〉 NYTD 교육 영역 조사결과

조사영역	코호트 1			코호트 2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고졸 이상 비율	9%	55%	67%	4%	53%	69%
교육기관 재학	94%	54%	32%	93%	54%	24%

다. 주거영역

NYTD에서 주거관련 문항은 노숙 경험을 묻는 문항인데, 이 문항은 1차 조사인 만 17세 조사의 경우, 태어나서 만 17세 당시까지의 노숙경험을 묻는 반면, 만 19세와 21세의 조사에서는 지난 2년간의 노숙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숙 경험을 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만 17세부터 21세까지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 중 살면서 노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코호트 1에서는 43%, 코호트 2에서는 42%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과 관련해서 AFCARS, NYTD, 센서스 조사 표본을 기반으로 한 American

16) 여기서 사회적 소외란 노숙경험 혹은 범죄사실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함.

Community Survey(ACS), 각 주정부의 예산관련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에서 지급된 자립지원금(CFCIP Budget)을 주거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주에 거주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노숙 위험과 구류경험 비율이 다른 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rince, Vidal, Okpych, & Connell, 2019). 또한 동 연구에서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주에 사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약물문제를 경험할 확률이나 자녀 출산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rince et al., 2019).

〈표 3-9〉 NYTD 주거 영역 조사결과

조사영역	코호트 1			코호트 2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노숙경험	16%	19%	26%	17%	20%	27%

라. 건강 및 위험행동 영역

건강 및 위험행동과 관련된 조사문항 중 약물 관련 문항을 보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약물중독 치료 경험은 약 30%정도에 이르며, 이후 2년 동안의 경험을 물었을 때, 만 19세 당시(14~15%)보다 만 21세 당시의 치료 경험률(10~11%)이 좀 더 낮은 추세를 보였다. 출산 경험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경험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의 전체 비율은 코호트 1에서는 32%, 코호트 2에서는 25%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혼전 출산의 비율이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코호트 2 조사결과), 여성의 비율이 70%로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코호트 1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80% 정도에서 70%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NYTD 건강 및 위험행동 영역 조사결과

조사영역	코호트 1			코호트 2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약물중독 치료 경험	28%	15%	10%	27%	14%	11%
구류 경험	37%	24%	20%	33%	20%	20%
출산 경험	7%	12%	25%	5%	10%	22%
메디케이드 수혜율	81%	71%	70%	85%	77%	69%

마. 사회적 관계

NYTD에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항은 조연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의 유무를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연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21세의 조사에서도 8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대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이 다른 성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NYTD 사회적 관계 영역 조사결과

조사영역	코호트 1			코호트 2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
사회적 관계 형성	93%	89%	87%	94%	88%	87%

제2절 영국의 SSDA903 OC3

1. 조사 개요

영국의 지방당국은 2016년¹⁷⁾부터 해당 행정지역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17~21세 사이의 모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지방당국으로부터 수집된 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는 명확한 명칭이 없는 행정데이터지만, 지방당국이 중앙정부로 보고하는 보호종료아동 데이터 보고양식의 명칭이 SSDA903 OC3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SSDA903 OC3을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SSDA903 OC3의 수집 목적은 중앙정부가 보호아동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을 때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함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영국의 경우, 실태조사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17) 보호종료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6년에 이르러 조사대상과 연령이 확대되었음.

나 1992년 보호아동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만 19세 보호종료 아동의 자료도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McGrath-Lone, Harron, Dearden, Nasim, & Gilbert, 2016), 교육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실태조사 가이드를 통해 모든 지방당국은 매년 봄에 이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가. 조사대상자

SSDA903 OC3에 포함되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¹⁸⁾에 만17세, 18세, 19세, 20세, 21세가 된 모든 보호종료아동이며(Department for Education, 2020a), 여기서 보호종료아동이란 14세 이전에 최소 13주 이상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으며 만 16세 또는 17세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 혹은 만 16세에 수감 또는 입원 중이었고 14세 이전에 최소 13주 이상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b).

나. 조사방법 및 현황

1) 조사방법

SSDA903 OC3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지방정부의 서비스 지원을 받은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지방정부 담당자가 보호종료아동의 생일 3개월 전에서 생일 1개월 이후 사이에 연락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지방당국의 담당자는 매년 1분기 말일(3월 31일)까지 조사 완료한 후 조사데이터를 취합하여야 하며, 이 취합된 데이터를 교육부 데이터시스템에 업로드 하게 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이렇게 수집 및 통합된 데이터는 매 해 조사 당시 연락이 닿는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를 횡단조사의 형태로 저장하지만, 지방정부별로 아동의 고유식별번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종단 데이터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McGrath-Lone et al., 2016).

18)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일에서 이듬해 3월 31일까지가 조사 기간임.

2) 조사 현황

SSDA903 OC3은 2016년 이전까지는 만 17세와 18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 대상연령을 만21세까지 확대하였다. 조사 연도별 대상자 규모, 응답자의 연령대별 응답자 수 및 응답률, 그리고 총 응답자 수 및 응답률은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다.

〈표 3-12〉 SSDA903 OC3 조사 현황

조사 연도	조사대상자 규모	만 17-18세 응답자 수(응답률)	만 19-21세 응답자 수(응답률)	총응답자 수(응답률)
2016	35600명	8700 명(93.9%)	23440 명(89.0%)	32140 명(90.2%)
2017	37680명	9920 명(92.8%)	24270 명(89.9%)	34190 명(90.7%)
2018	39590명	10380 명(93.7%)	25740 명(90.3%)	36120 명(91.2%)
2019	41190명	10520 명(93.4%)	27200 명(90.9%)	37720 명(91.6%)

다. 조사내용

각 지방당국들이 제출하는 SSDA903 OC3는 지방당국과 연락이 되는지 여부, 보호종료아동의 주요 활동, 주거 형태, 주거 적합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지닌 미국의 NYTD와는 달리 SSDA903 OC3는 고용 및 교육 관련 정보와 주거 관련 정보만을 수집하고, 건강 영역 혹은 사회적 관계 영역과 같은 다른 영역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경제·고용·교육 영역

SSDA903 OC3의 주요 활동(main activity) 항목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보호가 종료된 후의 취업활동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지방당국은 아래에 제시된 보기 중 해당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에 해당하는 활동 내용을 한 가지만 골라서 그에 상응하는 입력코드를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일제 취업활동과 시간제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일 경우, 전일제 취업활동을 한다고 응답하게 된다.

〈표 3-13〉 SSDA903 OC3 경제·고용·교육 영역 조사내용

입력코드명	활동내용
F1	전일제로 대학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직업교육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음
P1	시간제로 대학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직업교육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음
F2	전일제로 대학교육 미만의 교육을 받고 있음
P2	시간제로 대학교육 미만의 교육을 받고 있음
F3	전일제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혹은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
P3	시간제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혹은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
G4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교육이나 취업활동 중에 있지 않음
G5	기타 상황으로 인해 교육이나 취업활동 중에 있지 않음
G6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교육이나 취업활동 중에 있지 않음

2) 주거 영역

SSDA903 OC3에서 주거와 관련된 항목은 주거형태와 주거 적합도를 나타내는 두 자릿수 코드를 입력하게 된다. 주거형태는 16가지의 입력코드 중 적합한 주거형태를 선택하며, 주거 적합도는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지방당국의 판단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을 결정한다.

〈표 3-14〉 SSDA903 OC3 주거 영역 조사내용

입력코드명	주거형태
B	부모 혹은 친척과 동거
C	주거보호 및 치료시설 (Community home or other form of residential care)
D	자립지원 주거시설/준자립지원 주거시설
E	호스트 가족이 함께하는 자립지원주거지
G	해외 거주
H	추방
K	일반 주거지
R	주거지 불명
S	고정된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 상태
T	교육 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결합된 자립지원주거지(foyer or similar accommodation)
U	자립지원 중인 독립주거지
V	긴급주거지(쉼터나 긴급호텔 등)
W	Bed and Breakfast
X	구금 상태
Y	기타 주거형태
Z	보호종료 이전의 위탁보호자와 동거
입력코드명	주거적합도
1	보호종료아동의 현 주거지가 적합함.
2	보호종료아동의 현 주거지가 부적합함.

주거 형태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형태에 상응하는 알파벳 형태의 입력코드를 앞자리에 기록하고, 주거 적합도의 경우 숫자 형태의 입력코드를 뒷자리에 기록하여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두 자릿 수 코드를 입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방당국에서 판단하기에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B1으로 기록한다. 다음은 주거형태와 주거적합도 각각의 입력코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고용·교육 영역

앞서 조사내용 부분에서도 언급한대로 직업활동 실태와 교육활동 실태는 SSDA903 OC3에서 주요 활동(main activity)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상호배타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직업활동과 교육활동은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상태에 있거나 직업훈련 중인 보호종료아동은 만 17~18세의 연령대에서는 20%에 약간 미치지 못하다가 만19~21세의 연령대에서 27~28%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3-15〉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 고용/직업훈련율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만 17~18세 고용/직업훈련율	만 19~21세 고용/직업훈련율	총응답자 수 대비 고용/직업훈련율
2016년 (32140명)	19.77%	27.43%	25.36%
2017년 (34190명)	17.74%	27.51%	24.68%
2018년 (36120명)	17.92%	27.92%	25.04%
2019년 (37720명)	18.92%	28.00%	25.47%

다음으로 고용상태나 직업훈련 중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도 아닌 NEET¹⁹⁾ 상태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연령대나 조사연도에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25% 내외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질병이나 장애 혹은 임신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NEET 상

19)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태에 있는 이들을 제외한 수치이다. 만약 여기서 앞의 사유로 제외된 이들까지 합산하게 되면 NEET 상태의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은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SSDA903 OC3 NEET 상태인 보호종료아동 비율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만 17-18세 NEET 비율	만 19-21세 NEET 비율	총응답자 수 대비 NEET 비율
2016년 (32140명)	26.44%	25.94%	26.07%
2017년 (34190명)	24.70%	25.29%	25.12%
2018년 (36120명)	24.47%	24.69%	24.63%
2019년 (37720명)	25.10%	25.21%	25.18%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보호종료아동은 조사 연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약 35% 내외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교육기관²⁰⁾ 혹은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이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인 소외계층의 아동들과 비교해도 낮은 것이다.

〈표 3-17〉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 재학률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고등교육 이상 재학률	고등교육 이외 재학률	총재학률
2016년 (32140명)	6.32%	30.18%	36.50%
2017년 (34190명)	5.61%	28.36%	33.98%
2018년 (36120명)	5.84%	29.36%	35.21%
2019년 (37720명)	5.80%	29.21%	35.01%

예를 들어 고등교육 진학률이 전통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진학률은 2006년 11.2%에서 2017년 20.5%로 비약적인 상승을 보인 반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2010년에 7.4%로 올랐던 때²¹⁾를 제외하면 계속 6%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Harrison, 2020).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년간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다소 간에 향상된 것에 반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진학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Harrison, 2020).

20)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기관에 상응하는 A-level 이후의 교육을 의미함.

21) 2010년 당시 보호종료아동 관련조사는 만 19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나. 주거영역

SSDA903 OC3은 현재 거주 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보호종료 후 부모와 함께 거주²²⁾하는 비율은 만17세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만 17세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다른 주거 형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3-18〉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과 부모와의 동거율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만 17세 부모와 동거율	만 18세 부모와 동거율	만 19세 부모와 동거율	만 20세 부모와 동거율	만 21세 부모와 동거율
2016년 (32140명)	34%	12%	13%	12%	10%
2017년 (34190명)	46%	12%	12%	12%	11%
2018년 (36120명)	43%	12%	13%	12%	11%
2019년 (37720명)	43%	12%	12%	11%	10%

만 17세 이후 보다 독립적인 거주지로 전환하는 추세는 준자립 또는 자립 거주지 비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16년 이후의 모든 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은 만 17세에서 만 18세가 되면서 준자립 또는 자립 거주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18세 이후에도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준자립 또는 자립 주택 주거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19〉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의 준자립/자립주택 주거율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만 17세 준자립/자립주 택 주거율	만 18세 준자립/자립주 택 주거율	만 19세 준자립/자립주 택 주거율	만 20세 준자립/자립주 택 주거율	만 21세 준자립/자립주 택 주거율
2016년 (32140명)	18%	37%	42%	49%	52%
2017년 (34190명)	14%	38%	44%	47%	51%
2018년 (36120명)	14%	39%	45%	48%	49%
2019년 (37720명)	12%	40%	46%	50%	51%

22)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보호서비스가 종료된 후 친부모와 재결합하는 비율이 30%이상임.

한편, 보호종료 후 노숙 위험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만 17~18세 연령대에서는 대체적으로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만 19~21세의 연령대에서는 2%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이후에 처음으로 보호시스템에 편입된 아동들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의하는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아동들의 비율이 20%가 넘는다(Gill & Daw, 2017). 이러한 경우, 주거지원이나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SSDA903 OC3 데이터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숙의 위험을 겪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표 3-20〉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의 노숙위험 경험률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²³⁾	만 17~18세 노숙위험 ²⁴⁾ 경험률	만 19~21세 노숙위험 경험률	총 노숙위험 경험률
2016년 (31910명)	0.81%	1.46%	1.28%
2017년 (33800명)	0.91%	1.76%	1.51%
2018년 (35690명)	1.06%	1.89%	1.65%
2019년 (37430명)	0.86%	1.86%	1.58%

마지막으로 지방당국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거주지의 적합성 혹은 부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만 17~18세의 연령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약 5%의 보호종료아동이 부적합한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만 17~18세의 연령대에서는 약 6~7%가 부적합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SSDA903 OC3 보호종료아동의 부적합거주지 주거율

조사 연도 (총응답자 수)	만 17~18세 부적합거주지 주거율	만 19~21세 부적합거주지 주거율	총 부적합거주지 주거율
2016년 (32140명)	6.2%	6.80%	6.64%
2017년 (34190명)	5.01%	6.67%	6.20%
2018년 (36120명)	5.00%	6.64%	6.18%
2019년 (37720명)	5.27%	6.35%	6.05%

23) 해외 이주, 추방, 거주지 불명, 정보 부재 등의 수치는 제외하였음.

24) 거주지 부재/노숙경험 응답자들과 긴급쉼터 이용 응답자들을 합산하였음.

제3절 소결

1.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시사점

앞서 살펴본 보호종료아동 관련 미국과 영국의 공공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조사는 대규모 종단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종단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영국 SSDA903 OC3의 경우, 매 년 만 16세에서 만 20세까지의 모든 보호종료아동을 모집단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반면, 미국의 NYTD는 3년마다 동일연령의 새로운 코호트를 선정하고, 코호트별로 자발적 조사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에 걸쳐 총 3회의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표 3-22〉 참조).

〈표 3-22〉 미국과 영국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개요 요약

	미국	영국
조사방법	종단 코호트 설문조사 (매년 한 개의 코호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기초조사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확률 표집. 추적조사 시 임의표집으로 표본 추출 가능.	전수조사 (매년 진행)
조사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 최초 조사 당일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 * 만 17세가 된 후 45일 이내에 조사에 참여한 자 * NYTD 성과문항 중 하나라도 응답을 한 자	법적으로 정의하는 모든 보호종료아동(만 17-20세)들 중 지방당국과 연락이 닿는 자
조사항목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고용, 취업 관련 직업훈련 상황, 조언/정서적 지원을 하는 성인 유무, 각종 지원금의 수혜 여부, 노숙 경험 여부, 위험행동(약물, 범죄, 자녀 유무, 출산 등) 관련 경험, 건강보험 접근성	고용 혹은 직업훈련 상태, 교육기관 재학 상태, 거주지 유형, 거주지 적합성

영국 SSDA903 OC3의 경우와 같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 SSDA903 OC3 역시 전수조사의 방법을 따르다보니 조사항목의 수가 많지 않고 조사내용 자체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SSDA903 OC3을 활용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있다고 해도 기술적인 분석 수준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수 년 동안 연락을 유지하며 전수조사 시행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전 참고할 만 한 부분이 있다. 영국이 만 16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약 5년 간 전수조사가 가능한 이유는 지방당국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법적 의무와 관련이 있다. 각 지방당국은 만 21세 전까지의 모든 보호종료아동들과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주로 지방당국의 보호종료서비스팀(leaving care team)이나 개별조연가(personal advisor)를 통해 연락이 유지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즉 보호종료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년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단적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보호종료아동 담당 사례관리자 혹은 자립지원서비스 담당자 등과의 관계를 통해 가정외보호 이후 조사대상자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나 연락을 통해 추적조사가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NYTD는 공공행정 영역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NYTD의 경우, 코호트의 모집단 중에서 자발적인 조사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태조사가 다양한 항목과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사참여자를 3회에 걸쳐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연구 및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SSDA903 OC3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NYTD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과 세부 지침을 담은 연방규정집을 2008년에 발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년 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10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방점검팀과 주점검팀을 구성하여 조사계획부터 조사과정 및 조사종료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번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실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행정영역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단조사를 계획하게 된다면, NYTD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준비과정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조사설계, 보호종료아동의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 조사관리 인력 선정 및 교육, 데이터 관리 체계 운영 지침 개발, 조사 평가기준 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 항목 선정에 대한 시사점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고용 및 교육 관련 영역과 주거환경에 대한 영역이다. 이러한 공통항목들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발달결과(혹은 자립결과)를 2018년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3〉 미국과 영국의 보호종료아동 2018년 주요 실태조사 결과

	미국 2018년 조사 ²⁵⁾ (NYTD Cohort 2)	영국 2018년 조사 (SSDA903 OC3)
취업률	41%(만 19세), 55%(만 21세)	22%(만 19세), 27%(만 21세)
교육기관 재학률	54%(만 19세), 24%(만 21세)	35%(만 19세), 19%(만 21세)
고졸 이상 비율	55%(만 19세), 69%(만 21세)	해당 없음
대학 이상 재학률	해당 없음	5%(만 19세), 7%(만 21세)
노숙 경험률	20%(만 19세), 27%(만 21세)	2%(만 19세), 2%(만 21세)

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과 영국의 조사항목별 결과가 대체적으로 매우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나라의 조사방법이나 문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실태조사에서 취업과 교육 상황에 대해 묻는 조사항목이 단 한 문항이며, 이 문항은 취업 혹은 교육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한다. 이 경우, 취업을 한 상태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며, 이러한 설문방식으로 인해 영국 보호종료아동의 취업률이나 교육기관 재학률이 미국의 보호종료아동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노숙경험률의 경우, 미국은 최근의 노숙 경험 유무에 대해 단답형으로 묻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영국의 조사에서는 노숙 경험에 대해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16가지의 주거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조사에서 주거형태로 노숙을 선택한 아동들의 경우, 노숙을 경험했더라도 현재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사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국 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각 항

25) NYTD 만 19세의 자료는 코호트 2의 2016년 조사 결과임.

목별로 연령에 따라 증감의 추세를 비교하는 정도만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과 미국의 종단실태조사의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항의 수와 조사영역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미국 NYTD가 영국 SSDA903 OC3보다 훨씬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NYTD가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인 고용, 교육, 주거 관련 영역들에서는 영국의 문항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학 재학상태에 대한 응답지나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문항은 SSDA90 OC3에만 존재한다. 미국의 NYTD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재학 유무에 대해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설문으로는 대학 재학 등의 고등교육 관련 실태를 알기가 힘들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설문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SSDA903 OC3는 고용과 교육상황을 동시에 묻는 제한적 문항이기는 하지만 대학 재학과 관련된 응답지가 존재한다. 또한 주거 영역과 관련해서도 NYTD의 경우, 노숙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만이 존재하지만, SSDA903 OC3의 경우 노숙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이 없는 대신, 다양한 주거형태를 고려한 문항과 거주지의 적합성을 묻는 문항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숙 경험 유무나 거주지의 적합성에 대한 문항들은 주거불안이나 주거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쓰일 수 있으며, 주거형태에 대한 문항은 주거형태별 서비스 전달의 차이나 발달결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항들은 우리나라의 실태조사 문항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NYTD에서는 SSDA903 OC3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역인 서비스 수혜 상황, 사회적 관계, 건강 및 위험행동 등의 부분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문항들 역시 향후 우리나라의 실태조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서비스 수혜상황에 대한 데이터 뿐 아니라 보호종료 전의 데이터를 위탁보호통합데이터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²⁶⁾. 또한 NYTD의 조사에서는 보호종료

26)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시에 데이터 수집을 고려할만한 항목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호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항목(보호종료까지 보호환경에 대한 만족도,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경험한 보호시설 혹은 위탁가정의 수 등)

*보호서비스의 기관의 보호기간 (보호가 종료되기 직전에 보호서비스를 받은 기관, 가정 외 보호를 받은 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이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나 건강 및 위험행동과 관련한 영역을 재구성하여 심리사회적 영역(정신건강 영역 포함)과 신체적 건강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 등)

*보호서비스 기관에서 받은 자립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기간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자립생활 관련 교육, 법적 자문, 심리정서 지원 등)



제4장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 4 장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가.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2020년 9월 17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과거 보호종료아동에 한정했던 조사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보호종료 후 1년~3년차 아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립수당 이용자의 연락처를 수령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4, 5년차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 요청 후, 스노우볼링 방법을 통해 표본 수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대상자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을 <표 4-1>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모집단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에서 가정외보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보호종료 예정 및 보호종료 1~5년차 대상 아동으로, 총 3,836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최종 표본 수는 모든 문항에 응답한 아동만을 포함하였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 보호종료아동 3,104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4-1〉 표본 설계 내용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및 보호종료 1~5년차 대상
표 본 크 기	총 3,836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 보호종료아동 3,104명 - 확보된 표본 중 모든 문항에 응답을 실시한 표본만 유효 표본으로 활용함
표 본 배 분	가정의 보호시설 유형, 보호종료 연차, 성별, 지역에 따른 임의할당 - 조사 응답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함
표 집 틀	(보호종료 1~3년차) 자립수당 이용자 리스트 활용 (보호종료 예정 및 4, 5년차) 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및 관리자를 통한 스노우볼링 방법 활용

다. 조사 방법

설문 조사는 모바일 설문 링크(URL)를 통한 자기보고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 1년~3년차 아동, 보호종료 4, 5년차 아동으로 각각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범주별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내 생활하는 아동은 각 시설의 담당자를 통해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9년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2019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을 통해 총 748개의 시설명단을 확보 후, 총 748개의 시설명단 중 전화번호를 확인한 681개 기관을 1차 연락(가능)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1차 연락(가능) 대상기관에 우선으로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2020년 조사 대상 아동(보호종료 또는 만기 퇴소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 중 258개 기관에 조사 대상 아동이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최종 확인된 258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위한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발송하였다.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수령한 기관의 담당자가 대상 아동에게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전달하여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설문을 수행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있는 17

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역 센터별 지정된 담당자에게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발송하여, 각 센터 관할에 있는 아동 중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게 모바일 조사 링크(URL)를 전달하여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종료 직전 아동 251명과 연장 보호아동 481명을 포함하여 총 732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② 보호종료아동 1년 ~ 3년차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에서 3년차의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립수당 이용자 리스트를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보호종료 1년~3년차의 자립수당 이용자 리스트에 포함된 아동은 총 6,849명이었으며, 이들 중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6,431명이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2개 그룹으로 무작위추출²⁷⁾을 통해 1차(3,000명)와 2차(3,431명) 그룹으로 나누었다.

1차 그룹을 대상으로 개별 보호종료아동에게 문자 메시지로 본 조사 취지를 발송하고, 이후 모바일 설문 링크(URL)를 발송하였다. 모바일 설문 링크(URL) 발송 이후 회신이 오지 않은 보호종료아동(무응답자)에게 유선 연락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동일 방법으로 2차 대상 그룹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2차 대상 그룹 총 6,431명 전체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조사 안내 유선 연락을 수행하여, 보호종료 1년~3년차의 경우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2,601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③ 보호종료아동 4년, 5년차

보호종료 4, 5년차 아동의 경우 조사 대상 리스트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4, 5년차 중 연락이 가능한 대상자 현황을 받아 진행하였다. 기관 담당자 중 보호종료 4, 5년차 아동과 연락을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웹 링크(URL)를 제공하고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 4년~5년차 아동은 최종 503명이다.

27) 전화번호 이외의 다른 정보(지역, 연령, 성별 등)가 없음.

2. 조사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조사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용과 보호종료아동용으로 2종을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일반적 특성,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서비스, 심리정서의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 구분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문항 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43문항, 보호종료아동 53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별 각 영역 내 주요 지표 및 문항 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2020년 조사 내용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주요 지표	문항 수	주요 지표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 기간, 현재 보호 상태	6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보호 유형, 가정외보호 기간	8(8)
건강	건강검진, 구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4(1)	건강검진, 구강검진,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건강보험	7(11)
심리정서	주관적 자립 준비 정도,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보호종료 앞둔 심정	6(7)	주관적 자립 수준,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질, 자살생각, 필요한 심리지원	5(8)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3(3)	부모와의 관계,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5(12)
주거	희망하는 주거지·주거유형, 주거비 마련계획,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주거지원 필요도	5(1)	주거유형·비용, 동거인, 주거비 마련방법,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취약 주거 경험	6(7)
교육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주관적 학업수준, 등록금 생활비 마련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8(2)	교육수준, 대학 비진학 이유, 휴학중퇴 이유, 등록금·생활비 마련방법, 진로, 희망 교육수준	6(7)
고용 및 경제	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직업, 진로활동 경험 및 만족도, 진로체험 참여 및 만족도, 취업지원	6(1)	아르바이트 경험, 직장 그만둔 경험, 취업시 어려움, 필요한 취업지원, 취업상태, 실업률, 직업, 고용형태, 급여, 생활비, 부채(빚)	8(20)
자립지원 서비스	자립교육프로그램·서비스, CDA, 종료 후 연락 주기,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자립지원 정보 제공 방법	5(1)	보호당시 자립프로그램·서비스, 자립정착금·CDA·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서비스, 보호 종료 후 어려움, 필요한 지원	8(8)

주: ()는 보조문항을 포함한 문항 수를 의미함.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우선, 남자와 여자 아동이 각각 366명으로 50%씩 포함되었다. 전체 아동의 평균 연령은 19.3세로 이 가운데 만 17세가 14.1%, 만 18세가 39.2%,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 46.7%으로, 보호종료직전 아동과 연장보호아동의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현재 거주 지역은 서울 15%, 경기도 16.7%, 인천 5.9%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부산·경남 지역이 16.2%로 많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4%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혹은 중퇴나 휴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43.3%는 2-3년제 대학 혹은 4년제 대학교의 교육 수준을 나타냈다.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의 51.9%가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가 없거나(34.2%), 존재를 모르는 경우(13.9%)는 48.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37명으로 5.1%로 분석되었다.

<표 4-3>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
성별	남	732
	여	366
		366
연령	만 17세	103
	만 18세	287
	만 19세 이상	342
	평균(표준편차)	19.3세(2.0)

구분		사례수		%	
전체		732		100.0	
현재 거주 지역	서울	76		15.0	
	부산	38		7.5	
	대구	28		5.5	
	인천	30		5.9	
	광주	17		3.3	
	대전	14		2.8	
	울산	14		2.8	
	세종	1		0.2	
	경기	85		16.7	
	강원	24		4.7	
	충북	16		3.1	
	충남	20		3.9	
	전북	39		7.7	
	전남	25		4.9	
	경북	24		4.7	
	경남	44		8.7	
	제주	13		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		0.3
	고등학교 이하	재학/졸업	413	408	56.4
		중퇴/휴학		5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47	137	20.1
		중퇴/휴학		10	
	4년제 대학교 이상	재학/졸업	170	160	23.2
		중퇴/휴학		10	
부모 유무	대학원 이상		0		0.0
	있음		380		51.9
	없음		250		34.2
	모름		102		13.9
장애유무	있음		37		5.1
	없음		695		94.9

나. 가정외보호 특성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256명, 35%는 아동양육시설, 55명, 7.5%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전체의 42.5%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21명 57.5%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리위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인척위탁이 35.2%, 일반 가정위탁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은 10.9년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5년 이상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기간을 모른다는 응답 또한 30.6%로 많았다.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가장 적은 13.8%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65.7%가 연장보호 상태이며, 251명, 34.3%는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가정외보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732	100.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35.0
	공동생활가정		55	7.5
	가정위탁		421	57.5
	가정위탁	대리	(180)	(42.8)
		친인척	(148)	(35.2)
		일반	(93)	(22.1)
현재 시설 거주기간	모름		224	30.6
	5년 미만		101	13.8
	5년 이상~10년 미만		116	15.8
	10년 이상~15년 미만		115	15.7
	15년 이상		176	24.0
	평균(표준편차)		10.9년(6.2)	
보호 상태	종료 예정		251	34.3
	연장 보호		481	65.7

2. 보호종료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3,104명으로 47.1%가 남자, 52.9%가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1.3세로 만 20세~21세가 가장 많은 41.5%의 분포를 나타냈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만찬가지로 서울(18.9%), 경기(16.7%), 인천(4.8%)의 수도권(40.4%)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왔으며, 다음으로 부산·경남(1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1019명,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보호종료아동이 27.4%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보호종료아동 또한 24%로 약 51.4%, 즉 두 명 중 1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3,104		100.0	
성별	남		1,461		47.1	
	여		1,643		52.9	
연령	만 18세~19세		600		19.3	
	만 20세~21세		1,289		41.5	
	만 22세~23세		778		25.1	
	만 24세 이상		437		14.1	
	평균(표준편차)		21.3세(1.9)			
현재 거주 지역	서울		588		18.9	
	부산		280		9.0	
	대구		175		5.6	
	인천		149		4.8	
	광주		211		6.8	
	대전		154		5.0	
	울산		23		0.7	
	세종		7		0.2	
	경기		517		16.7	
	강원		128		4.1	
	충북		96		3.1	
	충남		130		4.2	
	전북		139		4.5	
	전남		136		4.4	
	경북		151		4.9	
	경남		169		5.4	
	제주		51		1.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0.9	
	고등학교 이하	중퇴/휴학	1,126	80	36.3	2.6
		재학		27		0.9
		졸업		1019		32.8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46	849	33.7	27.4
		중퇴/휴학		197		6.3
	4년제 대학교 이상	재학/졸업	883	745	28.4	24.0
		중퇴/휴학		138		4.4
	대학원 이상		21		0.7	
취업 상태	미취업		1,838		59.2	
	(학교 재학 중)		(617)		(19.9)	
	취업		1,266		40.8	
소득	월 평균 소득액(표준편차)		127만원 (72.2)			
부모 유무	있음		1,512		48.7	
	없음		1,198		38.6	
	모름		394		12.7	
장애유무	있음		132		4.3	
	없음		2,972		95.7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30.9	
	지역가입		374		12.0	
	의료급여		1,770		57.0	

학교에 재학 중인 19.9%의 아동을 포함하여 59.2%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으며, 40.8%의 보호종료아동이 취업상태²⁸⁾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세후 월 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48.7%로 나타났으며, 없거나(38.6%), 존재 유무를 모른다는(12.7%) 응답이 51.3%로 보호종료 아동 2명 중 1명 이상은 부모의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32명, 4.3%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7%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가정외보호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의 가정외보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45.7%가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했으며, 10.7%는 공동생활가정으로부터 퇴소하여 과반 수 이상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가 이루어졌으며, 43.7%는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중에서는 친인척 위탁가정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리 위탁가정이 41.6%, 일반 위탁가정이 28.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종료 당시 거주 지역은 서울(15.6%), 경기(14.6%), 인천(4.2%)의 수도권(34.4%)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왔으며, 다음으로 부산·경남(16.2%)로 나타났다²⁹⁾.

보호종료 당시에 살았던 곳에서 가정외보호 기간은 평균 11.8년으로 나타났고 15년 이상이 23.4%로 가정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가정외보호 기간을 모른다는 응답 또한 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유형은 만 18세의 만기 퇴소가 57.2%, 만 18세 이후 보호를 연장하다 퇴소한 연장 종료가 42.8%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 생활 기간은 평균 2.4년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보호종료 1~3년차 응답자가 8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종료 4년차는 280명, 9%, 5년차는 223명, 7.2%로 나타났다.

28) 본 조사에서 '취업상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②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③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등 때문에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29)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거주 지역 분포와 비교했을 때, 약 6%p가 보호종료 후 수도권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됨.

〈표 4-6〉 보호종료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3,104	100.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45.7
	공동생활가정	332	10.7
	가정위탁	1,355	43.7
	가정위탁	대리 (403)	(29.7)
		친인척 (564)	(41.6)
		일반 (388)	(28.6)
보호 종료 당시 거주 지역	서울	483	15.6
	부산	276	8.9
	대구	164	5.3
	인천	129	4.2
	광주	189	6.1
	대전	105	3.4
	울산	24	0.8
	세종	7	0.2
	경기	453	14.6
	강원	158	5.1
	충북	107	3.4
	충남	155	5.0
	전북	169	5.4
	전남	215	6.9
	경북	195	6.3
	경남	226	7.3
	제주	49	1.6
보호종료 당시 살고 있던 시설에서의 거주기간	모름	1,214	39.1
	5년 미만	274	8.8
	5년 이상~10년 미만	375	12.1
	10년 이상~15년 미만	515	16.6
	15년 이상	726	23.4
	평균(표준편차)	11.8년 (6.0)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57.2
	연장종료	1,330	42.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8.2
	2년차	921	29.7
	3년차	805	25.9
	4년차	280	9.0
	5년차	223	7.2
	평균(표준편차)	2.4년 (1.2)	



제5장

건강 영역

-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건강 실태
-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실태
-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 제4절 조사결과 비교
- 제5절 소결

제5장 건강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건강 실태

1. 건강 검진 현황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은 5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58.5%로 여아의 47.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아동이 67.2%로 타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65.8%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이 33.5%로 가장 낮았다. 부모가 있는 아동이 58.4%로 부모가 없거나 모르는 아동에 비해 높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이 78.4%로 없는 아동보다 26.7%p 높게 나타났다. 보호시설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율의 차이는 매우 컸는데, 아동양육시설이 93%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이 74.5%로 시설보호아동의 건강검진수검율이 가정위탁아동의 2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30인 이상의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입소 시, 연 1회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정위탁범주 내 유형별 차이는 일반가정위탁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상태 별로는 일반호보호아동이 72.1%로 연장보호 아동 43%에 비해 높은 수검율을 보였다.

〈표 5-1〉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x ²
전체		732	388	(53.0)	344	(47.0)	
성별	남	366	214	(58.5)	152	(41.5)	8.8**
	여	366	174	(47.5)	192	(52.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732	388	(53.0)	344	(47.0)		
연령	만 17세	103	61	(59.2)	42	(40.8)	51.2***	
	만 18세	287	193	(67.2)	94	(32.8)		
	만 19세 이상	342	134	(39.2)	208	(60.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73	(65.8)	142	(34.2)	63.9***	
	2-3년제 대학교	147	58	(39.5)	89	(60.5)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57	(33.5)	113	(66.5)		
부모 유무	있음	380	222	(58.4)	158	(41.6)	13.7**	
	없음	250	109	(43.6)	141	(56.4)		
	모름	102	57	(55.9)	45	(44.1)		
장애 유무	있음	37	29	(78.4)	8	(21.6)	10.1**	
	없음	695	359	(51.7)	336	(48.3)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56	238	(93.0)	18	(7.0)	298.6***
	공동생활가정		55	41	(74.5)	14	(25.5)	
	가정위탁		421	109	(25.9)	312	(74.1)	
	가정 위탁	대리	180	47	(26.1)	133	(73.9)	0.1
		친인척	148	37	(25.0)	111	(75.0)	
		일반	93	25	(26.9)	68	(73.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238	(93.0)	18	(7.0)	298.7***
	공동생활가정		55	41	(74.5)	14	(25.5)	
	대리 가정위탁		180	47	(26.1)	133	(73.9)	
	친인척 가정위탁		148	37	(25.0)	111	(75.0)	
	일반 가정위탁		93	25	(26.9)	68	(73.1)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81	(72.1)	70	(27.9)	56***
	연장보호		481	207	(43.0)	274	(57.0)	

*** $p < .001$, ** $p < .01$, * $p < .05$

주: 교육수준에서 2-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는 각각 재학, 중퇴/휴학, 졸업을 포함. 이하 모든 표에서 이와 같음.

규칙적인 구강검진은 아동의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건강습관 중 하나이다.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8.7%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수검율과 유사하게 보호유형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동양육시설이 84.8%로 구강검진 수검율이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이 69.1%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수검율이 가정위탁아동의 41.6%보다 높았다. 보호상태에 따른 차이는 일반보호가 70.9%로 연장보호아동의 52.4%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연령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가 65.5%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교 이상, 2-3년제 대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81.1%로 장애가 없는 아동 57.6%에 비해 구강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만 18세의 아동이 66.2%로 가장 높았고 만 17세, 만 19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수검율의 아동의 성별 차이는 남아가 59.8%로 여아에 비해 소폭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5-2〉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x ²	
전체		732	430	(58.7)	302	(41.3)		
성별	남	366	219	(59.8)	147	(40.2)	0.4	
	여	366	211	(57.7)	155	(42.3)		
연령	만 17세	103	62	(60.2)	41	(39.8)	13**	
	만 18세	287	190	(66.2)	97	(33.8)		
	만 19세 이상	342	178	(52.0)	164	(48.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72	(65.5)	143	(34.5)	19.2***	
	2·3년제 대학교	147	69	(46.9)	78	(53.1)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89	(52.4)	81	(47.6)		
부모 유무	있음	380	238	(62.6)	142	(37.4)	5.2	
	없음	250	134	(53.6)	116	(46.4)		
	모름	102	58	(56.9)	44	(43.1)		
장애 유무	있음	37	30	(81.1)	7	(18.9)	8**	
	없음	695	400	(57.6)	295	(42.4)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56	217	(84.8)	39	(15.2)	125.2***
	공동생활가정		55	38	(69.1)	17	(30.9)	
	가정위탁		421	175	(41.6)	246	(58.4)	
	가정 위탁	대리	180	65	(36.1)	115	(63.9)	4.3
		친인척	148	70	(47.3)	78	(52.7)	
		일반	93	40	(43.0)	53	(57.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217	(84.8)	39	(15.2)	129.5***
	공동생활가정		55	38	(69.1)	17	(30.9)	
	대리 가정위탁		180	65	(36.1)	115	(63.9)	
	친인척 가정위탁		148	70	(47.3)	78	(52.7)	
	일반 가정위탁		93	40	(43.0)	53	(57.0)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78	(70.9)	73	(29.1)	23.4***
	연장보호		481	252	(52.4)	229	(47.6)	

2. 주관적 건강상태

아동이 평가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5점 척도(1=매우 나쁨, 5=매우 좋음)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부모유무별, 보호유형별, 보호상태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3.8점으로 좋음에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아, 연령별로는 만 18세 아동,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보호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이, 보호상태별로는 일반보호아동이 보다 높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쁜편-보통-좋은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아동의 57.5%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으로 응답했고 보통은 37% 나쁜 편은 5.5%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76.5%) 및 공동생활 가정(72.7%)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가정위탁, 4학년제 대학교 이상, 만 19세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표 5-3〉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32	3 (0.4)	37 (5.1)	271 (37.0)	237 (32.4)	184 (25.1)	3.8 (0.9)	
성별	남	366	3 (0.8)	16 (4.4)	116 (31.7)	117 (32.0)	3.9 (0.9)	3.5***
	여	366	0 (0.0)	21 (5.7)	155 (42.3)	120 (32.8)	3.7 (0.9)	
연령	만 17세	103	0 (0.0)	4 (3.9)	31 (30.1)	38 (36.9)	3.9 (0.9)	22.5***
	만 18세	287	1 (0.3)	4 (1.4)	91 (31.7)	92 (32.1)	4.0 (0.9)	
	만 19세 이상	342	2 (0.6)	29 (8.5)	149 (43.6)	107 (31.3)	3.5 (0.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 (0.2)	9 (2.2)	135 (32.5)	136 (32.8)	3.9 (0.9)	21***
	2-3년제 대학교	147	1 (0.7)	12 (8.2)	58 (39.5)	49 (33.3)	3.6 (0.9)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 (0.6)	16 (9.4)	78 (45.9)	52 (30.6)	3.5 (0.9)	
부모 유무	있음	380	0 (0.0)	19 (5.0)	132 (34.7)	126 (33.2)	3.8 (0.9)	4.3*
	없음	250	3 (1.2)	15 (6.0)	102 (40.8)	80 (32.0)	3.6 (0.9)	
	모름	102	0 (0.0)	3 (2.9)	37 (36.3)	31 (30.4)	3.9 (0.9)	
장애 유무	있음	37	0 (0.0)	2 (5.4)	12 (32.4)	10 (27.0)	3.9 (1.0)	1
	없음	695	3 (0.4)	35 (5.0)	259 (37.3)	227 (32.7)	3.8 (0.9)	

구분		사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32	3 (0.4)	37 (5.1)	271 (37.0)	237 (32.4)	184 (25.1)	3.8 (0.9)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56	0 (0.0)	1 (0.4)	59 (23.0)	93 (36.3)	103 (40.2)	4.2 (0.8)	54.1***	
	공동생활가정	55	0 (0.0)	1 (1.8)	14 (25.5)	22 (40.0)	18 (32.7)	4.0 (0.8)		
	가정위탁	421	3 (0.7)	35 (8.3)	198 (47.0)	122 (29.0)	63 (15.0)	3.5 (0.9)		
	가정 위탁	대리	180	1 (0.6)	14 (7.8)	92 (51.1)	48 (26.7)	25 (13.9)	3.5 (0.8)	0.3
		친인척	148	1 (0.7)	12 (8.1)	65 (43.9)	49 (33.1)	21 (14.2)	3.5 (0.9)	
		일반	93	1 (1.1)	9 (9.7)	41 (44.1)	25 (26.9)	17 (18.3)	3.5 (0.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0 (0.0)	1 (0.4)	59 (23.0)	93 (36.3)	103 (40.2)	4.2 (0.8)	27.1***	
	공동생활가정	55	0 (0.0)	1 (1.8)	14 (25.5)	22 (40.0)	18 (32.7)	4.0 (0.8)		
	대리 가정위탁	180	1 (0.6)	14 (7.8)	92 (51.1)	48 (26.7)	25 (13.9)	3.5 (0.8)		
	친인척 가정위탁	148	1 (0.7)	12 (8.1)	65 (43.9)	49 (33.1)	21 (14.2)	3.5 (0.9)		
	일반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93	1 (1.1)	9 (9.7)	41 (44.1)	25 (26.9)	17 (18.3)		3.5 (0.9)
		일반 가정위탁	93	1 (1.1)	9 (9.7)	41 (44.1)	25 (26.9)	17 (18.3)		3.5 (0.9)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0 (0.0)	6 (2.4)	67 (26.7)	94 (37.5)	84 (33.5)	4.0 (0.8)	5.6***	
	연장보호	481	3 (0.6)	31 (6.4)	204 (42.4)	143 (29.7)	100 (20.8)	3.6 (0.9)		

3. 장애여부

조사대상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5.1%였으며 보호유형에 따른 장애아동의 비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9.1%,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8.2%로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2.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6.7%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응답한 반면 2-3년제 대학교 교육수준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4.1%, 4년제 대학교 이상 보호종료예정아동은 1.8%에 불과했다.

〈표 5-4〉 장애여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단위: 명, %)
전체		732	37 (5.1)	695 (94.9)	χ^2
성별	남	366	20 (5.5)	346 (94.5)	0.3
	여	366	17 (4.6)	349 (95.4)	
연령	만 17세	103	5 (4.9)	98 (95.1)	0.1
	만 18세	287	14 (4.9)	273 (95.1)	
	만 19세 이상	342	18 (5.3)	324 (94.7)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732	37	(5.1)	695	(94.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8	(6.7)	387	(93.3)	6.6*	
	2-3년제 대학교	147	6	(4.1)	141	(95.9)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	(1.8)	167	(98.2)		
부모 유무	있음	380	22	(5.8)	358	(94.2)	2.9	
	없음	250	8	(3.2)	242	(96.8)		
	모름	102	7	(6.9)	95	(93.1)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56	21	(8.2)	235	(91.8)	12.4**
	공동생활가정		55	5	(9.1)	50	(90.9)	
	가정위탁		421	11	(2.6)	410	(97.4)	
	가정 위탁	대리	180	6	(3.3)	174	(96.7)	0.6
		친인척	148	3	(2.0)	145	(98.0)	
		일반	93	2	(2.2)	91	(97.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21	(8.2)	235	(91.8)	12.7*
	공동생활가정		55	5	(9.1)	50	(90.9)	
	대리 가정위탁		180	6	(3.3)	174	(96.7)	
	친인척 가정위탁		148	3	(2.0)	145	(98.0)	
	일반 가정위탁		93	2	(2.2)	91	(97.8)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1	(4.4)	240	(95.6)	0.4
	연장보호		481	26	(5.4)	455	(94.6)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37인의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적장애가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18.9%)가 높았다. 이러한 분포는 아동의 특성별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적장애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이 100%로 가장 높았고, 부모유무를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71.4%, 남자 보호종료예정아동의 70.0%로 높았다. 다음으로 지체장애의 경우 만 17세 아동, 여자아동, 4년제 대학교이상 아동, 가정위탁 아동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언어장애는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아동 사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만 17세 아동의 20.0%, 대리가정위탁 아동의 16.7%, 일반보호아동의 18.2%가 장애유형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했다.

〈표 5-5〉 장애종류(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모름		
전체		37	7 (18.9)	1 2.7	3 8.1	2 5.4	22 59.5	3 8.1		
성별	남	20	2 (10.0)	0 (0.0)	2 (10.0)	2 (10.0)	14 (70.0)	1 (5.0)		
	여	17	5 (29.4)	1 (5.9)	1 (5.9)	0 (0.0)	8 (47.1)	2 (11.8)		
연령	만 17세	5	2 (40.0)	0 (0.0)	0 (0.0)	0 (0.0)	2 (40.0)	1 (20.0)		
	만 18세	14	3 (21.4)	0 (0.0)	1 (7.1)	1 (7.1)	8 (57.1)	2 (14.3)		
	만 19세 이상	18	2 (11.1)	1 (5.6)	2 (11.1)	1 (5.6)	12 (66.7)	0 (0.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8	5 (17.9)	0 (0.0)	1 (3.6)	1 (3.6)	19 (67.9)	3 (10.7)		
	2~3년제 대학교	6	1 (16.7)	1 16.7	1 (16.7)	0 (0.0)	3 (50.0)	0 (0.0)		
	4년제 대학교 이상	3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부모 유무	있음	22	3 (13.6)	1 (4.5)	1 (4.5)	1 (4.5)	15 (68.2)	2 (9.1)		
	없음	8	2 (25.0)	0 (0.0)	2 (25.0)	1 (12.5)	2 (25.0)	1 (12.5)		
	모름	7	2 (28.6)	0 (0.0)	0 (0.0)	0 (0.0)	5 (71.4)	0 (0.0)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1	3 (14.3)	1 (4.8)	2 (9.5)	0 (0.0)	13 (61.9)	2 (9.5)		
	공동생활가정	5	0 (0.0)	0 (0.0)	0 (0.0)	0 (0.0)	5 (100.0)	0 (0.0)		
	가정위탁	11	4 (36.4)	0 (0.0)	1 (9.1)	2 (18.2)	4 (36.4)	1 (9.1)		
	가정 위탁	대리	6	2 (33.3)	0 (0.0)	1 (16.7)	0 (0.0)	2 (33.3)	1 (16.7)	
		친인척	3	0 (0.0)	0 (0.0)	0 (0.0)	2 (66.7)	2 (66.7)	0 (0.0)	
		일반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호 상태	일반보호	11	3 (27.3)	0 (0.0)	0 (0.0)	0 (0.0)	6 (54.5)	2 (18.2)		
	연장보호	26	4 (15.4)	1 (3.8)	3 (11.5)	2 (7.7)	16 (61.5)	1 (3.8)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실태

본 절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건강실태 분석을 위해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동일 항목인 건강검진 현황,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여부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의 질병경험과 치료여부, 건강보험가입 및 체납경험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건강 검진 현황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47.1%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건강보험 종류별, 보호유형별, 보호종료 연차별, 장애유무와 자립수당 대상별

로 건강검진 수검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20-21세 자립청소년의 수검율이 가장 높았고 만 22-23세, 만 24세 이상의 순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율의 차이는 직장가입자가 60.1%로 의료급여 42.8%, 지역가입자 34.5%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이 54%이상 높았고 이에 비해 가정위탁은 3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호종료 연차별로는 1년차가 57.7%로 가장 높은 건강검진 수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2년차가 높았다. 자립 1~3년차에 해당하는 자립수당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율은 48.1%로 자립 4~5년차인 자립수당 비대상자의 4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6〉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x ²	
전체		3,104	1,463	(47.1)	1,641	(52.9)		
성별	남	1,461	711	(48.7)	750	(51.3)	2.6	
	여	1,643	752	(45.8)	891	(54.2)		
연령	만 18~19세	600	377	(62.8)	223	(37.2)	80.5***	
	만 20~21세	1,289	531	(41.2)	758	(58.8)		
	만 22~23세	778	344	(44.2)	434	(55.8)		
	만 24세 이상	437	211	(48.3)	226	(51.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38	(46.6)	616	(53.4)	0.3	
	2~3년제 대학교	524	245	(46.8)	279	(53.2)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680	(47.7)	746	(52.3)		
부모 유무	있음	1,512	739	(48.9)	773	(51.1)	3.9	
	없음	1,198	540	(45.1)	658	(54.9)		
	모름	394	184	(46.7)	210	(53.3)		
장애유무	있음	132	77	(58.3)	55	(41.7)	6.9**	
	없음	2,972	1,386	(46.6)	1,586	(53.4)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577	(60.1)	383	(39.9)	102.3***	
	지역가입	374	129	(34.5)	245	(65.5)		
	의료급여	1,770	757	(42.8)	1,013	(57.2)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1,417	771	(54.4)	646	(45.6)	87***	
	공동생활가정	332	182	(54.8)	150	(45.2)		
	가정위탁	1,355	510	(37.6)	845	(62.4)		
	가정 위탁	대리	403	144	(35.7)	259	(64.3)	1.0
		친인척	564	215	(38.1)	349	(61.9)	
		일반	388	151	(38.9)	237	(61.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771	(54.4)	646	(45.6)	87.9***	
	공동생활가정	332	182	(54.8)	150	(45.2)		
	대리 가정위탁	403	144	(35.7)	259	(64.3)		
	친인척 가정위탁	564	215	(38.1)	349	(61.9)		
	일반 가정위탁	388	151	(38.9)	237	(61.1)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104	1,463	(47.1)	1,641	(52.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850	(47.9)	924	(52.1)	1.0
	연장종료	1,330	613	(46.1)	717	(53.9)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505	(57.7)	370	(42.3)	64.1***
	2년차	921	429	(46.6)	492	(53.4)	
	3년차	805	316	(39.3)	489	(60.7)	
	4년차	280	118	(42.1)	162	(57.9)	
	5년차	223	95	(42.6)	128	(57.4)	
자립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250	(48.1)	1,351	(51.9)	5.5*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13	(42.3)	290	(57.7)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은 45.3%로 보호종료아동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부모유무별, 장애유무, 건강보험 종류별, 보호종료 연차별 차이를 보였다. 여자 보호종료아동의 수검율은 49.3%로 남자에 비해 8.6%p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만 24세 이상이 51.3%, 만 18~19세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만 20~21세가 39.5%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이하가 가장 낮은 구강검진 수검율을 보였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장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수록 구강검진 수검율은 높았다. 건강검진 수검율과는 달리 구강검진 수검율에서는 보호유형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호종료 연차별로는 1년차의 구강검진 수검율이 가장 높았다.

〈표 5-7〉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104	1,405	(45.3)	1,699	(54.7)	
성별	남	1,461	595	(40.7)	866	(59.3)	22.9***
	여	1,643	810	(49.3)	833	(50.7)	
연령	만 18~19세	600	305	(50.8)	295	(49.2)	32.4***
	만 20~21세	1,289	509	(39.5)	780	(60.5)	
	만 22~23세	778	367	(47.2)	411	(52.8)	
	만 24세 이상	437	224	(51.3)	213	(48.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80	(41.6)	674	(58.4)	13.2**
	2~3년제 대학교	524	231	(44.1)	293	(55.9)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694	(48.7)	732	(51.3)	
부모 유무	있음	1,512	740	(48.9)	772	(51.1)	16.5***
	없음	1,198	506	(42.2)	692	(57.8)	
	모름	394	159	(40.4)	235	(59.6)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104	1,405	(45.3)	1,699	(54.7)		
장애유무	있음	132	76	(57.6)	56	(42.4)	8.4**	
	없음	2,972	1,329	(44.7)	1,643	(55.3)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507	(52.8)	453	(47.2)	32.1***	
	지역가입	374	160	(42.8)	214	(57.2)		
	의료급여	1,770	738	(41.7)	1,032	(58.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648	(45.7)	769	(54.3)	3.6	
	공동생활가정	332	134	(40.4)	198	(59.6)		
	가정위탁	1,355	623	(46.0)	732	(54.0)		
	가정 위탁	대리	403	176	(43.7)	227	(56.3)	1.3
		친인척	564	267	(47.3)	297	(52.7)	
		일반	388	180	(46.4)	208	(53.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648	(45.7)	769	(54.3)	4.9	
	공동생활가정	332	134	(40.4)	198	(59.6)		
	대리 가정위탁	403	176	(43.7)	227	(56.3)		
	친인척 가정위탁	564	267	(47.3)	297	(52.7)		
	일반 가정위탁	388	180	(46.4)	208	(53.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784	(44.2)	990	(55.8)	1.9	
	연장종료	1,330	621	(46.7)	709	(53.3)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459	(52.5)	416	(47.5)	29.1***	
	2년차	921	397	(43.1)	524	(56.9)		
	3년차	805	323	(40.1)	482	(59.9)		
	4년차	280	122	(43.6)	158	(56.4)		
	5년차	223	104	(46.6)	119	(53.4)		
자립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179	(45.3)	1,422	(54.7)	0.0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26	(44.9)	277	(55.1)		

2. 최근 질병경험여부 및 유형, 치료여부, 미치료 이유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경험여부에 대해서 35.8%가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남자 보호종료아동 중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의료급여 가입자,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일수록, 보호종료유형이 만기퇴소일수록 질병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 연차별로는 1년차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4~5년차의 자립수당 비해당자의 질병경험이 낮은 편이었다.

보호종료아동이 앓았던 질병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감기, 장염, 알레르기 등의 내과질환이 32.4%로 가장 높았고 치과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안과질환, 정신과 질환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피부과 질환

관련 높은 질병 경험율을 보였으며, 만 24세 이상, 4년제 대학교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시, 보호종료 연차가 3~4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치과질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울, 불안,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HD), 외상 등의 정신과 질환은 장애가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보호종료아동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8〉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지거나 관절부상 등)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등)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안과 질환(눈병 등)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 애(ADHD), 외상	기타질환	χ ²	
전체	3,104	1112 (35.8)	347 (11.2)	705 (22.7)	1007 (32.4)	782 (25.2)	316 (10.2)	44 (1.4)	626 (20.2)	43 (1.4)	302 (9.7)	51 (1.6)		
성별	남	1,461	649 (44.4)	170 (11.6)	274 (18.8)	316 (21.6)	264 (18.1)	77 (5.3)	21 (1.4)	249 (17.0)	14 (1.0)	107 (7.3)	22 (1.5)	129.3***
	여	1,643	463 (28.2)	177 (10.8)	431 (26.2)	691 (42.1)	518 (31.5)	239 (14.5)	23 (1.4)	377 (22.9)	29 (1.8)	195 (11.9)	29 (1.8)	
연령	만 18~19세	600	261 (43.5)	66 (11.0)	123 (20.5)	146 (24.3)	92 (15.3)	53 (8.8)	8 (1.3)	100 (16.7)	7 (1.2)	62 (10.3)	9 (1.5)	62.9***
	만 20~21세	1,289	442 (34.3)	142 (11.0)	286 (22.2)	419 (32.5)	338 (26.2)	139 (10.8)	21 (1.6)	252 (19.6)	18 (1.4)	140 (10.9)	23 (1.8)	
	만 22~23세	778	265 (34.1)	92 (11.8)	187 (24.0)	275 (35.3)	211 (27.1)	79 (10.2)	7 (0.9)	177 (22.8)	11 (1.4)	63 (8.1)	16 (2.1)	
	만 24세 이상	437	144 (33.0)	47 (10.8)	109 (24.9)	167 (38.2)	141 (32.3)	45 (10.3)	8 (1.8)	97 (22.2)	7 (1.6)	37 (8.5)	3 (0.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56 (39.5)	144 (12.5)	224 (19.4)	308 (26.7)	252 (21.8)	92 (8.0)	17 (1.5)	211 (18.3)	18 (1.6)	147 (12.7)	21 (1.8)	67.9***
	2~3년제 대학교	524	206 (39.3)	47 (9.0)	115 (21.9)	163 (31.1)	96 (18.3)	50 (9.5)	7 (1.3)	87 (16.6)	5 (1.0)	45 (8.6)	8 (1.5)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450 (31.6)	156 (10.9)	366 (25.7)	536 (37.6)	434 (30.4)	174 (12.2)	20 (1.4)	328 (23.0)	20 (1.4)	110 (7.7)	22 (1.5)	
부모 유무	있음	1,512	545 (36.0)	144 (9.5)	339 (22.4)	478 (31.6)	374 (24.7)	142 (9.4)	20 (1.3)	298 (19.7)	16 (1.1)	140 (9.3)	22 (1.5)	24.5
	없음	1,198	416 (34.7)	154 (12.9)	282 (23.5)	404 (33.7)	317 (26.5)	142 (11.9)	18 (1.5)	252 (21.0)	20 (1.7)	123 (10.3)	20 (1.7)	
	모름	394	151 (38.3)	49 (12.4)	84 (21.3)	125 (31.7)	91 (23.1)	32 (8.1)	6 (1.5)	76 (19.3)	7 (1.8)	39 (9.9)	9 (2.3)	
장애 유무	있음	132	51 (38.6)	12 (9.1)	22 (16.7)	30 (22.7)	27 (20.5)	5 (3.8)	1 (0.8)	24 (18.2)	8 (6.1)	24 (18.2)	4 (3.0)	71.6***
	없음	2,972	1061 (35.7)	335 (11.3)	683 (23.0)	977 (32.9)	755 (25.4)	311 (10.5)	43 (1.4)	602 (20.3)	35 (1.2)	278 (9.4)	47 (1.6)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343 (35.7)	125 (13.0)	216 (22.5)	329 (34.3)	256 (26.7)	106 (11.0)	12 (1.3)	204 (21.3)	13 (1.4)	69 (7.2)	15 (1.6)	32.5*
	지역가입	374	107 (28.6)	51 (13.6)	102 (27.3)	122 (32.6)	104 (27.8)	42 (11.2)	8 (2.1)	82 (21.9)	5 (1.3)	36 (9.6)	10 (2.7)	
	의료급여	1,770	662 (37.4)	171 (9.7)	387 (21.9)	556 (31.4)	422 (23.8)	168 (9.5)	24 (1.4)	340 (19.2)	25 (1.4)	197 (11.1)	26 (1.5)	

구분		사례수	없음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지거나 관절부상 등)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등)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안과 질환(눈병 등)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HD), 외상	기타질환	x ²
전체		3,104	1112 (35.8)	347 (11.2)	705 (22.7)	1007 (32.4)	782 (25.2)	316 (10.2)	44 (1.4)	626 (20.2)	43 (1.4)	302 (9.7)	51 (1.6)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1,417	572 (40.4)	144 (10.2)	277 (19.5)	386 (27.2)	300 (21.2)	122 (8.6)	24 (1.7)	252 (17.8)	23 (1.6)	97 (6.8)	26 (1.8)	57.1***
	공동생활가정	332	130 (39.2)	36 (10.8)	82 (24.7)	108 (32.5)	66 (19.9)	28 (8.4)	4 (1.2)	66 (19.9)	10 (3.0)	48 (14.5)	2 (0.6)	
	가정위탁	1,355	410 (30.3)	167 (12.3)	346 (25.5)	513 (37.9)	416 (30.7)	166 (12.3)	16 (1.2)	308 (22.7)	10 (0.7)	157 (11.6)	23 (1.7)	
	가정 위탁	대리	403	119 (29.5)	45 (11.2)	114 (28.3)	171 (42.4)	125 (31.0)	55 (13.6)	3 (0.7)	92 (22.8)	2 (0.5)	46 (11.4)	2 (0.5)
		친인척	564	151 (26.8)	84 (14.9)	150 (26.6)	223 (39.5)	188 (33.3)	73 (12.9)	7 (1.2)	142 (25.2)	5 (0.9)	64 (11.3)	14 (2.5)
	일반	388	140 (36.1)	38 (9.8)	82 (21.1)	119 (30.7)	103 (26.5)	38 (9.8)	6 (1.5)	74 (19.1)	3 (0.8)	47 (12.1)	7 (1.8)	38.4***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72 (40.4)	144 (10.2)	277 (19.5)	386 (27.2)	300 (21.2)	122 (8.6)	24 (1.7)	252 (17.8)	23 (1.6)	97 (6.8)	26 (1.8)	93.9***
	공동생활가정	332	130 (39.2)	36 (10.8)	82 (24.7)	108 (32.5)	66 (19.9)	28 (8.4)	4 (1.2)	66 (19.9)	10 (3.0)	48 (14.5)	2 (0.6)	
	대리 가정위탁	403	119 (29.5)	45 (11.2)	114 (28.3)	171 (42.4)	125 (31.0)	55 (13.6)	3 (0.7)	92 (22.8)	2 (0.5)	46 (11.4)	2 (0.5)	
	친인척 가정위탁	564	151 (26.8)	84 (14.9)	150 (26.6)	223 (39.5)	188 (33.3)	73 (12.9)	7 (1.2)	142 (25.2)	5 (0.9)	64 (11.3)	14 (2.5)	
	일반 가정위탁	388	140 (36.1)	38 (9.8)	82 (21.1)	119 (30.7)	103 (26.5)	38 (9.8)	6 (1.5)	74 (19.1)	3 (0.8)	47 (12.1)	7 (1.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669 (37.7)	209 (11.8)	370 (20.9)	523 (29.5)	396 (22.3)	165 (9.3)	26 (1.5)	335 (18.9)	24 (1.4)	183 (10.3)	29 (1.6)	23.4***
	연장종료	1,330	443 (33.3)	138 (10.4)	335 (25.2)	484 (36.4)	386 (29.0)	151 (11.4)	18 (1.4)	291 (21.9)	19 (1.4)	119 (8.9)	22 (1.7)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366 (41.8)	80 (9.1)	188 (21.5)	239 (27.3)	190 (21.7)	94 (10.7)	11 (1.3)	162 (18.5)	13 (1.5)	76 (8.7)	13 (1.5)	64.2***
	2년차	921	310 (33.7)	106 (11.5)	217 (23.6)	313 (34.0)	229 (24.9)	86 (9.3)	11 (1.2)	197 (21.4)	14 (1.5)	103 (11.2)	11 (1.2)	
	3년차	805	246 (30.6)	98 (12.2)	193 (24.0)	284 (35.3)	229 (28.4)	93 (11.6)	15 (1.9)	183 (22.7)	9 (1.1)	81 (10.1)	18 (2.2)	
	4년차	280	106 (37.9)	39 (13.9)	61 (21.8)	106 (37.9)	79 (28.2)	24 (8.6)	4 (1.4)	46 (16.4)	5 (1.8)	27 (9.6)	6 (2.1)	
	5년차	223	84 (37.7)	24 (10.8)	46 (20.6)	65 (29.1)	55 (24.7)	19 (8.5)	3 (1.3)	38 (17.0)	2 (0.9)	15 (6.7)	3 (1.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922 (35.4)	284 (10.9)	598 (23.0)	836 (32.1)	648 (24.9)	273 (10.5)	37 (1.4)	542 (20.8)	36 (1.4)	260 (10.0)	42 (1.6)	12.6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90 (37.8)	63 (12.5)	107 (21.3)	171 (34.0)	134 (26.6)	43 (8.5)	7 (1.4)	84 (16.7)	7 (1.4)	42 (8.3)	9 (1.8)	

최근 1년간 질병을 경험한 보호종료아동에 한정해서 질병의 치료여부를 물었을 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43.3%,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6.7%로 3.4%p 높았다. 치료를 부분적으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험은 고등학교 이하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부모가 없거나 일반가정위탁에 있거나 보호종료가 3년차인 보호종료아동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9〉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던 경우) 치료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부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음		일부 치료만 받았음		전혀 치료받지 못함		x ²	
전체		1,992	862	(43.3)	930	(46.7)	200	(10.0)		
성별	남	812	370	(45.6)	351	(43.2)	91	(11.2)	7.0**	
	여	1,180	492	(41.7)	579	(49.1)	109	(9.2)		
연령	만 18~19세	339	165	(48.7)	132	(38.9)	42	(12.4)	19.0***	
	만 20~21세	847	340	(40.1)	410	(48.4)	97	(11.5)		
	만 22~23세	513	221	(43.1)	252	(49.1)	40	(7.8)		
	만 24세 이상	293	136	(46.4)	136	(46.4)	21	(7.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698	273	(39.1)	332	(47.6)	93	(13.3)	18.4***	
	2~3년제 대학교	318	149	(46.9)	137	(43.1)	32	(10.1)		
	4년제 대학교 이상	976	440	(45.1)	461	(47.2)	75	(7.7)		
부모 유무	있음	967	442	(45.7)	431	(44.6)	94	(9.7)	7.8	
	없음	782	314	(40.2)	392	(50.1)	76	(9.7)		
	모름	243	106	(43.6)	107	(44.0)	30	(12.3)		
장애 유무	있음	81	38	(46.9)	36	(44.4)	7	(8.6)	0.5	
	없음	1,911	824	(43.1)	894	(46.8)	193	(10.1)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617	268	(43.4)	288	(46.7)	61	(9.9)	2.5	
	지역가입	267	107	(40.1)	136	(50.9)	24	(9.0)		
	의료급여	1,108	487	(44.0)	506	(45.7)	115	(10.4)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845	367	(43.4)	385	(45.6)	93	(11.0)	2.5
	공동생활가정		202	90	(44.6)	91	(45.0)	21	(10.4)	
	가정위탁		945	405	(42.9)	454	(48.0)	86	(9.1)	
	가정 위탁	대리	284	137	(48.2)	120	(42.3)	27	(9.5)	14.3***
		친인척	413	181	(43.8)	204	(49.4)	28	(6.8)	
		일반	248	87	(35.1)	130		31	(12.5)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845	367	(43.4)	385	(45.6)	93	(11.0)	16.3*
	공동생활가정		202	90	(44.6)	91	(45.0)	21	(10.4)	
	대리 가정위탁		284	137	(48.2)	120	(42.3)	27	(9.5)	
	친인척 가정위탁		413	181	(43.8)	204	(49.4)	28	(6.8)	
	일반 가정위탁		248	87	(35.1)	130	(52.4)	31	(12.5)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105	470	(42.5)	509	(46.1)	126	(11.4)	5.1
	연장종료		887	392	(44.2)	421	(47.5)	74	(8.3)	

구분		사례수	전부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음		일부 치료만 받았음		전혀 치료받지 못함		χ^2
전체		1,992	862	(43.3)	930	(46.7)	200	(10.0)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509	263	(51.7)	198	(38.9)	48	(9.4)	28.5***
	2년차	611	253	(41.4)	293	(48.0)	65	(10.6)	
	3년차	559	208	(37.2)	297	(53.1)	54	(9.7)	
	4년차	174	78	(44.8)	74	(42.5)	22	(12.6)	
	5년차	139	60	(43.2)	68	(48.9)	11	(7.9)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679	724	(43.1)	788	(46.9)	167	(9.9)	0.3
	비해당 (자립 4~5년차)	313	138	(44.1)	142	(45.4)	33	(10.5)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으나 완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전체 보호종료 아동 1,130명 중 치료비가 없어서(37.7%) 또는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서(0.5%)라는 응답이 38.2%에 달했다. 특히 만24세 이상 또는 부모가 없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 보호종료 4년차, 2년차 보호종료아동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 높게 나타났던 것은 많이 아프지 않아서(34.3%), 귀찮아서(12.9%)의 순이었다.

〈표 5-10〉 (최근 1년간 질병이 있었으나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경우) 미치료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많이 아프지 않아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이 멀어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서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χ ²	
전체		1,130	388 (34.3)	426 (37.7)	26 (2.3)	6 (.5)	23 (2.0)	40 (3.5)	146 (12.9)	7 (.6)	68 (6.0)		
성별	남	442	155 (35.1)	157 (35.5)	11 (2.5)	5 (1.1)	9 (2.0)	12 (2.7)	60 (13.6)	5 (1.1)	28 (6.3)	10.9	
	여	688	233 (33.9)	269 (39.1)	15 (2.2)	1 (.1)	14 (2.0)	28 (4.1)	86 (12.5)	2 (.3)	40 (5.8)		
연령	만 18~19세	174	67 (38.5)	53 (30.5)	6 (3.4)	0 (.0)	6 (3.4)	7 (4.0)	21 (12.1)	0 (.0)	14 (8.0)	28.6	
	만 20~21세	507	168 (33.1)	193 (38.1)	10 (2.0)	3 (.6)	14 (2.8)	21 (4.1)	69 (13.6)	4 (.8)	25 (4.9)		
	만 22~23세	292	100 (34.2)	113 (38.7)	4 (1.4)	1 (.3)	3 (1.0)	6 (2.1)	42 (14.4)	2 (.7)	21 (7.2)		
	만 24세 이상	157	53 (33.8)	67 (42.7)	6 (3.8)	2 (1.3)	0 (.0)	6 (3.8)	14 (8.9)	1 (.6)	8 (5.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25	134 (31.5)	160 (37.6)	10 (2.4)	2 (.5)	10 (2.4)	14 (3.3)	54 (12.7)	5 (1.2)	36 (8.5)	24.8	
	2~3년제 대학교	169	62 (36.7)	53 (31.4)	5 (3.0)	0 (.0)	7 (4.1)	9 (5.3)	25 (14.8)	0 (.0)	8 (4.7)		
	4년제 대학교 이상	536	192 (35.8)	213 (39.7)	11 (2.1)	4 (.7)	6 (1.1)	17 (3.2)	67 (12.5)	2 (.4)	24 (4.5)		
부모 유무	있음	525	198 (37.7)	170 (32.4)	13 (2.5)	1 (.2)	7 (1.3)	17 (3.2)	73 (13.9)	2 (.4)	44 (8.4)	36.7***	
	없음	468	146 (31.2)	201 (42.9)	12 (2.6)	4 (.9)	10 (2.1)	14 (3.0)	58 (12.4)	5 (1.1)	18 (3.8)		
	모름	137	44 (32.1)	55 (40.1)	1 (.7)	1 (.7)	6 (4.4)	9 (6.6)	15 (10.9)	0 (.0)	6 (4.4)		
장애 유무	있음	43	16 (37.2)	10 (23.3)	1 (2.3)	0 (.0)	1 (2.3)	1 (2.3)	6 (14.0)	3 (7.0)	5 (11.6)	34.6***	
	없음	1,087	372 (34.2)	416 (38.3)	25 (2.3)	6 (.6)	22 (2.0)	39 (3.6)	140 (12.9)	4 (.4)	63 (5.8)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349	128 (36.7)	121 (34.7)	8 (2.3)	2 (.6)	2 (.6)	10 (2.9)	44 (12.6)	1 (.3)	33 (9.5)	25.9	
	지역가입	160	49 (30.6)	68 (42.5)	4 (2.5)	0 (.0)	4 (2.5)	7 (4.4)	17 (10.6)	0 (.0)	11 (6.9)		
	의료급여	621	211 (34.0)	237 (38.2)	14 (2.3)	4 (.6)	17 (2.7)	23 (3.7)	85 (13.7)	6 (1.0)	24 (3.9)		
보호 유형 ¹⁾	아동양육시설	478	172 (36.0)	180 (37.7)	11 (2.3)	5 (1.0)	12 (2.5)	11 (2.3)	59 (12.3)	1 (.2)	27 (5.6)	19.2	
	공동생활가정	112	38 (33.9)	36 (32.1)	2 (1.8)	0 (.0)	2 (1.8)	4 (3.6)	21 (18.8)	0 (.0)	9 (8.0)		
	가정위탁	540	178 (33.0)	210 (38.9)	13 (2.4)	1 (.2)	9 (1.7)	25 (4.6)	66 (12.2)	6 (1.1)	32 (5.9)		
	가정 위탁	대리	147	50 (34.0)	55 (37.4)	3 (2.0)	0 (.0)	3 (2.0)	5 (3.4)	22 (15.0)	1 (.7)	8 (5.4)	9.5
		친인척	232	81 (34.9)	90 (38.8)	4 (1.7)	0 (.0)	2 (.9)	11 (4.7)	27 (11.6)	3 (1.3)	14 (6.0)	
		일반	161	47 (29.2)	65 (40.4)	6 (3.7)	1 (.6)	4 (2.5)	9 (5.6)	17 (10.6)	2 (1.2)	10 (6.2)	

구분		사례수	많이 아프지 않아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이 멀어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서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x ²
전체		1,130	388 (34.3)	426 (37.7)	26 (2.3)	6 (.5)	23 (2.0)	40 (3.5)	146 (12.9)	7 (.6)	68 (6.0)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478	172 (36.0)	180 (37.7)	11 (2.3)	5 (1.0)	12 (2.5)	11 (2.3)	59 (12.3)	1 (.2)	27 (5.6)	27.3
	공동생활가정	112	38 (33.9)	36 (32.1)	2 (1.8)	0 (.0)	2 (1.8)	4 (3.6)	21 (18.8)	0 (.0)	9 (8.0)	
	대리 가정위탁	147	50 (34.0)	55 (37.4)	3 (2.0)	0 (.0)	3 (2.0)	5 (3.4)	22 (15.0)	1 (.7)	8 (5.4)	
	친인척 가정위탁	232	81 (34.9)	90 (38.8)	4 (1.7)	0 (.0)	2 (.9)	11 (4.7)	27 (11.6)	3 (1.3)	14 (6.0)	
	일반 가정위탁	161	47 (29.2)	65 (40.4)	6 (3.7)	1 (.6)	4 (2.5)	9 (5.6)	17 (10.6)	2 (1.2)	10 (6.2)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635	217 (34.2)	237 (37.3)	13 (2.0)	2 (.3)	19 (3.0)	21 (3.3)	83 (13.1)	4 (.6)	39 (6.1)	8.6
	연장종료	495	171 (34.5)	189 (38.2)	13 (2.6)	4 (.8)	4 (.8)	19 (3.8)	63 (12.7)	3 (.6)	29 (5.9)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246	101 (41.1)	70 (28.5)	8 (3.3)	1 (.4)	6 (2.4)	9 (3.7)	31 (12.6)	1 (.4)	19 (7.7)	35
	2년차	358	114 (31.8)	151 (42.2)	7 (2.0)	1 (.3)	7 (2.0)	8 (2.2)	47 (13.1)	4 (1.1)	19 (5.3)	
	3년차	351	114 (32.5)	137 (39.0)	8 (2.3)	3 (.9)	8 (2.3)	15 (4.3)	47 (13.4)	2 (.6)	17 (4.8)	
	4년차	96	24 (25.0)	45 (46.9)	1 (1.0)	1 (1.0)	2 (2.1)	5 (5.2)	11 (11.5)	0 (.0)	7 (7.3)	
	5년차	79	35 (44.3)	23 (29.1)	2 (2.5)	0 (.0)	0 (.0)	3 (3.8)	10 (12.7)	0 (.0)	6 (7.6)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955	329 (34.5)	358 (37.5)	23 (2.4)	5 (.5)	21 (2.2)	32 (3.4)	125 (13.1)	7 (.7)	55 (5.8)	3.9
	비해당 (자립 4~5년차)	175	59 (33.7)	68 (38.9)	3 (1.7)	1 (.6)	2 (1.1)	8 (4.6)	21 (12.0)	0 (.0)	13 (7.4)	

구분		사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3 (0.7)	350 (11.3)	1,443 (46.5)	877 (28.3)	411 (13.2)	3.4 (0.9)	
성별	남	1,461	12 (0.8)	139 (9.5)	591 (40.5)	452 (30.9)	267 (18.3)	3.6 (0.9)	8.6 ^{***}
	여	1,643	11 (0.7)	211 (12.8)	852 (51.9)	425 (25.9)	144 (8.8)	3.3 (0.8)	
연령	만 18~19세	600	5 (0.8)	49 (8.2)	244 (40.7)	196 (32.7)	106 (17.7)	3.6 (0.9)	8.5 ^{***}
	만 20~21세	1,289	14 (1.1)	155 (12.0)	596 (46.2)	362 (28.1)	162 (12.6)	3.4 (0.9)	
	만 22~23세	778	2 (0.3)	95 (12.2)	385 (49.5)	203 (26.1)	93 (12.0)	3.4 (0.9)	
	만 24세 이상	437	2 (0.5)	51 (11.7)	218 (49.9)	116 (26.5)	50 (11.4)	3.4 (0.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3 (1.1)	152 (13.2)	506 (43.8)	311 (26.9)	172 (14.9)	3.4 (0.9)	1.8
	2~3년제 대학교	524	2 (0.4)	50 (9.5)	234 (44.7)	168 (32.1)	70 (13.4)	3.5 (0.9)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8 (0.6)	148 (10.4)	703 (49.3)	398 (27.9)	169 (11.9)	3.4 (0.8)	
부모유무	있음	1,512	9 (0.6)	166 (11.0)	714 (47.2)	415 (27.4)	208 (13.8)	3.4 (0.9)	0.5
	없음	1,198	11 (0.9)	144 (12.0)	539 (45.0)	362 (30.2)	142 (11.9)	3.4 (0.9)	
	모름	394	3 (0.8)	40 (10.2)	190 (48.2)	100 (25.4)	61 (15.5)	3.4 (0.9)	
장애유무	있음	132	4 (3.0)	17 (12.9)	49 (37.1)	34 (25.8)	28 (21.2)	3.5 (1.1)	1.0
	없음	2,972	19 (0.6)	333 (11.2)	1,394 (46.9)	843 (28.4)	383 (12.9)	3.4 (0.9)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960	6 (0.6)	96 (10.0)	469 (48.9)	270 (28.1)	119 (12.4)	3.4 (0.9)	0.5
	지역가입	374	0 (0.0)	47 (12.6)	183 (48.9)	99 (26.5)	45 (12.0)	3.4 (0.9)	
	의료급여	1,770	17 (1.0)	207 (11.7)	791 (44.7)	508 (28.7)	247 (14.0)	3.4 (0.9)	

구분		사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3 (0.7)	350 (11.3)	1,443(46.5)	877 (28.3)	411 (13.2)	3.4 (0.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 (0.4)	143 (10.1)	627 (44.2)	435 (30.7)	207 (14.6)	3.5 (0.9)	13.4***	
	공동생활가정	332	0 (0.0)	33 (9.9)	148 (44.6)	105 (31.6)	46 (13.9)	3.5 (0.9)		
	가정위탁	1,355	18 (1.3)	174 (12.8)	668 (49.3)	337 (24.9)	158 (11.7)	3.3 (0.9)		
	가정 위탁	대리	403	7 (1.7)	52 (12.9)	197 (48.9)	104 (25.8)	43 (10.7)	3.3 (0.9)	6.3**
		친인척	564	4 (0.7)	83 (14.7)	298 (52.8)	125 (22.2)	54 (9.6)	3.3 (0.8)	
	일반	388	7 (1.8)	39 (10.1)	173 (44.6)	108 (27.8)	61 (15.7)	3.5 (0.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 (0.4)	143 (10.1)	627 (44.2)	435 (30.7)	207 (14.6)	3.5 (0.9)	9.9***	
	공동생활가정	332	0 (0.0)	33 (9.9)	148 (44.6)	105 (31.6)	46 (13.9)	3.5 (0.9)		
	대리 가정위탁	403	7 (1.7)	52 (12.9)	197 (48.9)	104 (25.8)	43 (10.7)	3.3 (0.9)		
	친인척 가정위탁	564	4 (0.7)	83 (14.7)	298 (52.8)	125 (22.2)	54 (9.6)	3.3 (0.8)		
	일반 가정위탁	388	7 (1.8)	39 (10.1)	173 (44.6)	108 (27.8)	61 (15.7)	3.5 (0.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0 (0.6)	197 (11.1)	784 (44.2)	549 (30.9)	234 (13.2)	3.5 (0.9)	2.3*	
	연장종료	1,330	13 (1.0)	153 (11.5)	659 (49.5)	328 (24.7)	177 (13.3)	3.4 (0.9)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 (0.6)	83 (9.5)	384 (43.9)	252 (28.8)	151 (17.3)	3.5 (0.9)	6.9***	
	2년차	921	11 (1.2)	100 (10.9)	424 (46.0)	247 (26.8)	139 (15.1)	3.4 (0.9)		
	3년차	805	4 (0.5)	100 (12.4)	413 (51.3)	220 (27.3)	68 (8.4)	3.3 (0.8)		
	4년차	280	2 (0.7)	36 (12.9)	126 (45.0)	86 (30.7)	30 (10.7)	3.4 (0.9)		
	5년차	223	1 (0.4)	31 (13.9)	96 (43.0)	72 (32.3)	23 (10.3)	3.4 (0.9)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0 (0.8)	283 (10.9)	1,221(46.9)	719 (27.6)	358 (13.8)	3.4 (0.9)	1.1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3 (0.6)	67 (13.3)	222 (44.1)	158 (31.4)	53 (10.5)	3.4 (0.9)		

4. 장애여부와 장애종류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 보호종료아동 중 4.3%를 차지했으며 교육수준, 보호유형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보호종료아동 중 8.0%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보호종료아동들에 비해 4배 가량 높았다. 또한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중 7.2%,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중 5%로 평균보다 높았고 이에 비해 가정위탁은 2.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2〉 장애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104	132 (4.3)	2,972 (95.7)	2.0	
성별	남	70 (4.8)	1,391 (95.2)		
	여	62 (3.8)	1,581 (96.2)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104	132 (4.3)	2,972 (95.7)	
연령	만 18~19세	600 (4.3)	574 (95.7)	1.2
	만 20~21세	1,289 (4.3)	1,234 (95.7)	
	만 22~23세	778 (3.7)	749 (96.3)	
	만 24세 이상	437 (5.0)	415 (95.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8.0)	1,062 (92.0)	62.9***
	2~3년제 대학교	524 (1.5)	516 (98.5)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2)	1,394 (97.8)	
부모 유무	있음	1,512 (4.5)	1,444 (95.5)	0.4
	없음	1,198 (4.0)	1,150 (96.0)	
	모름	394 (4.1)	378 (95.9)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6)	916 (95.4)	2.7
	지역가입	374 (2.7)	364 (97.3)	
	의료급여	1,770 (4.4)	1,692 (95.6)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1,417 (5.0)	1,346 (95.0)	16.9***
	공동생활가정	332 (7.2)	308 (92.8)	
	가정위탁	1,355 (2.7)	1,318 (97.3)	
	가정 위탁	대리 403 (2.2)	394 (97.8)	4.0
		친인척 564 (2.1)	552 (97.9)	
	일반	388 (4.1)	372 (95.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0)	1,346 (95.0)	19.5***
	공동생활가정	332 (7.2)	308 (92.8)	
	대리 가정위탁	403 (2.2)	394 (97.8)	
	친인척 가정위탁	564 (2.1)	552 (97.9)	
	일반 가정위탁	388 (4.1)	372 (95.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4.6)	1,693 (95.4)	1.0
	연장종료	1,330 (3.8)	1,279 (96.2)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4.1)	839 (95.9)	2.9
	2년차	921 (4.9)	876 (95.1)	
	3년차	805 (3.5)	777 (96.5)	
	4년차	280 (3.9)	269 (96.1)	
	5년차	223 (5.4)	211 (94.6)	
자립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4.2)	2,492 (95.8)	0.2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4.6)	480 (95.4)	

장애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132명의 장애가 있는 보호종료아동 중 지적장애 아동이 5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12.9%), 시각장애 및 정신장애 (각각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3〉 장애종류(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2

구분	사례수
지체장애	17 (12.9)
뇌병변장애	3 (2.3)
시각장애	8 (6.1)
청각장애	5 (3.8)
언어장애	3 (2.3)
지적장애	71 (53.8)
정신장애	8 (6.1)
신장장애	4 (3.0)
심장장애	1 (0.8)
호흡기장애	2 (1.5)
간장애	1 (0.8)
뇌전증장애	3 (2.3)
모름	17 (12.9)

5. 건강보험 종류 및 건강보험료 체납경험

보호종료아동이 가입한 건강보험종류는 의료급여가 57.0%로 가장 높았고 직장가입자가 30.9%, 지역가입자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교 이상으로 높거나 고등학교 이하로 낮은 경우, 보호유형별로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연장종료인 경우, 자립 4~5년차로 자립수당의 대상이 아닌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가입율이 높았으며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활동이 높은 그룹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만 18~19세의 저 연령층 또는 2~3년제 대학교 교육수준,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5-14〉 건강보험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단,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제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χ^2
전체		3,104	960 (30.9)	374 (12.0)	1,770 (57.0)	
성별	남	1,461	422 (28.9)	164 (11.2)	875 (59.9)	9.3**
	여	1,643	538 (32.7)	210 (12.8)	895 (54.5)	
연령	만 18~19세	600	119 (19.8)	32 (5.3)	449 (74.8)	255.2***
	만 20~21세	1,289	336 (26.1)	127 (9.9)	826 (64.1)	
	만 22~23세	778	302 (38.8)	126 (16.2)	350 (45.0)	
	만 24세 이상	437	203 (46.5)	89 (20.4)	145 (33.2)	

구분		사례수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단,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제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χ^2	
전체		3,104	960	(30.9)	374	(12.0)	1,770	(57.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392	(34.0)	131	(11.4)	631	(54.7)	126.6***	
	2-3년제 대학교	524	67	(12.8)	47	(9.0)	410	(78.2)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501	(35.1)	196	(13.7)	729	(51.1)		
부모 유무	있음	1,512	485	(32.1)	221	(14.6)	806	(53.3)	28.5***	
	없음	1,198	361	(30.1)	125	(10.4)	712	(59.4)		
	모름	394	114	(28.9)	28	(7.1)	252	(64.0)		
장애유무	있음	132	44	(33.3)	10	(7.6)	78	(59.1)	2.7	
	없음	2,972	916	(30.8)	364	(12.2)	1,692	(56.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418	(29.5)	133	(9.4)	866	(61.1)	72.7***	
	공동생활가정	332	73	(22.0)	26	(7.8)	233	(70.2)		
	가정위탁	1,355	469	(34.6)	215	(15.9)	671	(49.5)		
	가정 위탁	대리	403	134	(33.3)	61	(15.1)	208	(51.6)	10.8*
		친인척 일반	564 388	197 138	(34.9) (35.6)	108 46	(19.1) (11.9)	259 204	(45.9) (52.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418	(29.5)	133	(9.4)	866	(61.1)	85.7***	
	공동생활가정	332	73	(22.0)	26	(7.8)	233	(70.2)		
	대리 가정위탁	403	134	(33.3)	61	(15.1)	208	(51.6)		
	친인척 가정위탁	564	197	(34.9)	108	(19.1)	259	(45.9)		
	일반 가정위탁	388	138	(35.6)	46	(11.9)	204	(52.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488	(27.5)	167	(9.4)	1,119	(63.1)	66.1***	
	연장종료	1,330	472	(35.5)	207	(15.6)	651	(48.9)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23	(25.5)	70	(8.0)	582	(66.5)	119.5***	
	2년차	921	268	(29.1)	98	(10.6)	555	(60.3)		
	3년차	805	257	(31.9)	111	(13.8)	437	(54.3)		
	4년차	280	115	(41.1)	43	(15.4)	122	(43.6)		
	5년차	223	97	(43.5)	52	(23.3)	74	(33.2)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748	(28.8)	279	(10.7)	1,574	(60.5)	82***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12	(42.1)	95	(18.9)	196	(39.0)		

건강보험료 체납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9.7%가 ‘있다’라고 응답했고 ‘모른다’라는 응답이 39.0%로 매우 높았다. 체납경험은 연령, 교육수준, 건강보험 종류, 보호종료 유형, 보호종료 연차, 자립수당대상 구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아동의 20.1%가 체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보호종료 4년차, 5년차 보호종료아동, 자립 4~5년차로 자립수당 비대상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의 16.1%가 체납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χ^2
전체		3,104	301	(9.7)		1,591	(51.3)	1,212	(39.0)	
성별	남	1,461	152	(10.4)		709	(48.5)	600	(41.1)	8.3**
	여	1,643	149	(9.1)		882	(53.7)	612	(37.2)	
연령	만 18~19세	600	31	(5.2)		258	(43.0)	311	(51.8)	118.7***
	만 20~21세	1,289	124	(9.6)		611	(47.4)	554	(43.0)	
	만 22~23세	778	103	(13.2)		442	(56.8)	233	(29.9)	
	만 24세 이상	437	43	(9.8)		280	(64.1)	114	(26.1)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42	(12.3)		495	(42.9)	517	(44.8)	88.3***
	2~3년제 대학교	524	45	(8.6)		239	(45.6)	240	(45.8)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14	(8.0)		857	(60.1)	455	(31.9)	
부모 유무	있음	1,512	158	(10.4)		784	(51.9)	570	(37.7)	13.0**
	없음	1,198	111	(9.3)		630	(52.6)	457	(38.1)	
	모름	394	32	(8.1)		177	(44.9)	185	(47.0)	
장애유무	있음	132	13	(9.8)		59	(44.7)	60	(45.5)	2.6
	없음	2,972	288	(9.7)		1,532	(51.5)	1,152	(38.8)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25	(13.0)		598	(62.3)	237	(24.7)	232.7***
	지역가입	374	75	(20.1)		199	(53.2)	100	(26.7)	
	의료급여	1,770	101	(5.7)		794	(44.9)	875	(49.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48	(10.4)		693	(48.9)	576	(40.6)	10.6**
	공동생활가정	332	29	(8.7)		161	(48.5)	142	(42.8)	
	가정위탁	1,355	124	(9.2)		737	(54.4)	494	(36.5)	
	가정 위탁	대리	403	28	(6.9)	210	(52.1)	165	(40.9)	13.5***
		친인척	564	63	(11.2)	324	(57.4)	177	(31.4)	
		일반	388	33	(8.5)	203	(52.3)	152	(39.2)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148	(10.4)		693	(48.9)	576	(40.6)	23.5**
	공동생활가정	332	29	(8.7)		161	(48.5)	142	(42.8)	
	대리 가정위탁	403	28	(6.9)		210	(52.1)	165	(40.9)	
	친인척 가정위탁	564	63	(11.2)		324	(57.4)	177	(31.4)	
	일반 가정위탁	388	33	(8.5)		203	(52.3)	152	(39.2)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79	(10.1)		826	(46.6)	769	(43.3)	38.1***
	연장종료	1,330	122	(9.2)		765	(57.5)	443	(33.3)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54	(6.2)		421	(48.1)	400	(45.7)	55.0***
	2년차	921	80	(8.7)		485	(52.7)	356	(38.7)	
	3년차	805	86	(10.7)		421	(52.3)	298	(37.0)	
	4년차	280	45	(16.1)		146	(52.1)	89	(31.8)	
	5년차	223	36	(16.1)		118	(52.9)	69	(30.9)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20	(8.5)		1,327	(51.0)	1,054	(40.5)	34.5***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81	(16.1)		264	(52.5)	158	(31.4)	

건강보험료 체납이유에 대해서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39.2%가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장애가 있는 아동의 61.5%가 경제적 결핍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공

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상대적으로 보호종료연차가 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건강보험료 체납율이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의 이유는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26.2%) 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몰라서’(13.3%)로 나타났으며, 보호종료아동 3명 중 한명 이상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보험료체납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6〉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기타	χ^2
전체	301	118 (39.2)	79 (26.2)	40 (13.3)	26 (8.6)	30 (10.0)	8 (2.7)	
성별								13.9**
남	152	54 (35.5)	34 (22.4)	25 (16.4)	13 (8.6)	23 (15.1)	3 (2.0)	
여	149	64 (43.0)	45 (30.2)	15 (10.1)	13 (8.7)	7 (4.7)	5 (3.4)	
연령								29**
만 18~19세	31	7 (22.6)	4 (12.9)	5 (16.1)	4 (12.9)	8 (25.8)	3 (9.7)	
만 20~21세	124	57 (46.0)	35 (28.2)	16 (12.9)	8 (6.5)	7 (5.6)	1 (.8)	
만 22~23세	103	37 (35.9)	27 (26.2)	12 (11.7)	11 (10.7)	12 (11.7)	4 (3.9)	
만 24세 이상	43	17 (39.5)	13 (30.2)	7 (16.3)	3 (7.0)	3 (7.0)	0 (.0)	
교육 수준								20.7**
고등학교 이하	142	70 (49.3)	26 (18.3)	20 (14.1)	8 (5.6)	14 (9.9)	4 (2.8)	
2~3년제 대학교	45	13 (28.9)	18 (40.0)	4 (8.9)	3 (6.7)	5 (11.1)	2 (4.4)	
4년제 대학교 이상	114	35 (30.7)	35 (30.7)	16 (14.0)	15 (13.2)	11 (9.6)	2 (1.8)	
부모 유무								11.5
있음	158	54 (34.2)	45 (28.5)	24 (15.2)	14 (8.9)	16 (10.1)	5 (3.2)	
없음	111	48 (43.2)	29 (26.1)	15 (13.5)	9 (8.1)	9 (8.1)	1 (.9)	
모름	32	16 (50.0)	5 (15.6)	1 (3.1)	3 (9.4)	5 (15.6)	2 (6.3)	
장애 유무								7.7
있음	13	8 (61.5)	1 (7.7)	1 (7.7)	0 (.0)	3 (23.1)	0 (.0)	
없음	288	110 (38.2)	78 (27.1)	39 (13.5)	26 (9.0)	27 (9.4)	8 (2.8)	
건강 보험 종류								19.9**
직장가입	125	37 (29.6)	35 (28.0)	15 (12.0)	18 (14.4)	15 (12.0)	5 (4.0)	
지역가입	75	32 (42.7)	16 (21.3)	14 (18.7)	4 (5.3)	8 (10.7)	1 (1.3)	
의료급여	101	49 (48.5)	28 (27.7)	11 (10.9)	4 (4.0)	7 (6.9)	2 (2.0)	
보호 유형								15.3
아동양육시설	148	48 (32.4)	47 (31.8)	21 (14.2)	14 (9.5)	15 (10.1)	3 (2.0)	
공동생활가정	29	14 (48.3)	3 (10.3)	3 (10.3)	3 (10.3)	6 (20.7)	0 (.0)	
가정위탁	124	56 (45.2)	29 (23.4)	16 (12.9)	9 (7.3)	9 (7.3)	5 (4.0)	
대리	28	11 (39.3)	8 (28.6)	4 (14.3)	2 (7.1)	1 (3.6)	2 (7.1)	
친인척	63	29 (46.0)	14 (22.2)	8 (12.7)	5 (7.9)	5 (7.9)	2 (3.2)	
일반	33	16 (48.5)	7 (21.2)	4 (12.1)	2 (6.1)	3 (9.1)	1 (3.0)	
보호 유형2								18.0
아동양육시설	148	48 (32.4)	47 (31.8)	21 (14.2)	14 (9.5)	15 (10.1)	3 (2.0)	
공동생활가정	29	14 (48.3)	3 (10.3)	3 (10.3)	3 (10.3)	6 (20.7)	0 (.0)	
대리 가정위탁	28	11 (39.3)	8 (28.6)	4 (14.3)	2 (7.1)	1 (3.6)	2 (7.1)	
친인척 가정위탁	63	29 (46.0)	14 (22.2)	8 (12.7)	5 (7.9)	5 (7.9)	2 (3.2)	
일반 가정위탁	33	16 (48.5)	7 (21.2)	4 (12.1)	2 (6.1)	3 (9.1)	1 (3.0)	
보호 종료 유형								9.4
만기퇴소	179	74 (41.3)	44 (24.6)	27 (15.1)	9 (5.0)	20 (11.2)	5 (2.8)	
연장종료	122	44 (36.1)	35 (28.7)	13 (10.7)	17 (13.9)	10 (8.2)	3 (2.5)	

구분	사례수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기타	χ^2
전체	301	118 (39.2)	79 (26.2)	40 (13.3)	26 (8.6)	30 (10.0)	8 (2.7)	
보호종료연차	1년차	54	15 (27.8)	10 (18.5)	9 (16.7)	8 (14.8)	4 (7.4)	23.4
	2년차	80	30 (37.5)	21 (26.3)	13 (16.3)	6 (7.5)	9 (11.3)	
	3년차	86	36 (41.9)	27 (31.4)	8 (9.3)	9 (10.5)	5 (5.8)	
	4년차	45	21 (46.7)	10 (22.2)	5 (11.1)	2 (4.4)	5 (11.1)	
	5년차	36	16 (44.4)	11 (30.6)	5 (13.9)	1 (2.8)	3 (8.3)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20	81 (36.8)	58 (26.4)	30 (13.6)	23 (10.5)	22 (10.0)	4.4
	비해당 (자립 4~5년차)	81	37 (45.7)	21 (25.9)	10 (12.3)	3 (3.7)	8 (9.9)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 건강 검진 현황

최근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최근 1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은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경험을 응답한 것으로 비교대상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과값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3%는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보호종료아동의 47.1%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최근 건강검진 수검율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χ^2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8.2**
예	388	53.0	1,463	47.1	
아니오	344	47.0	1,641	52.9	

주: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최근 1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경험 응답임

구강검진율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최근 1년의 경험을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8.7%가 구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보호종료아동은 이보다 13.4%p 낮은 45.3%의 구강검진율을 보였다.

〈표 5-18〉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단위: 명, %)

성별	보호종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43.1***
예	430	58.7	1,405	45.3	
아니오	302	41.3	1,699	54.7	

2. 주관적 건강 상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은 3.8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3.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우 나쁨-나쁨에 해당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은 5.5%, 보호종료아동은 12.0%로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46.5%)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은 9.6%p 낮은 37%가 보통 수준의 주관적 건강상태로 응답했다. 좋음-매우 좋음에 속하는 건강상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57.5%로 보호종료아동(41.5%)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점)

성별	보호중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9.9***
매우 나쁨	3	0.4	23	0.7	
나쁨	37	5.1	350	11.3	
보통	271	37.0	1,443	46.5	
좋음	237	32.4	877	28.3	
매우 좋음	184	25.1	411	13.2	
평균(표준편차)	3.8점 (0.9)		3.4점 (0.9)		

3. 장애여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비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이 5.1%로 보호종료아동의 4.3%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20〉 장애여부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0.9
예	37	5.1	132	4.3	
아니오	695	94.9	2,972	95.7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2012년 306명의 연장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결과와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는 대상아동구분, 척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2년도 결과에 비교를 위해, 2020년 조사에서 보통이라고 응답 한 37%를 제외하고 각 항목을 환산했을 때, ‘나쁨’과 ‘매우 나쁨’ 응답 비율은 8.7%로 2012년도의 11.8%보다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쁨’ 응답률이 약 2.4%p 감소하였다. ‘ 좋음’과 ‘매우 좋음’은 97.3%로 2012년도의 88.3%보다 증가하였다.

〈표 5-21〉 주관적 건강상태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2020	732	0.6 (0.4)	8.1 (5.1)	- (37.0)	51.4 (32.4)	39.8 (25.1)
2012	306	1.3	10.5	-	64.1	24.2

주: 1) 2012년은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음.

2)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3) () 2020년도 원조사 결과. 비교를 위해 2020년도 조사 결과를 4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음.

나. 타 조사와의 비교

전국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과 일반아동의 건강상태를 건강검진 수검율, 구강검진 수검율,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본 조사 결과 53%로 나타났으며 이는 12세-17세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13.4%p 높은 수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하면 30인 이상의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입소 시, 연 1회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건강검진율은 일반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2〉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있음	없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3.0	47.0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39.6	60.4

주: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분석대상자 수는 1,476명임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건강검진 규정에는 구강검진 수검을 의무화하지 않고 지자체 별로 구강검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아동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의 차이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은 58.7%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56.1%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5-23〉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있음	없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8.7	41.3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56.1	43.9

주: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분석대상자 수는 1,476명임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2세~19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사회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이 매우 나쁨-나쁨이라는 응답이 5.5%인 반면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 일반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2.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는 2.2%로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5%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나쁨-나쁨-보통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의 30.0%보다 많았고 2018년 국민건강통계의 43.2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5-24〉 주관적 건강상태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0.4	5.1	37.0	32.4	25.1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13~19세 응답)	0.1	2.6	17.0	42.3	38.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30.0			70.0	
2018년 국민건강통계 (15~18세 응답)	43.2			56.8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18세 응답)	0.1	2.1	-	49.6	48.2

주: 1)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대상은 중고생임.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매우 건강한 편이다'의 5점 척도를 사용했으나 결과표에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건강한 편이다+매우 건강한 편이다) 비율만을 제시함.

2)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57,303명임.

3) 2018년 국민건강통계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매우 좋음의 5점 척도를 사용했으나 결과표에서는 좋음(좋음+매우 좋음) 응답자 비율만을 제시함.

4) 2018년 국민건강통계 15-18세 분석대상자 수는 258명임.

5)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음.

자료: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2018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2018),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본부, 2019),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표(통계청, 2020)

2.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보호종료아동의 건강상태를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2012년,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보통을 제외한 4점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2020년 조사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나쁨이라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22.4%로 2016년 14.1%, 2012년 21.7%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조사에서는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77.6%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매우 좋음으로 응답했는데 2016년 85.9%, 2012년 78.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5-25〉 주관적 건강상태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2020	3,104	1.3 (0.7)	21.1 (11.3)	- (46.5)	52.9 (28.3)	24.7 (13.2)
2016	1,218	14.1		-	85.9	
2012	656	11.7	20.0	-	64.0	14.3

주: 2012년과 2016년은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016년 보고서에서는 매우 나쁨과 나쁨, 좋음과 매우 좋음을 묶어서 결과를 제시함.

주: 2020년도 결과를 비교를 위해 4점 척도로 환산함. ()는 2020년도 원 결과.

최근 1년간의 질병경험과 질병유형에 대한 시계열 비교결과,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64.2%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6년 53.9%, 2012년 59.6%보다 높았다.

〈표 5-26〉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음	정형 외과 질환	이비인 후과 질환	내과 질환	치과 질환	안과 질환	흉부 외과 질환	피부과 질환	신경과 질환	정신과 질환	기타
2020	3,104	1,112 (35.8)	347 (11.2)	705 (22.7)	1,007 (32.4)	782 (25.2)	316 (10.2)	44 (1.4)	626 (20.2)	43 (1.4)	302 (9.7)	51 (1.6)
2016	1,801	562 (46.1)	103 (8.5)	144 (11.8)	382 (31.4)	247 (20.3)	81 (6.7)	11 (.9)	177 (14.5)	9 (.7)	55 (4.5)	30 (2.5)
2012	1,051	257 (40.4)	74 (11.6)	122 (19.2)	167 (26.3)	194 (30.5)	69 (10.8)	11 (1.7)	93 (14.6)	8 (1.3)	39 (6.1)	17 (2.7)

주: %는 각 질환별 경험률임

질병유형은 2020년 치과질환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의 순이었다. 2012년의 경우에도 치과치료가 가장 높았으며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질환경험이 높았으며 2016년 조사결과는 내과, 치과, 피부과의 순으로 경험한 질환의 종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27〉 치료여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완치 또는 치료 중	일부 치료	전혀 치료받지 못함
2020	1,992	862 (43.3)	930 (46.7)	200 (10.0)
2016	657	333 (50.7)	273 (41.6)	51 (7.8)
2012	399	149 (39.8)	173 (46.3)	52 (13.9)

최근 1년간 질병을 경험하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36.4%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6년 3.58%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2012년 39.5%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많이 아프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3.9%로 2012년 31.6%보다는 높았고 2016년 34.2%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5-28〉 치료받지 않은 이유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많이 아프지 않아서	치료비가 없어서	기타
2020	1,130	388 (34.3)	426 (37.7)	68 (6.0)
2016	310	106 (34.2)	111 (35.8)	93 (30.0)
2012	215	68 (31.6)	85 (39.5)	62 (28.9)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시계열적으로 2012에 비해 2016년, 2020년까지 최근년도에 가까울수록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반이상이 직장가입자(51.8%)였으며 28.8%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였는데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30.9%의 보호종료아동이 직장가입자였으며 2명 중 1명이 의료급여수급자로 나타났다.

〈표 5-29〉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종류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2020	3,104	960 (30.9)	374 (12.0)	1,770 (57.0)
2016	1,207	531 (44.0)	180 (14.9)	496 (41.1)
2012	656	315 (51.8)	118 (19.4)	175 (28.8)

나. 타 조사와의 비교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수검율 결과를 19세~29세 일반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18년 국민건강통계의 46.1%와 비교하면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수검율이 47.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30〉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와의 비교

(단위: %)

조사명	사례수	있음	없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104	47.1	52.9
2018년 국민건강통계(19-29세 응답)	748	46.1	53.9

자료: 2018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2018)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결과는 보다 큰 수검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2020년 45.3%의 보호종료아동이 구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2018 국민건강통계 결과는 34.8%로 10.5%p 낮게 나타났다.

〈표 5-31〉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수검율 - 타 조사와의 비교

(단위: %)

조사명	사례수	있음	없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104	45.3	54.7
2018년 국민건강통계(19-29세 응답)	762	34.8	65.2

자료: 2018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2018)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나쁨-보통을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은 58.5%로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경우 20세~29세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30.6%, 2019년 한국복지패널결과의 일반가구 20.4%와 비교하면 다소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 한국복지패널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61.2%, 2018년 국민건강통계 결과 19세~29세 응답자의 59.2%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나쁨-나쁨-보통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수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5-32〉 주관적 건강상태 - 타 조사와의 비교

(단위: %)

조사명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0.7	11.3	46.5	28.3	13.2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20~29세 응답)		0.3	4.2	26.1	49.5	19.9
2019년 한국복지패널	일반	0.5	6.4	13.5	64.4	15.2
	저소득	4.7	32.9	23.6	33.5	5.3
2018년 국민건강통계 (19~29세 응답)		59.2			40.8	

주: 1)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대상은 전국 약 19,000개 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임.

2) 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대상은 전국 6,612개 가구의 만 15세 이상(중고생 제외) 가구원임

3) 2018년 국민건강통계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 20~29세 응답자 수는 748명임. 척도는 매우 나쁨~매우 좋음의 5점 척도를 사용했으나 결과표에서는 좋음(좋음+매우 좋음) 응답자 분율만을 제시함

자료: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표(통계청, 2020),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여유진 외, 2019), 2018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2018)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건강실태를 건강검진 현황,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여부를 공통 항목으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최근의 질병경험과 치료여부, 건강보험가입 및 체납경험여부 등의 경험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절반 이상(53%)이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보호유형별 편차가 현저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93%,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74.5%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25.9%만이 1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 수검율은 58.7%로 건강검진 수검율에 비해 높았고 유사하게 시설보호아동과 가정보호아동의 차이가 존재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8점으로 좋음에 약간 밀도는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아, 연령별로는 만 18세 아동,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보호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이, 보호상태별로는 일반보호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5.1%가 장애가 있었으며 보호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은 9.1%,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8.2%로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2.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6.7%가 장애

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4년제 대학교 이상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1.8%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를 가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절반 이상이 지적 장애(59.5%)로 나타났으며 5명 중 하나가 지체장애(18.9%)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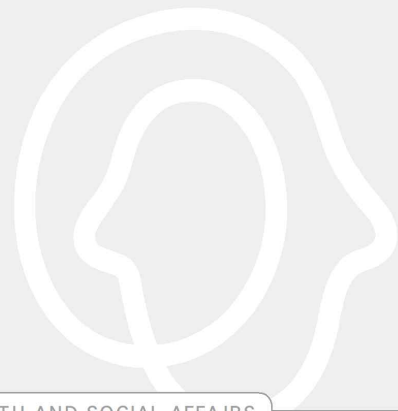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검진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47.1%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18~19세 연령 보호종료아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강검진 수검율은 45.3%로 장애유무, 건강보험 종류별, 보호종료 연차별 차이가 존재했다. 추가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병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64.2%가 최근 1년 이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질환유형별로는 내과질환이 32.4%로 가장 높았고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질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의 치료여부를 물었을 때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이 56.7%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보다 13.4%p 높았다. 완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보호종료아동의 37.7%가 “치료비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보호종료아동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3.4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조금 낮았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4.3%로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보호유형별, 교육수준별 편차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보호종료아동의 57.0%가 의료급여대상자였으며 다음으로 직장가입자(30.9%), 지역가입자(12.0%)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체납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9.7%가 있다고 응답했고 모른다라는 응답이 39.0%로 매우 높았다.

종합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건강 수준이나 건강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중 일때는 아동복지법상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치과 검진의 (지자체별)지원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나 보호종료 후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건강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거나 건강관리가 소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2020년도 보호종료아동의 질병 경험률이 높아졌고, 그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질병을 앓은 비율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일부만 치료하거나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가

장 높았으며, 과거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과거 조사에 비해 줄고,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많아졌는데, 2019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의료급여의 확대와 함께 고용·취업의 열악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제6장

심리정서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제4절 조사결과 비교

제4절 소결

제6장 심리정서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1. 자립 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자립준비정도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11점 척도(0=전혀 준비가 되지 않음, 10=완벽하게 준비됨)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에서는 각각의 자립측면의 핵심내용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경제적 자립은 “시설(위탁) 보호를 벗어나 경제활동을 통해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정서적 자립은 “외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지”로 구체화되며, 사회적 자립은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준비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각 측면에 따라 비교해보면 경제적 자립준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4.8점, 심리정서적 자립준비는 6.1점, 사회적 자립준비는 6.0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경제적 자립준비정도가 하부집단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준비정도는 상대적으로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립준비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집단의 준비정도는 4.8점으로 보통 수준에 못미쳤으며 성별, 보호유형별 편차가 나타났다. 여자(4.5)보다는 남자(5.1)가 높았으며 보호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이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5.0점, 가정위탁 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자립준비정도에 대해 10점 만점 6.1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자립준비에 대한 심리정서적 수준은 교육수준, 장애유무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 심리정서적 자립 준비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자립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6.0점으로 심리사회적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만 18세 아동, 장애가 없으며, 아동양육시설, 일반보호상태에 있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자립준비 수준을 보였으나 장애유무를 제외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차이는 아니었다.

〈표 6-1〉 자립 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32	4.8	(2.3)	6.1	(2.3)	6.0	(2.2)	
성별	남	366	5.1	(2.3)	3.1**	6.1	(2.3)	0.0	
	여	366	4.5	(2.3)		6.1	(2.3)		
연령	만 17세	103	4.6	(2.4)	6.2**	6.1	(2.3)	0.8	
	만 18세	287	5.2	(2.3)		6.2	(2.2)		
	만 19세 이상	342	4.5	(2.3)		6.0	(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5.0	(2.3)	2.6	6.1	(2.2)	1.8	
	2-3년제 대학교	147	4.6	(2.3)		5.6	(2.1)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4.6	(2.4)		6.5	(2.5)		
부모 유무	있음	380	5.0	(2.2)	2.0	6.3	(2.2)	0.1	
	없음	250	4.6	(2.5)		5.9	(2.4)		
	모름	102	4.7	(2.3)		5.7	(2.2)		
장애 유무	있음	37	4.9	(2.4)	0.3	5.2	(2.3)	-2.8**	
	없음	695	4.8	(2.3)		6.1	(2.3)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56	5.6	(1.9)	30.9***	6.1	(2.1)	0.2	
	공동생활가정	55	5.0	(2.2)		5.9	(2.2)		
	가정위탁	421	4.3	(2.4)		6.1	(2.4)		
	가정 위탁	대리	180	4.2	(2.4)	0.9	6.1	(2.2)	1.2
		친인척	148	4.2	(2.5)		6.2	(2.4)	
		일반	93	4.5	(2.4)		5.7	(2.7)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5.6	(1.9)	16***	6.1	(2.1)	0.8	
	공동생활가정	55	5.0	(2.2)		5.9	(2.2)		
	대리 가정위탁	180	4.2	(2.4)		6.1	(2.2)		
	친인척 가정위탁	148	4.2	(2.5)		6.2	(2.4)		
	일반 가정위탁	93	4.5	(2.4)		5.7	(2.7)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5.1	(2.3)	2.4*	6.2	(2.1)	0.7	
	연장보호	481	4.6	(2.3)		6.0	(2.4)		

2. 정신건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로 구성되는 심리행동문제, 그리고 삶의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다음의 10개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전혀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6-2〉 자아존중감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①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고 느낀다.
②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③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④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⑤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⑥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⑦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⑧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⑨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⑩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조사결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점을 보였으며 성별, 부모 유무, 보호유형별, 보호상태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자 보호종료예정아동이 3.1점으로 여아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양육아동이 가정위탁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6-3〉 자아존중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0	(0.6)		
성별	남	366	3.1	(0.6)	2.6*
	여	366	3.0	(0.5)	
연령	만 17세	103	3.1	(0.5)	2.7
	만 18세	287	3.1	(0.6)	
	만 19세 이상	342	3.0	(0.6)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0	(0.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3.0	(0.6)	0.8
	2-3년제 대학교	147	3.0	(0.6)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0	(0.6)	
부모 유무	있음	380	3.0	(0.6)	3.1*
	없음	250	3.0	(0.5)	
	모름	102	3.1	(0.5)	
장애 유무	있음	37	3.0	(0.6)	-0.6
	없음	695	3.0	(0.6)	
보호 유형1	아동양육시설	256	3.1	(0.6)	4.5*
	공동생활가정	55	3.1	(0.5)	
	가정위탁	421	3.0	(0.6)	
	가정 위탁	대리 (180)	3.0	(0.5)	0.5
		친인척 (148)	3.0	(0.6)	
		일반 (93)	3.0	(0.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3.1	(0.6)	2.5*
	공동생활가정	55	3.1	(0.5)	
	대리 가정위탁	180	3.0	(0.5)	
	친인척 가정위탁	148	3.0	(0.6)	
	일반 가정위탁	93	3.0	(0.6)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3.1	(0.6)	2.1*
	연장보호	481	3.0	(0.6)	

심리행동문제는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로 구분되며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행동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6-4〉 심리행동문제 문항

심리행동문제 영역	문항
공격성	①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②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③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④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⑤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⑥나는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정서조절감*	⑦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⑧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⑨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불안우울	⑩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⑪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⑫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⑬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⑭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	--

주: 정서조절감은 역코딩하여 계산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전반적 심리행동문제는 5점 만점에 2.3점으로 보통이하의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을 제외하면 아동의 특성별, 보호유형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표 6-5〉 심리행동문제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2.3	(0.6)	
성별	남	366	2.2	(0.6)	-2.9**
	여	366	2.4	(0.6)	
연령	만 17세	103	2.3	(0.6)	0.6
	만 18세	287	2.3	(0.6)	
	만 19세 이상	342	2.3	(0.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3	(0.6)	0.1
	2-3년제 대학교	147	2.3	(0.6)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2.3	(0.6)	
부모 유무	있음	380	2.3	(0.6)	2.3
	없음	250	2.4	(0.6)	
	모름	102	2.2	(0.6)	
장애 유무	있음	37	2.4	(0.7)	1.0
	없음	695	2.3	(0.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2.3	(0.6)	0.4
	공동생활가정	55	2.3	(0.6)	
	가정위탁	421	2.3	(0.6)	
	가정 위탁	대리 (180)	2.4	(0.6)	1.6
		친인척 (148)	2.3	(0.6)	
보호 유형2	일반	(93)	2.2	(0.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2.3	(0.6)	1.0
	공동생활가정	55	2.3	(0.6)	
	대리 가정위탁	180	2.4	(0.6)	
	친인척 가정위탁	148	2.3	(0.6)	
	일반 가정위탁	93	2.2	(0.6)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2.3	(0.6)	-1.2
	연장보호	481	2.3	(0.6)	

주: 정서조절감을 역코딩하여 공격성, 불안·우울 점수와 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행동문제가 심각함을 의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공격성은 5점 만점 1.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장애유무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 2.2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아동양육시설아동이 2.0점으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6〉 심리행동문제 - 공격성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1.9	(0.7)	
성별	남	366	1.9	(0.7)	1.3
	여	366	1.8	(0.7)	
연령	만 17세	103	1.9	(0.7)	1.9
	만 18세	287	1.9	(0.8)	
	만 19세 이상	342	1.8	(0.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9	(0.8)	2.4
	2-3년제 대학교	147	1.8	(0.7)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8	(0.7)	
부모 유무	있음	380	1.9	(0.8)	0.2
	없음	250	1.9	(0.7)	
	모름	102	1.8	(0.8)	
장애 유무	있음	37	2.2	(0.9)	2.4*
	없음	695	1.9	(0.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2.0	(0.8)	3.5*
	공동생활가정	55	1.9	(0.7)	
	가정위탁	421	1.8	(0.7)	
	가정 위탁	대리 (180)	1.9	(0.7)	1.1
		친인척 (148)	1.8	(0.7)	
보호 유형2	일반 가정위탁	(93)	1.7	(0.7)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2.0	(0.8)	2.2
	공동생활가정	55	1.9	(0.7)	
	대리 가정위탁	180	1.9	(0.7)	
	친인척 가정위탁	148	1.8	(0.7)	
	일반 가정위탁	93	1.7	(0.7)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9	(0.7)	0.5
	연장보호	481	1.9	(0.8)	

주: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심각함

정서조절감의 영역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평균은 3.4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았다.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정서조절감이 약간 높았다.

〈표 6-7〉 심리행동문제 - 정서조절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4	(0.8)	
성별	남	366	3.5	(0.9)	2.2*
	여	366	3.4	(0.8)	
연령	만 17세	103	3.5	(1.0)	0.7
	만 18세	287	3.5	(0.9)	
	만 19세 이상	342	3.4	(0.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3.5	(0.9)	0.4
	2-3년제 대학교	147	3.4	(0.8)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4	(0.8)	
부모 유무	있음	380	3.5	(0.8)	0.7
	없음	250	3.4	(0.8)	
	모름	102	3.4	(0.9)	
장애 유무	있음	37	3.2	(1.0)	-1.9
	없음	695	3.5	(0.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3.4	(0.9)	1.8
	공동생활가정	55	3.3	(0.9)	
	가정위탁	421	3.5	(0.8)	
	가정 위탁	대리 (180)	3.4	(0.8)	1.1
		친인척 (148)	3.6	(0.7)	
보호 유형2	일반	(93)	3.5	(0.9)	1.4
	아동양육시설	256	3.4	(0.9)	
	공동생활가정	55	3.3	(0.9)	
	대리 가정위탁	180	3.4	(0.8)	
	친인척 가정위탁	148	3.6	(0.7)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3.5	(0.9)	0.2
	연장보호	481	3.4	(0.8)	

주: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수준이 높음

불안우울의 영역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전체의 평균은 2.6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부모유무, 보호유형별 불안우울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여아가 남아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안우울수준이 높았다.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이 2.8점으로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8〉 심리행동문제 - 불안우울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2.6	(0.9)	
성별	남	366	2.5	(0.9)	-5.5***
	여	366	2.8	(0.9)	
연령	만 17세	103	2.5	(1.0)	5.2**
	만 18세	287	2.6	(1.0)	
	만 19세 이상	342	2.7	(0.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6	(1.0)	2.6
	2-3년제 대학교	147	2.7	(0.9)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2.8	(0.8)	
부모 유무	있음	380	2.6	(0.9)	5.4**
	없음	250	2.8	(0.9)	
	모름	102	2.5	(0.9)	
장애 유무	있음	37	2.4	(1.0)	-1.5
	없음	695	2.6	(0.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2.5	(0.9)	11.4***
	공동생활가정	55	2.4	(0.9)	
	가정위탁	421	2.8	(0.9)	
	가정 위탁	대리 (180)	2.8	(0.9)	1.5
		친인척 (148)	2.8	(0.9)	
		일반 (93)	2.6	(1.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2.5	(0.9)	6.4***
	공동생활가정	55	2.4	(0.9)	
	대리 가정위탁	180	2.8	(0.9)	
	친인척 가정위탁	148	2.8	(0.9)	
	일반 가정위탁	93	2.6	(1.0)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2.5	(0.9)	-2.5*
	연장보호	481	2.7	(0.9)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우울 수준이 심각함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척도를 활용하여 11점 척도(0=가장 나쁜 상태, 10=가장 좋은 상태)로 측정하였다. 전체 아동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5.9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삶의 만족도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장애유무별, 보호유형별, 보호상태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 보호종료예정아동이 6.2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여자보호종료예정아동은 이보다 0.6점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고연령 보호종료예정아동이 5.6점으로 낮은 연령의 아동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장애유무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없는 아동에 비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다. 또한 보호유형에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높았다.

〈표 6-9〉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32	5.9 (2.1)	
성별	남		366	6.2 (2.2)	3.4***
	여		366	5.6 (2.0)	
연령	만 17세		103	6.0 (2.1)	5.1**
	만 18세		287	6.2 (2.2)	
	만 19세 이상		342	5.6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6.1 (2.2)	3.5*
	2-3년제 대학교		147	5.6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5.8 (2.0)	
부모 유무	있음		380	6.1 (2.1)	2.9
	없음		250	5.6 (2.1)	
	모름		102	6.0 (2.1)	
장애 유무	있음		37	6.7 (2.5)	2.4*
	없음		695	5.9 (2.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6.3 (2.1)	7.6***
	공동생활가정		55	6.3 (1.9)	
	가정위탁		421	5.6 (2.1)	
	가정 위탁	대리	180	5.4 (2.0)	1.7
		친인척	148	5.8 (2.0)	
		일반	93	5.9 (2.4)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6.3 (2.1)	4.7***
	공동생활가정		55	6.3 (1.9)	
	대리 가정위탁		180	5.4 (2.0)	
	친인척 가정위탁		148	5.8 (2.0)	
	일반 가정위탁		93	5.9 (2.4)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6.1 (2.2)	2.0*
	연장보호		481	5.8 (2.1)	

3. 자살생각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여부, 이유, 대처방법,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했다. 자살생각에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 중 42.8%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자 보호종료예정아동 둘 중 하나(52.2%)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보호유형중 대리가정위탁에 있는 아동 50.0%가 다음으로 높았다.

〈표 6-10〉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x ²	
전체		732	419	(57.2)	313	(42.8)		
성별	남	366	244	(66.7)	122	(33.3)	26.6***	
	여	366	175	(47.8)	191	(52.2)		
연령	만 17세	103	63	(61.2)	40	(38.8)	3.1	
	만 18세	287	172	(59.9)	115	(40.1)		
	만 19세 이상	342	184	(53.8)	158	(46.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45	(59.0)	170	(41.0)	2.2	
	2·3년제 대학교	147	85	(57.8)	62	(42.2)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89	(52.4)	81	(47.6)		
부모 유무	있음	380	215	(56.6)	165	(43.4)	0.2	
	없음	250	144	(57.6)	106	(42.4)		
	모름	102	60	(58.8)	42	(41.2)		
장애 유무	있음	37	25	(67.6)	12	(32.4)	1.7	
	없음	695	394	(56.7)	301	(43.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55	(60.5)	101	(39.5)	1.8
	공동생활가정		55	31	(56.4)	24	(43.6)	
	가정위탁		421	233	(55.3)	188	(44.7)	
	가정 위탁	대리	180	90	(50.0)	90	(50.0)	6**
		친인척	148	82	(55.4)	66	(44.6)	
	일반	93	61	(65.6)	32	(34.4)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155	(60.5)	101	(39.5)	7.9
	공동생활가정		55	31	(56.4)	24	(43.6)	
	대리 가정위탁		180	90	(50.0)	90	(50.0)	
	친인척 가정위탁		148	82	(55.4)	66	(44.6)	
	일반 가정위탁		93	61	(65.6)	32	(34.4)	

구분	사례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χ^2
전체	732	419 (57.2)	313 (42.8)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54 (61.4)	2.6
	연장보호	481	265 (55.1)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313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응답한 자살생각이유는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문제가 32.9%로 가장 많았고 14.7%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들었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정신과적 문제 등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 이유가 기타로 12.5%를 차지하였다.

〈표 6-11〉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정생활 문제 (예: 가족간 갈등 등)	경제적인 문제 (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 (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 (예: 가족, 친한 친구 등)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적응 문제 (예: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	기타	x ²	
전체		313	103 (32.9)	46 (14.7)	8 (2.6)	23 (7.3)	2 (.6)	30 (9.6)	5 (1.6)	11 (3.5)	2 (.6)	32 (10.2)	12 (3.8)	39 (12.5)		
성별	남	122	35 (28.7)	21 (17.2)	5 (4.1)	10 (8.2)	2 (1.6)	9 (7.4)	2 (1.6)	5 (4.1)	1 (.8)	14 (11.5)	3 (2.5)	15 (12.3)	9.7	
	여	191	68 (35.6)	25 (13.1)	3 (1.6)	13 (6.8)	0 (.0)	21 (11.0)	3 (1.6)	6 (3.1)	1 (.5)	18 (9.4)	9 (4.7)	24 (12.6)		
연령	만 17세	40	10 (25.0)	7 (17.5)	4 (10.0)	1 (2.5)	0 (.0)	2 (5.0)	1 (2.5)	3 (7.5)	0 (.0)	4 (10.0)	3 (7.5)	5 (12.5)	28.6	
	만 18세	115	37 (32.2)	11 (9.6)	2 (1.7)	11 (9.6)	1 (.9)	11 (9.6)	2 (1.7)	4 (3.5)	1 (.9)	10 (8.7)	7 (6.1)	18 (15.7)		
	만 19세 이상	158	56 (35.4)	28 (17.7)	2 (1.3)	11 (7.0)	1 (.6)	17 (10.8)	2 (1.3)	4 (2.5)	1 (.6)	18 (11.4)	2 (1.3)	16 (10.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70	53 (31.2)	20 (11.8)	7 (4.1)	12 (7.1)	1 (.6)	16 (9.4)	3 (1.8)	8 (4.7)	2 (1.2)	14 (8.2)	10 (5.9)	24 (14.1)	27.2	
	2-3년제 대학교	62	18 (29.0)	11 (17.7)	1 (1.6)	8 (12.9)	0 (.0)	9 (14.5)	0 (.0)	2 (3.2)	0 (.0)	7 (11.3)	0 (.0)	6 (9.7)		
	4년제 대학교 이상	81	32 (39.5)	15 (18.5)	0 (.0)	3 (3.7)	1 (1.2)	5 (6.2)	2 (2.5)	1 (1.2)	0 (.0)	11 (13.6)	2 (2.5)	9 (11.1)		
부모 유무	있음	165	67 (40.6)	20 (12.1)	4 (2.4)	6 (3.6)	1 (.6)	16 (9.7)	2 (1.2)	9 (5.5)	2 (1.2)	10 (6.1)	6 (3.6)	22 (13.3)	40.9 ***	
	없음	106	28 (26.4)	20 (18.9)	2 (1.9)	15 (14.2)	1 (.9)	9 (8.5)	3 (2.8)	2 (1.9)	0 (.0)	15 (14.2)	3 (2.8)	8 (7.5)		
	모름	42	8 (19.0)	6 (14.3)	2 (4.8)	2 (4.8)	0 (.0)	5 (11.9)	0 (.0)	0 (.0)	0 (.0)	7 (16.7)	3 (7.1)	9 (21.4)		
장애 유무	있음	12	3 (25.0)	0 (.0)	0 (.0)	2 (16.7)	0 (.0)	4 (33.3)	0 (.0)	0 (.0)	1 (8.3)	1 (8.3)	0 (.0)	1 (8.3)	24.2**	
	없음	301	100 (33.2)	46 (15.3)	8 (2.7)	21 (7.0)	2 (.7)	26 (8.6)	5 (1.7)	11 (3.7)	1 (.3)	31 (10.3)	12 (4.0)	38 (12.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01	21 (20.8)	10 (9.9)	1 (1.0)	2 (2.0)	1 (1.0)	14 (13.9)	2 (2.0)	4 (4.0)	1 (1.0)	15 (14.9)	10 (9.9)	20 (19.8)	59.5 ***	
	공동생활가정	24	9 (37.5)	1 (4.2)	2 (8.3)	3 (12.5)	0 (.0)	3 (12.5)	0 (.0)	3 (12.5)	0 (.0)	0 (.0)	0 (.0)	3 (12.5)		
	가정위탁	188	73 (38.8)	35 (18.6)	5 (2.7)	18 (9.6)	1 (.5)	13 (6.9)	3 (1.6)	4 (2.1)	1 (.5)	17 (9.0)	2 (1.1)	16 (8.5)		
	가정 위탁	대리	90	34 (37.8)	16 (17.8)	3 (3.3)	7 (7.8)	1 (1.1)	5 (5.6)	0 (.0)	2 (2.2)	1 (1.1)	11 (12.2)	0 (.0)		10 (11.1)
		친인척	66	28 (42.4)	12 (18.2)	1 (1.5)	7 (10.6)	0 (.0)	6 (9.1)	1 (1.5)	2 (3.0)	0 (.0)	4 (6.1)	1 (1.5)		4 (6.1)
	일반	32	11 (34.4)	7 (21.9)	1 (3.1)	4 (12.5)	0 (.0)	2 (6.3)	2 (6.3)	0 (.0)	0 (.0)	2 (6.3)	1 (3.1)	2 (6.3)	17.1	

구분	사례 수	가정생활 문제 (예: 가족간 갈등 등)	경제적인 문제 (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 (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 (예: 가족, 친한 친구 등)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마약 등의 문제)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적응 문제 (예: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	기타	χ^2
전체	313	103 (32.9)	46 (14.7)	8 (2.6)	23 (7.3)	2 (.6)	30 (9.6)	5 (1.6)	11 (3.5)	2 (.6)	32 (10.2)	12 (3.8)	39 (12.5)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01 21 (20.8)	10 (9.9)	1 (1.0)	2 (2.0)	1 (1.0)	14 (13.9)	2 (2.0)	4 (4.0)	1 (1.0)	15 (14.9)	10 (9.9)	20 (19.8)	
	공동생활가정	24 9 (37.5)	1 (4.2)	2 (8.3)	3 (12.5)	0 (.0)	3 (12.5)	0 (.0)	3 (12.5)	0 (.0)	0 (.0)	0 (.0)	3 (12.5)	
	대리 가정위탁	90 34 (37.8)	16 (17.8)	3 (3.3)	7 (7.8)	1 (1.1)	5 (5.6)	0 (.0)	2 (2.2)	1 (1.1)	11 (12.2)	0 (.0)	10 (11.1)	73.7**
	친인척 가정위탁	66 28 (42.4)	12 (18.2)	1 (1.5)	7 (10.6)	0 (.0)	6 (9.1)	1 (1.5)	2 (3.0)	0 (.0)	4 (6.1)	1 (1.5)	4 (6.1)	
보호 상태	일반 가정위탁	32 11 (34.4)	7 (21.9)	1 (3.1)	4 (12.5)	0 (.0)	2 (6.3)	2 (6.3)	0 (.0)	0 (.0)	2 (6.3)	1 (3.1)	2 (6.3)	
	일반보호	97 28 (28.9)	13 (13.4)	4 (4.1)	4 (4.1)	1 (1.0)	8 (8.2)	2 (2.1)	3 (3.1)	0 (.0)	10 (10.3)	6 (6.2)	18 (18.6)	12.2
보호 상태	연장보호	216 75 (34.7)	33 (15.3)	4 (1.9)	19 (8.8)	1 (.5)	22 (10.2)	3 (1.4)	8 (3.7)	2 (.9)	22 (10.2)	6 (2.8)	21 (9.7)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호종료예정아동의 38.3%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8.8%가 친구와의 상담, 18.2%가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했으며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또는 ‘혼자 술마시기, 담배 피우기 등으로 해소’는 각각 6.7%로 나타났다. 시설의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의 대화로 극복한 경우는 5.4%로 나타났다

〈표 6-12〉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친구와 상담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내는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정신과 치료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기타	χ^2
전체		313	59 (18.8)	17 (5.4)	21 (6.7)	9 (2.9)	120 (38.3)	57 (18.2)	21 (6.7)	9 (2.9)	
성별	남	122	19 (15.6)	6 (4.9)	7 (5.7)	5 (4.1)	44 (36.1)	26 (21.3)	10 (8.2)	5 (4.1)	5.6
	여	191	40 (20.9)	11 (5.8)	14 (7.3)	4 (2.1)	76 (39.8)	31 (16.2)	11 (5.8)	4 (2.1)	
연령	만 17세	40	8 (20.0)	2 (5.0)	3 (7.5)	0 (.0)	19 (47.5)	4 (10.0)	3 (7.5)	1 (2.5)	21.4
	만 18세	115	21 (18.3)	12 (10.4)	7 (6.1)	3 (2.6)	33 (28.7)	24 (20.9)	9 (7.8)	6 (5.2)	
	만 19세 이상	158	30 (19.0)	3 (1.9)	11 (7.0)	6 (3.8)	68 (43.0)	29 (18.4)	9 (5.7)	2 (1.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70	32 (18.8)	14 (8.2)	12 (7.1)	6 (3.5)	57 (33.5)	29 (17.1)	13 (7.6)	7 (4.1)	17.4
	2-3년제 대학교	62	13 (21.0)	2 (3.2)	3 (4.8)	0 (.0)	28 (45.2)	9 (14.5)	5 (8.1)	2 (3.2)	
	4년제 대학교 이상	81	14 (17.3)	1 (1.2)	6 (7.4)	3 (3.7)	35 (43.2)	19 (23.5)	3 (3.7)	0 (.0)	
부모 유무	있음	165	31 (18.8)	13 (7.9)	8 (4.8)	7 (4.2)	63 (38.2)	29 (17.6)	9 (5.5)	5 (3.0)	11.2
	없음	106	22 (20.8)	2 (1.9)	9 (8.5)	1 (.9)	42 (39.6)	18 (17.0)	9 (8.5)	3 (2.8)	
	모름	42	6 (14.3)	2 (4.8)	4 (9.5)	1 (2.4)	15 (35.7)	10 (23.8)	3 (7.1)	1 (2.4)	
장애 유무	있음	12	0 (.0)	2 (16.7)	3 (25.0)	2 (16.7)	3 (25.0)	2 (16.7)	0 (.0)	0 (.0)	21.5***
	없음	301	59 (19.6)	15 (5.0)	18 (6.0)	7 (2.3)	117 (38.9)	55 (18.3)	21 (7.0)	9 (3.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01	17 (16.8)	7 (6.9)	3 (3.0)	2 (2.0)	38 (37.6)	23 (22.8)	7 (6.9)	4 (4.0)	38.8***
	공동생활가정	24	2 (8.3)	6 (25.0)	5 (20.8)	1 (4.2)	8 (33.3)	2 (8.3)	0 (.0)	0 (.0)	
	가정위탁	188	40 (21.3)	4 (2.1)	13 (6.9)	6 (3.2)	74 (39.4)	32 (17.0)	14 (7.4)	5 (2.7)	
	가정 위탁	대리	90	19 (21.1)	4 (4.4)	4 (4.4)	2 (2.2)	38 (42.2)	12 (13.3)	8 (8.9)	12.2
		친인척	66	12 (18.2)	0 (.0)	7 (10.6)	3 (4.5)	25 (37.9)	15 (22.7)	3 (4.5)	
		일반	32	9 (28.1)	0 (.0)	2 (6.3)	1 (3.1)	11 (34.4)	5 (15.6)	3 (9.4)	

12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 수	친구와 상담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내는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정신과 치료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기타		x ²
전체		313	59	(18.8)	17	(5.4)	21	(6.7)	9	(2.9)	120	(38.3)	57	(18.2)	21	(6.7)	9	(2.9)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101	17	(16.8)	7	(6.9)	3	(3.0)	2	(2.0)	38	(37.6)	23	(22.8)	7	(6.9)	4	(4.0)	48.6**
	공동생활가정	24	2	(8.3)	6	(25.0)	5	(20.8)	1	(4.2)	8	(33.3)	2	(8.3)	0	(.0)	0	(.0)	
	대리 가정위탁	90	19	(21.1)	4	(4.4)	4	(4.4)	2	(2.2)	38	(42.2)	12	(13.3)	8	(8.9)	3	(3.3)	
	친인척 가정위탁	66	12	(18.2)	0	(.0)	7	(10.6)	3	(4.5)	25	(37.9)	15	(22.7)	3	(4.5)	1	(1.5)	
	일반 가정위탁	32	9	(28.1)	0	(.0)	2	(6.3)	1	(3.1)	11	(34.4)	5	(15.6)	3	(9.4)	1	(3.1)	
보호 상태	일반보호	97	23	(23.7)	10	(10.3)	8	(8.2)	2	(2.1)	33	(34.0)	14	(14.4)	3	(3.1)	4	(4.1)	14.0
	연장보호	216	36	(16.7)	7	(3.2)	13	(6.0)	7	(3.2)	87	(40.3)	43	(19.9)	18	(8.3)	5	(2.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응답자의 34.8%가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들었고 19.5%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심리상담(비용) 지원 또는 정신과치료비 지원 등의 순으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표 6-1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아무 도움 필요 없음	χ^2
전체	313	53 (16.9)	41 (13.1)	20 (6.4)	20 (6.4)	9 (2.9)	109 (34.8)	61 (19.5)	
성별	남	122	29 (23.8)	16 (13.1)	8 (6.6)	2 (1.6)	47 (38.5)	19 (15.6)	17.9***
	여	191	24 (12.6)	25 (13.1)	12 (6.3)	8 (4.2)	62 (32.5)	42 (22.0)	
연령	만 17세	40	5 (12.5)	4 (10.0)	3 (7.5)	1 (2.5)	16 (40.0)	9 (22.5)	17.6
	만 18세	115	18 (15.7)	11 (9.6)	6 (5.2)	4 (3.5)	48 (41.7)	27 (23.5)	
	만 19세 이상	158	30 (19.0)	26 (16.5)	11 (7.0)	15 (9.5)	45 (28.5)	25 (15.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70	25 (14.7)	19 (11.2)	9 (5.3)	8 (4.7)	68 (40.0)	38 (22.4)	12.8
	2-3년제 대학교	62	13 (21.0)	8 (12.9)	6 (9.7)	4 (6.5)	17 (27.4)	11 (17.7)	
	4년제 대학교 이상	81	15 (18.5)	14 (17.3)	5 (6.2)	8 (9.9)	24 (29.6)	12 (14.8)	
부모 유무	있음	165	20 (12.1)	24 (14.5)	12 (7.3)	13 (7.9)	62 (37.6)	30 (18.2)	25.8**
	없음	106	26 (24.5)	12 (11.3)	5 (4.7)	5 (4.7)	37 (34.9)	21 (19.8)	
	모름	42	7 (16.7)	5 (11.9)	3 (7.1)	2 (4.8)	10 (23.8)	10 (23.8)	
장애 유무	있음	12	2 (16.7)	6 (50.0)	0 (.0)	1 (8.3)	0 (.0)	1 (8.3)	16.2**
	없음	301	51 (16.9)	35 (11.6)	20 (6.6)	19 (6.3)	107 (35.5)	60 (19.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01	15 (14.9)	15 (14.9)	3 (3.0)	2 (2.0)	42 (41.6)	21 (20.8)	18.3
	공동생활가정	24	6 (25.0)	6 (25.0)	3 (12.5)	2 (8.3)	5 (20.8)	2 (8.3)	
	가정위탁	188	32 (17.0)	20 (10.6)	14 (7.4)	16 (8.5)	62 (33.0)	38 (20.2)	
	가정 위탁	대리	90	18 (20.0)	9 (10.0)	5 (5.6)	9 (10.0)	1 (1.1)	12
		친인척	66	7 (10.6)	8 (12.1)	6 (9.1)	4 (6.1)	5 (7.6)	
		일반	32	7 (21.9)	3 (9.4)	3 (9.4)	3 (9.4)	0 (.0)	

구분		사례수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아무 도움 필요 없음		x ²
전체		313	53	(16.9)	41	(13.1)	20	(6.4)	20	(6.4)	9	(2.9)	109	(34.8)	61	(19.5)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01	15	(14.9)	15	(14.9)	3	(3.0)	2	(2.0)	3	(3.0)	42	(41.6)	21	(20.8)	31.3
	공동생활가정	24	6	(25.0)	6	(25.0)	3	(12.5)	2	(8.3)	0	(.0)	5	(20.8)	2	(8.3)	
	대리 가정위탁	90	18	(20.0)	9	(10.0)	5	(5.6)	9	(10.0)	1	(1.1)	28	(31.1)	20	(22.2)	
	친인척 가정위탁	66	7	(10.6)	8	(12.1)	6	(9.1)	4	(6.1)	5	(7.6)	22	(33.3)	14	(21.2)	
	일반 가정위탁	32	7	(21.9)	3	(9.4)	3	(9.4)	3	(9.4)	0	(.0)	12	(37.5)	4	(12.5)	
보호 상태	일반보호	97	18	(18.6)	14	(14.4)	6	(6.2)	2	(2.1)	3	(3.1)	35	(36.1)	19	(19.6)	4.6
	연장보호	216	35	(16.2)	27	(12.5)	14	(6.5)	18	(8.3)	6	(2.8)	74	(34.3)	42	(19.4)	

4. 보호 종료를 앞둔 심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과 걱정과 기대심리에 대한 각각의 주요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보호종료를 앞둔 732명 보호종료예정아동의 21.4%는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4명 중 3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 (76.2%)이 조금 또는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보호종료 이후에 대한 걱정은 연령별, 보호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7세 보호종료예정아동이 70.9%, 만 19세 이상이 79.6%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 또는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한 아동의 수가 증가했다. 또한 보호유형별로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81.8%가 보호종료를 앞두고 매우 또는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은 79.1%로 조금 낮고, 시설보호아동은 70.3%로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6-14〉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된다	조금 걱정된다	조금 기대된다	매우 기대된다	χ^2
전체	732	157 (21.4)	401 (54.8)	131 (17.9)	43 (5.9)	
성별						3.0
남	366	70 (19.1)	202 (55.2)	71 (19.4)	23 (6.3)	
여	366	87 (23.8)	199 (54.4)	60 (16.4)	20 (5.5)	
연령						14.2*
만 17세	103	17 (16.5)	56 (54.4)	19 (18.4)	11 (10.7)	
만 18세	287	70 (24.4)	143 (49.8)	53 (18.5)	21 (7.3)	
만 19세 이상	342	70 (20.5)	202 (59.1)	59 (17.3)	11 (3.2)	
교육 수준						8.7
고등학교 이하	415	93 (22.4)	218 (52.5)	72 (17.3)	32 (7.7)	
2-3년제 대학교	147	30 (20.4)	89 (60.5)	23 (15.6)	5 (3.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4 (20.0)	94 (55.3)	36 (21.2)	6 (3.5)	
부모 유무						7.7
있음	380	75 (19.7)	204 (53.7)	73 (19.2)	28 (7.4)	
없음	250	62 (24.8)	140 (56.0)	40 (16.0)	8 (3.2)	
모름	102	20 (19.6)	57 (55.9)	18 (17.6)	7 (6.9)	
장애 유무						1.6
있음	37	8 (21.6)	22 (59.5)	4 (10.8)	3 (8.1)	
없음	695	149 (21.4)	379 (54.5)	127 (18.3)	40 (5.8)	
보호 유형						14.4*
아동양육시설	256	60 (23.4)	120 (46.9)	53 (20.7)	23 (9.0)	
공동생활가정	55	13 (23.6)	32 (58.2)	7 (12.7)	3 (5.5)	
가정위탁	421	84 (20.0)	249 (59.1)	71 (16.9)	17 (4.0)	
가정 위탁						10.9
대리	180	44 (24.4)	103 (57.2)	28 (15.6)	5 (2.8)	
친인척	148	24 (16.2)	95 (64.2)	25 (16.9)	4 (2.7)	
일반	93	16 (17.2)	51 (54.8)	18 (19.4)	8 (8.6)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된다		조금 걱정된다		조금 기대된다		매우 기대된다		χ^2
전체		732	157	(21.4)	401	(54.8)	131	(17.9)	43	(5.9)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256	60	(23.4)	120	(46.9)	53	(20.7)	23	(9.0)	23.2*
	공동생활가정	55	13	(23.6)	32	(58.2)	7	(12.7)	3	(5.5)	
	대리 가정위탁	180	44	(24.4)	103	(57.2)	28	(15.6)	5	(2.8)	
	친인척 가정위탁	148	24	(16.2)	95	(64.2)	25	(16.9)	4	(2.7)	
	일반 가정위탁	93	16	(17.2)	51	(54.8)	18	(19.4)	8	(8.6)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55	(21.9)	131	(52.2)	49	(19.5)	16	(6.4)	1.2
	연장보호	481	102	(21.2)	270	(56.1)	82	(17.0)	27	(5.6)	

매우 또는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걱정되는 이유에 대해 39.1%가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32.4%가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14.0%가 거주할 집문제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보호유형과 보호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보호유형에 따라서, 취업진학에 대한 걱정 및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이 48.9%로 가장 높았고 거주할 집에 대한 걱정은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이 22.2%로 높았다.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은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립준비의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6-15〉 걱정되는 경우, 걱정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이 없음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시설(위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기타	x ²
전체		558	218 (39.1)	23 (4.1)	78 (14.0)	14 (2.5)	10 (1.8)	4 (0.7)	181 (32.4)	1 (0.2)	27 (4.8)	2 (0.4)	
성별	남	272	115 (42.3)	15 (5.5)	36 (13.2)	8 (2.9)	5 (1.8)	2 (0.7)	75 (27.6)	0 (0.0)	14 (5.1)	2 (0.7)	11.5
	여	286	103 (36.0)	8 (2.8)	42 (14.7)	6 (2.1)	5 (1.7)	2 (0.7)	106 (37.1)	1 (0.3)	13 (4.5)	0 (0.0)	
연령	만 17세	73	31 (42.5)	3 (4.1)	12 (16.4)	2 (2.7)	0 (0.0)	0 (0.0)	23 (31.5)	0 (0.0)	2 (2.7)	0 (0.0)	27.2
	만 18세	213	82 (38.5)	16 (7.5)	26 (12.2)	9 (4.2)	6 (2.8)	2 (0.9)	57 (26.8)	1 (0.5)	13 (6.1)	1 (0.5)	
	만 19세 이상	272	105 (38.6)	4 (1.5)	40 (14.7)	3 (1.1)	4 (1.5)	2 (0.7)	101 (37.1)	0 (0.0)	12 (4.4)	1 (0.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11	122 (39.2)	19 (6.1)	42 (13.5)	11 (3.5)	6 (1.9)	2 (0.6)	91 (29.3)	1 (0.3)	16 (5.1)	1 (0.3)	18.0
	2-3년제 대학교	119	49 (41.2)	2 (1.7)	16 (13.4)	1 (0.8)	2 (1.7)	2 (1.7)	42 (35.3)	0 (0.0)	4 (3.4)	1 (0.8)	
	4년제 대학교 이상	128	47 (36.7)	2 (1.6)	20 (15.6)	2 (1.6)	2 (1.6)	0 (0.0)	48 (37.5)	0 (0.0)	7 (5.5)	0 (0.0)	
부모 유무	있음	279	110 (39.4)	9 (3.2)	42 (15.1)	8 (2.9)	7 (2.5)	0 (0.0)	90 (32.3)	1 (0.4)	12 (4.3)	0 (0.0)	22.8
	없음	202	84 (41.6)	7 (3.5)	23 (11.4)	6 (3.0)	2 (1.0)	2 (1.0)	66 (32.7)	0 (0.0)	11 (5.4)	1 (0.5)	
	모름	77	24 (31.2)	7 (9.1)	13 (16.9)	0 (0.0)	1 (1.3)	2 (2.6)	25 (32.5)	0 (0.0)	4 (5.2)	1 (1.3)	
장애 유무	있음	30	11 (36.7)	2 (6.7)	5 (16.7)	1 (3.3)	0 (0.0)	0 (0.0)	8 (26.7)	0 (0.0)	2 (6.7)	1 (3.3)	10.0
	없음	528	207 (39.2)	21 (4.0)	73 (13.8)	13 (2.5)	10 (1.9)	4 (0.8)	173 (32.8)	1 (0.2)	25 (4.7)	1 (0.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80	88 (48.9)	17 (9.4)	18 (10.0)	5 (2.8)	2 (1.1)	1 (0.6)	32 (17.8)	1 (0.6)	16 (8.9)	0 (0.0)	68.9***
	공동생활가정	45	21 (46.7)	1 (2.2)	10 (22.2)	1 (2.2)	0 (0.0)	0 (0.0)	10 (22.2)	0 (0.0)	2 (4.4)	0 (0.0)	
	가정위탁	333	109 (32.7)	5 (1.5)	50 (15.0)	8 (2.4)	8 (2.4)	3 (0.9)	139 (41.7)	0 (0.0)	9 (2.7)	2 (0.6)	
	가정 위탁	대리	147	51 (34.7)	0 (0.0)	20 (13.6)	2 (1.4)	4 (2.7)	67 (45.6)	0 (0.0)	1 (0.7)	0 (0.0)	21.5
		친인척	119	36 (30.3)	2 (1.7)	21 (17.6)	3 (2.5)	1 (0.8)	48 (40.3)	0 (0.0)	5 (4.2)	2 (1.7)	
	일반	67	22 (32.8)	3 (4.5)	9 (13.4)	3 (4.5)	3 (4.5)	0 (0.0)	24 (35.8)	0 (0.0)	3 (4.5)	0 (0.0)	

구분		사례 수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이 없음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시설(위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기타	x ²
전체		558	218 (39.1)	23 (4.1)	78 (14.0)	14 (2.5)	10 (1.8)	4 (0.7)	181 (32.4)	1 (0.2)	27 (4.8)	2 (0.4)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80	88 (48.9)	17 (9.4)	18 (10.0)	5 (2.8)	2 (1.1)	1 (0.6)	32 (17.8)	1 (0.6)	16 (8.9)	0 (0.0)	88.4 ***
	공동생활가정	45	21 (46.7)	1 (2.2)	10 (22.2)	1 (2.2)	0 (0.0)	0 (0.0)	10 (22.2)	0 (0.0)	2 (4.4)	0 (0.0)	
	대리 가정위탁	147	51 (34.7)	0 (0.0)	20 (13.6)	2 (1.4)	4 (2.7)	2 (1.4)	67 (45.6)	0 (0.0)	1 (0.7)	0 (0.0)	
	친인척 가정위탁	119	36 (30.3)	2 (1.7)	21 (17.6)	3 (2.5)	1 (0.8)	1 (0.8)	48 (40.3)	0 (0.0)	5 (4.2)	2 (1.7)	
	일반 가정위탁	67	22 (32.8)	3 (4.5)	9 (13.4)	3 (4.5)	3 (4.5)	0 (0.0)	24 (35.8)	0 (0.0)	3 (4.5)	0 (0.0)	
보호 상태	일반보호	186	73 (39.2)	13 (7.0)	28 (15.1)	7 (3.8)	3 (1.6)	0 (0.0)	48 (25.8)	1 (0.5)	13 (7.0)	0 (0.0)	19.0*
	연장보호	372	145 (39.0)	10 (2.7)	50 (13.4)	7 (1.9)	7 (1.9)	4 (1.1)	133 (35.8)	0 (0.0)	14 (3.8)	2 (0.5)	

매우 또는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6%의 아동이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17.7%는 기대되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했고, 10.2%는 시설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유무, 보호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에 대한 기대가 34.8%로 없는 아동의 25.2%보다 높았으며 직장생활 또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도 21.1%로 높았다. 반면 부모가 없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25.7%가 기대되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부모가 있는 아동의 응답 12.5%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보호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경우도 26.7%로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기대되는 부분이 없음이 2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23.1%), 직장생활 또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6〉 걱정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 생활 또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자유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독립	시설(위탁)아동 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	선생님이나 어른이 없는 자유로운 독립 생활	기대되는 부분 없음	기타	x ²	
전체		558	98 (17.6)	35 (6.3)	171 (30.6)	13 (2.3)	40 (7.2)	57 (10.2)	42 (7.5)	99 (17.7)	3 (0.5)		
성별	남	272	49 (18.0)	20 (7.4)	80 (29.4)	5 (1.8)	21 (7.7)	30 (11.0)	19 (7.0)	46 (16.9)	2 (0.7)	3.2	
	여	286	49 (17.1)	15 (5.2)	91 (31.8)	8 (2.8)	19 (6.6)	27 (9.4)	23 (8.0)	53 (18.5)	1 (0.3)		
연령	만 17세	73	14 (19.2)	5 (6.8)	20 (27.4)	1 (1.4)	6 (8.2)	4 (5.5)	11 (15.1)	12 (16.4)	0 (0.0)	23.7	
	만 18세	213	44 (20.7)	11 (5.2)	71 (33.3)	9 (4.2)	12 (5.6)	20 (9.4)	15 (7.0)	30 (14.1)	1 (0.5)		
교육 수준	만 19세 이상	272	40 (14.7)	19 (7.0)	80 (29.4)	3 (1.1)	22 (8.1)	33 (12.1)	16 (5.9)	57 (21.0)	2 (0.7)		
	고등학교 이하	311	59 (19.0)	17 (5.5)	100 (32.2)	11 (3.5)	21 (6.8)	23 (7.4)	29 (9.3)	50 (16.1)	1 (0.3)	23.8	
	2-3년제 대학교	119	20 (16.8)	12 (10.1)	31 (26.1)	0 (0.0)	11 (9.2)	13 (10.9)	6 (5.0)	25 (21.0)	1 (0.8)		
	4년제 대학교 이상	128	19 (14.8)	6 (4.7)	40 (31.3)	2 (1.6)	8 (6.3)	21 (16.4)	7 (5.5)	24 (18.8)	1 (0.8)		
부모 유무	있음	279	59 (21.1)	20 (7.2)	97 (34.8)	5 (1.8)	18 (6.5)	27 (9.7)	18 (6.5)	35 (12.5)	0 (0.0)	33***	
	없음	202	31 (15.3)	8 (4.0)	51 (25.2)	6 (3.0)	12 (5.9)	21 (10.4)	19 (9.4)	52 (25.7)	2 (1.0)		
	모름	77	8 (10.4)	7 (9.1)	23 (29.9)	2 (2.6)	10 (13.0)	9 (11.7)	5 (6.5)	12 (15.6)	1 (1.3)		
장애 유무	있음	30	4 (13.3)	4 (13.3)	8 (26.7)	0 (0.0)	4 (13.3)	4 (13.3)	1 (3.3)	4 (13.3)	1 (3.3)	11.4	
	없음	528	94 (17.8)	31 (5.9)	163 (30.9)	13 (2.5)	36 (6.8)	53 (10.0)	41 (7.8)	95 (18.0)	2 (0.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80	22 (12.2)	15 (8.3)	82 (45.6)	7 (3.9)	9 (5.0)	17 (9.4)	17 (9.4)	11 (6.1)	0 (0.0)	63.2***
	공동생활가정		45	8 (17.8)	5 (11.1)	12 (26.7)	2 (4.4)	4 (8.9)	6 (13.3)	3 (6.7)	5 (11.1)	0 (0.0)	
	가정위탁		333	68 (20.4)	15 (4.5)	77 (23.1)	4 (1.2)	27 (8.1)	34 (10.2)	22 (6.6)	83 (24.9)	3 (0.9)	
	가정 위탁	대리	147	30 (20.4)	8 (5.4)	31 (21.1)	3 (2.0)	6 (4.1)	14 (9.5)	10 (6.8)	44 (29.9)	1 (0.7)	19
		친인척	119	21 (17.6)	4 (3.4)	32 (26.9)	1 (0.8)	12 (10.1)	10 (8.4)	10 (8.4)	27 (22.7)	2 (1.7)	
일반		67	17 (25.4)	3 (4.5)	14 (20.9)	0 (0.0)	9 (13.4)	10 (14.9)	2 (3.0)	12 (17.9)	0 (0.0)		

13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직장 생활 또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자유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독립		시설(위탁)아동 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		선생님이나 어른이 없는 자유로운 독립 생활		기대되는 부분 없음		기타		x ²
전체		558	98	(17.6)	35	(6.3)	171	(30.6)	13	(2.3)	40	(7.2)	57	(10.2)	42	(7.5)	99	(17.7)	3	(.5)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80	22	(12.2)	15	(8.3)	82	(45.6)	7	(3.9)	9	(5.0)	17	(9.4)	17	(9.4)	11	(6.1)	0	(.0)	83.9***
	공동생활가정	45	8	(17.8)	5	(11.1)	12	(26.7)	2	(4.4)	4	(8.9)	6	(13.3)	3	(6.7)	5	(11.1)	0	(.0)	
	대리 가정위탁	147	30	(20.4)	8	(5.4)	31	(21.1)	3	(2.0)	6	(4.1)	14	(9.5)	10	(6.8)	44	(29.9)	1	(.7)	
	친인척 가정위탁	119	21	(17.6)	4	(3.4)	32	(26.9)	1	(.8)	12	(10.1)	10	(8.4)	10	(8.4)	27	(22.7)	2	(1.7)	
	일반 가정위탁	67	17	(25.4)	3	(4.5)	14	(20.9)	0	(.0)	9	(13.4)	10	(14.9)	2	(3.0)	12	(17.9)	0	(.0)	
보호 상태	일반보호	186	37	(19.9)	8	(4.3)	60	(32.3)	6	(3.2)	10	(5.4)	17	(9.1)	22	(11.8)	26	(14.0)	0	(.0)	15.9**
	연장보호	372	61	(16.4)	27	(7.3)	111	(29.8)	7	(1.9)	30	(8.1)	40	(10.8)	20	(5.4)	73	(19.6)	3	(.8)	

매우 또는 조금 기대된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기대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라는 응답이 29.3%, 직장생활 또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23.0%, 시설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이 1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만 19세 이상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시설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2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만의 독립된 공간, 직장생활 또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각각 22.9%로 높았다. 반면 만 18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1/3이상이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강한 기대(36.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7세 아동의 경우 직장 또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나만의 공간에 대한 기대가 각각 26.7%로 가장 높았다.

〈표 6-17〉 기대되는 경우, 기대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직장 생활 또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자유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독립		시설(위탁)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		선생님이나 어른이 없는 자유로운 독립 생활		기타	x ²		
전체		174	40	(23.0)	15	(8.6)	51	(29.3)	4	(2.3)	13	(7.5)	27	(15.5)	19	(10.9)	5	(2.9)		
성별	남	94	22	(23.4)	12	(12.8)	26	(27.7)	1	(1.1)	9	(9.6)	11	(11.7)	10	(10.6)	3	(3.2)	10.2	
	여	80	18	(22.5)	3	(3.8)	25	(31.3)	3	(3.8)	4	(5.0)	16	(20.0)	9	(11.3)	2	(2.5)		
연령	만 17세	30	8	(26.7)	5	(16.7)	8	(26.7)	1	(3.3)	2	(6.7)	3	(10.0)	3	(10.0)	0	(.0)	9.5	
	만 18세	74	16	(21.6)	5	(6.8)	27	(36.5)	1	(1.4)	4	(5.4)	5	(6.8)	13	(17.6)	3	(4.1)		
	만 19세 이상	70	16	(22.9)	5	(7.1)	16	(22.9)	2	(2.9)	7	(10.0)	19	(27.1)	3	(4.3)	2	(2.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04	24	(23.1)	10	(9.6)	33	(31.7)	2	(1.9)	7	(6.7)	9	(8.7)	16	(15.4)	3	(2.9)	13.4	
	2~3년제 대학교	28	9	(32.1)	1	(3.6)	7	(25.0)	1	(3.6)	1	(3.6)	9	(32.1)	0	(.0)	0	(.0)		
	4년제 대학교 이상	42	7	(16.7)	4	(9.5)	11	(26.2)	1	(2.4)	5	(11.9)	9	(21.4)	3	(7.1)	2	(4.8)		
부모 유무	있음	101	23	(22.8)	7	(6.9)	31	(30.7)	3	(3.0)	8	(7.9)	14	(13.9)	11	(10.9)	4	(4.0)	22.6	
	없음	48	12	(25.0)	5	(10.4)	14	(29.2)	1	(2.1)	3	(6.3)	9	(18.8)	4	(8.3)	0	(.0)		
	모름	25	5	(20.0)	3	(12.0)	6	(24.0)	0	(.0)	2	(8.0)	4	(16.0)	4	(16.0)	1	(4.0)		
장애 유무	있음	7	4	(57.1)	0	(.0)	0	(.0)	0	(.0)	0	(.0)	2	(28.6)	1	(14.3)	0	(.0)	26.6 ***	
	없음	167	36	(21.6)	15	(9.0)	51	(30.5)	4	(2.4)	13	(7.8)	25	(15.0)	18	(10.8)	5	(3.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76	17	(22.4)	5	(6.6)	23	(30.3)	2	(2.6)	5	(6.6)	8	(10.5)	13	(17.1)	3	(3.9)	13.6
	공동생활가정		10	2	(20.0)	1	(10.0)	4	(40.0)	1	(10.0)	0	(.0)	1	(10.0)	1	(10.0)	0	(.0)	
	가정위탁		88	21	(23.9)	9	(10.2)	24	(27.3)	1	(1.1)	8	(9.1)	18	(20.5)	5	(5.7)	2	(2.3)	
	가정 위탁	대리	33	9	(27.3)	3	(9.1)	8	(24.2)	0	(.0)	1	(3.0)	8	(24.2)	2	(6.1)	2	(6.1)	14.4
		친인척	29	5	(17.2)	1	(3.4)	8	(27.6)	1	(3.4)	4	(13.8)	7	(24.1)	3	(10.3)	0	(.0)	
		일반	26	7	(26.9)	5	(19.2)	8	(30.8)	0	(.0)	3	(11.5)	3	(11.5)	0	(.0)	0	(.0)	

구분	사례 수	직장 생활 또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자유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독립	시설(위탁)아동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시작	선생님이나 어른이 없는 자유로운 독립 생활	기타	x ²
전체	174	40 (23.0)	15 (8.6)	51 (29.3)	4 (2.3)	13 (7.5)	27 (15.5)	19 (10.9)	5 (2.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76	17 (22.4)	5 (6.6)	23 (30.3)	2 (2.6)	5 (6.6)	8 (10.5)	13 (17.1)	3 (3.9)
	공동생활가정	10	2 (20.0)	1 (10.0)	4 (40.0)	1 (10.0)	0 (.0)	1 (10.0)	1 (10.0)	0 (.0)
	대리 가정위탁	33	9 (27.3)	3 (9.1)	8 (24.2)	0 (.0)	1 (3.0)	8 (24.2)	2 (6.1)	2 (6.1)
	친인척 가정위탁	29	5 (17.2)	1 (3.4)	8 (27.6)	1 (3.4)	4 (13.8)	7 (24.1)	3 (10.3)	0 (.0)
	일반 가정위탁	26	7 (26.9)	5 (19.2)	8 (30.8)	0 (.0)	3 (11.5)	3 (11.5)	0 (.0)	0 (.0)
보호 상태	일반보호	65	14 (21.5)	7 (10.8)	18 (27.7)	2 (3.1)	4 (6.2)	7 (10.8)	11 (16.9)	2 (3.1)
	연장보호	109	26 (23.9)	8 (7.3)	33 (30.3)	2 (1.8)	9 (8.3)	20 (18.3)	8 (7.3)	3 (2.8)

매우 또는 조금 기대된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걱정되는 부분은 생활비, 학비, 돈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32.2%로 가장 높았고 취업·진학에 대한 걱정이 23.0%, 걱정되는 부분이 없음 17.2%, 거주할 집 문제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른 걱정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이 42.9%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28.6%를 차지했다. 반면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대한 걱정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22.2%), 거주할 집에 대한 걱정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8〉 기대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이 없음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시설(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걱정되는 부분 없음	x ²		
전체	174	40 (23.0)	5 (2.9)	27 (15.5)	4 (2.3)	2 (1.1)	3 (1.7)	56 (32.2)	1 (0.6)	6 (3.4)	30 (17.2)			
성별	남	94	19 (20.2)	2 (2.1)	14 (14.9)	3 (3.2)	2 (2.1)	3 (3.2)	27 (28.7)	1 (1.1)	5 (5.3)	18 (19.1)	10.2	
	여	80	21 (26.3)	3 (3.8)	13 (16.3)	1 (1.3)	0 (0.0)	0 (0.0)	29 (36.3)	0 (0.0)	1 (1.3)	12 (15.0)		
연령	만 17세	30	7 (23.3)	1 (3.3)	6 (20.0)	1 (3.3)	0 (0.0)	0 (0.0)	8 (26.7)	0 (0.0)	2 (6.7)	5 (16.7)	9.5	
	만 18세	74	14 (18.9)	2 (2.7)	11 (14.9)	2 (2.7)	2 (2.7)	2 (2.7)	26 (35.1)	1 (1.4)	1 (1.4)	13 (17.6)		
교육 수준	만 19세 이상	70	19 (27.1)	2 (2.9)	10 (14.3)	1 (1.4)	0 (0.0)	1 (1.4)	22 (31.4)	0 (0.0)	3 (4.3)	12 (17.1)		
	고등학교 이하	104	21 (20.2)	3 (2.9)	17 (16.3)	2 (1.9)	2 (1.9)	1 (1.0)	35 (33.7)	1 (1.0)	3 (2.9)	19 (18.3)	13.4	
	2-3년제 대학교	28	6 (21.4)	1 (3.6)	4 (14.3)	1 (3.6)	0 (0.0)	0 (0.0)	8 (28.6)	0 (0.0)	3 (10.7)	5 (17.9)		
	4년제 대학교 이상	42	13 (31.0)	1 (2.4)	6 (14.3)	1 (2.4)	0 (0.0)	2 (4.8)	13 (31.0)	0 (0.0)	0 (0.0)	6 (14.3)		
부모 유무	있음	101	20 (19.8)	1 (1.0)	18 (17.8)	3 (3.0)	1 (1.0)	1 (1.0)	33 (32.7)	1 (1.0)	2 (2.0)	21 (20.8)	22.6	
	없음	48	14 (29.2)	3 (6.3)	8 (16.7)	1 (2.1)	0 (0.0)	0 (0.0)	15 (31.3)	0 (0.0)	3 (6.3)	4 (8.3)		
장애 유무	모름	25	6 (24.0)	1 (4.0)	1 (4.0)	0 (0.0)	1 (4.0)	2 (8.0)	8 (32.0)	0 (0.0)	1 (4.0)	5 (20.0)	26.6**	
	있음	7	3 (42.9)	2 (28.6)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3)		
	없음	167	37 (22.2)	3 (1.8)	27 (16.2)	3 (1.8)	2 (1.2)	3 (1.8)	56 (33.5)	1 (0.6)	6 (3.6)	29 (17.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76	18 (23.7)	1 (1.3)	10 (13.2)	3 (3.9)	2 (2.6)	2 (2.6)	24 (31.6)	0 (0.0)	3 (3.9)	13 (17.1)	13.6	
	공동생활가정	10	2 (20.0)	1 (10.0)	3 (3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 (10.0)	2 (20.0)		
	가정위탁	88	20 (22.7)	3 (3.4)	14 (15.9)	1 (1.1)	0 (0.0)	1 (1.1)	31 (35.2)	1 (1.1)	2 (2.3)	15 (17.0)		
	가정 위탁	대리	33	9 (27.3)	3 (9.1)	4 (12.1)	0 (0.0)	0 (0.0)	0 (0.0)	12 (36.4)	0 (0.0)	1 (3.0)	4 (12.1)	14.4
		친인척	29	6 (20.7)	0 (0.0)	5 (17.2)	1 (3.4)	0 (0.0)	0 (0.0)	10 (34.5)	0 (0.0)	1 (3.4)	6 (20.7)	
	일반	26	5 (19.2)	0 (0.0)	5 (19.2)	0 (0.0)	0 (0.0)	1 (3.8)	9 (34.6)	1 (3.8)	0 (0.0)	5 (19.2)		

144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 수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이 없음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시설(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걱정되는 부분 없음	x ²
전체		174	40 (23.0)	5 (2.9)	27 (15.5)	4 (2.3)	2 (1.1)	3 (1.7)	56 (32.2)	1 (0.6)	6 (3.4)	30 (17.2)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76	18 (23.7)	1 (1.3)	10 (13.2)	3 (3.9)	2 (2.6)	2 (2.6)	24 (31.6)	0 (0.0)	3 (3.9)	13 (17.1)	29.2
	공동생활가정	10	2 (20.0)	1 (10.0)	3 (3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 (10.0)	2 (20.0)	
	대리 가정위탁	33	9 (27.3)	3 (9.1)	4 (12.1)	0 (0.0)	0 (0.0)	0 (0.0)	12 (36.4)	0 (0.0)	1 (3.0)	4 (12.1)	
	친인척 가정위탁	29	6 (20.7)	0 (0.0)	5 (17.2)	1 (3.4)	0 (0.0)	0 (0.0)	10 (34.5)	0 (0.0)	1 (3.4)	6 (20.7)	
	일반 가정위탁	26	5 (19.2)	0 (0.0)	5 (19.2)	0 (0.0)	0 (0.0)	1 (3.8)	9 (34.6)	1 (3.8)	0 (0.0)	5 (19.2)	
보호 상태	일반보호	65	13 (20.0)	2 (3.1)	10 (15.4)	1 (1.5)	2 (3.1)	2 (3.1)	20 (30.8)	0 (0.0)	2 (3.1)	13 (20.0)	6.3
	연장보호	109	27 (24.8)	3 (2.8)	17 (15.6)	3 (2.8)	0 (0.0)	1 (0.9)	36 (33.0)	1 (0.9)	4 (3.7)	17 (15.6)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

1.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경제적 자립정도, 심리정서적 자립정도, 사회적 자립정도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먼저 영역 간 비교를 하면 경제적 자립정도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자립정도 및 사회적 자립정도는 각각 5.7점으로 경제적 자립정도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 자립정도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특성별 차이는 장애유무와 자립수당대상여부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과 보호종료 연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종류가 직장보험일 경우, 연장보호 종료일 경우 경제적 자립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자립정도가 시설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경제적 자립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자립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5.7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 교육수준별, 부모유무, 장애유무, 건강보험 종류, 보호종료 유형 등에 따라서 심리정서적 자립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이 여자보다 조금 높은 심리정서적 자립정도를 보고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있는 아동, 장애가 없는 아동,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연장종료 아동의 심리정서적 자립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자립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평균 5.7점으로 심리정서적 자립정도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교육수준별, 부모유무, 장애유무, 건강보험종류, 보호유형, 보호종류 유형 등의 특성에서 사회적 자립정도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있는, 장애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공동생활 가정, 연장종료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자립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평균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t(F)
전체		3,104	5.1 (2.3)		5.7 (2.4)		5.7 (2.3)	
성별	남	1,461	5.2 (2.4)	2.6*	5.8 (2.5)	2.4*	5.7 (2.4)	0.6
	여	1,643	5.0 (2.3)		5.6 (2.4)		5.7 (2.2)	
연령	만 18~19세	600	5.2 (2.3)	4.0**	5.7 (2.4)	6.8***	5.7 (2.2)	6.3***
	만 20~21세	1,289	4.9 (2.3)		5.5 (2.5)		5.5 (2.4)	
	만 22~23세	778	5.3 (2.3)		5.9 (2.3)		6.0 (2.1)	
	만 24세 이상	437	5.2 (2.3)		5.8 (2.4)		5.9 (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8 (2.4)	17.8***	5.2 (2.6)	33.7***	5.3 (2.4)	35.8***
	2~3년제 대학교	524	5.2 (2.1)		5.8 (2.3)		5.8 (2.1)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5.3 (2.3)		6.0 (2.3)		6.0 (2.1)	
부모 유무	있음	1,512	5.2 (2.3)	4.8**	5.9 (2.4)	8.3***	5.9 (2.2)	8.3***
	없음	1,198	5.0 (2.3)		5.5 (2.5)		5.6 (2.4)	
	모름	394	5.0 (2.2)		5.4 (2.3)		5.5 (2.2)	
장애 유무	있음	132	4.7 (2.6)	-1.9	4.8 (2.9)	-4.2***	4.8 (2.7)	-5***
	없음	2,972	5.1 (2.3)		5.7 (2.4)		5.8 (2.2)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5.6 (2.3)	38.1***	5.8 (2.3)	5.6**	6.1 (2.2)	22.9***
	지역가입	374	5.0 (2.4)		5.9 (2.4)		5.7 (2.3)	
	의료급여	1,770	4.9 (2.3)		5.6 (2.5)		5.5 (2.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3 (2.2)	15.5***	5.6 (2.3)	0.8	5.7 (2.2)	2.5
	공동생활가정	332	5.2 (2.4)		5.8 (2.5)		5.9 (2.3)	
	가정위탁	1,355	4.9 (2.4)		5.7 (2.5)		5.6 (2.3)	
	가정 위탁	대리	403	0.3	5.9 (2.5)	1.3	5.8 (2.3)	2.0
		친인척 일반	564		5.7 (2.4)		5.6 (2.4)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3 (2.2)	7.9***	5.6 (2.3)	1.1	5.7 (2.2)	2.3
	공동생활가정	332	5.2 (2.4)		5.8 (2.5)		5.9 (2.3)	
	대리 가정위탁	403	4.8 (2.4)		5.9 (2.5)		5.8 (2.3)	
	친인척 가정위탁	564	4.9 (2.4)		5.7 (2.4)		5.6 (2.4)	
	일반 가정위탁	388	4.9 (2.3)		5.6 (2.5)		5.5 (2.4)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5.0 (2.3)	-2.3*	5.5 (2.5)	-4.0***	5.6 (2.3)	-3.4***
	연장종료	1,330	5.2 (2.3)		5.9 (2.3)		5.9 (2.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3 (2.3)	5.1***	5.8 (2.4)	3.4**	5.8 (2.2)	2.7*
	2년차	921	5.0 (2.3)		5.6 (2.5)		5.6 (2.3)	
	3년차	805	5.0 (2.2)		5.5 (2.3)		5.7 (2.2)	
	4년차	280	5.0 (2.3)		5.7 (2.6)		5.7 (2.4)	
	5년차	223	5.6 (2.3)		6.1 (2.3)		6.1 (2.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5.1 (2.3)	-1.2	5.6 (2.4)	-1.9	5.7 (2.3)	-1.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5.2 (2.3)		5.9 (2.5)		5.9 (2.3)	

2. 정신건강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현황은 자아존중감, 정서조절감, 공격성, 불안우울로 구성되는 심리행동문제,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3,104명의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4점 만점에 2.9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교육수준별로는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수준의 교육수준을 가진 종료아동, 장애가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자아존중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9	(0.6)	
성별	남	1,461	2.9	(0.6)	5.2***
	여	1,643	2.8	(0.6)	
연령	만 18~19세	600	2.9	(0.6)	2.6
	만 20~21세	1,289	2.8	(0.6)	
	만 22~23세	778	2.9	(0.6)	
	만 24세 이상	437	2.9	(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8	(0.6)	18.6***
	2~3년제 대학교	524	2.9	(0.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9	(0.6)	
부모 유무	있음	1,512	2.9	(0.6)	0.9
	없음	1,198	2.9	(0.6)	
	모름	394	2.9	(0.6)	
장애유무	있음	132	2.7	(0.6)	-3.3***
	없음	2,972	2.9	(0.6)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9	(0.6)	0.9
	지역가입	374	2.9	(0.6)	
	의료급여	1,770	2.9	(0.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9	(0.6)	0.6
	공동생활가정	332	2.9	(0.6)	
	가정위탁	1,355	2.9	(0.6)	
	가정위탁	대리 (403)	2.9	(0.6)	0.3
		친인척 (564)	2.9	(0.6)	
보호 유형2	일반 (388)	388	2.9	(0.6)	0.5
	아동양육시설	1,417	2.9	(0.6)	
	공동생활가정	332	2.9	(0.6)	
	대리 가정위탁	403	2.9	(0.6)	
	친인척 가정위탁	564	2.9	(0.6)	
보호 종료 유형	일반 가정위탁	388	2.9	(0.6)	-1.6
	만기퇴소	1,774	2.9	(0.6)	
	연장종료	1,330	2.9	(0.6)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9	(0.6)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9	(0.6)	3.4**
	2년차	921	2.9	(0.6)	
	3년차	805	2.8	(0.6)	
	4년차	280	2.9	(0.7)	
	5년차	223	2.9	(0.6)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9	(0.6)	0.2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9	(0.6)	

심리행동문제는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의 3개 영역에 걸쳐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행동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 평균은 2.5점으로 성별, 교육수준별, 장애유무, 보호종료 연차별 집단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자 보호종료아동이 남자에 비해 조금 더 심각한 심리행동문제를 경험하며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장애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심리행동문제의 평균이 높았다.

〈표 6-21〉 심리행동문제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5	(0.6)	
성별	남	1,461	2.4	(0.6)	-7.6***
	여	1,643	2.5	(0.6)	
연령	만 18~19세	600	2.4	(0.7)	2.7*
	만 20~21세	1,289	2.5	(0.6)	
	만 22~23세	778	2.5	(0.6)	
	만 24세 이상	437	2.5	(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5	(0.7)	15.1***
	2~3년제 대학교	524	2.4	(0.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4	(0.6)	
부모 유무	있음	1,512	2.5	(0.6)	0.1
	없음	1,198	2.5	(0.6)	
	모름	394	2.5	(0.6)	
장애유무	있음	132	2.6	(0.7)	2.7**
	없음	2,972	2.5	(0.6)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5	(0.6)	2
	지역가입	374	2.5	(0.6)	
	의료급여	1,770	2.4	(0.6)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5	(0.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5	(0.6)	0
	공동생활가정	332	2.5	(0.6)	
	가정위탁	1,355	2.5	(0.6)	
	가정 위탁	대리 (403)	2.5	(0.6)	0.5
		친인척 (564)	2.5	(0.6)	
	일반	(388)	2.4	(0.7)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2.5	(0.6)	0.3
	공동생활가정	332	2.5	(0.6)	
	대리 가정위탁	403	2.5	(0.6)	
	친인척 가정위탁	564	2.5	(0.6)	
	일반 가정위탁	388	2.4	(0.7)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5	(0.6)	1.4
	연장종료	1,330	2.4	(0.6)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4	(0.6)	5.5***
	2년차	921	2.5	(0.6)	
	3년차	805	2.5	(0.6)	
	4년차	280	2.5	(0.6)	
	5년차	223	2.5	(0.6)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5	(0.6)	-1.7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5	(0.6)	

주: 정서조절감을 역코딩하여 공격성, 불안·우울 점수와 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행동문제가 심각함을 의미

심리행동문제를 6문항의 공격성 영역에서 살펴보면 5점 만점 중 2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 장애유무별 공격성의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보호종료아동들, 장애가 있는 아동 사이에서 공격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22〉 심리행동문제-공격성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0	(0.8)	
성별	남	1,461	2.0	(0.8)	-1.4
	여	1,643	2.0	(0.8)	
연령	만 18~19세	600	2.0	(0.9)	0.6
	만 20~21세	1,289	2.0	(0.8)	
	만 22~23세	778	2.0	(0.8)	
	만 24세 이상	437	2.0	(0.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1	(0.9)	19.1***
	2~3년제 대학교	524	1.9	(0.8)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9	(0.7)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0	(0.8)	
부모 유무	있음	1,512	2.0	(0.8)	0.2
	없음	1,198	2.0	(0.8)	
	모름	394	2.0	(0.8)	
장애유무	있음	132	2.2	(1.1)	2.8**
	없음	2,972	2.0	(0.8)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0	(0.8)	1.5
	지역가입	374	2.0	(0.8)	
	의료급여	1,770	2.0	(0.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0	(0.8)	0.1
	공동생활가정	332	2.0	(0.8)	
	가정위탁	1,355	2.0	(0.8)	
	가정 위탁	대리 (403)	2.0	(0.8)	1
		친인척 (564)	2.0	(0.7)	
		일반 (388)	1.9	(0.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2.0	(0.8)	0.5
	공동생활가정	332	2.0	(0.8)	
	대리 가정위탁	403	2.0	(0.8)	
	친인척 가정위탁	564	2.0	(0.7)	
	일반 가정위탁	388	1.9	(0.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0	(0.8)	2.1*
	연장종료	1,330	1.9	(0.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1.9	(0.8)	2.1
	2년차	921	2.0	(0.8)	
	3년차	805	2.0	(0.8)	
	4년차	280	2.0	(0.8)	
	5년차	223	2.1	(0.8)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0	(0.8)	-1.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0	(0.8)	

주: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심각함

정서조절감의 영역에서 보호종료아동의 평균은 3.3점으로 정서조절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조절수준이 여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만 18~19세 아동이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6-23〉 심리행동문제-정서조절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3.3	(0.9)	
성별	남	1,461	3.4	(0.9)	5.2***
	여	1,643	3.2	(0.8)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3.3	(0.9)	
연령	만 18~19세	600	3.4	(0.9)	4.7**
	만 20~21세	1,289	3.2	(0.9)	
	만 22~23세	778	3.3	(0.8)	
	만 24세 이상	437	3.3	(0.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3.2	(0.9)	2.8
	2~3년제 대학교	524	3.3	(0.9)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3.3	(0.8)	
부모 유무	있음	1,512	3.3	(0.9)	1
	없음	1,198	3.3	(0.9)	
	모름	394	3.3	(0.9)	
장애유무	있음	132	3.2	(1.1)	-1
	없음	2,972	3.3	(0.9)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3.3	(0.9)	0.9
	지역가입	374	3.3	(0.9)	
	의료급여	1,770	3.3	(0.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3.3	(0.9)	1
	공동생활가정	332	3.3	(0.8)	
	가정위탁	1,355	3.3	(0.8)	
	가정 위탁	대리 (403)	3.3	(0.8)	1.5
		친인척 (564)	3.3	(0.8)	
		일반 (388)	3.2	(0.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3.3	(0.9)	1.2
	공동생활가정	332	3.3	(0.8)	
	대리 가정위탁	403	3.3	(0.8)	
	친인척 가정위탁	564	3.3	(0.8)	
	일반 가정위탁	388	3.2	(0.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3.3	(0.9)	-1.1
	연장종료	1,330	3.3	(0.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3.3	(0.9)	1
	2년차	921	3.3	(0.8)	
	3년차	805	3.2	(0.8)	
	4년차	280	3.2	(0.9)	
	5년차	223	3.3	(0.9)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3.3	(0.9)	0.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3.3	(0.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수준이 높음

심리행동문제의 마지막 영역인 불안우울감은 평균 2.9점, 보통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자 보호종료아동이 남자에 비해 보다 높은 불안우울감을 경험했다.

〈표 6-24〉 심리행동문제 불안우울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2.9	(1.0)	
성별	남	1,461	2.7	(1.0)	-9.5***
	여	1,643	3.0	(0.9)	
연령	만 18~19세	600	2.8	(1.0)	1.9
	만 20~21세	1,289	2.9	(1.0)	
	만 22~23세	778	2.9	(0.9)	
	만 24세 이상	437	2.9	(0.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9	(1.0)	3.4*
	2~3년제 대학교	524	2.8	(1.0)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9	(0.9)	
부모 유무	있음	1,512	2.9	(0.9)	0.1
	없음	1,198	2.9	(1.0)	
	모름	394	2.9	(1.0)	
장애유무	있음	132	3.0	(1.1)	1.4
	없음	2,972	2.9	(1.0)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9	(1.0)	1
	지역가입	374	2.9	(1.0)	
	의료급여	1,770	2.9	(0.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9	(1.0)	0.4
	공동생활가정	332	2.9	(1.0)	
	가정위탁	1,355	2.9	(1.0)	
	가정 위탁	대리 (403)	2.9	(0.9)	1
		친인척 (564)	2.9	(0.9)	
보호 유형2	일반 (388)	2.8	(1.0)		
	아동양육시설	1,417	2.9	(1.0)	0.7
	공동생활가정	332	2.9	(1.0)	
	대리 가정위탁	403	2.9	(0.9)	
	친인척 가정위탁	564	2.9	(0.9)	
	일반 가정위탁	388	2.8	(1.0)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9	(1.0)	-0.2
	연장종료	1,330	2.9	(0.9)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2.8	(1.0)	6***
	2년차	921	2.9	(1.0)	
	3년차	805	3.0	(0.9)	
	4년차	280	2.9	(1.0)	
	5년차	223	3.0	(0.9)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9	(1.0)	-0.9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9	(1.0)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우울 수준이 심각함

삶의 만족도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0은 가장 나쁜 상태를 10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5.3점, 보통 수준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고 교육수준은 2년제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에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보호유형별로는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이 가정위탁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의 유형별로는 연장종료아동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보호종료연차에 있어서는 1년차, 5년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6-25〉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평균	t(F)
전체			3,104	5.3 (2.2)	
성별	남		1,461	5.4 (2.3)	3.1**
	여		1,643	5.2 (2.1)	
연령	만 18~19세		600	5.5 (2.2)	5.6***
	만 20~21세		1,289	5.1 (2.3)	
	만 22~23세		778	5.4 (2.1)	
	만 24세 이상		437	5.4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0 (2.4)	15***
	2~3년제 대학교		524	5.5 (2.2)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5.4 (2.0)	
부모 유무	있음		1,512	5.4 (2.2)	3.9*
	없음		1,198	5.2 (2.3)	
	모름		394	5.4 (2.2)	
장애 유무	있음		132	5.3 (2.6)	0.1
	없음		2,972	5.3 (2.2)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5.6 (2.1)	12.1***
	지역가입		374	5.2 (2.2)	
	의료급여		1,770	5.2 (2.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4 (2.2)	4.3*
	공동생활가정		332	5.4 (2.1)	
	가정위탁		1,355	5.2 (2.2)	
	가정 위탁	대리	403	5.0 (2.1)	0.9
		친인척	564	5.2 (2.1)	
	일반	388	5.2 (2.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4 (2.2)	2.6*
	공동생활가정		332	5.4 (2.1)	
	대리 가정위탁		403	5.0 (2.1)	
	친인척 가정위탁		564	5.2 (2.1)	
	일반 가정위탁		388	5.2 (2.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5.2 (2.3)	-2.3*
	연장종료		1,330	5.4 (2.1)	

구분		사례수	평균		t(F)
전체		3,104	5.3	(2.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6	(2.2)	7.9 ^{***}
	2년차	921	5.3	(2.3)	
	3년차	805	5.1	(2.2)	
	4년차	280	5.0	(2.2)	
	5년차	223	5.4	(1.9)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5.3	(2.2)	1.4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5.2	(2.1)	

3. 자살생각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을 물었을 때 2명 중 한명이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살생각은 성별 차이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10-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에도 성별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 보호종료아동의 55.9%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이는 남자보다 12.5%p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6〉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구분		사례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χ ²
전체		3,104	1,552	(50.0)	1,552	(50.0)	
성별	남	1,461	827	(56.6)	634	(43.4)	48.2 ^{***}
	여	1,643	725	(44.1)	918	(55.9)	
연령	만 18~19세	600	326	(54.3)	274	(45.7)	6.4
	만 20~21세	1,289	623	(48.3)	666	(51.7)	
	만 22~23세	778	381	(49.0)	397	(51.0)	
	만 24세 이상	437	222	(50.8)	215	(49.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46	(47.3)	608	(52.7)	5.3
	2~3년제 대학교	524	269	(51.3)	255	(48.7)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737	(51.7)	689	(48.3)	
부모 유무	있음	1,512	762	(50.4)	750	(49.6)	4.8
	없음	1,198	576	(48.1)	622	(51.9)	
	모름	394	214	(54.3)	180	(45.7)	
장애유무	있음	132	66	(50.0)	66	(50.0)	0.0
	없음	2,972	1,486	(50.0)	1,486	(50.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χ ²
전체			3,104	1,552	(50.0)	1,552	(50.0)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77	(49.7)	483	(50.3)	0.8
	지역가입		374	180	(48.1)	194	(51.9)	
	의료급여		1,770	895	(50.6)	875	(49.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746	(52.6)	671	(47.4)	8**
	공동생활가정		332	152	(45.8)	180	(54.2)	
	가정위탁		1,355	654	(48.3)	701	(51.7)	
	가정 위탁	대리	403	179	(44.4)	224	(55.6)	3.9
		친인척	564	276	(48.9)	288	(51.1)	
	일반		388	199	(51.3)	189	(48.7)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746	(52.6)	671	(47.4)	11.9*
	공동생활가정		332	152	(45.8)	180	(54.2)	
	대리 가정위탁		403	179	(44.4)	224	(55.6)	
	친인척 가정위탁		564	276	(48.9)	288	(51.1)	
	일반 가정위탁		388	199	(51.3)	189	(48.7)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888	(50.1)	886	(49.9)	0.0
	연장종료		1,330	664	(49.9)	666	(50.1)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494	(56.5)	381	(43.5)	28.4***
	2년차		921	459	(49.8)	462	(50.2)	
	3년차		805	351	(43.6)	454	(56.4)	
	4년차		280	134	(47.9)	146	(52.1)	
	5년차		223	114	(51.1)	109	(48.9)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304	(50.1)	1,297	(49.9)	0.1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48	(49.3)	255	(50.7)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서 1,552명의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인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 문제(19.5%), 정신과적 질환(11.2%) 등을 주된 원인으로 응답했다. 성별, 교육수준별, 장애유무별, 건강보험종류별, 보호유형별, 보호종료 유형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표 6-27〉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정생활 문제(예: 가족간 갈등 등)	경제적인 문제(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예: 가족, 친한 친구 등)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기타	x ²	
전체	1,552	303 (19.5)	519 (33.4)	56 (3.6)	79 (5.1)	25 (1.6)	174 (11.2)	62 (4.0)	50 (3.2)	4 (.3)	101 (6.5)	179 (11.5)		
성별	남	634	97 (15.3)	260 (41.0)	27 (4.3)	23 (3.6)	14 (2.2)	55 (8.7)	21 (3.3)	26 (4.1)	3 (.5)	33 (5.2)	75 (11.8)	51.1***
	여	918	206 (22.4)	259 (28.2)	29 (3.2)	56 (6.1)	11 (1.2)	119 (13.0)	41 (4.5)	24 (2.6)	1 (.1)	68 (7.4)	104 (11.3)	
연령	만 18~19세	274	56 (20.4)	77 (28.1)	7 (2.6)	12 (4.4)	6 (2.2)	35 (12.8)	14 (5.1)	7 (2.6)	0 (.0)	24 (8.8)	36 (13.1)	47.2**
	만 20~21세	666	105 (15.8)	250 (37.5)	31 (4.7)	35 (5.3)	11 (1.7)	71 (10.7)	22 (3.3)	27 (4.1)	3 (.5)	32 (4.8)	79 (11.9)	
	만 22~23세	397	90 (22.7)	119 (30.0)	13 (3.3)	24 (6.0)	7 (1.8)	48 (12.1)	12 (3.0)	13 (3.3)	1 (.3)	26 (6.5)	44 (11.1)	
	만 24세 이상	215	52 (24.2)	73 (34.0)	5 (2.3)	8 (3.7)	1 (.5)	20 (9.3)	14 (6.5)	3 (1.4)	0 (.0)	19 (8.8)	20 (9.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608	93 (15.3)	239 (39.3)	22 (3.6)	33 (5.4)	8 (1.3)	64 (10.5)	32 (5.3)	17 (2.8)	2 (.3)	26 (4.3)	72 (11.8)	53.9***
	2~3년제 대학교	255	49 (19.2)	88 (34.5)	13 (5.1)	5 (2.0)	6 (2.4)	35 (13.7)	3 (1.2)	12 (4.7)	1 (.4)	18 (7.1)	25 (9.8)	
	4년제 대학교 이상	689	161 (23.4)	192 (27.9)	21 (3.0)	41 (6.0)	11 (1.6)	75 (10.9)	27 (3.9)	21 (3.0)	1 (.1)	57 (8.3)	82 (11.9)	
부모 유무	있음	750	160 (21.3)	240 (32.0)	31 (4.1)	27 (3.6)	13 (1.7)	84 (11.2)	32 (4.3)	25 (3.3)	1 (.1)	48 (6.4)	89 (11.9)	33.3**
	없음	622	116 (18.6)	219 (35.2)	19 (3.1)	47 (7.6)	9 (1.4)	69 (11.1)	17 (2.7)	17 (2.7)	1 (.2)	40 (6.4)	68 (10.9)	
	모름	180	27 (15.0)	60 (33.3)	6 (3.3)	5 (2.8)	3 (1.7)	21 (11.7)	13 (7.2)	8 (4.4)	2 (1.1)	13 (7.2)	22 (12.2)	
장애 유무	있음	66	7 (10.6)	19 (28.8)	3 (4.5)	3 (4.5)	3 (4.5)	17 (25.8)	1 (1.5)	2 (3.0)	0 (.0)	1 (1.5)	10 (15.2)	24.8***
	없음	1,486	296 (19.9)	500 (33.6)	53 (3.6)	76 (5.1)	22 (1.5)	157 (10.6)	61 (4.1)	48 (3.2)	4 (.3)	100 (6.7)	169 (11.4)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483	106 (21.9)	161 (33.3)	16 (3.3)	30 (6.2)	8 (1.7)	47 (9.7)	41 (8.5)	9 (1.9)	1 (.2)	14 (2.9)	50 (10.4)	71.1***
	지역가입	194	40 (20.6)	70 (36.1)	9 (4.6)	12 (6.2)	2 (1.0)	21 (10.8)	4 (2.1)	3 (1.5)	0 (.0)	10 (5.2)	23 (11.9)	
	의료급여	875	157 (17.9)	288 (32.9)	31 (3.5)	37 (4.2)	15 (1.7)	106 (12.1)	17 (1.9)	38 (4.3)	3 (.3)	77 (8.8)	106 (12.1)	

구분		사례 수	가정생활 문제(예: 가족간 갈등 등)	경제적인 문제(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예: 가족, 친한 친구 등)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마약 등의 문제)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기타	x ²	
전체		1,552	303 (19.5)	519 (33.4)	56 (3.6)	79 (5.1)	25 (1.6)	174 (11.2)	62 (4.0)	50 (3.2)	4 (.3)	101 (6.5)	179 (11.5)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671	92 (13.7)	260 (38.7)	25 (3.7)	15 (2.2)	13 (1.9)	83 (12.4)	25 (3.7)	27 (4.0)	1 (.1)	40 (6.0)	90 (13.4)	87.1 ***	
	공동생활가정	180	31 (17.2)	61 (33.9)	11 (6.1)	8 (4.4)	1 (.6)	22 (12.2)	4 (2.2)	10 (5.6)	1 (.6)	8 (4.4)	23 (12.8)		
	가정위탁	701	180 (25.7)	198 (28.2)	20 (2.9)	56 (8.0)	11 (1.6)	69 (9.8)	33 (4.7)	13 (1.9)	2 (.3)	53 (7.6)	66 (9.4)		
	가정 위탁	대리	224	66 (29.5)	58 (25.9)	7 (3.1)	13 (5.8)	2 (.9)	22 (9.8)	10 (4.5)	3 (1.3)	0 (.0)	23 (10.3)	20 (8.9)	20.5
		친인척 일반	288 189	77 (26.7) 37 (19.6)	81 (28.1) 59 (31.2)	8 (2.8) 5 (2.6)	24 (8.3) 19 (10.1)	6 (2.1) 3 (1.6)	29 (10.1) 18 (9.5)	15 (5.2) 8 (4.2)	4 (1.4) 6 (3.2)	0 (.0) 2 (1.1)	18 (6.3) 12 (6.3)	26 (9.0) 20 (10.6)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671	92 (13.7)	260 (38.7)	25 (3.7)	15 (2.2)	13 (1.9)	83 (12.4)	25 (3.7)	27 (4.0)	1 (.1)	40 (6.0)	90 (13.4)	110.1 ***	
	공동생활가정	180	31 (17.2)	61 (33.9)	11 (6.1)	8 (4.4)	1 (.6)	22 (12.2)	4 (2.2)	10 (5.6)	1 (.6)	8 (4.4)	23 (12.8)		
	대리 가정위탁	224	66 (29.5)	58 (25.9)	7 (3.1)	13 (5.8)	2 (.9)	22 (9.8)	10 (4.5)	3 (1.3)	0 (.0)	23 (10.3)	20 (8.9)		
	친인척 가정위탁	288	77 (26.7)	81 (28.1)	8 (2.8)	24 (8.3)	6 (2.1)	29 (10.1)	15 (5.2)	4 (1.4)	0 (.0)	18 (6.3)	26 (9.0)		
	일반 가정위탁	189	37 (19.6)	59 (31.2)	5 (2.6)	19 (10.1)	3 (1.6)	18 (9.5)	8 (4.2)	6 (3.2)	2 (1.1)	12 (6.3)	20 (10.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886	137 (15.5)	320 (36.1)	39 (4.4)	46 (5.2)	11 (1.2)	108 (12.2)	38 (4.3)	32 (3.6)	2 (.2)	52 (5.9)	101 (11.4)	31.8 ***	
	연장종료	666	166 (24.9)	199 (29.9)	17 (2.6)	33 (5.0)	14 (2.1)	66 (9.9)	24 (3.6)	18 (2.7)	2 (.3)	49 (7.4)	78 (11.7)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381	89 (23.4)	91 (23.9)	9 (2.4)	27 (7.1)	8 (2.1)	44 (11.5)	18 (4.7)	10 (2.6)	1 (.3)	28 (7.3)	56 (14.7)	48.5	
	2년차	462	83 (18.0)	154 (33.3)	18 (3.9)	22 (4.8)	9 (1.9)	51 (11.0)	20 (4.3)	18 (3.9)	2 (.4)	36 (7.8)	49 (10.6)		
	3년차	454	81 (17.8)	175 (38.5)	20 (4.4)	20 (4.4)	7 (1.5)	50 (11.0)	16 (3.5)	13 (2.9)	0 (.0)	25 (5.5)	47 (10.4)		
	4년차	146	25 (17.1)	58 (39.7)	6 (4.1)	6 (4.1)	1 (.7)	18 (12.3)	4 (2.7)	4 (2.7)	1 (.7)	5 (3.4)	18 (12.3)		
	5년차	109	25 (22.9)	41 (37.6)	3 (2.8)	4 (3.7)	0 (.0)	11 (10.1)	4 (3.7)	5 (4.6)	0 (.0)	7 (6.4)	9 (8.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297	253 (19.5)	420 (32.4)	47 (3.6)	69 (5.3)	24 (1.9)	145 (11.2)	54 (4.2)	41 (3.2)	3 (.2)	89 (6.9)	152 (11.7)	8.9	
	비해당 (자립 4~5년차)	255	50 (19.6)	99 (38.8)	9 (3.5)	10 (3.9)	1 (.4)	29 (11.4)	8 (3.1)	9 (3.5)	1 (.4)	12 (4.7)	27 (10.6)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에 대한 문항에서 보호종료아동의 37.4%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상담이 19.7%로 높았고,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운동(14.9%),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13.9%), 순으로 높았다. 대처방법에 있어서 성별, 교육수준, 장애유무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 친구와의 상담이 남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보호종료아동 중 41.8%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친구와의 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은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보호종료아동의 2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9.7%에 머물렀다. 장애유무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21.2%가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보호종료연차별 차이는 대체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8%에서 44.0%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3년차의 경우 술마시기나 담배피우기로 대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년차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운동, 취미 등 여가활동으로 극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6-28〉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와 상담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정신과 치료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기타	x ²	
전체		1,552	305 (19.7)	44 (2.8)	46 (3.0)	87 (5.6)	581 (37.4)	215 (13.9)	232 (14.9)	42 (2.7)		
성별	남	634	87 (13.7)	22 (3.5)	18 (2.8)	31 (4.9)	220 (34.7)	112 (17.7)	121 (19.1)	23 (3.6)	50.8***	
	여	918	218 (23.7)	22 (2.4)	28 (3.1)	56 (6.1)	361 (39.3)	103 (11.2)	111 (12.1)	19 (2.1)		
연령	만 18~19세	274	44 (16.1)	18 (6.6)	10 (3.6)	17 (6.2)	105 (38.3)	38 (13.9)	36 (13.1)	6 (2.2)	39.2***	
	만 20~21세	666	133 (20.0)	12 (1.8)	18 (2.7)	34 (5.1)	237 (35.6)	89 (13.4)	125 (18.8)	18 (2.7)		
	만 22~23세	397	78 (19.6)	11 (2.8)	11 (2.8)	21 (5.3)	159 (40.1)	55 (13.9)	52 (13.1)	10 (2.5)		
교육 수준	만 24세 이상	215	50 (23.3)	3 (1.4)	7 (3.3)	15 (7.0)	80 (37.2)	33 (15.3)	19 (8.8)	8 (3.7)	44.7***	
	고등학교 이하	608	117 (19.2)	23 (3.8)	18 (3.0)	37 (6.1)	203 (33.4)	69 (11.3)	124 (20.4)	17 (2.8)		
	2~3년제 대학교	255	43 (16.9)	9 (3.5)	9 (3.5)	12 (4.7)	90 (35.3)	44 (17.3)	41 (16.1)	7 (2.7)		
	4년제 대학교 이상	689	145 (21.0)	12 (1.7)	19 (2.8)	38 (5.5)	288 (41.8)	102 (14.8)	67 (9.7)	18 (2.6)		
부모 유무	있음	750	148 (19.7)	21 (2.8)	30 (4.0)	40 (5.3)	281 (37.5)	107 (14.3)	104 (13.9)	19 (2.5)	13.8	
	없음	622	119 (19.1)	15 (2.4)	12 (1.9)	33 (5.3)	235 (37.8)	91 (14.6)	100 (16.1)	17 (2.7)		
	모름	180	38 (21.1)	8 (4.4)	4 (2.2)	14 (7.8)	65 (36.1)	17 (9.4)	28 (15.6)	6 (3.3)		
장애 유무	있음	66	10 (15.2)	2 (3.0)	3 (4.5)	11 (16.7)	14 (21.2)	14 (21.2)	9 (13.6)	3 (4.5)	24.8***	
	없음	1,486	295 (19.9)	42 (2.8)	43 (2.9)	76 (5.1)	567 (38.2)	201 (13.5)	223 (15.0)	39 (2.6)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483	95 (19.7)	14 (2.9)	12 (2.5)	22 (4.6)	185 (38.3)	76 (15.7)	68 (14.1)	11 (2.3)	18.8	
	지역가입	194	55 (28.4)	5 (2.6)	7 (3.6)	9 (4.6)	66 (34.0)	25 (12.9)	21 (10.8)	6 (3.1)		
	의료급여	875	155 (17.7)	25 (2.9)	27 (3.1)	56 (6.4)	330 (37.7)	114 (13.0)	143 (16.3)	25 (2.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671	127 (18.9)	22 (3.3)	18 (2.7)	29 (4.3)	245 (36.5)	107 (15.9)	103 (15.4)	20 (3.0)	16.1
	공동생활가정		180	37 (20.6)	8 (4.4)	6 (3.3)	10 (5.6)	69 (38.3)	23 (12.8)	26 (14.4)	1 (0.6)	
	가정위탁		701	141 (20.1)	14 (2.0)	22 (3.1)	48 (6.8)	267 (38.1)	85 (12.1)	103 (14.7)	21 (3.0)	
	가정 위탁	대리	224	48 (21.4)	3 (1.3)	5 (2.2)	15 (6.7)	82 (36.6)	28 (12.5)	38 (17.0)	5 (2.2)	9.5
		친인척	288	61 (21.2)	8 (2.8)	9 (3.1)	22 (7.6)	113 (39.2)	32 (11.1)	33 (11.5)	10 (3.5)	
		일반	189	32 (16.9)	3 (1.6)	8 (4.2)	11 (5.8)	72 (38.1)	25 (13.2)	32 (16.9)	6 (3.2)	

구분		사례수	친구와 상담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정신과 치료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기타	x ²
전체		1,552	305 (19.7)	44 (2.8)	46 (3.0)	87 (5.6)	581 (37.4)	215 (13.9)	232 (14.9)	42 (2.7)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671	127 (18.9)	22 (3.3)	18 (2.7)	29 (4.3)	245 (36.5)	107 (15.9)	103 (15.4)	20 (3.0)	25.4
	공동생활가정	180	37 (20.6)	8 (4.4)	6 (3.3)	10 (5.6)	69 (38.3)	23 (12.8)	26 (14.4)	1 (.6)	
	대리 가정위탁	224	48 (21.4)	3 (1.3)	5 (2.2)	15 (6.7)	82 (36.6)	28 (12.5)	38 (17.0)	5 (2.2)	
	친인척 가정위탁	288	61 (21.2)	8 (2.8)	9 (3.1)	22 (7.6)	113 (39.2)	32 (11.1)	33 (11.5)	10 (3.5)	
	일반 가정위탁	189	32 (16.9)	3 (1.6)	8 (4.2)	11 (5.8)	72 (38.1)	25 (13.2)	32 (16.9)	6 (3.2)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886	174 (19.6)	24 (2.7)	29 (3.3)	45 (5.1)	321 (36.2)	119 (13.4)	149 (16.8)	25 (2.8)	7.8
	연장종료	666	131 (19.7)	20 (3.0)	17 (2.6)	42 (6.3)	260 (39.0)	96 (14.4)	83 (12.5)	17 (2.6)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381	70 (18.4)	21 (5.5)	11 (2.9)	26 (6.8)	138 (36.2)	57 (15.0)	47 (12.3)	11 (2.9)	49.5***
	2년차	462	94 (20.3)	6 (1.3)	17 (3.7)	36 (7.8)	159 (34.4)	66 (14.3)	74 (16.0)	10 (2.2)	
	3년차	454	86 (18.9)	11 (2.4)	10 (2.2)	15 (3.3)	185 (40.7)	50 (11.0)	84 (18.5)	13 (2.9)	
	4년차	146	32 (21.9)	4 (2.7)	3 (2.1)	7 (4.8)	51 (34.9)	28 (19.2)	16 (11.0)	5 (3.4)	
	5년차	109	23 (21.1)	2 (1.8)	5 (4.6)	3 (2.8)	48 (44.0)	14 (12.8)	11 (10.1)	3 (2.8)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297	250 (19.3)	38 (2.9)	38 (2.9)	77 (5.9)	482 (37.2)	173 (13.3)	205 (15.8)	34 (2.6)	8.2
	비해당 (자립 4~5년차)	255	55 (21.6)	6 (2.4)	8 (3.1)	10 (3.9)	99 (38.8)	42 (16.5)	27 (10.6)	8 (3.1)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과 관련해서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27.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아무 도움 필요없음이 22.2%,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15.8%로 높았으며, 정신과 치료지원, 심리상담지원이 19.4%에 달했다. 자살생각이 들 때 필요한 지원방법에 대해 성별, 보호종료 연차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여가활동 지원이 가장 높았고 도움 필요 없음,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의 순으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운동, 취미, 여가 지원이 25.5%였고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지원이 24.3%로 남자의 10.3%에 비해 높았다. 아무 도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8%로 남자의 24.3%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성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욕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29〉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아무 도움 필요 없음		기타		x ²		
전체		1,552	245	(15.8)	156	(10.1)	146	(9.4)	155	(10.0)	54	(3.5)	419	(27.0)	345	(22.2)	32	(2.1)			
성별	남	634	118	(18.6)	64	(10.1)	30	(4.7)	48	(7.6)	17	(2.7)	185	(29.2)	154	(24.3)	18	(2.8)	45.6***		
	여	918	127	(13.8)	92	(10.0)	116	(12.6)	107	(11.7)	37	(4.0)	234	(25.5)	191	(20.8)	14	(1.5)			
연령	만 18~19세	274	42	(15.3)	36	(13.1)	18	(6.6)	22	(8.0)	5	(1.8)	73	(26.6)	71	(25.9)	7	(2.6)	32.4		
	만 20~21세	666	100	(15.0)	53	(8.0)	60	(9.0)	72	(10.8)	24	(3.6)	200	(30.0)	144	(21.6)	13	(2.0)			
	만 22~23세	397	64	(16.1)	40	(10.1)	43	(10.8)	37	(9.3)	14	(3.5)	93	(23.4)	99	(24.9)	7	(1.8)			
	만 24세 이상	215	39	(18.1)	27	(12.6)	25	(11.6)	24	(11.2)	11	(5.1)	53	(24.7)	31	(14.4)	5	(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608	98	(16.1)	55	(9.0)	51	(8.4)	61	(10.0)	15	(2.5)	166	(27.3)	152	(25.0)	10	(1.6)	22.5		
	2~3년제 대학교	255	35	(13.7)	28	(11.0)	18	(7.1)	17	(6.7)	10	(3.9)	81	(31.8)	58	(22.7)	8	(3.1)			
부모 유무	4년제 대학교 이상	689	112	(16.3)	73	(10.6)	77	(11.2)	77	(11.2)	29	(4.2)	172	(25.0)	135	(19.6)	14	(2.0)	10.8		
	있음	750	121	(16.1)	75	(10.0)	75	(10.0)	66	(8.8)	27	(3.6)	214	(28.5)	156	(20.8)	16	(2.1)			
	없음	622	93	(15.0)	61	(9.8)	58	(9.3)	71	(11.4)	23	(3.7)	163	(26.2)	143	(23.0)	10	(1.6)			
장애 유무	모름	180	31	(17.2)	20	(11.1)	13	(7.2)	18	(10.0)	4	(2.2)	42	(23.3)	46	(25.6)	6	(3.3)	9.7		
	있음	66	7	(10.6)	11	(16.7)	4	(6.1)	8	(12.1)	5	(7.6)	14	(21.2)	16	(24.2)	1	(1.5)			
건강 보험 종류	없음	1,486	238	(16.0)	145	(9.8)	142	(9.6)	147	(9.9)	49	(3.3)	405	(27.3)	329	(22.1)	31	(2.1)	15.6		
	직장가입	483	73	(15.1)	52	(10.8)	55	(11.4)	44	(9.1)	23	(4.8)	138	(28.6)	90	(18.6)	8	(1.7)			
	지역가입	194	31	(16.0)	19	(9.8)	18	(9.3)	20	(10.3)	9	(4.6)	48	(24.7)	46	(23.7)	3	(1.5)			
보호 유형	의료급여	875	141	(16.1)	85	(9.7)	73	(8.3)	91	(10.4)	22	(2.5)	233	(26.6)	209	(23.9)	21	(2.4)	12.6		
	아동양육시설	671	117	(17.4)	65	(9.7)	55	(8.2)	67	(10.0)	25	(3.7)	184	(27.4)	141	(21.0)	17	(2.5)			
	공동생활가정	180	31	(17.2)	21	(11.7)	22	(12.2)	15	(8.3)	8	(4.4)	42	(23.3)	40	(22.2)	1	(.6)			
	가정위탁	701	97	(13.8)	70	(10.0)	69	(9.8)	73	(10.4)	21	(3.0)	193	(27.5)	164	(23.4)	14	(2.0)			
	가정 위탁	대리	224	33	(14.7)	22	(9.8)	25	(11.2)	18	(8.0)	7	(3.1)	61	(27.2)	55	(24.6)	3		(1.3)	8.2
		친인척	288	40	(13.9)	31	(10.8)	30	(10.4)	32	(11.1)	11	(3.8)	75	(26.0)	63	(21.9)	6		(2.1)	
일반		189	24	(12.7)	17	(9.0)	14	(7.4)	23	(12.2)	3	(1.6)	57	(30.2)	46	(24.3)	5	(2.6)			

구분	사례수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아무 도움 없음	기타	x ²
전체	1,552	245 (15.8)	156 (10.1)	146 (9.4)	155 (10.0)	54 (3.5)	419 (27.0)	345 (22.2)	32 (2.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671	117 (17.4)	65 (9.7)	55 (8.2)	67 (10.0)	25 (3.7)	184 (27.4)	141 (21.0)	17 (2.5)
	공동생활가정	180	31 (17.2)	21 (11.7)	22 (12.2)	15 (8.3)	8 (4.4)	42 (23.3)	40 (22.2)	1 (0.6)
	대리 가정위탁	224	33 (14.7)	22 (9.8)	25 (11.2)	18 (8.0)	7 (3.1)	61 (27.2)	55 (24.6)	3 (1.3)
	친인척 가정위탁	288	40 (13.9)	31 (10.8)	30 (10.4)	32 (11.1)	11 (3.8)	75 (26.0)	63 (21.9)	6 (2.1)
	일반 가정위탁	189	24 (12.7)	17 (9.0)	14 (7.4)	23 (12.2)	3 (1.6)	57 (30.2)	46 (24.3)	5 (2.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886	143 (16.1)	81 (9.1)	73 (8.2)	96 (10.8)	24 (2.7)	239 (27.0)	211 (23.8)	19 (2.1)
	연장종료	666	102 (15.3)	75 (11.3)	73 (11.0)	59 (8.9)	30 (4.5)	180 (27.0)	134 (20.1)	13 (2.0)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381	53 (13.9)	46 (12.1)	29 (7.6)	37 (9.7)	8 (2.1)	103 (27.0)	94 (24.7)	11 (2.9)
	2년차	462	76 (16.5)	51 (11.0)	47 (10.2)	44 (9.5)	7 (1.5)	133 (28.8)	98 (21.2)	6 (1.3)
	3년차	454	72 (15.9)	39 (8.6)	48 (10.6)	48 (10.6)	27 (5.9)	110 (24.2)	100 (22.0)	10 (2.2)
	4년차	146	20 (13.7)	11 (7.5)	11 (7.5)	18 (12.3)	8 (5.5)	46 (31.5)	27 (18.5)	5 (3.4)
	5년차	109	24 (22.0)	9 (8.3)	11 (10.1)	8 (7.3)	4 (3.7)	27 (24.8)	26 (23.9)	0 (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297	201 (15.5)	136 (10.5)	124 (9.6)	129 (9.9)	42 (3.2)	346 (26.7)	292 (22.5)	27 (2.1)
	비해당 (자립 4~5년차)	255	44 (17.3)	20 (7.8)	22 (8.6)	26 (10.2)	12 (4.7)	73 (28.6)	53 (20.8)	5 (2.0)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 자립 준비,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준비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자립준비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측면에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더 높았다.

먼저 경제적 자립준비 정도를 비교하면 보호종료아동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8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심리정서적 측면의 자립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이 6.1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5.7점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자립준비 정도를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비교하면 5.7점으로 0.3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6-30〉 경제적 자립 준비 정도, 자립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립	4.8	2.3	5.1	2.3	-3.4**
심리정서적 자립	6.1	2.3	5.7	2.4	4.1**
사회적 자립	6.0	2.2	5.7	2.3	-3.2**

2. 심리정서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하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이 4점 만점중 3.0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2.9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표 6-31〉 자아존중감

(단위: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0	0.6	2.9	0.6	22.6***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는 5점 만점 중 2.5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2.3점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심리행동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행동문제를 공격성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공격성은 2.0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1.9점보다 높았다. 정서조절감의 영역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은 3.3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3.4점보다 조금 낮은 정서적 조절능력을 보였다. 보호종료아동이 느끼는 불안우울감은 공격성 및 정서조절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보호종료아동은 2.9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2.6점보다 높았다.

〈표 6-32〉 심리행동문제

(단위: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심리행동문제	2.3	(0.6)	2.5	(0.6)	23.0**
공격성	1.9	(0.7)	2.0	(0.8)	3.3**
정서조절감	3.4	(0.8)	3.3	(0.9)	4.7***
불안우울	2.6	(0.9)	2.9	(1.0)	6.2***

마찬가지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는 보호종료아동이 보조종아동에 비해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5.2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9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6-33〉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5.9	2.1	5.3	2.2	6.8***

3. 자살생각

보호종료아동의 50.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와 비교하면 7.2%p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표 6-34〉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12.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19	57.2	1,552	50.0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13	42.8	1,552	50.0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가정생활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경제적인 문제(33.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생활문제(19.5%)였던 반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가정생활 문제(32.9%)가 가장 주요했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14.7%)가 자살생각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보호종료아동의 11.2%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성적, 시험, 진로의 문제를 원인으로 응답했다.

〈표 6-35〉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13	100.0	1,552	100.0
가정생활 문제 (예: 가족간 갈등 등)	103	32.9	303	19.5
경제적인 문제 (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46	14.7	519	33.4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 (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8	2.6	56	3.6
가까운 사람의 죽음 (예: 가족, 친한 친구 등)	23	7.3	79	5.1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2	0.6	25	1.6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30	9.6	174	11.2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5	1.6	62	4.0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11	3.5	50	3.2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2	0.6	4	0.3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32	10.2	101	6.5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적응 문제 (예: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	12	3.8	-	-
기타	39	12.5	179	11.5

자살생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은 모두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각각 38.3%, 37.4%).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상담이 많았는데 보호종료예정아동의 18.8%, 보호종료아동의 19.7%에 이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18.2%가 문화/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호종료아동의 14.9%는 술마시거나 담배피우기, 13.8%는 문화/여가활동을 통해 극복한다고 응답했다.

〈표 6-36〉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한 방법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13	100.0	1,552	100.0	
친구와 상담	59	18.8	305	19.7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내는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17	5.4	44	2.8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21	6.7	46	3.0	
정신과 치료	9	2.9	87	5.6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120	38.3	581	37.4	35.9***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57	18.2	215	13.9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21	6.7	232	14.9	
기타	9	2.9	42	2.7	

자살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문화/여가활동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아무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또는 상담전문가 지원필요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30.0% 보호종료아동의 25.9%가 제기했다.

〈표 6-37〉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13	100.0	1,552	100.0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53	16.9	245	15.8	22.0**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41	13.1	156	10.1	
심리상담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20	6.4	146	9.4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20	6.4	155	10.0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9	2.9	54	3.5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109	34.8	419	27.0	
아무 도움 필요 없음	61	19.5	345	22.2	
기타	0	0.0	32	2.1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실태 비교

가. 타 조사와의 비교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상태를 일반 아동청소년과 비교하기 위해 2018아동종합실태조사 및 2019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등 핵심적인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5.9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6.45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6-38〉 삶의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조사명	평균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6.45

주: 캔트릴의 사다리척도(0~10점, 총 11점 척도) 사용하여 측정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삶의 만족도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의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4점 만점에 3.0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12~17세 아동과 비교했을 때 0.15점 높았다.

〈표 6-39〉 자아존중감 - 타 조사 비교

조사명	평균 (표준편차)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0 (0.6)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2.85 (0.39)

주: 1)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10문항, 1~4점 척도) 사용하여 측정

2)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분석대상자 수는 2,510명임.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마지막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은 본 조사결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가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비해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13.1%,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1.2%로 훨씬 낮았다. 이러한 차이에는 조사연령, 방법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와 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표 6-40〉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7.2	42.8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86.9	13.1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98.8	1.2

주: 1)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분석대상자 수는 1,671명임.

2)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57,303명임.

자료: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본부,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2.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지표의 시계열비교를 위해서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심리행동문제 지표들에 대하여 2016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자아존중감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2016년 5.02점 보다 0.28점 소폭 증가하였다. 심리행동문제 지표들의 시계열 비교결과는 공격성의 감소, 정서조절문제의 향상, 불안우울의 증가가 대별되어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2016년 2.3점 이었고 2020년 2.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정서조절감의 경우 2016년 대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반면, 보호종료아동의 불안우울감은 2016년 2.86에서 2020년 2.9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 심리정서 지표 - 시계열 비교

(단위: 점)

연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공격성	정서조절문제*	불안우울
2020	2.9 (0.6)	5.3 (2.2)	2.0 (0.8)	2.4 (1.1)	2.9 (1.0)
2016	2.9 (0.42)	5.02 (2.24)	2.30 (0.87)	3.39 (0.78)	2.86 (0.90)

주: 정서조절문제는 2016년과의 비교를 위해 정서조절감 척도를 역코딩 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감이 낮음(정서조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일반청소년 또는 청년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8년 자살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등 주요 심리정서 지표의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각 조사의 대상, 조사방법 등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고하는 수준에서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전국 6,612개 가구의 만 15세 이상(중고생 제외)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며,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조사이며 대상연령상, 조사방법상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19-24세 응답자 1,865명을 기준으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는 19-29세 응답자 286명을 기준으로 한 결과값임을 밝힌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은 2019년 한국복지패널의 일반가구 3.22점에 비해 0.3점 가량 낮은 수준이었으며 저소득가구 평균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6-42〉 자아존중감 - 타 조사 비교

(단위: 점)

조사명		자아존중감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9 (0.6)
2019년 한국복지패널	일반	3.22 (0.00)
	저소득	2.92 (0.01)

주: 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대상은 전국 6,612개 가구의 만 15세 이상(중고생 제외) 가구원임
 자료: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여유진 외, 2019)

삶의 만족도는 11점 척도 중 5.3점으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6.0점,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6.5점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6-43〉 삶의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단위: 점)

조사명	삶의 만족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3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19-29세 응답)	6.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9-24세 응답)	6.5

주: 1)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8,000명임

2)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9-24세 응답자 수는 1,865명임

자료: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9),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생각경험과 관련해서 타조사 결과와의 차이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생각에 대한 결과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9 한국복지패널의 결과 2.61~3.29와 비교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의 연령상 비교가능성이 보다 높은 조사인 2018년 자살실태조사 결과(16.3%)와 비교했을 때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생각경험은 일반청소년·청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4〉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자살 생각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0.0
2019년 한국복지패널	일반	2.61
	저소득	3.29
2018 자살실태조사 (19-29세 응답)		16.3

주: 1) 살면서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의 비율

2) 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대상은 전국 6,612개 가구의 만 15세 이상(중고생 제외) 가구원임

3) 2018년 자살실태조사 19-29세 응답자 수는 286명임

자료: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여유진 외, 2019), 2018 자살실태조사(안용민 외, 2018)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호종료아동의 33.4%가 경제적인 문제를 들었는데 반해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 29.9%가 성적, 시험, 진로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주요한 자살생각의 원인은 남녀문제, 가정생활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가정생활 문제가 19.5%, 특정하지 않은 기타가 11.5%로 높았고 정신과적 문제가 11.2%를 차지했는데 이는 자살실태조사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비율이었다.

〈표 6-45〉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 타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18 자살실태조사 (19-29세 응답)
사례수	1,552	286
가정생활 문제 (예: 가족간 갈등 등)	19.5	20.0
경제적인 문제 (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33.4	16.2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 (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3.6	24.4
가까운 사람의 죽음 (예: 가족, 친한 친구 등)	5.1	0.0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1.6	0.0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11.2	2.4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상사와의 문제 등)	4.0	6.8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3.2	0.0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0.3	0.0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6.5	29.9
기타	11.5	0.3

자료: 2018 자살실태조사(안용민 외, 2018)

제5절 소결

이상에 나타난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의 특성을 자립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심리정서,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실태를 비교하고 시계열적으로 진단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자립준비와 관련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자립준비도가 5.1점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준비의 정도는 모두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우울감의 모든 심리행동문제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은 5점 만점 중 2.9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2.3점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심리행동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이 느끼는 불안우울감은 2.9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었으며 여자 보호종료아동의 불안우울감이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에서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보호종료아동(5.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일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족도가 6점 이상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자립을 앞둔 보호종,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취약성은 자살생각과 그 원인, 대처방법 등과 관련한 문항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0%가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청소년대상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13.1%), 청소년·청년대상의 조사인 자살실태조사 결과(16.5)와 비교했을 때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살생각의 원인은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생활의 문제를 주요하게 들었고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살실태조사결과는 성적, 시험, 진로문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였고 다음으로 남녀문제, 가정생활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이 주요한 자살생각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은 모두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보호중·보호종료아동 모두 친구와의 상담, 문화/여가활동, 술마시거나 담배피우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문화/여가활동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아무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또는 상담전문가 지원필요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30.0% 보호종료아동의 25.9%가 제기했다.



제7장

사회적 관계 영역

-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관계
-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관계
-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 제4절 조사결과 비교
- 제5절 소결

제 7 장 사회적 관계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1. 부모 관계

현재 보호 중인 아동에게 ‘부모 유무’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51.9%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34.2%는 부모가 ‘없다’, 13.9%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 고등학교 이하(55.7%), 2~3년제 대학교(50.3%), 4년제 대학교 이상(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74.5%)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부모가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56.6%), 가정위탁(46.1%)의 순이었다. 보호상태별로는 일반보호(58.2%)가 연장보호(48.6%) 중인 아동보다 부모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동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1〉 부모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χ^2
전체		732	380	(51.9)	250	(34.2)	102	(13.9)	
성별	남	366	188	(51.4)	129	(35.2)	49	(13.4)	0.5
	여	366	192	(52.5)	121	(33.1)	53	(14.5)	
연령	만 17세	103	62	(60.2)	31	(30.1)	10	(9.7)	6.5
	만 18세	287	153	(53.3)	90	(31.4)	44	(15.3)	
	만 19세 이상	342	165	(48.2)	129	(37.7)	48	(14.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31	(55.7)	131	(31.6)	53	(12.8)	10.8*
	2~3년제 대학교	147	74	(50.3)	46	(31.3)	27	(18.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75	(44.1)	73	(42.9)	22	(12.9)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χ^2	
전체		732	380	(51.9)	250	(34.2)	102	(13.9)		
부모 유무	있음	380	380	(100.0)	0	(0.0)	0	(0.0)	1464***	
	없음	250	0	(0.0)	250	(100.0)	0	(0.0)		
	모름	102	0	(0.0)	0	(0.0)	102	(100.0)		
장애 유무	있음	37	22	(59.5)	8	(21.6)	7	(18.9)	2.9	
	없음	695	358	(51.5)	242	(34.8)	95	(13.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45	(56.6)	74	(28.9)	37	(14.5)	21.2***
	공동생활가정		55	41	(74.5)	9	(16.4)	5	(9.1)	
	가정위탁		421	194	(46.1)	167	(39.7)	60	(14.3)	
	가정 위탁	대리	180	82	(45.6)	71	(39.4)	27	(15.0)	0.9
		친인척	148	66	(44.6)	62	(41.9)	20	(13.5)	
		일반	93	46	(49.5)	34	(36.6)	13	(14.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145	(56.6)	74	(28.9)	37	(14.5)	22.1**
	공동생활가정		55	41	(74.5)	9	(16.4)	5	(9.1)	
	대리 가정위탁		180	82	(45.6)	71	(39.4)	27	(15.0)	
	친인척 가정위탁		148	66	(44.6)	62	(41.9)	20	(13.5)	
	일반 가정위탁		93	46	(49.5)	34	(36.6)	13	(14.0)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46	(58.2)	76	(30.3)	29	(11.6)	6.1*
	연장보호		481	234	(48.6)	174	(36.2)	73	(15.2)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향후 부모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아동의 48.4%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38.7%는 ‘잘 모르겠다’, 12.9%는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부모와 함께 살 의향이 없음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48.4%가 잘 모르겠다, 36.2%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15.4%는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60.4%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29.2%는 잘 모르겠다, 10.4%는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7-2〉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380	49	(12.9)	184	(48.4)	147	(38.7)	
성별	남	188	29	(15.4)	68	(36.2)	91	(48.4)	22.5***
	여	192	20	(10.4)	116	(60.4)	56	(29.2)	

구분		사례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잘 모르겠다		χ ²	
전체		380	49	(12.9)	184	(48.4)	147	(38.7)		
연령	만 17세	62	10	(16.1)	25	(40.3)	27	(43.5)	3.8	
	만 18세	153	15	(9.8)	77	(50.3)	61	(39.9)		
	만 19세 이상	165	24	(14.5)	82	(49.7)	59	(35.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31	30	(13.0)	108	(46.8)	93	(40.3)	1.3	
	2-3년제 대학교	74	9	(12.2)	36	(48.6)	29	(39.2)		
	4년제 대학교 이상	75	10	(13.3)	40	(53.3)	25	(33.3)		
장애 유무	있음	22	5	(22.7)	9	(40.9)	8	(36.4)	2.1	
	없음	358	44	(12.3)	175	(48.9)	139	(38.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5	20	(13.8)	72	(49.7)	53	(36.6)	0.8
	공동생활가정		41	5	(12.2)	21	(51.2)	15	(36.6)	
	가정위탁		194	24	(12.4)	91	(46.9)	79	(40.7)	
	가정 위탁	대리	82	9	(11.0)	37	(45.1)	36	(43.9)	4.7
		친인척	66	8	(12.1)	37	(56.1)	21	(31.8)	
		일반	46	7	(15.2)	17	(37.0)	22	(47.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5	20	(13.8)	72	(49.7)	53	(36.6)	5.5
	공동생활가정		41	5	(12.2)	21	(51.2)	15	(36.6)	
	대리 가정위탁		82	9	(11.0)	37	(45.1)	36	(43.9)	
	친인척 가정위탁		66	8	(12.1)	37	(56.1)	21	(31.8)	
	일반 가정위탁		46	7	(15.2)	17	(37.0)	22	(47.8)	
보호 상태	일반보호		146	19	(13.0)	62	(42.5)	65	(44.5)	3.8
	연장보호		234	30	(12.8)	122	(52.1)	82	(35.0)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만남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에 1~2번 만남(19.5%)’, ‘1년에 3~4번 만남(16.3%)’, ‘1년에 1번 미만 만남(11.8%)’³⁰⁾, ‘2달에 1번 정도 만남(8.9%)’, ‘1달에 1번 정도 만남(7.1%)’, 그리고 ‘1달에 2~3번 정도 만남(6.3%)’과 ‘1주일에 1번 이상 만남(6.3%)’의 순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 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경우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 2~3년에 1번 정도 만남을 의미

〈표 7-3〉 부모와 만남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만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이상	χ^2
전체	380	90 (23.7)	45 (11.8)	74 (19.5)	62 (16.3)	34 (8.9)	27 (7.1)	24 (6.3)	24 (6.3)	
성별	남	188	36 (19.1)	20 (10.6)	38 (20.2)	32 (17.0)	21 (11.2)	15 (8.0)	12 (6.4)	7.1
	여	192	54 (28.1)	25 (13.0)	36 (18.8)	30 (15.6)	13 (6.8)	12 (6.3)	10 (5.2)	
연령	만 17세	62	11 (17.7)	12 (19.4)	12 (19.4)	10 (16.1)	7 (11.3)	7 (11.3)	0 (0.0)	15.0
	만 18세	153	36 (23.5)	15 (9.8)	29 (19.0)	28 (18.3)	13 (8.5)	10 (6.5)	14 (9.2)	
	만 19세 이상	165	43 (26.1)	18 (10.9)	33 (20.0)	24 (14.5)	14 (8.5)	10 (6.1)	13 (7.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31	50 (21.6)	31 (13.4)	43 (18.6)	40 (17.3)	22 (9.5)	19 (8.2)	13 (5.6)	10.3
	2~3년제 대학교	74	18 (24.3)	4 (5.4)	17 (23.0)	13 (17.6)	8 (10.8)	3 (4.1)	6 (8.1)	
	4년제 대학교 이상	75	22 (29.3)	10 (13.3)	14 (18.7)	9 (12.0)	4 (5.3)	5 (6.7)	6 (8.0)	
장애유무	있음	22	2 (9.1)	4 (18.2)	8 (36.4)	5 (22.7)	0 (0.0)	0 (0.0)	1 (4.5)	11.1
	없음	358	88 (24.6)	41 (11.5)	66 (18.4)	57 (15.9)	34 (9.5)	27 (7.5)	23 (6.4)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45	31 (21.4)	14 (9.7)	34 (23.4)	27 (18.6)	16 (11.0)	10 (6.9)	7 (4.8)	15.1
	공동생활가정	41	6 (14.6)	6 (14.6)	10 (24.4)	6 (14.6)	2 (4.9)	4 (9.8)	5 (12.2)	
	가정위탁	194	53 (27.3)	25 (12.9)	30 (15.5)	29 (14.9)	16 (8.2)	13 (6.7)	12 (6.2)	18.2
	가정위탁	대리	82	24 (29.3)	11 (13.4)	8 (9.8)	9 (11.0)	11 (13.4)	6 (7.3)	
		친인척	66	21 (31.8)	6 (9.1)	12 (18.2)	15 (22.7)	2 (3.0)	3 (4.5)	
보호유형 2	가정위탁	일반	46	8 (17.4)	8 (17.4)	10 (21.7)	5 (10.9)	3 (6.5)	4 (8.7)	32.4
		아동양육시설	145	31 (21.4)	14 (9.7)	34 (23.4)	27 (18.6)	16 (11.0)	10 (6.9)	
	대리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41	6 (14.6)	6 (14.6)	10 (24.4)	6 (14.6)	2 (4.9)	4 (9.8)	
		친인척 가정위탁	82	24 (29.3)	11 (13.4)	8 (9.8)	9 (11.0)	11 (13.4)	6 (7.3)	
	일반 가정위탁	66	21 (31.8)	6 (9.1)	12 (18.2)	15 (22.7)	2 (3.0)	3 (4.5)	3 (4.5)	
보호상태	일반보호	146	33 (22.6)	21 (14.4)	29 (19.9)	23 (15.8)	14 (9.6)	12 (8.2)	7 (4.8)	3.7
	연장보호	234	57 (24.4)	24 (10.3)	45 (19.2)	39 (16.7)	20 (8.5)	15 (6.4)	17 (7.3)	

앞의 결과에서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24.4%)’, ‘기타(12.2%)’, ‘부모(부 또는 모)가 나와서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예정아동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부모를 만날 의사가 없음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50%가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25.0%는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 2.8%는 부모(부 또는 모)가 나와서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61.1%가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24.1%는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 9.3%는 부모(부 또는 모)가 나와서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7-4〉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x ²		
전체		90	22	(24.4)	51	(56.7)	6	(6.7)	11	(12.2)		
성별	남	36	9	(25.0)	18	(50.0)	1	(2.8)	8	(22.2)	6.7	
	여	54	13	(24.1)	33	(61.1)	5	(9.3)	3	(5.6)		
연령	만 17세	11	3	(27.3)	7	(63.6)	0	(.0)	1	(9.1)	2.4	
	만 18세	36	9	(25.0)	18	(50.0)	3	(8.3)	6	(16.7)		
	만 19세 이상	43	10	(23.3)	26	(60.5)	3	(7.0)	4	(9.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50	14	(28.0)	26	(52.0)	3	(6.0)	7	(14.0)	4.3	
	2~3년제 대학교	18	4	(22.2)	12	(66.7)	0	(.0)	2	(11.1)		
	4년제 대학교 이상	22	4	(18.2)	13	(59.1)	3	(13.6)	2	(9.1)		
장애 유무	있음	90	22	(24.4)	51	(56.7)	6	(6.7)	11	(12.2)	0.9	
	없음	2	1	(50.0)	1	(50.0)	0	(.0)	0	(.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88	21	(23.9)	50	(56.8)	6	(6.8)	11	(12.5)	2.2
	공동생활가정		31	8	(25.8)	17	(54.8)	2	(6.5)	4	(12.9)	
	가정위탁		6	1	(16.7)	5	(83.3)	0	(.0)	0	(.0)	
	가정 위탁	대리	53	13	(24.5)	29	(54.7)	4	(7.5)	7	(13.2)	10.8
		친인척	24	4	(16.7)	12	(50.0)	1	(4.2)	7	(29.2)	
		일반	21	6	(28.6)	13	(61.9)	2	(9.5)	0	(.0)	

구분		사례수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x ²
전체		90	22	(24.4)	51	(56.7)	6	(6.7)	11 (12.2)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88	21	(23.9)	50	(56.8)	6	(6.8)	11 (12.5)	13.8
	공동생활가정	31	8	(25.8)	17	(54.8)	2	(6.5)	4 (12.9)	
	대리 가정위탁	53	13	(24.5)	29	(54.7)	4	(7.5)	7 (13.2)	
	친인척 가정위탁	24	4	(16.7)	12	(50.0)	1	(4.2)	7 (29.2)	
	일반 가정위탁	21	6	(28.6)	13	(61.9)	2	(9.5)	0 (.0)	
보호 상태	일반보호	8	3	(37.5)	4	(50.0)	1	(12.5)	0 (.0)	3.7
	연장보호	33	11	(33.3)	16	(48.5)	1	(3.0)	5 (15.2)	

2. 사회적 관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② 내가 꼭 필요하다면 큰 돈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③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④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⑤ 혼란에 빠졌을 때 결정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⑥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이해하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전혀 없다-없는 편이다-있는 편이다-매우 많다)로 조사하였다. 이들 6개 문항에 대한 총점은 24점 만점 기준, 18.3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있는 편이다’고 판단하는 수준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 특성별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19.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정위탁 유형 중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리 위탁가정의 경우 17.6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호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양육시설(18.9점)’, ‘공동생활가정(18.1점)’, ‘가정위탁(17.9점)’의 순으로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은 보호아동 정원이 다르므로 아동이 보호기간에 주변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규모 차이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5〉 사회적 지지 (총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총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18.3	3.3	
성별	남	366	18.3	3.3	0.7
	여	366	18.2	3.3	
연령	만 17세	103	18.4	3.1	4.7**
	만 18세	287	18.7	3.5	
	만 19세 이상	342	17.9	3.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8.4	3.3	2.1
	2-3년제 대학교	147	17.8	3.1	
	대학교 이상	170	18.2	3.1	
부모 유무	있음	380	18.3	3.2	1.2
	없음	250	18.0	3.4	
	모름	102	18.6	2.9	
장애 유무	있음	37	19.2	2.9	1.8
	없음	695	18.2	3.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8.9	2.9	8.9***
	공동생활가정	55	18.1	3.3	
	가정위탁	421	17.9	3.4	
	가정 위탁	대리	180	17.6	0.9
		친인척	148	18.1	
		일반	93	18.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18.9	2.9	5.0***
	공동생활가정	55	18.1	3.3	
	대리 가정위탁	180	17.6	3.3	
	친인척 가정위탁	148	18.1	3.4	
	일반 가정위탁	93	18.1	3.5	
	일반보호	251	18.6	3.3	
보호 상태	연장보호	481	18.1	3.2	1.8

다음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24.6%), 조부모(17.8%), 학교나 동네 친구(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순위에서는 학교나 동네 친구(23.4%), 형제·자매(13.3%),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10.8%)의 순이었으며, 3순위에서는 학교나 동네 친구(31.5%), 시설 친구(11.6%), 친척 또는 친지(9.3%)의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1~3순위 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사람은 학교나 동네 친구로 57.7%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39.2%), 조부모(30.1%)의 순이었다.

〈표 7-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	180	(24.6)	71	(10.8)	38	(7.5)	289	(39.5)
자립지원전담요원	31	(4.2)	47	(7.2)	35	(6.9)	113	(15.4)
학교선생님	16	(2.2)	44	(6.7)	35	(6.9)	95	(13.0)
어머니	34	(4.6)	24	(3.7)	18	(3.5)	76	(10.4)
아버지	28	(3.8)	35	(5.3)	32	(6.3)	95	(13.0)
형제/자매	73	(10.0)	87	(13.3)	33	(6.5)	193	(26.4)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130	(17.8)	66	(10.1)	24	(4.7)	220	(30.1)
친척 또는 친지	73	(10.0)	68	(10.4)	47	(9.3)	188	(25.7)
멘토	5	(.7)	8	(1.2)	18	(3.5)	31	(4.2)
학교나 동네 친구	109	(14.9)	153	(23.4)	160	(31.5)	422	(57.7)
시설 친구(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25	(3.4)	45	(6.9)	59	(11.6)	129	(17.6)
기타	6	(.8)	7	(1.1)	9	(1.8)	22	(3.0)
없음	22	(3.0)	-	-	-	-	22	(3.0)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은 '⑧ 친척 또는 친지', 연인, 직장 동료, 기타 친구는 '⑩ 학교나 동네 친구'에 포함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관계 실태

1. 부모 관계

현재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부모 유무'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48.6%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38.7%는 부모가 '없다', 12.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2~3년제 대학교(51.5%), 4년제 대학교 이상(50.6%), 고등학교 이하(45.0%)의 순으로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보험종류별로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를 받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40.3%) 모른다(14.2%)는 응답이 더 높았다.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58.1%)에서 보호받았던 아동이 부모가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위탁(47.8%), 아동양육시설(47.2%)의 순이었다. 보호종료유형별로는 만기퇴소(46.2%)보다 연장종료(52.0%)인 보호종료아동들이 부모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동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7〉 부모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χ ²	
전체		3,104	1,510	(48.6)	1,200	(38.7)	394	(12.7)		
성별	남	1,461	677	(46.3)	579	(39.6)	205	(14.0)	7.6**	
	여	1,643	833	(50.7)	621	(37.8)	189	(11.5)		
연령	만 18~19세	600	283	(47.2)	226	(37.7)	91	(15.2)	8.5	
	만 20~21세	1,289	617	(47.9)	499	(38.7)	173	(13.4)		
	만 22~23세	778	389	(50.0)	305	(39.2)	84	(10.8)		
	만 24세 이상	437	221	(50.6)	170	(38.9)	46	(10.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19	(45.0)	458	(39.7)	177	(15.3)	16.4***	
	2~3년제 대학교	524	270	(51.5)	192	(36.6)	62	(11.8)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721	(50.6)	550	(38.6)	155	(10.9)		
부모 유무	있음	1,512	1,510	(99.9)	2	(.1)	0	(.0)	6198.7***	
	없음	1,198	0	(.0)	1,198	(100.0)	0	(.0)		
	모름	394	0	(.0)	0	(.0)	394	(100.0)		
장애 유무	있음	132	68	(51.5)	48	(36.4)	16	(12.1)	0.5	
	없음	2,972	1,442	(48.5)	1,152	(38.8)	378	(12.7)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84	(50.4)	362	(37.7)	114	(11.9)	28.6***	
	지역가입	374	221	(59.1)	125	(33.4)	28	(7.5)		
	의료급여	1,770	805	(45.5)	713	(40.3)	252	(14.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669	(47.2)	560	(39.5)	188	(13.3)	14***	
	공동생활가정	332	193	(58.1)	102	(30.7)	37	(11.1)		
	가정위탁	1,355	648	(47.8)	538	(39.7)	169	(12.5)		
	가정 위탁	대리	403	193	(47.9)	148	(36.7)	62	(15.4)	7.1
		친인척	564	260	(46.1)	241	(42.7)	63	(11.2)	
		일반	388	195	(50.3)	149	(38.4)	44	(11.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669	(47.2)	560	(39.5)	188	(13.3)	21.1**	
	공동생활가정	332	193	(58.1)	102	(30.7)	37	(11.1)		
	대리 가정위탁	403	193	(47.9)	148	(36.7)	62	(15.4)		
	친인척 가정위탁	564	260	(46.1)	241	(42.7)	63	(11.2)		
	일반 가정위탁	388	195	(50.3)	149	(38.4)	44	(11.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819	(46.2)	716	(40.4)	239	(13.5)	10.3***	
	연장종료	1,330	691	(52.0)	484	(36.4)	155	(11.7)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448	(51.2)	313	(35.8)	114	(13.0)	13.9	
	2년차	921	441	(47.9)	363	(39.4)	117	(12.7)		
	3년차	805	360	(44.7)	330	(41.0)	115	(14.3)		
	4년차	280	143	(51.1)	109	(38.9)	28	(10.0)		
	5년차	223	118	(52.9)	85	(38.1)	20	(9.0)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249	(48.0)	1,006	(38.7)	346	(13.3)	6.0**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61	(51.9)	194	(38.6)	48	(9.5)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현재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아동의 89.1%는 ‘함께 살고 있지 않다’, 10.9%는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연령대에 따

라서는 만 24세 이상인 경우 94.6%로 가장 높았고, 만 22~23세인 경우 87.2%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4년제 대학교 이상(91.4%), 2~3년제 대학교(87%), 고등학교 이하(86.9%)의 순이었다. 반면, 장애 유무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25%로 비장애 보호종료아동의 10.3%보다 더 높았다. 건강보험종류별로는 직장가입자(8.9%)나 의료급여자(10.1%)에 비해 지역가입자(18.6%)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다. 동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8〉 현재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다		χ^2
전체		1,510	165	(10.9)	1,345	(89.1)	
성별	남	677	84	(12.4)	593	(87.6)	2.8
	여	833	81	(9.7)	752	(90.3)	
연령	만 18~19세	283	33	(11.7)	250	(88.3)	8.6**
	만 20~21세	617	70	(11.3)	547	(88.7)	
	만 22~23세	389	50	(12.9)	339	(87.1)	
	만 24세 이상	221	12	(5.4)	209	(94.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19	68	(13.1)	451	(86.9)	7.7**
	2~3년제 대학교	270	35	(13.0)	235	(87.0)	
	4년제 대학교 이상	721	62	(8.6)	659	(91.4)	
장애 유무	있음	68	17	(25.0)	51	(75.0)	14.5***
	없음	1,442	148	(10.3)	1,294	(89.7)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484	43	(8.9)	441	(91.1)	15.9***
	지역가입	221	41	(18.6)	180	(81.4)	
	의료급여	805	81	(10.1)	724	(89.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669	73	(10.9)	596	(89.1)	0.3
	공동생활가정	193	19	(9.8)	174	(90.2)	
	가정위탁	648	73	(11.3)	575	(88.7)	
	가정위탁 대리	193	24	(12.4)	169	(87.6)	1.8
	가정위탁 친인척	260	24	(9.2)	236	(90.8)	
보호 유형2	가정위탁 일반	195	25	(12.8)	170	(87.2)	2.2
	아동양육시설	669	73	(10.9)	596	(89.1)	
	공동생활가정	193	19	(9.8)	174	(90.2)	
	대리 가정위탁	193	24	(12.4)	169	(87.6)	
	친인척 가정위탁	260	24	(9.2)	236	(90.8)	
보호 종료 유형	일반 가정위탁	195	25	(12.8)	170	(87.2)	2.5
	만기퇴소	819	99	(12.1)	720	(87.9)	
	연장종료	691	66	(9.6)	625	(90.4)	

구분		사례수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다		χ^2
전체		1,510	165	(10.9)	1,345	(89.1)	3.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448	51	(11.4)	397	(88.6)	
	2년차	441	45	(10.2)	396	(89.8)	
	3년차	360	33	(9.2)	327	(90.8)	
	4년차	143	19	(13.3)	124	(86.7)	
	5년차	118	17	(14.4)	101	(85.6)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249	129	(10.3)	1,120	(89.7)	2.7
	비해당 (자립 4~5년차)	261	36	(13.8)	225	(86.2)	

앞서 현재 부모가 있는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향후 부모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5%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36.6%는 ‘모르겠다’, 15.9%는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여성’이 부모와 함께 살 의향이 없음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41.9%가 잘 모르겠다, 40.3%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17.7%는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3.3%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32.3%는 잘 모르겠다, 14.4%는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7-9〉 향후 부모 동거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모름	x ²	
전체		1,510	240	(15.9)	717	(47.5)	553 (36.6)	25.3***	
성별	남	677	120	(17.7)	273	(40.3)	284 (41.9)		
	여	833	120	(14.4)	444	(53.3)	269 (32.3)		
연령	만 18~19세	283	49	(17.3)	126	(44.5)	108 (38.2)	6.6	
	만 20~21세	617	94	(15.2)	297	(48.1)	226 (36.6)		
	만 22~23세	389	69	(17.7)	175	(45.0)	145 (37.3)		
	만 24세 이상	221	28	(12.7)	119	(53.8)	74 (33.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19	91	(17.5)	243	(46.8)	185 (35.6)	4.9	
	2~3년제 대학교	270	48	(17.8)	118	(43.7)	104 (38.5)		
	4년제 대학교 이상	721	101	(14.0)	356	(49.4)	264 (36.6)		
장애 유무	있음	68	19	(27.9)	27	(39.7)	22 (32.4)	7.8**	
	없음	1,442	221	(15.3)	690	(47.9)	531 (36.8)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484	80	(16.5)	245	(50.6)	159 (32.9)	5.3	
	지역가입	221	37	(16.7)	105	(47.5)	79 (35.7)		
	의료급여	805	123	(15.3)	367	(45.6)	315 (39.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669	98	(14.6)	326	(48.7)	245 (36.6)	6.3	
	공동생활가정	193	24	(12.4)	89	(46.1)	80 (41.5)		
	가정위탁	648	118	(18.2)	302	(46.6)	228 (35.2)		
	가정 위탁	대리	193	33	(17.1)	87	(45.1)	73 (37.8)	2.7
		친인척	260	44	(16.9)	122	(46.9)	94 (36.2)	
		일반	195	41	(21.0)	93	(47.7)	61 (31.3)	

구분	사례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모름	χ ²	
전체	1,510	240 (15.9)	717 (47.5)	553 (36.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669	98 (14.6)	326 (48.7)	245 (36.6)	9.1
	공동생활가정	193	24 (12.4)	89 (46.1)	80 (41.5)	
	대리 가정위탁	193	33 (17.1)	87 (45.1)	73 (37.8)	
	친인척 가정위탁	260	44 (16.9)	122 (46.9)	94 (36.2)	
	일반 가정위탁	195	41 (21.0)	93 (47.7)	61 (31.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819	140 (17.1)	373 (45.5)	306 (37.4)	3.3
	연장종료	691	100 (14.5)	344 (49.8)	247 (35.7)	
보호종료 연차	1년차	448	72 (16.1)	198 (44.2)	178 (39.7)	13.7
	2년차	441	79 (17.9)	209 (47.4)	153 (34.7)	
	3년차	360	51 (14.2)	195 (54.2)	114 (31.7)	
	4년차	143	23 (16.1)	64 (44.8)	56 (39.2)	
	5년차	118	15 (12.7)	51 (43.2)	52 (44.1)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249	202 (16.2)	602 (48.2)	445 (35.6)	3.1
	비해당 (자립 4~5년차)	261	38 (14.6)	115 (44.1)	108 (41.4)	

다시 현재 부모가 있는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만남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에 1~2번 만남(16%)’, ‘1주일에 1번 이상 만남(14%)’, ‘1년에 3~4번 만남(13.3%)’, ‘1년에 1번 미만 만남(11.5%)’³¹⁾, ‘2달에 1번 정도 만남(9.1%)’, ‘1달에 1번 정도 만남(7.1%)’, ‘1달에 2~3번 정도 만남(6.2%)’의 순이었다. 다만, 본 결과에서는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주일에 1번 이상 만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은 반면, 1주일에 1번 이상 만난다는 응답도 17.3%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에 1~2번 정도 만남이 17.9%였다. 한편, 장애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1주일에 1번 이상 만난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비장애 보호종료아동은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1) 2~3년에 1번 정도 만남을 의미

〈표 7-10〉 부모와 만남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만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이상		x ²	
성별	전체	1,510	346	(22.9)	173	(11.5)	242	(16.0)	201	(13.3)	137	(9.1)	107	(7.1)	93	(6.2)	211	(14.0)	7.0	
	남	677	139	(20.5)	85	(12.6)	114	(16.8)	85	(12.6)	64	(9.5)	49	(7.2)	39	(5.8)	102	(15.1)		
	여	833	207	(24.8)	88	(10.6)	128	(15.4)	116	(13.9)	73	(8.8)	58	(7.0)	54	(6.5)	109	(13.1)		
연령	만 18~19세	283	72	(25.4)	32	(11.3)	34	(12.0)	34	(12.0)	25	(8.8)	22	(7.8)	17	(6.0)	47	(16.6)	31.5	
	만 20~21세	617	145	(23.5)	70	(11.3)	84	(13.6)	90	(14.6)	61	(9.9)	42	(6.8)	35	(5.7)	90	(14.6)		
교육수준	만 22~23세	389	78	(20.1)	46	(11.8)	79	(20.3)	50	(12.9)	29	(7.5)	22	(5.7)	26	(6.7)	59	(15.2)	23.7**	
	만 24세 이상	221	51	(23.1)	25	(11.3)	45	(20.4)	27	(12.2)	22	(10.0)	21	(9.5)	15	(6.8)	15	(6.8)		
	고등학교 이하	519	135	(26.0)	51	(9.8)	73	(14.1)	55	(10.6)	49	(9.4)	33	(6.4)	33	(6.4)	90	(17.3)		
	2~3년제 대학교	270	54	(20.0)	35	(13.0)	40	(14.8)	39	(14.4)	25	(9.3)	21	(7.8)	14	(5.2)	42	(15.6)		
	4년제 대학교 이상	721	157	(21.8)	87	(12.1)	129	(17.9)	107	(14.8)	63	(8.7)	53	(7.4)	46	(6.4)	79	(11.0)		
장애유무	있음	68	13	(19.1)	3	(4.4)	12	(17.6)	4	(5.9)	7	(10.3)	2	(2.9)	7	(10.3)	20	(29.4)	22.6***	
	없음	1,442	333	(23.1)	170	(11.8)	230	(16.0)	197	(13.7)	130	(9.0)	105	(7.3)	86	(6.0)	191	(13.2)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484	109	(22.5)	51	(10.5)	83	(17.1)	66	(13.6)	43	(8.9)	37	(7.6)	39	(8.1)	56	(11.6)	19.9	
	지역가입	221	48	(21.7)	21	(9.5)	34	(15.4)	27	(12.2)	18	(8.1)	15	(6.8)	10	(4.5)	48	(21.7)		
	의료급여	805	189	(23.5)	101	(12.5)	125	(15.5)	108	(13.4)	76	(9.4)	55	(6.8)	44	(5.5)	107	(13.3)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669	160	(23.9)	73	(10.9)	91	(13.6)	92	(13.8)	70	(10.5)	47	(7.0)	43	(6.4)	93	(13.9)	14.7	
	공동생활가정	193	44	(22.8)	22	(11.4)	30	(15.5)	26	(13.5)	19	(9.8)	11	(5.7)	17	(8.8)	24	(12.4)		
	가정위탁	648	142	(21.9)	78	(12.0)	121	(18.7)	83	(12.8)	48	(7.4)	49	(7.6)	33	(5.1)	94	(14.5)		
	가정위탁	대리	193	36	(18.7)	20	(10.4)	32	(16.6)	28	(14.5)	13	(6.7)	17	(8.8)	14	(7.3)	33	(17.1)	18.8
		친인척	260	69	(26.5)	37	(14.2)	55	(21.2)	24	(9.2)	19	(7.3)	16	(6.2)	10	(3.8)	30	(11.5)	
보호유형2	일반	195	37	(19.0)	21	(10.8)	34	(17.4)	31	(15.9)	16	(8.2)	16	(8.2)	9	(4.6)	31	(15.9)	33.1	
	아동양육시설	669	160	(23.9)	73	(10.9)	91	(13.6)	92	(13.8)	70	(10.5)	47	(7.0)	43	(6.4)	93	(13.9)		
	공동생활가정	193	44	(22.8)	22	(11.4)	30	(15.5)	26	(13.5)	19	(9.8)	11	(5.7)	17	(8.8)	24	(12.4)		
	대리 가정위탁	193	36	(18.7)	20	(10.4)	32	(16.6)	28	(14.5)	13	(6.7)	17	(8.8)	14	(7.3)	33	(17.1)		
	친인척 가정위탁	260	69	(26.5)	37	(14.2)	55	(21.2)	24	(9.2)	19	(7.3)	16	(6.2)	10	(3.8)	30	(11.5)		
	일반 가정위탁	195	37	(19.0)	21	(10.8)	34	(17.4)	31	(15.9)	16	(8.2)	16	(8.2)	9	(4.6)	31	(15.9)		

19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만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이상		x ²
전체		1,510	346	(22.9)	173	(11.5)	242	(16.0)	201	(13.3)	137	(9.1)	107	(7.1)	93	(6.2)	211	(14.0)	
보호종료 유형	만기퇴소	819	179	(21.9)	93	(11.4)	115	(14.0)	107	(13.1)	82	(10.0)	63	(7.7)	49	(6.0)	131	(16.0)	13.4
	연장종료	691	167	(24.2)	80	(11.6)	127	(18.4)	94	(13.6)	55	(8.0)	44	(6.4)	44	(6.4)	80	(11.6)	
보호종료 연차	1년차	448	107	(23.9)	54	(12.1)	67	(15.0)	57	(12.7)	43	(9.6)	30	(6.7)	22	(4.9)	68	(15.2)	21.8
	2년차	441	102	(23.1)	47	(10.7)	78	(17.7)	59	(13.4)	35	(7.9)	33	(7.5)	28	(6.3)	59	(13.4)	
	3년차	360	87	(24.2)	39	(10.8)	54	(15.0)	52	(14.4)	34	(9.4)	27	(7.5)	24	(6.7)	43	(11.9)	
	4년차	143	34	(23.8)	15	(10.5)	19	(13.3)	23	(16.1)	14	(9.8)	7	(4.9)	8	(5.6)	23	(16.1)	
	5년차	118	16	(13.6)	18	(15.3)	24	(20.3)	10	(8.5)	11	(9.3)	10	(8.5)	11	(9.3)	18	(15.3)	
자립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249	296	(23.7)	140	(11.2)	199	(15.9)	168	(13.5)	112	(9.0)	90	(7.2)	74	(5.9)	170	(13.6)	4.0
	비해당 (자립 4~5년차)	261	50	(19.2)	33	(12.6)	43	(16.5)	33	(12.6)	25	(9.6)	17	(6.5)	19	(7.3)	41	(15.7)	

주: 보호종료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n=165), '1주일에 1번 이상' 만나는 것으로 간주

앞의 결과에서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연락처를 모른다(18.5%)’, ‘기타(12.7%)’, ‘부모(부 또는 모)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보호유형과 자립수당대상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70.5%, 아동양육시설 68.8%, 가정위탁 51.4%의 순으로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자립한 지 1~3년이 된 자립수당 대상 보호종료아동의 59.1%, 자립한 지 4~5년이 된 자립수당 비대상 보호종료아동의 78.0%가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7-11〉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χ^2
전체	346	64 (18.5)	214 (61.8)	24 (6.9)	44 (12.7)	
성별						2.1
남	139	30 (21.6)	82 (59.0)	11 (7.9)	16 (11.5)	
여	207	34 (16.4)	132 (63.8)	13 (6.3)	28 (13.5)	
연령						3.7
만 18~19세	72	12 (16.7)	48 (66.7)	6 (8.3)	6 (8.3)	
만 20~21세	145	26 (17.9)	86 (59.3)	10 (6.9)	23 (15.9)	
만 22~23세	78	15 (19.2)	48 (61.5)	5 (6.4)	10 (12.8)	
만 24세 이상	51	11 (21.6)	32 (62.7)	3 (5.9)	5 (9.8)	
교육수준						3.1
고등학교 이하	135	26 (19.3)	88 (65.2)	7 (5.2)	14 (10.4)	
2~3년제 대학교	54	10 (18.5)	30 (55.6)	5 (9.3)	9 (16.7)	
4년제 대학교 이상	157	28 (17.8)	96 (61.1)	12 (7.6)	21 (13.4)	
장애 유무						2.3
있음	13	1 (7.7)	8 (61.5)	2 (15.4)	2 (15.4)	
없음	333	63 (18.9)	206 (61.9)	22 (6.6)	42 (12.6)	
건강보험 종류						8.1
직장가입	109	19 (17.4)	73 (67.0)	2 (1.8)	15 (13.8)	
지역가입	48	10 (20.8)	28 (58.3)	3 (6.3)	7 (14.6)	
의료급여	189	35 (18.5)	113 (59.8)	19 (10.1)	22 (11.6)	
보호 유형						19.1***
아동양육시설	160	20 (12.5)	110 (68.8)	15 (9.4)	15 (9.4)	
공동생활가정	44	6 (13.6)	31 (70.5)	1 (2.3)	6 (13.6)	
가정위탁	142	38 (26.8)	73 (51.4)	8 (5.6)	23 (16.2)	
대리	36	10 (27.8)	14 (38.9)	3 (8.3)	9 (25.0)	
친인척	69	14 (20.3)	41 (59.4)	4 (5.8)	10 (14.5)	
일반	37	14 (37.8)	18 (48.6)	1 (2.7)	4 (10.8)	8.3

구분		사례수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χ ²
전체		346	64 (18.5)	214 (61.8)	24 (6.9)	44 (12.7)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60	20 (12.5)	110 (68.8)	15 (9.4)	15 (9.4)	28.8**
	공동생활가정	44	6 (13.6)	31 (70.5)	1 (2.3)	6 (13.6)	
	대리 가정위탁	36	10 (27.8)	14 (38.9)	3 (8.3)	9 (25.0)	
	친인척 가정위탁	69	14 (20.3)	41 (59.4)	4 (5.8)	10 (14.5)	
	일반 가정위탁	37	14 (37.8)	18 (48.6)	1 (2.7)	4 (10.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9	31 (17.3)	116 (64.8)	11 (6.1)	21 (11.7)	1.4
	연장종료	167	33 (19.8)	98 (58.7)	13 (7.8)	23 (13.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107	20 (18.7)	62 (57.9)	7 (6.5)	18 (16.8)	12.3
	2년차	102	17 (16.7)	61 (59.8)	8 (7.8)	16 (15.7)	
	3년차	87	19 (21.8)	52 (59.8)	7 (8.0)	9 (10.3)	
	4년차	34	5 (14.7)	27 (79.4)	2 (5.9)	0 (.0)	
	5년차	16	3 (18.8)	12 (75.0)	0 (.0)	1 (6.3)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96	56 (18.9)	175 (59.1)	22 (7.4)	43 (14.5)	8.7**
	비해당 (자립 4~5년차)	50	8 (16.0)	39 (78.0)	2 (4.0)	1 (2.0)	

2.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님과과의 관계

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의 관계’는 ‘가깝다(39.3%)’, ‘다소 멀다(25.3%)’, ‘매우 가깝다(22.3%)’, ‘매우 멀다(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62%)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성별, 부모 유무, 장애 유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대별로는 만 18~19세의 경우, 관계가 (매우)멀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관계가 멀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종류별로는 의료급여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관계가 가깝다는 응답은 높고, 가장 가깝다는 응답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29.6%), 공동생활가정(25.3%), 아동양육시설(14.5%)의 순으로 가장 가깝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종료유형별로는 만기퇴소보다 연장종료인 경우, 매우 가깝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호종료연차별로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매우 멀다는 응답이 높고, 가깝다는 응답이 낮았다. 자립한 지 4~5년이 된 자립수당 비대상 보호종료아

동에 비해 자립한 지 1~3년이 된 자립수당 대상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님과 더 가까운 관계라고 응답하였다.

〈표 7-12〉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위탁부모님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멀다		다소 멀다		가깝다		매우 가깝다		χ ²	
전체		3,104	406	(13.1)	786	(25.3)	1,221	(39.3)	691	(22.3)		
성별	남	1,461	200	(13.7)	363	(24.8)	584	(40.0)	314	(21.5)	2.0	
	여	1,643	206	(12.5)	423	(25.7)	637	(38.8)	377	(22.9)		
연령	만 18~19세	600	57	(9.5)	137	(22.8)	273	(45.5)	133	(22.2)	26**	
	만 20~21세	1,289	193	(15.0)	344	(26.7)	495	(38.4)	257	(19.9)		
	만 22~23세	778	98	(12.6)	196	(25.2)	291	(37.4)	193	(24.8)		
	만 24세 이상	437	58	(13.3)	109	(24.9)	162	(37.1)	108	(24.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71	(14.8)	304	(26.3)	427	(37.0)	252	(21.8)	18.9**	
	2~3년제 대학교	524	66	(12.6)	142	(27.1)	225	(42.9)	91	(17.4)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69	(11.9)	340	(23.8)	569	(39.9)	348	(24.4)		
부모 유무	있음	1,512	189	(12.5)	389	(25.7)	617	(40.8)	317	(21.0)	5.8	
	없음	1,198	168	(14.0)	300	(25.0)	454	(37.9)	276	(23.0)		
장애 유무	모름	394	49	(12.4)	97	(24.6)	150	(38.1)	98	(24.9)	6.5	
	있음	132	21	(15.9)	30	(22.7)	42	(31.8)	39	(29.5)		
	없음	2,972	385	(13.0)	756	(25.4)	1,179	(39.7)	652	(21.9)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22	(12.7)	241	(25.1)	342	(35.6)	255	(26.6)	23.6***	
	지역가입	374	47	(12.6)	92	(24.6)	140	(37.4)	95	(25.4)		
	의료급여	1,770	237	(13.4)	453	(25.6)	739	(41.8)	341	(19.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95	(13.8)	394	(27.8)	622	(43.9)	206	(14.5)	95.3***	
	공동생활가정	332	45	(13.6)	88	(26.5)	115	(34.6)	84	(25.3)		
	가정위탁	1,355	166	(12.3)	304	(22.4)	484	(35.7)	401	(29.6)		
	가정 위탁	대리	403	52	(12.9)	81	(20.1)	145	(36.0)	125	(31.0)	29.4***
		친인척	564	50	(8.9)	123	(21.8)	196	(34.8)	195	(34.6)	
		일반	388	64	(16.5)	100	(25.8)	143	(36.9)	81	(20.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195	(13.8)	394	(27.8)	622	(43.9)	206	(14.5)	128.5***	
	공동생활가정	332	45	(13.6)	88	(26.5)	115	(34.6)	84	(25.3)		
	대리 가정위탁	403	52	(12.9)	81	(20.1)	145	(36.0)	125	(31.0)		
	친인척 가정위탁	564	50	(8.9)	123	(21.8)	196	(34.8)	195	(34.6)		
	일반 가정위탁	388	64	(16.5)	100	(25.8)	143	(36.9)	81	(20.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50	(14.1)	477	(26.9)	718	(40.5)	329	(18.5)	34.3***	
	연장종료	1,330	156	(11.7)	309	(23.2)	503	(37.8)	362	(27.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78	(8.9)	183	(20.9)	377	(43.1)	237	(27.1)	61.7***	
	2년차	921	117	(12.7)	228	(24.8)	365	(39.6)	211	(22.9)		
	3년차	805	124	(15.4)	228	(28.3)	308	(38.3)	145	(18.0)		
	4년차	280	47	(16.8)	75	(26.8)	101	(36.1)	57	(20.4)		
	5년차	223	40	(17.9)	72	(32.3)	70	(31.4)	41	(18.4)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319	(12.3)	639	(24.6)	1,050	(40.4)	593	(22.8)	18.2***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87	(17.3)	147	(29.2)	171	(34.0)	98	(19.5)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방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가 2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락 또는 방문 안함(18.6%)’, ‘월 1회(17.7%)’, ‘2~3개월 1회(17.5%)’, ‘6개월 1회(11.9%)’, ‘1년 1회(8.4%)’, ‘기타(1.7%)’의 순이었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 1회’ 연락·방문을 한다는 빈도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24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별로도 4년제 대학교 이상인 경우, 부모가 있거나 존재 여부를 모를 경우, 연락·방문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는 특히 일반 가정위탁인 경우, 연락·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6%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 대리나 친인척 가정위탁인 경우 주 1회 연락·만남을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4%, 43.6%로 가장 높아 일반 가정위탁 24.5%와도 대조적이었다. 보호종료유형별로는 연장종료(31.4%)인 경우, 자립한 지 1~3년(25.3%)인 경우, 주 1회 연락·방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동 결과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7-13〉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 또는 만남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연락 또는 방문 안함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χ^2
전체	3,104	577 (18.6)	749 (24.1)	550 (17.7)	543 (17.5)	369 (11.9)	262 (8.4)	54 (1.7)	
성별	남	1,461	265 (18.1)	306 (20.9)	283 (19.4)	276 (18.9)	182 (12.5)	20 (1.4)	22.7
	여	1,643	312 (19.0)	443 (27.0)	267 (16.3)	187 (11.4)	133 (8.1)	34 (2.1)	***
연령	만 18~19세	600	100 (16.7)	139 (23.2)	128 (21.3)	131 (21.8)	65 (10.8)	27 (4.5)	10 (1.7)
	만 20~21세	1,289	265 (20.6)	278 (21.6)	210 (16.3)	220 (17.1)	174 (13.5)	126 (9.8)	16 (1.2)
	만 22~23세	778	143 (18.4)	210 (27.0)	132 (17.0)	136 (17.5)	78 (10.0)	67 (8.6)	12 (1.5)
	만 24세 이상	437	69 (15.8)	122 (27.9)	80 (18.3)	56 (12.8)	52 (11.9)	42 (9.6)	16 (3.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80 (24.3)	266 (23.1)	178 (15.4)	202 (17.5)	108 (9.4)	19 (1.6)	72.8
	2~3년제 대학교	524	91 (17.4)	96 (18.3)	109 (20.8)	88 (16.8)	88 (16.8)	46 (8.8)	6 (1.1)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06 (14.4)	387 (27.1)	263 (18.4)	253 (17.7)	173 (12.1)	115 (8.1)	29 (2.0)
부모 유무	있음	1,512	268 (17.7)	333 (22.0)	248 (16.4)	305 (20.2)	196 (13.0)	134 (8.9)	28 (1.9)
	없음	1,198	228 (19.0)	311 (26.0)	230 (19.2)	180 (15.0)	132 (11.0)	100 (8.3)	17 (1.4)
	모름	394	81 (20.6)	105 (26.6)	72 (18.3)	58 (14.7)	41 (10.4)	28 (7.1)	9 (2.3)
장래 유무	있음	132	27 (20.5)	32 (24.2)	24 (18.2)	28 (21.2)	9 (6.8)	10 (7.6)	2 (1.5)
	없음	2,972	550 (18.5)	717 (24.1)	526 (17.7)	515 (17.3)	360 (12.1)	252 (8.5)	52 (1.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57 (16.4)	264 (27.5)	180 (18.8)	154 (16.0)	104 (10.8)	88 (9.2)	13 (1.4)
	지역가입	374	77 (20.6)	106 (28.3)	50 (13.4)	62 (16.6)	41 (11.0)	28 (7.5)	10 (2.7)
	의료급여	1,770	343 (19.4)	379 (21.4)	320 (18.1)	327 (18.5)	224 (12.7)	146 (8.2)	31 (1.8)

구분		사례수	연락 또는 방문 안함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χ ²	
전체		3,104	577 (18.6)	749 (24.1)	550 (17.7)	543 (17.5)	369 (11.9)	262 (8.4)	54 (1.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62 (18.5)	159 (11.2)	286 (20.2)	316 (22.3)	224 (15.8)	160 (11.3)	10 (0.7)	375.9 ***	
	공동생활가정	332	59 (17.8)	62 (18.7)	66 (19.9)	74 (22.3)	42 (12.7)	24 (7.2)	5 (1.5)		
	가정위탁	1,355	256 (18.9)	528 (39.0)	198 (14.6)	153 (11.3)	103 (7.6)	78 (5.8)	39 (2.9)		
	가정 위탁	대리	403	59 (14.6)	187 (46.4)	57 (14.1)	42 (10.4)	23 (5.7)	16 (4.0)	19 (4.7)	71.5 ***
		친인척 일반	564	90 (16.0)	246 (43.6)	83 (14.7)	54 (9.6)	44 (7.8)	34 (6.0)	13 (2.3)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417	262 (18.5)	159 (11.2)	286 (20.2)	316 (22.3)	224 (15.8)	160 (11.3)	10 (0.7)	466.1 ***	
	공동생활가정	332	59 (17.8)	62 (18.7)	66 (19.9)	74 (22.3)	42 (12.7)	24 (7.2)	5 (1.5)		
	대리 가정위탁	403	59 (14.6)	187 (46.4)	57 (14.1)	42 (10.4)	23 (5.7)	16 (4.0)	19 (4.7)		
	친인척 가정위탁	564	90 (16.0)	246 (43.6)	83 (14.7)	54 (9.6)	44 (7.8)	34 (6.0)	13 (2.3)		
	일반 가정위탁	388	107 (27.6)	95 (24.5)	58 (14.9)	57 (14.7)	36 (9.3)	28 (7.2)	7 (1.8)		
보호 종료 유형	만기종료	1,774	369 (20.8)	332 (18.7)	319 (18.0)	335 (18.9)	230 (13.0)	164 (9.2)	25 (1.4)	75.8 ***	
	연장종료	1,330	208 (15.6)	417 (31.4)	231 (17.4)	208 (15.6)	139 (10.5)	98 (7.4)	29 (2.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135 (15.4)	271 (31.0)	179 (20.5)	158 (18.1)	84 (9.6)	33 (3.8)	15 (1.7)	105.2 ***	
	2년차	921	173 (18.8)	228 (24.8)	161 (17.5)	160 (17.4)	111 (12.1)	74 (8.0)	14 (1.5)		
	3년차	805	168 (20.9)	158 (19.6)	121 (15.0)	135 (16.8)	114 (14.2)	92 (11.4)	17 (2.1)		
	4년차	280	55 (19.6)	57 (20.4)	45 (16.1)	57 (20.4)	25 (8.9)	37 (13.2)	4 (1.4)		
	5년차	223	46 (20.6)	35 (15.7)	44 (19.7)	33 (14.8)	35 (15.7)	26 (11.7)	4 (1.8)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476 (18.3)	657 (25.3)	461 (17.7)	453 (17.4)	309 (11.9)	199 (7.7)	46 (1.8)	21.2 ***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01 (20.1)	92 (18.3)	89 (17.7)	90 (17.9)	60 (11.9)	63 (12.5)	8 (1.6)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1년 1회 미만(n=18)은 '⑥ 1년 1회', 동거중이거나 항상 연락하는 등 주 2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n=158)는 '② 주 1회'에 포함.

앞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만남을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³²⁾,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8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립 서비스 지원 제공(21.1%)’, ‘혜택 관련 정보 제공(20.0%)’, ‘자립생활상 어려움 상담(12.3%)’, ‘기타(1.1%)’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특성별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적인 안부 인사(72.7%)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34.3%)으로 인해 연락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호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보다 아동양육시설인 경우,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위해 연락했다는 응답이 77.5%로 낮은 반면,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으로 인해 연락을 했다는 응답은 25.6%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일반 가정위탁(78.4%)에 비해 대리 가정위탁(81.5%)과 친인척 가정위탁(86.8%)의 경우 일상적인 안부를 위해 연락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2) 최대 2개까지 중복 응답 가능함.

〈표 7-14〉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이 연락한 이유(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상적인 안부	자립생활상 어려움 상담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	혜택 관련 정보 제공	기타
전체		2,290	1,844 (80.5)	282 (12.3)	483 (21.1)	459 (20.0)	26 (1.1)
성별	남	1,113	888 (79.8)	149 (13.4)	245 (22.0)	231 (20.8)	16 (1.4)
	여	1,177	956 (81.2)	133 (11.3)	238 (20.2)	228 (19.4)	10 (.8)
연령	만 18~19세	458	372 (81.2)	75 (16.4)	97 (21.2)	101 (22.1)	8 (1.7)
	만 20~21세	936	740 (79.1)	125 (13.4)	208 (22.2)	184 (19.7)	8 (.9)
	만 22~23세	565	458 (81.1)	52 (9.2)	121 (21.4)	112 (19.8)	6 (1.1)
	만 24세 이상	331	274 (82.8)	30 (9.1)	57 (17.2)	62 (18.7)	4 (1.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787	637 (80.9)	120 (15.2)	161 (20.5)	134 (17.0)	10 (1.3)
	2~3년제 대학교	404	312 (77.2)	57 (14.1)	97 (24.0)	96 (23.8)	6 (1.5)
	4년제 대학교 이상	1,099	895 (81.4)	105 (9.6)	225 (20.5)	229 (20.8)	10 (.9)
부모 유무	있음	1,129	908 (80.4)	143 (12.7)	246 (21.8)	244 (21.6)	12 (1.1)
	없음	882	714 (81.0)	96 (10.9)	182 (20.6)	162 (18.4)	11 (1.2)
	모름	279	222 (79.6)	43 (15.4)	55 (19.7)	53 (19.0)	3 (1.1)
장애 유무	있음	99	72 (72.7)	15 (15.2)	34 (34.3)	17 (17.2)	2 (2.0)
	없음	2,191	1,772 (80.9)	267 (12.2)	449 (20.5)	442 (20.2)	24 (1.1)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726	610 (84.0)	83 (11.4)	129 (17.8)	122 (16.8)	6 (.8)
	지역가입	259	217 (83.8)	32 (12.4)	49 (18.9)	56 (21.6)	0 (.0)
	의료급여	1,305	1,017 (77.9)	167 (12.8)	305 (23.4)	281 (21.5)	20 (1.5)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122	870 (77.5)	162 (14.4)	287 (25.6)	252 (22.5)	16 (1.4)
	공동생활가정	261	221 (84.7)	38 (14.6)	51 (19.5)	60 (23.0)	3 (1.1)
	가정위탁	907	753 (83.0)	82 (9.0)	145 (16.0)	147 (16.2)	7 (.8)
	가정 위탁	대리	254	207 (81.5)	21 (8.3)	41 (16.1)	39 (15.4)
		친인척	403	350 (86.8)	28 (6.9)	59 (14.6)	51 (12.7)
		일반	250	196 (78.4)	33 (13.2)	45 (18.0)	57 (22.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304	1,035 (79.4)	190 (14.6)	290 (22.2)	271 (20.8)	14 (1.1)
	연장종료	986	809 (82.0)	92 (9.3)	193 (19.6)	188 (19.1)	12 (1.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649	510 (78.6)	85 (13.1)	158 (24.3)	131 (20.2)	10 (1.5)
	2년차	675	546 (80.9)	87 (12.9)	118 (17.5)	144 (21.3)	7 (1.0)
	3년차	587	476 (81.1)	70 (11.9)	134 (22.8)	98 (16.7)	7 (1.2)
	4년차	212	174 (82.1)	21 (9.9)	43 (20.3)	43 (20.3)	2 (.9)
	5년차	167	138 (82.6)	19 (11.4)	30 (18.0)	43 (25.7)	0 (.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911	1,532 (80.2)	242 (12.7)	410 (21.5)	373 (19.5)	24 (1.3)
	비해당 (자립 4~5년차)	379	312 (82.3)	40 (10.6)	73 (19.3)	86 (22.7)	2 (.5)

주: 연락 또는 만남 빈도에 '기타'로 응답한 경우 주관식으로 빈도를 기재했더라도 연락 사유 문항에서는 제외됨

3. 사회적 관계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 역시 '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② 내가 꼭 필요하다면 큰 돈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③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④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⑤ 혼란에 빠졌을 때 결정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⑥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이해하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전혀 없다-있는 편이다-있는 편이다-매우 많다)로 조사하였다. 이들 6개 문항에 대한 총점은 24점 만점 기준, 17.1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고 판단하는 수준이었다.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연차별로는 보호종료 1년차인 경우 17.6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보호종료 3~4년차인 경우 16.6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 유무에 따라서는 부모가 있을 경우 사회적 지지 점수가 17.3점으로, 부모가 없을 경우(16.7점)나 모름(17.0점)보다 높았다. 동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15〉 사회적 지지 (총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총합(만점 24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17.1	3.76		
성별	남	1,461	17.1	3.90	0.7	
	여	1,643	17.0	3.64		
연령	만 18~19세	600	17.6	3.71	7.0***	
	만 20~21세	1,289	16.8	3.92		
	만 22~23세	778	17.2	3.60		
	만 24세 이상	437	17.1	3.5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6.5	4.11	19.5***	
	2~3년제 대학교	524	17.3	3.48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7.4	3.52		
부모 유무	있음	1,512	17.3	3.48	8.9***	
	없음	1,198	16.7	4.04		
	모름	394	17.0	3.87		
장애 유무	있음	132	17.2	3.83	0.3	
	없음	2,972	17.1	3.76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7.3	3.70	3.3*	
	지역가입	374	17.1	3.70		
	의료급여	1,770	16.9	3.8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7.0	3.79	0.3
	공동생활가정		332	16.9	3.70	
	가정위탁		1,355	17.1	3.76	
	가정 위탁	대리	(403)	(17.0)	(3.68)	0.6
		친인척	(564)	(17.0)	(3.67)	
		일반	(388)	(17.3)	(3.95)	

구분		사례수	총합(만점 24점)	표준편차	t(F)
전체		3,104	17.1	3.7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17.0	3.79	0.5
	공동생활가정	332	16.9	3.70	
	대리 가정위탁	(403)	(17.0)	(3.68)	
	친인척 가정위탁	(564)	(17.0)	(3.67)	
	일반 가정위탁	(388)	(17.3)	(3.95)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6.9	3.87	-2.6*
	연장종료	1,330	17.3	3.6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17.6	3.71	9.2***
	2년차	921	17.0	3.71	
	3년차	805	16.6	3.84	
	4년차	280	16.6	4.09	
	5년차	223	17.1	3.16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7.1	3.77	1.5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6.8	3.71	

다음으로 보호종료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학교나 동네 친구(20.5%),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17.7%), 형제·자매(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학교나 동네 친구(29.0%), 시설 친구(13.3%), 형제·자매(12.2%)의 순이었으며, 3순위에서는 학교나 동네 친구(32.5%),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13.9%), 시설 친구(13.2%)의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1~3순위 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사람은 학교나 동네 친구로 59.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33.5%), 형제·자매(26.2%)의 순이었다. ‘학교나 동네 친구’의 경우에는 1~3순위에서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		548	(17.7)	262	(11.1)	231	(13.9)	1041	(33.5)
자립지원전담요원		98	(3.2)	115	(4.9)	96	(5.8)	309	(10.0)
학교선생님		14	(.5)	40	(1.7)	38	(2.3)	92	(3.0)
어머니		180	(5.8)	95	(4.0)	52	(3.1)	327	(10.5)
아버지		161	(5.2)	135	(5.7)	64	(3.9)	360	(11.6)
형제/자매		377	(12.1)	288	(12.2)	147	(8.9)	812	(26.2)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310	(10.0)	147	(6.2)	66	(4.0)	523 (16.8)
친척 또는 친지	232	(7.5)	217	(9.2)	139	(8.4)	588 (18.9)
멘토	60	(1.9)	51	(2.2)	51	(3.1)	162 (5.2)
학교나 동네 친구	635	(20.5)	686	(29.0)	539	(32.5)	1860 (59.9)
시설 친구(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255	(8.2)	314	(13.3)	219	(13.2)	788 (25.4)
기타	11	(.4)	19	(.8)	18	(1.1)	48 (1.5)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은 '⑧ 친척 또는 친지', 연인, 직장 동료, 기타 친구는 '⑩ 학교나 동네 친구'에 포함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 부모 관계

부모가 '있다'는 응답은 보호종료아동(48.7%)보다 보호종료예정아동(51.9%)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도 보호종료아동(12.7%)보다 보호종료아동(13.9%)에서 약간 더 높았다.

〈표 7-17〉 부모 유무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5.0
있음	380	51.9	1,510	48.7	
없음	250	34.2	1,200	38.6	
모름	102	13.9	394	12.7	

부모가 있는 경우, 만남 빈도를 파악한 결과,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3.7%, 2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년에 1번 미만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만남이 잦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8〉 부모와 만남 정도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80	100.0	1,510	100.0	
만나지 않음	90	(23.7)	346	(22.9)	8.5
1년에 1번 미만	45	(11.8)	173	(11.5)	
1년에 1~2번	74	(19.5)	242	(16.0)	
1년에 3~4번	62	(16.3)	201	(13.3)	
2달에 1번 정도	34	(8.9)	137	(9.1)	
1달에 1번 정도	27	(7.1)	107	(7.1)	
1달에 2~3번 정도	24	(6.3)	93	(6.2)	
1주일에 1번 이상	24	(6.3)	211	(14.0)	

부모가 있음에도 만나지 않는 이유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각각 56.7%와 6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가 보호종료예정아동 24.4%, 보호종료아동 18.5%였다. 반면,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장 낮았다. 즉, 부모보다는 보호종 및 보호종료아동 본인들이 부모와의 만남을 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0	100.0	346	100.0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22	(24.4)	64	(18.5)	42.6***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51	(56.7)	214	(61.8)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6	(6.7)	24	(6.9)	
기타	11	(12.2)	44	(12.7)	

2.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4점 만점에 각각 18.3점, 17.1점 수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정 수준 유지’ 되는 정도였다.

〈표 7-20〉 사회적 지지 (총점)

(단위: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총합 (만점 24점)	표준편차	총합 (만점 24점)	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총합	18.3	3.3	17.1	3.8	8.0***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 모님(24.6%)', 보호종료아동은 '학교나 동네 친구(20.5%)'에게 요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3순위를 모두 종합한 결과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학교나 동네 친구'로 각각 57.7%와 59.9%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표 7-21〉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1순위		1+2+3순위		1순위		1+2+3순위	
시설선생님 (위탁부모님)	180	(24.6)	289	(39.5)	548	(17.7)	1041	(33.5)
자립지원전담요원	31	(4.2)	113	(15.4)	98	(3.2)	309	(10.0)
학교선생님	16	(2.2)	95	(13.0)	14	(.5)	92	(3.0)
어머니	34	(4.6)	76	(10.4)	180	(5.8)	327	(10.5)
아버지	28	(3.8)	95	(13.0)	161	(5.2)	360	(11.6)
형제/자매	73	(10.0)	193	(26.4)	377	(12.1)	812	(26.2)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130	(17.8)	220	(30.1)	310	(10.0)	523	(16.8)
친척 또는 친지	73	(10.0)	188	(25.7)	232	(7.5)	588	(18.9)
멘토	5	(.7)	31	(4.2)	60	(1.9)	162	(5.2)
학교나 동네 친구	109	(14.9)	422	(57.7)	635	(20.5)	1860	(59.9)
시설 친구(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25	(3.4)	129	(17.6)	255	(8.2)	788	(25.4)
기타	6	(.8)	22	(3.0)	11	(.4)	48	(1.5)
없음	22	(3.0)	22	(3.0)	223	(7.2)	223	(7.2)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은 '⑧ 친척 또는 친지', 연인, 직장 동료, 기타 친구는 '⑩ 학교나 동네 친구'에 포함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부모 유무’는 2008년과 2020년에는 각각 55%와 5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22.4%와 13.9%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의 경우에는 이와 달라서 80%에 가까운 아동들이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도마다 분석대상자 범위나 규모의 차이를 보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동의 보호자 부재(예: 부모 사망, 자녀 유기)보다 부모가 있음에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설입소나 가정위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다시 보호자 부재로 인해 보호조치된 아동 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2〉 부모 유무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2020	732	380 (51.9)	250 (34.2)	102 (13.9)
2012	235	187 (79.6)	30 (12.8)	18 (7.7)
2008	478	263 (55.0)	108 (22.6)	107 (22.4)

주: 1) 2008년은 결측치 12명을 제외한 사례 수 및 유효 퍼센트를 기입함.

2) 2012년은 가족이 있는 응답자 중 친부모 유무를 조사하였음.

3) 2008,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부모가 살아있는 아동 중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응답은 각 연도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 76% 수준까지 증가하여 가족관계 회복과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표 7-23〉 부모와 연락(만남) 여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연락하지(만나지) 않음	연락함(만남)
2020	380	90 (23.7)	290 (76.3)
2012	186	48 (25.8)	138 (74.2)
2008	483	185 (38.3)	298 (61.7)

주: 1) 2008 조사는 가족과의 연락여부, 2012년 조사는 부모와 연락여부, 2020년 조사는 부모와 만남여부를 조사함.

2) 2008년은 결측치 7명 제외, 2012년은 결측치 1명 제외한 사례수 및 유효 퍼센트를 기입함.

3) 2008,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한편, 부모와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아동의 경우, 그 이유로 ‘자신이 부모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9%였으나 2020년에는 절반을 상회하는 56.7%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락처를 모른다’는 응답도 2012년과 2020년에 각각 37.5%와 23.3%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가 중요하므로 아동과 가족의 단계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24〉 부모와 연락하지(만나지) 않는 이유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연락처를 모른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부모(모 또는 부)가 원하지 않는다	기타
2020	90	22 (24.4)	51 (56.7)	6 (6.7)	11 (12.2)
2012	48	18 (37.5)	23 (47.9)	3 (6.3)	4 (8.3)

주: 1) 2012년은 연락하지 않는 이유, 2020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함.

2)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두 조사의 분석대상자 범위와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아동의 비율이 2019년에 실시된 가정외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연구 조사(이하 ‘2019년 조사’)에서는 87.2%,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하 ‘2020년 조사’)에서는 76.3%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20년도 조사에서 11%p 높은 응답 비율 나타냈는데 이는 2020년도 조사에서는 만 17세 이상의 보호아동만을 포함하여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25〉 부모와 연락(만남) 여부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연락하지(만나지) 않음	연락함(만남)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3.7	76.3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2.8	87.2

주: 1) 2020년 보호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2)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보호아동 15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는 549명임.
자료: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상정 외, 2019)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모두 24점 만점에 2019년 조사 18.6점, 2020년 조사 18.3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7-26〉 사회적지지(총점) - 타 조사 비교

(단위: 점)

조사명	총점 (만점 24점)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8.3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8.6

주: 1) 2020년 보호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2)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보호아동 15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는 956명임.
자료: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상정 외, 2019)

2.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조사대상자의 규모나 범위 차이가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부모가 ‘있다’는 응답은 2016년 81.3%로 매우 높았던 반면, 2008년, 2012년, 2020년에는 모두 50% 수준이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의 가정외보호 원인이 보호자의 부재인지,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존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도 점차 감소하다 2020년 조사에서는 다시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7-27〉 부모 유무 - 시계열 비교

연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2020	3,104	1,510 (48.6)	1,200 (38.7)	394 (12.7)
2016	886	720(81.3)	80(9.0)	86(9.7)
2012	648	327 (50.5)	215 (33.2)	106 (16.3)
2008	1,629	845 (51.9)	417 (25.6)	367 (22.5)

(단위: 명, %)

보호종료아동 중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아동은 연차별로 일정하지 않은 추세를 보여 증감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80% 내외 수준에서 다수의 아동이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20년도 가장 높은 89.1%를 나타냈다.

〈표 7-28〉 부모(가족)과 현재 동거 여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다
2020	1,510	165 (10.9)	1,345 (89.1)
2016	881	238 (27.0)	643 (73.0)
2012	656	84 (13.2)	552 (86.8)
2008	945	197 (21.0)	741 (79.0)

주: 2008년~2016년은 가족(부모 외 혈연 관계 포함)과의 동거 여부를, 2020년 조사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함

‘향후에도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지’ 보호종료아동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조사에서는 42%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31%는 함께 살고 싶다, 27%는 현재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020년 조사에서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47.5%, 모르겠다 36.6%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15.9%만이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7-29〉 부모와 향후 동거 희망 여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현재 함께 살고 있다
2020	1,510	240 (15.9)	717 (47.5)	553 (36.6)	-
2016	881	274(31.1)	369(41.9)	-	238(27.0)

주: 1) 2016년 조사에서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향후 계속 함께 살고 싶은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음.

2) 2016년 조사는 가족(부모 외 혈연 관계 포함)과의 동거 의향을, 2020년 조사는 부모와의 동거의향을 조사함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응답은 매년 조사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3.7%p 감소한 77%로 나타났다.

〈표 7-30〉 부모와 연락(만남) 여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연락하지(만나지) 않음	연락함(만남)
2020	1,510	346 (22.9)	1,164 (77.1)
2016	726	140 (19.3)	586 (80.7)
2012	326	101 (31.0)	225 (69.0)
2008	1,623	678 (41.8)	945 (58.2)

주: 1) 2008 조사는 가족과 연락, 2016년, 2016년 조사는 부모와 연락, 2020년 조사는 부모와 만남여부를 조사함.
 2) 2020년 조사에서 부모와 만남여부는 현재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질문하였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만남으로 간주함.

보호종료아동이 부모와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자신이 부모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 47.9%, 2016년 48%, 2020년 61.5%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단순 연락이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것이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응답은 매년 약 10%p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표 7-31〉 부모와 연락하지(만나지) 않는 이유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연락처를 모른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부모(모 또는 부)가 원하지 않는다	기타
2020	346	64 (18.5)	214 (61.8)	24 (6.9)	44 (12.7)
2016	148	43 (29.1)	71 (48.0)	10 (6.8)	24 (16.2)
2012	98	26 (37.5)	57 (47.9)	5 (6.3)	10 (8.3)

주: 2012~2016년은 연락하지 않는 이유, 2020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함.

보호 종료 후에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연락이나 만남 빈도는 2016년의 경우, 연락이나 방문을 안 한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고, 2~3개월에 1회(20.8%), 6개월에 1회(16.3%) 정도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연락이나 방문을 안 한다는 응답이 5.8%p 감소한 18.6%로 나타났다. 오히려 주 1회 연락 또는 만난다는 응답이 24.1%로 가장 높고, 월 1회(17.7%), 2~3개월 1회(17.5%)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응답이 많아 접촉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32〉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 또는 만남 빈도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연락 또는 방문 안함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2020	3,104	577 (18.6)	749 (24.1)	550 (17.7)	543 (17.5)	369 (11.9)	262 (8.4)	54 (1.7)
2016	1,215	296 (24.4)	98 (8.1)	192 (15.8)	253 (20.8)	198 (16.3)	127 (10.5)	51(4.2)

이들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보호종료 이후 연락하거나 만나 이유는 주로 ‘안부 인사’로, 2016년 82.9%, 2020년 80.5%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후순위로 ‘혜택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응답이 16.3%였으나, 2020년에는 후순위로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응답이 21.1%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33〉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 연락 또는 만남 이유(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안부	자립생활의 어려움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	혜택 관련 정보 제공	기타
2020	2,290	1,844 (80.5)	282 (12.3)	483 (21.1)	459 (20.0)	26 (1.1)
2016	919	762 (82.9)	112 (12.2)	107 (11.6)	150 (16.3)	38 (4.1)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의 관계’는 2016년과 2020년 모두 ‘가깝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가깝다’는 응답이 8.2%p 감소한 반면, ‘매우 가깝다’는 응답은 10.2%p 증가하였다.

〈표 7-34〉 보호 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님과의 관계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매우 멀다	다소 멀다	가깝다	매우 가깝다
2020	3,104	406 (13.1)	786 (25.3)	1,221 (39.3)	691 (22.3)
2016	1,219	137(11.2)	355(29.1)	579(47.5)	148(12.1)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부모 또는 가족과의 현재 동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대상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10.9%에 그친 반면,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56.7%로 나타나 두 조사 결과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을 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과의 단계 단절로 인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35〉 부모와 현재 동거 여부 - 타 조사 비교

(단위: 명, %)

조사명	사례수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510	10.9	89.1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018	56.7	43.3

주: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대상 연령은 만 19세~만 34세임.
 자료: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제5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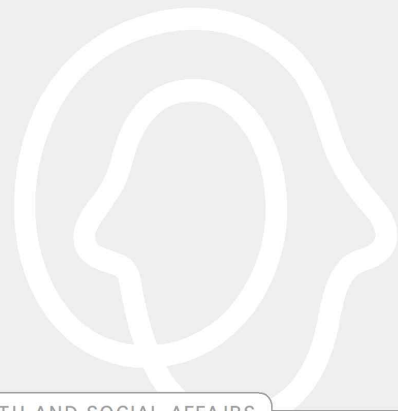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부모 유무’, ‘부모와의 만남 여부 및 빈도’,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파악하였다. 2020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51.9%, 보호종료아동의 48.7%가 부모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유사하게 약 80%는 부모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시작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가 다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보호시 관계 개선 지원이나 외부인을 통한 지지 체계의 발굴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

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이나 조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응답한 비율은 낮고, 학교나 동네친구 혹은 시설 친구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공식적 지원 체계의 도움보다 비공식적 체계를 지지 체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의 지표는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낮았다.

공식적인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 보호당시의 주 양육자로부터 주로 연락이나 정보를 제공 받고, 이마저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절되어가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보호종료 2년차부터 연락이나 방문을 안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주 1회 또는 월 1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6개월 또는 연 1회 연락 비율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관계 측면에서더 ‘가깝다’와 ‘매우 가깝다’의 응답 비율이 낮아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연락이나 만남 빈도는 과거 보다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계도 측면에서는 ‘매우 가깝다’의 비율 증가한 반면, ‘가깝다’의 비율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가깝다는 응답은 2%p 증가에 그쳤다. 2016 년도에 비해 연락/방문이 없는 비율이 약 5%이상 줄어 들었고 , 주 1회의 비율이 약 3 배 이상 증가했다. 연락이나 방문의 이유는 자립서비스 지원이나 혜택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8장

주거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거 실태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실태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및 조사결과 비교

제4절 소결

제 8 장 주거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거 실태

1. 희망 주거 유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 주거 유형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 주거 유형,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먼저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17개 광역시·도)’을 보면 서울(27%), 경기(16.7%), 인천(3.6%) 등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47.3%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산(12.3%)이 많고, 대구(5.5%), 전북·경남(각 4.8%), 광주(3.8%), 전남(3.4%), 대전(3.3%), 강원·충북(각 3.1%), 충남·경북(각 2.5%), 울산(1.8%), 제주(1.5%), 세종(0.4%)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아동은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제주를, 여자 아동은 그 외 지역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17세 미만 아동은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18세 아동은 서울, 광주, 울산, 경북, 경남, 19세 이상 아동은 부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제주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아동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북, 경북, 2~3년제 대학 재학 아동은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아동은 부산, 인천, 대전, 충북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보호상태별로 보면 일반보호아동에 비해 연장보호아동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 거주를 희망하였고, 이 외에도 부모 유무, 장애 유무, 보호 유형, 보호 상태에 따라 보호종료 이후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8-1).

〈표 8-1〉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

(단위: 명, %)

	구분	사립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χ^2	
성별	전체	732	198 (27.0)	90 (12.3)	40 (5.5)	26 (3.6)	28 (3.8)	24 (3.3)	13 (1.8)	3 (0.4)	122 (16.7)	23 (3.1)	23 (3.1)	18 (2.5)	35 (4.8)	25 (3.4)	18 (2.5)	35 (4.8)	11 (1.5)		
	남	366	95 (26.0)	43 (11.7)	18 (4.9)	12 (3.3)	17 (4.6)	10 (2.7)	5 (1.4)	0 (0.0)	67 (18.3)	18 (4.9)	17 (4.6)	8 (2.2)	12 (3.3)	11 (3.0)	8 (2.2)	16 (4.4)	9 (2.5)	29.5*	
	여	366	103 (28.1)	47 (12.8)	22 (6.0)	14 (3.8)	11 (3.0)	14 (3.8)	8 (2.2)	3 (0.8)	55 (15.0)	5 (1.4)	6 (1.6)	10 (2.7)	23 (6.3)	14 (3.8)	10 (2.7)	19 (5.2)	2 (0.5)		
연령	만 17세	103	29 (28.2)	8 (7.8)	4 (3.9)	7 (6.8)	5 (4.9)	4 (3.9)	1 (1.0)	1 (1.0)	20 (19.4)	1 (1.0)	5 (4.9)	2 (1.9)	9 (8.7)	1 (1.0)	3 (2.9)	3 (2.9)	0 (0.0)		
	만 18세	287	86 (30.0)	30 (10.5)	10 (3.5)	9 (3.1)	15 (5.2)	8 (2.8)	6 (2.1)	2 (0.7)	50 (17.4)	3 (1.0)	8 (2.8)	5 (1.7)	17 (5.9)	9 (3.1)	10 (3.5)	16 (5.6)	3 (1.0)	56.4***	
	만 19세 이상	342	88 (24.3)	52 (15.2)	26 (7.6)	10 (2.9)	8 (2.3)	12 (3.5)	6 (1.8)	0 (0.0)	52 (15.2)	19 (5.6)	10 (2.9)	11 (3.2)	9 (2.6)	15 (4.4)	5 (1.5)	16 (4.7)	8 (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18 (28.4)	36 (8.7)	16 (3.9)	15 (3.6)	23 (5.5)	10 (2.4)	8 (1.9)	3 (0.7)	75 (18.1)	8 (1.9)	13 (3.1)	11 (2.7)	26 (6.3)	13 (3.1)	14 (3.4)	21 (5.1)	5 (1.2)		
	2-3년제 대학교	147	34 (23.1)	18 (12.2)	12 (8.2)	8 (5.4)	0 (0.0)	7 (4.8)	2 (1.4)	0 (0.0)	21 (14.3)	8 (5.4)	4 (2.7)	6 (4.1)	3 (2.0)	9 (6.1)	2 (1.4)	9 (6.1)	4 (2.7)	64.8***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46 (27.1)	36 (21.2)	12 (7.1)	3 (1.8)	5 (2.9)	7 (4.1)	3 (1.8)	0 (0.0)	26 (15.3)	7 (4.1)	6 (3.5)	1 (0.6)	6 (3.5)	3 (1.8)	2 (1.2)	5 (2.9)	2 (1.2)		
부모 유무	있음	380	89 (23.4)	35 (9.2)	21 (5.5)	15 (3.9)	21 (5.5)	13 (3.4)	5 (1.3)	1 (0.3)	73 (19.2)	11 (2.9)	12 (3.2)	10 (2.6)	24 (6.3)	18 (4.7)	11 (2.9)	17 (4.5)	4 (1.1)		
	없음	250	82 (32.8)	38 (15.2)	17 (6.8)	6 (2.4)	5 (2.0)	9 (3.6)	7 (2.8)	1 (0.4)	32 (12.8)	10 (4.0)	5 (2.0)	4 (1.6)	8 (3.2)	4 (1.6)	4 (1.6)	12 (4.8)	6 (2.4)	47.6*	
	모름	102	27 (26.5)	17 (16.7)	2 (2.0)	5 (4.9)	2 (2.0)	2 (2.0)	1 (1.0)	1 (1.0)	17 (16.7)	2 (2.0)	6 (5.9)	4 (3.9)	3 (2.9)	3 (2.9)	3 (2.9)	6 (5.9)	1 (1.0)		
장애 유무	있음	37	6 (16.2)	2 (5.4)	1 (2.7)	0 (0.0)	3 (8.1)	2 (5.4)	1 (2.7)	0 (0.0)	3 (8.1)	0 (0.0)	2 (5.4)	4 (10.8)	7 (18.9)	3 (8.1)	2 (5.4)	1 (2.7)	0 (0.0)		
	없음	695	192 (27.6)	88 (12.7)	39 (5.6)	26 (3.7)	25 (3.6)	22 (3.2)	12 (1.7)	3 (0.4)	119 (17.1)	23 (3.3)	21 (3.0)	14 (2.0)	28 (4.0)	22 (3.2)	16 (2.3)	34 (4.9)	11 (1.6)	43.6***	
보호 유형	이동 양육시설	256	80 (31.3)	25 (9.8)	12 (4.7)	6 (2.3)	22 (8.6)	9 (3.5)	2 (0.8)	0 (0.0)	33 (12.9)	4 (1.6)	1 (0.4)	6 (2.3)	18 (7.0)	15 (5.9)	10 (3.9)	10 (3.9)	3 (1.2)		
	공동 생활가정	55	13 (23.6)	2 (3.6)	4 (7.3)	3 (5.5)	2 (3.6)	0 (0.0)	1 (1.8)	0 (0.0)	17 (30.9)	0 (0.0)	3 (5.5)	2 (3.6)	1 (1.8)	3 (5.5)	2 (3.6)	1 (1.8)	1 (1.8)	88.5***	
	가정위탁	421	105 (24.9)	63 (15.0)	24 (5.7)	17 (4.0)	4 (1.0)	15 (3.6)	10 (2.4)	3 (0.7)	72 (17.1)	19 (4.5)	19 (4.5)	10 (2.4)	16 (3.8)	7 (1.7)	6 (1.4)	24 (5.7)	7 (1.7)		
	대리	180	42 (23.3)	22 (12.2)	8 (4.4)	9 (5.0)	1 (0.6)	7 (3.9)	2 (1.1)	2 (1.1)	34 (18.9)	7 (3.9)	8 (4.4)	6 (3.3)	8 (4.4)	4 (2.2)	3 (1.7)	11 (6.1)	6 (3.3)		
	가정 위탁	친인척	148	40 (27.0)	26 (17.6)	8 (5.4)	4 (2.7)	1 (0.7)	6 (4.1)	6 (4.1)	1 (0.7)	25 (16.9)	7 (4.7)	7 (4.7)	2 (1.4)	5 (3.4)	1 (0.7)	3 (2.0)	5 (3.4)	1 (0.7)	25.9
	일반	93	23 (24.7)	15 (16.1)	8 (8.6)	4 (4.3)	2 (2.2)	2 (2.2)	2 (2.2)	0 (0.0)	13 (14.0)	5 (5.4)	4 (4.3)	2 (2.2)	3 (3.2)	2 (2.2)	0 (0.0)	8 (8.6)	0 (0.0)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χ^2
전체	732	198 (27.0)	90 (12.3)	40 (5.5)	26 (3.6)	28 (3.8)	24 (3.3)	13 (1.8)	3 (0.4)	122 (16.7)	23 (3.1)	23 (3.1)	18 (2.5)	35 (4.8)	25 (3.4)	18 (2.5)	35 (4.8)	11 (1.5)	
보호 유형 2	아동양육 시설	256	80 (31.3)	25 (9.8)	12 (4.7)	6 (2.3)	22 (8.6)	9 (3.5)	2 (0.8)	0 (0.0)	33 (12.9)	4 (1.6)	1 (0.4)	6 (2.3)	18 (7.0)	15 (5.9)	10 (3.9)	10 (3.9)	3 (1.2)
	공동생활 가정	55	13 (23.6)	2 (3.6)	4 (7.3)	3 (5.5)	2 (3.6)	0 (0.0)	1 (1.8)	0 (0.0)	17 (30.9)	0 (0.0)	3 (5.5)	2 (3.6)	1 (1.8)	3 (5.5)	2 (3.6)	1 (1.8)	1 (1.8)
	대리 가정위탁	180	42 (23.3)	22 (12.2)	8 (4.4)	9 (5.0)	1 (0.6)	7 (3.9)	2 (1.1)	2 (1.1)	34 (18.9)	7 (3.9)	8 (4.4)	6 (3.3)	8 (4.4)	4 (2.2)	3 (1.7)	11 (6.1)	6 (3.3)
	친인척 가정위탁	148	40 (27.0)	26 (17.6)	8 (5.4)	4 (2.7)	1 (0.7)	6 (4.1)	6 (4.1)	1 (0.7)	25 (16.9)	7 (4.7)	7 (4.7)	2 (1.4)	5 (3.4)	1 (0.7)	3 (2.0)	5 (3.4)	1 (0.7)
	일반 가정위탁	93	23 (24.7)	15 (16.1)	8 (8.6)	4 (4.3)	2 (2.2)	2 (2.2)	2 (2.2)	0 (0.0)	13 (14.0)	5 (5.4)	4 (4.3)	2 (2.2)	3 (3.2)	2 (2.2)	0 (0.0)	8 (8.6)	0 (0.0)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78 (31.1)	17 (6.8)	11 (4.4)	10 (4.0)	17 (6.8)	7 (2.8)	3 (1.2)	1 (0.4)	43 (17.1)	3 (1.2)	7 (2.8)	7 (2.8)	19 (7.6)	7 (2.8)	10 (4.0)	8 (3.2)	3 (1.2)
	연장보호	481	120 (24.9)	73 (15.2)	29 (6.0)	16 (3.3)	11 (2.3)	17 (3.5)	10 (2.1)	2 (0.4)	79 (16.4)	20 (4.2)	16 (3.3)	11 (2.3)	16 (3.3)	18 (3.7)	8 (1.7)	27 (5.6)	8 (1.7)
																			40***

115.2*
**

다음으로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을 보면, ‘나 혼자 사는 집’ 응답률이 69.9%로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10.8%)’ 응답이 많았는데, 본 조사 표본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1명이 보호종료 후 주거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외 친척집 또는 조부모님(5.1%), 자립지원시설(3.3%), (학교, 회사)기숙사(2.5%), 공유주택(0.8%), 기타(0.4%), 친구집(0.4%) 등의 순이었다.

보호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모두 ‘나 혼자 사는 집’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가정위탁의 경우 다른 보호유형에 비해 친척집 또는 조부모님(8.6%), 잘 모르겠다(13.5%)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보호상태별로 살펴보면 연장보호의 경우 일반보호에 비해 자립지원시설 응답률이 4.1%p 낮고, 잘 모르겠다 응답률은 3.1%p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외 성별, 부모 유무를 제외한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유무, 그리고 가정위탁의 형태에 따라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8-2).

〈표 8-2〉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 혼자 사는 집	부모님 (가족)이 사는 집	친척집 또는 조부모집	친구집	(학교, 회사)기숙사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등)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시설/위탁가정 (보호 연장)	잘 모르겠다	기타	x ²	
전체		732	512 (69.9)	32 (4.4)	37 (5.1)	3 (4)	18 (2.5)	24 (3.3)	6 (8)	18 (2.5)	79 (10.8)	3 (4)		
성별	남	366	261 (71.3)	14 (3.8)	14 (3.8)	3 (8)	9 (2.5)	9 (2.5)	3 (8)	11 (3.0)	40 (10.9)	2 (5)	8.6	
	여	366	251 (68.6)	18 (4.9)	23 (6.3)	0 (0)	9 (2.5)	15 (4.1)	3 (8)	7 (1.9)	39 (10.7)	1 (3)		
연령	만 17세	103	74 (71.8)	5 (4.9)	3 (2.9)	1 (1.0)	2 (1.9)	5 (4.9)	1 (1.0)	3 (2.9)	9 (8.7)	0 (0)	33.2**	
	만 18세	287	183 (63.8)	13 (4.5)	10 (3.5)	2 (7)	11 (3.8)	15 (5.2)	1 (3)	7 (2.4)	43 (15.0)	2 (7)		
	만 19세 이상	342	255 (74.6)	14 (4.1)	24 (7.0)	0 (0)	5 (1.5)	4 (1.2)	4 (1.2)	8 (2.3)	27 (7.9)	1 (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79 (67.2)	19 (4.6)	14 (3.4)	3 (7)	12 (2.9)	20 (4.8)	2 (5)	12 (2.9)	52 (12.5)	2 (5)	28.4	
	2-3년제 대학교	147	108 (73.5)	7 (4.8)	8 (5.4)	0 (0)	1 (7)	2 (1.4)	2 (1.4)	2 (1.4)	17 (11.6)	0 (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25 (73.5)	6 (3.5)	15 (8.8)	0 (0)	5 (2.9)	2 (1.2)	2 (1.2)	4 (2.4)	10 (5.9)	1 (6)		
부모 유무	있음	380	277 (72.9)	21 (5.5)	14 (3.7)	3 (8)	10 (2.6)	14 (3.7)	2 (5)	7 (1.8)	31 (8.2)	1 (3)	21.5	
	없음	250	171 (68.4)	8 (3.2)	16 (6.4)	0 (0)	4 (1.6)	7 (2.8)	3 (1.2)	8 (3.2)	31 (12.4)	2 (8)		
	모름	102	64 (62.7)	3 (2.9)	7 (6.9)	0 (0)	4 (3.9)	3 (2.9)	1 (1.0)	3 (2.9)	17 (16.7)	0 (0)		
장애 유무	있음	37	18 (48.6)	2 (5.4)	2 (5.4)	0 (0)	1 (2.7)	5 (13.5)	0 (0)	2 (5.4)	6 (16.2)	1 (2.7)	23***	
	없음	695	494 (71.1)	30 (4.3)	35 (5.0)	3 (4)	17 (2.4)	19 (2.7)	6 (9)	16 (2.3)	73 (10.5)	2 (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87 (73.0)	13 (5.1)	0 (0)	2 (8)	7 (2.7)	17 (6.6)	3 (1.2)	7 (2.7)	19 (7.4)	1 (4)	59.3***
	공동생활가정		55	44 (80.0)	1 (1.8)	1 (1.8)	1 (1.8)	0 (0)	3 (5.5)	0 (0)	2 (3.6)	3 (5.5)	0 (0)	
	가정위탁		421	281 (66.7)	18 (4.3)	36 (8.6)	0 (0)	11 (2.6)	4 (1.0)	3 (7)	9 (2.1)	57 (13.5)	2 (5)	
	가정 위탁	대리	180	114 (63.3)	7 (3.9)	19 (10.6)	0 (0)	4 (2.2)	0 (0)	3 (1.7)	2 (1.1)	29 (16.1)	2 (1.1)	33.5***
		친인척	148	101 (68.2)	2 (1.4)	15 (10.1)	0 (0)	4 (2.7)	4 (2.7)	0 (0)	5 (3.4)	17 (11.5)	0 (0)	
		일반	93	66 (71.0)	9 (9.7)	2 (2.2)	0 (0)	3 (3.2)	0 (0)	0 (0)	2 (2.2)	11 (11.8)	0 (0)	

21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나 혼자 사는 집	부모님 (가족)이 사는 집	친척집 또는 조부모집	친구집	(학교, 회사)기숙사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등)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시설/위탁가정 (보호 연장)	잘 모르겠다	기타	x ²
전체		732	512 (69.9)	32 (4.4)	37 (5.1)	3 (.4)	18 (2.5)	24 (3.3)	6 (.8)	18 (2.5)	79 (10.8)	3 (.4)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256	187 (73.0)	13 (5.1)	0 (.0)	2 (.8)	7 (2.7)	17 (6.6)	3 (1.2)	7 (2.7)	19 (7.4)	1 (.4)	91.3***
	공동생활가정	55	44 (80.0)	1 (1.8)	1 (1.8)	1 (1.8)	0 (.0)	3 (5.5)	0 (.0)	2 (3.6)	3 (5.5)	0 (.0)	
	대리 가정위탁	180	114 (63.3)	7 (3.9)	19 (10.6)	0 (.0)	4 (2.2)	0 (.0)	3 (1.7)	2 (1.1)	29 (16.1)	2 (1.1)	
	친인척 가정위탁	148	101 (68.2)	2 (1.4)	15 (10.1)	0 (.0)	4 (2.7)	4 (2.7)	0 (.0)	5 (3.4)	17 (11.5)	0 (.0)	
	일반 가정위탁	93	66 (71.0)	9 (9.7)	2 (2.2)	0 (.0)	3 (3.2)	0 (.0)	0 (.0)	2 (2.2)	11 (11.8)	0 (.0)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73 (68.9)	15 (6.0)	6 (2.4)	1 (.4)	9 (3.6)	15 (6.0)	1 (.4)	9 (3.6)	22 (8.8)	0 (.0)	23.9***
	연장보호	481	339 (70.5)	17 (3.5)	31 (6.4)	2 (.4)	9 (1.9)	9 (1.9)	5 (1.0)	9 (1.9)	57 (11.9)	3 (.6)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질문하였다. 1순위 응답의 경우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이 47.3%로 과반에 달하였고, 그 다음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9.9%)’,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11.2%)’ 순이었다. 2순위 응답은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가 2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주거비 수준(20.5%),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18.0%) 순이었다. 3순위 응답은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이 1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18.4%), 주거상태(17.3%) 순이었다.

한편,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률을 보면 주거비 수준(77.7%)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은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47.7%), 주거상태(46.7%), 주거환경(32.0%),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30.7%), 대중교통 접근성(28.3%),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27.6%),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8.9%), 기타(0.4%) 순이었다(표 8-3).

〈표 8-3〉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146	(19.9)	39	(5.3)	40	(5.5)	225	(30.7)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346	(47.3)	150	(20.5)	73	(10.0)	569	(77.7)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37	(5.1)	94	(12.8)	71	(9.7)	202	(27.6)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51	(7.0)	164	(22.4)	127	(17.3)	342	(46.7)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82	(11.2)	132	(18.0)	135	(18.4)	349	(47.7)
대중교통 접근성	25	(3.4)	65	(8.9)	117	(16.0)	207	(28.3)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26	(3.6)	69	(9.4)	139	(19.0)	234	(32.0)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16	(2.2)	19	(2.6)	30	(4.1)	65	(8.9)
기타	3	(0.4)	-	-	-	-	3	(0.4)

2. 주거자금 마련 계획과 주거 지원 관련 욕구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거자금 마련 계획과 주거지원 필요 여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형태를 확인하였다. 먼저 ‘보호종료 후 주거자금 마련 계획(중복 응답)’을 보면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이 55.5%로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은 ‘자립정착금(43.0%)’, ‘디딤씨앗통장(CDA)(32.2%)’, ‘자립수당(24.2%)’ 순으로 나타나 보호종료 후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은 23.6%로, 조사 대상 보호종료예정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자력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외 ‘보호 중 받은 후원금(13.9%)’,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6.0%)’, ‘금융기관 대출(5.2%)’, ‘시설/위탁부모가 마련(3.7%)’,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의 지원(3.3%)’,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0.8%)’, ‘민간후원단체(0.5%)’ 순이었다(표 8-4).

〈표 8-4〉 보호종료 후 주거자금 마련 계획(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부/공공 기관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통합서비 스 등)	자립정착 금	자립수당	디딤씨앗 통장 (CDA)	보호 중 받은 후원금	친부모/ 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금융기관 에서 대출	친구/지인 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시설/위탁 부모가 마련해줌	민간 후원단체	근로소득	아동권리 보장원(아 동자립지 원단)	기타 (모름, 계획없음)	기타 (그 외)	
전체		732	406 (55.5)	315 (43.0)	177 (24.2)	236 (32.2)	102 (13.9)	44 (6.0)	38 (5.2)	6 (.8)	27 (3.7)	4 (.5)	173 (23.6)	24 (3.3)	15 (2.0)	9 (1.2)	
성별	남	366	194 (53.0)	144 (39.3)	83 (22.7)	107 (29.2)	46 (12.6)	17 (4.6)	18 (4.9)	3 (.8)	11 (3.0)	2 (.5)	95 (26.0)	9 (2.5)	6 (1.6)	4 (1.1)	
	여	366	212 (57.9)	171 (46.7)	94 (25.7)	129 (35.2)	56 (15.3)	27 (7.4)	20 (5.5)	3 (.8)	16 (4.4)	2 (.5)	78 (21.3)	15 (4.1)	9 (2.5)	5 (1.4)	
연령	만 17세	103	60 (58.3)	38 (36.9)	21 (20.4)	42 (40.8)	18 (17.5)	6 (5.8)	5 (4.9)	1 (1.0)	2 (1.9)	1 (1.0)	17 (16.5)	5 (4.9)	5 (4.9)	1 (1.0)	
	만 18세	287	166 (57.8)	122 (42.5)	70 (24.4)	106 (36.9)	45 (15.7)	15 (5.2)	11 (3.8)	2 (.7)	7 (2.4)	2 (.7)	48 (16.7)	9 (3.1)	7 (2.4)	6 (2.1)	
	만 19세 이상	342	180 (52.6)	155 (45.3)	86 (25.1)	88 (25.7)	39 (11.4)	23 (6.7)	22 (6.4)	3 (.9)	18 (5.3)	1 (.3)	108 (31.6)	10 (2.9)	3 (.9)	2 (.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32 (55.9)	173 (41.7)	97 (23.4)	156 (37.6)	65 (15.7)	20 (4.8)	17 (4.1)	3 (.7)	11 (2.7)	3 (.7)	74 (17.8)	14 (3.4)	13 (3.1)	6 (1.4)	
	2-3년제 대학교	147	80 (54.4)	60 (40.8)	38 (25.9)	37 (25.2)	23 (15.6)	11 (7.5)	10 (6.8)	3 (2.0)	7 (4.8)	0 (.0)	41 (27.9)	8 (5.4)	0 (.0)	2 (1.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94 (55.3)	82 (48.2)	42 (24.7)	43 (25.3)	14 (8.2)	13 (7.6)	11 (6.5)	0 (.0)	9 (5.3)	1 (.6)	58 (34.1)	2 (1.2)	2 (1.2)	1 (.6)	
부모유무	있음	380	215 (56.6)	167 (43.9)	99 (26.1)	132 (34.7)	57 (15.0)	29 (7.6)	20 (5.3)	1 (.3)	13 (3.4)	2 (.5)	86 (22.6)	16 (4.2)	8 (2.1)	5 (1.3)	
	없음	250	138 (55.2)	103 (41.2)	50 (20.0)	67 (26.8)	28 (11.2)	10 (4.0)	14 (5.6)	4 (1.6)	8 (3.2)	1 (.4)	70 (28.0)	5 (2.0)	6 (2.4)	4 (1.6)	
	모름	102	53 (52.0)	45 (44.1)	28 (27.5)	37 (36.3)	17 (16.7)	5 (4.9)	4 (3.9)	1 (1.0)	6 (5.9)	1 (1.0)	17 (16.7)	3 (2.9)	1 (1.0)	0 (.0)	
장애유무	있음	37	15 (40.5)	13 (35.1)	5 (13.5)	13 (35.1)	7 (18.9)	2 (5.4)	1 (2.7)	0 (.0)	2 (5.4)	0 (.0)	5 (13.5)	3 (8.1)	2 (5.4)	0 (.0)	
	없음	695	391 (56.3)	302 (43.5)	172 (24.7)	223 (32.1)	95 (13.7)	42 (6.0)	37 (5.3)	6 (.9)	25 (3.6)	4 (.6)	168 (24.2)	21 (3.0)	13 (1.9)	9 (1.3)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69 (66.0)	135 (52.7)	70 (27.3)	113 (44.1)	60 (23.4)	4 (1.6)	3 (1.2)	1 (.4)	3 (1.2)	2 (.8)	24 (9.4)	7 (2.7)	3 (1.2)	1 (.4)
	공동생활가정		55	32 (58.2)	31 (56.4)	21 (38.2)	30 (54.5)	9 (16.4)	2 (3.6)	3 (5.5)	1 (1.8)	6 (10.9)	1 (1.8)	10 (18.2)	6 (10.9)	2 (3.6)	2 (3.6)
	가정위탁		421	205 (48.7)	149 (35.4)	86 (20.4)	93 (22.1)	33 (7.8)	38 (9.0)	32 (7.6)	4 (1.0)	18 (4.3)	1 (.2)	139 (33.0)	11 (2.6)	10 (2.4)	6 (1.4)
	가정위탁	대리	180	72 (40.0)	63 (35.0)	38 (21.1)	42 (23.3)	13 (7.2)	17 (9.4)	12 (6.7)	1 (.6)	9 (5.0)	0 (.0)	64 (35.6)	6 (3.3)	5 (2.8)	2 (1.1)
		친인척	148	83 (56.1)	53 (35.8)	31 (20.9)	31 (20.9)	14 (9.5)	14 (9.5)	12 (8.1)	1 (.7)	5 (3.4)	0 (.0)	53 (35.8)	4 (2.7)	4 (2.7)	4 (2.7)
		일반	93	50 (53.8)	33 (35.5)	17 (18.3)	20 (21.5)	6 (6.5)	7 (7.5)	8 (8.6)	2 (2.2)	4 (4.3)	1 (1.1)	22 (23.7)	1 (1.1)	1 (1.1)	0 (.0)
보호상태	일반보호		251	149 (59.4)	107 (42.6)	62 (24.7)	93 (37.1)	38 (15.1)	12 (4.8)	10 (4.0)	1 (.4)	4 (1.6)	3 (1.2)	37 (14.7)	10 (4.0)	5 (2.0)	3 (1.2)
	연장보호		481	257 (53.4)	208 (43.2)	115 (23.9)	143 (29.7)	64 (13.3)	32 (6.7)	28 (5.8)	5 (1.0)	23 (4.8)	1 (.2)	136 (28.3)	14 (2.9)	10 (2.1)	6 (1.2)

다음으로 ‘주거지원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 조사 대상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9명 이상(93.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과반이 넘는 57.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률은 6.8%에 불과하였다.

연령별 긍정 응답률을 보면 만 17세는 94.2%, 만 18세는 93.8%, 만 19세 이상은 92.4%로, 나이가 적을수록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수준별 긍정 응답률은 2~3년제 대학 재학생(94.6%)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이하(93.8%), 4년제 대학교 이상(90.6%)의 순이었다. 보호유형별 긍정 응답률은 아동양육시설(96.1%)이 가장 높고, 공동생활가정(94.5%), 가정위탁(91.2%) 순이었다. 이 외 성별, 부모 유무, 장애 유무, 보호상태, 가정위탁의 유형별 주거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8-5).

〈표 8-5〉 주거지원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전체	732	423 (57.8)	259 (35.4)	45 (6.1)	5 (0.7)	
성별						5.2
남	366	210 (57.4)	130 (35.5)	21 (5.7)	5 (1.4)	
여	366	213 (58.2)	129 (35.2)	24 (6.6)	0 (0.0)	
연령						13.0*
만 17세	103	61 (59.2)	36 (35.0)	5 (4.9)	1 (1.0)	
만 18세	287	181 (63.1)	88 (30.7)	14 (4.9)	4 (1.4)	
만 19세 이상	342	181 (52.9)	135 (39.5)	26 (7.6)	0 (0.0)	
교육수준						15.2*
고등학교 이하	415	258 (62.2)	131 (31.6)	22 (5.3)	4 (1.0)	
2~3년제 대학교	147	72 (49.0)	67 (45.6)	7 (4.8)	1 (0.7)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93 (54.7)	61 (35.9)	16 (9.4)	0 (0.0)	
부모유무						3.6
있음	380	214 (56.3)	135 (35.5)	28 (7.4)	3 (0.8)	
없음	250	150 (60.0)	85 (34.0)	13 (5.2)	2 (0.8)	
모름	102	59 (57.8)	39 (38.2)	4 (3.9)	0 (0.0)	
장애유무						1.6
있음	37	24 (64.9)	10 (27.0)	3 (8.1)	0 (0.0)	
없음	695	399 (57.4)	249 (35.8)	42 (6.0)	5 (0.7)	
보호유형						42.2***
아동양육시설	256	179 (69.9)	67 (26.2)	7 (2.7)	3 (1.2)	
공동생활가정	55	41 (74.5)	11 (20.0)	3 (5.5)	0 (0.0)	
가정위탁	421	203 (48.2)	181 (43.0)	35 (8.3)	2 (0.5)	
대리	180	81 (45.0)	80 (44.4)	18 (10.0)	1 (0.6)	
친인척	148	76 (51.4)	58 (39.2)	13 (8.8)	1 (0.7)	
일반	93	46 (49.5)	43 (46.2)	4 (4.3)	0 (0.0)	
보호유형 2						47.5***
아동양육시설	256	179 (69.9)	67 (26.2)	7 (2.7)	3 (1.2)	
공동생활가정	55	41 (74.5)	11 (20.0)	3 (5.5)	0 (0.0)	
대리 가정위탁	180	81 (45.0)	80 (44.4)	18 (10.0)	1 (0.6)	
친인척 가정위탁	148	76 (51.4)	58 (39.2)	13 (8.8)	1 (0.7)	
일반 가정위탁	93	46 (49.5)	43 (46.2)	4 (4.3)	0 (0.0)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전체	732	423 (57.8)	259 (35.4)	45 (6.1)	5 (0.7)	7.6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62 (64.5)	73 (29.1)	14 (5.6)	
	연장보호	481	261 (54.3)	186 (38.7)	31 (6.4)	

마지막으로 ‘필요한 주거지원’을 1순위,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항목이 52.3%로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은 ‘월세(임대료) 지원(26.5%)’, ‘전세자금(보증금) 대출(13.3%)’ 등의 순이었다. 2순위는 ‘월세(임대료) 지원(34.3%)’, ‘전세자금(보증금) 대출(24.2%)’,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18.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률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71.0%)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월세(임대료) 지원(60.9%), 전세자금(보증금) 대출(37.5%), 주거상담(주거지 탐색/정착/이사 등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16.0%), 주택 수리비용 지원(7.0%), 주택 구입자금 대출(6.2%), 기타(1.5%) 순이었다(표 8-6).

〈표 8-6〉 필요한 주거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357	(52.3)	127	(18.6)	484 (71.0)
월세(임대료) 지원	181	(26.5)	234	(34.3)	415 (60.9)
전세자금(보증금) 대출	91	(13.3)	165	(24.2)	256 (37.5)
주택 구입자금 대출	12	(1.8)	30	(4.4)	42 (6.2)
주택 수리비용 지원	8	(1.2)	40	(5.9)	48 (7.0)
주거상담(주거지 탐색/정착/이사 등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28	(4.1)	81	(11.9)	109 (16.0)
기타	5	(.7)	5	(.7)	10 (1.5)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실태

1. 주거 관련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관련 현황은 현재 주거유형과 비용,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인

원,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주거 유형 및 비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시점 현재 (정부지원)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정부지원)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이 4.7%로 보호종료아동 대상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을 이용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7.9%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임대주택 지원제도 확대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수혜율이 조사 대상의 과반 이하이므로 수요를 고려한 공급량 확대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18.8%)가 많았고, 전세 5.2%,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연세/일세) 2.3%으로,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주거비 지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2명(21.1%)에 해당하였다. 부모님이 사는 집(3.6%)을 제외하면 영구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친척 집(5.4%), 친구 집(1.4%), 자립지원시설(3.2%), (회사/학교)기숙사(3.8%)에 거주하는 경우가 13.8%에 달하였다. 또한 보호종료 후에도 여전히 시설/위탁가정/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2.7%)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1.9%), 고시원/숙박시설(0.6%)에 거주하거나 하는 경우도 전체의 2.5%에 달하였다. 이 외 자가 거주자는 1.7%, 공유주택 거주자는 0.1%에 불과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자(21%)가 남자(16.4%)보다 보증금 있는 월세 응답이 4.6%p 많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고시원/숙박시설, (회사/학교)기숙사에 거주한다는 응답율은 남자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원)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자가 비율도 높아 그간 정부차원에서 18세에 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과 자산형성지원제도 활성화의 성과로 일부 판단된다. 다만 본 조사 표본에서 소수에 불과하긴 하나, 연령이 높을수록 고시원/숙박시설 거주 비율도 높아져 보호종료 이후 주거안정 정도가 양극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교육수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 비율도 높은 반면, 고시원/숙박시설 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율도 높았다. 부모 유무별로 보면,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모님이 사는 집에 거주하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응답이 많았고, 부모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전세임대주택과 친구 집, 친척집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애 유무별로 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 시설/위탁가정/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

관이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에 비해 정부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설에 거주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 유형별로 보면, 가정위탁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친척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10배 이상 많았는데, (정부지원)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높고 (정부지원)전세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낮았다. 또한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이 사는 집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은 (정부지원)전세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다른 보호 유형보다 높고,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은 자립지원시설이나 시설/위탁가정/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고시원/숙박시설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가정위탁이 대리 가정위탁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에 비해 (정부지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호종료 유형별로 보면, 연장종료아동이 만기퇴소아동에 비해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에 거주하거나,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친척 집에 거주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보호종료 연차별로 보면, 1년차 일 때 (정부지원)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가장 낮고,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다. 반면 5년차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연세/일세) 거주 비율은 가장 낮으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가장 많아, 최소 보호종료 후 5년 간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외 자립수당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주거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8-7〉 현재 주거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별수	(정부지원 공공/영구/ 국민대 주택)	(정부지원 전세임대 주택)	자립지원 시설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설/연 세/일세)	자가	고시원/숙박 시설	(회사/학교 가숙사)	친구 집	친척 집	부모님이 사는 집	사설/ 유탁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관	공유주택	알려지지 않음	χ^2
전체	3,104	146 (4.7)	1,342 (43.2)	98 (3.2)	161 (5.2)	584 (18.8)	70 (2.3)	54 (1.7)	20 (0.6)	119 (3.8)	45 (1.4)	167 (5.4)	111 (3.6)	85 (2.7)	2 (0.1)	58 (1.9)	
성별	남	1,461	60 (4.1)	640 (43.8)	49 (3.4)	68 (4.7)	239 (16.4)	35 (2.4)	25 (1.7)	11 (0.8)	79 (5.4)	23 (1.6)	65 (4.4)	63 (4.3)	1 (0.1)	38 (2.6)	53.6
	여	1,643	86 (5.2)	702 (42.7)	49 (3.0)	93 (5.7)	345 (21.0)	35 (2.1)	29 (1.8)	9 (0.5)	40 (2.4)	22 (1.3)	102 (6.2)	48 (2.9)	1 (0.1)	20 (1.2)	***
연령	만 18-19세	600	20 (3.3)	257 (42.8)	37 (6.2)	36 (6.0)	92 (15.3)	11 (1.8)	9 (1.5)	2 (0.3)	22 (3.7)	10 (1.7)	31 (5.2)	23 (3.8)	2 (0.3)	12 (2.0)	111.8
	만 20-21세	1,289	54 (4.2)	599 (46.5)	37 (2.9)	57 (4.4)	234 (18.2)	31 (2.4)	23 (1.8)	7 (0.5)	45 (3.5)	18 (1.4)	54 (4.2)	56 (4.3)	0 (0.0)	23 (1.8)	***
	만 22-23세	778	38 (4.9)	318 (40.9)	19 (2.4)	35 (4.5)	173 (22.2)	12 (1.5)	13 (1.7)	6 (0.8)	36 (4.6)	9 (1.2)	54 (6.9)	27 (3.5)	17 (2.2)	12 (1.5)	
	만 24세 이상	437	34 (7.8)	168 (38.4)	5 (1.1)	33 (7.6)	85 (19.5)	16 (3.7)	9 (2.1)	5 (1.1)	16 (3.7)	8 (1.8)	28 (6.4)	5 (1.1)	9 (2.1)	11 (2.5)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1 (3.6)	475 (41.2)	28 (2.4)	52 (4.5)	220 (19.1)	32 (2.8)	17 (1.5)	4 (0.3)	44 (3.8)	26 (2.3)	69 (6.0)	51 (4.4)	0 (0.0)	25 (2.2)	101.9
	2-3년제 대학교	524	22 (4.2)	263 (50.2)	33 (6.3)	33 (6.3)	79 (15.1)	5 (1.0)	11 (2.1)	3 (0.6)	13 (2.5)	2 (0.4)	18 (3.4)	25 (4.8)	6 (1.1)	7 (1.3)	***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83 (5.8)	604 (42.4)	37 (2.6)	76 (5.3)	285 (20.0)	33 (2.3)	26 (1.8)	13 (0.9)	62 (4.3)	17 (1.2)	80 (5.6)	35 (2.5)	33 (2.3)	26 (1.8)	
부모 유무	있음	1,512	74 (4.9)	631 (41.7)	47 (3.1)	79 (5.2)	297 (19.6)	34 (2.2)	26 (1.7)	12 (0.8)	56 (3.7)	15 (1.0)	68 (4.5)	89 (5.9)	37 (2.4)	23 (1.5)	82.9
	없음	1,198	54 (4.5)	534 (44.6)	32 (2.7)	62 (5.2)	219 (18.3)	21 (1.8)	21 (1.8)	8 (0.7)	50 (4.2)	25 (2.1)	82 (6.8)	16 (1.3)	31 (2.6)	29 (2.4)	***
	모름	394	18 (4.6)	177 (44.9)	19 (4.8)	20 (5.1)	68 (17.3)	15 (3.8)	7 (1.8)	0 (0.0)	13 (3.3)	5 (1.3)	17 (4.3)	6 (1.5)	17 (4.3)	6 (1.5)	
장애 유무	있음	132	10 (7.6)	44 (33.3)	12 (9.1)	8 (6.1)	18 (13.6)	5 (3.8)	0 (0.0)	2 (1.5)	5 (3.8)	3 (2.3)	3 (2.3)	9 (6.8)	8 (6.1)	4 (3.0)	42.7
	없음	2,972	136 (4.6)	1,298 (43.7)	86 (2.9)	153 (5.1)	566 (19.0)	65 (2.2)	54 (1.8)	18 (0.6)	114 (3.8)	42 (1.4)	164 (5.5)	102 (3.4)	77 (2.6)	54 (1.8)	***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4 (4.6)	392 (40.8)	12 (1.3)	55 (5.7)	213 (22.2)	13 (1.4)	15 (1.6)	1 (0.1)	77 (8.0)	14 (1.5)	51 (5.3)	26 (2.7)	19 (2.0)	18 (1.9)	170.4
	자영업	374	12 (3.2)	136 (36.4)	5 (1.3)	23 (6.1)	81 (21.7)	11 (2.9)	14 (3.7)	6 (1.6)	9 (2.4)	2 (0.5)	30 (8.0)	26 (7.0)	9 (2.4)	5 (1.3)	***
	의료급여	1,770	90 (5.1)	814 (46.0)	81 (4.6)	88 (4.7)	290 (16.4)	46 (2.6)	25 (1.4)	13 (0.7)	33 (1.9)	29 (1.6)	86 (4.9)	59 (3.3)	57 (3.2)	35 (2.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41 (2.9)	866 (61.1)	73 (5.2)	58 (4.1)	168 (11.9)	21 (1.5)	12 (0.8)	11 (0.8)	53 (3.7)	25 (1.8)	10 (0.7)	34 (2.4)	17 (1.2)	19 (1.3)	665.3
	공동생활가정	332	15 (4.5)	162 (48.8)	19 (5.7)	20 (6.0)	62 (18.7)	3 (0.9)	0 (0.0)	5 (1.5)	13 (3.9)	3 (0.9)	4 (1.2)	12 (3.6)	9 (2.7)	3 (0.9)	***
	가정유탁	1,355	90 (6.6)	314 (23.2)	6 (0.4)	83 (6.1)	354 (26.1)	46 (3.4)	42 (3.1)	4 (0.3)	53 (3.9)	17 (1.3)	153 (11.3)	65 (4.8)	59 (4.4)	36 (2.7)	
	가정 위탁																
	대리	403	26 (6.5)	80 (19.9)	2 (0.5)	21 (5.2)	118 (29.3)	13 (3.2)	18 (4.5)	1 (0.2)	12 (3.0)	4 (1.0)	34 (8.4)	23 (5.7)	35 (8.7)	8 (2.0)	117.0
	친인척	564	33 (5.9)	128 (22.7)	0 (0.0)	39 (6.9)	141 (25.0)	19 (3.4)	12 (2.1)	3 (0.5)	22 (3.9)	5 (0.9)	105 (18.6)	14 (2.5)	16 (2.8)	13 (2.3)	***
	일반	388	31 (8.0)	106 (27.3)	4 (1.0)	23 (5.9)	95 (24.5)	14 (3.6)	12 (3.1)	0 (0.0)	19 (4.9)	8 (2.1)	14 (3.6)	28 (7.2)	8 (2.1)	15 (3.9)	

구분	사례수	(정부지원 공공/영구/ 국민대 주택)	(정부지원 전세임대 주택)	자립지원 시설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설세연 세월세)	자가	고시원/숙박 시설	(회사/학교) 기숙사	친구 집	친척 집	부모님이 사는 집	사설/ 위탁/정/ 청년층자립 청년자립 지원관	공유주택	알려지지 않음	χ^2	
	전체	3,104	146 (4.7)	1,342 (43.2)	98 (3.2)	161 (5.2)	584 (18.8)	70 (2.3)	54 (1.7)	20 (.6)	119 (3.8)	45 (1.4)	167 (5.4)	111 (3.6)	85 (2.7)	2 (.1)	58 (1.9)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417	41 (2.9)	866 (61.1)	73 (5.2)	58 (4.1)	168 (11.9)	21 (1.5)	12 (.8)	11 (.8)	53 (3.7)	25 (1.8)	10 (.7)	34 (2.4)	17 (1.2)	2 (.1)	19 (1.3)	854.2 ***
	공동생활가정	332	15 (4.5)	162 (48.8)	19 (5.7)	20 (6.0)	62 (18.7)	3 (.9)	0 (.0)	5 (1.5)	13 (3.9)	3 (.9)	4 (1.2)	12 (3.6)	9 (2.7)	0 (.0)	3 (.9)	
	대리 가정위탁	403	26 (6.5)	80 (19.9)	2 (.5)	21 (5.2)	118 (29.3)	13 (3.2)	18 (4.5)	1 (.2)	12 (3.0)	4 (1.0)	34 (8.4)	23 (5.7)	35 (8.7)	0 (.0)	8 (2.0)	
	전문학사 가정위탁	564	33 (5.9)	128 (22.7)	0 (.0)	39 (6.9)	141 (25.0)	19 (3.4)	12 (2.1)	3 (.5)	22 (3.9)	5 (.9)	105 (18.6)	14 (2.5)	16 (2.8)	0 (.0)	13 (2.3)	
보호 종류 유형	일반 가정위탁	388	31 (8.0)	106 (27.3)	4 (1.0)	23 (5.9)	95 (24.5)	14 (3.6)	12 (3.1)	0 (.0)	19 (4.9)	8 (2.1)	14 (3.6)	28 (7.2)	8 (2.1)	0 (.0)	15 (3.9)	65.9 ***
	만민특소	1,774	66 (3.7)	826 (46.6)	72 (4.1)	88 (5.0)	302 (17.0)	36 (2.0)	25 (1.4)	11 (.6)	70 (3.9)	30 (1.7)	68 (3.8)	71 (4.0)	46 (2.6)	2 (.1)	34 (1.9)	
보호 종류 연차	연장종료	1,330	80 (6.0)	516 (38.8)	26 (2.0)	73 (5.5)	282 (21.2)	34 (2.6)	29 (2.2)	9 (.7)	49 (3.7)	15 (1.1)	99 (7.4)	40 (3.0)	39 (2.9)	0 (.0)	24 (1.8)	105.0 ***
	1년차	875	27 (3.1)	326 (37.3)	45 (5.1)	47 (5.4)	159 (18.2)	22 (2.5)	21 (2.4)	2 (.2)	41 (4.7)	14 (1.6)	63 (7.2)	33 (3.8)	31 (3.5)	2 (.2)	20 (2.3)	
	2년차	921	55 (6.0)	402 (43.6)	23 (2.5)	47 (5.1)	182 (19.8)	21 (2.3)	14 (1.5)	6 (.7)	28 (3.0)	14 (1.5)	45 (4.9)	32 (3.5)	29 (3.1)	0 (.0)	15 (1.6)	
	3년차	805	40 (5.0)	391 (48.6)	20 (2.5)	34 (4.2)	147 (18.3)	17 (2.1)	9 (1.1)	8 (1.0)	27 (3.4)	12 (1.5)	34 (4.2)	25 (3.1)	20 (2.5)	0 (.0)	11 (1.4)	
	4년차	280	15 (5.4)	124 (44.3)	9 (3.2)	16 (5.7)	54 (19.3)	8 (2.9)	4 (1.4)	2 (.7)	11 (3.9)	3 (1.1)	14 (5.0)	12 (4.3)	1 (.4)	0 (.0)	5 (1.8)	
자립 수당 대상	5년차	223	9 (4.0)	99 (44.4)	1 (.4)	17 (7.6)	42 (18.8)	2 (.9)	6 (2.7)	2 (.9)	12 (5.4)	2 (.9)	11 (4.9)	9 (4.0)	4 (1.8)	0 (.0)	7 (3.1)	20.1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22 (4.7)	1,119 (43.0)	88 (3.4)	128 (4.9)	488 (18.8)	60 (2.3)	44 (1.7)	16 (.6)	96 (3.7)	40 (1.5)	142 (5.5)	90 (3.5)	80 (3.1)	2 (.1)	46 (1.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4 (4.8)	223 (44.3)	10 (2.0)	33 (6.6)	96 (19.1)	10 (2.0)	10 (2.0)	4 (.8)	23 (4.6)	5 (1.0)	25 (5.0)	21 (4.2)	5 (1.0)	0 (.0)	12 (2.4)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형제·자매 집은 '㉠ 친척 집', 교회 기숙사는 '㉡(회사·학교)기숙사'에 포함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9명이며,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이 61.6%로 과반 이상이고, 그 다음은 2명(19.3%), 3명(8.9%), 5명 이상(4.1%), 4명(4.0%), 모름(2.1%) 순이었다. 동거인의 수는 장애 유무, 보호유형,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평균 2.7명인데 반해 장애가 없는 경우 평균 1.9명으로 약 1명의 차이를 보였다. 이 외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부모 유무, 건강보험의 종류, 보호종료유형, 보호종료연차, 자립수당 대상 해당 여부에 따른 동거인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8-8).

〈표 8-8〉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 모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전체	3,104	1,913	(61.6)	600	(19.3)	277	(8.9)	124	(4.0)	126	(4.1)	64	(2.1)	1.9 (2.8)	1.1	
	남	1,461	906	(62.0)	276	(18.9)	126	(8.6)	65	(4.4)	59	(4.0)	29	(2.0)	1.9 (3.3)		
	여	1,643	1,007	(61.3)	324	(19.7)	151	(9.2)	59	(3.6)	67	(4.1)	35	(2.1)	1.8 (2.1)		
연령	만 18~19세	600	376	(62.7)	96	(16.0)	57	(9.5)	26	(4.3)	32	(5.3)	13	(2.2)	2.0 (3.4)	1.6	
	만 20~21세	1,289	821	(63.7)	235	(18.2)	116	(9.0)	48	(3.7)	42	(3.3)	27	(2.1)	1.8 (2.5)		
	만 22~23세	778	453	(58.2)	176	(22.6)	70	(9.0)	29	(3.7)	35	(4.5)	15	(1.9)	1.9 (2.0)		
	만 24세 이상	437	263	(60.2)	93	(21.3)	34	(7.8)	21	(4.8)	17	(3.9)	9	(2.1)	2.0 (3.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670	(58.1)	227	(19.7)	120	(10.4)	55	(4.8)	48	(4.2)	34	(2.9)	1.9 (2.3)	0.4	
	2~3년제 대학교	524	354	(67.6)	89	(17.0)	43	(8.2)	13	(2.5)	21	(4.0)	4	(.8)	1.8 (2.7)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889	(62.3)	284	(19.9)	114	(8.0)	56	(3.9)	57	(4.0)	26	(1.8)	1.9 (3.2)		
부모 유무	있음	1,512	899	(59.5)	300	(19.8)	157	(10.4)	57	(3.8)	70	(4.6)	29	(1.9)	2.0 (3.0)	1.3	
	없음	1,198	768	(64.1)	225	(18.8)	88	(7.3)	54	(4.5)	43	(3.6)	20	(1.7)	1.8 (2.7)		
	모름	394	246	(62.4)	75	(19.0)	32	(8.1)	13	(3.3)	13	(3.3)	15	(3.8)	1.8 (2.3)		
장애 유무	있음	132	63	(47.7)	34	(25.8)	9	(6.8)	5	(3.8)	14	(10.6)	7	(5.3)	2.6 (4.0)	3.0**	
	없음	2,972	1,850	(62.2)	566	(19.0)	268	(9.0)	119	(4.0)	112	(3.8)	57	(1.9)	1.8 (2.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602	(62.7)	200	(20.8)	69	(7.2)	38	(4.0)	33	(3.4)	18	(1.9)	1.8 (2.5)	2.0	
	지역가입	374	191	(51.1)	86	(23.0)	50	(13.4)	24	(6.4)	17	(4.5)	6	(1.6)	2.1 (3.2)		
	의료급여	1,770	1,120	(63.3)	314	(17.7)	158	(8.9)	62	(3.5)	76	(4.3)	40	(2.3)	1.9 (2.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076	(75.9)	194	(13.7)	71	(5.0)	23	(1.6)	36	(2.5)	17	(1.2)	1.7 (3.0)	11.6***
	공동생활가정		332	243	(73.2)	46	(13.9)	19	(5.7)	5	(1.5)	10	(3.0)	9	(2.7)	1.7 (3.3)	
	가정위탁		1,355	594	(43.8)	360	(26.6)	187	(13.8)	96	(7.1)	80	(5.9)	38	(2.8)	2.2 (2.3)	
	가정 위탁	대리	403	141	(35.0)	126	(31.3)	75	(18.6)	34	(8.4)	13	(3.2)	14	(3.5)	2.3 (2.7)	6.1**
		친인척	564	248	(44.0)	133	(23.6)	70	(12.4)	44	(7.8)	53	(9.4)	16	(2.8)	2.3 (2.6)	
		일반	388	205	(52.8)	101	(26.0)	42	(10.8)	18	(4.6)	14	(3.6)	8	(2.1)	1.8 (1.2)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417	1,076	(75.9)	194	(13.7)	71	(5.0)	23	(1.6)	36	(2.5)	17	(1.2)	1.9 (3.1)	8.0***
	공동생활가정		332	243	(73.2)	46	(13.9)	19	(5.7)	5	(1.5)	10	(3.0)	9	(2.7)	1.9 (2.3)	
	대리 가정위탁		403	141	(35.0)	126	(31.3)	75	(18.6)	34	(8.4)	13	(3.2)	14	(3.5)	2.1 (3.0)	
	친인척 가정위탁		564	248	(44.0)	133	(23.6)	70	(12.4)	44	(7.8)	53	(9.4)	16	(2.8)	1.7 (2.2)	
	일반 가정위탁		388	205	(52.8)	101	(26.0)	42	(10.8)	18	(4.6)	14	(3.6)	8	(2.1)	1.9 (3.4)	

23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모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04	1,913	(61.6)	600	(19.3)	277	(8.9)	124	(4.0)	126	(4.1)	64	(2.1)	1.9	(2.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144	(64.5)	311	(17.5)	149	(8.4)	73	(4.1)	61	(3.4)	36	(2.0)	2.0	(2.7)	0.0
	연장종료	1,330	769	(57.8)	289	(21.7)	128	(9.6)	51	(3.8)	65	(4.9)	28	(2.1)	1.7	(1.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489	(55.9)	170	(19.4)	105	(12.0)	42	(4.8)	47	(5.4)	22	(2.5)	1.9	(2.9)	2.2
	2년차	921	593	(64.4)	181	(19.7)	62	(6.7)	30	(3.3)	33	(3.6)	22	(2.4)	1.8	(2.2)	
	3년차	805	522	(64.8)	146	(18.1)	57	(7.1)	35	(4.3)	29	(3.6)	16	(2.0)	1.9	(3.4)	
	4년차	280	170	(60.7)	59	(21.1)	29	(10.4)	12	(4.3)	9	(3.2)	1	(.4)	2.0	(2.7)	
	5년차	223	139	(62.3)	44	(19.7)	24	(10.8)	5	(2.2)	8	(3.6)	3	(1.3)	1.7	(1.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604	(61.7)	497	(19.1)	224	(8.6)	107	(4.1)	109	(4.2)	60	(2.3)	1.9	(3.0)	0.4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309	(61.4)	103	(20.5)	53	(10.5)	17	(3.4)	17	(3.4)	4	(.8)	1.8	(2.2)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수와 더불어 동거인의 유형을 질문하였다(중복 응답). 동거인이 친인척·조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모·형제(35%)가 많았다. 이 외 친구(13.7%), 직장동료(5.9%), 배우자(5.4%), 이성 친구(4.8%), 시설선 후배(5.1%), 기타(2.7%) 순이었다(표 8-9).

232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표 8-9〉 함께 살고 있는 사람(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형제	친인척, 조부모	배우자	이성친구(애인)	시설선후배	직장동료	친구	기타
전체		1,127	395 (35.0)	430 (38.2)	61 (5.4)	54 (4.8)	58 (5.1)	67 (5.9)	154 (13.7)	30 (2.7)
성별	남	526	179 (34.0)	189 (35.9)	21 (4.0)	15 (2.9)	36 (6.8)	40 (7.6)	83 (15.8)	17 (3.2)
	여	601	216 (35.9)	241 (40.1)	40 (6.7)	39 (6.5)	22 (3.7)	27 (4.5)	71 (11.8)	13 (2.2)
연령	만 18~19세	211	76 (36.0)	76 (36.0)	8 (3.8)	4 (1.9)	21 (10.0)	10 (4.7)	39 (18.5)	5 (2.4)
	만 20~21세	441	152 (34.5)	167 (37.9)	17 (3.9)	29 (6.6)	21 (4.8)	20 (4.5)	68 (15.4)	11 (2.5)
	만 22~23세	310	108 (34.8)	122 (39.4)	19 (6.1)	15 (4.8)	13 (4.2)	23 (7.4)	36 (11.6)	8 (2.6)
	만 24세 이상	165	59 (35.8)	65 (39.4)	17 (10.3)	6 (3.6)	3 (1.8)	14 (8.5)	11 (6.7)	6 (3.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50	156 (34.7)	181 (40.2)	24 (5.3)	25 (5.6)	24 (5.3)	28 (6.2)	58 (12.9)	9 (2.0)
	2~3년제 대학교	166	71 (42.8)	45 (27.1)	8 (4.8)	6 (3.6)	15 (9.0)	6 (3.6)	23 (13.9)	4 (2.4)
	4년제 대학교 이상	511	168 (32.9)	204 (39.9)	29 (5.7)	23 (4.5)	19 (3.7)	33 (6.5)	73 (14.3)	17 (3.3)
부모 유무	있음	584	268 (45.9)	196 (33.6)	26 (4.5)	24 (4.1)	31 (5.3)	29 (5.0)	57 (9.8)	16 (2.7)
	없음	410	93 (22.7)	177 (43.2)	31 (7.6)	24 (5.9)	18 (4.4)	29 (7.1)	68 (16.6)	12 (2.9)
	모름	133	34 (25.6)	57 (42.9)	4 (3.0)	6 (4.5)	9 (6.8)	9 (6.8)	29 (21.8)	2 (1.5)
장애 유무	있음	62	22 (35.5)	12 (19.4)	2 (3.2)	5 (8.1)	10 (16.1)	4 (6.5)	4 (6.5)	6 (9.7)
	없음	1,065	373 (35.0)	418 (39.2)	59 (5.5)	49 (4.6)	48 (4.5)	63 (5.9)	150 (14.1)	24 (2.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340	112 (32.9)	114 (33.5)	15 (4.4)	25 (7.4)	10 (2.9)	51 (15.0)	42 (12.4)	7 (2.1)
	지역가입	177	66 (37.3)	72 (40.7)	24 (13.6)	8 (4.5)	7 (4.0)	4 (2.3)	13 (7.3)	4 (2.3)
	의료급여	610	217 (35.6)	244 (40.0)	22 (3.6)	21 (3.4)	41 (6.7)	12 (2.0)	99 (16.2)	19 (3.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324	111 (34.3)	19 (5.9)	27 (8.3)	17 (5.2)	42 (13.0)	27 (8.3)	84 (25.9)	13 (4.0)
	공동생활가정	80	31 (38.8)	8 (10.0)	6 (7.5)	6 (7.5)	9 (11.3)	5 (6.3)	17 (21.3)	3 (3.8)
	가정위탁	723	253 (35.0)	403 (55.7)	28 (3.9)	31 (4.3)	7 (1.0)	35 (4.8)	53 (7.3)	14 (1.9)
	가정 위탁	대리	248	97 (39.1)	163 (65.7)	10 (4.0)	6 (2.4)	1 (0.4)	7 (2.8)	13 (5.2)
		친인척	300	92 (30.7)	170 (56.7)	10 (3.3)	12 (4.0)	2 (0.7)	14 (4.7)	23 (7.7)
		일반	175	64 (36.6)	70 (40.0)	8 (4.6)	13 (7.4)	4 (2.3)	14 (8.0)	17 (9.7)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594	213 (35.9)	190 (32.0)	30 (5.1)	35 (5.9)	41 (6.9)	33 (5.6)	104 (17.5)	14 (2.4)
	연장종료	533	182 (34.1)	240 (45.0)	31 (5.8)	19 (3.6)	17 (3.2)	34 (6.4)	50 (9.4)	16 (3.0)

구분		사례수	부모, 형제	친인척, 조부모	배우자	이성친구(애인)	시설선후배	직장동료	친구	기타
보호 종료 연차	전체	1,127	395 (35.0)	430 (38.2)	61 (5.4)	54 (4.8)	58 (5.1)	67 (5.9)	154 (13.7)	30 (2.7)
	1년차	364	129 (35.4)	154 (42.3)	8 (2.2)	12 (3.3)	26 (7.1)	25 (6.9)	52 (14.3)	8 (2.2)
	2년차	306	113 (36.9)	124 (40.5)	14 (4.6)	15 (4.9)	12 (3.9)	13 (4.2)	41 (13.4)	7 (2.3)
	3년차	267	86 (32.2)	90 (33.7)	17 (6.4)	19 (7.1)	10 (3.7)	18 (6.7)	39 (14.6)	11 (4.1)
	4년차	109	36 (33.0)	35 (32.1)	9 (8.3)	4 (3.7)	8 (7.3)	7 (6.4)	16 (14.7)	3 (2.8)
	5년차	81	31 (38.3)	27 (33.3)	13 (16.0)	4 (4.9)	2 (2.5)	4 (4.9)	6 (7.4)	1 (1.2)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937	328 (35.0)	368 (39.3)	39 (4.2)	46 (4.9)	48 (5.1)	56 (6.0)	132 (14.1)	26 (2.8)
	비해당 (자립 4~5년차)	190	67 (35.3)	62 (32.6)	22 (11.6)	8 (4.2)	10 (5.3)	11 (5.8)	22 (11.6)	4 (2.1)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자녀, 배우자의 가족은 '③ 친인척, 조부모'에 포함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실태와 관련하여,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1순위부터 3순위 응답까지 확인하였다. 1순위 응답의 경우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항목이 48.1%로 과반에 달하였고, 그 다음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7.5%)’,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8.7%)’ 순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응답과 비교하면 주거비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0.8%p 높은 것을 제외하면 1순위 응답률의 순위가 동일하여, 향후 정부차원의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시 아동의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과 자기 공간 확보 여부, 직장(학교)과의 거리를 염두에 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순위 응답은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18.4%)’, ‘주거비 수준(18.3%)’,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17.8%)’ 등의 순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응답과 비교하면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보다 주거구조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3순위 응답은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18.4%)’,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17.5%)’, ‘대중교통 접근성(16.8%)’ 등의 순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비교하면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보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거상태를 좀 더 고려하였다.

한편,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마찬가지로 주거비 수준(76.2%)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은 주거상태(44.1%),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39%),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36%), 대중교통 접근성(33.1%), 주거환경(30.8%),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30.1%),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10.3%), 기타(0.2%) 순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응답과 비교하면 주거구조는 8.4%p, 대중교통 접근성은 4.8%p,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1.4%p가 각각 더 높았다(표 8-10).

〈표 8-10〉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544 (17.5)	209 (6.7)	180 (5.8)	933 (30.1)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1494 (48.1)	568 (18.3)	302 (9.8)	2364 (76.2)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212	(6.8)	551	(17.8)	355	(11.5)	1118	(36.0)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229	(7.4)	572	(18.4)	569	(18.4)	1370	(44.1)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271	(8.7)	479	(15.4)	461	(14.9)	1211	(39.0)
대중교통 접근성	153	(4.9)	352	(11.3)	521	(16.8)	1026	(33.1)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130	(4.2)	283	(9.1)	542	(17.5)	955	(30.8)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71	(2.3)	89	(2.9)	161	(5.2)	321	(10.3)
기타	-	-	1	(.0)	4	(.1)	5	(.2)

2. 주거자금 마련 방법과 주거지원 관련 욕구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자금 마련 방법을 확인하였다(중복 응답). 그 결과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사적인 방법보다 자립정착금(26.4%), 자립수당(24.1%), 디딤씨앗통장(CDA)(18%)과 같은 공적인 자산형성 및 현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본 조사 표본에서 근로소득(21.6%)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한 경우는 응답자 5명 중 1명 정도였고, 보호 중 받은 후원금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6.8% 수준이었다. 이 외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7.5%), 금융기관 대출(3.1%), 기타(2.0%), 시설/위탁부모가 마련(1.9%),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1.6%),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1.8%), 민간후원단체(0.7%) 순이었다(표 8-11).

한편, 연령이 높거나 보호종료 연차가 많을수록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보다 근로소득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전체의 34.1%로, 지역가입(22.4%)이나 의료급여 대상(14.2%) 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연장종료(23.8%)가 만기퇴소(19.8%)보다 근로소득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11〉 주거자금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부/공공기관 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 서비스 등)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 장(CDA)	자립수당	보호 중 받은 후원금	친부모/친인 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금융기관 에서 대출	친구/지인 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시설/위탁 부모가 마련해줌	민간후원 단체	근로소득	아동권리 보장원(아동 자립지원단)	기타
성별		전체	2,059	943 (45.8)	544 (26.4)	370 (18.0)	496 (24.1)	141 (6.8)	154 (7.5)	63 (3.1)	37 (1.8)	40 (1.9)	15 (0.7)	444 (21.6)	33 (1.6)	41 (2.0)
		남	942	446 (47.3)	226 (24.0)	163 (17.3)	199 (21.1)	66 (7.0)	68 (7.2)	25 (2.7)	15 (1.6)	11 (1.2)	3 (0.3)	202 (21.4)	13 (1.4)	21 (2.2)
		여	1,117	497 (44.5)	318 (28.5)	207 (18.5)	297 (26.6)	75 (6.7)	86 (7.7)	38 (3.4)	22 (2.0)	29 (2.6)	12 (1.1)	242 (21.7)	20 (1.8)	20 (1.8)
연령		만 18~19세	345	175 (50.7)	119 (34.5)	83 (24.1)	97 (28.1)	36 (10.4)	24 (7.0)	3 (0.9)	3 (0.9)	5 (1.4)	2 (0.6)	42 (12.2)	5 (1.4)	4 (1.2)
		만 20~21세	847	382 (45.1)	216 (25.5)	149 (17.6)	204 (24.1)	55 (6.5)	59 (7.0)	23 (2.7)	14 (1.7)	14 (1.7)	5 (0.6)	181 (21.4)	9 (1.1)	18 (2.1)
		만 22~23세	544	241 (44.3)	143 (26.3)	89 (16.4)	116 (21.3)	32 (5.9)	44 (8.1)	17 (3.1)	11 (2.0)	12 (2.2)	5 (0.9)	127 (23.3)	11 (2.0)	10 (1.8)
교육 수준		만 24세 이상	323	145 (44.9)	66 (20.4)	49 (15.2)	79 (24.5)	18 (5.6)	27 (8.4)	20 (6.2)	9 (2.8)	9 (2.8)	3 (0.9)	94 (29.1)	8 (2.5)	9 (2.8)
		고등학교 이하	731	302 (41.3)	174 (23.8)	137 (18.7)	138 (18.9)	44 (6.0)	58 (7.9)	21 (2.9)	16 (2.2)	9 (1.2)	3 (0.4)	169 (23.1)	7 (1.0)	18 (2.5)
		2~3년제 대학교	330	168 (50.9)	93 (28.2)	64 (19.4)	96 (29.1)	29 (8.8)	24 (7.3)	7 (2.1)	4 (1.2)	1 (0.3)	3 (0.9)	44 (13.3)	4 (1.2)	4 (1.2)
		4년제 대학교 이상	998	473 (47.4)	277 (27.8)	169 (16.9)	262 (26.3)	68 (6.8)	72 (7.2)	35 (3.5)	17 (1.7)	30 (3.0)	9 (0.9)	231 (23.1)	22 (2.2)	19 (1.9)
부모 유무		있음	1,020	456 (44.7)	286 (28.0)	179 (17.5)	250 (24.5)	72 (7.1)	96 (9.4)	38 (3.7)	14 (1.4)	19 (1.9)	9 (0.9)	220 (21.6)	18 (1.8)	16 (1.6)
		없음	782	362 (46.3)	200 (25.6)	153 (19.6)	188 (24.0)	51 (6.5)	50 (6.4)	19 (2.4)	17 (2.2)	13 (1.7)	3 (0.4)	167 (21.4)	11 (1.4)	17 (2.2)
		모름	257	125 (48.6)	58 (22.6)	38 (14.8)	58 (22.6)	18 (7.0)	8 (3.1)	6 (2.3)	6 (2.3)	8 (3.1)	3 (1.2)	57 (22.2)	4 (1.6)	8 (3.1)
장애 유무		있음	86	33 (38.4)	16 (18.6)	15 (17.4)	20 (23.3)	9 (10.5)	8 (9.3)	1 (1.2)	3 (3.5)	1 (1.2)	1 (1.2)	13 (15.1)	1 (1.2)	5 (5.8)
		없음	1,973	910 (46.1)	528 (26.8)	355 (18.0)	476 (24.1)	132 (6.7)	146 (7.4)	62 (3.1)	34 (1.7)	39 (2.0)	14 (0.7)	431 (21.8)	32 (1.6)	36 (1.8)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666	272 (41.5)	150 (22.9)	112 (17.1)	131 (20.0)	46 (7.0)	50 (7.6)	30 (4.6)	8 (1.2)	12 (1.8)	4 (0.6)	224 (34.1)	11 (1.7)	10 (1.5)
		지역가입	250	102 (40.8)	56 (22.4)	27 (10.8)	49 (19.6)	16 (6.4)	31 (12.4)	11 (4.4)	5 (2.0)	8 (3.2)	1 (0.4)	56 (22.4)	5 (2.0)	8 (3.2)
		의료급여	1,153	569 (49.3)	338 (29.3)	231 (20.0)	316 (27.4)	79 (6.9)	73 (6.3)	22 (1.9)	24 (2.1)	20 (1.7)	10 (0.9)	164 (14.2)	17 (1.5)	23 (2.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984	569 (57.8)	240 (24.4)	195 (19.8)	198 (20.1)	80 (8.1)	24 (2.4)	14 (1.4)	6 (0.6)	5 (0.5)	8 (0.8)	186 (18.9)	15 (1.5)	17 (1.7)
		공동생활가정	249	120 (48.2)	84 (33.7)	74 (29.7)	79 (31.7)	20 (8.0)	9 (3.6)	3 (1.2)	3 (1.2)	7 (2.8)	2 (0.8)	47 (18.9)	4 (1.6)	4 (1.6)
		가정위탁	826	254 (30.8)	220 (26.6)	101 (12.2)	219 (26.5)	41 (5.0)	121 (14.6)	46 (5.6)	28 (3.4)	28 (3.4)	5 (0.6)	211 (25.5)	14 (1.7)	20 (2.4)
	가정 위탁	대리	234	69 (29.5)	20 (8.5)	66 (28.2)	8 (3.4)	44 (18.8)	11 (4.7)	6 (2.6)	11 (4.7)	1 (0.4)	69 (29.5)	5 (2.1)	6 (2.6)	
		친인척	349	109 (31.2)	97 (27.8)	44 (12.6)	98 (28.1)	17 (4.9)	48 (13.8)	24 (6.9)	12 (3.4)	6 (1.7)	2 (0.6)	84 (24.1)	4 (1.1)	6 (1.7)
		일반	243	76 (31.3)	64 (26.3)	37 (15.2)	55 (22.6)	16 (6.6)	29 (11.9)	11 (4.5)	10 (4.1)	11 (4.5)	2 (0.8)	58 (23.9)	5 (2.1)	8 (3.3)

구분	사례수	정부/공공기관 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 서비스 등)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 장(CDA)	자립수당	보호 중 받은 후원금	친부모/친인 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금융기관 에서 대출	친구/지인 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시설/위탁 부모가 마련해줌	민간후원 단체	근로소득	아동권리 보장원(아동 자립지원단)	기타	
전체	2,059	943 (45.8)	544 (26.4)	370 (18.0)	496 (24.1)	141 (6.8)	154 (7.5)	63 (3.1)	37 (1.8)	40 (1.9)	15 (7)	444 (21.6)	33 (1.6)	41 (2.0)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146	540 (47.1)	292 (25.5)	232 (20.2)	273 (23.8)	81 (7.1)	76 (6.6)	30 (2.6)	16 (1.4)	16 (1.4)	4 (3)	227 (19.8)	11 (1.0)	25 (2.2)
	연장종료	913	403 (44.1)	252 (27.6)	138 (15.1)	223 (24.4)	60 (6.6)	78 (8.5)	33 (3.6)	21 (2.3)	24 (2.6)	11 (1.2)	217 (23.8)	22 (2.4)	16 (1.8)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531	238 (44.8)	170 (32.0)	86 (16.2)	149 (28.1)	46 (8.7)	50 (9.4)	4 (8)	10 (1.9)	13 (2.4)	3 (6)	90 (16.9)	7 (1.3)	9 (1.7)
	2년차	616	267 (43.3)	194 (31.5)	121 (19.6)	172 (27.9)	40 (6.5)	47 (7.6)	21 (3.4)	12 (1.9)	15 (2.4)	5 (8)	113 (18.3)	13 (2.1)	13 (2.1)
	3년차	557	266 (47.8)	120 (21.5)	95 (17.1)	113 (20.3)	35 (6.3)	35 (6.3)	24 (4.3)	11 (2.0)	7 (1.3)	3 (5)	132 (23.7)	8 (1.4)	13 (2.3)
	4년차	197	96 (48.7)	31 (15.7)	34 (17.3)	41 (20.8)	8 (4.1)	13 (6.6)	9 (4.6)	2 (1.0)	2 (1.0)	3 (1.5)	62 (31.5)	4 (2.0)	1 (5)
	5년차	158	76 (48.1)	29 (18.4)	34 (21.5)	21 (13.3)	12 (7.6)	9 (5.7)	5 (3.2)	2 (1.3)	3 (1.9)	1 (6)	47 (29.7)	1 (6)	5 (3.2)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704	771 (45.2)	484 (28.4)	302 (17.7)	434 (25.5)	121 (7.1)	132 (7.7)	49 (2.9)	33 (1.9)	35 (2.1)	11 (6)	335 (19.7)	28 (1.6)	35 (2.1)
	비해당 (자립 4~5년차)	355	172 (48.5)	60 (16.9)	68 (19.2)	62 (17.5)	20 (5.6)	22 (6.2)	14 (3.9)	4 (1.1)	5 (1.4)	4 (1.1)	109 (30.7)	5 (1.4)	6 (1.7)

3. 취약 주거 경험

보호종료 이후 주거 경험과 관련하여 이사 횟수와 취약 주거 경험(중복 응답)을 확인하였다. 먼저 이사 횟수를 보면, 보호종료 후 조사 시점 현재까지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회(30.5%), 2회(16.9%), 3회(7.5%), 5회 이상(1.9%), 4회(1.6%) 순으로, 4회 이상 이사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5%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44.5%)가 여자(39.2%) 보다 이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낮을수록 이사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외 건강보험의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다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이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자립수당 대상이 아닌 경우(자립 4, 5년차) 대상인 경우 보다, 부모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보다 이사를 2회 이상 다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2〉 이사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χ ²
성별	전체	3,104	1,294 (41.7)	946 (30.5)	524 (16.9)	233 (7.5)	49 (1.6)	58 (1.9)	11.9*
	남	1,461	650 (44.5)	439 (30.0)	228 (15.6)	99 (6.8)	23 (1.6)	22 (1.5)	
	여	1,643	644 (39.2)	507 (30.9)	296 (18.0)	134 (8.2)	26 (1.6)	36 (2.2)	
연령	만 18~19세	600	354 (59.0)	190 (31.7)	37 (6.2)	11 (1.8)	4 (0.7)	4 (0.7)	173***
	만 20~21세	1,289	527 (40.9)	382 (29.6)	231 (17.9)	100 (7.8)	23 (1.8)	26 (2.0)	
	만 22~23세	778	287 (36.9)	239 (30.7)	147 (18.9)	75 (9.6)	13 (1.7)	17 (2.2)	
	만 24세 이상	437	126 (28.8)	135 (30.9)	109 (24.9)	47 (10.8)	9 (2.1)	11 (2.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16 (44.7)	316 (27.4)	166 (14.4)	100 (8.7)	28 (2.4)	28 (2.4)	54.1***
	2~3년제 대학교	524	243 (46.4)	174 (33.2)	68 (13.0)	27 (5.2)	4 (0.8)	8 (1.5)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535 (37.5)	456 (32.0)	290 (20.3)	106 (7.4)	17 (1.2)	22 (1.5)	
부모유무	있음	1,512	620 (41.0)	495 (32.7)	238 (15.7)	115 (7.6)	18 (1.2)	26 (1.7)	20.0*
	없음	1,198	492 (41.1)	339 (28.3)	224 (18.7)	99 (8.3)	22 (1.8)	22 (1.8)	
	모름	394	182 (46.2)	112 (28.4)	62 (15.7)	19 (4.8)	9 (2.3)	10 (2.5)	
장애유무	있음	132	73 (55.3)	28 (21.2)	10 (7.6)	16 (12.1)	0 (0.0)	5 (3.8)	25.9***
	없음	2,972	1,221 (41.1)	918 (30.9)	514 (17.3)	217 (7.3)	49 (1.6)	53 (1.8)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960	345 (35.9)	305 (31.8)	188 (19.6)	85 (8.9)	16 (1.7)	21 (2.2)	62.7***
	지역가입	374	137 (36.6)	99 (26.5)	68 (18.2)	46 (12.3)	12 (3.2)	12 (3.2)	
	의료급여	1,770	812 (45.9)	542 (30.6)	268 (15.1)	102 (5.8)	21 (1.2)	25 (1.4)	

구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χ ²	
전체		3,104	1,294 (41.7)	946 (30.5)	524 (16.9)	233 (7.5)	49 (1.6)	58 (1.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63 (39.7)	435 (30.7)	241 (17.0)	119 (8.4)	29 (2.0)	30 (2.1)	18.9*	
	공동생활가정	332	131 (39.5)	113 (34.0)	66 (19.9)	16 (4.8)	2 (0.6)	4 (1.2)		
	가정위탁	1,355	600 (44.3)	398 (29.4)	217 (16.0)	98 (7.2)	18 (1.3)	24 (1.8)		
	가정 위탁	대리	403	184 (45.7)	129 (32.0)	62 (15.4)	21 (5.2)	4 (1.0)	3 (0.7)	17.6
		친인척	564	244 (43.3)	158 (28.0)	100 (17.7)	48 (8.5)	5 (0.9)	9 (1.6)	
		일반	388	172 (44.3)	111 (28.6)	55 (14.2)	29 (7.5)	9 (2.3)	12 (3.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63 (39.7)	435 (30.7)	241 (17.0)	119 (8.4)	29 (2.0)	30 (2.1)	35.2*	
	공동생활가정	332	131 (39.5)	113 (34.0)	66 (19.9)	16 (4.8)	2 (0.6)	4 (1.2)		
	대리 가정위탁	403	184 (45.7)	129 (32.0)	62 (15.4)	21 (5.2)	4 (1.0)	3 (0.7)		
	친인척 가정위탁	564	244 (43.3)	158 (28.0)	100 (17.7)	48 (8.5)	5 (0.9)	9 (1.6)		
	일반 가정위탁	388	172 (44.3)	111 (28.6)	55 (14.2)	29 (7.5)	9 (2.3)	12 (3.1)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732 (41.3)	536 (30.2)	297 (16.7)	140 (7.9)	34 (1.9)	35 (2.0)	4.4	
	연장종료	1,330	562 (42.3)	410 (30.8)	227 (17.1)	93 (7.0)	15 (1.1)	23 (1.7)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08 (58.1)	295 (33.7)	49 (5.6)	17 (1.9)	2 (0.2)	4 (0.5)	462.0***	
	2년차	921	436 (47.3)	282 (30.6)	136 (14.8)	44 (4.8)	13 (1.4)	10 (1.1)		
	3년차	805	244 (30.3)	231 (28.7)	207 (25.7)	86 (10.7)	13 (1.6)	24 (3.0)		
	4년차	280	67 (23.9)	79 (28.2)	70 (25.0)	45 (16.1)	10 (3.6)	9 (3.2)		
	5년차	223	39 (17.5)	59 (26.5)	62 (27.8)	41 (18.4)	11 (4.9)	11 (4.9)		
자립 수당대 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188 (45.7)	808 (31.1)	392 (15.1)	147 (5.7)	28 (1.1)	38 (1.5)	207.6***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06 (21.1)	138 (27.4)	132 (26.2)	86 (17.1)	21 (4.2)	20 (4.0)		

다음으로 보호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지인의 집, 구급시설, 노숙,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영구적인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조사 표본에서 전체 응답자의 79.4%가 이와 같은 곳에서 생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2명(20.6%) 정도가 취약 주거³³⁾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주거를 경험한 경우 친구/지인 집(17.2%)에서 생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시원(4.4%),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3.2%), 노숙(PC방, 만화방 등)(1.7%),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1.1%), 노숙인시설·미혼모/한부모시설·소년원/구치소/교도소(각 0.3%) 순이었다. 7.4%는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 보다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3년 이하보다 4, 5년 차인 경우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33) 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의 한 종류로 취약 주거 경험 통계에서는 제외됨. 단, 영속적인 주거 안정성 실태 확인의 측면에서 조사 항목에 포함함.

24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표 8-13〉 취약 주거 경험(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립생활관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친구/지인 집	고시원	노숙(PC방, 만화방 등)	노숙인 시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미혼모/ 한부모시설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없음	
전체		3,104	231 (7.4)	35 (1.1)	533 (17.2)	136 (4.4)	54 (1.7)	8 (.3)	99 (3.2)	9 (.3)	10 (.3)	2,234 (72.0)	
성별	남	1,461	108 (7.4)	20 (1.4)	281 (19.2)	81 (5.5)	36 (2.5)	6 (.4)	66 (4.5)	1 (.1)	6 (.4)	1,010 (69.1)	
	여	1,643	123 (7.5)	15 (.9)	252 (15.3)	55 (3.3)	18 (1.1)	2 (.1)	33 (2.0)	8 (.5)	4 (.2)	1,224 (74.5)	
연령	만 18~19세	600	52 (8.7)	12 (2.0)	114 (19.0)	10 (1.7)	15 (2.5)	0 (.0)	19 (3.2)	1 (.2)	4 (.7)	429 (71.5)	
	만 20~21세	1,289	96 (7.4)	11 (.9)	225 (17.5)	62 (4.8)	26 (2.0)	6 (.5)	52 (4.0)	3 (.2)	3 (.2)	904 (70.1)	
교육수준	만 22~23세	778	52 (6.7)	11 (1.4)	127 (16.3)	40 (5.1)	11 (1.4)	1 (.1)	18 (2.3)	3 (.4)	3 (.4)	575 (73.9)	
	만 24세 이상	437	31 (7.1)	1 (.2)	67 (15.3)	24 (5.5)	2 (.5)	1 (.2)	10 (2.3)	2 (.5)	0 (.0)	326 (74.6)	
	고등학교 이하	1,154	83 (7.2)	17 (1.5)	214 (18.5)	50 (4.3)	28 (2.4)	3 (.3)	61 (5.3)	4 (.3)	7 (.6)	797 (69.1)	
	2~3년제 대학교	524	51 (9.7)	7 (1.3)	106 (20.2)	20 (3.8)	11 (2.1)	2 (.4)	10 (1.9)	1 (.2)	2 (.4)	357 (68.1)	
부모유무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97 (6.8)	11 (.8)	213 (14.9)	66 (4.6)	15 (1.1)	3 (.2)	28 (2.0)	4 (.3)	1 (.1)	1,080 (75.7)	
	있음	1,512	118 (7.8)	13 (.9)	213 (14.1)	51 (3.4)	25 (1.7)	3 (.2)	45 (3.0)	6 (.4)	5 (.3)	1,135 (75.1)	
	없음	1,198	83 (6.9)	17 (1.4)	237 (19.8)	62 (5.2)	21 (1.8)	5 (.4)	42 (3.5)	2 (.2)	3 (.3)	834 (69.6)	
	모름	394	30 (7.6)	5 (1.3)	83 (21.1)	23 (5.8)	8 (2.0)	0 (.0)	12 (3.0)	1 (.3)	2 (.5)	265 (67.3)	
장애유무	있음	132	25 (18.9)	2 (1.5)	16 (12.1)	3 (2.3)	3 (2.3)	1 (.8)	1 (.8)	0 (.0)	0 (.0)	86 (65.2)	
	없음	2,972	206 (6.9)	33 (1.1)	517 (17.4)	133 (4.5)	51 (1.7)	7 (.2)	98 (3.3)	9 (.3)	10 (.3)	2,148 (72.3)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960	52 (5.4)	6 (.6)	150 (15.6)	35 (3.6)	6 (.6)	0 (.0)	30 (3.1)	1 (.1)	3 (.3)	723 (75.3)	
	지역가입	374	14 (3.7)	4 (1.1)	64 (17.1)	21 (5.6)	6 (1.6)	2 (.5)	13 (3.5)	0 (.0)	0 (.0)	279 (74.6)	
	의료급여	1,770	165 (9.3)	25 (1.4)	319 (18.0)	80 (4.5)	42 (2.4)	6 (.3)	56 (3.2)	8 (.5)	7 (.4)	1,232 (69.6)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76 (12.4)	21 (1.5)	279 (19.7)	73 (5.2)	24 (1.7)	4 (.3)	45 (3.2)	4 (.3)	7 (.5)	911 (64.3)	
	공동생활가정	332	37 (11.1)	6 (1.8)	52 (15.7)	14 (4.2)	5 (1.5)	3 (.9)	6 (1.8)	2 (.6)	1 (.3)	235 (70.8)	
	가정위탁	1,355	18 (1.3)	8 (.6)	202 (14.9)	49 (3.6)	25 (1.8)	1 (.1)	48 (3.5)	3 (.2)	2 (.1)	1,088 (80.3)	
	가정위탁	대리	403	4 (1.0)	1 (.2)	56 (13.9)	17 (4.2)	7 (1.7)	0 (.0)	14 (3.5)	1 (.2)	0 (.0)	331 (82.1)
		친인척	564	6 (1.1)	3 (.5)	82 (14.5)	22 (3.9)	11 (2.0)	1 (.2)	16 (2.8)	1 (.2)	1 (.2)	455 (80.7)
보호종료유형	일반	388	8 (2.1)	4 (1.0)	64 (16.5)	10 (2.6)	7 (1.8)	0 (.0)	18 (4.6)	1 (.3)	1 (.3)	302 (77.8)	
	만기퇴소	1,774	165 (9.3)	22 (1.2)	327 (18.4)	76 (4.3)	36 (2.0)	5 (.3)	66 (3.7)	5 (.3)	8 (.5)	1,210 (68.2)	
	연장종료	1,330	66 (5.0)	13 (1.0)	206 (15.5)	60 (4.5)	18 (1.4)	3 (.2)	33 (2.5)	4 (.3)	2 (.2)	1,024 (77.0)	

구분		사례수	자립생활관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친구/지인 집	고시원	노숙(PC방, 만화방 등)	노숙인 시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미혼모/ 한부모시설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없음
전체		3,104	231 (7.4)	35 (1.1)	533 (17.2)	136 (4.4)	54 (1.7)	8 (.3)	99 (3.2)	9 (.3)	10 (.3)	2,234 (72.0)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61 (7.0)	11 (1.3)	129 (14.7)	25 (2.9)	17 (1.9)	3 (.3)	23 (2.6)	2 (.2)	4 (.5)	667 (76.2)
	2년차	921	60 (6.5)	13 (1.4)	144 (15.6)	36 (3.9)	14 (1.5)	2 (.2)	30 (3.3)	5 (.5)	2 (.2)	679 (73.7)
	3년차	805	68 (8.4)	7 (.9)	153 (19.0)	50 (6.2)	17 (2.1)	2 (.2)	28 (3.5)	2 (.2)	3 (.4)	541 (67.2)
	4년차	280	23 (8.2)	1 (.4)	68 (24.3)	14 (5.0)	5 (1.8)	0 (.0)	12 (4.3)	0 (.0)	1 (.4)	186 (66.4)
	5년차	223	19 (8.5)	3 (1.3)	39 (17.5)	11 (4.9)	1 (.4)	1 (.4)	6 (2.7)	0 (.0)	0 (.0)	161 (72.2)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89 (7.3)	31 (1.2)	426 (16.4)	111 (4.3)	48 (1.8)	7 (.3)	81 (3.1)	9 (.3)	9 (.3)	1,887 (72.5)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42 (8.3)	4 (.8)	107 (21.3)	25 (5.0)	6 (1.2)	1 (.2)	18 (3.6)	0 (.0)	1 (.2)	347 (69.0)

242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표 8-14〉 취약 주거 경험(중복 응답) _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 제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친구/지인 집		고시원		노숙(PC방, 만화방 등)		노숙인 시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미혼모/ 한부모시설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없음		
전체		3,104	35	(1.1)	533	(17.2)	136	(4.4)	54	(1.7)	8	(.3)	99	(3.2)	9	(.3)	10	(.3)	2,465	(79.4)	
성별	남	1,461	20	(1.4)	281	(19.2)	81	(5.5)	36	(2.5)	6	(.4)	66	(4.5)	1	(.1)	6	(.4)	1,118	(76.5)	
	여	1,643	15	(.9)	252	(15.3)	55	(3.3)	18	(1.1)	2	(.1)	33	(2.0)	8	(.5)	4	(.2)	1,347	(82.0)	
연령	만 18~19세	600	12	(2.0)	114	(19.0)	10	(1.7)	15	(2.5)	0	(.0)	19	(3.2)	1	(.2)	4	(.7)	481	(80.2)	
	만 20~21세	1,289	11	(.9)	225	(17.5)	62	(4.8)	26	(2.0)	6	(.5)	52	(4.0)	3	(.2)	3	(.2)	1,000	(77.5)	
	만 22~23세	778	11	(1.4)	127	(16.3)	40	(5.1)	11	(1.4)	1	(.1)	18	(2.3)	3	(.4)	3	(.4)	627	(80.6)	
	만 24세 이상	437	1	(.2)	67	(15.3)	24	(5.5)	2	(.5)	1	(.2)	10	(2.3)	2	(.5)	0	(.0)	357	(8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7	(1.5)	214	(18.5)	50	(4.3)	28	(2.4)	3	(.3)	61	(5.3)	4	(.3)	7	(.6)	880	(76.3)	
	2~3년제 대학교	524	7	(1.3)	106	(20.2)	20	(3.8)	11	(2.1)	2	(.4)	10	(1.9)	1	(.2)	2	(.4)	408	(77.8)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1	(.8)	213	(14.9)	66	(4.6)	15	(1.1)	3	(.2)	28	(2.0)	4	(.3)	1	(.1)	1,177	(82.5)	
부모 유무	있음	1,512	13	(.9)	213	(14.1)	51	(3.4)	25	(1.7)	3	(.2)	45	(3.0)	6	(.4)	5	(.3)	1,253	(82.9)	
	없음	1,198	17	(1.4)	237	(19.8)	62	(5.2)	21	(1.8)	5	(.4)	42	(3.5)	2	(.2)	3	(.3)	917	(76.5)	
	모름	394	5	(1.3)	83	(21.1)	23	(5.8)	8	(2.0)	0	(.0)	12	(3.0)	1	(.3)	2	(.5)	295	(74.9)	
장애 유무	있음	132	2	(1.5)	16	(12.1)	3	(2.3)	3	(2.3)	1	(.8)	1	(.8)	0	(.0)	0	(.0)	111	(84.1)	
	없음	2,972	33	(1.1)	517	(17.4)	133	(4.5)	51	(1.7)	7	(.2)	98	(3.3)	9	(.3)	10	(.3)	2,354	(79.2)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6	(.6)	150	(15.6)	35	(3.6)	6	(.6)	0	(.0)	30	(3.1)	1	(.1)	3	(.3)	775	(80.7)	
	지역가입	374	4	(1.1)	64	(17.1)	21	(5.6)	6	(1.6)	2	(.5)	13	(3.5)	0	(.0)	0	(.0)	293	(78.3)	
	의료급여	1,770	25	(1.4)	319	(18.0)	80	(4.5)	42	(2.4)	6	(.3)	56	(3.2)	8	(.5)	7	(.4)	1,397	(78.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1	(1.5)	279	(19.7)	73	(5.2)	24	(1.7)	4	(.3)	45	(3.2)	4	(.3)	7	(.5)	1,087	(76.7)	
	공동생활가정	332	6	(1.8)	52	(15.7)	14	(4.2)	5	(1.5)	3	(.9)	6	(1.8)	2	(.6)	1	(.3)	272	(81.9)	
	가정위탁	1,355	8	(.6)	202	(14.9)	49	(3.6)	25	(1.8)	1	(.1)	48	(3.5)	3	(.2)	2	(.1)	1,106	(81.6)	
	가정 위탁	대리	403	1	(.2)	56	(13.9)	17	(4.2)	7	(1.7)	0	(.0)	14	(3.5)	1	(.2)	0	(.0)	335	(83.1)
		친인척	564	3	(.5)	82	(14.5)	22	(3.9)	11	(2.0)	1	(.2)	16	(2.8)	1	(.2)	1	(.2)	461	(81.8)
보호 종료 유형	일반	388	4	(1.0)	64	(16.5)	10	(2.6)	7	(1.8)	0	(.0)	18	(4.6)	1	(.3)	1	(.3)	310	(79.9)	
	만기퇴소	1,774	22	(1.2)	327	(18.4)	76	(4.3)	36	(2.0)	5	(.3)	66	(3.7)	5	(.3)	8	(.5)	1,375	(77.5)	
	연장종료	1,330	13	(1.0)	206	(15.5)	60	(4.5)	18	(1.4)	3	(.2)	33	(2.5)	4	(.3)	2	(.2)	1,090	(82.0)	

구분		사례수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친구/지인 집	고시원	노숙(PC방, 만화방 등)	노숙인 시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미혼모/ 한부모시설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없음
전체		3,104	35 (1.1)	533 (17.2)	136 (4.4)	54 (1.7)	8 (.3)	99 (3.2)	9 (.3)	10 (.3)	2,465 (79.4)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11 (1.3)	129 (14.7)	25 (2.9)	17 (1.9)	3 (.3)	23 (2.6)	2 (.2)	4 (.5)	728 (83.2)
	2년차	921	13 (1.4)	144 (15.6)	36 (3.9)	14 (1.5)	2 (.2)	30 (3.3)	5 (.5)	2 (.2)	739 (80.2)
	3년차	805	7 (.9)	153 (19.0)	50 (6.2)	17 (2.1)	2 (.2)	28 (3.5)	2 (.2)	3 (.4)	609 (75.6)
	4년차	280	1 (.4)	68 (24.3)	14 (5.0)	5 (1.8)	0 (.0)	12 (4.3)	0 (.0)	1 (.4)	209 (74.6)
	5년차	223	3 (1.3)	39 (17.5)	11 (4.9)	1 (.4)	1 (.4)	6 (2.7)	0 (.0)	0 (.0)	180 (80.7)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31 (1.2)	426 (16.4)	111 (4.3)	48 (1.8)	7 (.3)	81 (3.1)	9 (.3)	9 (.3)	2,076 (79.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4 (.8)	107 (21.3)	25 (5.0)	6 (1.2)	1 (.2)	18 (3.6)	0 (.0)	1 (.2)	389 (77.3)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및 조사결과 비교

1.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앞에서 살펴본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각각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다. 먼저 두 집단 모두 1순위 응답과 각 순위 응답을 합산한 전체 응답률 모두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이 가장 많고, 1순위 응답별 순위 역시 ‘주거비 수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주거상태’, ‘주거구조’ 순으로 동일하였다. 다만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예정아동 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1.5%p 높고,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직장(또는 학교)와의 거리’에 대한 고려가 2.5%p 높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률을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한데, 본 조사 표본에서 보호종료아동은 ‘주거구조’와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주거상태’와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주거환경’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만 두 집단 간 차이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주거지 선택 시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 중 자립지원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개인별 주거비 마련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보호종료아동의 근로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8-15〉 주거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1순위		1,2,3순위 통합		1순위		1,2,3순위 통합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732	100.0	3,104	100.0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146	(19.9)	225	(30.7)	544	(17.5)	933	(30.1)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346	(47.3)	569	(77.7)	1494	(48.1)	2364	(76.2)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37	(5.1)	202	(27.6)	212	(6.8)	1118	(36.0)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51	(7.0)	342	(46.7)	229	(7.4)	1370	(44.1)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82	(11.2)	349	(47.7)	271	(8.7)	1211	(39.0)
대중교통 접근성	25	(3.4)	207	(28.3)	153	(4.9)	1026	(33.1)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26	(3.6)	234	(32.0)	130	(4.2)	955	(30.8)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16	(2.2)	65	(8.9)	71	(2.3)	321	(10.3)
기타	3	(0.4)	3	(0.4)	-	-	5	(.2)

2.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주거 유형

가. 시계열 비교

각 연도별 조사시점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유형을 확인하였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부터 4년을 주기로 실시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영구/공공/국민임대, LH·SH 등 전세임대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영구/공공/국민임대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년 현재 3.3%p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세임대는 40.1%p 증가하여 지난 10여 년 간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일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이다.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경우 2016년 이후 감소하여 '16년 대비 4.1%p 감소한 반면, 일반전세의 경우 '16년까지 감소하다 올해 1.4%p 증가하였다.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는 '16년에 전년 대비 3.6%p 증가하다 올해 다시 7%p 감소하였는데, 보증금 있는 올해는 '16년에 비해 올해 7.9%p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보증금 없는 월

세는 0.9%p 증가하였다. 반면 자가 비율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올해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취약 주거의 대표적 사례인 고시원의 경우 2008년 이후 감소하여 올해는 응답자 대비 0.6%(20명)였고, 같은 기간 (학교/회사)기숙사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올해 3.8%(119명) 수준이었다. 부모님 집의 경우 '16년 대비 1.5%p 증가, 친구 집은 '16년부터 감소하여 올해는 1.4%(45명)였다. 친척 집의 경우 '08년에 비해 '12년에 감소했으나 '1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한편 조사시점 현재 보호종료 후 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08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올해는 2.7%(85명)였다. 이 외 청년층을 둘러싼 주거 환경과 주거지원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20년 조사에서 처음 확인한 공유 주거(share house)는 0.1%(2명),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경우는 1.9%(58명)로 확인되었다. 이 외 쪽방 거주자는 '12년 이후 전무하였다.

〈표 8-16〉 현재 주거 유형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전체	1,612 (100.0)	640 (100.0)	1,084 (100.0)	3,104 (100.0)
영구/공공/국민임대	23 (1.4)	8 (1.3)	18 (1.7)	146 (4.7)
LH, SH 등 전세임대	50 (3.1)	105 (16.4)	368 (33.9)	1,342 (43.2)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159 (9.9)	119 (18.6)	80 (7.4)	98 (3.2)
일반전세	264 (16.4)	39 (6.1)	41 (3.8)	161 (5.2)
보증금 있는 월세	504 (31.3)	157 (24.5)	289 (26.7)	584 (18.8)
보증금 없는 월세			15 (1.4)	70 (2.3)
자가	41 (2.5)	7 (1.1)	14 (1.3)	54 (1.7)
고시원	29 (1.8)	15 (2.3)	9 (0.8)	20 (0.6)
기숙사(학교/회사)	283 (17.6)	92 (14.4)	84 (7.7)	119 (3.8)
부모님 집	-	24 (3.8)	23 (2.1)	111 (3.6)
친구 집	54 (3.3)	30 (4.7)	27 (2.5)	45 (1.4)
친척 집	39 (2.4)	12 (1.9)	54 (5.0)	167 (5.4)
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56 (3.5)	10 (1.6)	21 (2.0)	85 (2.7)
공유주택	(0.0)	-	-	2 (0.1)
일정하지 않음	-	-	-	58 (1.9)
쪽방	25 (1.6)	-	-	-
기타	85 (5.3)	22 (3.4)	41 (3.8)	42 (1.4)

다음으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수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올해 평균 동거인 수는 1.9명(SD=2.9)으로 '16년의 2.1명(SD=2.9) 보다 약 1명 감소하였는데, 혼자 사는 비율은 '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올해 62.5%로 '16년 대비 11.5%p, '08년 대비 29.7%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형제와 같이 사는 비율은 '08년 대비 '12년에 감소하였으나 '16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였고 올해 다시 '16년 대비 4.2%p 감소하는 등 등락을 보였다(표 8-16).

〈표 8-17〉 동거인 수 및 동거인 유형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평균 동거인 수 (M, SD)	혼자 사는 비율	부모형제와 같이 사는 비율
2020	1.9 (2.9)	62.5%	12.7%
2016	2.1 (2.9)	51.0%	16.9%
2012	-	41.8%	13.2%
2008	-	32.8%	21.7%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마련 방법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면(중복 응답), '16년 대비 올해 증가한 항목은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11.6%p, 디딤씨앗통장(CDA) 7%p, 보호 중 받은 후원금 1.8%p, 금융기관 대출 2.6%p,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 1.1%p, 근로소득 8%p였다. 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와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지방)정부와 일선 기관 및 시설, 위탁부모와 민간이 아동의 자립 역량 제고와 자립 종자돈(seed money)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성과(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16년 대비 시설/위탁부모가 마련은 1.1%p,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은 4.2%p³⁴⁾, 기타는 12.6%p씩 각각 감소하였다. 올해 신설 항목인 자립수당의 경우 전체의 24.1%(496명)를 기록하였다.

34) 2019년 7월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였고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아동자립지원단이 보장원 내 자립지원부로 통합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의 자체 사업이 아닌 정부차원의 주거지원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였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응답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8-18〉 주거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0년
전체	1,480	2,059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414 (34.2)	943 (45.8)
자립정착금	319 (26.4)	544 (26.4)
디딤씨앗통장(CDA)	133 (11.0)	370 (18.0)
자립수당	-	496 (24.1)
보호 중 받은 후원금	61 (5.0)	141 (6.8)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83 (6.9)	154 (7.5)
금융기관에서 대출	6 (0.5)	63 (3.1)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9 (0.7)	37 (1.8)
시설/위탁부모가 마련해줌	36 (3.0)	40 (1.9)
민간후원 단체	7 (0.6)	15 (0.7)
근로소득	165 (13.6)	444 (21.6)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	70 (5.8)	33 (1.6)
기타	177 (14.6)	41 (2.0)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본 조사에서 파악된 보호종료아동의 가구 내 가구원 수를 '19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와 비교한 결과 보호종료아동의 가구원 수는 평균 1.9명으로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2.39명) 보다 낮았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1인 가구 비율이 32.3%p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시 주거 면적 대비 가구원 총 수와 1인 가구의 특성과 수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8-19〉 동거인 수 및 1인 가구 비율 - 타 조사 비교

(단위: 명, %)

조사명	가구원 수 평균	1인 가구 비율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9	61.6%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2.39	30.2%

주: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경우 가구원 수는 동거인 수를 의미함

2)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임

자료: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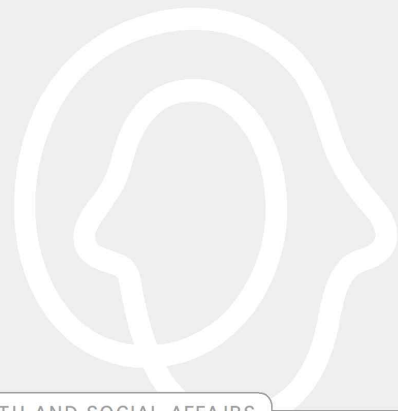
제4절 소결

본 조사 표본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9명 이상(93.2%)이 보호종료 후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과반 이상(57.8%)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거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6.8%에 불과하였다. 특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이었는데, 조사 대상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7.3%가 보호종료 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였다. 이 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지역을 선호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도 지역이나 중소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기간 중 아동의 주거지역과 주거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 주거에서 거주하거나 주거 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약 7명이 보호종료 후 주거 유형으로 ‘나 혼자 사는 집’을 선호하였다. 실제 본 조사 표본 보호종료아동의 가구원 수는 평균 1.9명으로 2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2.39명) 보다도 적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시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주거지 선택 시 주거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주거 상태나 주거환경에 비해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일반 청년들의 주거 관련 수요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호종료청년’ 1인 가구의 요구를 고려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20.6%가 보호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지인의 집, 구금시설, 노숙,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영구적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 보다 남자,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4, 5년 차인 경우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취약 경험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범죄 피해 등 2차적인 위기를 유발하거나 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이사 경험과 관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이 높고 보호종료 연차가 많을수록,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경우 이사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진학과 취업,

지원이 가능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유무에 따라 주거지 변경이 잦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한 법적 사후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 후 5년까지라도 이사 과정에서 주택 선정과 계약, 집기 구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9장

교육 영역

-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 실태
-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실태
-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 제4절 조사결과 비교
- 제5절 소결

제9장 교육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 실태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의 현재의 교육수준을 조사한 결과, 324명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었고(44.3%, 중학교 재학 2명 포함), 고등학교 졸업은 91명이었다(12.4%, 고등학교 중퇴·휴학 5명 포함). 즉,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15명, 56.7%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다.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전체의 19.5%를 차지하는 143명이었고, 이미 졸업한 경우도 17명(2.3%)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가 있는 경우와 없거나 부모의 생존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 교육수준이 다른지를 살펴보면, 부모(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380명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180명(47.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재학 중 16.6%(63명), 2~3년제 대학교 재학 중 16.1%(61명), 고등학교 졸업 12.6%(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250명의 경우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전체의 42.0%(105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실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호 유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256명 가운데, 60.9%(156명)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16.0%(41명)은 고등학교 졸업의 상태였으며, 12.5%(32명)는 2~3년제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5명의 교육수준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가정위탁 아동 421명의 다소 상이한 교육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가정위탁 아동 421명의 31.8%(134명)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29.2%(123명)는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고 18.8%(79명) 2~3년제 대학 재학 중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도 8.8%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가정위탁 아동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리 가정위탁보다 친인척과 일반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높았다.

〈표 9-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에 따른 교육수준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중퇴/휴학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재학중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중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4년제 대학교 졸업	χ^2
전체		732	2 (0.3)	322 (44.0)	5 (0.7)	86 (11.7)	119 (16.3)	10 (1.4)	18 (2.5)	143 (19.5)	10 (1.4)	17 (2.3)	
성별	남	366	1 (0.3)	172 (47.0)	3 (0.8)	49 (13.4)	55 (15.0)	7 (1.9)	13 (3.6)	54 (14.8)	4 (1.1)	8 (2.2)	18.2*
	여	366	1 (0.3)	150 (41.0)	2 (0.5)	37 (10.1)	64 (17.5)	3 (0.8)	5 (1.4)	89 (24.3)	6 (1.6)	9 (2.5)	
연령	만 17세	103	0 (0.0)	87 (84.5)	1 (1.0)	15 (14.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57.4***
	만 18세	287	1 (0.3)	226 (78.7)	4 (1.4)	40 (13.9)	7 (2.4)	2 (0.7)	1 (0.3)	4 (1.4)	1 (0.3)	1 (0.3)	
	만 19세 이상	342	1 (0.3)	9 (2.6)	0 (0.0)	31 (9.1)	112 (32.7)	8 (2.3)	17 (5.0)	139 (40.6)	9 (2.6)	16 (4.7)	
부모 유무	있음	380	0 (0.0)	180 (47.4)	3 (0.8)	48 (12.6)	61 (16.1)	4 (1.1)	9 (2.4)	63 (16.6)	4 (1.1)	8 (2.1)	20.5
	없음	250	2 (0.8)	105 (42.0)	1 (0.4)	23 (9.2)	35 (14.0)	4 (1.6)	7 (2.8)	60 (24.0)	5 (2.0)	8 (3.2)	
	모름	102	0 (0.0)	37 (36.3)	1 (1.0)	15 (14.7)	23 (22.5)	2 (2.0)	2 (2.0)	20 (19.6)	1 (1.0)	1 (1.0)	
장애 유무	있음	37	1 (2.7)	18 (48.6)	0 (0.0)	9 (24.3)	4 (10.8)	0 (0.0)	2 (5.4)	3 (8.1)	0 (0.0)	0 (0.0)	20.8*
	없음	695	1 (0.1)	304 (43.7)	5 (0.7)	77 (11.1)	115 (16.5)	10 (1.4)	16 (2.3)	140 (20.1)	10 (1.4)	17 (2.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 (0.4)	156 (60.9)	1 (0.4)	41 (16.0)	32 (12.5)	1 (0.4)	2 (0.8)	18 (7.0)	0 (0.0)	4 (1.6)	117.4***
	공동생활가정	55	0 (0.0)	32 (58.2)	1 (1.8)	8 (14.5)	8 (14.5)	0 (0.0)	4 (7.3)	2 (3.6)	0 (0.0)	0 (0.0)	
	가정위탁	421	1 (0.2)	134 (31.8)	3 (0.7)	37 (8.8)	79 (18.8)	9 (2.1)	12 (2.9)	123 (29.2)	10 (2.4)	13 (3.1)	
	가정 위탁	대리	180	0 (0.0)	65 (36.1)	2 (1.1)	22 (12.2)	37 (20.6)	3 (1.7)	3 (1.7)	41 (22.8)	5 (2.8)	27.1
		친인척	148	1 (0.7)	46 (31.1)	0 (0.0)	7 (4.7)	24 (16.2)	3 (2.0)	5 (3.4)	54 (36.5)	1 (0.7)	
보호 유형 2	일반	93	0 (0.0)	23 (24.7)	1 (1.1)	8 (8.6)	18 (19.4)	3 (3.2)	4 (4.3)	28 (30.1)	4 (4.3)	4 (4.3)	149.5**
	아동양육시설	256	1 (0.4)	156 (60.9)	1 (0.4)	41 (16.0)	32 (12.5)	1 (0.4)	2 (0.8)	18 (7.0)	0 (0.0)	4 (1.6)	
	공동생활가정	55	0 (0.0)	32 (58.2)	1 (1.8)	8 (14.5)	8 (14.5)	0 (0.0)	4 (7.3)	2 (3.6)	0 (0.0)	0 (0.0)	
	대리 가정위탁	180	0 (0.0)	65 (36.1)	2 (1.1)	22 (12.2)	37 (20.6)	3 (1.7)	3 (1.7)	41 (22.8)	5 (2.8)	2 (1.1)	
	친인척 가정위탁	148	1 (0.7)	46 (31.1)	0 (0.0)	7 (4.7)	24 (16.2)	3 (2.0)	5 (3.4)	54 (36.5)	1 (0.7)	7 (4.7)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 (0.4)	196 (78.1)	1 (0.4)	37 (14.7)	7 (2.8)	4 (1.6)	1 (0.4)	2 (0.8)	1 (0.4)	1 (0.4)	231.3***
	연장보호	481	1 (0.2)	126 (26.2)	4 (0.8)	49 (10.2)	112 (23.3)	6 (1.2)	17 (3.5)	141 (29.3)	9 (1.9)	16 (3.3)	
	일반보호	251	1 (0.4)	196 (78.1)	1 (0.4)	37 (14.7)	7 (2.8)	4 (1.6)	1 (0.4)	2 (0.8)	1 (0.4)	1 (0.4)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86명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44명)로 가장 높았고, ‘현재 검정고시 또는 수능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기타’ 응답 비율이 각각 19.8%와 9.3%로 나타났다.

〈표 9-2〉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요 이유

(단위: %)

항목	사례수 (86)	% (100)
진학 준비(검정고시, 수능준비)중	17	(19.8)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4	(51.2)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3	(3.5)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4	(4.7)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7	(8.1)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3	(3.5)
기타	8	(9.3)

앞서 〈표 9-1〉에서 고등학교 중퇴/휴학 중으로 파악된 아동 5명과 2~3년제 대학교 휴학 중인 10명, 4년제 대학 휴학 중인 10명 등 총 25명의 휴학 사례에 대해 휴학 또는 학업을 중단하게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제시한 이유가 대체로 고르게 나타나는데,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24%, ‘심리 정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도 16% 확인되었다.

〈표 9-3〉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주된 이유

(단위: %)

항목	사례수 (25)	% (100)
건강상의 이유로	1	(4.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4	(16.0)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1	(4.0)
경제사정이 어려워서(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6	(24.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2	(8.0)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7	(28.0)
기타	4	(16.0)

다음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재학 중인 경우, 2020년도 1학기,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못함’=0점, ‘보통’=5점, ‘매우 잘함’=10점으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도록 하였을 때, 고등학교에 재학의 보호종료예정아동 322명 가운데 200명(62.2%)이 ‘보통(=5점)’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보호 대상의 33.6%가 스스로 학업 성적에 대해 ‘보통(=5)’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206명 가운데 132명인 64.1%가 ‘보통(=5)’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가정위탁 아동 336명의 42.8%(144명)가 ‘보통(=5)’라고 응답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의 인식수준의 평균점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연령이 만 17세 아동의 평균 학업성적 인식점수는 4.9점(SD=2.2)이었으나 만 18세와 만 19세의 경우 각각 평균 학업성적 인식점수가 5.4점(SD=1.9)과 6.3점(SD=1.9)이었다. 생물학적 부모의 생존여부는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정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4 참조).

〈표 9-4〉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별 주관적 학업성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84	5.7	(2.0)	
성별	남	281	5.6	(2.1)	-1.7
	여	303	5.9	(2.0)	
연령	만 17세	87	4.9	(2.2)	23.8***
	만 18세	237	5.4	(1.9)	
	만 19세 이상	260	6.3	(1.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22	5.2	(1.9)	32.8***
	2~3년제 대학교	119	6.3	(1.9)	
	4년제 대학교 이상	143	6.6	(1.9)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84	5.7	(2.0)	
부모 유무	있음		304	5.7	(2.0)	0.5
	없음		200	5.9	(2.2)	
	모름		80	5.7	(1.9)	
장애 유무	있음		25	4.8	(1.9)	-2.4*
	없음		559	5.8	(2.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06	5.2	(2.0)	17.3***
	공동생활가정		42	5.2	(2.5)	
	가정위탁		336	6.2	(1.9)	
	가정 위탁	대리	143	6.0	(2.0)	2.1
		친인척	124	6.1	(1.7)	
		일반	69	6.6	(1.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06	5.2	(2.0)	9.6***
	공동생활가정		42	5.2	(2.5)	
	대리 가정위탁		143	6.0	(2.0)	
	친인척 가정위탁		124	6.1	(1.7)	
	일반 가정위탁		69	6.6	(1.9)	
보호 상태	일반보호		205	5.1	(2.0)	-5.9***
	연장보호		379	6.1	(2.0)	

앞서 학교성적에 대한 현재 본인 스스로의 인식수준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이어 0~10점의 동일한 응답방식으로 현재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0점, ‘보통’=5점, ‘매우 만족함’=1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전체 584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평균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는 7.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의 만족도 점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연령이 만 17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는 7.3점이었고, 만18세가 평균 7.2점인데 만19세의 경우 평균 6.6점이었다. 교육수준 별 학교생활 만족도는

고등학교 이하가 평균 7.2로 가장 높았으나 2~3년제 대학교 재학 평균(6.5점)보다 4년제 대학교 이상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6.9점)이 더 높았다.

한편, 그 밖의 다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은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의 차이와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호유형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7.3점이고 공동생활 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7.0점인데, 가정위탁 보호 중인 경우 6.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5〉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84	7.0	(2.1)	
성별	남	281	7.0	(2.0)	0.8
	여	303	6.9	(2.1)	
연령	만 17세	87	7.3	(2.0)	7.1***
	만 18세	237	7.2	(2.1)	
	만 19세 이상	260	6.6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22	7.2	(2.1)	5.8**
	2~3년제 대학교	119	6.5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43	6.9	(2.0)	
부모 유무	있음	304	6.9	(2.1)	0.5
	없음	200	7.0	(2.0)	
	모름	80	7.2	(2.2)	
장애 유무	있음	25	7.2	(2.2)	0.6
	없음	559	6.9	(2.0)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84	7.0	(2.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06	7.3	(2.0)	4.1*
	공동생활가정		42	7.0	(2.1)	
	가정위탁		336	6.8	(2.0)	
	가정 위탁	대리	143	6.7	(1.9)	0.9
		친인척	124	6.7	(2.1)	
		일반	69	7.1	(2.2)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06	7.3	(2.0)	2.5*
	공동생활가정		42	7.0	(2.1)	
	대리 가정위탁		143	6.7	(1.9)	
	친인척 가정위탁		124	6.7	(2.1)	
	일반 가정위탁		69	7.1	(2.2)	
보호 상태	일반보호		205	7.0	(2.2)	0.3
	연장보호		379	6.9	(2.0)	

2~3년제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중퇴/휴학 포함) 또는 졸업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등록금과 생활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등록금 및 생활비의 마련 방법으로 제시한 조사항목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CDA),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및 기타(직접 기입) 등 총 12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7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등록금 마련 방법은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85.5%(271명)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장학금’이 26.5%(84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1.7%(37명), ‘아르바이트’ 11.0%(35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등록금 마련 수단의 이용 경향성은 대체로 유사하나 보호유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의 경우와 4년제 대학교 이상에 재학한 경우에 ‘학교장학금’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해결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6 참조).

한편, 생활비를 마련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방법은 ‘아르바이트’로

46.4%(147명)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밖에 조부모/친인척의 지원을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1.8%(69명), 학교장학금이라고 응답한 비율 18.3%(58명),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이라고 응답한 비율 14.5%(46명), 그 밖에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과 시설후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7%(각각 37명) 등의 순이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후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양육시설에서 보호 아동 57명 중 25명(43.9%),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14명 중 5명(35.7%)이 시설후원에 의지하여 대학 재학 중의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답하였다(표 9-7 참조).

〈표 9-6〉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 (CDA)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317	9 (2.8)	271 (85.5)	25 (7.9)	8 (2.5)	37 (11.7)	7 (2.2)	1 (0.3)	29 (9.1)	14 (4.4)	35 (11.0)	84 (26.5)	3 (0.9)
성별	남	141	4 (2.8)	117 (83.0)	14 (9.9)	3 (2.1)	18 (12.8)	4 (2.8)	0 (0.0)	12 (8.5)	5 (3.5)	15 (10.6)	34 (24.1)	2 (1.4)
	여	176	5 (2.8)	154 (87.5)	11 (6.3)	5 (2.8)	19 (10.8)	3 (1.7)	1 (0.6)	17 (9.7)	9 (5.1)	20 (11.4)	50 (28.4)	1 (0.6)
연령	만 18세	16	0 (0.0)	12 (75.0)	0 (0.0)	0 (0.0)	1 (6.3)	2 (12.5)	0 (0.0)	1 (6.3)	0 (0.0)	2 (12.5)	3 (18.8)	0 (0.0)
	만 19세 이상	301	9 (3.0)	259 (86.0)	25 (8.3)	8 (2.7)	36 (12.0)	5 (1.7)	1 (0.3)	28 (9.3)	14 (4.7)	33 (11.0)	81 (26.9)	3 (1.0)
교육 수준	2~3년제 대학교	147	3 (2.0)	120 (81.6)	13 (8.8)	6 (4.1)	13 (8.8)	4 (2.7)	1 (0.7)	15 (10.2)	10 (6.8)	17 (11.6)	28 (19.0)	2 (1.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6 (3.5)	151 (88.8)	12 (7.1)	2 (1.2)	24 (14.1)	3 (1.8)	0 (0.0)	14 (8.2)	4 (2.4)	18 (10.6)	56 (32.9)	1 (0.6)
부모 유무	있음	149	6 (4.0)	122 (81.9)	8 (5.4)	6 (4.0)	18 (12.1)	3 (2.0)	1 (0.7)	12 (8.1)	10 (6.7)	20 (13.4)	51 (34.2)	2 (1.3)
	없음	119	3 (2.5)	106 (89.1)	13 (10.9)	2 (1.7)	14 (11.8)	3 (2.5)	0 (0.0)	12 (10.1)	4 (3.4)	13 (10.9)	23 (19.3)	1 (0.8)
	모름	49	0 (0.0)	43 (87.8)	4 (8.2)	0 (0.0)	5 (10.2)	1 (2.0)	0 (0.0)	5 (10.2)	0 (0.0)	2 (4.1)	10 (20.4)	0 (0.0)
장애 유무	있음	9	1 (11.1)	6 (66.7)	0 (0.0)	0 (0.0)	2 (22.2)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없음	308	8 (2.6)	265 (86.0)	25 (8.1)	8 (2.6)	35 (11.4)	7 (2.3)	1 (0.3)	29 (9.4)	14 (4.5)	35 (11.4)	83 (26.9)	3 (1.0)

262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 (CDA)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317	9 (2.8)	271 (85.5)	25 (7.9)	8 (2.5)	37 (11.7)	7 (2.2)	1 (0.3)	29 (9.1)	14 (4.4)	35 (11.0)	84 (26.5)	3 (0.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7	5 (8.8)	49 (86.0)	3 (5.3)	0 (0.0)	1 (1.8)	3 (5.3)	0 (0.0)	0 (0.0)	1 (1.8)	3 (5.3)	15 (26.3)	0 (0.0)
	공동생활가정	14	0 (0.0)	11 (78.6)	0 (0.0)	1 (7.1)	1 (7.1)	1 (7.1)	0 (0.0)	0 (0.0)	2 (14.3)	3 (21.4)	6 (42.9)	0 (0.0)
	가정위탁	246	4 (1.6)	211 (85.8)	22 (8.9)	7 (2.8)	35 (14.2)	3 (1.2)	1 (0.4)	29 (11.8)	11 (4.5)	29 (11.8)	63 (25.6)	3 (1.2)
	가정 위탁	대리	91	1 (1.1)	77 (84.6)	10 (11.0)	2 (2.2)	13 (14.3)	1 (1.1)	0 (0.0)	12 (13.2)	5 (5.5)	11 (12.1)	30 (33.0)
		친인척	94	0 (0.0)	84 (89.4)	8 (8.5)	3 (3.2)	13 (13.8)	2 (2.1)	1 (1.1)	12 (12.8)	4 (4.3)	8 (8.5)	19 (20.2)
		일반	61	3 (4.9)	50 (82.0)	4 (6.6)	2 (3.3)	9 (14.8)	0 (0.0)	0 (0.0)	5 (8.2)	2 (3.3)	10 (16.4)	14 (23.0)
보호 상태	일반보호	16	0 (0.0)	11 (68.8)	3 (18.8)	1 (6.3)	2 (12.5)	0 (0.0)	0 (0.0)	0 (0.0)	1 (6.3)	3 (18.8)	5 (31.3)	1 (6.3)
	연장보호	301	9 (3.0)	260 (86.4)	22 (7.3)	7 (2.3)	35 (11.6)	7 (2.3)	1 (0.3)	29 (9.6)	13 (4.3)	32 (10.6)	79 (26.2)	2 (0.7)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민간 후원, 위탁부모의 후원은 '⑧ 시설후원', 근로소득은 '⑫ 아르바이트'에 포함

〈표 9-7〉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 (CDA)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317	13 (4.1)	46 (14.5)	37 (11.7)	11 (3.5)	123 (38.8)	37 (11.7)	1 (.)	69 (21.8)	26 (8.2)	147 (46.4)	58 (18.3)	10 (3.2)
성별	남	141	10 (7.1)	22 (15.6)	17 (12.1)	4 (2.8)	50 (35.5)	16 (11.3)	0 (.)	21 (14.9)	8 (5.7)	68 (48.2)	24 (17.0)	1 (.)
	여	176	3 (1.7)	24 (13.6)	20 (11.4)	7 (4.0)	73 (41.5)	21 (11.9)	1 (.)	48 (27.3)	18 (10.2)	79 (44.9)	34 (19.3)	9 (5.1)
연령	만 18세	16	2 (12.5)	0 (.)	0 (.)	1 (6.3)	5 (31.3)	1 (6.3)	0 (.)	4 (25.0)	3 (18.8)	5 (31.3)	2 (12.5)	0 (.)
	만 19세 이상	301	11 (3.7)	46 (15.3)	37 (12.3)	10 (3.3)	118 (39.2)	36 (12.0)	1 (.)	65 (21.6)	23 (7.6)	142 (47.2)	56 (18.6)	10 (3.3)
교육 수준	2~3년제 대학교	147	4 (2.7)	20 (13.6)	15 (10.2)	3 (2.0)	40 (27.2)	27 (18.4)	1 (.)	27 (18.4)	14 (9.5)	64 (43.5)	25 (17.0)	5 (3.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9 (5.3)	26 (15.3)	22 (12.9)	8 (4.7)	83 (48.8)	10 (5.9)	0 (.)	42 (24.7)	12 (7.1)	83 (48.8)	33 (19.4)	5 (2.9)
부모 유무	있음	149	8 (5.4)	24 (16.1)	14 (9.4)	7 (4.7)	61 (40.9)	21 (14.1)	0 (.)	24 (16.1)	17 (11.4)	67 (45.0)	34 (22.8)	5 (3.4)
	없음	119	5 (4.2)	14 (11.8)	18 (15.1)	3 (2.5)	48 (40.3)	9 (7.6)	0 (.)	32 (26.9)	5 (4.2)	61 (51.3)	16 (13.4)	2 (1.7)
	모름	49	0 (.)	8 (16.3)	5 (10.2)	1 (2.0)	14 (28.6)	7 (14.3)	1 (2.0)	13 (26.5)	4 (8.2)	19 (38.8)	8 (16.3)	3 (6.1)
장애 유무	있음	9	1 (11.1)	1 (11.1)	0 (.)	0 (.)	5 (55.6)	2 (22.2)	0 (.)	0 (.)	1 (11.1)	1 (11.1)	0 (.)	0 (.)
	없음	308	12 (3.9)	45 (14.6)	37 (12.0)	11 (3.6)	118 (38.3)	35 (11.4)	1 (.)	69 (22.4)	25 (8.1)	146 (47.4)	58 (18.8)	10 (3.2)

264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 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 (CDA)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317	13 (4.1)	46 (14.5)	37 (11.7)	11 (3.5)	123 (38.8)	37 (11.7)	1 (.3)	69 (21.8)	26 (8.2)	147 (46.4)	58 (18.3)	10 (3.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7	4 (7.0)	5 (8.8)	1 (1.8)	1 (1.8)	9 (15.8)	25 (43.9)	1 (1.8)	1 (1.8)	7 (12.3)	22 (38.6)	13 (22.8)	6 (10.5)
	공동생활가정	14	1 (7.1)	2 (14.3)	0 (.0)	1 (7.1)	3 (21.4)	5 (35.7)	0 (.0)	0 (.0)	1 (7.1)	5 (35.7)	4 (28.6)	0 (.0)
	가정위탁	246	8 (3.3)	39 (15.9)	36 (14.6)	9 (3.7)	111 (45.1)	7 (2.8)	0 (.0)	68 (27.6)	18 (7.3)	120 (48.8)	41 (16.7)	4 (1.6)
	가정 위탁	대리	91	3 (3.3)	15 (16.5)	19 (20.9)	3 (3.3)	34 (37.4)	1 (1.1)	0 (.0)	31 (34.1)	5 (5.5)	47 (51.6)	1 (1.1)
		친인척	94	4 (4.3)	13 (13.8)	11 (11.7)	3 (3.2)	49 (52.1)	4 (4.3)	0 (.0)	30 (31.9)	7 (7.4)	40 (42.6)	1 (1.1)
		일반	61	1 (1.6)	11 (18.0)	6 (9.8)	3 (4.9)	28 (45.9)	2 (3.3)	7 (11.5)	6 (9.8)	33 (54.1)	7 (11.5)	2 (3.3)
보호 상태	일반보호	16	0 (.0)	1 (6.3)	2 (12.5)	1 (6.3)	6 (37.5)	4 (25.0)	0 (.0)	0 (.0)	0 (.0)	7 (43.8)	1 (6.3)	1 (6.3)
	연장보호	301	13 (4.3)	45 (15.0)	35 (11.6)	10 (3.3)	117 (38.9)	33 (11.0)	1 (.3)	69 (22.9)	26 (8.6)	140 (46.5)	57 (18.9)	9 (3.0)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민간 후원, 위탁부모의 후원은 '⑧ 시설후원', 근로소득은 '⑫ 아르바이트'에 포함

교육실태 관련하여 마지막 문항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에 관해 2가지를 질문하였다. 첫째는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미결정 중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관한 것인데, 보호종료예정아동 전체 732명 중 60.9%인 446명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취업(446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26.6%(195명)가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성별, 장애유무에 따른 진로 계획에 따른 차이에는 통계적인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19세 이상의 보호종료예정아동 342명 중에서 '취업'이 최우선이 진로 계획을 응답한 비율은 74.0%(253명)이고,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28명)였다. 반면, 만17세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4%(55명)이고,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39.8%(41명)이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의 보호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9세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조사문항에 응답 연결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보호유형에 따라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취·창업의 선택 비율이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양육시설의 보호아동 256명 중에서 취·창업 계획의 아동은 58.2%(149명)이고,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55명 중 취·창업 희망 아동의 비율은 58.2%(32명)인데, 가정위탁 보호 아동 421명 중 취·창업 희망 비율은 68.0%(286명)이었다. 보호유형에 따른 진로 계획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보호 상태에 따라서도 최우선 진로 계획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일반보호 아동 251명의 49.0%(123명)는 취업을 희망하고 43.4%(109명)는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연장보호 아동 481명의 67.2%(323명)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9%(86명)에 불과한데, 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이미 진학한 상태에서 연장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9-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최우선 진로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χ^2
전체		732	195 (26.6)	446 (60.9)	21 (2.9)	5 (.7)	56 (7.7)	9 (1.2)	
성별	남	366	88 (24.0)	232 (63.4)	13 (3.6)	3 (.8)	23 (6.3)	7 (1.9)	8.5
	여	366	107 (29.2)	214 (58.5)	8 (2.2)	2 (.5)	33 (9.0)	2 (.5)	
연령	만 17세	103	41 (39.8)	55 (53.4)	1 (1.0)	0 (.0)	5 (4.9)	1 (1.0)	123.2 ***
	만 18세	287	126 (43.9)	138 (48.1)	2 (.7)	3 (1.0)	17 (5.9)	1 (.3)	
	만 19세 이상	342	28 (8.2)	253 (74.0)	18 (5.3)	2 (.6)	34 (9.9)	7 (2.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75 (42.2)	204 (49.2)	6 (1.4)	3 (.7)	24 (5.8)	3 (.7)	132.4 ***
	2~3년제 대학교	147	9 (6.1)	107 (72.8)	5 (3.4)	2 (1.4)	21 (14.3)	3 (2.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1 (6.5)	135 (79.4)	10 (5.9)	0 (.0)	11 (6.5)	3 (1.8)	
부모 유무	있음	380	125 (32.9)	212 (55.8)	11 (2.9)	2 (.5)	26 (6.8)	4 (1.1)	32.3***
	없음	250	46 (18.4)	176 (70.4)	8 (3.2)	0 (.0)	17 (6.8)	3 (1.2)	
	모름	102	24 (23.5)	58 (56.9)	2 (2.0)	3 (2.9)	13 (12.7)	2 (2.0)	
장애 유무	있음	37	7 (18.9)	26 (70.3)	1 (2.7)	0 (.0)	2 (5.4)	1 (2.7)	2.6
	없음	695	188 (27.1)	420 (60.4)	20 (2.9)	5 (.7)	54 (7.8)	8 (1.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86 (33.6)	146 (57.0)	3 (1.2)	2 (.8)	18 (7.0)	1 (.4)	24.5***
	공동생활가정	55	20 (36.4)	32 (58.2)	0 (.0)	0 (.0)	3 (5.5)	0 (.0)	
	가정위탁	421	89 (21.1)	268 (63.7)	18 (4.3)	3 (.7)	35 (8.3)	8 (1.9)	
	가정 위탁	대리	180	41 (22.8)	113 (62.8)	8 (4.4)	1 (.6)	14 (7.8)	13.9
		친인척	148	30 (20.3)	95 (64.2)	2 (1.4)	2 (1.4)	17 (11.5)	
		일반	93	18 (19.4)	60 (64.5)	8 (8.6)	0 (.0)	4 (4.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86 (33.6)	146 (57.0)	3 (1.2)	2 (.8)	18 (7.0)	1 (.4)	42.7**
	공동생활가정	55	20 (36.4)	32 (58.2)	0 (.0)	0 (.0)	3 (5.5)	0 (.0)	
	대리 가정위탁	180	41 (22.8)	113 (62.8)	8 (4.4)	1 (.6)	14 (7.8)	3 (1.7)	
	친인척 가정위탁	148	30 (20.3)	95 (64.2)	2 (1.4)	2 (1.4)	17 (11.5)	2 (1.4)	
	일반 가정위탁	93	18 (19.4)	60 (64.5)	8 (8.6)	0 (.0)	4 (4.3)	3 (3.2)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09 (43.4)	123 (49.0)	3 (1.2)	0 (.0)	15 (6.0)	1 (.4)	59.2***
	연장보호	481	86 (17.9)	323 (67.2)	18 (3.7)	5 (1.0)	41 (8.5)	8 (1.7)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732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42.3%(31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33.1%(242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6.3%(1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8.3%(61명)정도가 확인되었다(표 9-9 참조).

〈표 9-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석/박사)		x ²	
전체		732	119	(16.3)	242	(33.1)	310	(42.3)	61	(8.3)		
성별	남	366	77	(21.0)	124	(33.9)	142	(38.8)	23	(6.3)	16.3***	
	여	366	42	(11.5)	118	(32.2)	168	(45.9)	38	(10.4)		
연령	만 17세	103	29	(28.2)	34	(33.0)	38	(36.9)	2	(1.9)	60.9***	
	만 18세	287	71	(24.7)	82	(28.6)	114	(39.7)	20	(7.0)		
	만 19세 이상	342	19	(5.6)	126	(36.8)	158	(46.2)	39	(11.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16	(28.0)	124	(29.9)	154	(37.1)	21	(5.1)	350.2***	
	2~3년제 대학교	147	2	(1.4)	117	(79.6)	21	(14.3)	7	(4.8)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	(0.6)	1	(0.6)	135	(79.4)	33	(19.4)		
부모 유무	있음	380	66	(17.4)	128	(33.7)	151	(39.7)	35	(9.2)	6.0	
	없음	250	40	(16.0)	76	(30.4)	118	(47.2)	16	(6.4)		
	모름	102	13	(12.7)	38	(37.3)	41	(40.2)	10	(9.8)		
장애 유무	있음	37	16	(43.2)	15	(40.5)	6	(16.2)	0	(0.0)	27.6***	
	없음	695	103	(14.8)	227	(32.7)	304	(43.7)	61	(8.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66	(25.8)	88	(34.4)	84	(32.8)	18	(7.0)	48.1***	
	공동생활가정	55	12	(21.8)	26	(47.3)	14	(25.5)	3	(5.5)		
	가정위탁	421	41	(9.7)	128	(30.4)	212	(50.4)	40	(9.5)		
	가정 위탁	대리	180	23	(12.8)	59	(32.8)	84	(46.7)	14	(7.8)	6.0
		친인척	148	12	(8.1)	40	(27.0)	80	(54.1)	16	(10.8)	
	일반	93	6	(6.5)	29	(31.2)	48	(51.6)	10	(10.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66	(25.8)	88	(34.4)	84	(32.8)	18	(7.0)	53.0***	
	공동생활가정	55	12	(21.8)	26	(47.3)	14	(25.5)	3	(5.5)		
	대리 가정위탁	180	23	(12.8)	59	(32.8)	84	(46.7)	14	(7.8)		
	친인척 가정위탁	148	12	(8.1)	40	(27.0)	80	(54.1)	16	(10.8)		
	일반 가정위탁	93	6	(6.5)	29	(31.2)	48	(51.6)	10	(10.8)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59	(23.5)	87	(34.7)	93	(37.1)	12	(4.8)	21***	
	연장보호	481	60	(12.5)	155	(32.2)	217	(45.1)	49	(10.2)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실태

이번 「2020 보호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보호종료아동 3,104명의 조사 응답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32.8%(1,0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2~3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전체의 16.8%(522명), 4년제 대학교 졸업 12.9%(401명), 4년제 대학교 재학 11.1%(3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중학교 이하가 28명이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27명, 고등학교 중퇴 또는 휴학도 80명이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보호종료아동의 4년제 대학교 졸업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남자의 경우, 1,461명의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4년대 대학 졸업 비율이 7.5%인데, 여자 보호종료아동은 1,643명 중 17.8%였다. 또한 2~3년대 대학 졸업 비율도 보호종료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각각 13.5%와 19.8%로 여아 보호종료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132명 중 62.9%(83명)이 고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어 장애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실제, 이들 중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율은 3.8%, 그리고 졸업한 경우는 6.1%에 불과하다. 장애가 없는 보호종료아동 2,972명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인 13.2%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였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만기퇴소 아동 1,77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고등학교 졸업인 반면, 진학 등의 사유로 퇴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종료 아동의 경우 연장종료 조사대상 1,330명 중 28.1%(374명)가 2~3년제 대학 졸업을 했고, 25.8%(343명)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4.1%(187명), 10.5%(139명)는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고 6.9%(88명)는 2~3년제 대학을 휴학 또는 중퇴한 상태였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자립수당의 대상이 되는 자립 1~3년차인 2,601명 중 33.4%(870명)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고, 이어서 15.7%(409명)가 2~3년제 대학 졸업, 12.6%(327명)가 4년제 대학 졸업, 11.2%(291명)가 4년제 대학 재학 중이다. 반면 자립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립 4~5년차 403명 중 29.6%(149명)는 고등학교 졸업자이고, 이어서 22.5%(113명)가 2~3년제 대학 졸업, 14.7%(74명)가 4년제 대학 졸업,

10.5%(53명)가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립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 되었다.

〈표 9-10〉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중퇴/휴학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재학중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중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χ ²	
전체		3,104	28 (0.9)	27 (0.9)	80 (2.6)	1,019(32.8)	327 (10.5)	197 (6.3)	522 (16.8)	344 (11.1)	138 (4.4)	401 (12.9)	21 (0.7)		
성별	남	1,461	19 (1.3)	10 (0.7)	46 (3.1)	561 (38.4)	162 (11.1)	110 (7.5)	197 (13.5)	153 (10.5)	84 (5.7)	109 (7.5)	10 (0.7)	135.8***	
	여	1,643	9 (0.5)	17 (1.0)	34 (2.1)	458 (27.9)	165 (10.0)	87 (5.3)	325 (19.8)	191 (11.6)	54 (3.3)	292 (17.8)	11 (0.7)		
연령	만 18-19세	600	6 (1.0)	19 (3.2)	22 (3.7)	312 (52.0)	124 (20.7)	34 (5.7)	1 (0.2)	76 (12.7)	5 (0.8)	0 (0.0)	1 (0.2)	1689.2***	
	만 20-21세	1,289	16 (1.2)	8 (0.6)	46 (3.6)	555 (43.1)	161 (12.5)	104 (8.1)	186 (14.4)	154 (11.9)	55 (4.3)	3 (0.2)	1 (0.1)		
	만 22-23세	778	4 (0.5)	0 (0.0)	10 (1.3)	126 (16.2)	39 (5.0)	49 (6.3)	243 (31.2)	96 (12.3)	52 (6.7)	148 (19.0)	11 (1.4)		
	만 24세 이상	437	2 (0.5)	0 (0.0)	2 (0.5)	26 (5.9)	3 (0.7)	10 (2.3)	92 (21.1)	18 (4.1)	26 (5.9)	250 (57.2)	8 (1.8)		
부모 유무	있음	1,512	8 (0.5)	10 (0.7)	40 (2.6)	462 (30.6)	170 (11.2)	100 (6.6)	266 (17.6)	164 (10.8)	67 (4.4)	213 (14.1)	12 (0.8)	32.4*	
	없음	1,198	15 (1.3)	9 (0.8)	30 (2.5)	403 (33.6)	117 (9.8)	75 (6.3)	194 (16.2)	138 (11.5)	59 (4.9)	149 (12.4)	9 (0.8)		
	모름	394	5 (1.3)	8 (2.0)	10 (2.5)	154 (39.1)	40 (10.2)	22 (5.6)	62 (15.7)	42 (10.7)	12 (3.0)	39 (9.9)	0 (0.0)		
장애 유무	있음	132	4 (3.0)	1 (0.8)	4 (3.0)	83 (62.9)	5 (3.8)	3 (2.3)	15 (11.4)	5 (3.8)	3 (2.3)	8 (6.1)	1 (0.8)	70.1***	
	없음	2,972	24 (0.8)	26 (0.9)	76 (2.6)	936 (31.5)	322 (10.8)	194 (6.5)	507 (17.1)	339 (11.4)	135 (4.5)	393 (13.2)	20 (0.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 (0.4)	1 (0.1)	15 (1.6)	372 (38.8)	30 (3.1)	37 (3.9)	253 (26.4)	20 (2.1)	23 (2.4)	198 (20.6)	7 (0.7)	499.2***	
	지역가입	374	4 (1.1)	0 (0.0)	8 (2.1)	119 (31.8)	17 (4.5)	30 (8.0)	71 (19.0)	23 (6.1)	30 (8.0)	68 (18.2)	4 (1.1)		
	의료급여	1,770	20 (1.1)	26 (1.5)	57 (3.2)	528 (29.8)	280 (15.8)	130 (7.3)	198 (11.2)	301 (17.0)	85 (4.8)	135 (7.6)	10 (0.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1 (0.8)	15 (1.1)	31 (2.2)	478 (33.7)	200 (14.1)	95 (6.7)	214 (15.1)	189 (13.3)	62 (4.4)	113 (8.0)	9 (0.6)	206***
	공동생활가정		332	5 (1.5)	4 (1.2)	7 (2.1)	101 (30.4)	47 (14.2)	29 (8.7)	43 (13.0)	61 (18.4)	14 (4.2)	20 (6.0)	1 (0.3)	
	가정위탁		1,355	12 (0.9)	8 (0.6)	42 (3.1)	440 (32.5)	80 (5.9)	73 (5.4)	265 (19.6)	94 (6.9)	62 (4.6)	268 (19.8)	11 (0.8)	
	가정 위탁	대리	403	3 (0.7)	4 (1.0)	15 (3.7)	141 (35.0)	15 (3.7)	25 (6.2)	87 (21.6)	27 (6.7)	15 (3.7)	68 (16.9)	3 (0.7)	53.5***
		친인척	564	4 (0.7)	4 (0.7)	15 (2.7)	152 (27.0)	34 (6.0)	29 (5.1)	107 (19.0)	45 (8.0)	21 (3.7)	149 (26.4)	4 (0.7)	
보호 유형2	일반		388	5 (1.3)	0 (0.0)	12 (3.1)	147 (37.9)	31 (8.0)	19 (4.9)	71 (18.3)	22 (5.7)	26 (6.7)	51 (13.1)	4 (1.0)	
	아동양육시설		1,417	11 (0.8)	15 (1.1)	31 (2.2)	478 (33.7)	200 (14.1)	95 (6.7)	214 (15.1)	189 (13.3)	62 (4.4)	113 (8.0)	9 (0.6)	267.6***
	공동생활가정		332	5 (1.5)	4 (1.2)	7 (2.1)	101 (30.4)	47 (14.2)	29 (8.7)	43 (13.0)	61 (18.4)	14 (4.2)	20 (6.0)	1 (0.3)	
	대리 가정위탁		403	3 (0.7)	4 (1.0)	15 (3.7)	141 (35.0)	15 (3.7)	25 (6.2)	87 (21.6)	27 (6.7)	15 (3.7)	68 (16.9)	3 (0.7)	
	친인척 가정위탁		564	4 (0.7)	4 (0.7)	15 (2.7)	152 (27.0)	34 (6.0)	29 (5.1)	107 (19.0)	45 (8.0)	21 (3.7)	149 (26.4)	4 (0.7)	
일반 가정위탁		388	5 (1.3)	0 (0.0)	12 (3.1)	147 (37.9)	31 (8.0)	19 (4.9)	71 (18.3)	22 (5.7)	26 (6.7)	51 (13.1)	4 (1.0)		

구분		사례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중퇴/휴학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재학중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중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χ^2
전체		3,104	28 (0.9)	27 (0.9)	80 (2.6)	1,019(32.8)	327 (10.5)	197 (6.3)	522 (16.8)	344 (11.1)	138 (4.4)	401 (12.9)	21 (0.7)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24 (1.4)	23 (1.3)	68 (3.8)	832 (46.9)	239 (13.5)	123 (6.9)	148 (8.3)	205 (11.6)	48 (2.7)	58 (3.3)	6 (0.3)	840.4***
	연장종료	1,330	4 (0.3)	4 (0.3)	12 (0.9)	187 (14.1)	88 (6.6)	74 (5.6)	374 (28.1)	139 (10.5)	90 (6.8)	343 (25.8)	15 (1.1)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9 (1.0)	17 (1.9)	18 (2.1)	297 (33.9)	127 (14.5)	45 (5.1)	135 (15.4)	90 (10.3)	14 (1.6)	117 (13.4)	6 (0.7)	129.3***
	2년차	921	2 (0.2)	4 (0.4)	25 (2.7)	306 (33.2)	109 (11.8)	60 (6.5)	131 (14.2)	103 (11.2)	48 (5.2)	127 (13.8)	6 (0.7)	
	3년차	805	13 (1.6)	5 (0.6)	22 (2.7)	267 (33.2)	67 (8.3)	57 (7.1)	143 (17.8)	98 (12.2)	45 (5.6)	83 (10.3)	5 (0.6)	
	4년차	280	2 (0.7)	0 (0.0)	12 (4.3)	84 (30.0)	17 (6.1)	19 (6.8)	60 (21.4)	35 (12.5)	19 (6.8)	31 (11.1)	1 (0.4)	
	5년차	223	2 (0.9)	1 (0.4)	3 (1.3)	65 (29.1)	7 (3.1)	16 (7.2)	53 (23.8)	18 (8.1)	12 (5.4)	43 (19.3)	3 (1.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4 (0.9)	26 (1.0)	65 (2.5)	870 (33.4)	303 (11.6)	162 (6.2)	409 (15.7)	291 (11.2)	107 (4.1)	327 (12.6)	17 (0.7)	41.9***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4 (0.8)	1 (0.2)	15 (3.0)	149 (29.6)	24 (4.8)	35 (7.0)	113 (22.5)	53 (10.5)	31 (6.2)	74 (14.7)	4 (0.8)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아동 1,019명을 대상으로 미진 학 이유를 조사한 결과, 취업을 빨리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다는 응답 비율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호종료예정아동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보호예정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는 3.5%에 불과하였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을 구분해 보았을 때, 지역가입 아동 119명 중에서 23.5%(28명)의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보호 유형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 440명 중에서 20.9%(92명)도 경제적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실제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2.1%(531명)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15.1%(154명)였는데 반해, 성적 부진으로 대학 진학을 못한 경우는 전체의 5.2%(53명)에 불과하였다.

〈표 9-11〉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미 진학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진학 준비 (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중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x ²
전체		1,019	26 (2.6)	531 (52.1)	160 (15.7)	53 (5.2)	154 (15.1)	63 (6.2)	32 (3.1)	
성별	남	561	15 (2.7)	300 (53.5)	82 (14.6)	30 (5.3)	79 (14.1)	39 (7.0)	16 (2.9)	3.9
	여	458	11 (2.4)	231 (50.4)	78 (17.0)	23 (5.0)	75 (16.4)	24 (5.2)	16 (3.5)	
연령	만 18~19세	312	12 (3.8)	168 (53.8)	32 (10.3)	17 (5.4)	47 (15.1)	27 (8.7)	9 (2.9)	29.9 ***
	만 20~21세	555	14 (2.5)	292 (52.6)	99 (17.8)	26 (4.7)	79 (14.2)	29 (5.2)	16 (2.9)	
	만 22~23세	126	0 (.0)	60 (47.6)	26 (20.6)	7 (5.6)	21 (16.7)	7 (5.6)	5 (4.0)	
	만 24세 이상	26	0 (.0)	11 (42.3)	3 (11.5)	3 (11.5)	7 (26.9)	0 (.0)	2 (7.7)	
부모 유무	있음	462	12 (2.6)	247 (53.5)	71 (15.4)	21 (4.5)	68 (14.7)	30 (6.5)	13 (2.8)	6.3
	없음	403	9 (2.2)	204 (50.6)	66 (16.4)	26 (6.5)	57 (14.1)	26 (6.5)	15 (3.7)	
	모름	154	5 (3.2)	80 (51.9)	23 (14.9)	6 (3.9)	29 (18.8)	7 (4.5)	4 (2.6)	
장애 유무	있음	83	1 (1.2)	42 (50.6)	3 (3.6)	6 (7.2)	15 (18.1)	8 (9.6)	8 (9.6)	24.2 ***
	없음	936	25 (2.7)	489 (52.2)	157 (16.8)	47 (5.0)	139 (14.9)	55 (5.9)	24 (2.6)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372	3 (.8)	231 (62.1)	56 (15.1)	13 (3.5)	46 (12.4)	13 (3.5)	10 (2.7)	43.5 ***
	지역가입	119	4 (3.4)	56 (47.1)	28 (23.5)	4 (3.4)	20 (16.8)	5 (4.2)	2 (1.7)	
	의료급여	528	19 (3.6)	244 (46.2)	76 (14.4)	36 (6.8)	88 (16.7)	45 (8.5)	20 (3.8)	

구분		사례수	진학 준비 (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중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x ²	
전체		1,019	26 (2.6)	531 (52.1)	160 (15.7)	53 (5.2)	154 (15.1)	63 (6.2)	32 (3.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78	11 (2.3)	255 (53.3)	53 (11.1)	24 (5.0)	80 (16.7)	37 (7.7)	18 (3.8)	27.3 ***	
	공동생활가정	101	4 (4.0)	54 (53.5)	15 (14.9)	7 (6.9)	9 (8.9)	7 (6.9)	5 (5.0)		
	가정위탁	440	11 (2.5)	222 (50.5)	92 (20.9)	22 (5.0)	65 (14.8)	19 (4.3)	9 (2.0)		
	가정 위탁	대리	141	5 (3.5)	70 (49.6)	38 (27.0)	8 (5.7)	15 (10.6)	4 (2.8)	1 (.7)	16.2
		친인척	152	3 (2.0)	82 (53.9)	27 (17.8)	9 (5.9)	23 (15.1)	4 (2.6)	4 (2.6)	
	일반	147	3 (2.0)	70 (47.6)	27 (18.4)	5 (3.4)	27 (18.4)	11 (7.5)	4 (2.7)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478	11 (2.3)	255 (53.3)	53 (11.1)	24 (5.0)	80 (16.7)	37 (7.7)	18 (3.8)	42.3*	
	공동생활가정	101	4 (4.0)	54 (53.5)	15 (14.9)	7 (6.9)	9 (8.9)	7 (6.9)	5 (5.0)		
	대리 가정위탁	141	5 (3.5)	70 (49.6)	38 (27.0)	8 (5.7)	15 (10.6)	4 (2.8)	1 (.7)		
	친인척 가정위탁	152	3 (2.0)	82 (53.9)	27 (17.8)	9 (5.9)	23 (15.1)	4 (2.6)	4 (2.6)		
	일반 가정위탁	147	3 (2.0)	70 (47.6)	27 (18.4)	5 (3.4)	27 (18.4)	11 (7.5)	4 (2.7)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832	23 (2.8)	431 (51.8)	125 (15.0)	44 (5.3)	129 (15.5)	54 (6.5)	26 (3.1)	3.4	
	연장종료	187	3 (1.6)	100 (53.5)	35 (18.7)	9 (4.8)	25 (13.4)	9 (4.8)	6 (3.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297	12 (4.0)	161 (54.2)	33 (11.1)	14 (4.7)	42 (14.1)	23 (7.7)	12 (4.0)	26.7	
	2년차	306	6 (2.0)	155 (50.7)	46 (15.0)	20 (6.5)	47 (15.4)	22 (7.2)	10 (3.3)		
	3년차	267	8 (3.0)	136 (50.9)	51 (19.1)	12 (4.5)	40 (15.0)	13 (4.9)	7 (2.6)		
	4년차	84	0 (.0)	48 (57.1)	14 (16.7)	5 (6.0)	14 (16.7)	2 (2.4)	1 (1.2)		
	5년차	65	0 (.0)	31 (47.7)	16 (24.6)	2 (3.1)	11 (16.9)	3 (4.6)	2 (3.1)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870	26 (3.0)	452 (52.0)	130 (14.9)	46 (5.3)	129 (14.8)	58 (6.7)	29 (3.3)	10.0	
	비해당 (자립 4~5년차)	149	0 (.0)	79 (53.0)	30 (20.1)	7 (4.7)	25 (16.8)	5 (3.4)	3 (2.0)		

한편 고등학교 휴학, 2~3년제 대학교 및 4년제 대학교 휴학 또는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41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체 414명 중에서 가장 높은 중단 응답 비율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비 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였고 전체의 33.1%(137명)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 갈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3.4%(97명), '기타' 응답이 15.0%(62명), '심리정서적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10.9%(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에서 경제사정 때문에 휴학 또는 학업 중단했다는 응답이 많아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보호종료아동 80명 중에서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12.5%(10명)인 것과 비교하여 2~3년제 대학 재학생 197명 가운데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 비율은 38.6%(76명), 4년제 대학 재학생 137명 중에서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7.2%(51명)으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9-12 참조).

보호종료아동이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중퇴/휴학 포함) 졸업한 경우에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지방 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CDA),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및 기타(직접 기입) 등 총 12가지의 방법들 가운데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50명의 대상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82.4%(1,607명)이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장학금’이 22.2%(432명), ‘아르바이트’가 15.0%(292명),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의 학자금대출’이 11.5%(224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0.1%(197명), ‘디딤씨앗통장(CDA)’ 7.3%(143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금 마련 방법은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에 따른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9-13 참조).

〈표 9-12〉 보호종로아동의 휴학 혹은 학업 중단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왕따 등)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차별 대우 등)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기타	x ²	
전체		414	17 (4.1)	45 (10.9)	26 (6.3)	137 (33.1)	12 (2.9)	4 (1.0)	14 (3.4)	97 (23.4)	62 (15.0)		
성별	남	240	11 (4.6)	25 (10.4)	10 (4.2)	77 (32.1)	5 (2.1)	3 (1.3)	7 (2.9)	61 (25.4)	41 (17.1)	9.5	
	여	174	6 (3.4)	20 (11.5)	16 (9.2)	60 (34.5)	7 (4.0)	1 (.6)	7 (4.0)	36 (20.7)	21 (12.1)		
연령	만 18~19세	60	5 (8.3)	6 (10.0)	3 (5.0)	17 (28.3)	3 (5.0)	1 (1.7)	3 (5.0)	13 (21.7)	9 (15.0)	20.4	
	만 20~21세	205	6 (2.9)	24 (11.7)	14 (6.8)	68 (33.2)	5 (2.4)	2 (1.0)	6 (2.9)	49 (23.9)	31 (15.1)		
	만 22~23세	111	6 (5.4)	9 (8.1)	5 (4.5)	37 (33.3)	2 (1.8)	1 (.9)	5 (4.5)	25 (22.5)	21 (18.9)		
	만 24세 이상	38	0 (.0)	6 (15.8)	4 (10.5)	15 (39.5)	2 (5.3)	0 (.0)	0 (.0)	10 (26.3)	1 (2.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80	5 (6.3)	13 (16.3)	9 (11.3)	10 (12.5)	9 (11.3)	2 (2.5)	7 (8.8)	18 (22.5)	7 (8.8)	64.1***	
	2~3년제 대학교	197	5 (2.5)	21 (10.7)	7 (3.6)	76 (38.6)	2 (1.0)	2 (1.0)	5 (2.5)	50 (25.4)	29 (14.7)		
	4년제 대학교 이상	137	7 (5.1)	11 (8.0)	10 (7.3)	51 (37.2)	1 (.7)	0 (.0)	2 (1.5)	29 (21.2)	26 (19.0)		
부모 유무	있음	207	10 (4.8)	20 (9.7)	13 (6.3)	63 (30.4)	6 (2.9)	2 (1.0)	6 (2.9)	52 (25.1)	35 (16.9)	12.8	
	없음	163	7 (4.3)	21 (12.9)	7 (4.3)	58 (35.6)	4 (2.5)	1 (.6)	6 (3.7)	36 (22.1)	23 (14.1)		
	모름	44	0 (.0)	4 (9.1)	6 (13.6)	16 (36.4)	2 (4.5)	1 (2.3)	2 (4.5)	9 (20.5)	4 (9.1)		
장애 유무	있음	10	2 (20.0)	2 (20.0)	0 (.0)	2 (20.0)	0 (.0)	0 (.0)	0 (.0)	3 (30.0)	1 (10.0)	9.4	
	없음	404	15 (3.7)	43 (10.6)	26 (6.4)	135 (33.4)	12 (3.0)	4 (1.0)	14 (3.5)	94 (23.3)	61 (15.1)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75	2 (2.7)	15 (20.0)	6 (8.0)	27 (36.0)	0 (.0)	2 (2.7)	0 (.0)	16 (21.3)	7 (9.3)	30.2**	
	지역가입	68	2 (2.9)	0 (.0)	3 (4.4)	25 (36.8)	1 (1.5)	0 (.0)	3 (4.4)	19 (27.9)	15 (22.1)		
	의료급여	271	13 (4.8)	30 (11.1)	17 (6.3)	85 (31.4)	11 (4.1)	2 (.7)	11 (4.1)	62 (22.9)	40 (14.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87	7 (3.7)	21 (11.2)	8 (4.3)	58 (31.0)	6 (3.2)	2 (1.1)	4 (2.1)	55 (29.4)	26 (13.9)	18.2	
	공동생활가정	50	1 (2.0)	7 (14.0)	2 (4.0)	19 (38.0)	1 (2.0)	0 (.0)	4 (8.0)	11 (22.0)	5 (10.0)		
	가정위탁	177	9 (5.1)	17 (9.6)	16 (9.0)	60 (33.9)	5 (2.8)	2 (1.1)	6 (3.4)	31 (17.5)	31 (17.5)		
	가정 위탁	대리	55	1 (1.8)	5 (9.1)	6 (10.9)	17 (30.9)	1 (1.8)	2 (3.6)	2 (3.6)	6 (10.9)	15 (27.3)	19.3
		친인척	65	6 (9.2)	5 (7.7)	4 (6.2)	24 (36.9)	3 (4.6)	0 (.0)	3 (4.6)	11 (16.9)	9 (13.8)	
		일반	57	2 (3.5)	7 (12.3)	6 (10.5)	19 (33.3)	1 (1.8)	0 (.0)	1 (1.8)	14 (24.6)	7 (12.3)	

27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왕따 등)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차별 대우 등)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기타	x ²
전체		414	17 (4.1)	45 (10.9)	26 (6.3)	137 (33.1)	12 (2.9)	4 (1.0)	14 (3.4)	97 (23.4)	62 (15.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87	7 (3.7)	21 (11.2)	8 (4.3)	58 (31.0)	6 (3.2)	2 (1.1)	4 (2.1)	55 (29.4)	26 (13.9)	39.4
	공동생활가정	50	1 (2.0)	7 (14.0)	2 (4.0)	19 (38.0)	1 (2.0)	0 (.0)	4 (8.0)	11 (22.0)	5 (10.0)	
	대리 가정위탁	55	1 (1.8)	5 (9.1)	6 (10.9)	17 (30.9)	1 (1.8)	2 (3.6)	2 (3.6)	6 (10.9)	15 (27.3)	
	친인척 가정위탁	65	6 (9.2)	5 (7.7)	4 (6.2)	24 (36.9)	3 (4.6)	0 (.0)	3 (4.6)	11 (16.9)	9 (13.8)	
	일반 가정위탁	57	2 (3.5)	7 (12.3)	6 (10.5)	19 (33.3)	1 (1.8)	0 (.0)	1 (1.8)	14 (24.6)	7 (12.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238	9 (3.8)	29 (12.2)	13 (5.5)	67 (28.2)	10 (4.2)	2 (.8)	10 (4.2)	63 (26.5)	35 (14.7)	12.5
	연장종료	176	8 (4.5)	16 (9.1)	13 (7.4)	70 (39.8)	2 (1.1)	2 (1.1)	4 (2.3)	34 (19.3)	27 (15.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77	5 (6.5)	9 (11.7)	8 (10.4)	20 (26.0)	2 (2.6)	1 (1.3)	1 (1.3)	17 (22.1)	14 (18.2)	35.3
	2년차	132	7 (5.3)	11 (8.3)	4 (3.0)	49 (37.1)	4 (3.0)	2 (1.5)	3 (2.3)	28 (21.2)	24 (18.2)	
	3년차	124	5 (4.0)	11 (8.9)	9 (7.3)	47 (37.9)	2 (1.6)	0 (.0)	6 (4.8)	30 (24.2)	14 (11.3)	
	4년차	50	0 (.0)	10 (20.0)	4 (8.0)	12 (24.0)	3 (6.0)	1 (2.0)	2 (4.0)	10 (20.0)	8 (16.0)	
	5년차	31	0 (.0)	4 (12.9)	1 (3.2)	9 (29.0)	1 (3.2)	0 (.0)	2 (6.5)	12 (38.7)	2 (6.5)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333	17 (5.1)	31 (9.3)	21 (6.3)	116 (34.8)	8 (2.4)	3 (.9)	10 (3.0)	75 (22.5)	52 (15.6)	12.8
	비해당 (자립 4~5년차)	81	0 (.0)	14 (17.3)	5 (6.2)	21 (25.9)	4 (4.9)	1 (1.2)	4 (4.9)	22 (27.2)	10 (12.3)	

〈표 9-13〉 보호종로아동의 등록금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립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립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지립장학금	지립수당	다문화가족지원 (ODA)	국가청소년 보장급여	사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이웃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1,950	26 (1.3)	1,607 (82.4)	224 (11.5)	86 (4.4)	65 (3.3)	143 (7.3)	197 (10.1)	90 (4.6)	7 (4)	92 (4.7)	62 (3.2)	292 (15.0)	432 (22.2)	11 (6)
성별	남	825	12 (1.5)	652 (79.0)	83 (10.1)	39 (4.7)	31 (3.8)	54 (6.5)	73 (8.8)	41 (5.0)	5 (6)	33 (4.0)	29 (3.5)	118 (14.3)	150 (18.2)	4 (5)
	여	1,125	14 (1.2)	955 (84.9)	141 (12.5)	47 (4.2)	34 (3.0)	89 (7.9)	124 (11.0)	49 (4.4)	2 (2)	59 (5.2)	33 (2.9)	174 (15.5)	282 (25.1)	7 (6)
연령	만 18~19세	241	3 (1.2)	196 (81.3)	6 (2.5)	26 (10.8)	22 (9.1)	19 (7.9)	19 (7.9)	14 (5.8)	1 (4)	3 (1.2)	7 (2.9)	22 (9.1)	49 (20.3)	6 (2.5)
	만 20~21세	664	10 (1.5)	541 (81.5)	57 (8.6)	30 (4.5)	23 (3.5)	61 (9.2)	62 (9.3)	26 (3.9)	5 (8)	31 (4.7)	18 (2.7)	81 (12.2)	116 (17.5)	4 (6)
	만 22~23세	638	4 (6)	524 (82.1)	89 (13.9)	21 (3.3)	16 (2.5)	40 (6.3)	70 (11.0)	32 (5.0)	1 (2)	28 (4.4)	27 (4.2)	104 (16.3)	149 (23.4)	1 (2)
	만 24세 이상	407	9 (2.2)	346 (85.0)	72 (17.7)	9 (2.2)	4 (1.0)	23 (5.7)	46 (11.3)	18 (4.4)	0 (0)	30 (7.4)	10 (2.5)	85 (20.9)	118 (29.0)	0 (0)
교육 수준	2~3년제 대학교	524	4 (8)	410 (78.2)	44 (8.4)	37 (7.1)	30 (5.7)	48 (9.2)	41 (7.8)	22 (4.2)	4 (8)	11 (2.1)	22 (4.2)	54 (10.3)	74 (14.1)	7 (1.3)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2 (1.5)	1,197 (83.9)	180 (12.6)	49 (3.4)	35 (2.5)	95 (6.7)	156 (10.9)	68 (4.8)	3 (2)	81 (5.7)	40 (2.8)	238 (16.7)	358 (25.1)	4 (3)
부모 유무	있음	992	13 (1.3)	807 (81.4)	123 (12.4)	48 (4.8)	31 (3.1)	77 (7.8)	83 (8.4)	49 (4.9)	3 (3)	45 (4.5)	55 (5.5)	144 (14.5)	223 (22.5)	7 (7)
	없음	741	11 (1.5)	626 (84.5)	76 (10.3)	30 (4.0)	26 (3.5)	55 (7.4)	90 (12.1)	32 (4.3)	4 (5)	36 (4.9)	4 (5)	111 (15.0)	161 (21.7)	4 (5)
	모름	217	2 (9)	174 (80.2)	25 (11.5)	8 (3.7)	8 (3.7)	11 (5.1)	24 (11.1)	9 (4.1)	0 (0)	11 (5.1)	3 (1.4)	37 (17.1)	48 (22.1)	0 (0)
장아 유무	있음	40	0 (0)	25 (62.5)	3 (7.5)	0 (0)	0 (0)	3 (7.5)	4 (10.0)	4 (10.0)	0 (0)	4 (10.0)	1 (2.5)	2 (5.0)	6 (15.0)	2 (5.0)
	없음	1,910	26 (1.4)	1,582 (82.8)	221 (11.6)	86 (4.5)	65 (3.4)	140 (7.3)	193 (10.1)	86 (4.5)	7 (4)	88 (4.6)	61 (3.2)	290 (15.2)	426 (22.3)	9 (5)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568	8 (1.4)	471 (82.9)	69 (12.1)	15 (2.6)	10 (1.8)	39 (6.9)	44 (7.7)	29 (5.1)	1 (2)	32 (5.6)	18 (3.2)	113 (19.9)	151 (26.6)	2 (4)
	지역가입	243	2 (8)	191 (78.6)	38 (15.6)	7 (2.9)	3 (1.2)	14 (5.8)	19 (7.8)	10 (4.1)	1 (4)	17 (7.0)	15 (6.2)	43 (17.7)	58 (23.9)	2 (8)
	의료급여	1,139	16 (1.4)	945 (83.0)	117 (10.3)	64 (5.6)	52 (4.6)	90 (7.9)	134 (11.8)	51 (4.5)	5 (4)	43 (3.8)	29 (2.5)	136 (11.9)	223 (19.6)	7 (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882	11 (1.2)	748 (84.8)	74 (8.4)	50 (5.7)	31 (3.5)	79 (9.0)	55 (6.2)	58 (6.6)	3 (3)	2 (2)	16 (1.8)	111 (12.6)	175 (19.8)	5 (6)
	공동생활가정	215	3 (1.4)	169 (78.6)	16 (7.4)	9 (4.2)	10 (4.7)	14 (6.5)	23 (10.7)	20 (9.3)	1 (5)	5 (2.3)	9 (4.2)	28 (13.0)	48 (22.3)	2 (9)
	가정위탁	853	12 (1.4)	690 (80.9)	134 (15.7)	27 (3.2)	24 (2.8)	50 (5.9)	119 (14.0)	12 (1.4)	3 (4)	85 (10.0)	37 (4.3)	153 (17.9)	209 (24.5)	4 (5)
	가정 대리	240	3 (1.3)	196 (81.7)	41 (17.1)	8 (3.3)	7 (2.9)	15 (6.3)	31 (12.9)	1 (4)	2 (8)	33 (13.8)	17 (7.1)	49 (20.4)	63 (26.3)	0 (0)
	가정 친인척	389	8 (2.1)	320 (82.3)	63 (16.2)	10 (2.6)	8 (2.1)	19 (4.9)	59 (15.2)	2 (5)	0 (0)	41 (10.5)	10 (2.6)	72 (18.5)	104 (26.7)	3 (8)
	가정 일반	224	1 (4)	174 (77.7)	30 (13.4)	9 (4.0)	9 (4.0)	16 (7.1)	29 (12.9)	9 (4.0)	1 (4)	11 (4.9)	10 (4.5)	32 (14.3)	42 (18.8)	1 (4)

27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별수	자립지원체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자립장학금	자립수당	다문화가족 (ODA)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사선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파트비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1,950	26 (1.3)	1,607 (82.4)	224 (11.5)	86 (4.4)	65 (3.3)	143 (7.3)	197 (10.1)	90 (4.6)	7 (4)	92 (4.7)	62 (3.2)	292 (15.0)	432 (22.2)	11 (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827	9 (1.1)	670 (81.0)	74 (8.9)	53 (6.4)	44 (5.3)	70 (8.5)	69 (8.3)	31 (3.7)	4 (5)	26 (3.1)	32 (3.9)	115 (13.9)	174 (21.0)	8 (1.0)
	연장종료	1,123	17 (1.5)	937 (83.4)	150 (13.4)	33 (2.9)	21 (1.9)	73 (6.5)	128 (11.4)	59 (5.3)	3 (3)	66 (5.9)	30 (2.7)	177 (15.8)	258 (23.0)	3 (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534	7 (1.3)	439 (82.2)	40 (7.5)	28 (5.2)	24 (4.5)	30 (5.6)	63 (11.8)	31 (5.8)	1 (2)	30 (5.6)	12 (2.2)	56 (10.5)	113 (21.2)	5 (9)
	2년차	584	9 (1.5)	472 (80.8)	69 (11.8)	26 (4.5)	20 (3.4)	46 (7.9)	65 (11.1)	25 (4.3)	4 (7)	35 (6.0)	20 (3.4)	94 (16.1)	134 (22.9)	3 (5)
	3년차	498	4 (8)	420 (84.3)	70 (14.1)	16 (3.2)	16 (3.2)	42 (8.4)	38 (7.6)	16 (3.2)	2 (4)	16 (3.2)	14 (2.8)	66 (13.3)	109 (21.9)	3 (6)
	4년차	182	5 (2.7)	148 (81.3)	22 (12.1)	7 (3.8)	1 (5)	12 (6.6)	18 (9.9)	10 (5.5)	0 (0)	7 (3.8)	8 (4.4)	41 (22.5)	41 (22.5)	0 (0)
	5년차	152	1 (7)	128 (84.2)	23 (15.1)	9 (5.9)	4 (2.6)	13 (8.6)	13 (8.6)	8 (5.3)	0 (0)	4 (2.6)	8 (5.3)	35 (23.0)	35 (23.0)	0 (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616	20 (1.2)	1,331 (82.4)	179 (11.1)	70 (4.3)	60 (3.7)	118 (7.3)	166 (10.3)	72 (4.5)	7 (4)	81 (5.0)	46 (2.8)	216 (13.4)	356 (22.0)	11 (7)
	비해당 (자립 4~5년차)	334	6 (1.8)	276 (82.6)	45 (13.5)	16 (4.8)	5 (1.5)	25 (7.5)	31 (9.3)	18 (5.4)	0 (0)	11 (3.3)	16 (4.8)	76 (22.8)	76 (22.8)	0 (0)

보호종료아동이 등록금 이외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보호 중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1,950명 중에서 1,058명으로 54.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비율 46.4%보다 7.9%p 높은 비율로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82명(40.1%)이 있었으며, 학교장학금 226명(11.6%),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이 209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연령 등의 이유라고 사료되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달리 조부모/친인척 지원은 9.0%, 부모/형제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 경우는 6.5%에 불과하고, 시설후원의 경우도 7.7%였다. 앞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대답한 비율과 부모 및 시설후원을 통해 마련한 비율이 각각 21.8%, 8.2%, 11.7%였다. 한편, 보호 종료 직후의 자립정착금을 생활비로 이용하는 12.7%(247명)는 당장의 경제적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정착금이 단기 문제해결에 이용됨으로서 정착에 필요한 장기적 계획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안게 될 개연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자립정착금의 수준이 장기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지원 대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실태 관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에 관해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미결정 중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전체 3,140명 중 56.7%(1,759명)가 취업을, 8.1%(252명)는 창업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64.8%가 취·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212명)에 불과하였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603명)였다. 이와 같은 진로에 대한 계획은 보호종료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아직 진로에 대한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아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남: 20.9%, 여: 18.1%),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만 18~19세에서 진로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으나 만 24세 이상에서는 13.7%였다.

〈표 9-14〉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립지원 채 지원	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자립장학금	자립수당	다문화통 장(CDA)	국민기초생 활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1,950	46 (2.4)	209 (10.7)	204 (10.5)	247 (12.7)	434 (22.3)	150 (7.7)	782 (40.1)	170 (8.7)	11 (.6)	176 (9.0)	126 (6.5)	1058 (54.3)	226 (11.6)	9 (.5)	
성별	남	825	18 (2.2)	102 (12.4)	79 (9.6)	112 (13.6)	182 (22.1)	62 (7.5)	314 (38.1)	73 (8.8)	5 (.6)	54 (6.5)	48 (5.8)	424 (51.4)	83 (10.1)	4 (.5)	
	여	1,125	28 (2.5)	107 (9.5)	125 (11.1)	135 (12.0)	252 (22.4)	88 (7.8)	468 (41.6)	97 (8.6)	6 (.5)	122 (10.8)	78 (6.9)	634 (56.4)	143 (12.7)	5 (.4)	
연령	만 18~19세	241	6 (2.5)	17 (7.1)	5 (2.1)	68 (28.2)	121 (50.2)	28 (11.6)	148 (61.4)	12 (5.0)	1 (.4)	3 (1.2)	10 (4.1)	73 (30.3)	17 (7.1)	2 (.8)	
	만 20~21세	664	11 (1.7)	72 (10.8)	46 (6.9)	99 (14.9)	177 (26.7)	59 (8.9)	316 (47.6)	44 (6.6)	5 (.8)	53 (8.0)	39 (5.9)	334 (50.3)	60 (9.0)	3 (.5)	
	만 22~23세	638	15 (2.4)	71 (11.1)	74 (11.6)	52 (8.2)	101 (15.8)	36 (5.6)	199 (31.2)	54 (8.5)	4 (.6)	67 (10.5)	50 (7.8)	388 (60.8)	83 (13.0)	2 (.3)	
	만 24세 이상	407	14 (3.4)	49 (12.0)	79 (19.4)	28 (6.9)	35 (8.6)	27 (6.6)	119 (29.2)	60 (14.7)	1 (.2)	53 (13.0)	27 (6.6)	263 (64.6)	66 (16.2)	2 (.5)	
교육 수준	2~3년제 대학교	524	8 (1.5)	55 (10.5)	24 (4.6)	91 (17.4)	173 (33.0)	54 (10.3)	249 (47.5)	29 (5.5)	1 (.2)	19 (3.6)	25 (4.8)	217 (41.4)	29 (5.5)	3 (.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38 (2.7)	154 (10.8)	180 (12.6)	156 (10.9)	261 (18.3)	96 (6.7)	533 (37.4)	141 (9.9)	10 (.7)	157 (11.0)	101 (7.1)	841 (59.0)	197 (13.8)	6 (.4)	
부모 유무	있음	992	24 (2.4)	97 (9.8)	100 (10.1)	140 (14.1)	229 (23.1)	79 (8.0)	362 (36.5)	98 (9.9)	6 (.6)	78 (7.9)	101 (10.2)	531 (53.5)	101 (10.2)	8 (.8)	
	없음	741	19 (2.6)	84 (11.3)	80 (10.8)	94 (12.7)	168 (22.7)	59 (8.0)	334 (45.1)	56 (7.6)	4 (.5)	74 (10.0)	19 (2.6)	408 (55.1)	105 (14.2)	0 (.0)	
	모름	217	3 (1.4)	28 (12.9)	24 (11.1)	13 (6.0)	37 (17.1)	12 (5.5)	86 (39.6)	16 (7.4)	1 (.5)	24 (11.1)	6 (2.8)	119 (54.8)	20 (9.2)	1 (.5)	
장애 유무	있음	40	2 (5.0)	5 (12.5)	2 (5.0)	6 (15.0)	8 (20.0)	6 (15.0)	21 (52.5)	7 (17.5)	0 (.0)	4 (10.0)	2 (5.0)	12 (30.0)	5 (12.5)	0 (.0)	
	없음	1910	44 (2.3)	204 (10.7)	202 (10.6)	241 (12.6)	426 (22.3)	144 (7.5)	761 (39.8)	163 (8.5)	11 (.6)	172 (9.0)	124 (6.5)	1046 (54.8)	221 (11.6)	9 (.5)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568	12 (2.1)	71 (12.5)	73 (12.9)	41 (7.2)	57 (10.0)	36 (6.3)	136 (23.9)	62 (10.9)	2 (.4)	77 (13.6)	51 (9.0)	357 (62.9)	73 (12.9)	3 (.5)	
	지역가입	243	3 (1.2)	20 (8.2)	22 (9.1)	27 (11.1)	39 (16.0)	13 (5.3)	52 (21.4)	32 (13.2)	1 (.4)	32 (13.2)	23 (9.5)	156 (64.2)	33 (13.6)	1 (.4)	
	의료급여	1,139	31 (2.7)	118 (10.4)	109 (9.6)	179 (15.7)	338 (29.7)	101 (8.9)	594 (52.2)	76 (6.7)	8 (.7)	67 (5.9)	52 (4.6)	545 (47.8)	120 (10.5)	5 (.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882	24 (2.7)	94 (10.7)	69 (7.8)	131 (14.9)	235 (26.6)	97 (11.0)	363 (41.2)	129 (14.6)	5 (.6)	4 (.5)	44 (5.0)	441 (50.0)	87 (9.9)	5 (.6)	
	공동생활가정	215	6 (2.8)	22 (10.2)	13 (6.0)	38 (17.7)	68 (31.6)	17 (7.9)	122 (56.7)	21 (9.8)	2 (.9)	5 (2.3)	8 (3.7)	110 (51.2)	32 (14.9)	0 (.0)	
	가정위탁	853	16 (1.9)	93 (10.9)	122 (14.3)	78 (9.1)	131 (15.4)	36 (4.2)	297 (34.8)	20 (2.3)	4 (.5)	167 (19.6)	74 (8.7)	507 (59.4)	107 (12.5)	4 (.5)	
	가정 위탁	대리	240	0 (.0)	22 (9.2)	39 (16.3)	24 (10.0)	40 (16.7)	8 (3.3)	79 (32.9)	4 (1.7)	3 (1.3)	58 (24.2)	19 (7.9)	163 (67.9)	30 (12.5)	1 (.4)
		친인척	389	11 (2.8)	47 (12.1)	61 (15.7)	26 (6.7)	45 (11.6)	11 (2.8)	144 (37.0)	5 (1.3)	0 (.0)	90 (23.1)	31 (8.0)	223 (57.3)	53 (13.6)	1 (.3)
		일반	224	5 (2.2)	24 (10.7)	22 (9.8)	28 (12.5)	46 (20.5)	17 (7.6)	74 (33.0)	11 (4.9)	1 (.4)	19 (8.5)	24 (10.7)	121 (54.0)	24 (10.7)	2 (.9)

구분	사례 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국 정학재단 국가장학금	한국 정학재단 학자금대출	자립장학금	자립수당	다문화가족 지원(CDA)	국민기초생 활보장급여	시설후원	금융기관 대출	조부모/친인 척 지원	부모/형제 지원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기타	
전체	1,950	46 (2.4)	209 (10.7)	204 (10.5)	247 (12.7)	434 (22.3)	150 (7.7)	782 (40.1)	170 (8.7)	11 (.6)	176 (9.0)	126 (6.5)	1058 (54.3)	226 (11.6)	9 (.5)	
보호 종료 유형	민간특소	827	19 (2.3)	97 (11.7)	61 (7.4)	138 (16.7)	263 (31.8)	85 (10.3)	381 (46.1)	49 (5.9)	6 (.7)	46 (5.6)	44 (5.3)	406 (49.1)	77 (9.3)	4 (.5)
	연장종료	1,123	27 (2.4)	112 (10.0)	143 (12.7)	109 (9.7)	171 (15.2)	65 (5.8)	401 (35.7)	121 (10.8)	5 (.4)	130 (11.6)	82 (7.3)	652 (58.1)	149 (13.3)	5 (.4)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534	11 (2.1)	58 (10.9)	41 (7.7)	83 (15.5)	152 (28.5)	40 (7.5)	239 (44.8)	43 (8.1)	4 (.7)	63 (11.8)	29 (5.4)	245 (45.9)	65 (12.2)	4 (.7)
	2년차	584	18 (3.1)	67 (11.5)	57 (9.8)	82 (14.0)	137 (23.5)	35 (6.0)	237 (40.6)	47 (8.0)	2 (.3)	64 (11.0)	45 (7.7)	311 (53.3)	68 (11.6)	3 (.5)
	3년차	498	12 (2.4)	51 (10.2)	63 (12.7)	50 (10.0)	94 (18.9)	41 (8.2)	195 (39.2)	40 (8.0)	3 (.6)	33 (6.6)	25 (5.0)	276 (55.4)	55 (11.0)	1 (.2)
	4년차	182	1 (.5)	18 (9.9)	23 (12.6)	16 (8.8)	29 (15.9)	16 (8.8)	68 (37.4)	23 (12.6)	0 (.0)	9 (4.9)	16 (8.8)	127 (69.8)	26 (14.3)	1 (.5)
	5년차	152	4 (2.6)	15 (9.9)	20 (13.2)	16 (10.5)	22 (14.5)	18 (11.8)	43 (28.3)	17 (11.2)	2 (1.3)	7 (4.6)	11 (7.2)	99 (65.1)	12 (7.9)	0 (.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616	41 (2.5)	176 (10.9)	161 (10.0)	215 (13.3)	383 (23.7)	116 (7.2)	671 (41.5)	130 (8.0)	9 (.6)	160 (9.9)	99 (6.1)	832 (51.5)	188 (11.6)	8 (.5)
	비해당 (자립 4~5년차)	334	5 (1.5)	33 (9.9)	43 (12.9)	32 (9.6)	51 (15.3)	34 (10.2)	111 (33.2)	40 (12.0)	2 (.6)	16 (4.8)	27 (8.1)	226 (67.7)	38 (11.4)	1 (.3)

한편, 장애 유무는 진로 계획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보호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보호유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했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진로 계획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취·창업 계획을 계획하는 경우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라서는 만기퇴소 아동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진로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였고, 연장종료 아동의 경우 4.9%였는데, 이는 연장종료 아동의 상당수가 이미 학업 등의 이유로 퇴소시기를 연장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장종료 아동의 경우, 진로계획으로 취업을 선택한 비율이 60.1%였고, 만기퇴소 아동은 54.1%였으며, 만기퇴소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8%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강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9-15 참조).

〈표 9-15〉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x ²
전체		3,104	212 (6.8)	1,759(56.7)	252 (8.1)	232 (7.5)	603 (19.4)	46 (1.5)	
성별	남	1,461	102 (7.0)	779 (53.3)	160 (11.0)	88 (6.0)	305 (20.9)	27 (1.8)	46.1 ***
	여	1,643	110 (6.7)	980 (59.6)	92 (5.6)	144 (8.8)	298 (18.1)	19 (1.2)	
연령	만 18~19세	600	69 (11.5)	324 (54.0)	41 (6.8)	20 (3.3)	140 (23.3)	6 (1.0)	138.1 ***
	만 20~21세	1,289	93 (7.2)	724 (56.2)	117 (9.1)	63 (4.9)	275 (21.3)	17 (1.3)	
	만 22~23세	778	31 (4.0)	463 (59.5)	62 (8.0)	77 (9.9)	128 (16.5)	17 (2.2)	
	만 24세 이상	437	19 (4.3)	248 (56.8)	32 (7.3)	72 (16.5)	60 (13.7)	6 (1.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15 (10.0)	545 (47.2)	129 (11.2)	71 (6.2)	277 (24.0)	17 (1.5)	153.5 ***
	2~3년제 대학교	524	35 (6.7)	322 (61.5)	32 (6.1)	10 (1.9)	116 (22.1)	9 (1.7)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62 (4.3)	892 (62.6)	91 (6.4)	151 (10.6)	210 (14.7)	20 (1.4)	
부모 유무	있음	1,512	100 (6.6)	885 (58.5)	126 (8.3)	119 (7.9)	249 (16.5)	33 (2.2)	30.1 ***
	없음	1,198	85 (7.1)	673 (56.2)	93 (7.8)	81 (6.8)	258 (21.5)	8 (7)	
	모름	394	27 (6.9)	201 (51.0)	33 (8.4)	32 (8.1)	96 (24.4)	5 (1.3)	
장애 유무	있음	132	5 (3.8)	75 (56.8)	6 (4.5)	13 (9.8)	31 (23.5)	2 (1.5)	6.2
	없음	2,972	207 (7.0)	1,684(56.7)	246 (8.3)	219 (7.4)	572 (19.2)	44 (1.5)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75 (7.8)	436 (45.4)	96 (10.0)	182 (19.0)	160 (16.7)	11 (1.1)	303.1 ***
	지역가입	374	16 (4.3)	223 (59.6)	32 (8.6)	19 (5.1)	74 (19.8)	10 (2.7)	
	의료급여	1,770	121 (6.8)	1,100(62.1)	124 (7.0)	31 (1.8)	369 (20.8)	25 (1.4)	

구분		사례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x ²
전체		3,104	212 (6.8)	1,759(56.7)	252 (8.1)	232 (7.5)	603 (19.4)	46 (1.5)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17 (8.3)	793 (56.0)	111 (7.8)	92 (6.5)	286 (20.2)	18 (1.3)	30.8 ***
	공동생활가정	332	20 (6.0)	196 (59.0)	24 (7.2)	12 (3.6)	71 (21.4)	9 (2.7)	
	가정위탁	1,355	75 (5.5)	770 (56.8)	117 (8.6)	128 (9.4)	246 (18.2)	19 (1.4)	
	가정 위탁	대리	403	28 (6.9)	221 (54.8)	47 (11.7)	77 (19.1)	3 (0.7)	18.9**
		친인척	564	28 (5.0)	331 (58.7)	36 (6.4)	95 (16.8)	9 (1.6)	
		일반	388	19 (4.9)	218 (56.2)	34 (8.8)	74 (19.1)	7 (1.8)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417	117 (8.3)	793 (56.0)	111 (7.8)	92 (6.5)	286 (20.2)	18 (1.3)	51.2 ***
	공동생활가정	332	20 (6.0)	196 (59.0)	24 (7.2)	12 (3.6)	71 (21.4)	9 (2.7)	
	대리 가정위탁	403	28 (6.9)	221 (54.8)	47 (11.7)	27 (6.7)	77 (19.1)	3 (0.7)	
	친인척 가정위탁	564	28 (5.0)	331 (58.7)	36 (6.4)	65 (11.5)	95 (16.8)	9 (1.6)	
	일반 가정위탁	388	19 (4.9)	218 (56.2)	34 (8.8)	36 (9.3)	74 (19.1)	7 (1.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47 (8.3)	960 (54.1)	159 (9.0)	99 (5.6)	386 (21.8)	23 (1.3)	53.7 ***
	연장종료	1,330	65 (4.9)	799 (60.1)	93 (7.0)	133 (10.0)	217 (16.3)	23 (1.7)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70 (8.0)	519 (59.3)	52 (5.9)	51 (5.8)	171 (19.5)	12 (1.4)	43.4 ***
	2년차	921	63 (6.8)	530 (57.5)	72 (7.8)	71 (7.7)	174 (18.9)	11 (1.2)	
	3년차	805	51 (6.3)	458 (56.9)	67 (8.3)	60 (7.5)	158 (19.6)	11 (1.4)	
	4년차	280	17 (6.1)	150 (53.6)	26 (9.3)	25 (8.9)	56 (20.0)	6 (2.1)	
	5년차	223	11 (4.9)	102 (45.7)	35 (15.7)	25 (11.2)	44 (19.7)	6 (2.7)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84 (7.1)	1,507(57.9)	191 (7.3)	182 (7.0)	503 (19.3)	34 (1.3)	26.1 ***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8 (5.6)	252 (50.1)	61 (12.1)	50 (9.9)	100 (19.9)	12 (2.4)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현재 취업 상태이며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경우 '② 취업'에 포함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3,083명 중에서 36.4%(1,122명)는 2~3년제 대학 졸업을, 37.9%(1,167명)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10.3%(317명)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희망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보호종료 여아 1,632명 중에서 41.1%(670명)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고 있었고, 35.5%(579명)는 2~3년제 대학 졸업을, 11.3%(185명)은 대학원 이상을 희망하는 교육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호종료 남아의 경우 2~3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4%(543명),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비율이 34.3%(497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은 9.1%(132명)이었다.

연령집단에 따라서 희망하는 교육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보였는데, 의 만 18~19세 보호종료아동 599명과 만 20~21세 1,288명의 402%와 42.5%가 2~3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교육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만 22~23세 보호종료 응답

자 767명의 44.1%와 만 24세 이상 보호종료 응답자 429명의 55.2%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 교육수준이라고 하였다. 대학원 이상의 희망 교육수준이라는 응답도 만 24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호유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의 희망교육 수준은 2~3년제나 4년제 대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0% 내외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라 연장종료 아동의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장종료 아동의 4년제 대학 졸업의 희망은 전체 연장종료 아동 1,315명 중 44.9%(591명)이고, 만기퇴소 아동의 경우 1,768명 중 32.6(576명)이었다(표 9-16 참조).

〈표 9-16〉 보호종료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교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석/박사)	χ^2
전체		3,083	477 (15.5)	1,122 (36.4)	1,167 (37.9)	317 (10.3)	
성별	남	1,451	279 (19.2)	543 (37.4)	497 (34.3)	132 (9.1)	38.9***
	여	1,632	198 (12.1)	579 (35.5)	670 (41.1)	185 (11.3)	
연령	만 18~19세	599	137 (22.9)	241 (40.2)	179 (29.9)	42 (7.0)	306.9***
	만 20~21세	1,288	247 (19.2)	548 (42.5)	413 (32.1)	80 (6.2)	
	만 22~23세	767	72 (9.4)	261 (34.0)	338 (44.1)	96 (12.5)	
	만 24세 이상	429	21 (4.9)	72 (16.8)	237 (55.2)	99 (23.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15 (36.0)	432 (37.4)	270 (23.4)	37 (3.2)	1084***
	2~3년제 대학교	524	43 (8.2)	349 (66.6)	95 (18.1)	37 (7.1)	
	4년제 대학교 이상	1,405	19 (1.4)	341 (24.3)	802 (57.1)	243 (17.3)	
부모 유무	있음	1,500	249 (16.6)	554 (36.9)	533 (35.5)	164 (10.9)	16.2*
	없음	1,189	170 (14.3)	405 (34.1)	496 (41.7)	118 (9.9)	
	모름	394	58 (14.7)	163 (41.4)	138 (35.0)	35 (8.9)	
장애 유무	있음	131	55 (42.0)	45 (34.4)	21 (16.0)	10 (7.6)	80.5***
	없음	2,952	422 (14.3)	1,077 (36.5)	1,146 (38.8)	307 (10.4)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53	130 (13.6)	347 (36.4)	355 (37.3)	121 (12.7)	15.2*
	지역가입	370	51 (13.8)	140 (37.8)	137 (37.0)	42 (11.4)	
	의료급여	1,760	296 (16.8)	635 (36.1)	675 (38.4)	154 (8.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08	235 (16.7)	515 (36.6)	526 (37.4)	132 (9.4)	7.8
	공동생활가정	331	50 (15.1)	130 (39.3)	121 (36.6)	30 (9.1)	
	가정위탁	1,344	192 (14.3)	477 (35.5)	520 (38.7)	155 (11.5)	
	가정 위탁	대리	400	56 (14.0)	153 (38.3)	148 (37.0)	38.3***
		친인척	560	54 (9.6)	182 (32.5)	244 (43.6)	
		일반	384	82 (21.4)	142 (37.0)	128 (33.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08	235 (16.7)	515 (36.6)	526 (37.4)	132 (9.4)	45.4***
	공동생활가정	331	50 (15.1)	130 (39.3)	121 (36.6)	30 (9.1)	
	대리 가정위탁	400	56 (14.0)	153 (38.3)	148 (37.0)	43 (10.8)	
	친인척 가정위탁	560	54 (9.6)	182 (32.5)	244 (43.6)	80 (14.3)	
	일반 가정위탁	384	82 (21.4)	142 (37.0)	128 (33.3)	32 (8.3)	

구분		사례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교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석/박사)	χ^2
전체		3,083	477 (15.5)	1,122 (36.4)	1,167 (37.9)	317 (10.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68	382 (21.6)	689 (39.0)	576 (32.6)	121 (6.8)	186.5***
	연장종료	1,315	95 (7.2)	433 (32.9)	591 (44.9)	196 (14.9)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69	138 (15.9)	348 (40.0)	302 (34.8)	81 (9.3)	14.3
	2년차	915	150 (16.4)	316 (34.5)	346 (37.8)	103 (11.3)	
	3년차	800	112 (14.0)	290 (36.3)	312 (39.0)	86 (10.8)	
	4년차	279	47 (16.8)	94 (33.7)	113 (40.5)	25 (9.0)	
	5년차	220	30 (13.6)	74 (33.6)	94 (42.7)	22 (10.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584	400 (15.5)	954 (36.9)	960 (37.2)	270 (10.4)	3.7
	비해당 (자립 4~5년차)	499	77 (15.4)	168 (33.7)	207 (41.5)	47 (9.4)	

주: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 응답자는 제외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성장발달 과정에서 교육은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진로의 선택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또는 보호 종료 직후의 보호 아동의 경우, 진로 선택의 단계에서 진학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거나 진학을 진로선택의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록치 않을 수 있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또는 퇴소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지지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교육과정의 이수 수준에 대한 현실의 선택이 다양한 보호아동의 연령 코호트 별 성인기 이행 이후 전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종단(longitudinal) 연구나 정책적 지원 효과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2020 보호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가 보호아동의 실증기반 자립지원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종단연구와 정책효과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기초 논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교육관련 현황에 대해 1절에서는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결과를 중심으로, 2절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9-17〉은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비교한 것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의 비율은 44.0%로 가장 높고, 보호종료아동 3,104명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아동의 비율이 32.8%로 가장 높다.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에는 진학 등의 사유로 연장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또는 중퇴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1.4% 총 2.8% 확인되었고,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각각 2.5%와 2.3% 있었다. 보호종료아동 중에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각각 16.8%(522명)과 12.9%(401명)으로 보호 종료 상태에 따른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9-17〉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

(단위: 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중학교 이하	2	(0.3)	28	(0.9)	1558.9***
고등학교 재학중	322	(44.0)	27	(0.9)	
고등학교 중퇴/휴학	5	(0.7)	80	(2.6)	
고등학교 졸업	86	(11.7)	1,019	(32.8)	
2~3년제 전문대학교 재학중	119	(16.3)	327	(10.5)	
2~3년제 전문대학교 중퇴/휴학	10	(1.4)	197	(6.3)	
2~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	18	(2.5)	522	(16.8)	
4년제 대학교 재학중	143	(19.5)	344	(11.1)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10	(1.4)	138	(4.4)	
4년제 대학교 졸업	17	(2.3)	401	(12.9)	
대학원 이상	0	(0.0)	21	(0.7)	

보호 상태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 이유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51.2%, 보호종료아동은 52.1%로 크게 차이가 없다. 반면, 진학준비를 위한 검정고시나 수능준비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은 19.8%이나 보호 종료의 경우 2.6%에 불과하였다. 또한 ‘진학하고 싶으나 경

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호종료예정아동은 3.5%에 불과하였으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15.7%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진학을 진로계획의 선택지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9-18〉 보호아동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86	(100.0)	1,019	(100.0)	
진학 준비(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중	17	(19.8)	26	(2.6)	192.9***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4	(51.2)	531	(52.1)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3	(3.5)	160	(15.7)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4	(4.7)	53	(5.2)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7	(8.1)	154	(15.1)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3	(3.5)	63	(6.2)	
기타	8	(9.3)	32	(3.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휴학 또는 학업 중단의 이유로 가장 주된 사유는 기타 이외에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사유를 제시한 비율은 22.5%이고, 휴학의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호종료아동 중 휴학 사례 414명 중 3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9-19〉 보호아동의 휴학 혹은 학업을 중단한 이유

(단위: 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25	(100.0)	414	(100.0)	
건강상의 이유로	1	(4.0)	17	(4.1)	102.3***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4	(16.0)	45	(10.9)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1	(4.0)	26	(6.3)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6	(24.0)	137	(33.1)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왕따 등)	0	(0.0)	12	(2.9)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차별 대우 등)	0	(0.0)	4	(1.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2	(8.0)	14	(3.4)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7	(28.0)	97	(23.4)
기타	4	(16.0)	62	(15.0)

보호아동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비교한 결과를 <표 9-20>에 제시하였다. 등록금을 마련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이나 보호종료아동 각각 85.5%와 82.4%가 이용하고 있었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46.4%였고, 보호종료아동은 54.3%로 보호종료아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조부모/친인척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비율이 전체 317명 중에서 21.8%, 부모/형제 지원 8.2%, 시설 후원 11.7%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전체 1,950명 중에서 조부모/친인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9.0%, 부모/형제 지원이 6.5%, 시설 후원이 7.7% 불과하고 자립정착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12.7% 확인되었다.

<표 9-20> 보호아동의 등록금 및 생활비의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등록금 마련				생활비 마련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지방자치단체 지원	9	(2.8)	26	(1.3)	13	(4.1)	46	(2.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71	(85.5)	1,607	(82.4)	46	(14.5)	209	(10.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5	(7.9)	224	(11.5)	37	(11.7)	204	(10.5)
자립정착금	-	-	86	(4.4)	-	-	247	(12.7)
자립수당	-	-	65	(3.3)	-	-	434	(22.3)
디딤씨앗통장(CDA)	8	(2.5)	143	(7.3)	11	(3.5)	150	(7.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7	(11.7)	197	(10.1)	123	(38.8)	782	(40.1)

시설후원	7	(2.2)	90	(4.6)	37	(11.7)	170	(8.7)
금융기관 대출	1	(0.3)	7	(0.4)	1	(0.3)	11	(0.6)
조부모/친인척 지원	29	(9.1)	92	(4.7)	69	(21.8)	176	(9.0)
부모/형제 지원	14	(4.4)	62	(3.2)	26	(8.2)	126	(6.5)
아르바이트	35	(11.0)	292	(15.0)	147	(46.4)	1,058	(54.3)
학교장학금	84	(26.5)	432	(22.2)	58	(18.3)	226	(11.6)
기타	3	(0.9)	11	(0.6)	10	(3.2)	9	(0.5)
전체	317	(100.0)	1,950	(100.0)	317	(100.0)	1,950	(100.0)

보호아동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진로는 취창업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63.1%, 보호종료아동의 64.3%가 취창업을 가장 우선적 진로로 선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25.5%는 상급학교 진학을 진로 선택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나,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아울러,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7.7%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19.2%에 이르러 자립지원 과정에서 진로 선택 관련 지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표 9-21〉 보호아동의 진로 계획과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χ^2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415.7**
상급학교 진학	195	(26.6)	212	(6.8)	
취업	446	(60.9)	1,759	(56.7)	
창업	21	(2.9)	252	(8.1)	
이직	5	(0.7)	232	(7.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56	(7.7)	603	(19.4)	
기타	9	(1.2)	46	(1.5)	

보호아동의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 각각 42.3%와 37.9%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이 8.3%, 보호종료아동이 10.3%로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표 9-22〉 보호아동의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083	(100.0)	7.4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9	(16.3)	477	(15.5)	
2~3년제 대학교 졸업	242	(33.1)	1,122	(36.4)	
4년제 대학교 졸업	310	(42.3)	1,167	(37.9)	
대학원 이상(석/박사)	61	(8.3)	317	(10.3)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실태 비교

가. 타 조사와의 비교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도의 12세~17세 아동 대상의 조사(류정희 외, 2018)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평균 7.21점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조사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7점으로 약 0.21점 낮았다.

〈표 9-23〉 학교생활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평균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7.0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7.21

주: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분석대상자 수는 1,669명임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일반아동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적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만 12세~17세의 일반아동은 주관적 학업 성적을 7.19점으로 응답한 반면(류정희 외, 2018),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에는 5.7점으로 응답하여 약 1.5점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24〉 학업성적 - 타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평균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5.7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7.19

주: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와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0~10점, 총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함.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1~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함.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상정 외, 2019a)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향후 진로 계획을 일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12~17세 대상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5%(류정희 외, 2018), 그리고 13~17세 대상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1%(백혜정 외, 2017)가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본 조사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26.6%만이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대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일반 아동·청소년은 각 조사에서 2.3%(류정희 외, 2018), 9.6%(백혜정 외, 2017)에 불과했다.

〈표 9-25〉 향후 진로 계획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미결정	현 직장 유지	기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6.6	60.9	2.9	0.7	7.7	-	1.2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93.5	2.3	0.3	-	2.5	-	0.1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18세 응답)	82.1	9.6	0.3	0.2	7.2	0.3	0.1

주: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현 직장 유지' 보기를 포함하지 않음.

2)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이직/현 직장 유지는 조사항목이 아니며, 대신(-)로 표기됨.

자료: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희망 교육수준을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은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 대상의 2019년도 진로교육현황 조사에서는 54%(한상근 외, 2019), 12~17세 아동 대상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81.1%(류정희 외, 2018), 그리고 13~18세 대상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76% (백혜정 외, 2017)로 각각 응답한 반면,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42.3%만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희망하는 경우는 16.3%로 타 조사의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가장 높았다.

〈표 9-26〉 희망 교육수준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석/박사)	기타 (모르겠음 등)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6.3	33.1	42.3	8.3	-
2019년 진로교육현황조사 (고등학생 응답)	10.4	12.4	54.0	15.1	8.1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3.5	7.7	81.1	7.7	-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18세 응답)	3.2	9.4	76.0	11.4	-

주: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기타'는 조사항목이 아니며, 대시(-)로 표기됨.

2) 2019년 진로교육현황조사 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8,365명임.

자료: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2019년 진로교육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

2.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보호종료아동 교육수준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이하는 2008년 51.8%에서 2012년도 41.4%, 2016년도 48%, 그리고 2020년도 37.2%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2~3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이상 비율은 2008년도 48.1%에서 2012년도 57.5%, 2016년도 52%, 그리고 2020년도 62.7%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27〉 교육수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08	2012	2016	2020
----	------	------	------	------

중학교 이하	24 (1.1)	2 (0.3)	586 (48.0)	28 (0.9)
고등학교	1,072 (50.7)	270 (41.4)		1,126 (36.3)
2-3년제 대학교	1,019 (48.1)	232 (35.6)	379 (31.0)	1,046 (33.6)
4년제 대학교		143 (21.9)	256 (21.0)	883 (28.4)
대학원 이상		5 (0.8)		21 (0.7)

주: 각 교급은 재학, 중퇴/휴학, 졸업을 포함함

등록금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이용이 각 조사년도에서 모두 1순위로 가장 높았고, 그 비율은 2012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높아졌다. 한편, 2012년도는 아르바이트가 2순위로 나타났으나 2016년도와 2020년도는 학교장학금이 2순위로 바뀌었고, 아르바이트는 3순위로 변경되었다.

〈표 9-28〉 등록금 마련 방법(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단위: %)

	2012	2016	2020
1순위	장학재단 지원 (59.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77.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82.4)
2순위	아르바이트 (53.6)	학교장학금 (25.3)	학교장학금 (22.2)
3순위	학교장학금 (48.4)	아르바이트 (17.6)	아르바이트 (15.0)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순위는 아르바이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16년도에 약 45% 감소한 55.2%로 나타났다으며, 2020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한 54.3%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종료아동 2명 중 1명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16년도에는 자립정착금이 3순위로 나타났는데 2014년도부터 자립정착금 지급 지역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2014, p.13), 그 영향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립수당이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도에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자립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해석된다.

〈표 9-29〉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선택) - 시계열 비교

(단위: %)

	2012	2016	2020
1순위	아르바이트 (90.5)	아르바이트 (55.2)	아르바이트 (54.3)
2순위	시설후원 (38.2)	시설후원 (19.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0.1)
3순위	부모/형제도움 (30.1)	자립정착금 (17.1)	자립수당 (22.3)

주: 2012년과 2016년 문항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립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호종료아동과 일반청년(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김기현 외, 2017)을 비교 해보면, 보호종료아동과 일반 청소년 모두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보다 9% 이상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높은 응답 비율은 보호종료아동은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로 나타난 반면, 일반청년은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청년보다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사례수	진학 준비 (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중*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019	2.6	52.1	15.7	5.2	15.1	6.2	3.1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19-29세 응답)	1,150	0.5	43.0	9.3	11.2	30.0	4.6	1.6

주: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로 질문함.

자료: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기초분석 보고서(김기현 외, 2017)

보호종료아동의 향후 진로 계획을 동일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상급학교 진

학 계획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 2분의 1 수준으로 낮았고, 창업 비율이 약 7%p 높게 나타났다으며, 취업의 비율도 약 2%p 다소 높았다. 향후 진로 미결정 비율도 일반 청소년보다 약 4%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 항목의 차이로 비교의 한계점이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동일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에 비해 교육보다는 취·창업을 선호하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31〉 향후 진로 계획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사례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이직	미결정	현 직장 유지	기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104	6.8	56.7	8.1	7.5	19.4	-	1.5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9~24세 응답)	1,865	10.9	54.8	0.9	5.3	15.0	11.6	1.3

주: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현 직장 유지' 보기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제5절 소결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은 보호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4년제 대학이상(재학, 중퇴/휴학,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리보호 유형은 가정위탁이었으며,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이상(재학, 중퇴/휴학, 졸업)의 비율이 가정위탁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4년제 졸업 비율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의 2~3배로 나타났다. 또한 연장보호종료 일 경우, 만기퇴소에 비해 2~3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졸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도 2순위로 높았다. 또한, 학교를 중퇴/휴학 한 이유도 두 집단 모두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일

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보호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호종료 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상급학교 진학과 교육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중퇴/휴학 한 이유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가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보호종료예정자의 주관적 성적 만족도는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과거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하 비율이 줄고, 2-3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수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준은 고용의 질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상급학교 진학 독려와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등록금 마련 방법으로 80%가 넘게 국가장학금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장학금을 다음 순위로 꼽았다. 생활비로는 아르바이트가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3순위로는 2019년도에 도입된 자립수당을 꼽았으며, 이는 2012년도와 2016년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변화로 파악되어 국가 제도가 보호아동의 학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10장

고용 및 경제

-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고용 및 경제 실태
-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및 경제 실태
-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 제4절 조사결과 비교
- 제3절 소결

제 10 장 고용 및 경제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고용 및 경제

본 절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및 이유, 희망 직업, 진로활동경험 경험 및 만족도, 진로체험 참여 및 만족도, 그리고 취업지원 사업과 자립후 예산 생활비 등 이들의 고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르바이트 경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467명(63.8%)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4명(36.2%)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보호아동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보호아동의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보호아동이 279명(81.6%)로 만 17세(52.4%) 또는 만 18세 아동(46.7%)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7세 또는 18세의 경우에는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 활동에 다소 제한이 존재하나 만 19세 이상의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는 4년제 대학교 이상 아동(87.1%)이 고등학교 이하 아동(49.4%)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유

무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는 부모가 없는 아동(70.4%)의 경우 부모가 있는 아동(59.5%)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경우 성인이 되었거나 시간적 여유도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그럴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부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 부모가 있는 아동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높음에 따른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애유무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는 장애가 없는 아동(65.2%)의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37.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유형에 따른 차이는 가정위탁 보호아동(74.8%)이 아동양육시설(48.4%)이나 공동생활가정(50.9%) 보호아동보다 아르바이트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아동이 장애가 있는 아동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 기회가 많으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다른 유형의 보호아동에 비해 보호환경특성 상 보다 본인의 선택의 자유의 폭이 넓음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장보호 아동(70.9%)이 일반보호 아동(50.2%)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732	467	(63.8)	265	(36.2)	
성별	남	366	236	(64.5)	130	(35.5)	0.1
	여	366	231	(63.1)	135	(36.9)	
연령	만 17세	103	54	(52.4)	49	(47.6)	89***
	만 18세	287	134	(46.7)	153	(53.3)	
	만 19세 이상	342	279	(81.6)	63	(18.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05	(49.4)	210	(50.6)	89.1***
	2~3년제 대학교	147	114	(77.6)	33	(22.4)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48	(87.1)	22	(12.9)	
부모 유무	있음	380	226	(59.5)	154	(40.5)	7.8*
	없음	250	176	(70.4)	74	(29.6)	
	모름	102	65	(63.7)	37	(36.3)	
장애 유무	있음	37	14	(37.8)	23	(62.2)	11.4***
	없음	695	453	(65.2)	242	(34.8)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732	467	(63.8)	265	(36.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24	(48.4)	132	(51.6)	52.3***
	공동생활가정	55	28	(50.9)	27	(49.1)	
	가정위탁	421	315	(74.8)	106	(25.2)	
	가정 위탁	대리	180	(72.2)	50	(27.8)	3.1
		친인척	148	(73.6)	39	(26.4)	
		일반	93	(81.7)	17	(18.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124	(48.4)	132	(51.6)	54.8***
	공동생활가정	55	28	(50.9)	27	(49.1)	
	대리 가정위탁	180	130	(72.2)	50	(27.8)	
	친인척 가정위탁	148	109	(73.6)	39	(26.4)	
	일반 가정위탁	93	76	(81.7)	17	(18.3)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26	(50.2)	125	(49.8)	30.6***
	연장보호	481	341	(70.9)	140	(29.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328명(70.2%)이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31명, 6.6%)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31명, 6.6%),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28명, 6.0%), 그리고 ‘학비를 벌려고’(19명, 4.1%),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19명, 4.1%),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8명,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아동 중 상당수가 용돈이 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육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이유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고등학교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대학교 이상 아동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용돈을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4년제 대학교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이하 집단과 비교해 ‘학비를 벌려고’와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라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고 있다.

보호유형에 따라 아르바이트 이유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비교해서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다른 보호유형 아동에 비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라고 보고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다른 유형의 아동에 비해 보호환경의 경제적 상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에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위탁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보호 아동이 연장보호아동과 비교해서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장보호 아동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또는 ‘독립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려고’ 등에서 일반보호 아동과 비교해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10-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비를 벌려고		용돈이 필요해서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기타	x ²			
전체		467	31	(6.6)	19	(4.1)	328	(70.2)	28	(6.0)	19	(4.1)	31	(6.6)	8	(1.7)	3	(.6)	6.3	
성별	남	236	12	(5.1)	10	(4.2)	172	(72.9)	10	(4.2)	8	(3.4)	18	(7.6)	4	(1.7)	2	(.8)		
	여	231	19	(8.2)	9	(3.9)	156	(67.5)	18	(7.8)	11	(4.8)	13	(5.6)	4	(1.7)	1	(.4)		
연령	만 17세	54	3	(5.6)	1	(1.9)	47	(87.0)	1	(1.9)	1	(1.9)	1	(1.9)	0	(.0)	0	(.0)	22.5	
	만 18세	134	7	(5.2)	4	(3.0)	92	(68.7)	4	(3.0)	9	(6.7)	12	(9.0)	5	(3.7)	1	(.7)		
교육수준	만 19세 이상	279	21	(7.5)	14	(5.0)	189	(67.7)	23	(8.2)	9	(3.2)	18	(6.5)	3	(1.1)	2	(.7)	26.7**	
	고등학교 이하	205	13	(6.3)	3	(1.5)	152	(74.1)	6	(2.9)	10	(4.9)	15	(7.3)	6	(2.9)	0	(.0)		
	2-3년제 대학교	114	9	(7.9)	7	(6.1)	73	(64.0)	11	(9.6)	1	(.9)	10	(8.8)	1	(.9)	2	(1.8)		
	4년제 대학교 이상	148	9	(6.1)	9	(6.1)	103	(69.6)	11	(7.4)	8	(5.4)	6	(4.1)	1	(.7)	1	(.7)		
부모유무	있음	226	11	(4.9)	7	(3.1)	161	(71.2)	16	(7.1)	8	(3.5)	17	(7.5)	5	(2.2)	1	(.4)	12.4	
	없음	176	15	(8.5)	8	(4.5)	125	(71.0)	10	(5.7)	5	(2.8)	10	(5.7)	2	(1.1)	1	(.6)		
	모름	65	5	(7.7)	4	(6.2)	42	(64.6)	2	(3.1)	6	(9.2)	4	(6.2)	1	(1.5)	1	(1.5)		
장애유무	있음	14	1	(7.1)	0	(.0)	6	(42.9)	3	(21.4)	1	(7.1)	2	(14.3)	1	(7.1)	0	(.0)	12	
	없음	453	30	(6.6)	19	(4.2)	322	(71.1)	25	(5.5)	18	(4.0)	29	(6.4)	7	(1.5)	3	(.7)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24	0	(.0)	1	(.8)	102	(82.3)	5	(4.0)	3	(2.4)	10	(8.1)	3	(2.4)	0	(.0)	45.7***	
	공동생활가정	28	0	(.0)	1	(3.6)	16	(57.1)	3	(10.7)	1	(3.6)	7	(25.0)	0	(.0)	0	(.0)		
	가정위탁	315	31	(9.8)	17	(5.4)	210	(66.7)	20	(6.3)	15	(4.8)	14	(4.4)	5	(1.6)	3	(1.0)		
	가정위탁	대리	130	17	(13.1)	4	(3.1)	90	(69.2)	6	(4.6)	4	(3.1)	6	(4.6)	2	(1.5)	1	(.8)	15.4
		친인척	109	11	(10.1)	6	(5.5)	69	(63.3)	9	(8.3)	5	(4.6)	4	(3.7)	3	(2.8)	2	(1.8)	
		일반	76	3	(3.9)	7	(9.2)	51	(67.1)	5	(6.6)	6	(7.9)	4	(5.3)	0	(.0)	0	(.0)	
보호유형2	아동양육시설	124	0	(.0)	1	(.8)	102	(82.3)	5	(4.0)	3	(2.4)	10	(8.1)	3	(2.4)	0	(.0)	65.2***	
	공동생활가정	28	0	(.0)	1	(3.6)	16	(57.1)	3	(10.7)	1	(3.6)	7	(25.0)	0	(.0)	0	(.0)		
	대리 가정위탁	130	17	(13.1)	4	(3.1)	90	(69.2)	6	(4.6)	4	(3.1)	6	(4.6)	2	(1.5)	1	(.8)		
	친인척 가정위탁	109	11	(10.1)	6	(5.5)	69	(63.3)	9	(8.3)	5	(4.6)	4	(3.7)	3	(2.8)	2	(1.8)		
	일반 가정위탁	76	3	(3.9)	7	(9.2)	51	(67.1)	5	(6.6)	6	(7.9)	4	(5.3)	0	(.0)	0	(.0)		

304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비를 벌려고		용돈이 필요해서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기타		x ²
전체		467	31	(6.6)	19	(4.1)	328	(70.2)	28	(6.0)	19	(4.1)	31	(6.6)	8	(1.7)	3	(.6)	
보호 상태	일반보호	126	6	(4.8)	2	(1.6)	98	(77.8)	2	(1.6)	4	(3.2)	11	(8.7)	3	(2.4)	0	(.0)	13.6
	연장보호	341	25	(7.3)	17	(5.0)	230	(67.4)	26	(7.6)	15	(4.4)	20	(5.9)	5	(1.5)	3	(.9)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개인 생활비 관련 응답을 '③ 용돈이 필요해서'에 포함

2. 희망직업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직업의 유형은 314명(42.9%)이 응답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으며, 122명(16.7%)이 ‘서비스 종사자’, 72명(9.8%) ‘관리직 종사자’, 61명(8.3%) ‘사무 종사자’, 49명(6.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21명(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등의 순으로 장래 희망하는 직업군으로 선택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개인변인에 따라서 희망하는 직업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아동은 관리직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를 장래 희망 직업군으로 높게 선택한 것에 반해, 여자 아동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과 같은 직업군을 높게 선택하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교육수준에 따라 희망 직업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4년제 대학교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직 종사자를 높게 선택한 것에 반해, 서비스 종사자나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낮은 비율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장애유무에 따라 희망 직업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관리직 종사자 등의 직업군을 높게 선택한 데 반해,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나 단순 노무종사 등을 높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에 따른 아동의 희망 직업군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 비해 관리직 종사자나 사무 종사자를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희망직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직 종사자 (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컴퓨터 전문가, 과 건축가, 과)	사무 종사자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기타	없음	χ^2
전체		732	72 (9.8)	314 (42.9)	61 (8.3)	122 (16.7)	14 (1.9)	15 (2.0)	21 (2.9)	49 (6.7)	8 (1.1)	18 (2.5)	38 (5.2)	
성별	남	366	44 (12.0)	128 (35.0)	25 (6.8)	47 (12.8)	10 (2.7)	8 (2.2)	19 (5.2)	43 (11.7)	7 (1.9)	11 (3.0)	24 (6.6)	75.0***
	여	366	28 (7.7)	186 (50.8)	36 (9.8)	75 (20.5)	4 (1.1)	7 (1.9)	2 (5)	6 (1.6)	1 (3)	7 (1.9)	14 (3.8)	
연령	만 17세	103	10 (9.7)	35 (34.0)	6 (5.8)	26 (25.2)	1 (1.0)	2 (1.9)	4 (3.9)	8 (7.8)	1 (1.0)	3 (2.9)	7 (6.8)	32.1**
	만 18세	287	24 (8.4)	113 (39.4)	21 (7.3)	50 (17.4)	5 (1.7)	9 (3.1)	11 (3.8)	23 (8.0)	3 (1.0)	12 (4.2)	16 (5.6)	
	만 19세 이상	342	38 (11.1)	166 (48.5)	34 (9.9)	46 (13.5)	8 (2.3)	4 (1.2)	6 (1.8)	18 (5.3)	4 (1.2)	3 (9)	15 (4.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35 (8.4)	153 (36.9)	34 (8.2)	77 (18.6)	5 (1.2)	12 (2.9)	14 (3.4)	38 (9.2)	5 (1.2)	16 (3.9)	26 (6.3)	63.1***
	2-3년제 대학교	147	9 (6.1)	70 (47.6)	8 (5.4)	27 (18.4)	6 (4.1)	1 (7)	6 (4.1)	8 (5.4)	2 (1.4)	1 (7)	9 (6.1)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28 (16.5)	91 (53.5)	19 (11.2)	18 (10.6)	3 (1.8)	2 (1.2)	1 (6)	3 (1.8)	1 (6)	1 (6)	3 (1.8)	
부모 유무	있음	380	38 (10.0)	162 (42.6)	28 (7.4)	70 (18.4)	8 (2.1)	9 (2.4)	11 (2.9)	19 (5.0)	5 (1.3)	11 (2.9)	19 (5.0)	13.7
	없음	250	26 (10.4)	102 (40.8)	26 (10.4)	35 (14.0)	5 (2.0)	4 (1.6)	7 (2.8)	25 (10.0)	2 (8)	5 (2.0)	13 (5.2)	
	모름	102	8 (7.8)	50 (49.0)	7 (6.9)	17 (16.7)	1 (1.0)	2 (2.0)	3 (2.9)	5 (4.9)	1 (1.0)	2 (2.0)	6 (5.9)	
장애 유무	있음	37	2 (5.4)	13 (35.1)	3 (8.1)	4 (10.8)	1 (2.7)	2 (5.4)	1 (2.7)	1 (2.7)	4 (10.8)	1 (2.7)	5 (13.5)	44.2***
	없음	695	70 (10.1)	301 (43.3)	58 (8.3)	118 (17.0)	13 (1.9)	13 (1.9)	20 (2.9)	48 (6.9)	4 (6)	17 (2.4)	33 (4.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22 (8.6)	105 (41.0)	17 (6.6)	40 (15.6)	4 (1.6)	8 (3.1)	8 (3.1)	22 (8.6)	3 (1.2)	7 (2.7)	20 (7.8)	36.8**
	공동생활가정	55	0 (0)	23 (41.8)	2 (3.6)	12 (21.8)	0 (0)	1 (1.8)	3 (5.5)	7 (12.7)	2 (3.6)	3 (5.5)	2 (3.6)	
	가정위탁	421	50 (11.9)	186 (44.2)	42 (10.0)	70 (16.6)	10 (2.4)	6 (1.4)	10 (2.4)	20 (4.8)	3 (7)	8 (1.9)	16 (3.8)	
	가정 위탁	대리	180	25 (13.9)	72 (40.0)	16 (8.9)	40 (22.2)	3 (1.7)	1 (6)	3 (1.7)	7 (3.9)	1 (6)	3 (1.7)	28.7
		친인척	148	14 (9.5)	77 (52.0)	14 (9.5)	18 (12.2)	3 (2.0)	1 (7)	3 (2.0)	11 (7.4)	1 (7)	2 (1.4)	
	일반	93	11 (11.8)	37 (39.8)	12 (12.9)	12 (12.9)	4 (4.3)	4 (4.3)	4 (4.3)	2 (2.2)	1 (1.1)	3 (3.2)	3 (3.2)	

구분		사례수	관리직 종사자 (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	사무 종사자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기타	없음	χ ²
전체		732	72 (9.8)	314 (42.9)	61 (8.3)	122 (16.7)	14 (1.9)	15 (2.0)	21 (2.9)	49 (6.7)	8 (1.1)	18 (2.5)	38 (5.2)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256	22 (8.6)	105 (41.0)	17 (6.6)	40 (15.6)	4 (1.6)	8 (3.1)	8 (3.1)	22 (8.6)	3 (1.2)	7 (2.7)	20 (7.8)	62.3 [*]
	공동생활가정	55	0 (.0)	23 (41.8)	2 (3.6)	12 (21.8)	0 (.0)	1 (1.8)	3 (5.5)	7 (12.7)	2 (3.6)	3 (5.5)	2 (3.6)	
	대리 가정위탁	180	25 (13.9)	72 (40.0)	16 (8.9)	40 (22.2)	3 (1.7)	1 (.6)	3 (1.7)	7 (3.9)	1 (.6)	3 (1.7)	9 (5.0)	
	친인척 가정위탁	148	14 (9.5)	77 (52.0)	14 (9.5)	18 (12.2)	3 (2.0)	1 (.7)	3 (2.0)	11 (7.4)	1 (.7)	2 (1.4)	4 (2.7)	
	일반 가정위탁	93	11 (11.8)	37 (39.8)	12 (12.9)	12 (12.9)	4 (4.3)	4 (4.3)	4 (4.3)	2 (2.2)	1 (1.1)	3 (3.2)	3 (3.2)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7 (6.8)	102 (40.6)	19 (7.6)	49 (19.5)	2 (.8)	5 (2.0)	8 (3.2)	21 (8.4)	2 (.8)	10 (4.0)	16 (6.4)	15.4
	연장보호	481	55 (11.4)	212 (44.1)	42 (8.7)	73 (15.2)	12 (2.5)	10 (2.1)	13 (2.7)	28 (5.8)	6 (1.2)	8 (1.7)	22 (4.6)	

3. 진로, 취업 준비 관련 경험과 지원 욕구

본 설문에 응답한 보호 중 진로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327명(44.7%)이 ‘진로·심리검사’ 경험이 있었으며, 295명(40.3%)이 ‘진로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로체험’이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 진로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각각 247명(33.7%)로 나타났다. 즉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대부분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심리검사나 개별적인 진로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변인에 따라 진로활동 경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4〉 진로활동 참여(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진로심리검사 받기(검사지를 통해 나의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진로체험하기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 진로체험학습)		진로상담받기(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하 상담하는 것)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전체		732	327	(44.7)	276	(37.7)	295	(40.3)	247	(33.7)	
성별	남	366	150	(41.0)	135	(36.9)	148	(40.4)	124	(33.9)	
	여	366	177	(48.4)	141	(38.5)	147	(40.2)	123	(33.6)	
연령	만 17세	103	47	(45.6)	40	(38.8)	39	(37.9)	30	(29.1)	
	만 18세	287	159	(55.4)	140	(48.8)	148	(51.6)	63	(22.0)	
	만 19세 이상	342	121	(35.4)	96	(28.1)	108	(31.6)	154	(45.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210	(50.6)	185	(44.6)	195	(47.0)	106	(25.5)	
	2~3년제 대학교	147	60	(40.8)	48	(32.7)	52	(35.4)	59	(40.1)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57	(33.5)	43	(25.3)	48	(28.2)	82	(48.2)	
부모 유무	있음	380	185	(48.7)	163	(42.9)	165	(43.4)	116	(30.5)	
	없음	250	99	(39.6)	80	(32.0)	89	(35.6)	96	(38.4)	
	모름	102	43	(42.2)	33	(32.4)	41	(40.2)	35	(34.3)	
장애 유무	있음	37	21	(56.8)	19	(51.4)	18	(48.6)	6	(16.2)	
	없음	695	306	(44.0)	257	(37.0)	277	(39.9)	241	(34.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51	(59.0)	134	(52.3)	142	(55.5)	40	(15.6)
	공동생활가정		55	29	(52.7)	28	(50.9)	26	(47.3)	12	(21.8)
	가정위탁		421	147	(34.9)	114	(27.1)	127	(30.2)	195	(46.3)
	가정 위탁	대리	180	62	(34.4)	41	(22.8)	53	(29.4)	87	(48.3)
		친인척	148	56	(37.8)	42	(28.4)	42	(28.4)	68	(45.9)
		일반	93	29	(31.2)	31	(33.3)	32	(34.4)	40	(43.0)

구분	사례수	진로심리검사 받기(검사지를 통해 나의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진로체험하기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 진로체험학습)	진로상담받기(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하 상담하는 것)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전체	732	327 (44.7)	276 (37.7)	295 (40.3)	247 (33.7)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32 (52.6)	121 (48.2)	130 (51.8)
	연장보호	481	195 (40.5)	155 (32.2)	165 (34.3)
		194 (40.3)			

본 설문에 응답한 총 732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 연령, 부모유무, 장애유무, 보호유형, 보호상태 등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 진로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아동의 진로활동 만족도가 17세, 17세 보다 낮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일 경우, 4년제 대학교 이상일 경우보다 진로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다 아동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0-5〉 진로활동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9	(0.7)	
성별	남	366	3.9	0.9
	여	366	3.8	
연령	만 17세	103	3.9	6.6**
	만 18세	287	4.0	
	만 19세 이상	342	3.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3.9	5.5**
	2-3년제 대학교	147	3.8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7	
부모 유무	있음	380	3.9	0.7
	없음	250	3.8	
	모름	102	3.9	

구분		사례수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9	(0.7)	
장애 유무	있음	37	4.0	(0.8)	0.8
	없음	695	3.9	(0.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3.9	(0.7)	2.2
	공동생활가정	55	3.8	(0.8)	
	가정위탁	421	3.8	(0.7)	
	가정 위탁	대리 (180)	3.8	(0.7)	1.6
		친인척 (148)	3.7	(0.7)	
		일반 (93)	3.9	(0.8)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256	3.9	(0.7)	1.9
	공동생활가정	55	3.8	(0.8)	
	대리 가정위탁	(180)	3.8	(0.7)	
	친인척 가정위탁	(148)	3.7	(0.7)	
	일반 가정위탁	(93)	3.9	(0.8)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3.9	(0.8)	1.8
	연장보호	481	3.8	(0.7)	

본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진로체험 경험에 대해서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진로체험에 참여한 적이 없다’(284명, 38.8%), ‘직업인의 특강이나 멘토링’(271명, 37.0%), ‘현장견학’(167명, 22.8%), ‘현장 직업체험’(123명, 16.8%), ‘학과체험’(112명, 15.3%), 그리고 ‘직업 실무체험’(84명,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이 학교 교육활동 이외 진로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진로체험을 했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직업인 특강이나 멘토링 등과 같은 단순한 강연형 프로그램이나 단체 현장견학과 같은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장직업체험이나 모의 직업체험과 같은 실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여전히 참여경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교 교육활동 외 진로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호종료에 가까울수록 체험형 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비해 진로체험 활동 참여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보호 아동보다 연장보호 아동이 진로체험 참여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표 10-6〉 진로체험 경험(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업인의 특강, 멘토링 (강연형, 대화형)		현장견학		직업 실무체험 (모의 직업체험)		현장 직업체험 (실제 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진로체험에 참여한 적이 없다		
전체		732	271	(37.0)	167	(22.8)	84	(11.5)	123	(16.8)	112	(15.3)	123	(16.8)	284	(38.8)	
성별	남	366	130	(35.5)	98	(26.8)	46	(12.6)	59	(16.1)	60	(16.4)	68	(18.6)	130	(35.5)	
	여	366	141	(38.5)	69	(18.9)	38	(10.4)	64	(17.5)	52	(14.2)	55	(15.0)	154	(42.1)	
연령	만 17세	103	38	(36.9)	20	(19.4)	11	(10.7)	20	(19.4)	17	(16.5)	21	(20.4)	35	(34.0)	
	만 18세	287	131	(45.6)	84	(29.3)	39	(13.6)	53	(18.5)	45	(15.7)	58	(20.2)	80	(27.9)	
	만 19세 이상	342	102	(29.8)	63	(18.4)	34	(9.9)	50	(14.6)	50	(14.6)	44	(12.9)	169	(49.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68	(40.5)	113	(27.2)	54	(13.0)	80	(19.3)	62	(14.9)	85	(20.5)	130	(31.3)	
	2-3년제 대학교	147	40	(27.2)	32	(21.8)	16	(10.9)	24	(16.3)	29	(19.7)	23	(15.6)	71	(48.3)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63	(37.1)	22	(12.9)	14	(8.2)	19	(11.2)	21	(12.4)	15	(8.8)	83	(48.8)	
부모 유무	있음	380	159	(41.8)	96	(25.3)	48	(12.6)	65	(17.1)	68	(17.9)	70	(18.4)	131	(34.5)	
	없음	250	75	(30.0)	45	(18.0)	24	(9.6)	36	(14.4)	28	(11.2)	34	(13.6)	113	(45.2)	
	모름	102	37	(36.3)	26	(25.5)	12	(11.8)	22	(21.6)	16	(15.7)	19	(18.6)	40	(39.2)	
장애 유무	있음	37	13	(35.1)	16	(43.2)	6	(16.2)	11	(29.7)	6	(16.2)	9	(24.3)	8	(21.6)	
	없음	695	258	(37.1)	151	(21.7)	78	(11.2)	112	(16.1)	106	(15.3)	114	(16.4)	276	(39.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23	(48.0)	91	(35.5)	42	(16.4)	66	(25.8)	48	(18.8)	62	(24.2)	61	(23.8)	
	공동생활가정	55	26	(47.3)	13	(23.6)	10	(18.2)	15	(27.3)	11	(20.0)	18	(32.7)	9	(16.4)	
	가정위탁	421	122	(29.0)	63	(15.0)	32	(7.6)	42	(10.0)	53	(12.6)	43	(10.2)	214	(50.8)	
	가정 위탁	대리	180	46	(25.6)	25	(13.9)	13	(7.2)	18	(10.0)	26	(14.4)	16	(8.9)	100	(55.6)
		친인척	148	46	(31.1)	23	(15.5)	12	(8.1)	12	(8.1)	16	(10.8)	18	(12.2)	75	(50.7)
		일반	93	30	(32.3)	15	(16.1)	7	(7.5)	12	(12.9)	11	(11.8)	9	(9.7)	39	(41.9)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19	(47.4)	73	(29.1)	35	(13.9)	56	(22.3)	45	(17.9)	53	(21.1)	64	(25.5)	
	연장보호	481	152	(31.6)	94	(19.5)	49	(10.2)	67	(13.9)	67	(13.9)	70	(14.6)	220	(45.7)	

본 설문에 응답한 총 732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 부모유무, 장애유무, 보호유형, 보호상태 등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 진로체험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진로활동 만족도와 같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아동의 진로체험 만족도가 17세, 18세 보다 낮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일 경우,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일 경우보다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인기 진입과 가까워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아동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로체험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0-7〉 진로체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9	(0.7)		
성별	남	366	4.0	(0.8)	1.8	
	여	366	3.8	(0.7)		
연령	만 17세	103	3.9	(0.7)	5.3**	
	만 18세	287	4.0	(0.8)		
	만 19세 이상	342	3.8	(0.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4.0	(0.7)	4.7**	
	2-3년제 대학교	147	3.7	(0.7)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3.8	(0.8)		
부모 유무	있음	380	3.9	(0.7)	0.1	
	없음	250	3.9	(0.7)		
	모름	102	3.9	(0.8)		
장애 유무	있음	37	4.0	(0.8)	0.4	
	없음	695	3.9	(0.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4.0	(0.8)	1.4
	공동생활가정		55	3.8	(0.7)	
	가정위탁		421	3.8	(0.7)	
	가정 위탁	대리	(180)	3.9	(0.8)	0.8
		친인척	(148)	3.8	(0.6)	
		일반	(93)	3.9	(0.7)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5점 만점)	표준편차	t(F)
전체		732	3.9	(0.7)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4.0	(0.8)	1
	공동생활가정	55	3.8	(0.7)	
	대리 가정위탁	(180)	3.9	(0.8)	
	친인척 가정위탁	(148)	3.8	(0.6)	
	일반 가정위탁	(93)	3.9	(0.7)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3.9	(0.7)	1.1
	연장보호	481	3.9	(0.8)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사업’(182명, 24.9%), ‘연수체험 사업’(158명, 21.6%),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75명, 10.2%),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73명, 10.0%), ‘취업성공 패키지’(64명, 8.7%), ‘직업훈련사업’(60명, 8.2%), ‘단기일자리 제공사업’(51명, 7.0%),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33명, 4.5%), 그리고 ‘청년취업 아카데미’(27명,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 중 상당수가 현금성 장려금지원과 직장체험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존의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이나 직업훈련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등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회성 성격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취업 준비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연수체험 (직장체험, 인턴) 사업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해외취업/ 인턴사업	직업훈련사업	장려금지원 사업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내일배움 카드제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기타	x ²
전체		732	158 (21.6)	51 (7.0)	75 (10.2)	60 (8.2)	182 (24.9)	73 (10.0)	64 (8.7)	33 (4.5)	27 (3.7)	9 (1.2)	
성별	남	366	72 (19.7)	21 (5.7)	43 (11.7)	34 (9.3)	97 (26.5)	39 (10.7)	26 (7.1)	11 (3.0)	16 (4.4)	7 (1.9)	16.3
	여	366	86 (23.5)	30 (8.2)	32 (8.7)	26 (7.1)	85 (23.2)	34 (9.3)	38 (10.4)	22 (6.0)	11 (3.0)	2 (0.5)	
연령	만 17세	103	22 (21.4)	7 (6.8)	14 (13.6)	7 (6.8)	25 (24.3)	9 (8.7)	8 (7.8)	4 (3.9)	3 (2.9)	4 (3.9)	19.0
	만 18세	287	65 (22.6)	20 (7.0)	27 (9.4)	31 (10.8)	73 (25.4)	22 (7.7)	28 (9.8)	10 (3.5)	9 (3.1)	2 (0.7)	
	만 19세 이상	342	71 (20.8)	24 (7.0)	34 (9.9)	22 (6.4)	84 (24.6)	42 (12.3)	28 (8.2)	19 (5.6)	15 (4.4)	3 (0.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86 (20.7)	29 (7.0)	38 (9.2)	42 (10.1)	104 (25.1)	40 (9.6)	41 (9.9)	15 (3.6)	13 (3.1)	7 (1.7)	23.4
	2~3년제 대학교	147	31 (21.1)	10 (6.8)	18 (12.2)	9 (6.1)	29 (19.7)	21 (14.3)	11 (7.5)	7 (4.8)	10 (6.8)	1 (0.7)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41 (24.1)	12 (7.1)	19 (11.2)	9 (5.3)	49 (28.8)	12 (7.1)	12 (7.1)	11 (6.5)	4 (2.4)	1 (0.6)	
부모 유무	있음	380	90 (23.7)	29 (7.6)	35 (9.2)	32 (8.4)	88 (23.2)	43 (11.3)	33 (8.7)	20 (5.3)	7 (1.8)	3 (0.8)	25.2
	없음	250	53 (21.2)	12 (4.8)	31 (12.4)	17 (6.8)	70 (28.0)	22 (8.8)	18 (7.2)	8 (3.2)	15 (6.0)	4 (1.6)	
	모름	102	15 (14.7)	10 (9.8)	9 (8.8)	11 (10.8)	24 (23.5)	8 (7.8)	13 (12.7)	5 (4.9)	5 (4.9)	2 (2.0)	
장애 유무	있음	37	12 (32.4)	1 (2.7)	0 (0.0)	5 (13.5)	2 (5.4)	11 (29.7)	4 (10.8)	1 (2.7)	1 (2.7)	0 (0.0)	30.7***
	없음	695	146 (21.0)	50 (7.2)	75 (10.8)	55 (7.9)	180 (25.9)	62 (8.9)	60 (8.6)	32 (4.6)	26 (3.7)	9 (1.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60 (23.4)	20 (7.8)	21 (8.2)	31 (12.1)	49 (19.1)	25 (9.8)	28 (10.9)	10 (3.9)	10 (3.9)	2 (0.8)	39.6**
	공동생활가정	55	7 (12.7)	2 (3.6)	6 (10.9)	4 (7.3)	10 (18.2)	14 (25.5)	4 (7.3)	4 (7.3)	3 (5.5)	1 (1.8)	
	가정위탁	421	91 (21.6)	29 (6.9)	48 (11.4)	25 (5.9)	123 (29.2)	34 (8.1)	32 (7.6)	19 (4.5)	14 (3.3)	6 (1.4)	
	가정 위탁	대리	180	39 (21.7)	12 (6.7)	20 (11.1)	9 (5.0)	48 (26.7)	16 (8.9)	15 (8.3)	10 (5.6)	9 (5.0)	9.7
		친인척	148	29 (19.6)	10 (6.8)	16 (10.8)	9 (6.1)	47 (31.8)	12 (8.1)	12 (8.1)	5 (3.4)	5 (3.4)	
	일반	93	23 (24.7)	7 (7.5)	12 (12.9)	7 (7.5)	28 (30.1)	6 (6.5)	5 (5.4)	4 (4.3)	0 (0.0)	1 (1.1)	

구분		사례수	연수체험 (직장체험, 인턴) 사업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해외취업/ 인턴사업	직업훈련사업	장려금지원 사업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내일배움 카드제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기타	x ²
전체		732	158 (21.6)	51 (7.0)	75 (10.2)	60 (8.2)	182 (24.9)	73 (10.0)	64 (8.7)	33 (4.5)	27 (3.7)	9 (1.2)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60 (23.4)	20 (7.8)	21 (8.2)	31 (12.1)	49 (19.1)	25 (9.8)	28 (10.9)	10 (3.9)	10 (3.9)	2 (0.8)	48.8
	공동생활가정	55	7 (12.7)	2 (3.6)	6 (10.9)	4 (7.3)	10 (18.2)	14 (25.5)	4 (7.3)	4 (7.3)	3 (5.5)	1 (1.8)	
	대리 가정위탁	180	39 (21.7)	12 (6.7)	20 (11.1)	9 (5.0)	48 (26.7)	16 (8.9)	15 (8.3)	10 (5.6)	9 (5.0)	2 (1.1)	
	친인척 가정위탁	148	29 (19.6)	10 (6.8)	16 (10.8)	9 (6.1)	47 (31.8)	12 (8.1)	12 (8.1)	5 (3.4)	5 (3.4)	3 (2.0)	
	일반 가정위탁	93	23 (24.7)	7 (7.5)	12 (12.9)	7 (7.5)	28 (30.1)	6 (6.5)	5 (5.4)	4 (4.3)	0 (0.0)	1 (1.1)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53 (21.1)	17 (6.8)	24 (9.6)	19 (7.6)	60 (23.9)	28 (11.2)	26 (10.4)	9 (3.6)	9 (3.6)	6 (2.4)	7.2
	연장보호	481	105 (21.8)	34 (7.1)	51 (10.6)	41 (8.5)	122 (25.4)	45 (9.4)	38 (7.9)	24 (5.0)	18 (3.7)	3 (0.6)	

4. 자립 후 예상 생활비

자립 이후 요구되는 적정한 월 생활비에 대해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전체의 평균 생활비는 168.5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101만원에서 200만원 미만(266명, 37.6%), 201만원에서 300만원 미만(242명, 34.2%), 100만원 미만(123명, 17.4%), 그리고 300만원 이상(77명,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립 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의 경우에는 180.8만원이며,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156.0만원으로 집단간 24.8천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생활비를 더 낮게 응답했는데 보호종료 시점에 더 가까울수록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애가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없는 아동에 비해 적정 월 생활비를 더 낮게 인식하였다.

〈표 10-9〉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 월 생활비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1~200만원 미만	201~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08	123 (17.4)	266 (37.6)	242 (34.2)	77 (10.9)	168.5 (79.2)	
성별	남	357	47 (13.2)	122 (34.2)	142 (39.8)	46 (12.9)	180.8 (80.4)
	여	351	76 (21.7)	144 (41.0)	100 (28.5)	31 (8.8)	156.0 (76.1)
연령	만 17세	99	21 (21.2)	31 (31.3)	34 (34.3)	13 (13.1)	167.1 (84.3)
	만 18세	277	47 (17.0)	99 (35.7)	96 (34.7)	35 (12.6)	172.2 (81.4)
	만 19세 이상	332	55 (16.6)	136 (41.0)	112 (33.7)	29 (8.7)	165.8 (75.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99	69 (17.3)	134 (33.6)	146 (36.6)	50 (12.5)	173.6 (81.1)
	2~3년제 대학교	140	20 (14.3)	60 (42.9)	46 (32.9)	14 (10.0)	169.2 (76.8)
	4년제 대학교 이상	169	34 (20.1)	72 (42.6)	50 (29.6)	13 (7.7)	155.8 (75.7)
부모 유무	있음	365	75 (20.5)	132 (36.2)	124 (34.0)	34 (9.3)	163.8 (77.2)
	없음	246	34 (13.8)	95 (38.6)	85 (34.6)	32 (13.0)	174.1 (80.3)
	모름	97	14 (14.4)	39 (40.2)	33 (34.0)	11 (11.3)	171.7 (83.8)
장애 유무	있음	31	6 (19.4)	16 (51.6)	7 (22.6)	2 (6.5)	141.6 (67.2)
	없음	677	117 (17.3)	250 (36.9)	235 (34.7)	75 (11.1)	169.7 (79.6)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1~200만원 미만	201~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08	123 (17.4)	266 (37.6)	242 (34.2)	77 (10.9)	168.5 (79.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45	42 (17.1)	95 (38.8)	80 (32.7)	28 (11.4)	167.1 (77.8)	0.5
	공동생활가정	52	10 (19.2)	21 (40.4)	14 (26.9)	7 (13.5)	168.6 (88.2)	
	가정위탁	411	71 (17.3)	150 (36.5)	148 (36.0)	42 (10.2)	169.3 (79.1)	
	가정 위탁	대리	174	33 (19.0)	61 (35.1)	59 (33.9)	21 (12.1)	0.3
		친인척	147	15 (10.2)	63 (42.9)	55 (37.4)	14 (9.5)	
		일반	90	23 (25.6)	26 (28.9)	34 (37.8)	7 (7.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45	42 (17.1)	95 (38.8)	80 (32.7)	28 (11.4)	167.1 (77.8)	0.4
	공동생활가정	52	10 (19.2)	21 (40.4)	14 (26.9)	7 (13.5)	168.6 (88.2)	
	대리 가정위탁	174	33 (19.0)	61 (35.1)	59 (33.9)	21 (12.1)	170.4 (80.4)	
	친인척 가정위탁	147	15 (10.2)	63 (42.9)	55 (37.4)	14 (9.5)	172.0 (74.7)	
	일반 가정위탁	90	23 (25.6)	26 (28.9)	34 (37.8)	7 (7.8)	162.7 (83.9)	
보호 상태	일반보호	242	46 (19.0)	79 (32.6)	82 (33.9)	35 (14.5)	173.1 (85.2)	0.8
	연장보호	466	77 (16.5)	187 (40.1)	160 (34.3)	42 (9.0)	166.1 (76.0)	

주: 1)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2) IQR(InterQuantile Range)은 자료가 산포되어 있는 범위를 1/4로 구분하였을 때, 1분위(Q1)와 3분위(Q3) 사이의 범위를 의미함. 이러한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거할 때, 2IQR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Q3과 Q1에 모두 2를 곱한 값을 각각 Q3과 더하고 Q1에 뺀 이후 이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임. 즉, 2IQR을 적용하였을 때 제외된 이상치는 $Q1-2 \times IQR$ 보다 작고, $Q3+2 \times IQR$ 보다 큰 값을 의미함(이하 해당사항은 모두 동일한 뜻임).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및 경제

본 절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및 이유, 직장을 그만 둔 이유, 취업 준비 시 어려움 및 요구되는 지원프로그램, 취업자의 현황 및 실태, 실업률, 그리고 이들의 소득 및 생활비 등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르바이트 경험

본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중 2,714명(87.4%)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90명(12.6%)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보호종료아동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2세

이상 23세와 만 24세 이상이 각각 727명(93.4%)과 407명(93.1%)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 18세 이상 19세와 만 20세 이상 21세가 각각 437명(72.8%), 1143명(88.7%) 등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는 4년제 대학교 이상 보호종료아동(93.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년제 대학교(88.4%), 고등학교 이하(7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는 장애가 없는 보호종료아동(88.9%)의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54.5%)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보호종료아동이 반대의 경우 보다 아르바이트 경험 기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가입자(93.9%) 직장가입(86.8%)이나 의료급여 대상 보호종료아동(86.4%)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에 따른 차이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90.6%)이 아동양육시설(85.0%)이나 공동생활가정(84.6%) 보다 아르바이트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다른 유형의 보호아동에 비해 대한 진학률이 높으나, 정부 지원의 접근성은 떨어져 학비 또는 생활비(용돈)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장보호종료아동(92.1%)이 만기퇴소아동(83.9%)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 연차에 따라서도 집단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보호종료 후 연차가 높을수록 그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3년차 미만 해당아동의 경우, 4년차 이상 비 해당 아동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0〉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χ^2
전체		3,104	2,714	(87.4)	390	(12.6)	
성별	남	1,461	1,266	(86.7)	195	(13.3)	1.5
	여	1,643	1,448	(88.1)	195	(11.9)	
연령	만 18~19세	600	437	(72.8)	163	(27.2)	156.7***
	만 20~21세	1,289	1,143	(88.7)	146	(11.3)	
	만 22~23세	778	727	(93.4)	51	(6.6)	
	만 24세 이상	437	407	(93.1)	30	(6.9)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χ^2	
전체		3,104	2,714	(87.4)	390	(12.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918	(79.5)	236	(20.5)	113.1***	
	2~3년제 대학교	524	463	(88.4)	61	(11.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1,333	(93.5)	93	(6.5)		
부모 유무	있음	1,512	1,323	(87.5)	189	(12.5)	0.0	
	없음	1,198	1,047	(87.4)	151	(12.6)		
	모름	394	344	(87.3)	50	(12.7)		
장애 유무	있음	132	72	(54.5)	60	(45.5)	135.8***	
	없음	2,972	2,642	(88.9)	330	(11.1)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833	(86.8)	127	(13.2)	16***	
	지역가입	374	351	(93.9)	23	(6.1)		
	의료급여	1,770	1,530	(86.4)	240	(13.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1,205	(85.0)	212	(15.0)	22.3***	
	공동생활가정	332	281	(84.6)	51	(15.4)		
	가정위탁	1,355	1,228	(90.6)	127	(9.4)		
	가정 위탁	대리	403	369	(91.6)	34	(8.4)	0.6
		친인척	564	509	(90.2)	55	(9.8)	
		일반	388	350	(90.2)	38	(9.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1,205	(85.0)	212	(15.0)	22.8***	
	공동생활가정	332	281	(84.6)	51	(15.4)		
	대리 가정위탁	403	369	(91.6)	34	(8.4)		
	친인척 가정위탁	564	509	(90.2)	55	(9.8)		
	일반 가정위탁	388	350	(90.2)	38	(9.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489	(83.9)	285	(16.1)	46.2***	
	연장종료	1,330	1,225	(92.1)	105	(7.9)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722	(82.5)	153	(17.5)	36.6***	
	2년차	921	799	(86.8)	122	(13.2)		
	3년차	805	734	(91.2)	71	(8.8)		
	4년차	280	255	(91.1)	25	(8.9)		
	5년차	223	204	(91.5)	19	(8.5)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2,255	(86.7)	346	(13.3)	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459	(91.3)	44	(8.7)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용돈이 필요해서’(1740명, 64.1%),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359명, 13.2%), ‘학비를 벌려고’(208명, 7.7%),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157명, 5.8%),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137명, 5.0%), 그리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81명, 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성별이나, 부모유무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장애유무, 보호유형, 보호종료 연차 등에 있어서는 집단 간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보다는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는 것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용돈을 별 목적보다는 독립을 위한 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4세 이상의 연령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으며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을 벌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이 시설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높았다.

만기퇴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이 반면, 연장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호종료 후 연차가 높을수록 용돈과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표 10-1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의 돕기	생계를 위해	학비를 벌려고	용돈이 필요해서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경험을 쌓기 위해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기타	χ ²
전체		2,714	157 (5.8)	208 (7.7)	1,740 (64.1)	359 (13.2)	81 (3.0)	137 (5.0)	10 (0.4)	13 (0.5)	9 (0.3)		
성별	남	1,266	83 (6.6)	100 (7.9)	785 (62.0)	178 (14.1)	37 (2.9)	66 (5.2)	6 (0.5)	7 (0.6)	4 (0.3)		6.7
	여	1,448	74 (5.1)	108 (7.5)	955 (66.0)	181 (12.5)	44 (3.0)	71 (4.9)	4 (0.3)	6 (0.4)	5 (0.3)		
연령	만 18~19세	437	21 (4.8)	25 (5.7)	275 (62.9)	53 (12.1)	28 (6.4)	29 (6.6)	1 (0.2)	1 (0.2)	4 (0.9)		72.5***
	만 20~21세	1,143	76 (6.6)	73 (6.4)	707 (61.9)	179 (15.7)	35 (3.1)	56 (4.9)	5 (0.4)	10 (0.9)	2 (0.2)		
	만 22~23세	727	38 (5.2)	73 (10.0)	468 (64.4)	89 (12.2)	15 (2.1)	37 (5.1)	3 (0.4)	1 (0.1)	3 (0.4)		
	만 24세 이상	407	22 (5.4)	37 (9.1)	290 (71.3)	38 (9.3)	3 (0.7)	15 (3.7)	1 (0.2)	1 (0.2)	0 (0.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918	81 (8.8)	18 (2.0)	534 (58.2)	167 (18.2)	34 (3.7)	66 (7.2)	7 (0.8)	7 (0.8)	4 (0.4)		153.1***
	2~3년제 대학교	463	20 (4.3)	47 (10.2)	295 (63.7)	55 (11.9)	17 (3.7)	21 (4.5)	0 (0.0)	5 (1.1)	3 (0.6)		
	4년제 대학교 이상	1,333	56 (4.2)	143 (10.7)	911 (68.3)	137 (10.3)	30 (2.3)	50 (3.8)	3 (0.2)	1 (0.1)	2 (0.2)		
부모 유무	있음	1,323	75 (5.7)	95 (7.2)	848 (64.1)	163 (12.3)	49 (3.7)	73 (5.5)	6 (0.5)	9 (0.7)	5 (0.4)		20.8
	없음	1,047	63 (6.0)	82 (7.8)	683 (65.2)	146 (13.9)	22 (2.1)	44 (4.2)	4 (0.4)	2 (0.2)	1 (0.1)		
	모름	344	19 (5.5)	31 (9.0)	209 (60.8)	50 (14.5)	10 (2.9)	20 (5.8)	0 (0.0)	2 (0.6)	3 (0.9)		
장애 유무	있음	72	3 (4.2)	1 (1.4)	41 (56.9)	20 (27.8)	0 (0.0)	5 (6.9)	1 (1.4)	0 (0.0)	1 (1.4)		24.2***
	없음	2,642	154 (5.8)	207 (7.8)	1,699 (64.3)	339 (12.8)	81 (3.1)	132 (5.0)	9 (0.3)	13 (0.5)	8 (0.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833	41 (4.9)	66 (7.9)	545 (65.4)	97 (11.6)	18 (2.2)	57 (6.8)	2 (0.2)	4 (0.5)	3 (0.4)		21.2
	지역가입	351	23 (6.6)	24 (6.8)	221 (63.0)	58 (16.5)	8 (2.3)	14 (4.0)	1 (0.3)	2 (0.6)	0 (0.0)		
	의료급여	1,530	93 (6.1)	118 (7.7)	974 (63.7)	204 (13.3)	55 (3.6)	66 (4.3)	7 (0.5)	7 (0.5)	6 (0.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205	26 (2.2)	93 (7.7)	799 (66.3)	164 (13.6)	42 (3.5)	67 (5.6)	3 (0.2)	5 (0.4)	6 (0.5)		86.8***
	공동생활가정	281	9 (3.2)	25 (8.9)	171 (60.9)	49 (17.4)	12 (4.3)	13 (4.6)	0 (0.0)	1 (0.4)	1 (0.4)		
	가정위탁	1,228	122 (9.9)	90 (7.3)	770 (62.7)	146 (11.9)	27 (2.2)	57 (4.6)	7 (0.6)	7 (0.6)	2 (0.2)		
	가정 위탁	대리	369	48 (13.0)	26 (7.0)	232 (62.9)	37 (10.0)	6 (1.6)	17 (4.6)	2 (0.5)	1 (0.3)	0 (0.0)	18.9
		친인척	509	38 (7.5)	45 (8.8)	325 (63.9)	60 (11.8)	10 (2.0)	22 (4.3)	3 (0.6)	4 (0.8)	2 (0.4)	
일반		350	36 (10.3)	19 (5.4)	213 (60.9)	49 (14.0)	11 (3.1)	18 (5.1)	2 (0.6)	2 (0.6)	0 (0.0)		

322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비를 벌려고		용돈이 필요해서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기타		χ ²
전체		2,714	157	(5.8)	208	(7.7)	1,740	(64.1)	359	(13.2)	81	(3.0)	137	(5.0)	10	(.4)	13	(.5)	9	(.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205	26	(2.2)	93	(7.7)	799	(66.3)	164	(13.6)	42	(3.5)	67	(5.6)	3	(.2)	5	(.4)	6	(.5)	108.3** *
	공동생활가정	281	9	(3.2)	25	(8.9)	171	(60.9)	49	(17.4)	12	(4.3)	13	(4.6)	0	(.0)	1	(.4)	1	(.4)	
	대리 가정위탁	369	48	(13.0)	26	(7.0)	232	(62.9)	37	(10.0)	6	(1.6)	17	(4.6)	2	(.5)	1	(.3)	0	(.0)	
	친인척 가정위탁	509	38	(7.5)	45	(8.8)	325	(63.9)	60	(11.8)	10	(2.0)	22	(4.3)	3	(.6)	4	(.8)	2	(.4)	
	일반 가정위탁	350	36	(10.3)	19	(5.4)	213	(60.9)	49	(14.0)	11	(3.1)	18	(5.1)	2	(.6)	2	(.6)	0	(.0)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489	89	(6.0)	95	(6.4)	927	(62.3)	225	(15.1)	51	(3.4)	82	(5.5)	5	(.3)	7	(.5)	8	(.5)	25.8***
	연장종료	1,225	68	(5.6)	113	(9.2)	813	(66.4)	134	(10.9)	30	(2.4)	55	(4.5)	5	(.4)	6	(.5)	1	(.1)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722	41	(5.7)	44	(6.1)	460	(63.7)	82	(11.4)	39	(5.4)	43	(6.0)	5	(.7)	4	(.6)	4	(.6)	54.1***
	2년차	799	50	(6.3)	78	(9.8)	486	(60.8)	106	(13.3)	23	(2.9)	46	(5.8)	4	(.5)	4	(.5)	2	(.3)	
	3년차	734	40	(5.4)	51	(6.9)	494	(67.3)	102	(13.9)	14	(1.9)	26	(3.5)	1	(.1)	4	(.5)	2	(.3)	
	4년차	255	16	(6.3)	17	(6.7)	165	(64.7)	38	(14.9)	2	(.8)	16	(6.3)	0	(.0)	0	(.0)	1	(.4)	
	5년차	204	10	(4.9)	18	(8.8)	135	(66.2)	31	(15.2)	3	(1.5)	6	(2.9)	0	(.0)	1	(.5)	0	(.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255	131	(5.8)	173	(7.7)	1,440	(63.9)	290	(12.9)	76	(3.4)	115	(5.1)	10	(.4)	12	(.5)	8	(.4)	11.3
	비해당 (자립 4~5년차)	459	26	(5.7)	35	(7.6)	300	(65.4)	69	(15.0)	5	(1.1)	22	(4.8)	0	(.0)	1	(.2)	1	(.2)	

2. 직장 그만둔 경험

본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중 1,590명(51.2%)이 ‘과거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48.8%가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1회(729명, 23.5%), 2회(430명, 13.9%), 3회 이상(355명, 11.4%)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나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나 의료급여 대상아동의 경우보다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많았으나, 3회 이상 그만둔 경험은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종료 경험이 있는 아동이 만기퇴소 경험이 있는 아동과 비교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험과 그 횟수에 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종료 후 연차가 길수록 직장을 그만둔 경험 및 횟수가 높으며, 자립수당 수급대상 아동이 비해당 아동에 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부모유무, 장애유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경험 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2〉 직장 그만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χ^2
전체		3,104	1,590 (51.2)	729 (23.5)	430 (13.9)	355 (11.4)	
성별	남	1,461	721 (49.3)	339 (23.2)	218 (14.9)	183 (12.5)	7.1
	여	1,643	869 (52.9)	390 (23.7)	212 (12.9)	172 (10.5)	
연령	만 18~19세	600	400 (66.7)	119 (19.8)	53 (8.8)	28 (4.7)	93.8***
	만 20~21세	1,289	604 (46.9)	308 (23.9)	211 (16.4)	166 (12.9)	
	만 22~23세	778	380 (48.8)	179 (23.0)	119 (15.3)	100 (12.9)	
	만 24세 이상	437	206 (47.1)	123 (28.1)	47 (10.8)	61 (14.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434 (37.6)	311 (26.9)	228 (19.8)	181 (15.7)	156.5***
	2~3년제 대학교	524	315 (60.1)	95 (18.1)	59 (11.3)	55 (10.5)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841 (59.0)	323 (22.7)	143 (10.0)	119 (8.3)	
부모 유무	있음	1,512	779 (51.5)	368 (24.3)	202 (13.4)	163 (10.8)	3.7
	없음	1,198	605 (50.5)	275 (23.0)	169 (14.1)	149 (12.4)	
	모름	394	206 (52.3)	86 (21.8)	59 (15.0)	43 (10.9)	
장애 유무	있음	132	73 (55.3)	27 (20.5)	13 (9.8)	19 (14.4)	3.6
	없음	2,972	1,517 (51.0)	702 (23.6)	417 (14.0)	336 (11.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472 (49.2)	239 (24.9)	146 (15.2)	103 (10.7)	97.6***
	지역가입	374	111 (29.7)	125 (33.4)	69 (18.4)	69 (18.4)	
	의료급여	1,770	1,007 (56.9)	365 (20.6)	215 (12.1)	183 (10.3)	

구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χ^2
전체		3,104	1,590 (51.2)	729 (23.5)	430 (13.9)	355 (11.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739 (52.2)	312 (22.0)	202 (14.3)	164 (11.6)	24.4***
	공동생활가정	332	193 (58.1)	52 (15.7)	42 (12.7)	45 (13.6)	
	가정위탁	1,355	658 (48.6)	365 (26.9)	186 (13.7)	146 (10.8)	
	가정 위탁	대리	403	191 (47.4)	121 (30.0)	54 (13.4)	3.7
		친인척	564	279 (49.5)	144 (25.5)	78 (13.8)	
		일반	388	188 (48.5)	100 (25.8)	54 (13.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739 (52.2)	312 (22.0)	202 (14.3)	164 (11.6)	28.3**
	공동생활가정	332	193 (58.1)	52 (15.7)	42 (12.7)	45 (13.6)	
	대리 가정위탁	403	191 (47.4)	121 (30.0)	54 (13.4)	37 (9.2)	
	친인척 가정위탁	564	279 (49.5)	144 (25.5)	78 (13.8)	63 (11.2)	
	일반 가정위탁	388	188 (48.5)	100 (25.8)	54 (13.9)	46 (11.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856 (48.3)	424 (23.9)	274 (15.4)	220 (12.4)	18.4***
	연장종료	1,330	734 (55.2)	305 (22.9)	156 (11.7)	135 (10.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599 (68.5)	174 (19.9)	68 (7.8)	34 (3.9)	272.2***
	2년차	921	480 (52.1)	238 (25.8)	126 (13.7)	77 (8.4)	
	3년차	805	329 (40.9)	201 (25.0)	150 (18.6)	125 (15.5)	
	4년차	280	108 (38.6)	68 (24.3)	45 (16.1)	59 (21.1)	
	5년차	223	74 (33.2)	48 (21.5)	41 (18.4)	60 (26.9)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408 (54.1)	613 (23.6)	344 (13.2)	236 (9.1)	109.5***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82 (36.2)	116 (23.1)	86 (17.1)	119 (23.7)	

본 설문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1,514명 중 그
만둔 이유를 묻은 결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355명, 23.4%),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331명, 21.9%),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197명, 13.0%), ‘직장상
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183명, 12.1%), ‘계약만료’(134명, 8.9%), ‘새
로운 기술을 배우려고’(109명, 7.2%),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79명,
5.2%) 등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성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 아동의 경
우에는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난데 반해 여자 아동
의 경우에는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게 직장을 그
만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교
육수준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에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의료급여 대상이 그 외 집단에 비해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과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가정 위탁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종료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장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만기퇴소 아동에 비해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으나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높게 나타냈다. 즉 연장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본인의 직장을 선택할 때 지속적인 학업이나 교육 기간 동안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일반퇴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보다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0-13〉 직장 그만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계약만료(계약기 간 연장의 어려움)	기타	x ²	
전체		1,514	355 (23.4)	331 (21.9)	79 (5.2)	109 (7.2)	197 (13.0)	183 (12.1)	134 (8.9)	126 (8.3)		
성별	남	740	205 (27.7)	152 (20.5)	40 (5.4)	57 (7.7)	105 (14.2)	61 (8.2)	56 (7.6)	64 (8.6)	35.4***	
	여	774	150 (19.4)	179 (23.1)	39 (5.0)	52 (6.7)	92 (11.9)	122 (15.8)	78 (10.1)	62 (8.0)		
연령	만 18~19세	200	63 (31.5)	49 (24.5)	11 (5.5)	10 (5.0)	20 (10.0)	24 (12.0)	10 (5.0)	13 (6.5)	48.5***	
	만 20~21세	685	172 (25.1)	137 (20.0)	44 (6.4)	46 (6.7)	89 (13.0)	83 (12.1)	54 (7.9)	60 (8.8)		
	만 22~23세	398	71 (17.8)	106 (26.6)	20 (5.0)	36 (9.0)	55 (13.8)	45 (11.3)	34 (8.5)	31 (7.8)		
	만 24세 이상	231	49 (21.2)	39 (16.9)	4 (1.7)	17 (7.4)	33 (14.3)	31 (13.4)	36 (15.6)	22 (9.5)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720	202 (28.1)	138 (19.2)	17 (2.4)	50 (6.9)	95 (13.2)	104 (14.4)	54 (7.5)	60 (8.3)	64.1***	
	2~3년제 대학교	209	52 (24.9)	52 (24.9)	23 (11.0)	14 (6.7)	27 (12.9)	11 (5.3)	19 (9.1)	11 (5.3)		
부모 유무	4년제 대학교 이상	585	101 (17.3)	141 (24.1)	39 (6.7)	45 (7.7)	75 (12.8)	68 (11.6)	61 (10.4)	55 (9.4)	10.4	
	있음	733	171 (23.3)	165 (22.5)	33 (4.5)	52 (7.1)	99 (13.5)	87 (11.9)	66 (9.0)	60 (8.2)		
	없음	593	141 (23.8)	134 (22.6)	37 (6.2)	41 (6.9)	71 (12.0)	75 (12.6)	48 (8.1)	46 (7.8)		
장애 유무	모름	188	43 (22.9)	32 (17.0)	9 (4.8)	16 (8.5)	27 (14.4)	21 (11.2)	20 (10.6)	20 (10.6)	21.4**	
	있음	59	23 (39.0)	8 (13.6)	0 (.0)	1 (1.7)	4 (6.8)	5 (8.5)	6 (10.2)	12 (20.3)		
건강 보험 종류	없음	1,455	332 (22.8)	323 (22.2)	79 (5.4)	108 (7.4)	193 (13.3)	178 (12.2)	128 (8.8)	114 (7.8)	60.2***	
	직장가입	488	108 (22.1)	98 (20.1)	10 (2.0)	38 (7.8)	91 (18.6)	67 (13.7)	40 (8.2)	36 (7.4)		
	지역가입	263	52 (19.8)	44 (16.7)	13 (4.9)	18 (6.8)	38 (14.4)	35 (13.3)	38 (14.4)	25 (9.5)		
보호 유형	의료급여	763	195 (25.6)	189 (24.8)	56 (7.3)	53 (6.9)	68 (8.9)	81 (10.6)	56 (7.3)	65 (8.5)	32.3**	
	아동양육시설	678	176 (26.0)	136 (20.1)	49 (7.2)	56 (8.3)	81 (11.9)	79 (11.7)	51 (7.5)	50 (7.4)		
	공동생활가정	139	39 (28.1)	33 (23.7)	5 (3.6)	6 (4.3)	20 (14.4)	18 (12.9)	5 (3.6)	13 (9.4)		
	가정위탁	697	140 (20.1)	162 (23.2)	25 (3.6)	47 (6.7)	96 (13.8)	86 (12.3)	78 (11.2)	63 (9.0)		
	가정 위탁	대리	212	35 (16.5)	52 (24.5)	11 (5.2)	15 (7.1)	28 (13.2)	28 (13.2)	24 (11.3)	19 (9.0)	8.9
		친인척	285	64 (22.5)	63 (22.1)	10 (3.5)	15 (5.3)	40 (14.0)	34 (11.9)	36 (12.6)	23 (8.1)	
일반		200	41 (20.5)	47 (23.5)	4 (2.0)	17 (8.5)	28 (14.0)	24 (12.0)	18 (9.0)	21 (10.5)		

구분		사례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계약만료(계약기 간 연장의 어려움)	기타	x ²
전체		1,514	355 (23.4)	331 (21.9)	79 (5.2)	109 (7.2)	197 (13.0)	183 (12.1)	134 (8.9)	126 (8.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678	176 (26.0)	136 (20.1)	49 (7.2)	56 (8.3)	81 (11.9)	79 (11.7)	51 (7.5)	50 (7.4)	42.1*
	공동생활가정	139	39 (28.1)	33 (23.7)	5 (3.6)	6 (4.3)	20 (14.4)	18 (12.9)	5 (3.6)	13 (9.4)	
	대리 가정위탁	212	35 (16.5)	52 (24.5)	11 (5.2)	15 (7.1)	28 (13.2)	28 (13.2)	24 (11.3)	19 (9.0)	
	친인척 가정위탁	285	64 (22.5)	63 (22.1)	10 (3.5)	15 (5.3)	40 (14.0)	34 (11.9)	36 (12.6)	23 (8.1)	
	일반 가정위탁	200	41 (20.5)	47 (23.5)	4 (2.0)	17 (8.5)	28 (14.0)	24 (12.0)	18 (9.0)	21 (10.5)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918	245 (26.7)	182 (19.8)	54 (5.9)	57 (6.2)	121 (13.2)	119 (13.0)	73 (8.0)	67 (7.3)	27.7***
	연장종료	596	110 (18.5)	149 (25.0)	25 (4.2)	52 (8.7)	76 (12.8)	64 (10.7)	61 (10.2)	59 (9.9)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276	75 (27.2)	65 (23.6)	16 (5.8)	24 (8.7)	29 (10.5)	33 (12.0)	14 (5.1)	20 (7.2)	24.6
	2년차	441	102 (23.1)	103 (23.4)	22 (5.0)	35 (7.9)	49 (11.1)	51 (11.6)	40 (9.1)	39 (8.8)	
	3년차	476	116 (24.4)	91 (19.1)	29 (6.1)	31 (6.5)	68 (14.3)	59 (12.4)	46 (9.7)	36 (7.6)	
	4년차	172	36 (20.9)	36 (20.9)	6 (3.5)	10 (5.8)	27 (15.7)	23 (13.4)	16 (9.3)	18 (10.5)	
	5년차	149	26 (17.4)	36 (24.2)	6 (4.0)	9 (6.0)	24 (16.1)	17 (11.4)	18 (12.1)	13 (8.7)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193	293 (24.6)	259 (21.7)	67 (5.6)	90 (7.5)	146 (12.2)	143 (12.0)	100 (8.4)	95 (8.0)	9.3
	비해당 (자립 4~5년차)	321	62 (19.3)	72 (22.4)	12 (3.7)	19 (5.9)	51 (15.9)	40 (12.5)	34 (10.6)	31 (9.7)	

3. 취업 준비시 어려움과 지원 욕구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준비 시 당면하는 어려움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 준비 시 당면하는 어려움은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여’(706명, 22.7%), ‘적성을 잘 몰라서’(598명, 19.3%), ‘학력 및 기술자격이 부족해서’(604명, 19.5%), ‘직종관련 경험이 부족해서’(496명, 16.0%),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244명, 7.9%), ‘보수가 낮아서’(233명, 7.5%),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57명,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중 본인의 취업 준비 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취업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거나 자신의 희망하는 직업에 비해 본인의 학력이나 기술자격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꼽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시 어려움을 다양한 개인변인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라 그 어려움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거나 본인의 적성을 몰라서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그 어려움의 종류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의 학력이나 기술자격이 부족과 낮은 보수가 취업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에 따라서도 그 어려움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라서도 취업준비 어려움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기퇴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연장 보호종료아동과 비교해 볼 때, 취업정보의 부족은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직종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자립수당 대상 아동의 경우는 비대상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취업정보 부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보수가 낮아서라고 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4〉 취업하고자 할 때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여		적성을 잘 몰라서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보수가 낮아서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기타		x ²	
전체		3,104	706	(22.7)	598	(19.3)	496	(16.0)	244	(7.9)	604	(19.5)	233	(7.5)	57	(1.8)	166	(5.3)	2.9	
성별	남	1,461	330	(22.6)	280	(19.2)	229	(15.7)	125	(8.6)	279	(19.1)	107	(7.3)	29	(2.0)	82	(5.6)		
	여	1,643	376	(22.9)	318	(19.4)	267	(16.3)	119	(7.2)	325	(19.8)	126	(7.7)	28	(1.7)	84	(5.1)		
연령	만 18~19세	600	160	(26.7)	129	(21.5)	98	(16.3)	36	(6.0)	114	(19.0)	32	(5.3)	9	(1.5)	22	(3.7)	47.0	
	만 20~21세	1,289	293	(22.7)	259	(20.1)	192	(14.9)	96	(7.4)	274	(21.3)	85	(6.6)	25	(1.9)	65	(5.0)		
	만 22~23세	778	170	(21.9)	145	(18.6)	125	(16.1)	69	(8.9)	130	(16.7)	76	(9.8)	14	(1.8)	49	(6.3)		
	만 24세 이상	437	83	(19.0)	65	(14.9)	81	(18.5)	43	(9.8)	86	(19.7)	40	(9.2)	9	(2.1)	30	(6.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81	(24.4)	230	(19.9)	151	(13.1)	81	(7.0)	253	(21.9)	82	(7.1)	29	(2.5)	47	(4.1)	44.3	
	2~3년제 대학교	524	120	(22.9)	96	(18.3)	94	(17.9)	47	(9.0)	108	(20.6)	26	(5.0)	9	(1.7)	24	(4.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305	(21.4)	272	(19.1)	251	(17.6)	116	(8.1)	243	(17.0)	125	(8.8)	19	(1.3)	95	(6.7)		
부모 유무	있음	1,512	334	(22.1)	284	(18.8)	265	(17.5)	132	(8.7)	263	(17.4)	114	(7.5)	26	(1.7)	94	(6.2)	21.9	
	없음	1,198	280	(23.4)	235	(19.6)	170	(14.2)	86	(7.2)	251	(21.0)	94	(7.8)	24	(2.0)	58	(4.8)		
	모름	394	92	(23.4)	79	(20.1)	61	(15.5)	26	(6.6)	90	(22.8)	25	(6.3)	7	(1.8)	14	(3.6)		
장애 유무	있음	132	25	(18.9)	20	(15.2)	22	(16.7)	5	(3.8)	20	(15.2)	6	(4.5)	24	(18.2)	10	(7.6)	209.8	
	없음	2,972	681	(22.9)	578	(19.4)	474	(15.9)	239	(8.0)	584	(19.7)	227	(7.6)	33	(1.1)	156	(5.2)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90	(19.8)	178	(18.5)	158	(16.5)	78	(8.1)	167	(17.4)	113	(11.8)	13	(1.4)	63	(6.6)	58.1	
	지역가입	374	88	(23.5)	78	(20.9)	58	(15.5)	36	(9.6)	65	(17.4)	25	(6.7)	3	(.8)	21	(5.6)		
	의료급여	1,770	428	(24.2)	342	(19.3)	280	(15.8)	130	(7.3)	372	(21.0)	95	(5.4)	41	(2.3)	82	(4.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340	(24.0)	279	(19.7)	244	(17.2)	98	(6.9)	272	(19.2)	87	(6.1)	23	(1.6)	74	(5.2)	25.9**	
	공동생활가정	332	64	(19.3)	60	(18.1)	54	(16.3)	33	(9.9)	69	(20.8)	20	(6.0)	6	(1.8)	26	(7.8)		
	가정위탁	1,355	302	(22.3)	259	(19.1)	198	(14.6)	113	(8.3)	263	(19.4)	126	(9.3)	28	(2.1)	66	(4.9)		
	가정 위탁	대리	403	101	(25.1)	84	(20.8)	51	(12.7)	36	(8.9)	72	(17.9)	33	(8.2)	6	(1.5)	20	(5.0)	16.2
		친인척	564	109	(19.3)	100	(17.7)	102	(18.1)	46	(8.2)	112	(19.9)	54	(9.6)	14	(2.5)	27	(4.8)	
		일반	388	92	(23.7)	75	(19.3)	45	(11.6)	31	(8.0)	79	(20.4)	39	(10.1)	8	(2.1)	19	(4.9)	

33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여	적성을 잘 몰라서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보수가 낮아서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기타		x ²
전체		3,104	706 (22.7)	598 (19.3)	496 (16.0)	244 (7.9)	604 (19.5)	233 (7.5)	57 (1.8)	166 (5.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340 (24.0)	279 (19.7)	244 (17.2)	98 (6.9)	272 (19.2)	87 (6.1)	23 (1.6)	74 (5.2)		41.7*
	공동생활가정	332	64 (19.3)	60 (18.1)	54 (16.3)	33 (9.9)	69 (20.8)	20 (6.0)	6 (1.8)	26 (7.8)		
	대리 가정위탁	403	101 (25.1)	84 (20.8)	51 (12.7)	36 (8.9)	72 (17.9)	33 (8.2)	6 (1.5)	20 (5.0)		
	친인척 가정위탁	564	109 (19.3)	100 (17.7)	102 (18.1)	46 (8.2)	112 (19.9)	54 (9.6)	14 (2.5)	27 (4.8)		
	일반 가정위탁	388	92 (23.7)	75 (19.3)	45 (11.6)	31 (8.0)	79 (20.4)	39 (10.1)	8 (2.1)	19 (4.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437 (24.6)	345 (19.4)	256 (14.4)	144 (8.1)	357 (20.1)	133 (7.5)	29 (1.6)	73 (4.1)		26.8
	연장종료	1,330	269 (20.2)	253 (19.0)	240 (18.0)	100 (7.5)	247 (18.6)	100 (7.5)	28 (2.1)	93 (7.0)		***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215 (24.6)	159 (18.2)	164 (18.7)	59 (6.7)	153 (17.5)	51 (5.8)	15 (1.7)	59 (6.7)		62.2
	2년차	921	201 (21.8)	208 (22.6)	139 (15.1)	73 (7.9)	180 (19.5)	57 (6.2)	18 (2.0)	45 (4.9)		
	3년차	805	194 (24.1)	136 (16.9)	114 (14.2)	65 (8.1)	168 (20.9)	68 (8.4)	19 (2.4)	41 (5.1)		
	4년차	280	53 (18.9)	62 (22.1)	44 (15.7)	22 (7.9)	61 (21.8)	24 (8.6)	3 (1.1)	11 (3.9)		
	5년차	223	43 (19.3)	33 (14.8)	35 (15.7)	25 (11.2)	42 (18.8)	33 (14.8)	2 (.9)	10 (4.5)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610 (23.5)	503 (19.3)	417 (16.0)	197 (7.6)	501 (19.3)	176 (6.8)	52 (2.0)	145 (5.6)		21.2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96 (19.1)	95 (18.9)	79 (15.7)	47 (9.3)	103 (20.5)	57 (11.3)	5 (1.0)	21 (4.2)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 취업준비 관련 프로그램은 ‘장려금지원사업’(828명, 26.7%), ‘연수체험사업’(555명, 17.9%), ‘취업성공패키지’(345명, 11.1%),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334명, 10.8%),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287명, 9.2%), ‘단기일자리 제공사업’(257명, 8.3%), ‘직업훈련사업’(193명, 6.2%), ‘국민내일배움카드’(155명, 5.0%), ‘청년취업아카데미’(96명,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일자리 제공이나 일회성 직업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보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선택권이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장려금지원이나 실제로 직업이나 직장체험을 제공하는 연수체험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희망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모유무, 장애유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장려금지원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수체험(직장체험)을 보다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없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비해 장려금 지원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 없는 아동에 비해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아동의 경우 여자 아동의 경우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5〉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취업 준비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연수체험 (직장체험, 인턴) 사업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해외취업/ 인턴사업	직업훈련사업	장려금지원사 업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 지	국민내일 배움카드제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기타	x ²
전체		3,104	555 (17.9)	257 (8.3)	334 (10.8)	193 (6.2)	828 (26.7)	287 (9.2)	345 (11.1)	155 (5.0)	96 (3.1)	54 (1.7)	
성별	남	1,461	253 (17.3)	119 (8.1)	152 (10.4)	101 (6.9)	387 (26.5)	130 (8.9)	184 (12.6)	53 (3.6)	47 (3.2)	35 (2.4)	26.1 ***
	여	1,643	302 (18.4)	138 (8.4)	182 (11.1)	92 (5.6)	441 (26.8)	157 (9.6)	161 (9.8)	102 (6.2)	49 (3.0)	19 (1.2)	
연령	만 18~19세	600	104 (17.3)	55 (9.2)	65 (10.8)	39 (6.5)	125 (20.8)	65 (10.8)	76 (12.7)	28 (4.7)	27 (4.5)	16 (2.7)	42.9**
	만 20~21세	1,289	213 (16.5)	110 (8.5)	136 (10.6)	92 (7.1)	354 (27.5)	109 (8.5)	148 (11.5)	66 (5.1)	39 (3.0)	22 (1.7)	
	만 22~23세	778	150 (19.3)	65 (8.4)	84 (10.8)	42 (5.4)	218 (28.0)	64 (8.2)	81 (10.4)	40 (5.1)	20 (2.6)	14 (1.8)	
	만 24세 이상	437	88 (20.1)	27 (6.2)	49 (11.2)	20 (4.6)	131 (30.0)	49 (11.2)	40 (9.2)	21 (4.8)	10 (2.3)	2 (0.5)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166 (14.4)	94 (8.1)	82 (7.1)	94 (8.1)	330 (28.6)	107 (9.3)	155 (13.4)	55 (4.8)	42 (3.6)	29 (2.5)	84.3 ***
	2~3년제 대학교	524	85 (16.2)	50 (9.5)	69 (13.2)	32 (6.1)	120 (22.9)	46 (8.8)	67 (12.8)	30 (5.7)	15 (2.9)	10 (1.9)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304 (21.3)	113 (7.9)	183 (12.8)	67 (4.7)	378 (26.5)	134 (9.4)	123 (8.6)	70 (4.9)	39 (2.7)	15 (1.1)	
부모 유무	있음	1,512	294 (19.4)	123 (8.1)	149 (9.9)	105 (6.9)	410 (27.1)	143 (9.5)	140 (9.3)	70 (4.6)	47 (3.1)	31 (2.1)	41.0 ***
	없음	1,198	194 (16.2)	104 (8.7)	142 (11.9)	66 (5.5)	335 (28.0)	112 (9.3)	137 (11.4)	58 (4.8)	36 (3.0)	14 (1.2)	
	모름	394	67 (17.0)	30 (7.6)	43 (10.9)	22 (5.6)	83 (21.1)	32 (8.1)	68 (17.3)	27 (6.9)	13 (3.3)	9 (2.3)	
장애 유무	있음	132	12 (9.1)	8 (6.1)	6 (4.5)	18 (13.6)	23 (17.4)	23 (17.4)	16 (12.1)	8 (6.1)	8 (6.1)	10 (7.6)	69.7 ***
	없음	2,972	543 (18.3)	249 (8.4)	328 (11.0)	175 (5.9)	805 (27.1)	264 (8.9)	329 (11.1)	147 (4.9)	88 (3.0)	44 (1.5)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73 (18.0)	60 (6.3)	103 (10.7)	63 (6.6)	282 (29.4)	87 (9.1)	105 (10.9)	49 (5.1)	26 (2.7)	12 (1.3)	27.3
	지역가입	374	63 (16.8)	42 (11.2)	33 (8.8)	15 (4.0)	112 (29.9)	32 (8.6)	34 (9.1)	22 (5.9)	13 (3.5)	8 (2.1)	
	의료급여	1,770	319 (18.0)	155 (8.8)	198 (11.2)	115 (6.5)	434 (24.5)	168 (9.5)	206 (11.6)	84 (4.7)	57 (3.2)	34 (1.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42 (17.1)	123 (8.7)	165 (11.6)	85 (6.0)	356 (25.1)	146 (10.3)	173 (12.2)	66 (4.7)	37 (2.6)	24 (1.7)	25.7
	공동생활가정	332	66 (19.9)	33 (9.9)	37 (11.1)	23 (6.9)	75 (22.6)	26 (7.8)	35 (10.5)	14 (4.2)	16 (4.8)	7 (2.1)	
	가정위탁	1,355	247 (18.2)	101 (7.5)	132 (9.7)	85 (6.3)	397 (29.3)	115 (8.5)	137 (10.1)	75 (5.5)	43 (3.2)	23 (1.7)	
	가정 위탁	대리	403	84 (20.8)	26 (6.5)	33 (8.2)	25 (6.2)	122 (30.3)	35 (8.7)	41 (10.2)	19 (4.7)	13 (3.2)	15.4
		친인척	564	104 (18.4)	49 (8.7)	58 (10.3)	37 (6.6)	162 (28.7)	47 (8.3)	48 (8.5)	36 (6.4)	14 (2.5)	
	일반	388	59 (15.2)	26 (6.7)	41 (10.6)	23 (5.9)	113 (29.1)	33 (8.5)	48 (12.4)	20 (5.2)	16 (4.1)	9 (2.3)	

구분		사례수	연수체험 (직장체험, 인턴) 사업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해외취업/ 인턴사업	직업훈련사업	장려금지원사 업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 지	국민내일 배움카드제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기타	x ²
전체		3,104	555 (17.9)	257 (8.3)	334 (10.8)	193 (6.2)	828 (26.7)	287 (9.2)	345 (11.1)	155 (5.0)	96 (3.1)	54 (1.7)	
보호 유형 ²	아동양육시설	1,417	242 (17.1)	123 (8.7)	165 (11.6)	85 (6.0)	356 (25.1)	146 (10.3)	173 (12.2)	66 (4.7)	37 (2.6)	24 (1.7)	40.7
	공동생활가정	332	66 (19.9)	33 (9.9)	37 (11.1)	23 (6.9)	75 (22.6)	26 (7.8)	35 (10.5)	14 (4.2)	16 (4.8)	7 (2.1)	
	대리 가정위탁	403	84 (20.8)	26 (6.5)	33 (8.2)	25 (6.2)	122 (30.3)	35 (8.7)	41 (10.2)	19 (4.7)	13 (3.2)	5 (1.2)	
	친인척 가정위탁	564	104 (18.4)	49 (8.7)	58 (10.3)	37 (6.6)	162 (28.7)	47 (8.3)	48 (8.5)	36 (6.4)	14 (2.5)	9 (1.6)	
	일반 가정위탁	388	59 (15.2)	26 (6.7)	41 (10.6)	23 (5.9)	113 (29.1)	33 (8.5)	48 (12.4)	20 (5.2)	16 (4.1)	9 (2.3)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310 (17.5)	152 (8.6)	179 (10.1)	112 (6.3)	474 (26.7)	157 (8.9)	204 (11.5)	92 (5.2)	60 (3.4)	34 (1.9)	6
	연장종료	1,330	245 (18.4)	105 (7.9)	155 (11.7)	81 (6.1)	354 (26.6)	130 (9.8)	141 (10.6)	63 (4.7)	36 (2.7)	20 (1.5)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148 (16.9)	82 (9.4)	95 (10.9)	57 (6.5)	211 (24.1)	94 (10.7)	103 (11.8)	39 (4.5)	26 (3.0)	20 (2.3)	39.9
	2년차	921	167 (18.1)	87 (9.4)	99 (10.7)	65 (7.1)	228 (24.8)	78 (8.5)	99 (10.7)	46 (5.0)	33 (3.6)	19 (2.1)	
	3년차	805	138 (17.1)	55 (6.8)	92 (11.4)	45 (5.6)	237 (29.4)	72 (8.9)	86 (10.7)	43 (5.3)	25 (3.1)	12 (1.5)	
	4년차	280	56 (20.0)	16 (5.7)	31 (11.1)	17 (6.1)	83 (29.6)	18 (6.4)	32 (11.4)	17 (6.1)	8 (2.9)	2 (0.7)	
	5년차	223	46 (20.6)	17 (7.6)	17 (7.6)	9 (4.0)	69 (30.9)	25 (11.2)	25 (11.2)	10 (4.5)	4 (1.8)	1 (0.4)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453 (17.4)	224 (8.6)	286 (11.0)	167 (6.4)	676 (26.0)	244 (9.4)	288 (11.1)	128 (4.9)	84 (3.2)	51 (2.0)	14.8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02 (20.3)	33 (6.6)	48 (9.5)	26 (5.2)	152 (30.2)	43 (8.5)	57 (11.3)	27 (5.4)	12 (2.4)	3 (0.6)	

4. 취업자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취업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에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중 1,286명(41.84%)은 현재 취업상태인 것으로 그리고 1,763명(56.8%)은 현재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취업 현황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 유무, 건강보험 종류, 보호유형, 보호종료 유형, 보호종료 연차 및 자립수당 대상 여부 등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준비나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이하 집단(47.8%)인 경우가 취업상태 비율이 가장 높으며, 4년제 대학교 이상(44.4%)이 다음으로 그리고 2-3년제 대학교(19.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있는 아동에 비해 취업상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취업상태 비율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 아동에 비해 취업상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장종료 아동의 경우 만기퇴소 아동에 비해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연차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취업비율이 높았으며, 자립수당 비 해당 보호종료아동의 경우가 자립수당 해당 아동에 비해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6〉 취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미취업	취업 상태	비해당(군복무)	x ²
전체		3,104	1,763 (56.8)	1,286 (41.4)	55 (1.8)	
성별	남	1,461	818 (56.0)	588 (40.2)	55 (3.8)	63.1***
	여	1,643	945 (57.5)	698 (42.5)	0 (.0)	
연령	만 18~19세	600	416 (69.3)	174 (29.0)	10 (1.7)	113.5***
	만 20~21세	1,289	774 (60.0)	482 (37.4)	33 (2.6)	
	만 22~23세	778	378 (48.6)	388 (49.9)	12 (1.5)	
	만 24세 이상	437	195 (44.6)	242 (55.4)	0 (.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75 (49.8)	552 (47.8)	27 (2.3)	138.6***
	2~3년제 대학교	524	416 (79.4)	101 (19.3)	7 (1.3)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772 (54.1)	633 (44.4)	21 (1.5)	

구분	사례수	미취업	취업 상태	비해당(군복무)	χ^2
전체	3,104	1,763 (56.8)	1,286 (41.4)	55 (1.8)	
부모 유무	있음	1,512	850 (56.2)	633 (41.9)	29 (1.9)
	없음	1,198	696 (58.1)	481 (40.2)	21 (1.8)
	모름	394	217 (55.1)	172 (43.7)	5 (1.3)
장애유무	있음	132	60 (45.5)	72 (54.5)	0 (.0)
	없음	2,972	1703 (57.3)	1214 (40.8)	55 (1.9)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00 (10.4)	855 (89.1)	5 (.5)
	지역가입	374	273 (73.0)	90 (24.1)	11 (2.9)
	의료급여	1,770	1390 (78.5)	341 (19.3)	39 (2.2)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871 (61.5)	543 (38.3)	3 (.2)
	공동생활가정	332	209 (63.0)	118 (35.5)	5 (1.5)
	가정위탁	1,355	683 (50.4)	625 (46.1)	47 (3.5)
	대리	403	210 (52.1)	174 (43.2)	19 (4.7)
	친인척	564	277 (49.1)	267 (47.3)	20 (3.5)
	일반	388	196 (50.5)	184 (47.4)	8 (2.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871 (61.5)	543 (38.3)	3 (.2)
	공동생활가정	332	209 (63.0)	118 (35.5)	5 (1.5)
	대리 가정위탁	403	210 (52.1)	174 (43.2)	19 (4.7)
	친인척 가정위탁	564	277 (49.1)	267 (47.3)	20 (3.5)
	일반 가정위탁	388	196 (50.5)	184 (47.4)	8 (2.1)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1070 (60.3)	672 (37.9)	32 (1.8)
	연장종료	1,330	693 (52.1)	614 (46.2)	23 (1.7)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528 (60.3)	331 (37.8)	16 (1.8)
	2년차	921	548 (59.5)	356 (38.7)	17 (1.8)
	3년차	805	463 (57.5)	330 (41.0)	12 (1.5)
	4년차	280	126 (45.0)	145 (51.8)	9 (3.2)
	5년차	223	98 (43.9)	124 (55.6)	1 (.4)
자립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539 (59.2)	1017 (39.1)	45 (1.7)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24 (44.5)	269 (53.5)	10 (2.0)

현재 취업 상태인 보호종료아동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상태인 보호종료아동 중 ‘서비스종사자’(328명, 2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명, 19.3%), ‘사무 종사자’(199명, 15.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33명, 10.5%), ‘판매 종사자’(89명, 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50명, 3.9%), ‘관리직 종사자’(48명, 3.8%), 그리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7명,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직업군은 아동의 부모여부, 장애유무를 제외하고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아동의 경우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종료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종사자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있는 아동의 경우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보다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7〉 직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직 종사자 (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법률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유투버, 종교인, 작가 등)		사무 종사자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부, 목수, 배관원, 장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근로자 등)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문사, 선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기타	χ ²	
전체		1,267	48	(3.8)	244	(19.3)	199	(15.7)	328	(25.9)	89	(7.0)	7	(.6)	50	(3.9)	133	(10.5)	96	(7.6)	73	(5.8)	
성별	남	583	35	(6.0)	70	(12.0)	48	(8.2)	124	(21.3)	47	(8.1)	5	(.9)	40	(6.9)	97	(16.6)	80	(13.7)	37	(6.3)	210.7*
	여	684	13	(1.9)	174	(25.4)	151	(22.1)	204	(29.8)	42	(6.1)	2	(.3)	10	(1.5)	36	(5.3)	16	(2.3)	36	(5.3)	**
연령	만 18~19세	170	8	(4.7)	17	(10.0)	34	(20.0)	34	(20.0)	7	(4.1)	2	(1.2)	11	(6.5)	26	(15.3)	22	(12.9)	9	(5.3)	137.3* **
	만 20~21세	474	22	(4.6)	44	(9.3)	64	(13.5)	141	(29.7)	43	(9.1)	2	(.4)	22	(4.6)	55	(11.6)	42	(8.9)	39	(8.2)	
	만 22~23세	383	9	(2.3)	100	(26.1)	52	(13.6)	103	(26.9)	25	(6.5)	1	(.3)	11	(2.9)	38	(9.9)	24	(6.3)	20	(5.2)	
	만 24세 이상	240	9	(3.8)	83	(34.6)	49	(20.4)	50	(20.8)	14	(5.8)	2	(.8)	6	(2.5)	14	(5.8)	8	(3.3)	5	(2.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543	25	(4.6)	34	(6.3)	75	(13.8)	155	(28.5)	46	(8.5)	3	(.6)	28	(5.2)	85	(15.7)	61	(11.2)	31	(5.7)	201.2* **
	2~3년제 대학교	98	6	(6.1)	5	(5.1)	10	(10.2)	26	(26.5)	11	(11.2)	1	(1.0)	4	(4.1)	14	(14.3)	8	(8.2)	13	(13.3)	
	4년제 대학교 이상	626	17	(2.7)	205	(32.7)	114	(18.2)	147	(23.5)	32	(5.1)	3	(.5)	18	(2.9)	34	(5.4)	27	(4.3)	29	(4.6)	
부모 유무	있음	620	21	(3.4)	129	(20.8)	92	(14.8)	154	(24.8)	51	(8.2)	4	(.6)	26	(4.2)	63	(10.2)	44	(7.1)	36	(5.8)	15.2
	없음	476	17	(3.6)	87	(18.3)	77	(16.2)	137	(28.8)	25	(5.3)	3	(.6)	17	(3.6)	47	(9.9)	37	(7.8)	29	(6.1)	
	모름	171	10	(5.8)	28	(16.4)	30	(17.5)	37	(21.6)	13	(7.6)	0	(.0)	7	(4.1)	23	(13.5)	15	(8.8)	8	(4.7)	
장애 유무	있음	69	4	(5.8)	5	(7.2)	12	(17.4)	20	(29.0)	1	(1.4)	0	(.0)	3	(4.3)	10	(14.5)	10	(14.5)	4	(5.8)	16
	없음	1198	44	(3.7)	239	(19.9)	187	(15.6)	308	(25.7)	88	(7.3)	7	(.6)	47	(3.9)	123	(10.3)	86	(7.2)	69	(5.8)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852	34	(4.0)	198	(23.2)	158	(18.5)	203	(23.8)	50	(5.9)	4	(.5)	38	(4.5)	103	(12.1)	43	(5.0)	21	(2.5)	136.7* **
	지역가입	89	4	(4.5)	13	(14.6)	11	(12.4)	23	(25.8)	10	(11.2)	1	(1.1)	0	(.0)	8	(9.0)	13	(14.6)	6	(6.7)	
	의료급여	326	10	(3.1)	33	(10.1)	30	(9.2)	102	(31.3)	29	(8.9)	2	(.6)	12	(3.7)	22	(6.7)	40	(12.3)	46	(14.1)	

338 보호종로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관리직 종사자 (인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법률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유튜버, 종교인, 작가 등)	사무 종사자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통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농림 어업 수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광부, 목수, 배관원, 장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업근로자 등)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기타	x ²	
전체		1,267	48 (3.8)	244 (19.3)	199 (15.7)	328 (25.9)	89 (7.0)	7 (.6)	50 (3.9)	133 (10.5)	96 (7.6)	73 (5.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34	24 (4.5)	91 (17.0)	74 (13.9)	145 (27.2)	37 (6.9)	4 (.7)	27 (5.1)	64 (12.0)	45 (8.4)	23 (4.3)	36.3***	
	공동생활가정	113	8 (7.1)	17 (15.0)	14 (12.4)	24 (21.2)	6 (5.3)	0 (.0)	7 (6.2)	13 (11.5)	13 (11.5)	11 (9.7)		
	가정위탁	620	16 (2.6)	136 (21.9)	111 (17.9)	159 (25.6)	46 (7.4)	3 (.5)	16 (2.6)	56 (9.0)	38 (6.1)	39 (6.3)		
	가정 위탁	대리	172	4 (2.3)	42 (24.4)	31 (18.0)	44 (25.6)	12 (7.0)	0 (.0)	6 (3.5)	13 (7.6)	8 (4.7)	12 (7.0)	13.9
		친인척	267	7 (2.6)	62 (23.2)	50 (18.7)	70 (26.2)	20 (7.5)	2 (.7)	5 (1.9)	19 (7.1)	14 (5.2)	18 (6.7)	
	일반	181	5 (2.8)	32 (17.7)	30 (16.6)	45 (24.9)	14 (7.7)	1 (.6)	5 (2.8)	24 (13.3)	16 (8.8)	9 (5.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534	24 (4.5)	91 (17.0)	74 (13.9)	145 (27.2)	37 (6.9)	4 (.7)	27 (5.1)	64 (12.0)	45 (8.4)	23 (4.3)	48.8	
	공동생활가정	113	8 (7.1)	17 (15.0)	14 (12.4)	24 (21.2)	6 (5.3)	0 (.0)	7 (6.2)	13 (11.5)	13 (11.5)	11 (9.7)		
	대리 가정위탁	172	4 (2.3)	42 (24.4)	31 (18.0)	44 (25.6)	12 (7.0)	0 (.0)	6 (3.5)	13 (7.6)	8 (4.7)	12 (7.0)		
	친인척 가정위탁	267	7 (2.6)	62 (23.2)	50 (18.7)	70 (26.2)	20 (7.5)	2 (.7)	5 (1.9)	19 (7.1)	14 (5.2)	18 (6.7)		
	일반 가정위탁	181	5 (2.8)	32 (17.7)	30 (16.6)	45 (24.9)	14 (7.7)	1 (.6)	5 (2.8)	24 (13.3)	16 (8.8)	9 (5.0)		
보호 종료 유형	민기퇴소	657	31 (4.7)	76 (11.6)	92 (14.0)	174 (26.5)	55 (8.4)	3 (.5)	31 (4.7)	90 (13.7)	63 (9.6)	42 (6.4)	75.1***	
	연장종료	610	17 (2.8)	168 (27.5)	107 (17.5)	154 (25.2)	34 (5.6)	4 (.7)	19 (3.1)	43 (7.0)	33 (5.4)	31 (5.1)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327	11 (3.4)	79 (24.2)	61 (18.7)	65 (19.9)	14 (4.3)	1 (.3)	11 (3.4)	33 (10.1)	28 (8.6)	24 (7.3)	53.7**	
	2년차	350	10 (2.9)	71 (20.3)	59 (16.9)	87 (24.9)	28 (8.0)	2 (.6)	19 (5.4)	29 (8.3)	23 (6.6)	22 (6.3)		
	3년차	326	14 (4.3)	55 (16.9)	47 (14.4)	94 (28.8)	23 (7.1)	3 (.9)	11 (3.4)	37 (11.3)	21 (6.4)	21 (6.4)		
	4년차	142	6 (4.2)	14 (9.9)	18 (12.7)	50 (35.2)	13 (9.2)	1 (.7)	5 (3.5)	18 (12.7)	12 (8.5)	5 (3.5)		
	5년차	122	7 (5.7)	25 (20.5)	14 (11.5)	32 (26.2)	11 (9.0)	0 (.0)	4 (3.3)	16 (13.1)	12 (9.8)	1 (.8)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003	35 (3.5)	205 (20.4)	167 (16.7)	246 (24.5)	65 (6.5)	6 (.6)	41 (4.1)	99 (9.9)	72 (7.2)	67 (6.7)	23.1***	
	비해당 (자립 4~5년차)	264	13 (4.9)	39 (14.8)	32 (12.1)	82 (31.1)	24 (9.1)	1 (.4)	9 (3.4)	34 (12.9)	24 (9.1)	6 (2.3)		

현재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일자리 형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임금근로자는 1,196명(94.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71명(5.6%)으로 극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형태는 남녀 성별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하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경우 2-3년제 대학교라고 응답한 아동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 아동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8〉 일자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χ ²	
전체		1,267	1196	(94.4)	71	(5.6)		
성별	남	583	541	(92.8)	42	(7.2)	5.2**	
	여	684	655	(95.8)	29	(4.2)		
연령	만 18~19세	170	162	(95.3)	8	(4.7)	3.5	
	만 20~21세	474	441	(93.0)	33	(7.0)		
	만 22~23세	383	362	(94.5)	21	(5.5)		
	만 24세 이상	240	231	(96.3)	9	(3.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43	511	(94.1)	32	(5.9)	13.5***	
	2~3년제 대학교	98	85	(86.7)	13	(13.3)		
	4년제 대학교 이상	626	600	(95.8)	26	(4.2)		
부모 유무	있음	620	584	(94.2)	36	(5.8)	2.2	
	없음	476	454	(95.4)	22	(4.6)		
	모름	171	158	(92.4)	13	(7.6)		
장애유무	있음	69	67	(97.1)	2	(2.9)	1.0	
	없음	1198	1129	(94.2)	69	(5.8)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852	832	(97.7)	20	(2.3)	52.4***	
	지역가입	89	77	(86.5)	12	(13.5)		
	의료급여	326	287	(88.0)	39	(12.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34	499	(93.4)	35	(6.6)	1.6	
	공동생활가정	113	107	(94.7)	6	(5.3)		
	가정위탁	620	590	(95.2)	30	(4.8)		
	가정 위탁	대리	172	161	(93.6)	11	(6.4)	3.5
		친인척	267	259	(97.0)	8	(3.0)	
	일반	181	170	(93.9)	11	(6.1)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534	499	(93.4)	35	(6.6)	4.6	
	공동생활가정	113	107	(94.7)	6	(5.3)		
	대리 가정위탁	172	161	(93.6)	11	(6.4)		
	친인척 가정위탁	267	259	(97.0)	8	(3.0)		
	일반 가정위탁	181	170	(93.9)	11	(6.1)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x ²
전체		1,267	1196	(94.4)	71	(5.6)	1.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657	615	(93.6)	42	(6.4)	
	연장종료	610	581	(95.2)	29	(4.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327	309	(94.5)	18	(5.5)	2.2
	2년차	350	330	(94.3)	20	(5.7)	
	3년차	326	309	(94.8)	17	(5.2)	
	4년차	142	136	(95.8)	6	(4.2)	
	5년차	122	112	(91.8)	10	(8.2)	
자립수당대 상	해당 (자립 1~3년차)	1003	948	(94.5)	55	(5.5)	0.1
	비해당 (자립 4~5년차)	264	248	(93.9)	16	(6.1)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761명(63.6%)로 비정규직 435명(3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에 대해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장애유무나 건강보험 종류, 보호종료 연차나 자립수당 대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장애가 없는 아동은 장애가 있는 아동보다 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가진 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아동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9〉 고용형태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x ²
전체		1,196	761	(63.6)	435	(36.4)	2.6
성별	남	541	331	(61.2)	210	(38.8)	
	여	655	430	(65.6)	225	(34.4)	
연령	만 18~19세	162	99	(61.1)	63	(38.9)	1.4
	만 20~21세	441	280	(63.5)	161	(36.5)	
	만 22~23세	362	228	(63.0)	134	(37.0)	
	만 24세 이상	231	154	(66.7)	77	(33.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11	330	(64.6)	181	(35.4)	0.4
	2~3년제 대학교	85	53	(62.4)	32	(37.6)	
	4년제 대학교 이상	600	378	(63.0)	222	(37.0)	
부모 유무	있음	584	375	(64.2)	209	(35.8)	3.4
	없음	454	277	(61.0)	177	(39.0)	
	모름	158	109	(69.0)	49	(31.0)	
장애유무	있음	67	33	(49.3)	34	(50.7)	6.3**
	없음	1129	728	(64.5)	401	(35.5)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832	610	(73.3)	222	(26.7)	111.5***
	지역가입	77	29	(37.7)	48	(62.3)	
	의료급여	287	122	(42.5)	165	(57.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x ²
전체		1,196	761	(63.6)	435	(36.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99	333	(66.7)	166	(33.3)	4.6
	공동생활가정	107	61	(57.0)	46	(43.0)	
	가정위탁	590	367	(62.2)	223	(37.8)	
	가정위탁	대리	161	(63.4)	59	(36.6)	0.2
		친인척	259	(62.2)	98	(37.8)	
		일반	170	(61.2)	66	(38.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499	333	(66.7)	166	(33.3)	4.8
	공동생활가정	107	61	(57.0)	46	(43.0)	
	대리 가정위탁	161	102	(63.4)	59	(36.6)	
	친인척 가정위탁	259	161	(62.2)	98	(37.8)	
	일반 가정위탁	170	104	(61.2)	66	(38.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615	396	(64.4)	219	(35.6)	0.3
	연장종료	581	365	(62.8)	216	(37.2)	
보호종료 연차	1년차	309	171	(55.3)	138	(44.7)	14.3***
	2년차	330	217	(65.8)	113	(34.2)	
	3년차	309	202	(65.4)	107	(34.6)	
	4년차	136	90	(66.2)	46	(33.8)	
	5년차	112	81	(72.3)	31	(27.7)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948	590	(62.2)	358	(37.8)	3.8
	비해당 (자립 4~5년차)	248	171	(69.0)	77	(31.0)	

취업중이라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 중 상용직이 894명(74.7%), 임시직이 255명(21.3%), 그리고 일용직이 47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임시직 비중이 높았으며, 남자아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용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지닌 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 아동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은 아동일수록 상용직 비중은 높은 반면에 일용직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0〉 고용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용직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 또는 계약직)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x ²
전체		1196	894	(74.7)	255	(21.3)	47	(3.9)	
성별	남	541	403	(74.5)	106	(19.6)	32	(5.9)	11.3***
	여	655	491	(75.0)	149	(22.7)	15	(2.3)	

구분		사례수	상용직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 또는 계약직)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χ ²	
전체		1196	894	(74.7)	255	(21.3)	47	(3.9)		
연령	만 18~19세	162	112	(69.1)	41	(25.3)	9	(5.6)	12.4	
	만 20~21세	441	319	(72.3)	100	(22.7)	22	(5.0)		
	만 22~23세	362	274	(75.7)	78	(21.5)	10	(2.8)		
	만 24세 이상	231	189	(81.8)	36	(15.6)	6	(2.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11	373	(73.0)	114	(22.3)	24	(4.7)	6.6	
	2~3년제 대학교	85	57	(67.1)	23	(27.1)	5	(5.9)		
	4년제 대학교 이상	600	464	(77.3)	118	(19.7)	18	(3.0)		
부모 유무	있음	584	436	(74.7)	129	(22.1)	19	(3.3)	3	
	없음	454	336	(74.0)	95	(20.9)	23	(5.1)		
	모름	158	122	(77.2)	31	(19.6)	5	(3.2)		
장애유무	있음	67	49	(73.1)	14	(20.9)	4	(6.0)	0.8	
	없음	1129	845	(74.8)	241	(21.3)	43	(3.8)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832	686	(82.5)	132	(15.9)	14	(1.7)	98.9 ***	
	지역가입	77	46	(59.7)	27	(35.1)	4	(5.2)		
	의료급여	287	162	(56.4)	96	(33.4)	29	(10.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99	387	(77.6)	93	(18.6)	19	(3.8)	4.5	
	공동생활가정	107	75	(70.1)	28	(26.2)	4	(3.7)		
	가정위탁	590	432	(73.2)	134	(22.7)	24	(4.1)		
	가정 위탁	대리	161	113	(70.2)	42	(26.1)	6	(3.7)	2.5
		친인척	259	196	(75.7)	54	(20.8)	9	(3.5)	
		일반	170	123	(72.4)	38	(22.4)	9	(5.3)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499	387	(77.6)	93	(18.6)	19	(3.8)	7.1	
	공동생활가정	107	75	(70.1)	28	(26.2)	4	(3.7)		
	대리 가정위탁	161	113	(70.2)	42	(26.1)	6	(3.7)		
	친인척 가정위탁	259	196	(75.7)	54	(20.8)	9	(3.5)		
	일반 가정위탁	170	123	(72.4)	38	(22.4)	9	(5.3)		
	만기퇴소	615	463	(75.3)	125	(20.3)	27	(4.4)		
보호 종료 유형	연장종료	581	431	(74.2)	130	(22.4)	20	(3.4)	1.3	
	1년차	309	203	(65.7)	90	(29.1)	16	(5.2)		
보호종료 연차	2년차	330	246	(74.5)	70	(21.2)	14	(4.2)	24.6 ***	
	3년차	309	245	(79.3)	55	(17.8)	9	(2.9)		
	4년차	136	104	(76.5)	26	(19.1)	6	(4.4)		
	5년차	112	96	(85.7)	14	(12.5)	2	(1.8)		
	해당 (자립 1~3년차)	948	694	(73.2)	215	(22.7)	39	(4.1)		
자립수당대 상	비해당 (자립 4~5년차)	248	200	(80.6)	40	(16.1)	8	(3.2)	5.8	

현재 취업중인 보호종료아동의 보수 수준(세후 월급)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미만이 686명(58.4%)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다음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48명(38.1%), 100만원 미만이 30명(2.6%),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 11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월 평균 보수액은 182.2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월 보수액이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187만원)에 여자(178.3만

원)보다 다소 8.7만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보수액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보수액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있는 아동의 경우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가진 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아동에 비해 월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월 급여수준 역시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 세후 월급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175	30 (2.6)	686 (58.4)	448 (38.1)	11 (.9)	182.2 (40.5)	
성별							
남	537	15 (2.8)	265 (49.3)	251 (46.7)	6 (1.1)	187.0 (42.9)	3.6***
여	638	15 (2.4)	421 (66.0)	197 (30.9)	5 (.8)	178.3 (38.0)	
연령							
만 18~19세	151	4 (2.6)	99 (65.6)	47 (31.1)	1 (.7)	180.2 (37.4)	10.1***
만 20~21세	428	13 (3.0)	277 (64.7)	135 (31.5)	3 (.7)	175.1 (42.2)	
만 22~23세	365	7 (1.9)	207 (56.7)	148 (40.5)	3 (.8)	185.1 (38.0)	
만 24세 이상	231	6 (2.6)	103 (44.6)	118 (51.1)	4 (1.7)	192.7 (40.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501	10 (2.0)	319 (63.7)	168 (33.5)	4 (.8)	178.1 (40.3)	5.9**
2~3년제 대학교	87	4 (4.6)	47 (54.0)	35 (40.2)	1 (1.1)	178.5 (44.9)	
4년제 대학교 이상	587	16 (2.7)	320 (54.5)	245 (41.7)	6 (1.0)	186.4 (39.7)	
부모 유무							
있음	570	17 (3.0)	327 (57.4)	220 (38.6)	6 (1.1)	183.5 (42.2)	0.6
없음	444	10 (2.3)	262 (59.0)	168 (37.8)	4 (.9)	181.1 (38.8)	
모름	161	3 (1.9)	97 (60.2)	60 (37.3)	1 (.6)	180.8 (38.8)	
장애 유무							
있음	56	9 (16.1)	32 (57.1)	15 (26.8)	0 (.0)	155.6 (50.5)	-5***
없음	1,119	21 (1.9)	654 (58.4)	433 (38.7)	11 (1.0)	183.6 (39.5)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845	6 (.7)	478 (56.6)	354 (41.9)	7 (.8)	190.4 (34.4)	70.6***
지역가입	75	4 (5.3)	38 (50.7)	31 (41.3)	2 (2.7)	171.7 (50.4)	
의료급여	255	20 (7.8)	170 (66.7)	63 (24.7)	2 (.8)	157.8 (45.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94	13 (2.6)	286 (57.9)	189 (38.3)	6 (1.2)	182.7 (40.3)	0.5
공동생활가정	103	7 (6.8)	51 (49.5)	42 (40.8)	3 (2.9)	178.1 (49.4)	
가정위탁	578	10 (1.7)	349 (60.4)	217 (37.5)	2 (.3)	182.6 (39.0)	
가정 위탁 대리	159	4 (2.5)	96 (60.4)	59 (37.1)	0 (.0)	183.3 (43.2)	
가정 위탁 친인척	250	3 (1.2)	152 (60.8)	93 (37.2)	2 (.8)	182.6 (35.5)	0.1
가정 위탁 일반	169	3 (1.8)	101 (59.8)	65 (38.5)	0 (.0)	181.8 (39.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494	13 (2.6)	286 (57.9)	189 (38.3)	6 (1.2)	182.7 (40.3)	0.3
공동생활가정	103	7 (6.8)	51 (49.5)	42 (40.8)	3 (2.9)	178.1 (49.4)	
대리 가정위탁	159	4 (2.5)	96 (60.4)	59 (37.1)	0 (.0)	183.3 (43.2)	
친인척 가정위탁	250	3 (1.2)	152 (60.8)	93 (37.2)	2 (.8)	182.6 (35.5)	
일반 가정위탁	169	3 (1.8)	101 (59.8)	65 (38.5)	0 (.0)	181.8 (39.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608	11 (1.8)	360 (59.2)	230 (37.8)	7 (1.2)	182.6 (40.0)	0.3
연장종료	567	19 (3.4)	326 (57.5)	218 (38.4)	4 (.7)	181.8 (41.1)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175	30 (2.6)	686 (58.4)	448 (38.1)	11 (.9)	182.2 (40.5)	
보호종료연차	1년차	296	11 (3.7)	187 (63.2)	97 (32.8)	1 (3)	181.0 (38.2)
	2년차	325	10 (3.1)	200 (61.5)	112 (34.5)	3 (.9)	177.0 (41.5)
	3년차	302	5 (1.7)	179 (59.3)	113 (37.4)	5 (1.7)	181.0 (39.4)
	4년차	134	1 (.7)	75 (56.0)	56 (41.8)	2 (1.5)	185.9 (39.6)
	5년차	118	3 (2.5)	45 (38.1)	70 (59.3)	0 (.0)	199.0 (43.1)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923	26 (2.8)	566 (61.3)	322 (34.9)	9 (1.0)	179.6 (39.8)
	비해당 (자립 4~5년차)	252	4 (1.6)	120 (47.6)	126 (50.0)	2 (.8)	192.0 (41.7)

주.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5. 실업률 관련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구직 경험이나 실업의 실태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해보았다’라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646명(36.6%)이며 ‘구해보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1,117명(63.4%)로 나타나 최근 구직 경험이 없는 보호종료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 노력을 더욱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경우 2-3년제 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 보호종료아동보다 구직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가진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비해 최근의 구직 노력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구직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경험

구분		사례수	구해보았음		구해보지 않았음		χ ²
전체		1,763	646	(36.6)	1,117	(63.4)	
성별	남	818	319	(39.0)	499	(61.0)	3.6
	여	945	327	(34.6)	618	(65.4)	
연령	만 18~19세	416	121	(29.1)	295	(70.9)	19.5***
	만 20~21세	774	281	(36.3)	493	(63.7)	
	만 22~23세	378	157	(41.5)	221	(58.5)	
	만 24세 이상	195	87	(44.6)	108	(55.4)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구해보았음		구해보지 않았음		χ ²	
전체		1,763	646	(36.6)	1,117	(63.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75	275	(47.8)	300	(52.2)	50.0***	
	2~3년제 대학교	416	114	(27.4)	302	(72.6)		
	4년제 대학교 이상	772	257	(33.3)	515	(66.7)		
부모 유무	있음	850	304	(35.8)	546	(64.2)	2.3	
	없음	696	269	(38.6)	427	(61.4)		
	모름	217	73	(33.6)	144	(66.4)		
장애유무	있음	60	27	(45.0)	33	(55.0)	1.9	
	없음	1,703	619	(36.3)	1,084	(63.7)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100	65	(65.0)	35	(35.0)	59.4***	
	지역가입	273	130	(47.6)	143	(52.4)		
	의료급여	1,390	451	(32.4)	939	(67.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871	285	(32.7)	586	(67.3)	21.7***	
	공동생활가정	209	65	(31.1)	144	(68.9)		
	가정위탁	683	296	(43.3)	387	(56.7)		
	가정 위탁	대리	210	81	(38.6)	129	(61.4)	2.8
		친인척	277	126	(45.5)	151	(54.5)	
		일반	196	89	(45.4)	107	(54.6)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871	285	(32.7)	586	(67.3)	24.7***	
	공동생활가정	209	65	(31.1)	144	(68.9)		
	대리 가정위탁	210	81	(38.6)	129	(61.4)		
	친인척 가정위탁	277	126	(45.5)	151	(54.5)		
	일반 가정위탁	196	89	(45.4)	107	(54.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070	381	(35.6)	689	(64.4)	1.3	
	연장종료	693	265	(38.2)	428	(61.8)		
보호종료 연차	1년차	528	186	(35.2)	342	(64.8)	8.7	
	2년차	548	182	(33.2)	366	(66.8)		
	3년차	463	186	(40.2)	277	(59.8)		
	4년차	126	48	(38.1)	78	(61.9)		
	5년차	98	44	(44.9)	54	(55.1)		
자립수당대 상	해당 (자립 1~3년차)	1,539	554	(36.0)	985	(64.0)	2.2	
	비해당 (자립 4~5년차)	224	92	(41.1)	132	(58.9)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보호종료아동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학’(343명, 30.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85명, 16.6%),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15명, 10.3%), ‘취업준비 중’(99명, 8.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74명, 6.6%),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62명, 5.6%),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52명, 4.7%), ‘심신장애’(44명, 3.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28명, 2.5%), ‘육아’(26명, 2.3%), 그리고 ‘가사’(3명,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나 본인이 가진 기술이나 교육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주변에 일자리가 없다거나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3〉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	가사	심신장애	통학	기타 (취업/직업 훈련 및 자격증 준비 중)	기타 (그 외)	χ^2
전체	1,117	115 (10.3)	52 (4.7)	62 (5.6)	185 (16.6)	28 (2.5)	74 (6.6)	26 (2.3)	3 (0.3)	44 (3.9)	343 (30.7)	99 (8.9)	86 (7.7)	
성별	남	499	52 (10.4)	26 (5.2)	37 (7.4)	90 (18.0)	10 (2.0)	26 (5.2)	5 (1.0)	0 (0.0)	20 (4.0)	153 (30.7)	32 (6.4)	30.7***
	여	618	63 (10.2)	26 (4.2)	25 (4.0)	95 (15.4)	18 (2.9)	48 (7.8)	21 (3.4)	3 (0.5)	24 (3.9)	190 (30.7)	67 (10.8)	
연령	만 18~19세	295	26 (8.8)	8 (2.7)	16 (5.4)	40 (13.6)	19 (6.4)	18 (6.1)	6 (2.0)	2 (0.7)	8 (2.7)	111 (37.6)	17 (5.8)	121.2***
	만 20~21세	493	48 (9.7)	21 (4.3)	34 (6.9)	81 (16.4)	6 (1.2)	36 (7.3)	5 (1.0)	1 (0.2)	18 (3.7)	168 (34.1)	34 (6.9)	
	만 22~23세	221	27 (12.2)	18 (8.1)	10 (4.5)	40 (18.1)	1 (0.5)	14 (6.3)	8 (3.6)	0 (0.0)	12 (5.4)	55 (24.9)	24 (10.9)	
	만 24세 이상	108	14 (13.0)	5 (4.6)	2 (1.9)	24 (22.2)	2 (1.9)	6 (5.6)	7 (6.5)	0 (0.0)	6 (5.6)	9 (8.3)	24 (22.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00	35 (11.7)	17 (5.7)	27 (9.0)	59 (19.7)	14 (4.7)	22 (7.3)	12 (4.0)	2 (0.7)	27 (9.0)	25 (8.3)	36 (12.0)	182.8***
	2~3년제 대학교	302	24 (7.9)	7 (2.3)	18 (6.0)	46 (15.2)	9 (3.0)	16 (5.3)	5 (1.7)	1 (0.3)	4 (1.3)	149 (49.3)	10 (3.3)	
	4년제 대학교 이상	515	56 (10.9)	28 (5.4)	17 (3.3)	80 (15.5)	5 (1.0)	36 (7.0)	9 (1.7)	0 (0.0)	13 (2.5)	169 (32.8)	65 (12.6)	
부모 유무	있음	546	57 (10.4)	21 (3.8)	29 (5.3)	91 (16.7)	9 (1.6)	37 (6.8)	19 (3.5)	0 (0.0)	21 (3.8)	170 (31.1)	52 (9.5)	24.8
	없음	427	41 (9.6)	23 (5.4)	26 (6.1)	63 (14.8)	14 (3.3)	27 (6.3)	7 (1.6)	3 (0.7)	17 (4.0)	133 (31.1)	40 (9.4)	
	모름	144	17 (11.8)	8 (5.6)	7 (4.9)	31 (21.5)	5 (3.5)	10 (6.9)	0 (0.0)	0 (0.0)	6 (4.2)	40 (27.8)	7 (4.9)	
장애 유무	있음	33	4 (12.1)	1 (3.0)	3 (9.1)	5 (15.2)	2 (6.1)	2 (6.1)	0 (0.0)	0 (0.0)	8 (24.2)	5 (15.2)	2 (6.1)	43.3***
	없음	1,084	111 (10.2)	51 (4.7)	59 (5.4)	180 (16.6)	26 (2.4)	72 (6.6)	26 (2.4)	3 (0.3)	36 (3.3)	338 (31.2)	97 (8.9)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35	7 (20.0)	0 (0.0)	2 (5.7)	3 (8.6)	0 (0.0)	3 (8.6)	0 (0.0)	0 (0.0)	1 (2.9)	10 (28.6)	2 (5.7)	81.6***
	지역가입	143	15 (10.5)	10 (7.0)	7 (4.9)	21 (14.7)	1 (0.7)	11 (7.7)	14 (9.8)	0 (0.0)	7 (4.9)	22 (15.4)	22 (15.4)	
	의료급여	939	93 (9.9)	42 (4.5)	53 (5.6)	161 (17.1)	27 (2.9)	60 (6.4)	12 (1.3)	3 (0.3)	36 (3.8)	311 (33.1)	75 (8.0)	

34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	가사	심신장애	통학	기타 (취업/직업 훈련 및 자격증 준비 중)	기타 (그 외)	x ²		
전체	1,117	115 (10.3)	52 (4.7)	62 (5.6)	185 (16.6)	28 (2.5)	74 (6.6)	26 (2.3)	3 (0.3)	44 (3.9)	343 (30.7)	99 (8.9)	86 (7.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86	62 (10.6)	27 (4.6)	27 (4.6)	89 (15.2)	17 (2.9)	35 (6.0)	14 (2.4)	2 (0.3)	13 (2.2)	223 (38.1)	39 (6.7)	38 (6.5)	68.5***	
	공동생활가정	144	12 (8.3)	5 (3.5)	9 (6.3)	20 (13.9)	5 (3.5)	13 (9.0)	1 (0.7)	0 (0.0)	6 (4.2)	51 (35.4)	13 (9.0)	9 (6.3)		
	가정위탁	387	41 (10.6)	20 (5.2)	26 (6.7)	76 (19.6)	6 (1.6)	26 (6.7)	11 (2.8)	1 (0.3)	25 (6.5)	69 (17.8)	47 (12.1)	39 (10.1)		
	가정 위탁	대리	129	11 (8.5)	5 (3.9)	9 (7.0)	20 (15.5)	2 (1.6)	7 (5.4)	4 (3.1)	1 (0.8)	10 (7.8)	25 (19.4)	16 (12.4)	19 (14.7)	21.2
		친인척 일반	151 107	14 (9.3) 16 (15.0)	12 (7.9) 3 (2.8)	8 (5.3) 9 (8.4)	36 (23.8) 20 (18.7)	2 (1.3) 2 (1.9)	10 (6.6) 9 (8.4)	2 (1.3) 5 (4.7)	0 (0.0) 0 (0.0)	10 (6.6) 5 (4.7)	28 (18.5) 16 (15.0)	18 (11.9) 13 (12.1)	11 (7.3) 9 (8.4)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586	62 (10.6)	27 (4.6)	27 (4.6)	89 (15.2)	17 (2.9)	35 (6.0)	14 (2.4)	2 (0.3)	13 (2.2)	223 (38.1)	39 (6.7)	38 (6.5)	92.9***	
	공동생활가정	144	12 (8.3)	5 (3.5)	9 (6.3)	20 (13.9)	5 (3.5)	13 (9.0)	1 (0.7)	0 (0.0)	6 (4.2)	51 (35.4)	13 (9.0)	9 (6.3)		
	대리 가정위탁	129	11 (8.5)	5 (3.9)	9 (7.0)	20 (15.5)	2 (1.6)	7 (5.4)	4 (3.1)	1 (0.8)	10 (7.8)	25 (19.4)	16 (12.4)	19 (14.7)		
	친인척 가정위탁	151	14 (9.3)	12 (7.9)	8 (5.3)	36 (23.8)	2 (1.3)	10 (6.6)	2 (1.3)	0 (0.0)	10 (6.6)	28 (18.5)	18 (11.9)	11 (7.3)		
	일반 가정위탁	107	16 (15.0)	3 (2.8)	9 (8.4)	20 (18.7)	2 (1.9)	9 (8.4)	5 (4.7)	0 (0.0)	5 (4.7)	16 (15.0)	13 (12.1)	9 (8.4)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689	68 (9.9)	31 (4.5)	39 (5.7)	106 (15.4)	24 (3.5)	45 (6.5)	15 (2.2)	3 (0.4)	23 (3.3)	236 (34.3)	45 (6.5)	54 (7.8)	30.9***	
	연장종료	428	47 (11.0)	21 (4.9)	23 (5.4)	79 (18.5)	4 (0.9)	29 (6.8)	11 (2.6)	0 (0.0)	21 (4.9)	107 (25.0)	54 (12.6)	32 (7.5)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342	34 (9.9)	6 (1.8)	14 (4.1)	59 (17.3)	13 (3.8)	20 (5.8)	6 (1.8)	2 (0.6)	10 (2.9)	120 (35.1)	27 (7.9)	31 (9.1)	82.2***	
	2년차	366	44 (12.0)	17 (4.6)	26 (7.1)	65 (17.8)	9 (2.5)	27 (7.4)	6 (1.6)	1 (0.3)	20 (5.5)	103 (28.1)	26 (7.1)	22 (6.0)		
	3년차	277	26 (9.4)	20 (7.2)	17 (6.1)	41 (14.8)	1 (0.4)	19 (6.9)	5 (1.8)	0 (0.0)	8 (2.9)	88 (31.8)	28 (10.1)	24 (8.7)		
	4년차	78	7 (9.0)	1 (1.3)	2 (2.6)	15 (19.2)	2 (2.6)	4 (5.1)	5 (6.4)	0 (0.0)	5 (6.4)	17 (21.8)	14 (17.9)	6 (7.7)		
	5년차	54	4 (7.4)	8 (14.8)	3 (5.6)	5 (9.3)	3 (5.6)	4 (7.4)	4 (7.4)	0 (0.0)	1 (1.9)	15 (27.8)	4 (7.4)	3 (5.6)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985	104 (10.6)	43 (4.4)	57 (5.8)	165 (16.8)	23 (2.3)	66 (6.7)	17 (1.7)	3 (0.3)	38 (3.9)	311 (31.6)	81 (8.2)	77 (7.8)	23.7**	
	비해당 (자립 4~5년차)	132	11 (8.3)	9 (6.8)	5 (3.8)	20 (15.2)	5 (3.8)	8 (6.1)	9 (6.8)	0 (0.0)	6 (4.5)	32 (24.2)	18 (13.6)	9 (6.8)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장애,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사유를 '㉠ 심신장애', 재학중인 학교 등의 사유를 '㉡ 통학'에 포함하고 현재 군 복무중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보호종료아동 중 당장(지난주) 직장이 주어졌다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즉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1,012명(57.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교육수준과 건강보험 종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2-3년제 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경우보다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가진 아동의 경우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아동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4〉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x ²	
전체		1,763	1,012	(57.4)	751	(42.6)		
성별	남	818	489	(59.8)	329	(40.2)	3.5	
	여	945	523	(55.3)	422	(44.7)		
연령	만 18~19세	416	232	(55.8)	184	(44.2)	5	
	만 20~21세	774	430	(55.6)	344	(44.4)		
	만 22~23세	378	228	(60.3)	150	(39.7)		
	만 24세 이상	195	122	(62.6)	73	(37.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75	385	(67.0)	190	(33.0)	34.2***	
	2-3년제 대학교	416	207	(49.8)	209	(50.2)		
	4년제 대학교 이상	772	420	(54.4)	352	(45.6)		
부모 유무	있음	850	500	(58.8)	350	(41.2)	1.4	
	없음	696	392	(56.3)	304	(43.7)		
	모름	217	120	(55.3)	97	(44.7)		
장애유무	있음	60	39	(65.0)	21	(35.0)	1.5	
	없음	1,703	973	(57.1)	730	(42.9)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100	79	(79.0)	21	(21.0)	23.7***	
	지역가입	273	167	(61.2)	106	(38.8)		
	의료급여	1,390	766	(55.1)	624	(44.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871	489	(56.1)	382	(43.9)	3
	공동생활가정		209	114	(54.5)	95	(45.5)	
	가정위탁		683	409	(59.9)	274	(40.1)	
	가정 위탁	대리	210	124	(59.0)	86	(41.0)	0.2
		친인척	277	165	(59.6)	112	(40.4)	
일반		196	120	(61.2)	76	(38.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871	489	(56.1)	382	(43.9)	3.2
	공동생활가정		209	114	(54.5)	95	(45.5)	
	대리 가정위탁		210	124	(59.0)	86	(41.0)	
	친인척 가정위탁		277	165	(59.6)	112	(40.4)	
	일반 가정위탁		196	120	(61.2)	76	(38.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070	608	(56.8)	462	(43.2)	0.4
	연장종료		693	404	(58.3)	289	(41.7)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χ^2
전체	1,763	1,012 (57.4)	751 (42.6)	
보호종료 연차	1년차	528	301 (57.0)	227 (43.0)
	2년차	548	308 (56.2)	240 (43.8)
	3년차	463	271 (58.5)	192 (41.5)
	4년차	126	67 (53.2)	59 (46.8)
	5년차	98	65 (66.3)	33 (33.7)
자립수당대 상	해당 (자립 1~3년차)	1,539	880 (57.2)	659 (42.8)
	비해당 (자립 4~5년차)	224	132 (58.9)	92 (41.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을 분석해보면 1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에 근로 및 취업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현재 실업상태인 505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난 결과이다. 남녀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1.4%p 높았고,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졌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률이 가장 낮은 반면, 친인척 대리위탁 경험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표 10-25〉 실업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A)	취업자	미취업자	미취업자 중 지난 4주내 구직경험 있고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B)	실업률 (B/A)
전체	3,104	1,286	1,763	505	(16.3)
성별	남	1,461	588	818	249 (17.0)
	여	1,643	698	945	256 (15.6)
연령	만 18~19세	600	174	416	97 (16.2)
	만 20~21세	1,289	482	774	214 (16.6)
	만 22~23세	778	388	378	123 (15.8)
	만 24세 이상	437	242	195	71 (16.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552	575	217 (18.8)
	2~3년제 대학교	524	101	416	85 (16.2)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633	772	203 (14.2)
부모 유무	있음	1,512	633	850	246 (16.3)
	없음	1,198	481	696	205 (17.1)
	모름	394	172	217	54 (13.7)
장애 유무	있음	132	72	60	21 (15.9)
	없음	2,972	1,214	1,703	484 (16.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855	100	59 (6.1)
	지역가입	374	90	273	99 (26.5)
	의료급여	1,770	341	1,390	347 (19.6)

구분			전체 (A)	취업자	미취업자	미취업자 중 지난 4주내 구직경험 있고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B)	실업률 (B/A)
전체			3,104	1,286	1,763	505	(16.3)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43	871	230	(16.2)
	공동생활가정		332	118	209	48	(14.5)
	가정위탁		1,355	625	683	227	(16.8)
	가정 위탁	대리	403	174	210	61	(15.1)
		친인척	564	267	277	101	(17.9)
일반		388	184	196	65	(16.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543	871	230	(16.2)
	공동생활가정		332	118	209	48	(14.5)
	대리 가정위탁		403	174	210	61	(15.1)
	친인척 가정위탁		564	267	277	101	(17.9)
	일반 가정위탁		388	184	196	65	(16.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672	1070	297	(16.7)
	연장종료		1,330	614	693	208	(15.6)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331	528	150	(17.1)
	2년차		921	356	548	133	(14.4)
	3년차		805	330	463	146	(18.1)
	4년차		280	145	126	38	(13.6)
	5년차		223	124	98	38	(17.0)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1017	1539	429	(16.5)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269	224	76	(15.1)

6. 소득, 생활비, 부채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소득, 생활비 및 부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응답은 ‘100만원 미만’(1,198명, 42.7%),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1,001명, 35.7%),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536명, 19.1%), ‘300만원 이상’(68명,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이 20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소득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월소득액이 차이가 있었다. 남자 아동의 경우, 월 평균 130.5만원인데 비해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이보다 6.4만원 적은 월평균 124.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2-3년제 대학교 수준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지역가입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아동의 경우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종료아동이 만기퇴소 아동보다 월평균 소득이 약 9.2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종료 연차가 길수록 월평균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6〉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803	1,198 (42.7)	1,001 (35.7)	536 (19.1)	68 (2.4)	127.0 (72.2)		
성별	남	1,283	537 (41.9)	426 (33.2)	277 (21.6)	43 (3.4)	130.5 (75.3)	2.3*	
	여	1,520	661 (43.5)	575 (37.8)	259 (17.0)	25 (1.6)	124.1 (69.3)		
연령	만 18~19세	535	305 (57.0)	159 (29.7)	63 (11.8)	8 (1.5)	108.4 (65.8)	46.5***	
	만 20~21세	1,160	544 (46.9)	424 (36.6)	174 (15.0)	18 (1.6)	117.8 (67.5)		
	만 22~23세	709	233 (32.9)	274 (38.6)	177 (25.0)	25 (3.5)	142.4 (73.4)		
	만 24세 이상	399	116 (29.1)	144 (36.1)	122 (30.6)	17 (4.3)	151.5 (79.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041	381 (36.6)	416 (40.0)	218 (20.9)	26 (2.5)	132.7 (73.3)	38.4***	
	2~3년제 대학교	461	280 (60.7)	136 (29.5)	40 (8.7)	5 (1.1)	100.5 (56.4)		
	4년제 대학교 이상	1,301	537 (41.3)	449 (34.5)	278 (21.4)	37 (2.8)	131.9 (74.2)		
부모 유무	있음	1,374	596 (43.4)	466 (33.9)	279 (20.3)	33 (2.4)	126.9 (74.0)	0.5	
	없음	1,072	457 (42.6)	401 (37.4)	190 (17.7)	24 (2.2)	126.2 (69.3)		
	모름	357	145 (40.6)	134 (37.5)	67 (18.8)	11 (3.1)	130.4 (73.4)		
장애 유무	있음	115	49 (42.6)	50 (43.5)	11 (9.6)	5 (4.3)	119.3 (74.7)	-1.2	
	없음	2,688	1,149 (42.7)	951 (35.4)	525 (19.5)	63 (2.3)	127.4 (72.0)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42	77 (8.2)	436 (46.3)	393 (41.7)	36 (3.8)	182.5 (60.4)	650.4***	
	지역가입	331	136 (41.1)	130 (39.3)	54 (16.3)	11 (3.3)	124.7 (76.0)		
	의료급여	1,530	985 (64.4)	435 (28.4)	89 (5.8)	21 (1.4)	93.4 (55.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292	594 (46.0)	447 (34.6)	217 (16.8)	34 (2.6)	125.0 (70.8)	3.2*
	공동생활가정		299	144 (48.2)	98 (32.8)	48 (16.1)	9 (3.0)	121.0 (68.4)	
	가정위탁		1,212	460 (38.0)	456 (37.6)	271 (22.4)	25 (2.1)	130.8 (74.4)	
	가정 위탁	대리	358	147 (41.1)	128 (35.8)	76 (21.2)	7 (2.0)	127.8 (76.1)	0.4
		친인척	509	189 (37.1)	196 (38.5)	113 (22.2)	11 (2.2)	132.0 (74.2)	
		일반	345	124 (35.9)	132 (38.3)	82 (23.8)	7 (2.0)	132.0 (72.8)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292	594 (46.0)	447 (34.6)	217 (16.8)	34 (2.6)	125.0 (70.8)	1.8
	공동생활가정		299	144 (48.2)	98 (32.8)	48 (16.1)	9 (3.0)	121.0 (68.4)	
	대리 가정위탁		358	147 (41.1)	128 (35.8)	76 (21.2)	7 (2.0)	127.8 (76.1)	
	친인척 가정위탁		509	189 (37.1)	196 (38.5)	113 (22.2)	11 (2.2)	132.0 (74.2)	
	일반 가정위탁		345	124 (35.9)	132 (38.3)	82 (23.8)	7 (2.0)	132.0 (72.8)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588	716 (45.1)	564 (35.5)	276 (17.4)	32 (2.0)	123.1 (70.3)	-3.4***
	연장종료		1,215	482 (39.7)	437 (36.0)	260 (21.4)	36 (3.0)	132.3 (74.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774	368 (47.5)	270 (34.9)	123 (15.9)	13 (1.7)	119.2 (68.2)	18.0***
	2년차		834	398 (47.7)	275 (33.0)	145 (17.4)	16 (1.9)	120.3 (71.1)	
	3년차		731	291 (39.8)	281 (38.4)	140 (19.2)	19 (2.6)	128.9 (71.4)	
	4년차		260	89 (34.2)	103 (39.6)	58 (22.3)	10 (3.8)	140.5 (75.8)	
	5년차		204	52 (25.5)	72 (35.3)	70 (34.3)	10 (4.9)	160.7 (76.9)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803	1,198 (42.7)	1,001 (35.7)	536 (19.1)	68 (2.4)	127.0 (72.2)	
자립수당 대상							-7.4***
해당 (자립 1~3년차)	2,339	1,057 (45.2)	826 (35.3)	408 (17.4)	48 (2.1)	122.6 (70.4)	
비해당 (자립 4~5년차)	464	141 (30.4)	175 (37.7)	128 (27.6)	20 (4.3)	149.4 (76.9)	

주: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51만원에서 100만원 미만'(1333명, 45.9%), '101만원 이상'(1006명, 34.7%), '50만원 이하'(563명,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아동의 월평균 생활비는 79.6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평균 생활비가 남자보다 약 8만원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에 비해 생활비가 평균 12.4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월평균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가 직장가입을 경우 지역가입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가입에 비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비해서 생활비 수준이 높았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자립수당 비해당자인 경우에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7〉 월평균 생활비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02	563 (19.4)	1,333 (45.9)	1,006 (34.7)	79.6 (42.0)	
성별						-4.9***
남	1,345	296 (22.0)	632 (47.0)	417 (31.0)	75.5 (40.5)	
여	1,557	267 (17.1)	701 (45.0)	589 (37.8)	83.1 (43.0)	
연령						16.7***
만 18~19세	563	142 (25.2)	285 (50.6)	136 (24.2)	69.7 (35.0)	
만 20~21세	1,194	231 (19.3)	570 (47.7)	393 (32.9)	79.3 (42.5)	
만 22~23세	738	124 (16.8)	315 (42.7)	299 (40.5)	84.3 (44.0)	
만 24세 이상	407	66 (16.2)	163 (40.0)	178 (43.7)	85.7 (43.2)	
교육 수준						6.0**
고등학교 이하	1,057	229 (21.7)	446 (42.2)	382 (36.1)	79.1 (43.7)	
2~3년제 대학교	491	93 (18.9)	277 (56.4)	121 (24.6)	74.3 (37.3)	
4년제 대학교 이상	1,354	241 (17.8)	610 (45.1)	503 (37.1)	81.9 (42.1)	
부모 유무						3.1*
있음	1,415	292 (20.6)	654 (46.2)	469 (33.1)	77.7 (41.3)	
없음	1,124	194 (17.3)	521 (46.4)	409 (36.4)	81.9 (42.0)	
모름	363	77 (21.2)	158 (43.5)	128 (35.3)	80.2 (44.4)	
장애 유무						-3.1**
있음	116	39 (33.6)	53 (45.7)	24 (20.7)	67.7 (45.2)	
없음	2,786	524 (18.8)	1,280 (45.9)	982 (35.2)	80.1 (41.8)	

구분		사례수	50만원 이하		51~ 100만원		101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02	563	(19.4)	1,333	(45.9)	1,006	(34.7)	79.6	(42.0)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06	101	(11.1)	303	(33.4)	502	(55.4)	97.0	(46.4)	135.9*** *	
	지역가입	350	66	(18.9)	155	(44.3)	129	(36.9)	81.4	(42.7)		
	의료급여	1,646	396	(24.1)	875	(53.2)	375	(22.8)	69.7	(35.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319	228	(17.3)	674	(51.1)	417	(31.6)	78.4	(39.4)	2.4
	공동생활가정		313	60	(19.2)	160	(51.1)	93	(29.7)	77.0	(38.8)	
	가정위탁		1,270	275	(21.7)	499	(39.3)	496	(39.1)	81.5	(45.2)	
	가정 위탁	대리	379	85	(22.4)	143	(37.7)	151	(39.8)	81.7	(45.1)	0.5
		친인척	528	102	(19.3)	211	(40.0)	215	(40.7)	82.7	(43.3)	
		일반	363	88	(24.2)	145	(39.9)	130	(35.8)	79.6	(47.9)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319	228	(17.3)	674	(51.1)	417	(31.6)	78.4	(39.4)	1.5
	공동생활가정		313	60	(19.2)	160	(51.1)	93	(29.7)	77.0	(38.8)	
	대리 가정위탁		379	85	(22.4)	143	(37.7)	151	(39.8)	81.7	(45.1)	
	친인척 가정위탁		528	102	(19.3)	211	(40.0)	215	(40.7)	82.7	(43.3)	
	일반 가정위탁		363	88	(24.2)	145	(39.9)	130	(35.8)	79.6	(47.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647	324	(19.7)	768	(46.6)	555	(33.7)	79.1	(41.7)	-0.8
	연장종료		1,255	239	(19.0)	565	(45.0)	451	(35.9)	80.3	(42.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21	202	(24.6)	386	(47.0)	233	(28.4)	72.3	(37.4)	12.6***
	2년차		862	160	(18.6)	424	(49.2)	278	(32.3)	79.3	(42.7)	
	3년차		753	121	(16.1)	351	(46.6)	281	(37.3)	82.9	(42.6)	
	4년차		258	52	(20.2)	95	(36.8)	111	(43.0)	84.9	(45.1)	
	5년차		208	28	(13.5)	77	(37.0)	103	(49.5)	91.2	(45.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436	483	(19.8)	1,161	(47.7)	792	(32.5)	78.1	(41.2)	-4.6***
	비해당 (자립 4~5년차)		466	80	(17.2)	172	(36.9)	214	(45.9)	87.7	(45.3)	

주: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보호종료아동 중 ‘부채가 있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745명(24.3%)로 그리고 ‘부채가 없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2350명(75.7%)로 각각 나타나 보호종료아동 4명 중 1명 정도가 현재 부채가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605.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나 2~3년제 대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아동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이나 생활비 관련 대출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대상아동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아동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부채 비율이 시설보다 높았다. 연장종료아동의 경우가 만기퇴소 아동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교육비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립수당 비해당자인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8〉 부채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χ^2	
전체		3,104	754	(24.3)	2,350	(75.7)		
성별	남	1,461	359	(24.6)	1,102	(75.4)	0.1	
	여	1,643	395	(24.0)	1,248	(76.0)		
연령	만 18~19세	600	47	(7.8)	553	(92.2)	153.4***	
	만 20~21세	1,289	300	(23.3)	989	(76.7)		
	만 22~23세	778	240	(30.8)	538	(69.2)		
	만 24세 이상	437	167	(38.2)	270	(61.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54	(22.0)	900	(78.0)	24***	
	2~3년제 대학교	524	98	(18.7)	426	(81.3)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402	(28.2)	1,024	(71.8)		
부모 유무	있음	1,512	365	(24.1)	1,147	(75.9)	0.5	
	없음	1,198	298	(24.9)	900	(75.1)		
	모름	394	91	(23.1)	303	(76.9)		
장애유무	있음	132	30	(22.7)	102	(77.3)	0.2	
	없음	2,972	724	(24.4)	2,248	(75.6)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63	(27.4)	697	(72.6)	12.6**	
	지역가입	374	103	(27.5)	271	(72.5)		
	의료급여	1,770	388	(21.9)	1,382	(78.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88	(20.3)	1,129	(79.7)	29.4***	
	공동생활가정	332	73	(22.0)	259	(78.0)		
	가정위탁	1,355	393	(29.0)	962	(71.0)		
	가정 위탁	대리	403	108	(26.8)	295	(73.2)	3.1
		친인척 일반	564 388	178 107	(31.6) (27.6)	386 281	(68.4) (72.4)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1,417	288	(20.3)	1,129	(79.7)	32.2***	
	공동생활가정	332	73	(22.0)	259	(78.0)		
	대리 가정위탁	403	108	(26.8)	295	(73.2)		
	친인척 가정위탁	564	178	(31.6)	386	(68.4)		
	일반 가정위탁	388	107	(27.6)	281	(72.4)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387	(21.8)	1,387	(78.2)	13.8***	
	연장종료	1,330	367	(27.6)	963	(72.4)		
보호종료 연차	1년차	875	134	(15.3)	741	(84.7)	84.7***	
	2년차	921	203	(22.0)	718	(78.0)		
	3년차	805	244	(30.3)	561	(69.7)		
	4년차	280	96	(34.3)	184	(65.7)		
	5년차	223	77	(34.5)	146	(65.5)		
자립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581	(22.3)	2,020	(77.7)	33.3***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73	(34.4)	330	(65.6)		

부채액은 '300만원 이상'(489명, 72.9%),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90명, 13.4%),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54명, 8.0%), 그리고 '100만원 미만'(38명,

5.7%) 등의 순으로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금액이 많았으며, 부모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부채액이 더 컸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자립수당 비해당자에 속할수록 부채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9〉 부채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71	38 (5.7)	90 (13.4)	54 (8.0)	489 (72.9)	605.1 (536.7)	
성별	남	317	23 (7.3)	40 (12.6)	20 (6.3)	234 (73.8)	646.8 (569.1)	1.9
	여	354	15 (4.2)	50 (14.1)	34 (9.6)	255 (72.0)	568.2 (504.1)	
연령	만 18~19세	41	10 (24.4)	8 (19.5)	1 (2.4)	22 (53.7)	373.5 (416.7)	8.6***
	만 20~21세	274	17 (6.2)	37 (13.5)	29 (10.6)	191 (69.7)	532.9 (481.2)	
	만 22~23세	213	7 (3.3)	32 (15.0)	15 (7.0)	159 (74.6)	641.9 (561.9)	
	만 24세 이상	143	4 (2.8)	13 (9.1)	9 (6.3)	117 (81.8)	755.7 (586.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29	15 (6.6)	29 (12.7)	16 (7.0)	169 (73.8)	603.3 (526.0)	0.5
	2~3년제 대학교	84	10 (11.9)	9 (10.7)	5 (6.0)	60 (71.4)	555.9 (516.3)	
	4년제 대학교 이상	358	13 (3.6)	52 (14.5)	33 (9.2)	260 (72.6)	617.9 (548.7)	
부모 유무	있음	329	12 (3.6)	44 (13.4)	20 (6.1)	253 (76.9)	659.7 (552.6)	3.6*
	없음	264	23 (8.7)	33 (12.5)	26 (9.8)	182 (68.9)	543.9 (492.8)	
	모름	78	3 (3.8)	13 (16.7)	8 (10.3)	54 (69.2)	585.2 (591.4)	
장애 유무	있음	26	2 (7.7)	4 (15.4)	3 (11.5)	17 (65.4)	531.3 (483.7)	-0.7
	없음	645	36 (5.6)	86 (13.3)	51 (7.9)	472 (73.2)	608.0 (538.8)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217	9 (4.1)	25 (11.5)	17 (7.8)	166 (76.5)	707.1 (614.1)	11.1***
	지역가입	89	4 (4.5)	10 (11.2)	3 (3.4)	72 (80.9)	712.9 (585.3)	
	의료급여	365	25 (6.8)	55 (15.1)	34 (9.3)	251 (68.8)	517.4 (453.9)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63	17 (6.5)	44 (16.7)	19 (7.2)	183 (69.6)	586.5 (554.2)	0.3
	공동생활가정	65	6 (9.2)	6 (9.2)	3 (4.6)	50 (76.9)	603.6 (560.2)	
	가정위탁	343	15 (4.4)	40 (11.7)	32 (9.3)	256 (74.6)	619.8 (519.2)	
	가정 위탁	대리	90	3 (3.3)	9 (10.0)	8 (8.9)	70 (77.8)	0.2
		친인척	157	6 (3.8)	22 (14.0)	14 (8.9)	115 (73.2)	
		일반	96	6 (6.3)	9 (9.4)	10 (10.4)	71 (74.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63	17 (6.5)	44 (16.7)	19 (7.2)	183 (69.6)	586.5 (554.2)	0.2
	공동생활가정	65	6 (9.2)	6 (9.2)	3 (4.6)	50 (76.9)	603.6 (560.2)	
	대리 가정위탁	90	3 (3.3)	9 (10.0)	8 (8.9)	70 (77.8)	606.5 (523.2)	
	친인척 가정위탁	157	6 (3.8)	22 (14.0)	14 (8.9)	115 (73.2)	612.3 (488.8)	
	일반 가정위탁	96	6 (6.3)	9 (9.4)	10 (10.4)	71 (74.0)	644.8 (566.4)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347	26 (7.5)	49 (14.1)	29 (8.4)	243 (70.0)	576.5 (540.5)	-1.4
	연장종료	324	12 (3.7)	41 (12.7)	25 (7.7)	246 (75.9)	635.9 (531.6)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124	13 (10.5)	15 (12.1)	13 (10.5)	83 (66.9)	571.8 (530.1)	2.5*
	2년차	181	6 (3.3)	30 (16.6)	16 (8.8)	129 (71.3)	596.7 (533.7)	
	3년차	220	15 (6.8)	27 (12.3)	21 (9.5)	157 (71.4)	555.3 (511.7)	
	4년차	85	4 (4.7)	9 (10.6)	3 (3.5)	69 (81.2)	680.8 (542.1)	
	5년차	61	0 (.0)	9 (14.8)	1 (1.6)	51 (83.6)	769.9 (608.7)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71	38 (5.7)	90 (13.4)	54 (8.0)	489 (72.9)	605.1 (536.7)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525	34 (6.5)	72 (13.7)	50 (9.5)	369 (70.3)	573.5 (523.0)	-2.9**
	비해당 (자립 4~5년차)	146	4 (2.7)	18 (12.3)	4 (2.7)	120 (82.2)	717.6 (570.3)	

주: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부채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부채가 있는 보호종료아동 의 그 발생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461명, 66.2%), ‘학자금마련’(206명, 29.6%), ‘주거마련’(165명, 23.7%), ‘의료비 마련’(41명, 5.9%), ‘가족의 부채 또는 사기’(39명, 5.6%), ‘차량구입’(17명, 2.3%), ‘휴대폰 할부 및 미납’(14명,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이 부채(빚)를 지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로 생활비 마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마련이나 자신이 거주할 집(주거) 마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금금과 생활비 마련 비율이 높았으며, 살펴볼 수 있는 특이점으로는 먼저 직장가입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에는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마련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이나 의료급여 대상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주거 마련 및 학자금 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호종료인 경우 만기퇴소 보호종료아동보다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높았고,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주거 마련과 가족의 부채 또는 사기로 인한 부채율이 높았다. 그리고 자립수당 대상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많이 진데 반해 자립수당 비해당자는 상대적으로 주거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0〉 부채 발생 사유(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거 마련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의료비(병원비/치료비) 마련		기타 (가족의 부채 또는 사기)		기타 (그 외)		
전체		696	165	(23.7)	206	(29.6)	461	(66.2)	41	(5.9)	39	(5.6)	31	(4.5)	
성별	남	327	82	(25.1)	84	(25.7)	217	(66.4)	17	(5.2)	24	(7.3)	14	(4.3)	
	여	369	83	(22.5)	122	(33.1)	244	(66.1)	24	(6.5)	15	(4.1)	17	(4.6)	
연령	만 18~19세	45	13	(28.9)	7	(15.6)	29	(64.4)	4	(8.9)	6	(13.3)	1	(2.2)	
	만 20~21세	277	64	(23.1)	57	(20.6)	191	(69.0)	19	(6.9)	24	(8.7)	15	(5.4)	
	만 22~23세	222	52	(23.4)	77	(34.7)	139	(62.6)	14	(6.3)	6	(2.7)	8	(3.6)	
	만 24세 이상	152	36	(23.7)	65	(42.8)	102	(67.1)	4	(2.6)	3	(2.0)	7	(4.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31	68	(29.4)	8	(3.5)	157	(68.0)	18	(7.8)	28	(12.1)	16	(6.9)	
	2~3년제 대학교	94	18	(19.1)	32	(34.0)	63	(67.0)	7	(7.4)	2	(2.1)	4	(4.3)	
	4년제 대학교 이상	371	79	(21.3)	166	(44.7)	241	(65.0)	16	(4.3)	9	(2.4)	11	(3.0)	
부모유무	있음	335	85	(25.4)	110	(32.8)	219	(65.4)	21	(6.3)	16	(4.8)	18	(5.4)	
	없음	273	60	(22.0)	73	(26.7)	181	(66.3)	12	(4.4)	18	(6.6)	12	(4.4)	
	모름	88	20	(22.7)	23	(26.1)	61	(69.3)	8	(9.1)	5	(5.7)	1	(1.1)	
장애유무	있음	27	5	(18.5)	3	(11.1)	17	(63.0)	1	(3.7)	5	(18.5)	2	(7.4)	
	없음	669	160	(23.9)	203	(30.3)	444	(66.4)	40	(6.0)	34	(5.1)	29	(4.3)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235	66	(28.1)	58	(24.7)	143	(60.9)	14	(6.0)	10	(4.3)	16	(6.8)	
	지역가입	96	21	(21.9)	32	(33.3)	60	(62.5)	6	(6.3)	4	(4.2)	7	(7.3)	
	의료급여	365	78	(21.4)	116	(31.8)	258	(70.7)	21	(5.8)	25	(6.8)	8	(2.2)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62	47	(17.9)	72	(27.5)	175	(66.8)	15	(5.7)	19	(7.3)	14	(5.3)	
	공동생활가정	66	18	(27.3)	21	(31.8)	45	(68.2)	5	(7.6)	3	(4.5)	1	(1.5)	
	가정위탁	368	100	(27.2)	113	(30.7)	241	(65.5)	21	(5.7)	17	(4.6)	16	(4.3)	
	가정위탁	대리	100	25	(25.0)	35	(35.0)	63	(63.0)	5	(5.0)	8	(8.0)	2	(2.0)
		친인척	171	45	(26.3)	53	(31.0)	109	(63.7)	8	(4.7)	7	(4.1)	9	(5.3)
		일반	97	30	(30.9)	25	(25.8)	69	(71.1)	8	(8.2)	2	(2.1)	5	(5.2)
보호종료유형	만기퇴소	358	89	(24.9)	73	(20.4)	236	(65.9)	25	(7.0)	26	(7.3)	19	(5.3)	
	연장종료	338	76	(22.5)	133	(39.3)	225	(66.6)	16	(4.7)	13	(3.8)	12	(3.6)	

구분		사례수	주거 마련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의료비(병원비/치료비) 마련		기타 (가족의 부채 또는 사기)		기타 (그 외)	
전체		696	165	(23.7)	206	(29.6)	461	(66.2)	41	(5.9)	39	(5.6)	31	(4.5)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127	30	(23.6)	39	(30.7)	84	(66.1)	11	(8.7)	7	(5.5)	5	(3.9)
	2년차	188	33	(17.6)	64	(34.0)	132	(70.2)	11	(5.9)	9	(4.8)	5	(2.7)
	3년차	228	61	(26.8)	64	(28.1)	152	(66.7)	10	(4.4)	13	(5.7)	12	(5.3)
	4년차	85	22	(25.9)	18	(21.2)	54	(63.5)	7	(8.2)	5	(5.9)	6	(7.1)
	5년차	68	19	(27.9)	21	(30.9)	39	(57.4)	2	(2.9)	5	(7.4)	3	(4.4)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543	124	(22.8)	167	(30.8)	368	(67.8)	32	(5.9)	29	(5.3)	22	(4.1)
	비해당 (자립 4~5년차)	153	41	(26.8)	39	(25.5)	93	(60.8)	9	(5.9)	10	(6.5)	9	(5.9)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에는 응답 아동중 63.8%(467명)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87.4%(2,714명)가 각각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학교생활, 시설생활 등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덜하며 성인으로서 보다 사회적 선택의 폭이 제공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0-3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x ²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233.7***
예	467	63.8	2,714	87.4	
아니오	265	36.2	390	12.6	

아르바이트 경험의 이유 대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나 ‘학비를 벌려고’ 등에 있어서 보호종료예정아동에 경우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에는 ‘용돈이 필요해서’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자립생활이 일상적 현실감으로 보다 크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거나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비 등의 지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용돈을 벌기 위해서나 취업을 위한 경험 취득을 위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0-3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467	100.0	2,714	100.0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31	6.6	157	5.8
학비를 벌려고	19	4.1	208	7.7
용돈이 필요해서	328	70.2	1,740	64.1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28	6.0	359	13.2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9	4.1	81	3.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31	6.6	137	5.0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0	0.0	10	0.4
주위 친구들이 하나까	8	1.7	13	0.5
기타	3	0.6	9	0.3

2. 취업 관련 정부 지원 욕구

취업 관련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과 비교할 때 두 집단 모두 장려금 지원사업과 연수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3〉 희망 정부지원 취업준비 사업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158	21.6	555	17.9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51	7.0	257	8.3
해외취업/인턴사업	75	10.2	334	10.8
직업훈련사업	60	8.2	193	6.2
장려금지원사업	182	24.9	828	26.7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73	10.0	287	9.2
취업성공패키지	64	8.7	345	11.1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33	4.5	155	5.0
청년취업아카데미	27	3.7	96	3.1
기타	9	1.2	54	1.7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와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연구에서는 83.9%(239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020년 본 연구조사에는 63.8%(467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시된 결과만으로는 과거에 비해 현재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별로 보호아동에 대한 용돈 지원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표 10-34〉 아르바이트 경험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음	없음
2020	732	467 (63.8)	265 (36.2)
2012	285	239 (83.9)	46 (16.1)

주: 1) 2012년은 결측치 21명을 제외한 사례수 및 유효 퍼센트를 기입함.

2)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2)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연구에서는 56.6%(133명)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와 13.2%(31명)가 ‘학비를 벌려고’ 등이 높게 나타난데 반해, 2020년 본 연구조사에는 69.8%(326명)가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6.6%),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6.6%),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6.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에 비해 보호종료예정아동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본인 및 장래의 본인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0-35〉 아르바이트 이유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12년
사례수	467	235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31 (6.6)	133 (56.6)
학비를 벌려고	19 (4.1)	31 (13.2)
용돈이 필요해서	328 (70.2)	51 (21.7)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28 (6.0)	-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9 (4.1)	-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31 (6.6)	19 (8.1)
주위 친구들이 하나까	8 (1.7)	-
호기심으로	-	0 (0.0)
주위의 권유로	-	0 (0.0)
기타	3 (0.6)	1 (0.4)

- 주: 1) 2020년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항목은 2012년의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항목으로 조사됨.
 2) 2020년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항목은 2012년의 경우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항목으로 조사됨.
 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주위의 권유로' 항목을 포함하지 않음.
 4) 2012년의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 '주위 친구들이 하나까'와 2020년의 '호기심으로'는 조사항목이 아니며, 대시(-)로 표기됨.
 5) 2012년은 결측치 4명을 제외한 사례 수 및 유효 퍼센트를 기입함.
 6)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한 월 생활비에 대한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2)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연구에서는 평균 285만원으로 나타난데 비해 2020년 연구에서는 168.5만원으로 약 116만원이나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연구사례가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전세 보증금이나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항목이 2020년 조사연구에 비교해 대략적 비용범주에 대한 수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조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의 크기를 늘렸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조사한 평균 생활비 수준이 보다 현실적인 수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36〉 자립 이후 필요한 적정 월 생활비 - 시계열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평균
2020	168.5
2012	285

주: 1) 2012년은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주거비용(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포함한 수치임.

2) 2012년은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보호 아동(17세)과 연장 보호아동(18세 이상)을 모두 조사하였음.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희망하는 직업군에 응답결과를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의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관리직,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아동의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비율이 높은 것(정선욱 외, 2019)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37〉 희망직업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2-17세 응답)
관리직 종사자	9.8	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9	64.8
사무 종사자	8.3	14.4
서비스 종사자	16.7	15.3
판매 종사자	1.9	0.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2.0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9	1.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7	0.2
단순 노무 종사자	1.1	-
기타	2.5	1.3(균인)
없음	5.2	-

주: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없음은 조사항목이 아니며, 대시(-)로 표기됨.

자료: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33.7%인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진로활동 참여도를 일반 청소년(2019 진로교육 현황 조사, 한상근 외, 2019)과 비교해 보면, ‘진로심리검사 받기’나 ‘진로체험하기’, ‘진로상담받기’와 같은 모든 진로활동 참여수준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16.8%p에서 25%p정도 수준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진로활동 만족도 또한 모든 활동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8〉 진로활동 참여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진로심리검사 받기	진로체험하기	진로상담받기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44.7	37.7	40.3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응답)	69.7	61.2	57.1

주: 1)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참여 수치는 ‘예(참여해 봤다)’라고 응답한 고등학생 비율임.

2)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8,365명임.

자료: 2019 진로교육 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

〈표 10-39〉 진로활동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진로심리 검사받기	진로체험 하기	진로상담 받기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88	3.95	3.90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응답)	3.98	4.01	4.00

주: 1) 만족도는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비율임.

2)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6,623명임.

자료: 2019 진로교육 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

보호종료예정아동의 38.8%가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진로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일반 청소년(2019 진로교육 현황 조사, 한상근 외, 2019)과 진로체험 참여경험을 비교해 보면 모든 체험 활동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일반 청소년보다 낮았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점이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활동이나 체험 경험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10-40〉 진로체험 참여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응답)
직업인의 특강, 멘토링 (강연형, 대화형)	37.0	47.8
현장견학	22.8	37.8
직업 실무체험 (모의 직업체험)	11.5	26.3
현장 직업체험 (실제 직업체험)	16.8	26.2
학과체험	15.3	35.2
진로캠프	16.8	27.4

주: 1)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참여 수치는 '예(참여해 봤다)'라고 응답한 고등학생 비율임.

2)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8,365명임.

자료: 2019 진로교육 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

〈표 10-41〉 진로체험 만족도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평균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9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응답)	4.09

주: 1)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진로체험은 '도움 정도'로 조사되었음.

2) 1점~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비율임.

3)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수치(평균값)는 진로체험 관련 세부 6개 항목(직업인 특강·멘토링, 현장견학, 직업 실무체험(모의 직업체험), 현장 직업체험(실제 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점수의 산술 평균 수치임.

4) 2019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고등학생 분석대상자 수는 4,999명임.

자료: 2019 진로교육 현황조사(한상근 외, 2019)

2.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비교

가. 시계열 비교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와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연구에서는 88.3%, 2016년 연구에서는 76.6%, 그리고 2020년 연구에서는 87.4%가 각각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2012년과 2020년의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반해 2016년도 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2〉 아르바이트 경험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음	없음
2020	3,104	2,714 (87.4)	390 (12.6)
2016	692	530 (76.6)	162 (23.4)
2012	366	323 (88.3)	43 (11.7)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2)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연구에서는 63.4%(203명)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와 12.2%(39명)가 ‘학비를 벌려고’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연구에서는 77.4%(408명)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와 11.2%(59명)가 ‘용돈이 필요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20년 연구에서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63.5%(1,723명),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가 13.2%(358명)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이나 2016년 연구에 비해 2020년 연구에서는 보호종료예정 아동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본인 및 장래의 본인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0-43〉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6년	2020년
사례수	320	527	2,714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2016, 2016: 생활비 마련)	203 (63.4)	408 (77.4)	157 (5.8)
학비를 벌려고	39 (12.2)	28 (5.3)	208 (7.7)
용돈이 필요해서	47 (14.7)	59 (11.2)	1,740 (64.1)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	-	359 (13.2)

구분	2012년	2016년	2020년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	-	81 (3.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2012, 2016: 사회경험)	24 (7.5)	22 (4.2)	137 (5.0)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	-	13 (0.5)
주위의 권유로	2 (0.6)		10 (0.4)
호기심으로	3 (0.9)	2 (0.4)	-
기타	2 (0.6)	8 (1.5)	9 (0.3)

직장을 그만둔 경험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연구에서는 59.9%(715명)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데 비해, 2020년 연구에서는 51.2%(1,590명)가 그만둔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2020년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만 둔 횟수에 측면에서는 2020년 연구결과가 2016년 연구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어지는데 반해 그만둔 경우에는 그 횟수는 오히려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4〉 직장 그만둔 경험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2020	3,104	1,590 (51.2)	729 (23.5)	430 (13.9)	355 (11.4)
2016	1,194	715 (59.9)	213 (17.8)	141 (11.8)	128 (10.5)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연구에서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29.1%(138명),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가 20.5%(97명)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데 반해, 2020년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21.9%(331명), ‘계약만료’가 8.9%(134명),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가 12.1%(183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에 비해 2020년 연구결과에서 보호종료아동은 더 나은 보수보다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근로환경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0-45〉 직장 그만둔 주된 이유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0년
사례수	474	1,514
적성에 맞지 않아서	138 (29.1)	355 (23.4)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75 (15.8)	331 (21.9)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16 (3.4)	79 (5.2)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35 (7.4)	109 (7.2)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97 (20.5)	197 (13.0)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45 (9.5)	183 (12.1)
계약만료(계약기간 연장의 어려움)	23 (4.9)	134 (8.9)
기타	45 (9.5)	126 (8.3)

직장을 구직 시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2, 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20년 연구에서는 22.7%(706명)가 '취업/일자리 정보 부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꼽은 데 비해, 2012년에는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나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2016년 연구에서는 '직종 관련 경험 부족'이나 '학력, 기술, 자격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6〉 구직 시 어려움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2	2016년	2020년
사례수	149	1,193	3,104
취업/일자리 정보 부족	15 (10.1)	141 (11.8)	706 (22.7)
적성을 잘 모름	45 (30.2)	215 (18.0)	598 (19.3)
직종 관련 경험 부족	28 (18.8)	217 (18.2)	496 (16.0)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	9 (6.0)	119 (10.0)	244 (7.9)
학력, 기술, 자격 부족	31 (20.8)	288 (24.1)	604 (19.5)
보수가 낮음	3 (2.0)	87 (7.3)	233 (7.5)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1 (0.7)	21 (1.8)	57 (1.8)
아동복지시설 출신	7 (4.7)	-	-
기타	10 (6.7)	105 (8.8)	166 (5.3)

주: 2012년 조사에서 구직시 어려움은 당시 취업 준비 중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상태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08, 2012, 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연구에서 70.7%(370명), 2008년 연구에서 64.3%(1,103명), 2016년 연구에서 51.1%(618명), 그리고 2020년 연구에서 41.4%(1,28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조사된 연구일수록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상태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보호종료아동과 청년의 취업 및 고용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47〉 취업상태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미취업	취업
2020	3,104	1,763 (56.8)	1,286 (41.4)
2016	1,209	591 (48.9)	618 (51.1)
2012	523	153 (29.3)	370 (70.7)
2008	1,432	329 (35.7)	1,103 (64.3)

보호종료아동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과거 조사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8〉 현재 직업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0년
사례수	619	1,266
관리직 종사자	21 (3.4)	48 (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7 (17.3)	244 (19.3)
사무 종사자	79 (12.8)	199 (15.7)
서비스 종사자	155 (25.0)	328 (25.9)
판매 종사자	53 (8.6)	89 (7.0)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4 (0.6)	7 (0.6)

구분	2016년	2020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0 (6.5)	50 (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2 (14.9)	133 (10.5)
단순 노무 종사자	68 (11.0)	96 (7.6)
기타	-	73 (5.8)

보호종료아동의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연구에서는 88.9%(547명)이 임금근로자로 응답한데 비해, 2020년 연구에서는 94.4%(1,196명)이 임금근로자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9〉 일자리 형태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2020	1,266	1,196 (94.4)	71 (5.6)
2016	615	547 (88.9)	68 (11.1)

보호종료아동의 고용형태 및 고용기간에 대한 과거 조사연구(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연구에서는 72.7%(450명)이 정규직 비중으로 그리고 83.8%(434명)이 상용직 근로자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연구에서는 63.6%(761명)이 정규직 비중으로 그리고 74.7%(894명)이 상용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즉 2016년에 비해 2020년 연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고용형태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다소 악화되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50〉 임금근로자의 고용 현황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연도	고용형태			고용기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20	1,195	761 (63.6)	435 (36.4)	1,195	894 (74.7)	255 (21.3)	47 (3.9)
2016	615	450 (72.7)	169 (27.3)	518	434 (83.8)	68 (13.1)	16 (3.1)

주: 2016년 조사에서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를 조사함.

보호종료아동의 부채(빚)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과거 조사연구(2016)와 본 조사연구(2020)의 결과를 비교해 살펴 본 결과, 2016년 연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부채가 있는 아동의 비율은 13.5%로, 그리고 평균 부채액의 규모는 83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 마련, 의료비 마련, 학자금 마련, 그리고 주거비 마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20년 연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부채가 있는 아동의 비율은 24.3%이며, 그 평균 부채액은 60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채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 마련,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의료지 마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해 2020년 연구 결과는 부채비중은 늘었으나 부채액 규모는 감소하였고, 부채가 발생한 이유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데 비해 주거비 부담의 비중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51〉 부채 현황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연도	부채여부 (있음비율)	부채 있는 경우 부채액	부채 발생 사유 (중복선택)					
			주거마련	학자금마련	생활비마련	의료비마련	가족부채, 사기	기타(그 외)
2020	24.3%	605만원	165(23.7)	206(29.6)	461(66.2)	41 (5.9)	39(5.6)	31(4.5)
2016	13.5%	830만원	23(14.0)	35(21.3)	55(33.5)	54(32.9)	-	37(22.6)

나. 타 조사와의 비교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결과를 타 조사의 일반 청년과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87.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년(청년패널, 황관훈 외, 2019)은 30%에 불과해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반 청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52〉 아르바이트 경험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사례수	있음	없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3,104	87.4	12.6
청년패널2007 12차(2018) 조사	9,857	30.0	70.0

주: 청년패널2007의 12차(2018)조사에 포함된 패널 연령은 만 18세~40세임

자료: 청년패널2007 12차(2018)조사 기초분석 보고서(황관훈·이은혜·김진하, 2019)

아르바이트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 청년(청년패널, 황관훈 외, 2019)의 경우 ‘용돈이 필요해서가’ 82%로 대부분이었으나, 본 조사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용돈의 필요성 외에도,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와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53〉 아르바이트 이유 - 타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청년패널2007 12차(2018) 조사
사례수	2,714	9,857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5.8	1.3
학비를 벌려고	7.7	8.6
용돈이 필요해서	64.1	82.0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13.2	1.1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0	1.9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5.0	3.8
주위의 권유로	0.4	0.3
주위 친구들이 하나까	0.5	0.1
기타	0.3	0.8

주: 청년패널2007의 12차(2018)조사에 포함된 패널 연령은 만 18세~40세임

자료: 청년패널2007 12차(2018)조사 기초분석 보고서(황관훈·이은혜·김진하, 2019)

고용율과 실업률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결과를 일반 청년(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9)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본 조사의 보호종료아동은 고용율과 실업률이 각각 40.8%와 16.3%로 나타난데 비해, 일반 청년의 고용율은 43.5%, 실업률은 8.9%로 나타났다. 즉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54〉 고용율과 실업률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고용률	실업률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40.8	16.3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15-29세 대상)	43.5	8.9

주: 1)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으로 산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취업자수/응답자수×100’으로 산출.

- 2) 실업률: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 대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대비 비율로 산출.

자료: 통계청 청년고용동향(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에서 2020.12.15. 인출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응답 결과를 일반 청년(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0)과 비교해 본 조사의 보호종료아동은 '통학'을 30.7%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일반 청년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24.8%,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19.6%,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1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55〉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 타 조사 비교

(단위: %)

응답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3	10.8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7	24.8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6	10.2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6.6	15.6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2.5	4.0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6.6	19.6
육아	2.3	1.6
가사	0.3	3.7
통학	30.7	1.5
심신장애	3.9	0.4
기타	8.9	7.8

주: %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 중 비율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8월(근로형태별)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foData/detailData.do?nPage=003&statsConfmNo=101004>) 저자 분석.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직업군을 일반 청년(김기현 외, 2017)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일반 청년은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보호종료아동보다 많았고, 보호종료아동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조상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56〉 현재 직업 - 타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19-29세 응답)
사례수	1,267	2,714
관리직 종사자	3.8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3	11.1
사무 종사자	15.7	20.3
서비스 종사자	25.9	35.8
판매 종사자	7.0	19.8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6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	5.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5	1.9
단순 노무 종사자	7.6	3.4
기타	5.8	0.3

자료: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기초분석 보고서(김기현 외, 2017)

임금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36.4%, 그리고 고용기간에 따라서는 상용직 74.7%, 임시직 21.3%, 일용직 3.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 청년(청년패널조사, 황광훈 외, 2018)은 비정규직 비중이 29.6%, 그리고 상용직 88.1%, 임시직 10.1%, 일용직 1.8%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과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직종에서 보다 많이 고용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57〉 임금근로자의 고용 현황 - 타 조사 비교

(단위: %)

조사명	사례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196	36.4	74.7	21.3	3.9
청년패널2007 12차(2018) 조사	9,857	29.6	88.1	10.1	1.8

주: 비정규직 여부는 자기선언 기준에 의함

자료: 청년패널2007 12차(2018)조사 기초분석 보고서(황광훈·이은혜·김진하, 2019)

본 조사의 보호종료아동의 급여수준은 월 182.2만원으로 일반 청년(김기현 외, 2017)의 195.3만원보다 약 13.1만정도 낮았다. 일반 청년의 월 평균 급여액이 2017

년도 조사 결과임을 고려할 때, 보호종료아동의 급여수준이 일반 청년보다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58〉 현재 일자리의 세후 월급 - 타 조사 비교

(단위: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19-29세 응답)
182.2만원	195.3만원

주: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 응답하였고 세후 금액임.

2)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는 임금근로자만 응답하였고 세후 금액임.

자료: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기초분석 보고서(김기현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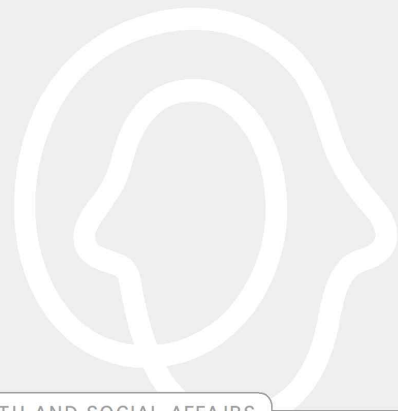
제5절 소결

본 절에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이유, 희망직업, 진로활동경험 경험 및 만족도, 진로체험 참여 및 만족도, 그리고 취업지원 사업과 자립후 예상 생활비 등 이들의 고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실태를 살펴 보았다. 우선 과거에 비해 현재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지자체별 보호아동 용돈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활동 참여 비율 및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응답한 ‘진로·심리검사 받기’나 ‘진로체험하기’, ‘진로상담받기’ 등 전반적인 진로활동 참여수준에서 모두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진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다양한 체험형 진로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직업군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이를 포함하여 관리직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이르기 까지 직업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학률이 높은 보호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호종료아동의 고용율과 실업률 모두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년인구에 비해 고용율은 2.7%가 낮으며 실업률은 오히려 7.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을 포기한 보호종료아동까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일자리의 질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반 청년인구에 비해 6.8%나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고용기간 역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급여는 또한 일반 청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종료아동이 구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급여 수준 역시도 열악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특화된 고용을 제고 방안과 함께 고용의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11 장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경험
-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 제4절 조사결과 비교
- 제5절 소결

제 11 장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제1절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경험

1.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59.8%가 자립준비 프로그램³⁵⁾ 8개 중에 최소 1개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 40%는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립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1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의 평균 점수가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으로 평균 4.1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11-1〉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있음	%	(단위: 명, %)	
전체 (732)	유	438	(59.8)	만족도	평균 점수
	무	294	(40.2)		
일상 생활기술		301	(41.1)	4.2	(0.7)
자기보호 프로그램		273	(37.3)	4.1	(0.7)
지역사회 자원 활용		192	(26.2)	4.2	(0.7)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299	(40.8)	4.2	(0.7)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226	(30.9)	4.2	(0.7)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		263	(35.9)	4.1	(0.7)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		138	(18.9)	4.2	(0.7)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		187	(25.5)	4.3	(0.7)

한편, 보호종료예정아동 10 중 4명 이상에 해당하는 40.2%는 자립준비프로그램 경

35)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의미함.

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 가운데 66.7%가 자립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이 12.7%, 아동양육시설이 2.3%의 순이었다.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 참여도가 시설 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리 위탁가정 아동이 72.2%로 자립지원프로그램 경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2〉 대리양육체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무경험 비율

구분		대리양육체계		(단위: 명, %)	
			n	%	
참여 경험 무		아동양육시설	256	6	(2.3)
		공동생활가정	55	7	(12.7)
		가정위탁	421	281	(66.7)
	가정 위탁	대리	180	130	(72.2)
		친인척	148	102	(68.9)
		일반	93	49	(52.7)

2.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 보면, 90%이상이 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최소 1개 이상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 다담씨 앳통장의 이용률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학금 49%, 용돈 지원 46.2%, 의료서비스 46.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25.7%), 자립생활 멘토링(21.2%), 자립체험관 이용(20.6%)와 같은 서비스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3〉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전체 (732)	유	668	(91.3)	4.4	(0.7)
	무	64	(8.7)		
디딤씨앗통장(CDA)		483	(66.0)	4.4	(0.6)
자립체험관		151	(20.6)	4.4	(0.6)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203	(27.7)	4.4	(0.7)
자립생활 멘토링 (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155	(21.2)	4.3	(0.7)
용돈 지원		338	(46.2)	4.4	(0.7)
장학금		359	(49.0)	4.5	(0.6)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		188	(25.7)	4.3	(0.7)
의료서비스		338	(46.2)	4.5	(0.6)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79	(24.5)	4.3	(0.7)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219	(29.9)	4.3	(0.7)
기타		11	(1.5)	3.9	(0.8)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그 금액을 모르고 있는 아동이 74.6%(35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 아동의 평균 저축액은 약 646.4(SD=447.8)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64명, 8.7%의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자립준비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이 6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리 위탁가정이 15.6%로 자립관련 서비스가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4〉 대리양육체별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무	아동양육시설		256	3	(1.2)
	공동생활가정		55	1	(1.8)
	가정위탁		421	60	(14.3)
	가정 위탁	대리	180	28	(15.6)
		친인척	148	19	(12.8)
		일반	93	13	(14.0)

3.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

가. 보호종료 후 필요 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하는 자립지원의 1순위는 경제적 지원으로 67.6%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9.7%의 주거지원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률은 주거지원으로 45.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시 16.4%의 경제적 지원으로 분석되어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정 응답률이 높은 지원 역시 90.5%의 경제적 지원으로 10명 중 1명 이상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주거지원이 77.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의료비, 건강검진 등의 건강지원이 47.5%로 2명 중 1명은 건강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취업, 직업 관련 지원 또한 35.1%의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11-5〉 보호종료 후 필요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경제적 지원 (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495	(67.6)	120	(16.4)	48	(6.6)	663 (90.6)
주거지원	144	(19.7)	334	(45.6)	88	(12.0)	566 (77.3)
건강지원 (의료비, 건강검진 등)	28	(3.8)	111	(15.2)	209	(28.6)	348 (47.5)
학업지원	13	(1.8)	40	(5.5)	68	(9.3)	121 (16.5)
취업, 직업 관련 지원	32	(4.4)	71	(9.7)	154	(21.0)	257 (35.1)
(심리)상담지원	1	(0.1)	5	(0.7)	10	(1.4)	16 (2.2)
법률지원	2	(0.3)	3	(0.4)	24	(3.3)	29 (4.0)
사회적 관계 지원 (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5	(0.7)	12	(1.6)	22	(3.0)	39 (5.3)
퇴소 후 지지해 줄 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2	(0.3)	4	(0.5)	9	(1.2)	15 (2.0)
문화·여가 활동 지원	4	(0.5)	10	(1.4)	35	(4.8)	49 (6.7)
자립 생활 체험 (예, 자립체험관)	2	(0.3)	3	(0.4)	5	(0.7)	10 (1.4)
자립생활 멘토링 (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0	(0.0)	5	(0.7)	5	(0.7)	10 (1.4)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3	(0.4)	12	(1.6)	33	(4.5)	48 (6.6)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	(0.1)	2	(0.3)	20	(2.7)	23 (3.1)
기타	-	-	-	-	2	(0.3)	2 (0.3)

나. 사후관리 빈도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가정위탁선생님과의 적정 연락 빈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9명, 8.1%에 불과 했으며, 월 1회가 3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3개월 1회 22%, 주 1회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령이 낮을수록, 연장보호가 아닌 일반 만기퇴소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일수록 더 빈번한 연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보호아동, 특히 공동생활가정아동이 주 1회의 연락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1-6〉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가정위탁센터선생님 걱정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다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x ²
성별	전체	732	59 (8.1)	135 (18.4)	232 (31.7)	161 (22.0)	88 (12.0)	38 (5.2)	19 (2.6)	25.0***
	남	366	31 (8.5)	87 (23.8)	120 (32.8)	73 (19.9)	31 (8.5)	13 (3.6)	11 (3.0)	
	여	366	28 (7.7)	48 (13.1)	112 (30.6)	88 (24.0)	57 (15.6)	25 (6.8)	8 (2.2)	
연령	만 17세	103	7 (6.8)	24 (23.3)	39 (37.9)	20 (19.4)	5 (4.9)	3 (2.9)	5 (4.9)	42.0***
	만 18세	287	26 (9.1)	70 (24.4)	92 (32.1)	56 (19.5)	24 (8.4)	11 (3.8)	8 (2.8)	
	만 19세 이상	342	26 (7.6)	41 (12.0)	101 (29.5)	85 (24.9)	59 (17.3)	24 (7.0)	6 (1.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37 (8.9)	100 (24.1)	138 (33.3)	82 (19.8)	29 (7.0)	16 (3.9)	13 (3.1)	61.6***
	2-3년제 대학교	147	5 (3.4)	26 (17.7)	46 (31.3)	34 (23.1)	26 (17.7)	6 (4.1)	4 (2.7)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17 (10.0)	9 (5.3)	48 (28.2)	45 (26.5)	33 (19.4)	16 (9.4)	2 (1.2)	
부모 유무	있음	380	23 (6.1)	70 (18.4)	131 (34.5)	85 (22.4)	38 (10.0)	19 (5.0)	14 (3.7)	17.5
	없음	250	30 (12.0)	45 (18.0)	69 (27.6)	55 (22.0)	36 (14.4)	13 (5.2)	2 (.8)	
	모름	102	6 (5.9)	20 (19.6)	32 (31.4)	21 (20.6)	14 (13.7)	6 (5.9)	3 (2.9)	
장애 유무	있음	37	2 (5.4)	13 (35.1)	12 (32.4)	5 (13.5)	4 (10.8)	0 (.0)	1 (2.7)	9.6
	없음	695	57 (8.2)	122 (17.6)	220 (31.7)	156 (22.4)	84 (12.1)	38 (5.5)	18 (2.6)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1 (4.3)	66 (25.8)	90 (35.2)	50 (19.5)	22 (8.6)	7 (2.7)	10 (3.9)	58.0***
	공동생활가정	55	3 (5.5)	21 (38.2)	16 (29.1)	8 (14.5)	4 (7.3)	3 (5.5)	0 (.0)	
	가정위탁	421	45 (10.7)	48 (11.4)	126 (29.9)	103 (24.5)	62 (14.7)	28 (6.7)	9 (2.1)	
	가정 위탁	대리	180	18 (10.0)	19 (10.6)	53 (29.4)	44 (24.4)	28 (15.6)	15 (8.3)	11.5
		친인척	148	23 (15.5)	15 (10.1)	46 (31.1)	33 (22.3)	19 (12.8)	8 (5.4)	
	일반	93	4 (4.3)	14 (15.1)	27 (29.0)	26 (28.0)	15 (16.1)	5 (5.4)	2 (2.2)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11 (4.3)	66 (25.8)	90 (35.2)	50 (19.5)	22 (8.6)	7 (2.7)	10 (3.9)	71.7***
	공동생활가정	55	3 (5.5)	21 (38.2)	16 (29.1)	8 (14.5)	4 (7.3)	3 (5.5)	0 (.0)	
	대리 가정위탁	180	18 (10.0)	19 (10.6)	53 (29.4)	44 (24.4)	28 (15.6)	15 (8.3)	3 (1.7)	
	친인척 가정위탁	148	23 (15.5)	15 (10.1)	46 (31.1)	33 (22.3)	19 (12.8)	8 (5.4)	4 (2.7)	
	일반 가정위탁	93	4 (4.3)	14 (15.1)	27 (29.0)	26 (28.0)	15 (16.1)	5 (5.4)	2 (2.2)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7 (6.8)	70 (27.9)	93 (37.1)	45 (17.9)	8 (3.2)	11 (4.4)	7 (2.8)	50.9***
	연장보호	481	42 (8.7)	65 (13.5)	139 (28.9)	116 (24.1)	80 (16.6)	27 (5.6)	12 (2.5)	

다. 선호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선호하는 자립지원 정보 제공 유형은 41.7%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이었다. 연령과 학령이 낮을수록,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일수록 자립지원전담요원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원하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령이 높을수록, 가정위탁 보호아동일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을 통한 자립지원정보 제공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1%로 연령과 학령이 낮을수록, 시설, 특히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일수록 시설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7〉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립지원전담 요원 선생님	시설선생님 (위탁부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등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기타	x ²
전체	732	305 (41.7)	147 (20.1)	235 (32.1)	42 (5.7)	3 (.4)	
성별							
남	366	155 (42.3)	85 (23.2)	100 (27.3)	24 (6.6)	2 (.5)	10.1**
여	366	150 (41.0)	62 (16.9)	135 (36.9)	18 (4.9)	1 (.3)	
연령							
만 17세	103	49 (47.6)	27 (26.2)	24 (23.3)	3 (2.9)	0 (.0)	27.2***
만 18세	287	129 (44.9)	67 (23.3)	73 (25.4)	16 (5.6)	2 (.7)	
만 19세 이상	342	127 (37.1)	53 (15.5)	138 (40.4)	23 (6.7)	1 (.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5	189 (45.5)	100 (24.1)	103 (24.8)	20 (4.8)	3 (.7)	35.9***
2-3년제 대학교	147	58 (39.5)	25 (17.0)	52 (35.4)	12 (8.2)	0 (.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	58 (34.1)	22 (12.9)	80 (47.1)	10 (5.9)	0 (.0)	
부모 유무							
있음	380	171 (45.0)	76 (20.0)	114 (30.0)	18 (4.7)	1 (.3)	8.3
없음	250	90 (36.0)	50 (20.0)	89 (35.6)	19 (7.6)	2 (.8)	
모름	102	44 (43.1)	21 (20.6)	32 (31.4)	5 (4.9)	0 (.0)	
장애 유무							
있음	37	20 (54.1)	10 (27.0)	6 (16.2)	1 (2.7)	0 (.0)	6.2
없음	695	285 (41.0)	137 (19.7)	229 (32.9)	41 (5.9)	3 (.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6	144 (56.3)	69 (27.0)	33 (12.9)	9 (3.5)	1 (.4)	138.3***
공동생활가정	55	13 (23.6)	30 (54.5)	9 (16.4)	3 (5.5)	0 (.0)	
가정위탁	421	148 (35.2)	48 (11.4)	193 (45.8)	30 (7.1)	2 (.5)	
가정 위탁							
대리	180	67 (37.2)	18 (10.0)	83 (46.1)	12 (6.7)	0 (.0)	14.5
친인척	148	44 (29.7)	13 (8.8)	77 (52.0)	12 (8.1)	2 (1.4)	
일반	93	37 (39.8)	17 (18.3)	33 (35.5)	6 (6.5)	0 (.0)	
보호 유형2							
아동양육시설	256	144 (56.3)	69 (27.0)	33 (12.9)	9 (3.5)	1 (.4)	152.4***
공동생활가정	55	13 (23.6)	30 (54.5)	9 (16.4)	3 (5.5)	0 (.0)	
대리 가정위탁	180	67 (37.2)	18 (10.0)	83 (46.1)	12 (6.7)	0 (.0)	
친인척 가정위탁	148	44 (29.7)	13 (8.8)	77 (52.0)	12 (8.1)	2 (1.4)	
일반 가정위탁	93	37 (39.8)	17 (18.3)	33 (35.5)	6 (6.5)	0 (.0)	
보호 상태							
일반보호	251	121 (48.2)	66 (26.3)	56 (22.3)	7 (2.8)	1 (.4)	28.5***
연장보호	481	184 (38.3)	81 (16.8)	179 (37.2)	35 (7.3)	2 (.4)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1.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정의보호 당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립준비프로그램 관련, 전체의 64.2%가 8개 영역 중 최소 1개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점을 나타냈으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회적 기술”, “직장생활 기술”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평균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돈관리 기술”과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3.9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11-8〉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및 만족도

구분		있음	%	(단위: 명, %)	
전체 (3,104)	유	1,993	(64.2)	3.9	(0.9)
	무	1,111	(35.8)		
일상 생활기술		1,384	(44.6)	4.0	(0.8)
자기보호 프로그램		1,144	(36.9)	4.0	(0.8)
지역사회 자원 활용		758	(24.4)	4.1	(0.8)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1,286	(41.4)	3.9	(0.9)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830	(26.7)	4.1	(0.8)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		1,179	(38.0)	3.9	(0.8)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		476	(15.3)	4.1	(0.8)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		931	(30.0)	4.0	(0.8)
참여 자립교육프로그램 무		1,111	(35.8)	-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35.8%는 보호 당시 자립준비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63.5%가 자립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이 24.1%, 아동양육시설이 12.1%의 순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마찬가지로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도가 시설 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리 위탁가정 아동이 70.2%로 자립지원프로그램 경험도가 가장 낮았고, 친인척(64.9%), 그리고 일반

(54.4%) 가정위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9〉 대리양육체별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무	아동양육시설		1,417	171 (12.1)
	공동생활가정		332	80 (24.1)
	가정위탁		1,355	860 (63.5)
	가정 위탁	대리	403	283 (70.2)
		친인척	564	366 (64.9)
		일반	388	211 (54.4)

2.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조사참여 보호종료아동의 87%가 자립관련 서비스를 1개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나타낸 서비스는 디딤씨앗통장으로 72.%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만족도 평균 4.4점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용돈 지원(41.8%), 의료서비스(36.4%) 등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학금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각각 4.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1-10〉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전체 (3,104)	유	2,702	(87.0)	4.3	(0.8)
	무	402	(13.0)		
디딤씨앗통장(CDA)		2,261	(72.8)	4.4	(0.7)
자립체험관		835	(26.9)	4.2	(0.8)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787	(25.4)	4.2	(0.7)
자립생활 멘토링 (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547	(17.6)	4.1	(0.7)
용돈 지원		1,299	(41.8)	4.2	(0.8)
장학금		884	(28.5)	4.5	(0.6)
자립지원전문요원의 사례관리		743	(23.9)	4.2	(0.8)
의료서비스		1,131	(36.4)	4.5	(0.6)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570	(18.4)	4.2	(0.9)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815	(26.3)	4.1	(0.8)
기타		41	(1.3)	3.4	(1.1)

보호종료아동의 13%는 보호 당시 자립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25.8%가 자립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이 4.8%, 아동양육시설이 2.5%의 순이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마찬가지로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이 시설 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리 위탁가정 아동이 2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1〉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무경험 비율

(단위: 명, %)

구분	대리양육체계		n	%
참여 경험 무	아동양육시설		1,417	36 (2.5)
	공동생활가정		332	16 (4.8)
	가정위탁		1,355	350 (25.8)
	가정 위탁	대리	(403)	120 (29.8)
		친인척	(564)	135 (23.9)
		일반	(388)	95 (24.5)

3. 보호종료시 현금 지원과 사용처

가.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당시 지원받은 현금의 금액과 사용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립정착금의 금액을 모르거나 금액의 이상치를 제외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1,761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립정착금 금액은 498.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은 아동이 86.6%였으며, 500만원 미만은 13.3%로 나타났다. 연령과 보호종료연차가 낮을수록 5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아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12〉 자립정착금 금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500만원 미만	500만원	500만원 초과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761	235 (13.3)	1,422 (80.7)	104 (5.9)	498.3 (107.1)	3.4***
성별	남	811	91 (11.2)	661 (81.5)	59 (7.3)	507.7 (117.8)	
	여	950	144 (15.2)	761 (80.1)	45 (4.7)	490.3 (96.3)	

구분		사례수	500만원 미만	500만원	500만원 초과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761	235 (13.3)	1,422 (80.7)	104 (5.9)	498.3 (107.1)		
연령	만 18~19세	359	19 (5.3)	309 (86.1)	31 (8.6)	519.1 (109.7)	10***	
	만 20~21세	723	85 (11.8)	594 (82.2)	44 (6.1)	502.8 (110.2)		
	만 22~23세	441	80 (18.1)	343 (77.8)	18 (4.1)	482.8 (94.7)		
	만 24세 이상	238	51 (21.4)	176 (73.9)	11 (4.6)	482.2 (108.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80	77 (13.3)	459 (79.1)	44 (7.6)	505.1 (120.5)	2.3	
	2~3년제 대학교	316	38 (12.0)	258 (81.6)	20 (6.3)	500.2 (98.1)		
	4년제 대학교 이상	865	120 (13.9)	705 (81.5)	40 (4.6)	493.1 (100.2)		
부모유무	있음	832	106 (12.7)	670 (80.5)	56 (6.7)	500.0 (108.2)	1.8	
	없음	706	107 (15.2)	563 (79.7)	36 (5.1)	493.3 (105.3)		
	모름	223	22 (9.9)	189 (84.8)	12 (5.4)	508.0 (108.0)		
장애유무	있음	62	6 (9.7)	50 (80.6)	6 (9.7)	508.1 (110.0)	0.7	
	없음	1,699	229 (13.5)	1,372 (80.8)	98 (5.8)	498.0 (107.0)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543	79 (14.5)	432 (79.6)	32 (5.9)	493.2 (100.7)	1.4	
	지역가입	208	39 (18.8)	156 (75.0)	13 (6.3)	493.9 (109.9)		
	의료급여	1,010	117 (11.6)	834 (82.6)	59 (5.8)	502.0 (109.7)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911	112 (12.3)	740 (81.2)	59 (6.5)	502.1 (107.7)	1.2	
	공동생활가정	191	32 (16.8)	148 (77.5)	11 (5.8)	492.5 (120.3)		
	가정위탁	659	91 (13.8)	534 (81.0)	34 (5.2)	494.7 (101.9)		
	가정위탁	대리	182	25 (13.7)	147 (80.8)	10 (5.5)	497.5 (107.7)	2
		친인척	297	42 (14.1)	246 (82.8)	9 (3.0)	486.6 (88.0)	
		일반	180	24 (13.3)	141 (78.3)	15 (8.3)	505.3 (115.7)	
보호유형2	아동양육시설	911	112 (12.3)	740 (81.2)	59 (6.5)	502.1 (107.7)	1.5	
	공동생활가정	191	32 (16.8)	148 (77.5)	11 (5.8)	492.5 (120.3)		
	대리 가정위탁	182	25 (13.7)	147 (80.8)	10 (5.5)	497.5 (107.7)		
	친인척 가정위탁	297	42 (14.1)	246 (82.8)	9 (3.0)	486.6 (88.0)		
	일반 가정위탁	180	24 (13.3)	141 (78.3)	15 (8.3)	505.3 (115.7)		
보호종료유형	만기퇴소	991	135 (13.6)	785 (79.2)	71 (7.2)	503.6 (118.1)	2.3*	
	연장종료	770	100 (13.0)	637 (82.7)	33 (4.3)	491.5 (90.5)		
보호종료연차	1년차	507	19 (3.7)	453 (89.3)	35 (6.9)	517.3 (101.8)	12.6***	
	2년차	543	44 (8.1)	465 (85.6)	34 (6.3)	507.2 (102.6)		
	3년차	466	100 (21.5)	344 (73.8)	22 (4.7)	483.5 (110.0)		
	4년차	144	37 (25.7)	101 (70.1)	6 (4.2)	465.8 (94.7)		
	5년차	101	35 (34.7)	59 (58.4)	7 (6.9)	470.0 (132.3)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516	163 (10.8)	1,262 (83.2)	91 (6.0)	503.3 (105.5)	4.9***	
	비해당 (자립 4~5년차)	245	72 (29.4)	160 (65.3)	13 (5.3)	467.6 (111.5)		

주: 모름 및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자립정착금의 사용처는 식비(28.9%)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관리비가 27.7%로 높게 나타났다. 저축이나 보험이 9.7%, 교육비가 9.0%로 나타났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은 여자에 비해 식비 지출이 높았고, 여자 보호종료아동은 주거관리비, 저축이나 보험 등으로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보호종료 연

차가 높을수록 주거관리비로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조금씩 확대되면서 주거관리비로의 사용이 연차별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3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립정착금이 등록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외보호체계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은 식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저축이나 보험에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13〉 자립정착금 사용처

(단위: 명, %)

구분		사려수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옷, 신발, 액세서리 등)	저축, 보험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χ ²	
전체		3,104	897 (28.9)	278 (9.0)	68 (2.2)	99 (3.2)	105 (3.4)	302 (9.7)	861 (27.7)	128 (4.1)	63 (2.0)	267 (8.6)	36 (1.2)		
성별	남	1,461	501 (34.3)	116 (7.9)	27 (1.8)	67 (4.6)	55 (3.8)	126 (8.6)	311 (21.3)	60 (4.1)	23 (1.6)	155 (10.6)	20 (1.4)	112.2***	
	여	1,643	396 (24.1)	162 (9.9)	41 (2.5)	32 (1.9)	50 (3.0)	176 (10.7)	550 (33.5)	68 (4.1)	40 (2.4)	112 (6.8)	16 (1.0)		
연령	만 18~19세	600	200 (33.3)	52 (8.7)	12 (2.0)	16 (2.7)	25 (4.2)	73 (12.2)	128 (21.3)	23 (3.8)	8 (1.3)	53 (8.8)	10 (1.7)	79.8***	
	만 20~21세	1,289	373 (28.9)	125 (9.7)	33 (2.6)	48 (3.7)	52 (4.0)	102 (7.9)	339 (26.3)	65 (5.0)	19 (1.5)	122 (9.5)	11 (0.9)		
	만 22~23세	778	212 (27.2)	70 (9.0)	11 (1.4)	22 (2.8)	20 (2.6)	79 (10.2)	249 (32.0)	32 (4.1)	17 (2.2)	58 (7.5)	8 (1.0)		
	만 24세 이상	437	112 (25.6)	31 (7.1)	12 (2.7)	13 (3.0)	8 (1.8)	48 (11.0)	145 (33.2)	8 (1.8)	19 (4.3)	34 (7.8)	7 (1.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341 (29.5)	43 (3.7)	32 (2.8)	44 (3.8)	44 (3.8)	96 (8.3)	326 (28.2)	68 (5.9)	20 (1.7)	122 (10.6)	18 (1.6)	138.1***	
	2~3년제 대학교	524	173 (33.0)	84 (16.0)	7 (1.3)	13 (2.5)	24 (4.6)	54 (10.3)	116 (22.1)	20 (3.8)	3 (0.6)	26 (5.0)	4 (0.8)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383 (26.9)	151 (10.6)	29 (2.0)	42 (2.9)	37 (2.6)	152 (10.7)	419 (29.4)	40 (2.8)	40 (2.8)	119 (8.3)	14 (1.0)		
부모유무	있음	1,512	416 (27.5)	143 (9.5)	32 (2.1)	53 (3.5)	42 (2.8)	161 (10.6)	427 (28.2)	57 (3.8)	29 (1.9)	133 (8.8)	19 (1.3)	23.6	
	없음	1,198	348 (29.0)	114 (9.5)	28 (2.3)	32 (2.7)	49 (4.1)	101 (8.4)	331 (27.6)	53 (4.4)	29 (2.4)	100 (8.3)	13 (1.1)		
	모름	394	133 (33.8)	21 (5.3)	8 (2.0)	14 (3.6)	14 (3.6)	40 (10.2)	103 (26.1)	18 (4.6)	5 (1.3)	34 (8.6)	4 (1.0)		
장애유무	있음	132	39 (29.5)	4 (3.0)	5 (3.8)	6 (4.5)	7 (5.3)	13 (9.8)	24 (18.2)	9 (6.8)	4 (3.0)	18 (13.6)	3 (2.3)	22.5**	
	없음	2,972	858 (28.9)	274 (9.2)	63 (2.1)	93 (3.1)	98 (3.3)	289 (9.7)	837 (28.2)	119 (4.0)	59 (2.0)	249 (8.4)	33 (1.1)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960	244 (25.4)	51 (5.3)	24 (2.5)	38 (4.0)	28 (2.9)	138 (14.4)	296 (30.8)	29 (3.0)	27 (2.8)	74 (7.7)	11 (1.1)	101.4***	
	지역가입	374	105 (28.1)	29 (7.8)	9 (2.4)	9 (2.4)	10 (2.7)	24 (6.4)	125 (33.4)	12 (3.2)	13 (3.5)	32 (8.6)	6 (1.6)		
	의료급여	1,770	548 (31.0)	198 (11.2)	35 (2.0)	52 (2.9)	67 (3.8)	140 (7.9)	440 (24.9)	87 (4.9)	23 (1.3)	161 (9.1)	19 (1.1)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485 (34.2)	123 (8.7)	28 (2.0)	60 (4.2)	69 (4.9)	132 (9.3)	351 (24.8)	51 (3.6)	16 (1.1)	87 (6.1)	15 (1.1)	112.6***	
	공동생활가정	332	95 (28.6)	31 (9.3)	6 (1.8)	9 (2.7)	8 (2.4)	26 (7.8)	115 (34.6)	9 (2.7)	7 (2.1)	22 (6.6)	4 (1.2)		
	가정위탁	1,355	317 (23.4)	124 (9.2)	34 (2.5)	30 (2.2)	28 (2.1)	144 (10.6)	395 (29.2)	68 (5.0)	40 (3.0)	158 (11.7)	17 (1.3)		
	가정위탁	대리	403	85 (21.1)	41 (10.2)	11 (2.7)	8 (2.0)	6 (1.5)	38 (9.4)	119 (29.5)	21 (5.2)	14 (3.5)	56 (13.9)	4 (1.0)	14.5
		친인척	564	139 (24.6)	53 (9.4)	13 (2.3)	14 (2.5)	13 (2.3)	62 (11.0)	165 (29.3)	24 (4.3)	19 (3.4)	57 (10.1)	5 (0.9)	
		일반	388	93 (24.0)	30 (7.7)	10 (2.6)	8 (2.1)	9 (2.3)	44 (11.3)	111 (28.6)	23 (5.9)	7 (1.8)	45 (11.6)	8 (2.1)	

394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옷, 신발, 액세서리 등)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자축, 보험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χ^2
전체	3,104	897 (28.9)	278 (9.0)	68 (2.2)	99 (3.2)	105 (3.4)	302 (9.7)	861 (27.7)	128 (4.1)	63 (2.0)	267 (8.6)	36 (1.2)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417	485 (34.2)	123 (8.7)	28 (2.0)	60 (4.2)	69 (4.9)	132 (9.3)	351 (24.8)	51 (3.6)	16 (1.1)	87 (6.1)	15 (1.1)	129.1***
	공동생활가정	332	95 (28.6)	31 (9.3)	6 (1.8)	9 (2.7)	8 (2.4)	26 (7.8)	115 (34.6)	9 (2.7)	7 (2.1)	22 (6.6)	4 (1.2)	
	대리 가정위탁	403	85 (21.1)	41 (10.2)	11 (2.7)	8 (2.0)	6 (1.5)	38 (9.4)	119 (29.5)	21 (5.2)	14 (3.5)	56 (13.9)	4 (1.0)	
	친인척 가정위탁	564	139 (24.6)	53 (9.4)	13 (2.3)	14 (2.5)	13 (2.3)	62 (11.0)	165 (29.3)	24 (4.3)	19 (3.4)	57 (10.1)	5 (.9)	
	일반 가정위탁	388	93 (24.0)	30 (7.7)	10 (2.6)	8 (2.1)	9 (2.3)	44 (11.3)	111 (28.6)	23 (5.9)	7 (1.8)	45 (11.6)	8 (2.1)	
보호 종료 유형	민가퇴소	1,774	571 (32.2)	156 (8.8)	41 (2.3)	63 (3.6)	67 (3.8)	153 (8.6)	451 (25.4)	74 (4.2)	25 (1.4)	154 (8.7)	19 (1.1)	40.9***
	연장종료	1,330	326 (24.5)	122 (9.2)	27 (2.0)	36 (2.7)	38 (2.9)	149 (11.2)	410 (30.8)	54 (4.1)	38 (2.9)	113 (8.5)	17 (1.3)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248 (28.3)	71 (8.1)	15 (1.7)	21 (2.4)	31 (3.5)	124 (14.2)	206 (23.5)	37 (4.2)	14 (1.6)	98 (11.2)	10 (1.1)	94.3***
	2년차	921	261 (28.3)	95 (10.3)	27 (2.9)	21 (2.3)	34 (3.7)	89 (9.7)	252 (27.4)	42 (4.6)	26 (2.8)	63 (6.8)	11 (1.2)	
	3년차	805	221 (27.5)	75 (9.3)	18 (2.2)	39 (4.8)	24 (3.0)	61 (7.6)	253 (31.4)	28 (3.5)	14 (1.7)	64 (8.0)	8 (1.0)	
	4년차	280	93 (33.2)	25 (8.9)	4 (1.4)	10 (3.6)	10 (3.6)	19 (6.8)	73 (26.1)	13 (4.6)	3 (1.1)	28 (10.0)	2 (.7)	
	5년차	223	74 (33.2)	12 (5.4)	4 (1.8)	8 (3.6)	6 (2.7)	9 (4.0)	77 (34.5)	8 (3.6)	6 (2.7)	14 (6.3)	5 (2.2)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741 (28.5)	236 (9.1)	58 (2.2)	80 (3.1)	89 (3.4)	274 (10.5)	659 (25.3)	107 (4.1)	54 (2.1)	210 (8.1)	45 (1.7)	19.0**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68 (33.4)	37 (7.4)	8 (1.6)	18 (3.6)	16 (3.2)	28 (5.6)	144 (28.6)	21 (4.2)	9 (1.8)	41 (8.2)	7 (1.4)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자립정착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⑩ 없음'에 포함하고 사용은 했으나 사용처를 모르는 경우는 기타에 포함

나. 디딤씨앗통장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당시 디딤씨앗통장의 평균 저축액은 612.1만원으로 나타났다으며, 표준편차 366.1만원으로 개인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3.3%의 보호종료아동이 500~1000만원 미만의 저축액을 나타냈으며, 1000만원 이상의 저축액도 19.4%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보호종료연차가 낮을수록, 즉 최근에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1000만원 이상의 저축액을 가진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높아 최근 디딤씨앗통장 사업 확대를 통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동양육시설(668.7만원)과 공동생활가정(535.2만원) 보호종료아동의 디딤씨앗 통장 저축액이 가정위탁(491.7만원) 보호종료아동보호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기간이 다른 보호체계보다 긴 것을 고려할 때, 저축 기간이 길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고, 가정위탁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모르거나 가족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14〉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876	171	(19.5)	156	(17.8)	379	(43.3)	170	(19.4)	612.1 (366.1)	
성별	남	422	77	(18.2)	71	(16.8)	183	(43.4)	91	(21.6)	639.7 (381.8)	2.2*
	여	454	94	(20.7)	85	(18.7)	196	(43.2)	79	(17.4)	586.5 (349.4)	
연령	만 18~19세	201	47	(23.4)	19	(9.5)	75	(37.3)	60	(29.9)	690.4 (408.9)	8.9***
	만 20~21세	361	59	(16.3)	72	(19.9)	154	(42.7)	76	(21.1)	633.3 (369.6)	
	만 22~23세	200	32	(16.0)	44	(22.0)	102	(51.0)	22	(11.0)	562.3 (314.8)	
	만 24세 이상	114	33	(28.9)	21	(18.4)	48	(42.1)	12	(10.5)	494.4 (318.5)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98	64	(21.5)	49	(16.4)	110	(36.9)	75	(25.2)	628.1 (400.0)	5**
	2~3년제 대학교	170	28	(16.5)	29	(17.1)	75	(44.1)	38	(22.4)	675.0 (368.3)	
	4년제 대학교 이상	408	79	(19.4)	78	(19.1)	194	(47.5)	57	(14.0)	574.2 (334.3)	
부모 유무	있음	442	99	(22.4)	78	(17.6)	203	(45.9)	62	(14.0)	570.6 (350.3)	10.4***
	없음	340	60	(17.6)	61	(17.9)	145	(42.6)	74	(21.8)	626.7 (360.9)	
	모름	94	12	(12.8)	17	(18.1)	31	(33.0)	34	(36.2)	754.4 (418.2)	
장애 유무	있음	36	12	(33.3)	8	(22.2)	7	(19.4)	9	(25.0)	574.7 (504.9)	-0.6
	없음	840	159	(18.9)	148	(17.6)	372	(44.3)	161	(19.2)	613.7 (359.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279	53	(19.0)	39	(14.0)	140	(50.2)	47	(16.8)	604.9 (347.8)	3*
	지역가입	95	24	(25.3)	25	(26.3)	33	(34.7)	13	(13.7)	532.1 (361.6)	
	의료급여	502	94	(18.7)	92	(18.3)	206	(41.0)	110	(21.9)	631.3 (375.2)	

구분		사례수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876	171 (19.5)	156 (17.8)	379 (43.3)	170 (19.4)	612.1 (366.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66	79 (14.0)	93 (16.4)	263 (46.5)	131 (23.1)	668.7 (362.2)	20.5***	
	공동생활가정	122	39 (32.0)	16 (13.1)	47 (38.5)	20 (16.4)	535.2 (363.0)		
	가정위탁	188	53 (28.2)	47 (25.0)	69 (36.7)	19 (10.1)	491.7 (342.4)		
	가정 위탁	대리	48	16 (33.3)	16 (33.3)	14 (29.2)	2 (4.2)	388.5 (245.2)	8.3***
		친인척	82	26 (31.7)	20 (24.4)	30 (36.6)	6 (7.3)	452.1 (317.7)	
		일반	58	11 (19.0)	11 (19.0)	25 (43.1)	11 (19.0)	633.2 (400.1)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566	79 (14.0)	93 (16.4)	263 (46.5)	131 (23.1)	668.7 (362.2)	14***	
	공동생활가정	122	39 (32.0)	16 (13.1)	47 (38.5)	20 (16.4)	535.2 (363.0)		
	대리 가정위탁	48	16 (33.3)	16 (33.3)	14 (29.2)	2 (4.2)	388.5 (245.2)		
	친인척 가정위탁	82	26 (31.7)	20 (24.4)	30 (36.6)	6 (7.3)	452.1 (317.7)		
	일반 가정위탁	58	11 (19.0)	11 (19.0)	25 (43.1)	11 (19.0)	633.2 (400.1)		
보호종료 유형	만기퇴소	547	96 (17.6)	89 (16.3)	231 (42.2)	131 (23.9)	647.8 (371.5)	3.7***	
	연장종료	329	75 (22.8)	67 (20.4)	148 (45.0)	39 (11.9)	552.8 (349.4)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217	56 (25.8)	31 (14.3)	75 (34.6)	55 (25.3)	638.2 (421.2)	2.3	
	2년차	260	46 (17.7)	51 (19.6)	107 (41.2)	56 (21.5)	627.3 (375.4)		
	3년차	241	41 (17.0)	41 (17.0)	116 (48.1)	43 (17.8)	622.4 (349.7)		
	4년차	90	15 (16.7)	22 (24.4)	41 (45.6)	12 (13.3)	555.0 (293.4)		
	5년차	68	13 (19.1)	11 (16.2)	40 (58.8)	4 (5.9)	510.2 (250.7)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718	143 (19.9)	123 (17.1)	298 (41.5)	154 (21.4)	628.9 (381.2)	2.9**	
	비해당 (자립 4~5년차)	158	28 (17.7)	33 (20.9)	81 (51.3)	16 (10.1)	535.7 (275.9)		

주: 모름 및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디딤씨앗통장의 사용처는 주거관리비(18.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식비가 12.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가 11.5%로 나타났다. 1.9%에 해당하는 기타의 응답에는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은 여자에 비해 식비 지출이 높았고, 여자 보호종료아동은 주거관리비, 저축이나 보험 등으로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주거관리비로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조금씩 확대되면서 주거관리비로의 사용이 연차별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3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립정착금이 등록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외보호체계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은 식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저축이나 보험에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종료 1년~3차에 해당하는 자립수당 이용자는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자립수당 비이용자에 비해 적고,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보험에 사용하는 비율이 4%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15〉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사용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옷, 신발, 약세서리 등)	저축, 보험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x ²
성별	전체	2,261	276 (12.2)	261 (11.5)	44 (1.9)	49 (2.2)	37 (1.6)	187 (8.3)	414 (18.3)	49 (2.2)	29 (1.3)	871 (38.5)	44 (1.9)	69.9***
	남	1,071	160 (14.9)	92 (8.6)	20 (1.9)	34 (3.2)	23 (2.1)	79 (7.4)	159 (14.8)	21 (2.0)	22 (2.1)	436 (40.7)	25 (2.3)	
	여	1,190	116 (9.7)	169 (14.2)	24 (2.0)	15 (1.3)	14 (1.2)	108 (9.1)	255 (21.4)	28 (2.4)	7 (.6)	435 (36.6)	19 (1.6)	
연령	만 18~19세	488	45 (9.2)	36 (7.4)	11 (2.3)	6 (1.2)	7 (1.4)	37 (7.6)	54 (11.1)	8 (1.6)	5 (1.0)	268 (54.9)	11 (2.3)	157.6***
	만 20~21세	981	110 (11.2)	110 (11.2)	20 (2.0)	29 (3.0)	19 (1.9)	75 (7.6)	172 (17.5)	26 (2.7)	11 (1.1)	391 (39.9)	18 (1.8)	
	만 22~23세	514	64 (12.5)	67 (13.0)	6 (1.2)	10 (1.9)	8 (1.6)	44 (8.6)	119 (23.2)	14 (2.7)	8 (1.6)	162 (31.5)	12 (2.3)	
교육 수준	만 24세 이상	278	57 (20.5)	48 (17.3)	7 (2.5)	4 (1.4)	3 (1.1)	31 (11.2)	69 (24.8)	1 (.4)	5 (1.8)	50 (18.0)	3 (1.1)	117.6***
	고등학교 이하	852	107 (12.6)	30 (3.5)	21 (2.5)	20 (2.3)	18 (2.1)	61 (7.2)	179 (21.0)	23 (2.7)	13 (1.5)	355 (41.7)	25 (2.9)	
	2~3년제 대학교	420	47 (11.2)	57 (13.6)	9 (2.1)	12 (2.9)	10 (2.4)	37 (8.8)	59 (14.0)	8 (1.9)	3 (.7)	172 (41.0)	6 (1.4)	
부모 유무	4년제 대학교 이상	989	122 (12.3)	174 (17.6)	14 (1.4)	17 (1.7)	9 (.9)	89 (9.0)	176 (17.8)	18 (1.8)	13 (1.3)	344 (34.8)	13 (1.3)	13.1
	있음	1,124	135 (12.0)	132 (11.7)	25 (2.2)	20 (1.8)	12 (1.1)	92 (8.2)	200 (17.8)	26 (2.3)	15 (1.3)	444 (39.5)	23 (2.0)	
	없음	876	110 (12.6)	103 (11.8)	14 (1.6)	23 (2.6)	18 (2.1)	69 (7.9)	165 (18.8)	19 (2.2)	13 (1.5)	326 (37.2)	16 (1.8)	
장애 유무	모름	261	31 (11.9)	26 (10.0)	5 (1.9)	6 (2.3)	7 (2.7)	26 (10.0)	49 (18.8)	4 (1.5)	1 (.4)	101 (38.7)	5 (1.9)	28.0***
	있음	104	17 (16.3)	8 (7.7)	7 (6.7)	1 (1.0)	3 (2.9)	10 (9.6)	9 (8.7)	2 (1.9)	1 (1.0)	41 (39.4)	5 (4.8)	
	없음	2,157	259 (12.0)	253 (11.7)	37 (1.7)	48 (2.2)	34 (1.6)	177 (8.2)	405 (18.8)	47 (2.2)	28 (1.3)	830 (38.5)	39 (1.8)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680	78 (11.5)	72 (10.6)	17 (2.5)	16 (2.4)	3 (.4)	86 (12.6)	146 (21.5)	9 (1.3)	7 (1.0)	235 (34.6)	11 (1.6)	64.7***
	지역가입	253	42 (16.6)	27 (10.7)	6 (2.4)	5 (2.0)	3 (1.2)	13 (5.1)	52 (20.6)	6 (2.4)	7 (2.8)	86 (34.0)	6 (2.4)	
	의료급여	1,328	156 (11.7)	162 (12.2)	21 (1.6)	28 (2.1)	31 (2.3)	88 (6.6)	216 (16.3)	34 (2.6)	15 (1.1)	550 (41.4)	27 (2.0)	
보훈 유형	이동양육시설	1,281	155 (12.1)	118 (9.2)	22 (1.7)	35 (2.7)	27 (2.1)	102 (8.0)	210 (16.4)	23 (1.8)	16 (1.2)	551 (43.0)	22 (1.7)	60.8***
	공동생활가정	272	41 (15.1)	31 (11.4)	2 (.7)	4 (1.5)	5 (1.8)	26 (9.6)	59 (21.7)	8 (2.9)	5 (1.8)	85 (31.3)	6 (2.2)	
	가정위탁	708	80 (11.3)	112 (15.8)	20 (2.8)	10 (1.4)	5 (.7)	59 (8.3)	145 (20.5)	18 (2.5)	8 (1.1)	235 (33.2)	16 (2.3)	
	가정 위탁	대리	204	15 (7.4)	35 (17.2)	8 (3.9)	2 (1.0)	1 (.5)	13 (6.4)	34 (16.7)	6 (2.9)	2 (1.0)	79 (38.7)	9 (4.4)
		친인척	293	39 (13.3)	47 (16.0)	7 (2.4)	4 (1.4)	1 (.3)	26 (8.9)	64 (21.8)	6 (2.0)	3 (1.0)	90 (30.7)	6 (2.0)
	일반	211	26 (12.3)	30 (14.2)	5 (2.4)	4 (1.9)	3 (1.4)	20 (9.5)	47 (22.3)	6 (2.8)	3 (1.4)	66 (31.3)	1 (.5)	22.7

398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사례수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옷, 신발, 약세서리 등)	주거, 보험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x ²
전체		2,261	276 (12.2)	261 (11.5)	44 (1.9)	49 (2.2)	37 (1.6)	187 (8.3)	414 (18.3)	49 (2.2)	29 (1.3)	871 (38.5)	44 (1.9)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281	155 (12.1)	118 (9.2)	22 (1.7)	35 (2.7)	27 (2.1)	102 (8.0)	210 (16.4)	23 (1.8)	16 (1.2)	551 (43.0)	22 (1.7)	83.6***
	공동생활가정	272	41 (15.1)	31 (11.4)	2 (7)	4 (1.5)	5 (1.8)	26 (9.6)	59 (21.7)	8 (2.9)	5 (1.8)	85 (31.3)	6 (2.2)	
	대리 가정위탁	204	15 (7.4)	35 (17.2)	8 (3.9)	2 (1.0)	1 (5)	13 (6.4)	34 (16.7)	6 (2.9)	2 (1.0)	79 (38.7)	9 (4.4)	
	친목척 가정위탁	293	39 (13.3)	47 (16.0)	7 (2.4)	4 (1.4)	1 (3)	26 (8.9)	64 (21.8)	6 (2.0)	3 (1.0)	90 (30.7)	6 (2.0)	
	일반 가정위탁	211	26 (12.3)	30 (14.2)	5 (2.4)	4 (1.9)	3 (1.4)	20 (9.5)	47 (22.3)	6 (2.8)	3 (1.4)	66 (31.3)	1 (5)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379	163 (11.8)	126 (9.1)	30 (2.2)	37 (2.7)	27 (2.0)	93 (6.7)	244 (17.7)	33 (2.4)	20 (1.5)	581 (42.1)	25 (1.8)	50.3***
	연장종료	882	113 (12.8)	135 (15.3)	14 (1.6)	12 (1.4)	10 (1.1)	94 (10.7)	170 (19.3)	16 (1.8)	9 (1.0)	290 (32.9)	19 (2.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607	63 (10.4)	52 (8.6)	10 (1.6)	7 (1.2)	6 (1.0)	64 (10.5)	66 (10.9)	9 (1.5)	7 (1.2)	313 (51.6)	10 (1.6)	154.3***
	2년차	680	77 (11.3)	94 (13.8)	13 (1.9)	12 (1.8)	11 (1.6)	54 (7.9)	120 (17.6)	13 (1.9)	7 (1.0)	270 (39.7)	9 (1.3)	
	3년차	598	73 (12.2)	70 (11.7)	16 (2.7)	20 (3.3)	13 (2.2)	50 (8.4)	122 (20.4)	16 (2.7)	7 (1.2)	196 (32.8)	15 (2.5)	
	4년차	207	29 (14.0)	24 (11.6)	3 (1.4)	7 (3.4)	4 (1.9)	12 (5.8)	55 (26.6)	4 (1.9)	2 (1.0)	60 (29.0)	7 (3.4)	
	5년차	169	34 (20.1)	21 (12.4)	2 (1.2)	3 (1.8)	3 (1.8)	7 (4.1)	51 (30.2)	7 (4.1)	6 (3.6)	32 (18.9)	3 (1.8)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1,885	213 (11.3)	216 (11.5)	39 (2.1)	39 (2.1)	30 (1.6)	168 (8.9)	308 (16.3)	38 (2.0)	21 (1.1)	779 (41.3)	34 (1.8)	66.9***
	비해당 (자립 4~5년차)	376	63 (16.8)	45 (12.0)	5 (1.3)	10 (2.7)	7 (1.9)	19 (5.1)	106 (28.2)	11 (2.9)	8 (2.1)	92 (24.5)	10 (2.7)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⑩ 없음'에 포함하고 사용은 했으나 사용처를 모르는 경우는 기타에 포함

다.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중 1년차~3년차 아동이 받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사용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식비로 41.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의 주거관리비로 분석되었다. 교통 및 통신비가 11.6%, 저축이나 보험이 7.5%, 교육비가 4.4% 등으로 나타났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은 여자에 비해 식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주거관리비와 교통/통신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관리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육 수준이 2-3년제의 대학이상일수록 고등학교 이하보다 교육비 지출 비율도 높았다. 보호종료연차가 높을수록 식비 비율이 낮고, 교육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의 비율이 높았으며, 보호종료 1년차에는 저축/보험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11-16〉 자립수당 사용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식비 (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 (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 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 (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 (옷, 신발, 악세서리 등)	저축, 보험	주거관리비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 (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χ ²	
성별	전체	2,601	1080 (41.5)	115 (4.4)	49 (1.9)	73 (2.8)	76 (2.9)	196 (7.5)	521 (20.0)	303 (11.6)	26 (1.0)	144 (5.5)	18 (.7)	67.4***	
	남	1,202	563 (46.8)	47 (3.9)	13 (1.1)	41 (3.4)	36 (3.0)	92 (7.7)	183 (15.2)	121 (10.1)	13 (1.1)	85 (7.1)	8 (.7)		
	여	1,399	517 (37.0)	68 (4.9)	36 (2.6)	32 (2.3)	40 (2.9)	104 (7.4)	338 (24.2)	182 (13.0)	13 (.9)	59 (4.2)	10 (.7)		
연령	만 18~19세	593	249 (42.0)	30 (5.1)	11 (1.9)	25 (4.2)	26 (4.4)	51 (8.6)	95 (16.0)	51 (8.6)	4 (.7)	46 (7.8)	5 (.8)	57.6**	
	만 20~21세	1,191	491 (41.2)	46 (3.9)	22 (1.8)	34 (2.9)	28 (2.4)	84 (7.1)	228 (19.1)	166 (13.9)	14 (1.2)	70 (5.9)	8 (.7)		
	만 22~23세	529	221 (41.8)	25 (4.7)	10 (1.9)	9 (1.7)	18 (3.4)	39 (7.4)	125 (23.6)	57 (10.8)	4 (.8)	17 (3.2)	4 (.8)		
	만 24세 이상	288	119 (41.3)	14 (4.9)	6 (2.1)	5 (1.7)	4 (1.4)	22 (7.6)	73 (25.3)	29 (10.1)	4 (1.4)	11 (3.8)	1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985	368 (37.4)	26 (2.6)	24 (2.4)	28 (2.8)	32 (3.2)	82 (8.3)	194 (19.7)	122 (12.4)	13 (1.3)	83 (8.4)	13 (1.3)	86.7***	
	2~3년제 대학교	465	219 (47.1)	31 (6.7)	7 (1.5)	19 (4.1)	14 (3.0)	24 (5.2)	65 (14.0)	66 (14.2)	3 (.6)	16 (3.4)	1 (.2)		
	4년제 대학교 이상	1,151	493 (42.8)	58 (5.0)	18 (1.6)	26 (2.3)	30 (2.6)	90 (7.8)	262 (22.8)	115 (10.0)	10 (.9)	45 (3.9)	4 (.3)		
부모유무	있음	1,251	508 (40.6)	49 (3.9)	27 (2.2)	39 (3.1)	32 (2.6)	106 (8.5)	244 (19.5)	150 (12.0)	16 (1.3)	68 (5.4)	12 (1.0)	21.2	
	없음	1,004	410 (40.8)	48 (4.8)	16 (1.6)	28 (2.8)	37 (3.7)	69 (6.9)	217 (21.6)	112 (11.2)	7 (.7)	56 (5.6)	4 (.4)		
	모름	346	162 (46.8)	18 (5.2)	6 (1.7)	6 (1.7)	7 (2.0)	21 (6.1)	60 (17.3)	41 (11.8)	3 (.9)	20 (5.8)	2 (.6)		
장애유무	있음	109	46 (42.2)	3 (2.8)	4 (3.7)	3 (2.8)	3 (2.8)	10 (9.2)	12 (11.0)	8 (7.3)	1 (.9)	18 (16.5)	1 (.9)	34.4***	
	없음	2,492	1034 (41.5)	112 (4.5)	45 (1.8)	70 (2.8)	73 (2.9)	186 (7.5)	509 (20.4)	295 (11.8)	25 (1.0)	126 (5.1)	17 (.7)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748	248 (33.2)	18 (2.4)	15 (2.0)	18 (2.4)	22 (2.9)	97 (13.0)	182 (24.3)	92 (12.3)	8 (1.1)	40 (5.3)	8 (1.1)	112.0***	
	지역가입	279	96 (34.4)	17 (6.1)	7 (2.5)	6 (2.2)	5 (1.8)	24 (8.6)	72 (25.8)	35 (12.5)	5 (1.8)	11 (3.9)	1 (.4)		
	의료급여	1,574	736 (46.8)	80 (5.1)	27 (1.7)	49 (3.1)	49 (3.1)	75 (4.8)	267 (17.0)	176 (11.2)	13 (.8)	93 (5.9)	9 (.6)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178	553 (46.9)	46 (3.9)	23 (2.0)	37 (3.1)	38 (3.2)	69 (5.9)	206 (17.5)	135 (11.5)	11 (.9)	54 (4.6)	6 (.5)	57.9***	
	공동생활가정	273	120 (44.0)	12 (4.4)	0 (.0)	7 (2.6)	12 (4.4)	27 (9.9)	54 (19.8)	25 (9.2)	1 (.4)	13 (4.8)	2 (.7)		
	가정위탁	1,150	407 (35.4)	57 (5.0)	26 (2.3)	29 (2.5)	26 (2.3)	100 (8.7)	261 (22.7)	143 (12.4)	14 (1.2)	77 (6.7)	10 (.9)		
	가정위탁	대리	348	126 (36.2)	15 (4.3)	10 (2.9)	9 (2.6)	4 (1.1)	34 (9.8)	71 (20.4)	47 (13.5)	7 (2.0)	22 (6.3)	3 (.9)	16.6
		친인척	476	173 (36.3)	27 (5.7)	8 (1.7)	15 (3.2)	11 (2.3)	42 (8.8)	106 (22.3)	56 (11.8)	4 (.8)	29 (6.1)	5 (1.1)	
		일반	326	108 (33.1)	15 (4.6)	8 (2.5)	5 (1.5)	11 (3.4)	24 (7.4)	84 (25.8)	40 (12.3)	3 (.9)	26 (8.0)	2 (.6)	

구분		사례수	식비 (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 (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 (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 (옷, 신발, 약제사리 등)	저축, 보험	주거관리비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 (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χ ²
전체		2,601	1080 (41.5)	115 (4.4)	49 (1.9)	73 (2.8)	76 (2.9)	196 (7.5)	521 (20.0)	303 (11.6)	26 (1.0)	144 (5.5)	18 (.7)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1,178	553 (46.9)	46 (3.9)	23 (2.0)	37 (3.1)	38 (3.2)	69 (5.9)	206 (17.5)	135 (11.5)	11 (.9)	54 (4.6)	6 (.5)	75.1**
	공동생활가정	273	120 (44.0)	12 (4.4)	0 (.0)	7 (2.6)	12 (4.4)	27 (9.9)	54 (19.8)	25 (9.2)	1 (.4)	13 (4.8)	2 (.7)	
	대리 가정위탁	348	126 (36.2)	15 (4.3)	10 (2.9)	9 (2.6)	4 (1.1)	34 (9.8)	71 (20.4)	47 (13.5)	7 (2.0)	22 (6.3)	3 (.9)	
	친인척 가정위탁	476	173 (36.3)	27 (5.7)	8 (1.7)	15 (3.2)	11 (2.3)	42 (8.8)	106 (22.3)	56 (11.8)	4 (.8)	29 (6.1)	5 (1.1)	
보호 종료 유형	일반 가정위탁	326	108 (33.1)	15 (4.6)	8 (2.5)	5 (1.5)	11 (3.4)	24 (7.4)	84 (25.8)	40 (12.3)	3 (.9)	26 (8.0)	2 (.6)	13.6
	민기토소	1,488	623 (41.9)	68 (4.6)	28 (1.9)	51 (3.4)	46 (3.1)	99 (6.7)	283 (19.0)	172 (11.6)	16 (1.1)	92 (6.2)	10 (.7)	
보호 종료 연차	연장종료	1,113	457 (41.1)	47 (4.2)	21 (1.9)	22 (2.0)	30 (2.7)	97 (8.7)	238 (21.4)	131 (11.8)	10 (.9)	52 (4.7)	8 (.7)	36.7*
	1년차	875	369 (42.2)	33 (3.8)	10 (1.1)	30 (3.4)	31 (3.5)	80 (9.1)	164 (18.7)	84 (9.6)	4 (.5)	63 (7.2)	7 (.8)	
	2년차	921	395 (42.9)	40 (4.3)	19 (2.1)	26 (2.8)	24 (2.6)	62 (6.7)	175 (19.0)	117 (12.7)	13 (1.4)	43 (4.7)	7 (.8)	
연차		805	316 (39.3)	42 (5.2)	20 (2.5)	17 (2.1)	21 (2.6)	54 (6.7)	182 (22.6)	102 (12.7)	9 (1.1)	38 (4.7)	4 (.5)	

주: 기타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자립수당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⑩ 없음'에 포함하고 사용은 했으나 사용처를 모르는 경우는 기타에 포함

보호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을 제외하고 받은 기타 지원액은 평균 116.2만원으로 나타났고, 약 383명만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비로 사용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역시 주거관리비(17.5%)로 나타났다.

〈표 11-17〉 기타 현금지원 금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83	136 (35.5)	134 (35.0)	113 (29.5)	116.2 (146.3)	
성별	남	184	64 (34.8)	62 (33.7)	58 (31.5)	125.5 (152.6)	1.2
	여	199	72 (36.2)	72 (36.2)	55 (27.6)	107.6 (140.0)	
연령	만 18~19세	119	37 (31.1)	48 (40.3)	34 (28.6)	111.1 (133.0)	2.1
	만 20~21세	162	63 (38.9)	55 (34.0)	44 (27.2)	101.8 (134.4)	
	만 22~23세	74	22 (29.7)	26 (35.1)	26 (35.1)	151.5 (175.5)	
	만 24세 이상	28	14 (50.0)	5 (17.9)	9 (32.1)	127.9 (171.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22	63 (51.6)	29 (23.8)	30 (24.6)	100.7 (146.6)	1.3
	2~3년제 대학교	112	28 (25.0)	51 (45.5)	33 (29.5)	115.6 (139.1)	
	4년제 대학교 이상	149	45 (30.2)	54 (36.2)	50 (33.6)	129.4 (150.9)	
부모 유무	있음	184	66 (35.9)	60 (32.6)	58 (31.5)	121.7 (146.4)	0.3
	없음	154	53 (34.4)	59 (38.3)	42 (27.3)	110.6 (146.4)	
	모름	45	17 (37.8)	15 (33.3)	13 (28.9)	113.0 (147.6)	
장애 유무	있음	21	7 (33.3)	6 (28.6)	8 (38.1)	125.0 (149.0)	0.3
	없음	362	129 (35.6)	128 (35.4)	105 (29.0)	115.7 (146.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67	31 (46.3)	10 (14.9)	26 (38.8)	137.9 (169.9)	1.2
	지역가입	18	9 (50.0)	3 (16.7)	6 (33.3)	138.9 (184.4)	
	의료급여	298	96 (32.2)	121 (40.6)	81 (27.2)	109.9 (137.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34	77 (32.9)	92 (39.3)	65 (27.8)	108.0 (135.3)	1.1
	공동생활가정	53	20 (37.7)	14 (26.4)	19 (35.8)	119.6 (141.7)	
	가정위탁	96	39 (40.6)	28 (29.2)	29 (30.2)	134.3 (172.1)	
	가정 위탁	대리	21	10 (47.6)	4 (19.0)	7 (33.3)	0
		친인척	41	18 (43.9)	12 (29.3)	11 (26.8)	
		일반	34	11 (32.4)	12 (35.3)	11 (32.4)	
보호 유형 2	아동양육시설	234	77 (32.9)	92 (39.3)	65 (27.8)	108.0 (135.3)	0.6
	공동생활가정	53	20 (37.7)	14 (26.4)	19 (35.8)	119.6 (141.7)	
	대리 가정위탁	21	10 (47.6)	4 (19.0)	7 (33.3)	130.7 (174.4)	
	친인척 가정위탁	41	18 (43.9)	12 (29.3)	11 (26.8)	131.4 (177.9)	
	일반 가정위탁	34	11 (32.4)	12 (35.3)	11 (32.4)	139.9 (168.6)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242	87 (36.0)	85 (35.1)	70 (28.9)	113.9 (144.8)	-0.4
	연장종료	141	49 (34.8)	49 (34.8)	43 (30.5)	120.1 (149.2)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135	39 (28.9)	52 (38.5)	44 (32.6)	116.1 (135.3)	2.9*
	2년차	115	44 (38.3)	39 (33.9)	32 (27.8)	117.6 (153.3)	
	3년차	93	38 (40.9)	34 (36.6)	21 (22.6)	92.8 (130.0)	
	4년차	23	6 (26.1)	9 (39.1)	8 (34.8)	127.1 (142.9)	
	5년차	17	9 (52.9)	0 (.0)	8 (47.1)	221.4 (222.5)	

구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83	136	(35.5)	134	(35.0)	113	(29.5)	116.2 (146.3)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343	121	(35.3)	125	(36.4)	97	(28.3)	110.3 (140.2)	-2.3*
	비해당 (자립 4~5년차)	40	15	(37.5)	9	(22.5)	16	(40.0)	167.2 (184.5)	

주: IQR을 활용하여 이상치 응답값을 제외함(2IQR 기준 적용)

〈표 11-18〉 기타 현금지원 사용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서리 등)	저축, 보험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x ²
전체	418	142 (34.0)	42 (10.0)	9 (2.2)	17 (4.1)	23 (5.5)	43 (10.3)	73 (17.5)	39 (9.3)	4 (1.0)	20 (4.8)	6 (1.4)	
성별	남	208 (39.9)	16 (7.7)	3 (1.4)	10 (4.8)	9 (4.3)	26 (12.5)	31 (14.9)	11 (5.3)	2 (1.0)	14 (6.7)	3 (1.4)	23.2
	여	210 (28.1)	26 (12.4)	6 (2.9)	7 (3.3)	14 (6.7)	17 (8.1)	42 (20.0)	28 (13.3)	2 (1.0)	6 (2.9)	3 (1.4)	***
연령	만 18~19세	127 (33.9)	13 (10.2)	3 (2.4)	6 (4.7)	9 (7.1)	13 (10.2)	22 (17.3)	9 (7.1)	1 (.8)	8 (6.3)	0 (.0)	
	만 20~21세	177 (29.4)	16 (9.0)	6 (3.4)	10 (5.6)	11 (6.2)	20 (11.3)	30 (16.9)	17 (9.6)	3 (1.7)	7 (4.0)	5 (2.8)	27.1
	만 22~23세	81 (44.4)	10 (12.3)	0 (.0)	1 (1.2)	2 (2.5)	5 (6.2)	13 (16.0)	9 (11.1)	0 (.0)	4 (4.9)	1 (1.2)	
	만 24세 이상	33 (33.3)	3 (9.1)	0 (.0)	0 (.0)	1 (3.0)	5 (15.2)	8 (24.2)	4 (12.1)	0 (.0)	1 (3.0)	0 (.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36 (28.7)	4 (2.9)	7 (5.1)	4 (2.9)	8 (5.9)	14 (10.3)	28 (20.6)	12 (8.8)	3 (2.2)	12 (8.8)	5 (3.7)	49.0
	2~3년제 대학교	117 (35.9)	17 (14.5)	2 (1.7)	7 (6.0)	9 (7.7)	15 (12.8)	16 (13.7)	7 (6.0)	0 (.0)	2 (1.7)	0 (.0)	***
	4년제 대학교 이상	165 (37.0)	21 (12.7)	0 (.0)	6 (3.6)	6 (3.6)	14 (8.5)	29 (17.6)	20 (12.1)	1 (.6)	6 (3.6)	1 (.6)	
부모유무	있음	203 (31.5)	19 (9.4)	3 (1.5)	7 (3.4)	10 (4.9)	24 (11.8)	37 (18.2)	21 (10.3)	4 (2.0)	11 (5.4)	3 (1.5)	15.2
	없음	167 (35.9)	17 (10.2)	4 (2.4)	8 (4.8)	10 (6.0)	13 (7.8)	27 (16.2)	17 (10.2)	0 (.0)	9 (5.4)	2 (1.2)	
	모름	48 (37.5)	6 (12.5)	2 (4.2)	2 (4.2)	3 (6.3)	6 (12.5)	9 (18.8)	1 (2.1)	0 (.0)	0 (.0)	1 (2.1)	
장애유무	있음	23 (39.1)	0 (.0)	2 (8.7)	0 (.0)	2 (8.7)	2 (8.7)	5 (21.7)	0 (.0)	0 (.0)	2 (8.7)	1 (4.3)	14
	없음	395 (33.7)	42 (10.6)	7 (1.8)	17 (4.3)	21 (5.3)	41 (10.4)	68 (17.2)	39 (9.9)	4 (1.0)	18 (4.6)	5 (1.3)	
건강보험종류	직장가입	82 (28.0)	3 (3.7)	4 (4.9)	4 (4.9)	4 (4.9)	10 (12.2)	17 (20.7)	7 (8.5)	0 (.0)	7 (8.5)	3 (3.7)	
	지역가입	26 (30.8)	3 (11.5)	0 (.0)	1 (3.8)	2 (7.7)	4 (15.4)	3 (11.5)	2 (7.7)	0 (.0)	2 (7.7)	1 (3.8)	22.5
	의료급여	310 (35.8)	36 (11.6)	5 (1.6)	12 (3.9)	17 (5.5)	29 (9.4)	53 (17.1)	30 (9.7)	4 (1.3)	11 (3.5)	2 (.6)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60 (35.0)	26 (10.0)	6 (2.3)	14 (5.4)	19 (7.3)	27 (10.4)	39 (15.0)	21 (8.1)	3 (1.2)	11 (4.2)	3 (1.2)	
	공동생활가정	56 (32.1)	8 (14.3)	0 (.0)	2 (3.6)	3 (5.4)	5 (8.9)	7 (12.5)	7 (12.5)	1 (1.8)	3 (5.4)	2 (3.6)	24.0
	가정위탁	102 (32.4)	8 (7.8)	3 (2.9)	1 (1.0)	1 (1.0)	11 (10.8)	27 (26.5)	11 (10.8)	0 (.0)	6 (5.9)	1 (1.0)	
	대리	22 (36.4)	1 (4.5)	2 (9.1)	0 (.0)	0 (.0)	2 (9.1)	6 (27.3)	2 (9.1)	0 (.0)	1 (4.5)	0 (.0)	
	친인척	44 (25.0)	6 (13.6)	0 (.0)	1 (2.3)	0 (.0)	5 (11.4)	11 (25.0)	6 (13.6)	0 (.0)	3 (6.8)	1 (2.3)	14.2
	일반	36 (38.9)	1 (2.8)	1 (2.8)	0 (.0)	1 (2.8)	4 (11.1)	10 (27.8)	3 (8.3)	0 (.0)	2 (5.6)	0 (.0)	

구분	사례 수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의류구입비(옷, 신발, 약세사리 등)	저축, 보험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부채상환	없음	기타	χ ²
전체	418	142 (34.0)	42 (10.0)	9 (2.2)	17 (4.1)	23 (5.5)	43 (10.3)	73 (17.5)	39 (9.3)	4 (1.0)	20 (4.8)	6 (1.4)	
보호유형 2	아동양육시설	260	91 (35.0)	26 (10.0)	6 (2.3)	14 (5.4)	19 (7.3)	27 (10.4)	39 (15.0)	21 (8.1)	3 (1.2)	11 (4.2)	3 (1.2)
	공동생활가정	56	18 (32.1)	8 (14.3)	0 (.0)	2 (3.6)	3 (5.4)	5 (8.9)	7 (12.5)	7 (12.5)	1 (1.8)	3 (5.4)	2 (3.6)
	대리 가정위탁	22	8 (36.4)	1 (4.5)	2 (9.1)	0 (.0)	0 (.0)	2 (9.1)	6 (27.3)	2 (9.1)	0 (.0)	1 (4.5)	0 (.0)
	친인척 가정위탁	44	11 (25.0)	6 (13.6)	0 (.0)	1 (2.3)	0 (.0)	5 (11.4)	11 (25.0)	6 (13.6)	0 (.0)	3 (6.8)	1 (2.3)
	일반 가정위탁	36	14 (38.9)	1 (2.8)	1 (2.8)	0 (.0)	1 (2.8)	4 (11.1)	10 (27.8)	3 (8.3)	0 (.0)	2 (5.6)	0 (.0)
보호종료유형	만기퇴소	262	79 (30.2)	32 (12.2)	8 (3.1)	11 (4.2)	16 (6.1)	23 (8.8)	47 (17.9)	21 (8.0)	4 (1.5)	15 (5.7)	6 (2.3)
	연장종료	156	63 (40.4)	10 (6.4)	1 (.6)	6 (3.8)	7 (4.5)	20 (12.8)	26 (16.7)	18 (11.5)	0 (.0)	5 (3.2)	0 (.0)
보호종료연차	1년차	145	51 (35.2)	18 (12.4)	3 (2.1)	9 (6.2)	9 (6.2)	16 (11.0)	20 (13.8)	10 (6.9)	1 (.7)	8 (5.5)	0 (.0)
	2년차	126	39 (31.0)	12 (9.5)	2 (1.6)	4 (3.2)	9 (7.1)	15 (11.9)	28 (22.2)	14 (11.1)	0 (.0)	2 (1.6)	1 (.8)
	3년차	100	37 (37.0)	6 (6.0)	3 (3.0)	2 (2.0)	3 (3.0)	9 (9.0)	16 (16.0)	11 (11.0)	3 (3.0)	6 (6.0)	4 (4.0)
	4년차	26	6 (23.1)	2 (7.7)	1 (3.8)	1 (3.8)	2 (7.7)	1 (3.8)	7 (26.9)	3 (11.5)	0 (.0)	2 (7.7)	1 (3.8)
	5년차	21	9 (42.9)	4 (19.0)	0 (.0)	1 (4.8)	0 (.0)	2 (9.5)	2 (9.5)	1 (4.8)	0 (.0)	2 (9.5)	0 (.0)
자립수당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371	127 (34.2)	36 (9.7)	8 (2.2)	15 (4.0)	21 (5.7)	40 (10.8)	64 (17.3)	35 (9.4)	4 (1.1)	16 (4.3)	5 (1.3)
	비해당 (자립 4~5년차)	47	15 (31.9)	6 (12.8)	1 (2.1)	2 (4.3)	2 (4.3)	3 (6.4)	9 (19.1)	4 (8.5)	0 (.0)	4 (8.5)	1 (2.1)

36.0

19.6

**

41.9

3.7

4. 보호종료 후 서비스 경험

보호종료 후 보호종료아동이 경험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경험률을 나타낸 것은 자립수당으로 48.5%이며,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41.9%, 디딤씨앗통장 34.2%, 임대주택 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등록금 및 장학금으로 14%, 438명이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만족도 평균 4.7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인 자립수당,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각각 4.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호종료아동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의 서비스들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거 영역의 서비스이지만 자립생활관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이용 경험도 낮고 만족도도 4.4점으로 동일 영역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았는데 시설보호 후 또 다른 시설 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19〉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3,104)		있음	%	만족도 평균 점수	
심리정서	멘토링	147	(4.7)	4.1	(0.9)
	심리상담	127	(4.1)	4.2	(0.9)
경제	자립수당	1,504	(48.5)	4.6	(0.6)
	자립정착금	1,300	(41.9)	4.6	(0.5)
	디딤씨앗통장(CDA)	1,058	(34.1)	4.5	(0.6)
주거	임대주택	577	(18.6)	4.6	(0.6)
	자립생활관	173	(5.6)	4.4	(0.7)
	주거지원통합서비스	158	(5.1)	4.6	(0.5)
금융	금융 교육 및 정보제공	69	(2.2)	4.4	(0.7)
	청년희망기움통장	89	(2.9)	4.4	(0.7)
	청년내일채움공제	110	(3.5)	4.4	(0.7)
진로 진학 학업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	124	(4.0)	4.3	(0.7)
	등록금 및 장학금	438	(14.1)	4.7	(0.5)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337	(10.9)	4.1	(0.9)
	내일배움카드	183	(5.9)	4.3	(0.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11	(3.6)	4.4	(0.8)
기타	문화지원	796	(25.6)	4.5	(0.6)
	법률지원	14	(0.5)	4.1	(0.7)

5. 보호종료 후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

가. 보호종료 후 어려움과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으로 1순위~3순위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이 부족하여 발생한 경제적 문제로 58.5%로 보호종료아동 최소 2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할 집 문제가 45.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의 부족이 44.7%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1순위의 1위는 23.6%가 응답한 거주할 집 문제로 나타났으며,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22.1%)과 생활비, 학비 등 돈의 부족(21.4%)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2순위의 1위는 생활비, 학비 등 돈의 부족이 2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거주할 집 문제가 13.2%의 2위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3순위의 1위는 16.2%의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의 심리적 부담'으로 심리사회적 어려움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20〉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구분	(단위: 명, %)				통합
	1순위	2순위	3순위		
거주할 집 문제	733 (23.6)	408 (13.2)	265 (8.9)	1,406 (45.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685 (22.1)	321 (10.4)	383 (12.9)	1,389 (44.7)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665 (21.4)	687 (22.2)	472 (15.9)	1,824 (58.8)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252 (8.1)	414 (13.4)	392 (13.2)	1,058 (34.1)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216 (7.0)	347 (11.2)	480 (16.2)	1,043 (33.6)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170 (5.5)	191 (6.2)	99 (3.3)	460 (14.8)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120 (3.9)	250 (8.1)	217 (7.3)	587 (18.9)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106 (3.4)	229 (7.4)	361 (12.1)	696 (22.4)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100 (3.2)	157 (5.1)	169 (5.7)	426 (13.7)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57 (1.8)	90 (2.9)	134 (4.5)	281 (9.1)	

보호종료 후 어려웠던 경험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원은 역시 경제적 지원으로 85.2%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66.8%로 분석되었다. 자립지원의 필요도 1순위의 1위는 64.8%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원 20.2%로 나타났다. 2순위의 1위는 역시 주거지원으로 38.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이 14.8%로 나타났다. 한편, 3순위의 1위는 21.6%의 건강지원이며, 2위는 취업, 직업 관련 지원으로 18.8%를 나타냈다.

〈표 11-21〉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경제적 지원(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2,012	(64.8)	459	(14.8)	174	(5.6)	2,645	(85.2)
주거지원	628	(20.2)	1207	(38.9)	238	(7.7)	2,073	(66.8)
건강지원(의료비, 건강검진 등)	117	(3.8)	410	(13.2)	669	(21.6)	1,196	(38.5)
학업지원	42	(1.4)	139	(4.5)	267	(8.6)	448	(14.4)
취업, 직업 관련 지원	107	(3.4)	343	(11.1)	582	(18.8)	1,032	(33.2)
(심리)상담지원	31	(1.0)	76	(2.4)	113	(3.6)	220	(7.1)
법률지원	9	(0.3)	37	(1.2)	56	(1.8)	102	(3.3)
사회적 관계(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지원	8	(0.3)	52	(1.7)	93	(3.0)	153	(4.9)
퇴소 후 지지해 줄 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24	(0.8)	43	(1.4)	72	(2.3)	139	(4.5)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12	(0.4)	67	(2.2)	172	(5.6)	251	(8.1)
자립 생활 체험 (예, 자립체험관)	7	(0.2)	28	(0.9)	31	(1.0)	66	(2.1)
선배로부터의 자립생활 멘토링	5	(0.2)	21	(0.7)	39	(1.3)	65	(2.1)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15	(0.5)	32	(1.0)	82	(2.6)	129	(4.2)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6	(0.5)	42	(1.4)	105	(3.4)	163	(5.3)
경제교육 (저축, 대출, 채무처리, 집 계약 등)	71	(2.3)	148	(4.8)	402	(13.0)	621	(20.0)
기타	0	0.0	0	0.0	3	(0.1)	3	(0.1)

나. 사후 관리 빈도

보호종료 후 적정 사후 관리 빈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8.9%에 불과하여, 81.1% 즉 10명 중 8명 이상은 보호종료 후에도 시설선생님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과 연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27.9%가 ‘월 1회’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개월 1회’가 20.3%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1회’가 12.3%였으며, ‘주1회’도 12.1%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남자 보호종료아동이 여자보다 잦은 연락을 원했고, 연령과 보호종료연차가 낮을수록 작은 연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가 없는 보호종료아동과 장애가 있는 아동이 더 잦은 연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22〉 보호종료 후 시설선생님 또는 가정위탁센터 선생님의 적정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다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x ²
전체	3,104	588 (18.9)	375 (12.1)	865 (27.9)	630 (20.3)	381 (12.3)	205 (6.6)	60 (1.9)	
성별									
남	1,461	270 (18.5)	196 (13.4)	429 (29.4)	306 (20.9)	156 (10.7)	85 (5.8)	19 (1.3)	21.2
여	1,643	318 (19.4)	179 (10.9)	436 (26.5)	324 (19.7)	225 (13.7)	120 (7.3)	41 (2.5)	***
연령									
만 18~19세	600	87 (14.5)	102 (17.0)	191 (31.8)	125 (20.8)	62 (10.3)	22 (3.7)	11 (1.8)	
만 20~21세	1,289	275 (21.3)	150 (11.6)	353 (27.4)	263 (20.4)	145 (11.2)	76 (5.9)	27 (2.1)	64.3
만 22~23세	778	153 (19.7)	83 (10.7)	212 (27.2)	154 (19.8)	103 (13.2)	61 (7.8)	12 (1.5)	***
만 24세 이상	437	73 (16.7)	40 (9.2)	109 (24.9)	88 (20.1)	71 (16.2)	46 (10.5)	10 (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249 (21.6)	168 (14.6)	309 (26.8)	201 (17.4)	121 (10.5)	78 (6.8)	28 (2.4)	46.5
2~3년제 대학교	524	93 (17.7)	65 (12.4)	157 (30.0)	113 (21.6)	61 (11.6)	21 (4.0)	14 (2.7)	***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246 (17.3)	142 (10.0)	399 (28.0)	316 (22.2)	199 (14.0)	106 (7.4)	18 (1.3)	
부모 유무									
있음	1,512	284 (18.8)	160 (10.6)	407 (26.9)	332 (22.0)	205 (13.6)	95 (6.3)	29 (1.9)	
없음	1,198	225 (18.8)	160 (13.4)	347 (29.0)	231 (19.3)	139 (11.6)	75 (6.3)	21 (1.8)	21.3
모름	394	79 (20.1)	55 (14.0)	111 (28.2)	67 (17.0)	37 (9.4)	35 (8.9)	10 (2.5)	**
장애 유무									
있음	132	27 (20.5)	33 (25.0)	29 (22.0)	23 (17.4)	12 (9.1)	4 (3.0)	4 (3.0)	26.2
없음	2,972	561 (18.9)	342 (11.5)	836 (28.1)	607 (20.4)	369 (12.4)	201 (6.8)	56 (1.9)	***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181 (18.9)	102 (10.6)	257 (26.8)	187 (19.5)	128 (13.3)	87 (9.1)	18 (1.9)	
지역가입	374	75 (20.1)	43 (11.5)	103 (27.5)	78 (20.9)	42 (11.2)	26 (7.0)	7 (1.9)	20.1
의료급여	1,770	332 (18.8)	230 (13.0)	505 (28.5)	365 (20.6)	211 (11.9)	92 (5.2)	35 (2.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211 (14.9)	175 (12.4)	434 (30.6)	347 (24.5)	152 (10.7)	83 (5.9)	15 (1.1)	113.5
공동생활가정	332	53 (16.0)	56 (16.9)	103 (31.0)	67 (20.2)	31 (9.3)	10 (3.0)	12 (3.6)	***
가정위탁	1,355	324 (23.9)	144 (10.6)	328 (24.2)	216 (15.9)	198 (14.6)	112 (8.3)	33 (2.4)	
가정 위탁									
대리	403	92 (22.8)	43 (10.7)	97 (24.1)	63 (15.6)	64 (15.9)	37 (9.2)	7 (1.7)	
친인척	564	133 (23.6)	64 (11.3)	138 (24.5)	83 (14.7)	80 (14.2)	51 (9.0)	15 (2.7)	7.7
일반	388	99 (25.5)	37 (9.5)	93 (24.0)	70 (18.0)	54 (13.9)	24 (6.2)	11 (2.8)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다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x ²
보호 유형 2	전체	3,104	588 (18.9)	375 (12.1)	865 (27.9)	630 (20.3)	381 (12.3)	205 (6.6)	60 (1.9)	122.0 ***
	아동양육시설	1,417	211 (14.9)	175 (12.4)	434 (30.6)	347 (24.5)	152 (10.7)	83 (5.9)	15 (1.1)	
	공동생활가정	332	53 (16.0)	56 (16.9)	103 (31.0)	67 (20.2)	31 (9.3)	10 (3.0)	12 (3.6)	
	대리 가정위탁	403	92 (22.8)	43 (10.7)	97 (24.1)	63 (15.6)	64 (15.9)	37 (9.2)	7 (1.7)	
	친인척 가정위탁	564	133 (23.6)	64 (11.3)	138 (24.5)	83 (14.7)	80 (14.2)	51 (9.0)	15 (2.7)	
보호 종료 유형	일반 가정위탁	388	99 (25.5)	37 (9.5)	93 (24.0)	70 (18.0)	54 (13.9)	24 (6.2)	11 (2.8)	5.8
	만기퇴소	1,774	338 (19.1)	220 (12.4)	508 (28.6)	354 (20.0)	215 (12.1)	103 (5.8)	36 (2.0)	
보호 종료 연차	연장종료	1,330	250 (18.8)	155 (11.7)	357 (26.8)	276 (20.8)	166 (12.5)	102 (7.7)	24 (1.8)	33.2
	1년차	875	151 (17.3)	129 (14.7)	245 (28.0)	181 (20.7)	105 (12.0)	50 (5.7)	14 (1.6)	
	2년차	921	183 (19.9)	120 (13.0)	249 (27.0)	192 (20.8)	105 (11.4)	54 (5.9)	18 (2.0)	
	3년차	805	158 (19.6)	87 (10.8)	239 (29.7)	148 (18.4)	101 (12.5)	54 (6.7)	18 (2.2)	
	4년차	280	52 (18.6)	23 (8.2)	72 (25.7)	63 (22.5)	35 (12.5)	29 (10.4)	6 (2.1)	
자립 수당 대상	5년차	223	44 (19.7)	16 (7.2)	60 (26.9)	46 (20.6)	35 (15.7)	18 (8.1)	4 (1.8)	18.6 ***
	해당 (자립 1~3년차)	2,601	492 (18.9)	336 (12.9)	733 (28.2)	521 (20.0)	311 (12.0)	158 (6.1)	50 (1.9)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96 (19.1)	39 (7.8)	132 (26.2)	109 (21.7)	70 (13.9)	47 (9.3)	10 (2.0)	

다. 선호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보호종료아동이 선호하는 자립지원정보 제공의 유형을 살펴보면, 41%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7.5%가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부터의 정보제공을 원했으며, 16.7%는 시설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했다. 남자 보호종료아동이 여자보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시설선생님(위탁부모)로부터의 정보제공을 원한 반면, 여자 보호종료아동은 온라인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보호종료연차가 낮을수록, 장애가 있는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시설선생님(위탁부모)로부터의 정보제공을 원했으며, 아동양육시설은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선생님, 가정위탁은 온라인으로부터 자립관련 정보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23〉 선호하는 자립지원정보 제공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립지원 전담요원	시설선생님 (위탁부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카카오채널 등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기타	χ^2
전체		3,104	854 (27.5)	518 (16.7)	1,274 (41.0)	426 (13.7)	32 (1.0)	
성별	남	1,461	435 (29.8)	269 (18.4)	525 (35.9)	217 (14.9)	15 (1.0)	30.2***
	여	1,643	419 (25.5)	249 (15.2)	749 (45.6)	209 (12.7)	17 (1.0)	
연령	만 18~19세	600	201 (33.5)	127 (21.2)	180 (30.0)	80 (13.3)	12 (2.0)	82.7***
	만 20~21세	1,289	352 (27.3)	221 (17.1)	502 (38.9)	201 (15.6)	13 (1.0)	
	만 22~23세	778	196 (25.2)	112 (14.4)	360 (46.3)	106 (13.6)	4 (5)	
	만 24세 이상	437	105 (24.0)	58 (13.3)	232 (53.1)	39 (8.9)	3 (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154	334 (28.9)	203 (17.6)	422 (36.6)	174 (15.1)	21 (1.8)	39.5***
	2~3년제 대학교	524	156 (29.8)	100 (19.1)	193 (36.8)	72 (13.7)	3 (6)	
	4년제 대학교 이상	1,426	364 (25.5)	215 (15.1)	659 (46.2)	180 (12.6)	8 (6)	
부모 유무	있음	1,512	415 (27.4)	266 (17.6)	634 (41.9)	184 (12.2)	13 (9)	11.8
	없음	1,198	341 (28.5)	185 (15.4)	472 (39.4)	187 (15.6)	13 (1.1)	
	모름	394	98 (24.9)	67 (17.0)	168 (42.6)	55 (14.0)	6 (1.5)	
장애 유무	있음	132	39 (29.5)	36 (27.3)	24 (18.2)	30 (22.7)	3 (2.3)	37.2***
	없음	2,972	815 (27.4)	482 (16.2)	1,250 (42.1)	396 (13.3)	29 (1.0)	
건강 보험 종류	직장가입	960	256 (26.7)	168 (17.5)	430 (44.8)	93 (9.7)	13 (1.4)	38.2***
	지역가입	374	99 (26.5)	52 (13.9)	177 (47.3)	45 (12.0)	1 (3)	
	의료급여	1,770	499 (28.2)	298 (16.8)	667 (37.7)	288 (16.3)	18 (1.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480 (33.9)	275 (19.4)	450 (31.8)	196 (13.8)	16 (1.1)	183.6***
	공동생활가정	332	74 (22.3)	96 (28.9)	109 (32.8)	50 (15.1)	3 (9)	
	가정위탁	1,355	300 (22.1)	147 (10.8)	715 (52.8)	180 (13.3)	13 (1.0)	
	가정 위탁	대리	403	94 (23.3)	33 (8.2)	228 (56.6)	44 (10.9)	17.2**
		친인척	564	116 (20.6)	63 (11.2)	310 (55.0)	70 (12.4)	
보호 유형2	일반	일반	388	90 (23.2)	51 (13.1)	177 (45.6)	66 (17.0)	200.2**
		일반	388	90 (23.2)	51 (13.1)	177 (45.6)	66 (17.0)	
	아동양육시설	1,417	480 (33.9)	275 (19.4)	450 (31.8)	196 (13.8)	16 (1.1)	200.2**
	공동생활가정	332	74 (22.3)	96 (28.9)	109 (32.8)	50 (15.1)	3 (9)	
	대리 가정위탁	403	94 (23.3)	33 (8.2)	228 (56.6)	44 (10.9)	4 (1.0)	
	친인척 가정위탁	564	116 (20.6)	63 (11.2)	310 (55.0)	70 (12.4)	5 (9)	
보호 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506 (28.5)	321 (18.1)	668 (37.7)	257 (14.5)	22 (1.2)	21.5***
	연장종료	1,330	348 (26.2)	197 (14.8)	606 (45.6)	169 (12.7)	10 (8)	
	연차							
보호 종료 연차	1년차	875	277 (31.7)	165 (18.9)	305 (34.9)	114 (13.0)	14 (1.6)	36.2***
	2년차	921	238 (25.8)	150 (16.3)	399 (43.3)	125 (13.6)	9 (1.0)	
	3년차	805	214 (26.6)	121 (15.0)	336 (41.7)	127 (15.8)	7 (9)	
	4년차	280	65 (23.2)	42 (15.0)	137 (48.9)	35 (12.5)	1 (4)	
	5년차	223	60 (26.9)	40 (17.9)	97 (43.5)	25 (11.2)	1 (4)	
자립 수당 대상	해당 (자립 1~3년차)	2,601	729 (28.0)	436 (16.8)	1,040 (40.0)	366 (14.1)	30 (1.2)	9.7**
	비해당 (자립 4~5년차)	503	125 (24.9)	82 (16.3)	234 (46.5)	60 (11.9)	2 (4)	

제3절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교

1.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40.2%는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은 35.8%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험이 약 4%이상 낮았다.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나타낸 프로그램은 두 집단 모두 일상 생활기술로 각각 41.1%와 44.6%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이 각각 40.8%, 41.4%로 비슷한 참여 경험률을 나타냈다. 자립준비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는 보호종료예정아동 4.11점과 보호종료아동 3.88점으로 ‘도움이 되었다’의 응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24〉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중복 응답)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일상 생활기술 프로그램	301	41.1	1,384	44.6
자기보호 프로그램	273	37.3	1,144	36.9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	192	26.2	758	24.4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299	40.8	1,286	41.4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226	30.9	830	26.7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	263	35.9	1,179	38.0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	138	18.9	476	15.3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	187	25.5	931	30.0
참여 프로그램 무	294	40.2	1,111	35.8

〈표 11-25〉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도움정도

(단위: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자립교육프로그램 도움정도	4.11	0.73	3.88	0.86	5.1***

2. 자립 관련 서비스 경험

보호 기간 중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에 대해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8.7%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은 13%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험이 약 4.3%이상 높았다.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나타낸 서비스 두 집단 모두 일상 디딤씨앗통장으로 각각 66.0%와 72.8%를 나타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과 자립체험관 이용 경험은 보호종료아동이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관련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각 4.4점과 4.28점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26〉 자립 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중복 응답)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732	100.0	3,104	100.0
디딤씨앗통장(CDA)	483	66.0	2,261	72.8
자립체험관 이용	151	20.6	835	26.9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203	27.7	787	25.4
자립생활 멘토링	155	21.2	547	17.6
용돈 지원	338	46.2	1,299	41.8
장학금	359	49.0	884	28.5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	188	25.7	743	23.9
의료서비스	338	46.2	1,131	36.4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79	24.5	570	18.4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79	29.9	815	26.3
기타	11	1.5	41	1.3
경험 무	64	8.7	402	13.0

〈표 11-27〉 자립 관련 서비스 경험의 도움정도

(단위: 점)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t(F)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관련 서비스 도움정도	4.40	0.66	4.28	0.75	3.8***

3. 자립 관련 서비스 욕구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각각 67.6%와 64.8%를 나타냈으며, 1순위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지원은 주거지원으로 각각 19.7%와 20.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11-28〉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성별	보호종료예정아동				보호종료아동			
	1순위		1+2+3순위		1순위		1+2+3순위	
전체	732	(100)	2196	(300)	3,104	(100)	9,306	(300)
경제적 지원 (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495	(67.6)	663	(90.6)	2,012	(64.8)	2,645	(85.2)
주거지원	144	(19.7)	566	(77.3)	628	(20.2)	2,073	(66.8)
건강지원(의료비, 건강검진 등)	28	(3.8)	348	(47.5)	117	(3.8)	1196	(38.5)
학업지원	13	(1.8)	121	(16.5)	42	(1.4)	448	(14.4)
취업, 직업 관련 지원	32	(4.4)	257	(35.1)	107	(3.4)	1,032	(33.2)
(심리)상담지원	1	(0.1)	16	(2.2)	31	(1.0)	220	(7.1)
법률지원	2	(0.3)	29	(4.0)	9	(0.3)	102	(3.3)
사회적 관계지원	5	(0.7)	39	(5.3)	8	(0.3)	153	(4.9)
가족 관계 지원	2	(0.3)	15	(2.0)	24	(0.8)	139	(4.5)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4	(0.5)	49	(6.7)	12	(0.4)	251	(8.1)
자립 생활 체험(예, 자립체험관)	2	(0.3)	10	(1.4)	7	(0.2)	66	(2.1)
선배로부터의 자립생활 멘토링			10	(1.4)	5	(0.2)	65	(2.1)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3	(0.4)	48	(6.6)	15	(0.5)	129	(4.2)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	(0.1)	23	(3.1)	16	(0.5)	163	(5.3)
경제교육	-	-	-	-	71	(2.3)	621	(20.0)
기타	-	-	2	(0.3)	0	0.0	3	(0.1)

제4절 조사결과 비교

1.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실태 비교

가. 디딤씨앗통장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2012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20년도는 평균 646.4만원으로 2012년 373만원보다 약 270만원 높았다. 특히, 2012년도의 경우 연장보호아동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평균 가정외보호기간이 2020년도 보다 길 수 있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은 과거 2012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29〉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 - 시계열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평균	
2020	646.4	
2012	373	

주: 2012년은 연장보호아동을 조사하였고, 2020년은 일반보호와 연장 보호아동을 모두 조사하였음.

2.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비교

가. 보호종료 후 어려움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을 2016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6년도에는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31.1%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거주할 집 문제가 24.2%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도의 조사에서는 거주할 집 문제가 23.6%로 가장 높았고, 취업 정보, 기술 부족이 22.1%,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21.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자립수당의 제공,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금액 증액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주거와 취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30〉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0년
거주할 집 문제	287 (24.2)	733 (23.6)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81 (6.8)	685 (22.1)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370 (31.1)	665 (21.4)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91 (7.7)	252 (8.1)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120 (10.1)	216 (7.0)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42 (3.5)	170 (5.5)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44 (3.7)	120 (3.9)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39 (3.3)	106 (3.4)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21 (1.8)	100 (3.2)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34 (2.9)	57 (1.8)
기타	59 (5.0)	-

주: 2016년은 가장 어려운 것 1가지 응답, 2020년은 1~3순위 응답 중 1순위 제시

나. 보호종료 후 필요 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자립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2016년도 결과와 유사하다. 2020년도 또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 각각 64.8%와 20.2%로 1, 2순위로 나타나 2016년도의 결과와 유사하여 보호종료아동은 여전히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31〉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시계열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0년
경제적 지원 (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494(41.1)	2,012 (64.8)
주거지원	437(36.3)	628 (20.2)
건강지원 (의료비, 건강검진 등)	50(4.2)	117 (3.8)
학업지원	54(4.5)	42 (1.4)
취업, 직업 관련 지원	-	107 (3.4)
(심리)상담지원	31(2.6)	31 (1.0)
법률지원	12(1.0)	9 (0.3)
사회적 관계(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지원	-	8 (0.3)
퇴소 후 지지해 줄 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	24 (0.8)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29(2.4)	12 (0.4)
자립 생활 체험 (예, 자립체험관)	-	7 (0.2)
선배로부터의 자립생활 멘토링	-	5 (0.2)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	15 (0.5)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	16 (0.5)
경제교육	-	71 (2.3)

주: 2016년은 가장 어려운 것 1가지 응답, 2020년은 1~3순위 응답 중 1순위 제시

다. 경제적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지원 금액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2012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금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립정착금은 2012년도 328만원, 2016년도 424.8만에서 2020년도 498.3만원으로 약 5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디딤씨앗통장의 경우에도 2012년도 103만원, 2016년도 328.3만원에서 2020년도 612.1만원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 조사 결과의 약 6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타 현금지원은 오히려 2012년도의 147만원보다 적은 116.2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제공되고,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보호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확대·제공됨으로써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32〉 지원금 받은 금액 - 시계열 비교

(단위: 만원)

연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CDA)	기타 현금지원
2020	498.3	612.1	116.2
2016	424.8	328.8	299.8
2012	382	103	147

제5절 소결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호 당시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0%~40%의 보호아동이 8개 영역 중 1개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아동의 경험률이 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중심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제한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도 드러났는데 본 조사 포함된 자립관련 서비스 10개 중 1개도 이용해 경험이 없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 보호아동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지

원으로 나타났는데, 보호 중,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경험은 두 집단 모두 41% 정도에 그쳤으며, 디딤씨앗통장의 금액을 모르고 있는 아동이 64.6%로 나타나 보호 중 경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 연령과 학령이 낮을수록 주 1회, 또는 월 1회의 더 빈번한 연락을 원했고,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선생님, 아동양육시설은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 그리고 가정위탁은 온라인을 통해 자립지원관련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했다. 이는 현재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부터 자립준비 지원과 관리를 받은 경험이 많은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은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부터의 자립정보제공을 원했고, 그렇지 못한 공동생활가정은 주양육자인 시설선생님을, 그 마저도 어려운 가정위탁은 온라인을 통한 자립지원 정보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립관련 서비스 중, 디딤씨앗통장, 장학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가 반영됨과 동시에, 최근 자립정착금의 상향 조정(지자체별 500만원), 자립수당의 제공, 디딤씨앗 통장 금액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긴 가정외보호 기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반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저축액이 가장 낮아 자립지원 서비스 전반에 있어 가장위탁 보호아동의 양적·질적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경제적 지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그리고 자립수당 모두 식비나 주거관리비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사용처에서는 차이가 타났다. 일회성의 목적인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은 저축·보험이나 교육비로 사용되었고, 자립수당은 교통/통신비로 쓰이면서 생활비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표 11-33〉 경제적 서비스별 사용처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자립정착금	식비	주거관리비	저축·보험

디딤씨앗통장(CDA)	주거관리비	식비	교육비
자립수당	식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

관련하여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보호종료 전·후 아동 모두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1, 2순위로 꼽았으며, 이는 과거 2016년도의 조사와도 흡사하다. 다만, 보호종료 후 어려움으로 2016년도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1순위인 반면, 2020년도 조사에서는 거주할 집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나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에 생활비, 학비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거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2장

결론 및 제언

제 12장 결론 및 제언

공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리양육체계의 일시적인 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외보호아동 모니터링 체계와 원가정 지원체계의 부재 등 아동보호체계의 복합적, 구조적인 문제로 가정외보호 기간이 상당히 길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동이 성인의 연령에 도달하여 대리양육체계를 떠나기 때문에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은 11년~12년 이상으로(이상정 외, 2019a; 이상정 외, 2019b), 이는 사실상 원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주체였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부모로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상황과 보호종료 후 자립 실태, 그리고 자립 지원에 대한 욕구 파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조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8년도 이후 4년을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2020년도 수행된 본 조사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심리정서,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자립준비 상황과 자립 실태, 그리고 자립 지원 욕구를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주요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수검률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연 1회의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고(보건복지부, 2020), 지자체별로 치과 검진을 지원기 때문에 해석된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수검률이 시설보호아동보다 낮았으며,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아동의 경우에도 일반 청년에 비해 낮지 않았지만,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이 가정위탁에 비해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더욱더 개별화된 보호 및 자립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질병 경험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질환과 신경·정신과 질환의 유경험률의 2016년도에 비해 많이 높아져 최근의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환경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질병에 대해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그 이유로 ‘치료비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도 높아졌다. 건강관리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자립준비 교육을 내실 있게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열악한 고용·취업상황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의료급여를 받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공동생활가정이나 양육시설 아동의 의료수급 비율이 가정위탁에 비해 높았는데, 보장시설 거주자로서 수급권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히려 의료급여를 받는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수급률이 더 높고, 질병 치료 유경험률은 낮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의료급여의 혜택과 지원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경험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전체의 9.7%로, 약 10명 1명 정도가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에 이어 건강보험과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체납 경험이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39%,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응답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도 나타나 이를 해석해 볼 때 건강보험과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이해도 낮을 수 있으며, 보호종료 전 건강 관리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병행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심리정서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정도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자립 영역은 보호종료아동의 점수가 높지만, 심리정서적 자립 그리고 사회적 자립 영역은 오히려 보호종료아동의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보호종료 후에 심리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자립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우울·불안, 정서조절감, 공격성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에서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낮은 지표를 나타내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삶의 만족도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 그 중에서도 대리 또는 친인척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시설 아동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정 외(2019a)의 결과와 일치하며,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보호 만족도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이상정 외, 2017), 생활 환경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위탁의 생활 여건과 서비스는 가정의 환경과 위탁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노충래 외, 2009). 특히, 대리 또는 친인척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많은 아동이 열악한 주거 환경, 빈곤, 대리위탁 부모인 조부모와의 관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설처럼 생활환경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입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이상정 외, 2017).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사례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생각 비율은 이들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아동·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자살 생각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 가정생활문제, 정신과적 문제 등이 주요하여 일반 아동·청소년과 차이가 나타났다. 보호대상 아동은 가정외보호 조치 전·후 가정 내 학대/폭력, 부모의 이혼, 부모 또는 가족과의 이별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가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정외보호 환경에서 일반 아동·청소년과 다른 성장 경험을 한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과정에 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교육이 필요하며, 보호종료 후의 사후 관리 및 관련 지원이 필수적으로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의료보장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보호종료아동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정신과 상담치료에 대한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신과 상담치료 관련 의료 지원 내용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개선하고, 보호종료 후 5년 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보장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자립 기간 동안 전문적인 상담/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 이해 부족으로 자발적 치료 경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기반의 사후관리, 사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의 심리상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기관을 연계하고 정기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정신건강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3~4년차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례관리기반의 사후관리가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과정에서부터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지지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설보호를 받았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후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원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회적지지 집단의 연계, 관리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중 과정에서 자립 계획 및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원가족 참여의 유도,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방안의 구체적 탐색과 실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속적인 멘토-멘티 관계 형성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선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예; 바람개비 서포터즈) 지속적으로 라포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자립 롤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사회적 관계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부모가 있는 비율이 약 2명 중 1명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와의 연락이나 만남이 거의 없고, 만나거나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관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과거에 비해서도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는 비율이 감소했고,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증가했다. 또한, 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1순위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 보호종료아동은 ‘학교나 동네 친구’라고 하였으며, 이를 1~3순위까지 확대하면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약 60%는 모두 ‘학교나 동네 친구’라고 하였다. 즉, 이들 아동에게는 부모보다 외부인에 해당하는 ‘친구’가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이며, 친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원가정 지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보호기간 동안 부모와가 관계 회복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가족 복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나, 원가족 지원체계의 부재로 부모가 있는 아동이 가정외보호체제에서 장기간 보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립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보호체계 내 원가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와 자립지원의 과정에서 원가족과 부모를 지속적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1순위,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보호체계와 자립지원체계의 주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다. 일선 시설의 보호담당자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고,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는 지역간 체계간 격차와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이상정 외, 2019a),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은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부터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또한, 대리보호체계 중에서도 양육시설을 제외한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동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자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보호종료 후에도 이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아동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선의 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지 체계 발굴을 위해서는 자립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가족, 선생님, 멘토, 친구 등 의미있는 주변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보호종료 후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족이나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나 소득, 교육 지원 등의 자립관련 서비스가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종료아동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이며, 보호과정의 시설선생님(위탁부모)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 가족, 멘토,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 주거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이었다. 주거지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지역을 선호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도 지역이나 중소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곳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기간 중 아동의 주거지역과 주거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 주거에서 거주하거나 주거 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거비 부담이 근로소득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10명 중 1명은 보호종료 이후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즉, 보호종료예정아동이 15세에 달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희망하는 주거유형과 영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 중 약 7명이 보호종료 후 주거 유형으로 ‘나 혼자 사는 집’을 선호하였고, 보호종료아동의 가구원 수는 평균 1.9명, 1인 가구 비율이 61.6%로 일반 국민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시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주거지 선택 시 주거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주거상태나 주거환경에 비해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일반 청년들의 주거 관련 수요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호종료청년' 1인 가구의 요구를 고려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현행 청년정책 내 주거지원제도와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 이직, 진학 등 생활환경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이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일자리 연계형,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 등 '청년특화주택'의 이용(진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급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관계부처합동, 2020, pp.19~20).

보호종료예정아동 2명 중 1명 이상은 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정부/공공기관 차원의 주택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 외에도 자립정착금(43%), 디딤씨앗통장(32.2%), 자립수당(24.2%), 그리고 근로소득(23.6%)을 활용하겠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은 공공의 주택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비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근로소득으로 주거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로 8%p 높아졌다. 본 조사 결과는 최근 확대된 정부차원의 자산형성 및 현금지원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관련 지원들의 보완·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딤씨앗통장을 포함한 후원금 등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에게 구체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맞는 자산형성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이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자립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자립역량에는 취업·창업을 위한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 뿐 아니라 심리·정서안정과 원만한 대인·사회관계, 학업 유지 및 학력 취득 등 홀로서기에 반드시 필요한 다면적이고 실질적인 핵심역량을 포함한다. 셋째, 보호종료 직후 1회 수령하는 자립정착금의 경우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용도 계획이 없거나 아동이 보증금이 있는 주택에 거주해야 할 경우라면 이 자립정착금을 주택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낭비와 탕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수당의 경우 지급 기한이 유한하므로 자립수당을

임대료 등 주거비로 활용하는 것은 주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자립수당은 개인이 용도를 정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비를 자립수당에만 의존하는 경우라면 아동과 함께 적절한 주거 대안을 모색하는 등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되지 못하면 보호종료아동은 위기와 탈위기의 반복적인 상황에 놓이며, 노숙, 범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이상정 외, 2019b). 따라서 주거 안정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성패를 결정할 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아동 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획일적 주거지원은 주거 불안을 유발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개인별 주거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주거지원제도로의 이동이나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영속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취약 주거 경험률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성과관리 지표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취약 경험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범죄 피해 등 2차적인 위기를 유발하거나 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 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2명 이상이 보호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지인의 집, 구급시설, 노숙,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취약 주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호종료 연차가 4, 5년 차인 경우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따라서 최소한 보호종료 후 5년까지는 이사 과정에서 주택 선정과 계약, 집기 구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예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마이홈 포털’을 통한 맞춤형 정보를 이용하고, 지자체별 주거복지센터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운영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5. 교육 영역

교육수준은 보호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4년제 대학이상(재학, 중퇴/휴학,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리보호 유형은 가정위탁이었으며,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도 2-3년 졸업과 4년제 졸업 비율이 아동양육시설과 공

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의 2~3배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이 일반 가정위탁보다 높은 편이었다. 한편, 연장보호종료일 경우, 만기퇴소에 비해 2-3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졸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에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등록할 경우, 교육을 받는 동안은 기간에 제한 없이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리/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와 혈연관계로 일반 가정위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이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 진학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호종료가 이루어지고 보호종료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모호하기 때문에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였다. 본 조사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도, 학교 진학 후 중퇴/휴학 한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보호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 수준은 취업의 질과 소득 수준과 관련성이 높고, 삶의 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상급학교 진학을 독려하고, 교육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대학입학금 또는 대학생활 안정자금, 민간재단 장학금 등이 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본 조사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의 82%가 사용할 정도로 확대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명 중의 1명 이상이 학업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진학 후 중퇴 또는 휴학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외에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1회성의 대학입학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은 지역적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실비, 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크다(정선욱 외, 2019, 재인용). 민간재단 장학금은 자격 요건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2019년도에 도입된 자립수당 대상자는 비대상자에 비해 자립수당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4년제 대학 기준 교육 기간을 고려해서라도 자립수당을 현행 보호종료 3년차에서 법적 사후관리기간인 5년차까지

확대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보호종료예정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고, 상급학교 진학보다 취업 진로계획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보호아동이 자립을 하려면 경제적 상황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학업 성적 관리나 적성 개발의 기회도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많지 않다. 보호종료예정과 보호종료아동과 모두 학업을 휴학 또는 중단한 이유에 대해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를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과정에서의 흥미·적성 개발의 기회 제공,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자립계획에 따른 상급 학교 진학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급 학교 진학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적성을 탐색하여 자기에게 맞는 취업과 진로를 택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자립에 앞서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업 비율이 높고, 월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실업률은 낮았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 진로와 상관없이 바로 취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6. 고용 및 경제 영역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진로 활동과 체험의 기회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적었으며, 만족도도 낮았다.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에 ‘진로탐색과 취업기술’이 있지만, 10명 중 3명 이상이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진로 활동과 체험 경험 모두 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진로 체험 비율은 아동양육시설보다 높았지만, 진로 활동 비율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았다. 이러한 점은 자립준비 지원이나 서비스가 시설 중심이며, 특히 대규모의 아동양육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별화된 자립계획 수립을 지

원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게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형 자립준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의 보충과 보호 및 자립지원 사례 관리의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의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년에 비해 실업률은 7.4%p 높고, 고용률은 2.7%p 낮았다. 조사대상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20대 초, 중반의 연령이고, 비교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9)는 15세~29세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가 상이하여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보호종료아동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감염병과 청년 취업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상황을 더 어렵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의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일반 청년보다 고용 상황이 더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보호종료아동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반 청년인구에 비해 6.8%나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고용기간 역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급여는 또한 일반 청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의 질이 함께 고려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특화된 고용률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생각하는 보호종료 후 예상되는 필요 생활비는 월 평균 168.5만원이었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으로 산정한 월 평균 생활비는 절반 수준인 79.6만원으로 나타나 자립준비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호종료 후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득 마련 방안과 가용 서비스 및 자원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이 월 평균 생활비로 산정한 79.6만원은 1인 가구 국민생활보장 생계급여³⁶⁾와 자립수당(30만원)을 합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생계급여와 자립수당이 함께 제공되면 대학 교육, 취업 준비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자립 초기에 보호종료아동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보이나, 자립수당은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까지만 제공되고 있어 지급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소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기간인 5년까지라도 지급된다면,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유인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탐색과 취업 준비 등을 위한 자립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6) 2021년도 기준, 548,349원. (출처: 자립정보북,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한편,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소득은 증가했으나, 평균 생활비 금액 수준과 부채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부채 금액 수준은 보호종료 후 4년, 5년차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보호종료 3년차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차가 높아질수록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청년 고용과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현재와 같이 열악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화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이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5월 기준, 보호종료 후 1년차~5년차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4.8%~39.1%, 공동생활가정은 47.1%~72.9%에 이르러, 보호종료 후 연차가 오래 될수록 연락두절 비율이 높아지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연락 비율이 더욱 높았다(정선욱 외, 2019, 재인용). 한편, 2019년 자립수당의 도입 후, 보호종료아동의 연락처 수집이 가능해졌고, 전반적으로 연락두절의 비율은 과거보다 줄어든 경향이 나타났다³⁷⁾. 따라서 과거보다 사후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례관리자(생활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의 인력과 보호 및 자립지원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의 연락두절 비율이 양육시설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관계 기반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를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7. 자립지원서비스 영역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중 각각 40.2%, 35.8%가 8개 영역의 프로그램 중 1개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유일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이 되는 자립생활기술을 준비시키기 위함인데, 10명 중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 준비 없이 보호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7)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내부 자료. 2021년 4월 기준.

특히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험률이 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15세 이상의 자립준비대상 아동을 수행된 이상정 외(2019a)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중심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제한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낮은 이용률은 자립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중심의 자립지원 문제와 함께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도 단위의 거점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심으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가정위탁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과 자립정착금 수준이 과거보다 증가되고, 자립수당이 제공되어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는데, 보호 중,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경험은 두 집단 모두 41% 정도에 그쳤으며, 디딤씨앗통장의 금액을 모르고 있는 아동이 64.6%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의 확대에 앞서, 보호 과정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과 필요한 소득, 이를 위한 가용 자원과 일자리 마련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 연령과 학령이 낮을수록 주 1회, 또는 월 1회의 좀 더 빈번한 연락을 원해 보호종료 직후의 성인기 진입 초기에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종료 3년차는 주관전 건강상태가 가장 낮고, 질병 완치를 위한 진료 경험이 낮으며, 무엇보다 자살 생각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보호종료 4, 5년차에는 생활비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종료 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립지원담당요원을 중심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중심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설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누적되는 보호종료아동으로 인해 개별 사례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며, 가정위탁 지원센터는 시·도 단위에 2~3명이 배치된 상황으로 양육시설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동생활가정은 시설당 3명 정도의 종사자가 24시간 교대로

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립준비 지원과 사후 관리는 우선 업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이상정 외, 2019a). 보호체계의 자립준비 지원과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 아동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 보호와 자립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관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주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자립수당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가 반영됨과 동시에, 최근 자립정착금의 전국적 상향 조정, 자립수당의 제공, 디딤씨앗 통장 금액 상승 등으로 인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립수당은 식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되면서 자립수당 비혜당자에 비해 낮은 아르바이트와 부채 비율과의 연관성을 나타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까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차까지만 지급되고 있는데, 보호종료 4, 5년차에 생활비 수준과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법적 사후관리기간인 보호종료 5년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5년차까지 확대하는 것은 4년제 대학 교육 및 진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여 본격적인 자립에 앞서 유예 기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양질의 직업을 찾고, 이는 향후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질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강혜규, 박수지, 김은정, 김진욱, 주은수, 이정은, ... & 신지성. (2012). 사회서비스부문 통계 생산방안 연구: 사회서비스정책 지표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권지성, 정선욱.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 권지성. (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과 권리**, 11, 1-29.
- 김기현, 이윤주, 유선희. (2017).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성. (2013).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 노충래, 강현아, 이동욱, 송유진, 손유경, 이종은, 서지은(2018).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8).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윤. (2017).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선애리, 김평화.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898&page=1)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보건복지부. (2020). 2019 보건복지백서,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성미영, 이강이(2005),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3(2), 125-140.
- 신지혜, 강현아. (2017).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8), 77-102.
- 신혜령, 노충래, 정익중, 이동욱, 곽유정(2012). **2012 실태조사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아름다운 재단. (2019).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자료집.
- 안용민, 위대한, 박형근, 김정현, 한창수, 백종우 ... & 허영혜. (2018). **2018 자살실태조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안은미,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낙인감 발달궤적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0(1), 229-244.
- 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 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4), 133-158.
- 양정선, 김수지, 이지선. (2016).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유진,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김근혜, 김선 ... & 이주미.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3). 시설 보호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4(2), 109-121.
- 유정원.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과 대안.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포커스**, 제7호.
- 이상정, 강현아, 노충래, 우석진, 전종철, 정익중(2017).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의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9(3), 97-119.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a).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b).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이상정. (2020).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도입, 이용자의 만족도는?.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4호.
- 이자형. (2016). 아동청소년 건강불평등과 교육사회학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6(4), 69-95.
- 이정애, 김시아, 김지선,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5), 23-56.

- 이정애, 정익중. (2020).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건강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69), 81-109.
- 이정애. (2018).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혼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정은, 전종철.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장혜림,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대학생의 생활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2), 47-80.
-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정선옥,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 김지은, 임혜리. (2018).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보건복지부·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선옥. (2004). 시설보호 아동의 애착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 **아동권리연구**, 8(1), 1-15.
- 정선옥. (2015).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191-214.
- 정선옥. (2018).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양육 상황 점검 계획의 문제 및 개선방안. **학교사회복지**, 42, 77-100.
- 정세경,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 &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질병관리청. (2018). **2018년 국민건강통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 통계청. (2016).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20). **청년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2019) **2019년 진로교육현황조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황광훈, 이은혜, 김진하. (2019). **청년패널2007 12차(2018)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200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35/notes/division/2>

Children's Bureau. (2016). *Data Brief #5 Highlights from the NYTD Survey: Outcomes Reported by Young People at Ages 17, 19, and 21 (Cohort 1)*.

<https://foster-ed.org/wp-content/uploads/2017/03/Highlights-from-the-NYTD-Survey-2016.pdf>

Children's Bureau. (2017). *Guide to the NYTD Review*.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nytd_review_guide.pdf

Children's Bureau. (2019). *Data Brief #7 Highlights from the NYTD Survey: Outcomes Reported by Young People at Ages 17, 19, and 21 (Cohort 2)*.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cb/nytd_data_brief_7.pdf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ume 3" Planning Transition to Adulthood for Care Leaver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97649/CA1989_Transitions_guidance.pdf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Extending Personal Adviser Support to All Care Leavers to Age 25: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3701/Extending_Personal_Adviser_support_to_all_care_leavers_to_age_25.pdf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a). *Children Looked After Return: Guide to Submitting Data*.

- <https://www.gov.uk/guidance/children-looked-after-return-guide-to-submitting-data>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b).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Guide to the SSDA903 Collection 1 April 2019 to 31 March 2020-Version 1.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80472/CLA_SSDA903_2019-20_Guide_Version_1.3.pdf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45 CFR Part 1356 Chafee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Final Rule*.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08-02-26/pdf/E8-3050.pdf>
- Gill, A. & Daw, E. (2017). *From Care to Where?: Care Leaver's Access to Accommodation*. Centre Point.
<https://centrepoin.org.uk/media/2035/from-care-to-where-centre-point-report.pdf>
- Harrison, N. (2020). Patterns of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for care-experienced students in England: why has there not been more progres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5(9), 1986-2000.
- Kim, Y., Ju, E., Rosenberg, R., & Farmer, E. (2019). Estimating the effects of independent living servi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employment of foster care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6, 294-301.
- Lee, J., & Ballew, K. (2018). Independent living services, adjudication status, and the social exclusion of foster youth aging out of car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Youth Studies*, 21(7), 940-957.
- McGrath-Lone, L., Harron, K., Dearden, L., Nasim, B., & Gilbert, R. (2016). Data resource profile: children Looked after return (CLA).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5(3), 716-717f. retrieved

- fr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005948/>
-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2016).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Outcomes File User's Guide: Cohort 1 (Age 17 in FY2011) Waves 1,2,&3*.
https://www.ndacan.acf.hhs.gov/datasets/pdfs_user_guides/Dataset202UsersGuide.pdf
-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2019).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Outcomes File User's Guide: NYTD Outcomes Survey FY2014 Cohort Complete-Waves 1-3*.
https://www.ndacan.acf.hhs.gov/datasets/pdfs_user_guides/Dataset228UsersGuide.pdf
-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2020).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Outcomes File User's Guide: NYTD Outcomes Survey FY2017 Cohort Waves 1 and 2*.
https://www.ndacan.acf.hhs.gov/datasets/pdfs_user_guides/dataset242-nytd-outcomes-users-guide-2017-waves-1and2.pdf
- Ossorio, D., & de Carvalho, J. (2019). Analysi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cademic Attainment among Foster Care Youth in Kinship versus Non-Kinship Care.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9(4). Retrieved from http://www.aijcrnet.com/journals/Vol_9_No_4_December_2019/1.pdf
- Prince, D., Vidal, S., Okpych, N., & Connell, C.. (2019). Effects of individual risk and state housing factors on adverse outcomes in a national sample of youth transitioning out of foster care. *Journal of adolescence*, 74, 33-44.



[부록 1]

보호종료예정아동 설문지

2020 보호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I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를 앞둔** 여러분의 **자립준비 현황**과 자립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 보호종료 후에 보다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지의 응답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자립(준비) 과정에서 느낀 귀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육체적 피로 및 연구 문항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담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 중도에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설문조사 완료 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 연구책임자 이상정 부연구위원

김지민 연구원

허은영 연구원

SQ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 적격여부 및 보상물 제공 • 조사대상자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연락처
보유 기간	2020년 7월 ~ 2020년 12월(5개월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개발 및 조사 진행기관 • 보상물 제공기관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 조사연구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데이터 취합 및 보상물 제공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지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 안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혹은 해당 정보 보유에 대한 불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의 방법은 문서의 경우 파쇄, 전자 DB의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공지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① 동의 -> SQ2

② 동의하지 않음 -> SQ1-2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SQ1-2.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비 동의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① 예. 비동의로 설문 종료하겠습니다 -> 설문 종료

② 아니오. 동의하고 설문 진행하겠습니다 -> SQ1

SQ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서는 여러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PART 1. 일반적 특성

■ 다음은 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 ① 남성
- ② 여성

문2. 귀하가 태어난 년도와 월은 언제입니까?

- ① ()년(0000)
- ② ()월(00)

문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문4.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 ① 양육시설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③ 대리 위탁가정
- ④ 친인척 위탁가정
- ⑤ 일반 위탁가정

- ※ 가정위탁 : 일정기간 동안 친인척의 집에서 지냈거나 위탁부모의 가정에서 지냈던 경우
- 대리 가정위탁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친인척 가정위탁 : 삼촌, 고모, 이모, 큰아버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일반 가정위탁 :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산 경우

문5.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년
- ② ()개월
- ③ 모름

문6. 귀하의 현재 보호 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보호종료 직전(만 17세)
- ② 연장보호(만 18세 이상)

※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1.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

PART 2. 건강

■ 다음은 귀하의 건강과 관련된 조사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7. 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 최근 1년 동안 입 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구강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9. 평소 귀하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 ② 나쁨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문10.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10-1
- ② 아니오 -> 문11

문10-1. 장애유형을 알고 있다면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지적장애
- ⑦ 자폐성장애
- ⑧ 정신장애
- ⑨ 신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뇌전증장애
- ⑯ 모름

PART 3. 사회적 관계

■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1. 귀하는 부모(모 또는 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11-1
- ② 없음 -> 문12
- ③ 모름 -> 문12

문11-1. 보호종료 후, 부모(모 또는 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싶다
- ② 함께 살고 싶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1-2. 부모(모 또는 부)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① 만나지 않음 -> 문11-2-1
- ② 1년에 1번 미만 -> 문12
- ③ 1년에 1~2번 -> 문12
- ④ 1년에 3~4번 -> 문12
- ⑤ 2달에 1번 정도 -> 문12
- ⑥ 1달에 1번 정도 -> 문12
- ⑦ 1달에 2~3번 정도 -> 문12
- ⑧ 1주일에 1번 이상 -> 문12

문11-2-1. 부모(모 또는 부)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 ②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 ③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 ④ 기타()

문12. 다음은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없 는 편이다	있 는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1) 나를 도와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2) 내가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 돈이라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3)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4)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5)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6) 기분이 언짢았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문13.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로 3명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없으면 1순위에 '없음' 선택, 1명인 경우 1순위만, 2명인 경우 2순위까지, 3명 이상인 경우 3순위까지 작성)

- ①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
- ② 자립지원전담요원
- ③ 학교선생님
- ④ 어머니
- ⑤ 아버지
- ⑥ 형제·자매
- ⑦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 ⑧ 친척 또는 친지
- ⑨ 멘토
- ⑩ 학교나 동네 친구
- ⑪ 시설 친구(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 ⑫ 기타()
- ⑬ 없음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못함

PART 4. 주거

■ 다음은 보호종료 후 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4. 귀하는 보호종료 후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문15. 귀하는 보호종료 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 ① 나 혼자 사는 집
- ② 부모님(가족)이 사는 집
- ③ 친척집 또는 조부모집
- ④ 친구집
- ⑤ (학교, 회사)기숙사
- ⑥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등)
- ⑦ 공유주택(쉐어하우스)
- ⑧ 시설/위탁가정(보호 연장)
- ⑨ 잘 모르겠다
- ⑩ 기타()

※ 공유주택은 주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샤워실) 등 주택의 일부를 다른 가구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거주 주택을 의미함.

문16. 주거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부/공공기관의 지원(LH(SH)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 ② 자립정착금
- ③ 자립수당
- ④ 디딤씨앗통장(CDA)
- ⑤ 보호 중 받은 후원금
- ⑥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 ⑦ 금융기관에서 대출
- ⑧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 ⑨ 시설/위탁부모가 마련해줌
- ⑩ 민간후원단체
- ⑪ 근로소득
- ⑫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
- ⑬ 기타()

문17. 귀하가 보호종료 후 주거지(사는 집)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 ②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 ③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 ④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 ⑤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 ⑥ 대중교통 접근성
- ⑦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 ⑧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⑨ 기타()

문18. 귀하는 보호종료 이후 주거지원이 필요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문18-1
- ② 필요하다 -> 문18-1
- ③ 필요하지 않다 -> 문19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19

문18-1.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정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아파트나 주택)
- ② 월세(임대료) 지원
- ③ 전세자금(보증금) 대출
- ④ 주택 구입자금 대출
- ⑤ 주택 수리비용 지원
- ⑥ 주거상담(주거지 탐색/정착/이사 등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 ⑦ 기타()

※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빌려주는 아파트나 주택을 의미함.

PART 5. 교육

■ 다음은 응답자의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9.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이하 -> 문25
- ② 고등학교 재학중 -> 문22
- ③ 고등학교 중퇴/휴학 -> 문21
- ④ 고등학교 졸업 -> 문20
- ⑤ 대학교 2-3년제 재학중 -> 문22
- ⑥ 대학교 2-3년제 중퇴/휴학 -> 문21
- ⑦ 대학교 2-3년제 졸업 -> 문24-1
- ⑧ 대학교 4년제 재학중 -> 문22
- ⑨ 대학교 4년제 중퇴/휴학 -> 문21
- ⑩ 대학교 4년제 졸업 -> 문24-1
- ⑪ 대학원 이상 -> 문24-1

문20.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25로 이동

- ① 진학 준비(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중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

문21. 귀하가 학업을 휴학 혹은 중단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19=(3) 응답자는 문25로, 문19=(6) 또는 문19=(9) 응답자는 문24-1로 이동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③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 ④ 경제사정이 어려워(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 ⑥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차별 대우 등)
- ⑦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 ⑧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 ⑨ 기타()

문22.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여러분의 학업성적을 0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0	1	2	3	4	5	6	7	8	9	10

문23. 여러분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응답 후 문19=(2) 응답자는 문25로, 문19=(5) 또는 문19=(8) 응답자는 문24-1로 이동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함	
0	1	2	3	4	5	6	7	8	9	10

문24-1. 귀하는 대학재학 중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문19번=(5) or 문19번=(6) or 문19번=(7) or 문19번=(8) or 문19번=(9) or 문19번=(10) or 문19번=(11)

-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④ 디딤씨앗통장(CDA)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⑥ 시설후원
- ⑦ 금융기관 대출
- ⑧ 조부모/친인척 지원
- ⑨ 부모/형제 지원
- ⑩ 아르바이트
- ⑪ 학교장학금
- ⑫ 기타()

문24-2. 귀하는 대학재학 중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다음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문19번=(5) or 문19번=(6) or 문19번=(7) or 문19번=(8) or 문19번=(9) or 문19번=(10) or 문19번=(11)

-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④ 디딤씨앗통장(CDA)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⑥ 시설후원
- ⑦ 금융기관 대출
- ⑧ 조부모/친인척 지원
- ⑨ 부모/형제 지원
- ⑩ 아르바이트
- ⑪ 학교장학금
- ⑫ 기타()

문25. 귀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상급학교 진학
- ② 취업
- ③ 창업
- ④ 이직
- 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 ⑥ 기타()

문26.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 문19에서 1~4응답시 문26 1~4 제시, 문19에서 5~7응답시 문26 2~4 제시, 문19에서 8~10응답시 문26 3~4 제시, 문19에서 11응답시 문26 문항 skip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2~3년제)
- ③ 대졸(4년제)
- ④ 대학원 이상(석·박사)

PART 6. 고용 및 경제

■ 다음은 응답자의 고용 및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7.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7-1
- ② 아니오

문27-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 ② 학비를 벌려고
- ③ 용돈이 필요해서
- ④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 ⑤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 ⑥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 ⑦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 ⑧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 ⑨ 기타()

문28. 귀하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직 종사자(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유튜버, 종교인, 작가 등)
- ③ 사무 종사자(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 ⑤ 판매 종사자(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근로자 등)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 ⑨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 ⑩ 기타()
- ⑪ 없음

문29. 귀하는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진로활동을 해 보았습니까? 경험이 있는 진로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진로심리검사받기(검사지를 통해 나의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 ② 진로체험하기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 진로체험학습에 참여, 직업인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
- ③ 진로상담받기(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하 상담하는 것)
- ④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 문30

문29-1.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진로활동을 해 보았다면 해당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문29에서 선택한 활동만 평가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진로심리검사받기 (검사지를 통해 나의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2)진로체험하기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 진로체험학습에 참여, 직업인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					
3)진로상담받기 (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하 상담하는 것)					

문30. 귀하는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진로체험에 참여 해 보았습니까? 경험이 있는 진로체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업인의 특강, 멘토링(강연형, 대화형)
- ② 현장견학
- ③ 직업 실무체험(모의 직업체험)
- ④ 현장 직업체험(실제 직업체험)
- ⑤ 학과체험
- ⑥ 진로캠프
- ⑦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진로체험에 참여한 적이 없다 -> 문31

문30-1.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진로체험에 참여해 보았다면 해당 활동이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문30에서 선택한 체험만 평가

항 목	참여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2	3	4	5
1)직업인의 특강, 멘토링(강연형, 대화형)					
2)현장견학					
3)직업 실무체험(모의 직업체험)					
4)현장 직업체험(실제 직업체험)					
5)학과체험					
6)진로캠프					

문31.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했으면 하는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 ②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 ③ 해외취업·인턴사업
- ④ 직업훈련사업
- ⑤ 장려금지원사업
- ⑥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⑦ 취업성공패키지
- ⑧ 내일배움카드제도
- ⑨ 청년취업아카데미
- ⑩ 기타()

문32. 보호종료 후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 이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 한 달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식료품비(식품 구입, 외식비 등),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교재비, 학원등록비 등), 보건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 ① 월평균 ()만원

PART 7. 자립지원서비스

■ 다음은 시기별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3.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자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자립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일상 생활기술(예: 청소, 요리 등 식사준비) 프로그램
- ② 자기보호 프로그램(예: 심리적, 신체적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강보험, 성·피임 교육 등)

- ③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예: 대중교통, 민원 및 관공서 이용, 운전면허 취득 방법, 도서관 이용 등)
- ④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예: 현금 사용, 소득 및 지출관리, 저축 방법, 세금, 대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이해)
- ⑤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예: 예의·예절, 의사소통 방법, 가족 및 친구 등 인간관계 맺기, 분노관리기술,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
- ⑥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예: 진로적성 검사, 직업탐색, 진로계획, 취업원서 작성 및 면접 방법 등)
- ⑦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예: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기기 사용법, 직장내 의사소통 방법, 고용유지 방법 등)
- ⑧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예: 집 구하기, 이사 방법, 화재경보기와 119 등 주거안전교육,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
- ⑨ 참여한 자립교육프로그램이 없음 -> 문34

문33-1.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립교육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문33에서 선택한 프로그램만 평가

문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 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 일상 생활기술(예: 청소, 요리 등 식사준비) 프로그램					
2) 자기보호 프로그램(예: 심리적, 신체적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강보험, 성·피임 교육 등)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예: 대중교통, 민원 및 관공서 이용, 운전면허 취득 방법, 도서관 이용 등)					
4)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예: 현금 사용, 소득 및 지출관리, 저축 방법, 세금, 대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이해)					
5)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예: 예의·예절, 의사소통 방법, 가족 및 친구 등 인간관계 맺기, 분노관리기술,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					
6)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예: 진로적성 검사, 직업탐색, 진로계획, 취업 원서 작성 및 면접 방법 등)					
7)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예: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기기 사용법, 직장내 의사소통 방법, 고용유지 방법 등)					
8) 다시집떠나기 프로그램(예: 집 구하기, 이사 방법, 화재경보기와 119 등 주거안전교육,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					

문34.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디딤씨앗통장(CDA)
- ② 자립체험관 이용
- ③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 ④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 ⑤ 용돈 지원
- ⑥ 장학금
- ⑦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자립계획서 작성, 자립 정보 제공 등)
- ⑧ 의료서비스
- ⑨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 ⑩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 ⑪ 기타()
- ⑫ 받은 경험이 있는 서비스가 없음 -> 문35

문34-1. 받은 경험이 있는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문34에서 선택한 서비스만 평가

지원 서비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 디딤씨앗통장(CDA)					
2) 자립체험관 이용					
3)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4)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5) 용돈 지원					
6) 장학금					
7)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자립계획서 작성, 자립 정보 제공 등)					
8) 의료서비스					
9)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0)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1) 기타()					

문34-2. 귀하의 디딤씨앗통장(CDA)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해지 경험이 있는 경우, 해지할 당시 저축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문34=(1)인 응답자만

① ()만원

문35.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선생님(또는 가정위탁센터 선생님)이 얼마나 자주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지 않다

② 주 1회

③ 월 1회

④ 2-3개월 1회

⑤ 6개월 1회

⑥ 1년 1회

⑦ 기타()

문36.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경제적 지원(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 ② 주거지원
- ③ 건강지원(의료비, 건강검진 등)
- ④ 학업지원
- ⑤ 취업, 직업 관련 지원
- ⑥ (심리)상담지원
- ⑦ 법률지원
- ⑧ 사회적 관계(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지원
- ⑨ 퇴소 후 지지해 줄 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 ⑩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 ⑪ 자립 생활 체험(예, 자립체험관)
- ⑫ 선배로부터의 자립생활 멘토링
- ⑬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 ⑭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 ⑮ 기타()

문37.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자립지원 정보를 얻고 싶으십니까?

- ① (시설 또는 거주 지역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을 통해
- ② 시설 선생님(위탁부모님)을 통해
- ③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채널 아동자립지원 등)을 통해
- ④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 ⑤ 기타()

PART 8. 심리정서

■ 다음은 여러분의 심리정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8. 귀하의 현재 자립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음					보통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
	0	1	2	3	4	5	6	7	8	9	10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 ※ 경제적 자립 : 시설(위탁) 보호를 벗어나 경제활동을 통해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는 것
- ※ 심리정서적 자립 : 외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지
- ※ 사회적 자립 :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

문39.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6)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7)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9)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0)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문40.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7)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9)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10)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11)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1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1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1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문41. 아래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	10	가장 좋은 상태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가장 나쁜 상태

문4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43
- ②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문42-1

문42-1. 죽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생활 문제(예: 가족간 갈등 등)
- ② 경제적인 문제(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 ③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예: 연인과의 헤어짐 등)
- ④ 가까운 사람의 죽음(예: 가족, 친한 친구 등)
- ⑤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 ⑥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 ⑦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 ⑧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 ⑨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 ⑩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 ⑪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적응 문제 (예: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갈등 등)
- ⑫ 기타()

문42-2.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① 친구와 상담
- ②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 ③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 ④ 정신과 치료
- ⑤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 ⑥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 ⑦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 ⑧ 기타()

문42-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 ②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 ③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 ④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 ⑤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 ⑥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 ⑦ 아무 도움 필요 없음
- ⑧ 기타 (직접 기입:)

문43. 보호종료를 앞둔 귀하의 현재 심정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걱정된다 -> 문43-1-1
- ② 조금 걱정된다 -> 문43-1-1
- ③ 조금 기대된다 -> 문43-2-1
- ④ 매우 기대된다 -> 문44-2-1

문43-1-1. 보호종료를 앞두고 걱정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
- ②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 ③ 거주할 집 문제
-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이 없음
- ⑦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 ⑧ 시설(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 ⑨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 ⑩ 기타 (직접 기입:)



[부록 2] 보호종료아동 설문지

2020 보호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II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를 종료한 여러분의 자립경험과 지립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 보호종료 후에 보다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지의 응답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자립(준비) 과정에서 느낀 귀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육체적 피로 및 연구 문항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담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 중도에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설문조사 완료 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 당 자 : 연구책임자 이상정 부연구위원

김지민 연구원

허은영 연구원

SQ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 적격여부 및 보상물 제공 • 조사대상자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연락처
보유 기간	2020년 7월 ~ 2020년 12월(5개월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개발 및 조사 진행기관 • 보상물 제공기관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 조사연구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데이터 취합 및 보상물 제공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지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 안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혹은 해당 정보 보유에 대한 불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의 방법은 문서의 경우 파쇄, 전자 DB의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공지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① 동의 -> SQ2

② 동의하지 않음 -> SQ1-2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SQ1-2.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비 동의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① 예. 비동의로 설문 종료하겠습니다 -> 설문 종료

② 아니오. 동의하고 설문 진행하겠습니다 -> SQ1

SQ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서는 여러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PART 1. 일반적 특성

■ 다음은 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 ① 남성
- ② 여성

문2. 귀하가 **태어난 년도와 월**은 언제입니까?

- ① ()년(0000)
- ② ()월(00)

문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문4. 보호종료 당시 살았던 곳을 선택하십시오

- ① 양육시설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③ 대리 위탁가정
- ④ 친인척 위탁가정
- ⑤ 일반 위탁가정

※ 가정위탁 : 일정기간 동안 친인척의 집에서 지냈거나 위탁부모의 가정에서 지냈던 경우
 - 대리 가정위탁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친인척 가정위탁 : 삼촌, 고모, 이모, 큰아버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일반 가정위탁 :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산 경우

문5. 보호종료 당시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문6. 보호종료 당시, 살고 있던 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지낸 총 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① ()년
- ② ()개월
- ③ 모름

문7. 귀하가 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년도**는 언제입니까?

- ① 2015년
- ② 2016년
- ③ 2017년
- ④ 2018년
- ⑤ 2019년
- ⑥ 2020년
- ⑦ 기타 -> 설문 종료

문8. 귀하가 시설 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만기퇴소(만 18세 종료)
- ② 연장종료

※ 만기퇴소 : 만18세에 종료(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종료)

※ 연장종료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교육, 취업훈련 등으로 보호를 연장하였다가 대학졸업(휴학·자퇴포함), 취업 등으로 종료(만18세가 지난 후 종료)

PART 2. 건강

■ 다음은 귀하의 건강과 관련된 조사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9.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최근 1년 동안 입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구강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1.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에 대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없음 -> 문12
- ②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지거나 관절부상 등)
- ③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등)
- ⑤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 ⑥ 안과 질환(눈병 등)
- ⑦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 ⑧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 ⑨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 ⑩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HD),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 ⑪ 기타질환()

문11-1.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에 대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부 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음 -> 문12
- ② 일부 치료만 받았음 -> 문11-2
-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 문11-2

문11-2. 치료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많이 아프지 않아서
- ② 치료비가 없어서
- ③ 병원이 멀어서
- ④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서
- ⑤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 ⑥ 치료가 무서워서
- ⑦ 귀찮아서
- ⑧ 몸이 불편해서
- ⑨ 기타()

문12. 평소귀하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 ② 나쁨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문13.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13-1
- ② 아니오 -> 문14

문13-1. **장애유형**을 알고 있다면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지적장애
- ⑦ 자폐성장애
- ⑧ 정신장애
- ⑨ 신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뇌전증장애
- ⑯ 모름

문14.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단,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③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15. 보호종료 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5-1
- ② 아니오 -> 문16
- ③ 모름 -> 문16

문15-1.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돈이 없어서
- ②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 ③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 ④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 ⑤ 귀찮아서
- ⑥ 기타()

PART 3. 사회적 관계

■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6. 귀하는 **부모(모 또는 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16-1
- ② 없음 → 문17번
- ③ 모름 → 문17번

문16-1. 귀하는 현재 **부모(모 또는 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함께 살고 있다 → 문16-2-1
- ② 함께 살고 있지 않다 → 문16-2-2

문16-2-1. 귀하는 **부모(모 또는 부)와 앞으로도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앞으로도 함께 살고 싶다
- ② 앞으로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6-2-2. 귀하는 **부모(모 또는 부)와 앞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싶다
- ② 함께 살고 싶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6-3. 귀하는 부모(모 또는 부)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① 만나지 않음 -> 문16-3-1
- ② 1년에 1번 미만 -> 문17
- ③ 1년에 1~2번 -> 문17
- ④ 1년에 3~4번 -> 문17
- ⑤ 2달에 1번 정도 -> 문17
- ⑥ 1달에 1번 정도 -> 문17
- ⑦ 1달에 2~3번 정도 -> 문17
- ⑧ 1주일에 1번 이상 -> 문17

문16-3-1. 부모(모 또는 부)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모 또는 부)의 연락처를 모른다
- ② 내가 부모(모 또는 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 ③ 부모(모 또는 부)가 나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 ④ 기타()

문17. 보호종료 이후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멀다
- ② 다소 멀다
- ③ 가깝다
- ④ 매우 가깝다

문18. 지금까지 과거 생활했었던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얼마나 자주 연락(또는 방문)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연락 또는 방문 안함 -> 문19
- ② 주 1회 -> 문18-1
- ③ 월 1회 -> 문18-1
- ④ 2-3개월 1회 -> 문18-1
- ⑤ 6개월 1회 -> 문18-1
- ⑥ 1년 1회 -> 문18-1
- ⑦ 기타() -> 문19

문18-1. 어떤 이유로 연락을 하거나 받았습니까?(중복선택가능, 최대 2개)

- ① 일상적인 안부
- ② 자립생활상 어려움 상담
- ③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
- ④ 혜택 관련 정보 제공
- ⑤ 기타()

문19. 다음은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1) 나를 도와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2) 내가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 돈이라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3)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4)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5)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6) 기분이 언짢았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문20.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로 3명까지 선택해 주십시오.(없으면 1순위에 '없음' 선택, 1명인 경우 1순위만, 2명인 경우 2순위까지, 3명 이상인 경우 3순위까지 작성)

※ '⑬ 없음'을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못함

- ① 시설선생님(위탁부모님)
- ② 자립지원전담요원
- ③ 학교선생님
- ④ 어머니
- ⑤ 아버지
- ⑥ 형제·자매
- ⑦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 ⑧ 친척 또는 친지
- ⑨ 멘토
- ⑩ 학교나 동네 친구
- ⑪ 시설 친구(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함께 지낸 친구)
- ⑫ 기타()
- ⑬ 없음

PART 4. 주거

■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주거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1.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정부지원)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 ② (정부지원) SH, LH 등 전세임대주택
- ③ 자립지원시설 -> 문22
- ④ 전세
- ⑤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⑥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연세·일세)
- ⑦ 자가
- ⑧ 고시원/숙박시설
- ⑨ (회사·학교)기숙사
- ⑩ 친구 집
- ⑪ 친척 집
- ⑫ 부모님이 사는 집
- ⑬ 시설/위탁가정/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 문22
- ⑭ 공유주택
- ⑮ 일정하지 않음
- ⑯ 기타()

문21-1.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유형의 **주거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해당 주거비용이 없는 경우 '0' 원으로 표시함

- ① 보증금 ()만원
- ② 월세 ()만원
- ③ 관리비 ()만원

문22. 현재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본인 포함 총()명

문22-1. (문22번이 2명 이상인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중복선택가능)

- ① 부모, 형제
- ② 친인척, 조부모
- ③ 배우자
- ④ 이성친구(애인)
- ⑤ 시설선후배
- ⑥ 직장동료
- ⑦ 친구
- ⑧ 기타()

문23. (문21-1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0 이상인 경우) **주거비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보증금은 정부기관이,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경우 정부기관, 근로소득 모두 응답

※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과 민간후원단체가 동시에 지원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민간후원단체 모두 응답

- ① 정부/공공기관의 지원(LH(SH)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 ② 자립정착금
- ③ 디딤씨앗통장(CDA)
- ④ 자립수당
- ⑤ 보호 중 받은 후원금
- ⑥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 ⑦ 금융기관에서 대출
- ⑧ 친구/지인이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줌
- ⑨ 시설/위탁부모가 마련해줌
- ⑩ 민간후원단체
- ⑪ 근로소득
- ⑫ 아동권리보장원(아동자립지원단)
- ⑬ 기타()

문24. 귀하는 보호종료 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보호종료로 인해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퇴소 직후의 이사를 1회로 함.

※ 집 점유형태가 바뀐 것(예, 월세→전세)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없음
-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 ⑥ 5회 이상

문25. 귀하는 보호종료 후 주거지(사는 집)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 ②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준
- ③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와 형태)
- ④ 주거상태(환기, 채광, 방수, 방음 등)
- ⑤ 직장(또는 학교)과의 거리
- ⑥ 대중교통 접근성
- ⑦ 주거환경(병원·마트 등 거리, 안전·위생 등)
- ⑧ 가족/친구/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⑨ 기타()

문26. 보호종료 후 다음의 장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
- ②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 ③ 친구/지인 집
- ④ 고시원
- ⑤ 노숙(PC방, 만화방 등)
- ⑥ 노숙인 시설
- ⑦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
- ⑧ 미혼모/한부모시설
- ⑨ 소년원/구치소/교도소
- ⑩ 없음
- ⑪ 기타()

PART 5. 교육

■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7.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이하 -> 문31
- ② 고등학교 재학중 -> 문31
- ③ 고등학교 중퇴/휴학 -> 문29
- ④ 고등학교 졸업 -> 문28
- ⑤ 대학교 2-3년제 재학중 -> 문30-1
- ⑥ 대학교 2-3년제 중퇴/휴학 -> 문29
- ⑦ 대학교 2-3년제 졸업 -> 문30-1
- ⑧ 대학교 4년제 재학중 -> 문30-1
- ⑨ 대학교 4년제 중퇴/휴학 -> 문29
- ⑩ 대학교 4년제 졸업 -> 문30-1
- ⑪ 대학원 이상 -> 문30-1

문28.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31으로 이동

- ① 진학 준비(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중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

문29. 학업을 **휴학** 혹은 **중단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27=(3) 응답자는 문31으로, 문27=(6) 또는 문27=(9) 응답자는 문30-1로 이동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③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 ④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 ⑥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차별 대우 등)
- ⑦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 ⑧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 ⑨ 기타()

문30-1. 귀하는 대학재학 중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④ 자립정착금
- ⑤ 자립수당
- ⑥ 디딤씨앗통장(CDA)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⑧ 시설후원
- ⑨ 금융기관 대출
- ⑩ 조부모/친인척 지원
- ⑪ 부모/형제 지원
- ⑫ 아르바이트
- ⑬ 학교장학금
- ⑭ 기타()

문30-2. 귀하는 대학재학 중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④ 자립정착금
- ⑤ 자립수당
- ⑥ 디딤씨앗통장(CDA)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⑧ 시설후원
- ⑨ 금융기관 대출
- ⑩ 조부모/친인척 지원
- ⑪ 부모/형제 지원
- ⑫ 아르바이트
- ⑬ 학교장학금
- ⑭ 기타()

문31. 귀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상급학교 진학
- ② 취업
- ③ 창업
- ④ 이직
- 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 ⑥ 기타()

문32.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 문27에서 선택한 본인의 현재 교육수준 이상의 보기만 제시. 아래 참고.

문27에서 ①~④응답시 문32 ①~④ 제시, 문27에서 ⑤~⑦응답시 문32 ②~④ 제시, 문27에서 ⑧~⑩응답시 문32 ③~④ 제시, 문27에서 ⑪응답시 문32 문항 skip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2~3년제)
- ③ 대졸(4년제)
- ④ 대학원 이상(석·박사)

PART 6. 고용 및 경제

■ 다음은 응답자의 고용 및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3.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33-1
- ② 아니오 -> 문34

문33-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 ② 학비를 벌려고
- ③ 용돈이 필요해서
- ④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 ⑤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 ⑥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 ⑦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 ⑧ 주위친구들이 하나까
- ⑨ 기타()

문34. 보호종료 이후 현재까지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① 없음 -> 문35
- ② 1회 -> 문34-1
- ③ 2회 -> 문34-1
- ④ 3회 이상 -> 문34-1

문34-1. 어떤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②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③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 ④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 ⑤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 ⑥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 ⑦ 계약만료(계약기간 연장의 어려움)
- ⑧ 기타()

문35.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일자리 정보가 부족하여
- ② 적성을 잘 몰라서
- ③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 ④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 ⑥ 보수가 낮아서
- ⑦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 ⑧ 기타()

문36.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했으면 하는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 ②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 ③ 해외취업·인턴사업
- ④ 직업훈련사업
- ⑤ 장려금지원사업
- ⑥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⑦ 취업성공패키지
- ⑧ 내일배움카드제도
- ⑨ 청년취업아카데미
- ⑩ 기타()

문37. **현재 취업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미취업 -> 문37-1-1
- ② 취업 상태 -> 문37-2-1

※ 본 조사에서 '취업 상태'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 2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 3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등 때문에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문37-1-1.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구해보았음 ② 구해보지 않았음

문37-1-2.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37-1-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37-1-1=(2)인 응답자에게 질문. 응답 후 문 38로 이동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⑥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⑦ 육아
- ⑧ 가사
- ⑨ 심신장애
- ⑩ 통학
- ⑪ 기타()

문37-2-1.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직 종사자(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유투버, 종교인, 작가 등)
- ③ 사무 종사자(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 ⑤ 판매 종사자(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근로자 등)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 ⑨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 ⑩ 기타()

문37-2-2.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일자리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②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가족근로자, 고용주(1인 기업 포함)) -> 문37-2-5

•임금 근로자: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

•비임금 근로자: 내 사업을 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친척)의 일을 돕는 경우

문37-2-3.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비정규직: 단기간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

문37-2-4. 귀하의 현재 **고용기간**은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 또는 계약직)
 ②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문37-2-5. 현재 **직업(일자리)**을 통해 받고 있는 **월급(세후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월()만원

문38. 최근 1년간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정부보조금(기초생활보장급여,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CDA 등), 민간보조(후원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 ① 월평균 ()만원

문39. 최근 1년간 귀하의 **월 평균 생활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활비는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식료품비(식품 구입, 외식비 등),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교재비, 학원등록비 등), 보건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 ① 월평균 ()만원

문40. 귀하는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40-1
 ② 아니오 -> 문41

문40-1. 부채가 있다면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① ()만원

문40-2. 부채(빚)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가능, 최대2개)

- ① 주거마련
 ② 학자금 마련
 ③ 생활비 마련
 ④ 의료비(병원비/치료비) 마련
 ⑤ 기타()

PART 7.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 다음은 시기별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1. 보호 받았던 곳에서 다음과 같은 **자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자립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일상 생활기술(예: 청소, 요리 등 식사준비) 프로그램
- ② 자기보호 프로그램(예: 심리적, 신체적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강보험, 성·피임 교육 등)
- ③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예: 대중교통, 민원 및 관공서 이용, 운전면허 취득 방법, 도서관 이용 등)
- ④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예: 현금 사용, 소득 및 지출관리, 저축 방법, 세금, 대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이해)
- ⑤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예: 예의·예절, 의사소통 방법, 가족 및 친구 등 인간관계 맺기, 분노관리기술,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
- ⑥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예: 진로적성 검사, 직업탐색, 진로계획, 취업 원서 작성 및 면접 방법 등)
- ⑦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예: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기기 사용법, 직장내 의사소통 방법, 고용유지 방법 등)
- ⑧ 다시집떠나기 프로그램(예: 집 구하기, 이사 방법, 화재경보기와 119 등 주권안전교육,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
- ⑨ 참여한 자립교육프로그램이 없음 -> 문42

문41-1. 귀하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문41에서 선택한 프로그램만 평가

문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 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 일상 생활기술(예: 청소, 요리 등 식사준비) 프로그램					
2) 자기보호 프로그램(예: 심리적, 신체적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강보험, 성·피임 교육 등)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예: 대중교통, 민원 및 관공서 이용, 운전면허 취득 방법, 도서관 이용 등)					
4) 돈관리 기술 프로그램(예: 현금 사용, 소득 및 지출관리, 저축 방법, 세금, 대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이해)					
5)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예: 예의·예절, 의사소통 방법, 가족 및 친구 등 인간관계 맺기, 분노관리기술,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					
6)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예: 진로적성 검사, 직업탐색, 진로계획, 취업 원서 작성 및 면접 방법 등)					
7)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예: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기기 사용법, 직장내 의사소통 방법, 고용유지 방법 등)					
8) 다시집떠나기 프로그램(예: 집 구하기, 이사 방법, 화재경보기와 119 등 주권안전교육,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					

문42. 보호 받았던 곳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디딤씨앗통장(CDA)
- ② 자립체험관 이용
- ③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 ④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 ⑤ 용돈 지원
- ⑥ 장학금
- ⑦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자립계획서 작성, 자립 정보 제공 등)
- ⑧ 의료서비스
- ⑨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 ⑩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 ⑪ 기타()
- ⑫ 경험이 있는 서비스가 없음 -> 문43-1

문42-1. 귀하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문41에서 선택한 서비스만 평가

지원 서비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 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 디딤씨앗통장(CDA)					
2) 자립체험관 이용					
3)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4)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예, 자립선배,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5) 용돈 지원					
6) 장학금					
7)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관리(자립계획서 작성, 자립 정보 제공 등)					
8) 의료서비스					
9)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0)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11) 기타()					

문43-1. 종료 당시 받은 자립정착금의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지급

① 받은 금액 ()만원

② 모름

문43-1-1. 귀하가 받은 자립정착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 ②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 ③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 ④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 ⑤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 ⑥ 저축, 보험
- ⑦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 ⑧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 ⑨ 부채상환
- ⑩ 없음
- ⑪ 기타()

문43-2. 종료 당시 받은 디딤씨앗통장(CDA)의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딤씨앗통장(CDA) : 보호 중 본인(또는 후원자)과 정부가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함

※ 문42=(1)을 선택한 응답자만

- ① 받은 금액 ()만원
- ② 모름

문43-2-1. 귀하가 받은 디딤씨앗통장(CDA)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 ②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 ③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 ④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 ⑤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 ⑥ 저축, 보험
- ⑦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 ⑧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 ⑨ 부채상환
- ⑩ 없음
- ⑪ 기타()

43-3. 종료 당시 받은 자립수당(월 3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월 30만원 수당 지급

- ①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 ②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 ③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 ④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 ⑤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 ⑥ 저축, 보험
- ⑦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 ⑧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 ⑨ 부채상환
- ⑩ 없음
- ⑪ 기타()

문43-4. 종료 당시 받은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CDA), 자립수당(월 3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받은 지원금 내용()
- ② 받은 금액 ()만원
- ③ 없음 → 문43

문43-4-1. 귀하가 받은 추가적 지원금액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 ②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 ③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 ④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 ⑤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 ⑥ 저축, 보험
- ⑦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 ⑧ 교통·통신비(집전화, 휴대폰사용료, 인터넷 등)
- ⑨ 부채상환
- ⑩ 없음
- ⑪ 기타()

문44. 보호종료 이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가능)

- ① 멘토링 (바람개비 서포터즈, 자립 선배와의 만남, 자립선배와 멘토-멘티 등)
- ② 심리상담 (심리 상담, 심리 상담 센터 연계, 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
- ③ 자립수당
- ④ 자립정착금
- ⑤ 디딤씨앗통장(CDA)
- ⑥ 임대주택
- ⑦ 자립생활관
- ⑧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⑨ 금융 교육 및 정보제공
- ⑩ 청년희망키움통장
- ⑪ 청년내일채움공제
- ⑫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
- ⑬ 등록금 및 장학금 (국가장학금, 민간 장학금(희망다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교내장학금, 학자금 대출)
- ⑭ 취업성공패키지
- ⑮ 내일배움카드
- ⑯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⑰ 문화지원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 바우처 등)
- ⑱ 법률지원 (무료소송, 개인파산, 상속포기, 병역 감면 등 법률적 상담 또는 상담비용 지원)
- ⑲ 받은 경험있는 서비스가 없음 -> 문45

문44-1. 귀하가 받은 경험이 있는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문43에서 선택한 서비스만 평가

지원영역	보호종료 이후 받은 서비스 종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 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심리정서	1) 멘토링(바람개비 서포터즈, 자립 선배와의 만남, 자립선배와 멘토-멘티 등)					
	2) 심리상담(심리 상담, 심리 상담 센터 연계, 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					
소득	3) 자립수당					
	4) 자립정착금					
	5) 디딤씨앗통장(CDA)					
주거	6) 임대주택					
	7) 자립생활관					
	8)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금융	9) 금융 교육 및 정보제공					
	10) 청년희망기움통장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진로 진학 학업	12)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					
	13) 등록금 및 장학금(국가장학금, 민간 장학금(희망다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교내장학금, 학자금 대출)					
취업	14) 취업성공패키지					
	15) 내일배움카드					
	1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타	17) 문화지원(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 바우처 등)					
	18) 법률지원(무료소송, 개인파산, 상속포기, 병역 감면 등 법률적 상담 또는 상담비용 지원)					

문45. **보호종료 이후 경험한 어려움들** 중 가장 어려웠던 점부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 ②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 ③ 거주할 집 문제
-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 ⑦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 ⑧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 ⑨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 ⑩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 ⑪ 기타()

문46.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선생님(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이 **얼마나 자주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지 않다
- ② 주 1회
- ③ 월 1회
- ④ 2-3개월 1회
- ⑤ 6개월 1회
- ⑥ 1년 1회
- ⑦ 기타()

문47.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경제적 지원(생활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 ② 주거지원
- ③ 건강지원(의료비, 건강검진 등)
- ④ 학업지원
- ⑤ 취업, 직업 관련 지원
- ⑥ (심리)상담지원
- ⑦ 법률지원
- ⑧ 사회적 관계(친구,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 맺기 기술) 지원
- ⑨ 퇴소 후 지지해 줄 가족과 관계 맺기 지원
- ⑩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 ⑪ 자립 생활 체험(예, 자립체험관)
- ⑫ 선배로부터의 자립생활 멘토링
- ⑬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 ⑭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 ⑮ 경제교육 (저축, 대출, 채무처리, 집 계약 등)
- ⑯ 기타()

문48.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자립지원 정보**를 얻고 싶으십니까?

- ① (시설 또는 거주 지역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을 통해
- ② 시설 선생님(위탁부모님)을 통해
- ③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채널 아동자립지원 등)을 통해
- ④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 ⑤ 기타()

PART 8. 심리정서

■ 다음은 여러분의 심리정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9. 귀하의 **현재 자립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음					보통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
	0	1	2	3	4	5	6	7	8	9	10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 ※ 경제적 자립 : 시설(위탁) 보호를 벗어나 경제활동을 통해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는 것
- ※ 심리정서적 자립 : 외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지
- ※ 사회적 자립 :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

문50.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6)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7)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9)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0)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문51.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7)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9)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10)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11)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1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1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1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문52. 아래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	10	가장 좋은 상태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가장 나쁜 상태

문53.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53
- ②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문52-1

문53-1. 죽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생활 문제(예:가족간 갈등 등)
- ② 경제적인 문제(예: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 ③ 남녀(이성친구, 애인) 문제(예: 이성 친구와의 헤어짐 등)
- ④ 가까운 사람의 죽음(예: 가족, 친한 친구 등)
- ⑤ 육체적 질병 문제 (예: 만성질환 등)
- ⑥ 정신과적 문제 (예: 정신질환 등)
- ⑦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예: 업무과중,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 ⑧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예: 폭력으로 인한 문제 등)
- ⑨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예: 음주, 도박, 마약 등의 문제)
- ⑩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예: 학업 문제 등)
- ⑪ 기타()

문53-2.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① 친구와 상담
- ② 시설/그룹홈에서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님과 대화
- ③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
- ④ 정신과 치료
- ⑤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 ⑥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
- ⑦ 혼자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등으로 해소
- ⑧ 기타()

문53-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 ②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 ③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 ④ 정신과 치료 병원비 지원
- ⑤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 ⑥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
- ⑦ 아무 도움 필요 없음
- ⑧ 기타()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3] FGI 결과 요약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설계

〈표 1-337〉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외 보호 아동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위탁가정) 보호종료 전, 후 아동 가정 외 보호 아동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8월 24일 ~ 11월 21일
조사 규모	총 7개 그룹, 22명 -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보호중 아동 (2명) - 위탁가정 보호중 아동 (3명) -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보호연장 아동 (3명) - 위탁가정 보호연장 아동 (3명) -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2명) -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 (3명) -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6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외 보호 아동의 보호 경험, 자립에 대한 정의, 자립지원서비스 경험 및 자립 기반, 자립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 가정 외 보호 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원가정 관련 실태, 현재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가. FGI 진행 경과

□ 2020년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의 보호 경험이 있는 보호중, 보호연장, 보호종료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 가정 외 보호 체계별(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로 보호 여부에 따른 6개의 아동 그룹과 1개의 종사자 그룹 등 총 7개 그룹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각 그룹별 조사 일시와 참석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38〉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진행 경과

그룹	구분	인원	조사일자
F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중 아동	2명	2020년 10월 26일 (월)
G	위탁가정 보호중 아동	3명	2020년 9월 26일 (토)
H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연장 아동	3명	2020년 11월 21일 (토)
I	위탁가정 보호연장 아동	3명	2020년 8월 24일 (월)
J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2명	2020년 8월 26일 (수)
K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	3명	2020년 8월 26일 (수)
L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종사자	6명	2020년 8월 24일 (월)

나.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표 1-339〉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그룹	구분	고유번호	지역	성별	만 연령
F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중 아동	F1	충북	남성	18세
		F2	대전	남성	17세
G	위탁가정 보호중 아동	G1	광주	남성	16세
		G2	전북	남성	17세
		G3	전북	여성	17세
H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연장 아동	H1	충남	남성	20세
		H2	충남	여성	20세
		H3	충남	여성	19세
I	위탁가정 보호연장 아동	I1	강원	여성	24세
		I2	서울	여성	20세
		I3	전북	남성	20세
J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J1	서울	남성	20세
		J2	인천	여성	22세
K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	K1	대전	남성	23세
		K2	경기	여성	27세
		K3	전북	여성	24세
L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종사자	L1	경기	남성	49세
		L2	서울	여성	57세
		L3	강원	남성	32세
		L4	인천	남성	48세
		L5	경기	여성	29세
		L6	경기	여성	53세

제2절 FGI 결과

1. 아동보호체계 경험

가. 시설/가정에서 지내게 된 이유와 경로, 기간

이번 FGI에 참석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망 등을 이유로 입소하게 되었다. 부모가 알콜중독 등 질병이 있거나 아동을 부양할 만큼의 경제 사정이 되지 않아 입소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에는 아빠가 힘들어서 오게 됐고, 처음에는 ○○에 있었는데. ○○에 있다가 ○○에서 2살 때부터 13살까지 살고 13살에 ○○으로, ○○ 시설에 오게 됐어요. 총 16년 살았어요. 시설에. (F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덟, 아홉 살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요. 엄마랑 아버지랑 별거를 하는데, 엄마 쪽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랑 셋이서, 방입이죠. 조금 주거환경도 안 좋고 엄마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고 있다가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큰아빠 집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룹홈에 중 3쯤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F1) 저는 7살 때 시설에 있다가 초 6, 아니 졸업하기 전에 여기로 왔죠. 어릴 때도 조금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H1) 엄마가 알콜중독자여서. 엄마 친구 분께서 보냈었어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홈이라는 곳을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알게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설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살다가 경제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저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G1) ○○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 3살 때 이혼하셔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다른 가정을 차리시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같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I1) 3살 때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가지고 아빠 쪽에서 길러지다가.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여섯 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친가 쪽으로 할머니한테 맡겨졌는데. (K1) 부모님이랑 한 3살까지 같이 살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키워주셨고.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까지, 네, 계속 키워주셨었어요. (K3)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 중에서는 구청이나 부모 지인의 도움으로 입소했거나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자라 오게 된 경로를 모르는 사례도 있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부모의 양육이 불가해진 조건에서 주로 조부모나 고모 등 친인척에게 위탁되어 자랐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지역을 옮겨 위탁가정으로 들어가

게 된 사례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부여)에서 2살 때부터 13살까지 살고 13살에 대전으로, 대전 시설에 오게 됐어요. 총 16년 살았어요. (부여에 있을 때부터) 시설에. (F2) 전 바로 들어간 (시설로) 케이스여서 이유는 딱히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거기서 지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인지 기억은) 거의 바로.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덟, 아홉 살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요. 구청인가에서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시설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살고, 퇴소를 하게 되었고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홈에 중 3쯤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3, 4년. 상담 선생님? 그 분이 연결해주셔서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F1) 7살 때 시설에 있다가 초 6, 아니 졸업하기 전에 여기로 왔죠. 어릴 때도 조금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H1)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전에는) 천안의 쉼터랑 그냥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얼마 친구분께서 저 데리고 와서 보냈었어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홈이라는 곳을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알게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설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다 보니까. 이제 5년 정도.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할머니랑 7살 때부터 조금 지냈었어요. (G1) 친할머니덕에 가서 살게 됐어요. (G2) 저는 실은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있던 걸로..... 어릴 때부터. (G3) 아버지랑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가정위탁을 받으면서 할아버지랑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I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인척 가정위탁을 하고 있어요. (친인척은) 고모. (I2) 천안으로 가서 ○○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몇 년 좀 지내다가 초등학교 때쯤에 다시 순천으로 와서 가정위탁 그거를 통해서 어느 아파트에 사시고 있는 가정에 그 위탁이 되어 있었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이제 전주로 와서 거기서 가정위탁을 다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받고, 중학교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새로, 전주에서 새로운 가정위탁 해서 총 3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I3)

나. 시설/가정 경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단체 생활을 통해 친화력이나 사회성이 발달된 점,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았던 점, 체험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언급했다. 반면,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단체 생활 특성상 행동의 제약이 있었던 점, 시설 특성에 따라 종교 활동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했던 점을 부정적인 점으로 꼽았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내/외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점, 특별한 이익이 없는 데도 키워준 점을 좋은 점으로 언급했다.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자란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가 아니기에 느껴지는 한계점이나 가정 내 종교 활동으로 인해 본인도 다소 강압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점이 부정적인 면으로 언급되었다. 위탁가정을 여러 차례 경험

한 아동은 이전 가정과 단절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고, 다른 아동은 본인 의사와 다르게 원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하거나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p>긍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화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애들이랑 지내면서 뭐 그런 게 학교로 가니까 이제 뭐 친한 애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F2) (좋았던 건) 애들이랑 축구할 때요. 시설 내에 그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F2)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체험활동 같은 거를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다양해서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H3) <p>부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가 처음에 한 8살 때 애들이 그냥 저처럼 사는 줄 알았다가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놀림 받은 것도 있고 (F2) 사회에 많이 못 돌아다니고 아무래도 거기 있어야 되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한적인 게 있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H3)
	보호종료	<p>긍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들었던 부분도 많아요. 복직복직하니까 사실 외로울 틈이 없고. (J2) 생활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J2) <p>부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대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무조건 내야 된다거나. 무조건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거나.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커서 생각해보면은. 참... 군대 같은 생활을 했다, 쯤. ... 스물한 살 때까지는 그 근처로 쳐다보기도 싫고.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p>긍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전에 살 때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그룹홈에 와서 원장님이 여러 군데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체험도 이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F1) 여기 들어와서 취미가 생겨가지고. 제과제빵 학원을 다녀보고. (F1) 나중에 자리 잡고 하면 제가 이제 기부도 해보고 싶어요. (F1) 경험하지 못한 거를 많이 경험시켜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해외 같은 데를 좀 많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보다는) 그냥 답답한 걸 풀어주는. (H1) 좋았던 거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사람이. 집이 항상 비는 날이 없으니까 약간 뭐 학교 갔다 오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H2) <p>부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냥 뭐 다 단체생활이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H1) 저도 약간 단체생활이니까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성인인데 내가 왜 허락 받고 나가야 돼? 이런 거? (웃음) 지금은 그냥 단체생활이니까 이러는 편이에요. (H2)
	보호종료	<p>긍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빠랑 사는 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좀 제대로 잘 안됐던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지원이 조금씩 많이 되니까. (외로움도 좀 많이 없는 거 같고. (J1) 계획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사회를 나가기 이전에 좀 배울, 교육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배울 점이 있던 것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p>긍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재단 그런 쪽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p>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라도 집에서 같이 살고 하나까 좀 정신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I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제 친부모님이랑 사는 것보다는 지금 고모랑 살고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 좀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I2) • 좋았던 점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위탁이 그 자신들한테는 이득되는 게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득이 안 되는데 길러주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I3) <p>부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는 좀 가족이어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I2)" • 저는 가정위탁을 좀 여러 번 옮겨 다녔잖아요. 그 전 가정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나 그리움 같은 게. 연락할 방법도 조금 어렵게 하다가 끊긴 경우도 있고. (I3) • 한편으로는 가정위탁의 목적이 친가정 복귀로 알고 있는데 친가정으로 연락을 하계끔 하다 보니까 가정위탁에서 지내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I3) • 저는 거의 목사님 가정으로 위탁이 2번 되어서 약간 조금 힘들었던 거는 종교 활동을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고. (I3)
	보호종료	<p>긍정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수급비로 세 가족이 생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저희 집에, 저뿐만이 아니고 이모랑 이모부한테도 그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 (K2) • 이제, 할머니만 일을 하셔서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여기서도 (정책적) 지원을..... 학원비나 뭔가 배울 때 사실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 (K3) "

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의 행복과 만족 정도

보호종료아동 중심으로 자립 후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의 만족 정도를 물었을 때, 양육 시설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예상과는 달리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이전과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타격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희망했던 자립의 모습은 100%는 아닌 것 같다.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았는데, 자립해서 보면은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제가 혼자 다 해야..... 해 보니까 일반인 사람도 느끼겠지만.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모든 생활을 혼자 하는 것과 그래도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 (K2)

2. 자립에 대한 정의

가. 자립의 정의와 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

인터뷰에 참석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이나 주거 환경 등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립을 주로 언급했다.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 정서적인 면에서의 자립도 함께 언급했다. 본인이 꿈꾸는 자립에 대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일부 아동은 단체 생활을 떠나 혼자 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한편, 교통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말하기도 했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 중에서는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언급하거나 장학금을 받는 등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위탁가정의 아동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자립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 (F2) • 직업을 좀 찾고 안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자립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H3) 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약간 (주거)인테리어에는 관심이 딱히 없어서 그냥 별레 없고 교통 편하고 약간 그런 쪽에만 충족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H3)
	보호종료	자립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이라고 하면은 자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 혼자 살고 대학교 생활하고, 알바하다 보니까 자립이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란 직결이 되더라고요. (J2) 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다니고, 아무래도 시설에 좀 오래있다 보니까 되게 혼자서 뭘 하는 거에 대한 꿈이랄까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자립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살길 마련하고 직장 다니고 내 집 가꾸며 사는 거? (F1) • 돈을 벌어야겠죠? (H1) • 저도 똑같이 약간 경제적인 거랑 직업. (H2) 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룸 얻어주면 원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내가 가까웠으면... (H1) • 저는 약간 자취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벽지나 막 이런 거 다 돈을 맞추고 막 이려고 싶었는데. (H2)
	보호종료	자립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인 거 같아요. (J1) 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재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그냥 성적 잘 받아서 장학금 받고 이런 게 줘.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자립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거. 가정의 도움 없이. (I1)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인 자립은 사실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자립은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I2)" 경제적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단계가 되어 있을 때. (I3) <p>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범하게 그냥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I1)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목표인 것 같아요. (I2)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회복지하고 싶어서 그 일하면서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냥 가정 꾸리는 거. (I3)
	보호종료	<p>자립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가 생각하기에 어른이 된다는 의미고, 정서적으로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자립을 할 때 필요한 거 같아요. 혼자서. (K3) <p>본인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막연하게 아, 내가 나이가 먹고 하면 혼자 돈 벌고 혼자 집을 장만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 같은데. (K3)

나. 자립에 대한 생각과 퇴소 이후의 삶 설계

보호종료(예정)아동은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 대체로 지낼 곳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진학, 자격증 취득 등 보호종료 후의 계획을 일정 정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LH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이미 취업을 확정된 상태였고, 거주 또한 회사 기숙사에서 할 계획이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한 자격증 공부를 다시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저축이나 대출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마련할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가계부 작성 등 실생활에 필요한 영역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LH 할 것 같아요. (F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들어가는 데가 기숙사여서 주말에 나오면 이제 엄마(집)..... (F1) (제과제빵) 자격증 따려고까지 했는데 필기를 따놓고 코로나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학원에 안 갔어요. 다시 딸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F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 쌓기 위해 취업을 먼저 할 생각하고 있어요. ... 부모님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 작성도 취업하고 하는 도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방을 또 잡을 수 있게 되면 자취해서 살아야죠. (G1)" 아버지가 수도권에 계시니까 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거나 할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G2)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뭐 서울 병원으로 가든가 전주 병원으로 가서 일할 생각이에요. 일단 돈 먼저. ... 일단 최대한 모은 뒤로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안 올라가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할 것 같아요. (G3)" • 저축이나 금융 지식 같은 것도 요새 조금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I1)" • 졸업 전까지 일단 최대한 저축을 하고 졸업하고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이 종결이 되면 이제 자립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금전적으로 좀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I2)" •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을 잘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독립하면 될 것 같아요. (I3)

다. 꿈 또는 원하는 직업(직장)과 이유

양육시설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지향하는 분야나 구체적인 직업을 특정해서 구상하고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원하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있는 사례도 있었던 반면, 꿈을 가지는 것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보호중이거나 연장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직업 등의 지향이 구체적이었고, 이유 또한 분명한 편이었다. 한편, 보호종료 보호종료(예정)아동 중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취업 준비중이지만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구나 학습 의지도 밝힌 보호종료(예정)아동도 있었던 반면, 경제적인 조건으로 인해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아동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따놓고 대학교 때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요. (F2) • 바로 가고 싶은 건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요. (H3)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뭐 중1 때부터 여기 다른 시설에 있으면서 승마를 배워서 승마로 가야겠다. (말 관리) (H1)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은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던 거 같아요. ... 꿈이 있어도 그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요즘엔 꿈이 없는 거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즐겨 하던 게 초등학교 때 케이크 디자인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일 날 할머니한테 드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옷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케이크 디자인을 만드는 게 하고 싶어서 그냥 제과제빵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G1) • 연구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확히 국과수 같이 과학수사 쪽으로 하고 싶어서..... (G2)" • 하나는 간호사고요. 하나는 배우인데 이게 애매해서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는데 학교는 일단 간호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응급실 아니면 그냥 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하고 싶어요. (G3) • 돈 벌어서 창업자금 모아서 그렇게 독립하고 싶어요. (I1) • 아동복지에서 종사하고 싶은 꿈이 커서 그거는 좀 이루고 싶어요. (I2) •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고, 제일 큰 이유는 주변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좀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던 것 같아요. 헌신 그런 개념이 좀 크고 나눔, 섬김 그런 게 커서 뭔가 의미 있는 일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봉사 활동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봉사하면서 나오는 기쁨도 크고, 그래서 되게 적성에 잘 맞다 싶어서.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일단 다양한 학문을 배우자.....(K1) •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나한테 사치고 나는 현실적으로 빨리 돈 벌 생각밖에 안 했던 거 같아요. (K2) • 혼자 있는 시간이 어렸을 때 많다 보니까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걸 좋아 했어요. 선생님들도 특별히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상황도 이렇고 하나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었어요. 나중에 뭔가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도 있고, 막연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뭔가 배우고 교육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뭔가가 깨달아서 그런지, 교육부 쪽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장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사기업 쪽에서 인사팀 쪽, HR일을 해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K3)

라.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립의 정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양육시설 종사자는 정신적인 자립에 더 의미를 두었다. 공간적인 독립을 떠나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 중에서는 자립이 어떤 기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종사자도 있었던 반면, 수입과 직업 등이 갖춰져야 자립이라고 보는 종사자도 있었다. 종사자가 생각하는 자립과 아동이 생각하는 자립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들 또한 자립이란 연령대와 상관없이 계속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종사자도 있었던 반면, 취업을 잘해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느냐가 자립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종사자도 있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인 독립인 것 같아요. ...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 안내해 줬고 나에게 후원자를 연결해 줬고 나에게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선생님..... 아이들이 공간의 분리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L1)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특별히 이렇게 자립이다, 아니다,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자립이라는 게 그냥 진행형 같아요, 계속. (L2) • 물리적인 얘기로는 시설을 떠나서 혼자 사는 거에서 자립으로 보는 건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자립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립의 갭도 너무 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적어도 얼마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자립으로 보는데. (L6)
가정위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생각했을 때 자립은 아이들이 취업을 얼마만큼 잘해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L3) •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 청소년기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자라오는 과정 중에 계속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L5)

3. 아동의 자립 기반

가. 사적 자본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정신적 건강면에서의 고충이나 병증을 언급했다. 양육 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공통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약물 등의 치료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신체적 건강 측면보다는 정신 건강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심리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홀로 지내는 생활 속에서 생기는 고민이 언급되기도 했다. 같이 생활하는 동생에 대한 사례도 언급되었는데,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지원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공통적으로 심리적 고충에 대해 언급했다. 통원을 하며 치료중이거나 무기력감, 불안 등의 감정으로 힘들었던 사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례도 있었던 반면 암 투병을 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귀가 한쪽이 안 좋아요. 약간 안 들린다고 해야 하나? (심리) 상담은 해봤어요. 전문 상담 선생님한테. 한 1년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오셔서.(F2) 불안 그런 쪽에 심했는데 지금은 안 먹지만 약 먹으면서 저희는 상담 선생님이 따로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같이 상담하고 키가면서 환경이 익숙해지고 마음도 좀 커지고 하니까는 치료가 된 거 같아요.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인 건강은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정신적으로 혼자서 사회생활 한다는 게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고. ... 실제로 그 부분에서 무너진 친구들을 많이 봐왔는데. 짜여진 스케줄을 하다가 20대가 돼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과정을 봐왔거든요.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 검사도 해보고. 저희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ADHD라고 정신과에서 지금 약 먹고 상담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동생들은 토닥토닥이라고 가족지원 프로그램해서 심리치료 이렇게 계속 받고 있어요. (F1)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H1)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으로는 많이 혼자 살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거 같아요. 처음에 자립을 했을 때는 너무 자유롭다보니까 놀고먹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살찌니까 잠도 많아지고. 둔해지는 거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 병원) 아직 다니는 중이에요. (G2) 무기력감,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약간 뭘 해도 막 쉽게도 전하기가 쉽지 않고 불안하고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또 명상 같은 것도 하면서 이겨내고 있거든요. (I1)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많았던 것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사회복지학과 (진학)도 꿈꾸게 됐고 잘 이겨냈는데. 인간관계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버스 타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거나 귀에다가 뭐 안 꽂으면 되게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는 대인기피증도 있고 되게 그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병치레도 딱히 없었고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요. 아, 치아, 그나마 치아 쪽. 치과 좀 비싸잖아요. (K1) • 저는 회사에 다니니까 건강검진을 기본적인 거는 해주잖아요. ...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건강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진행이 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한 23살 때쯤에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암이 발견된 거예요. ... 암이라는 건 사실 완치 판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재발이 안 되면 되는 건데. 5년이 지나면 그래도 완치라고 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K2) • 저는 건강이, 그렇게 크게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K3)

2) 정신건강의 중요성

위탁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자립에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립 후 혼자 꾸려가는 일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더 어렵다는 점을 대체로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서적 건강이 정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I1) • 신체적 건강은 둘째 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립을 하긴 안 하긴 그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립을 하면 오히려 교류가 좀 적게 되니까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립을 한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I2) •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 자신감이 되게 없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취업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에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정신이 무너지면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K2) •일단은 젊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자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3)

양육시설 종사자 또한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독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는 경계선지능아동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이 보호종료 이후 거처할 데가 없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사회성도 개발하고 기술도 습득했으면 좋겠고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가 최저 생계비 이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지원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사례관리거든요. 정신적인 독립만 되면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 경계선 아동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습득이 안 되거든요. (L1)
가정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어려움 있는 게 이제 경계선 친구들이 가장 지금 어렵다고 봐요. 수입이 없고 퇴소나 종결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지원센터	이 되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장애 아동은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I3)

3)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과 극복 과정

양육시설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아플 때 난감하다고 밝히며, 부득이할 경우 가족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밝혔다. 주변 사람이 힘들까봐 혼자 감당했던 사례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며 극복했던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한 아동은 초등학교 때 힘들었지만, 시간이 해결해줬으며, 아직 도움이 필요할 만큼 아프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공동생활가정의 원장님에게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냥 혼자 울면서 풀었다고 해야 되나? 혼자 어디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실까 봐 그냥 나만 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심리치료 선생님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랬으면 말할 수 있었어요. (F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말 아프면 병원, 아플 때 제일 난감하기는 한데요. 남동생이 있어서 정말 아플 때는 도와달라고.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까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원장님께 전화 먼저 하고. ...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전 초등학교 때 잠깐 한두 번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냥 평소처럼 살다 보니까 점차 이게... (F1) 전에는 그냥 집에 있는 애들한테 말하거나 그냥 주변 사람한테 말하는 거 같아요. 자는 게 최고인 거 같아요. (H1)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고 멘탈이 진짜 너무 깨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친한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잘 다니고 그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애 하나라도 있으면 진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H2)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많이 해줘요. 미술 치료도 받았었고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G2) 행복해지고 싶어서. 정서적으로는. 외적인 것보다는 그냥 제가 저를 좋아하고 해야 행복한 거니까. (I1)

4) 질병 경험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병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내원하지 못한 경험은 없다고 답했다. (직장)보험 등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공동생활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여차피 일반사람보다 저는 보험이 있잖아요. (J1)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가정		
위탁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 질환이라서 보험이 많이 됐었고. 또 저는 직장인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장을 많이 받았었던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기 보다는 직장생활을 안 하면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K2)

나. 인적 자문

1) 학교 생활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이나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보호아동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중이며 성적은 중상위권이라고 밝혔다. 연장보호 아동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 아동은 환경 특성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다른 보호종료아동은 현재 취업이나 진학 중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 애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요. ...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잡니다. (F2) 저는 체대 입시. (H3)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계. 특성화고. ... 중위권? 중상위권? (F1)" 애완동물과요. (H1) 저는 방사선과. (H2)
위탁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좀 어중간한 상태거든요. 성적이. (K1)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키우니까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잘 해야 된다, 잘 자라야 된다? 착한 아이로 자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컸어서..... 공부를 해도 나는 무조건 잘 해야 되고, 남들보다 나는 더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K3)

2) 진학·교육의 중요성

보호종료(예정)아동이나 종사자는 대체로 일정 정도의 학업 수준이나 대학 진학이 자립이나 사회생활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양육시설의 보호종료(예정)아동 중에서는 자립과 공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언급한 아동도 있었지만, 기초적인 수준 이상 공부할 경우 더 이득이라거나 4년제 대학 졸업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한 아동도 있었다. 개인의 능력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한다면 크게 문제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나 대학을 안 갈 경우 수급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대체로 자립에서 학업 성적이나 대학 진학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나 대학생활 속에서 배우거나 성장하는 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취업을 먼저 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좀 더 잘 해나가는 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공부랑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자립은 혼자 계획하고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개라고 생각해요. (F2) 그래도 머리가 있어야 몸이 고생이 안 한다고 기초적인 거보다 좀 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이득을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 거면 그래도 4년제는 졸업을 해야지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이 사실 좋으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고, 대학이 좋으면은 취업에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 개인의 능력을 잘 살려서 그 부분에 진로를 잘 살린다면 엄청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공부보다는 그냥 예의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H1) 수준이 높은 게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나.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을 안 가는 경우에는 수급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직장을 구해야하고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지 못했으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찾을 수도 있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으니까. (I1) 저는 좀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I2) 저는 꿈이 생긴 이후로부터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 취업을 먼저 한 친구들이 자립을 좀 더 빨리 해서 잘 해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 근데 아시겠지만 살다보면 사회에 나와서는 계층화가 될 수도 있고. 자립의 형태적인 부분에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K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성적보다는 대학생활 자체를 강조했는데, 독립적인 성인들끼리 맺는 관계 속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성장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은 애들이 그래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립이라든가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걸 좀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공부는 꼭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인 돼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게 훨씬 좀 단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죠. (L2)

3) 진학 및 진로 계획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본인의 적성이나 뚜렷한 지향을 가지고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기도 했다.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학습에 대한 욕구나 시설 선생님의 조언으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거나 본인의 적성에 따라 학과를 결정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입사를 앞두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본인의 적성을 토대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계획했던 건 아니었으나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대학 진학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 중에서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아동은 경제적인 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사례도 있었고, 위탁가정의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취업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본인의 적성이나 지향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거나 이후 취업을 고려해 학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을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힌 아동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 의사 있는지?) 네. 대학은, ...처음에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취업을 먼저 할지 대학을 갈지. 근데 뭔가 뭐를 더 배우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배우고 싶고 뭔가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때문에. (F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옆에서 같이 서포트 역할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개선시켰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과를 선택하게 된 거 같아요.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취업은 된 상태고 나중에 야간대라도 가려고..... 우선 남들보다 먼저 좋은 데서 자리 잡고, 공부는 좀 쉬고 싶고 먼저 일을 배워보고 싶어서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F1) • 원래 대학교 갈 마음이 없었는데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애완동물학과에 진학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연결 되어서 그렇게 배웠죠. (H1) • 원래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가라 해서..... 같이 살았던 언니가 갔던 과예요, 방사선과가. 거기가 약간 전문직이고 그래서 일단 그걸 하면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넣었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과는 안 돼서 안 갔고 방사선과 돼서 여기로 어찌다 보니까 왔어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기계 쪽에 관심이 있는 거 같고, 학과는 기계학과나 컴퓨터학과로 입학 할 예정이고.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대학, 취업, 막 갈등을 했어요. 취업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진짜 돈 때문이었어요. ... 기초지원금 조금 준다고 해도 그 뒤의 거는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도 바쁘게 알바까지 하면서 하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취업해서 돈 벌어서 대학 가려면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G1)"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우선 하고 싶은 게 연구직이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을 선택하기도 했고 취업을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G2) • 뭔가 제가 바로 취업하기에는 지식하고 실기랑 부족한 것 같아서 대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붙었으니까. (G3) • 돈 벌면서 창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경영학과 간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고. (I1) • 나는 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당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센터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지 않냐, 라고 따지면 보편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받았던 것처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I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 잘되는 과를 간 거 같아요. 철도 쪽, 많이 고민 하다가 간 거 같아요. 부모님이랑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대학 가야되지 않겠냐 해서..... 아무래도 그게 가장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K1) •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걱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K3)

4)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교육 경험과 자립에서의 도움 정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 경험으로는 학원에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언급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어 재개를 고민하고 있다는 아동이 있었다. 자격증 취득이 자립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자신이 지망하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 등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실제로 자격증을 많이 땀지만 효용성이 없었다는 아동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따도 경제적인 면에는 괜찮을 거 같아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봐야 돼서. 컴활 2급이라던가, 운전면허 (따려고 한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격증 따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과제빵) 자격증 따려고까지 했는데 필기를 마치고 코로나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학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다 잊어 버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볼 겸 하고 있는데. 취업 맞춤반이라고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 회사에서 데려가는.....그럴 때 먼저 남들보다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F1) • 자기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에는 필요하니까. (H1) • 내가 뭐 할지 꿈은 없고 이럴 때 그래도 자격증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이번 년도 11월이나, 12월 전.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도제 들어갈 수 있게 수행평가 그런 일에 좀 하고..... 자격증을 나중에 졸업할 때 하나는 주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제과제빵 관련 교육) 개인적으로 등록을. (G1)" • 저는 혹시 몰라서 공무원이에요.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하셔서 그냥 준비하고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있는 것 같아요. (G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저 많이 따긴 했는데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K1) • 요즘에는 컴퓨터나 IT 같은 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증은 진짜 필수인 거 같고, 컴활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사 쪽에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관련 자격증으로는 PHR이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나서 해 볼 생각이예요. ... 자격증이 취업이랑 연결이 되어서 그게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K3)

다. 사회적 자본

1) 현재 내 삶에 가장 큰 영향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

현재 내 삶에 가장 큰 영향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원가족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고, 시설의 선생님이나 친구, 남자친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과 위탁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선생님을 언급하거나 자기 자신을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교에서 만난 지인을 언급한 사례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성장 과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거나 정서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잘 챙겨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누나랑 아빠랑 친형이 가장 많이 그런 것 같아요. (F2) • 옆에 계신 쌤들? 학업 쪽으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인정 쪽, 감정 그런 거 마음 추스르는 데 도움도 많이 돼가지고.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라던가, 보육원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보통 일반 가정집 애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듯이 저도 같이 산 선생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 같아요. ... (현재는) 딱히 없는 거 같고, 남자 친구?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담임 선생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챙겨주시고 진로 쪽도 이렇게 정해주시고. 좀 이렇게 상담하면서 좀 더 이제 알아갈 수 있던 것 같아요. (F1) • 지금 살고 있는 원장님 같아요. 같이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어릴 때 다른 시설에 갔으면 그런 분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죠. (H1) • 대학교 들어가서 1년 재수한 언니랑 친해지게 됐는데 ... 약간 되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으면 못 챙기는 게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언니가 옆에서 “너 이거 놓쳤어. 너 이거 안 했어.” 해주고. 밥 먹을 때쯤 되면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챙겨주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그냥 카톡으로라도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런 거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거 같더라고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그룹홈 선생님들이. 같이 살기도 했고. 그리고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정도 생기고. 그리고 잔소리도 하나씩. 그리고 저, 저 자신.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모르겠어요. (G1)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학교 선생님이 제 주변에서 제일 의지가 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 담임 선생님. (G2) (현재 내 삶의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저는 저인 것 같아요. (G3)

2) 조언이나 위로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조언이나 위로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는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같이 지내는 선배나 친구를 주로 꼽았다. 이에 덧붙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아동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같이 생활했거나 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꼽았다. 반면, 성향 상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기에 스스로 해결나간다고 말한 아동도 있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중에서는 위탁가정의 가족들이나 남자친구, 주변 지인들이나 기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에, 위탁가정의 가족들에게 상담하는 게 불편하다거나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에 있는 언니랑 아니면 친구라든지.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말 친한 친구나 선생님? 말 못한 것도 있죠.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거를 좀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가족끼리 싸운 건데. ... (의지하는 사람은) 저는 보육원 선배 언니? 가장 친해서. 자주 만나고.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 선생님이랑 친한 친구? (F1) 저는 집 문제면 집 애들한테 말하고 학교 문제면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고. (H1)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희 집에는 없어요. 제가 막 힘들 때 의지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저희 집에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올라온 언니나 아니면 대학교에 친구 사귄 애들 중에 제가 좀 의지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걔네들한테 말하는 편이에요.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들이랑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같이 생활 했던 선생님들. 찾아갈 때도 있고, 전화로 할 때도 있고, 고민도 말하고. (J1)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거 같아요. 제 스스로. 큰 상황이라도 제가 해결해야 될 상황이면 제 책임을 가지고. (J2)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머니랑 관계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뭘 털어놓는다고거나 고민 상담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G2) 친구. 이제 만약에 신체적으로 아프면 친구인 것 같고, 정신적이나 심리면 이 기관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G3) 주로 작은 아빠가 좀 먼저 이렇게 와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 많이 하시고 고민 상담 같은 거는 사촌 형이랑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랑은 뭐 정보 공유 이 정도까지만. (I1) 고모랑 사촌 언니한테 주로 조언을 얻는 것 같아요. (I2)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분들이 좀 많고 교수님들이랑도 좀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집 앞에 지역아동센터 있어서 거기 원장 선생님이랑도 되게 친해서 조언을 많이 구하고, 또 교회도 작은 교회여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친척 중에 또 사회복지학과 공부하는 누나가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말하고. 가정위탁 선생님한테.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을 선택하고 무슨 전형을 넣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하는데 저는 진짜 혼자 다 했어요. (K1) •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종진 않더라고요, 그제. 건강한 방법도 아니었고. (K2)"

3)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 경험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시설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겪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진학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도 힘들고 어려운 점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언급도 있었다.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극복한 사례도 있었던 반면, 도움 없이 혼자 겪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부모님에 대해 말해야 할 때나 주변 친구들이 가정환경을 이유로 함부로 대할 때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을 하면서 극복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 후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힘들었던 경험이나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던 경험을 언급했다. 극복 경험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언급되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었던 적은 어릴 때 말고는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아,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뭐 바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조차 여유가 없어요. 뭐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부터 짜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F2)" • (힘들 때) 집에 오면 그때 좀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해소하거나 저희 쌤이 그 운동을 하셨던 쌤이라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H3)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딸 때. 여러 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필기를 보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고 힘들었던거요. (F1) • 원장님이 이제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도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엄마라고만 하는데 아빠가 또 안 계시니까. 그런 거 말할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F1) •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뭇도 모르고 계속 이제 놀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점차 이제 지내다 보니까 무뎠진 것 같아요. (F1)" •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승마를 하고 나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H1) • 제가 자존감이 좀 낮거든요. 저희 과가 이번에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발표자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좋은 글 있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도움 된다 이러는데 저는 봐도 크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H2)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인 거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녔었어요. 이제 터놓을 사람이 없으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니가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라도 털어놓자.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정신과를 다녔던 것 같아요. (G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는 저한테 무관심해서. 무엇을 해결할 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이런 거 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K1)" • 자유로운 부분에서 좋은 거지. 외롭고 고독하고 물어볼 곳 없고. 저는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K2) • 최근 들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제가 스터디를 혼자 만들었었거든요. 뭔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 같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서, 응원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K3)

4) 원가족과의 관계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대체로 원가족과 함께 살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원가족이 도움을 줄 의사는 밝혔으나 본인이 부담스러워 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에 아동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살 의사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원가족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긴 아동이 있었던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아동도 있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원가족과의 교류가 잦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과 연락이 끊어졌거나 연락이 와도 아동이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었던 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등 보호자가 필요한 때에 원가족과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었던 사례도 있었다. 한편, 현재까지 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었지만 자립 후에 만나볼 의사가 있다는 아동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 누나들이 같이 살자고는 했는데 제가 뭔가 부탁하거나 뭔가 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서. (F2)
	보호종료	• 퇴소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이 됐어요. 자립수당도 현재 지금 해당되지도 않는 상태구요. 사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살면 오히려 더 어색하고 힘들더라구요. 자립하고 돈이 생기는 걸 아니까 좀 돈을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취업을 한다고 해도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딱히 말하지도 않는데, 말을 해도 딱히 안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셔서 제가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 완전히 끊었어요. 큰아빠랑 동생이랑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F1)
	보호종료	• 세입자에 아빠를 넣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약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면 같이 살고 싶은지?) 네. 지금 상태로는 직장이 없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 같아서. 저희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만약에 같이 살게 되면은 모시는....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가족이니까요.(J1)"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 저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냥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할머니한테도 일부러 말 안 해요. 큰 병원을 갈 상황이라도 누가 같이 동행을 안 해주시는 편이라서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만 잠깐 왔다가 가시는 편이고, 아버지가. ... 보호자 싸인이 필요하면 보호자가 직접 와서 어머니나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대학 같은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냥 아빠는 너를 응원해.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니까 그것도 힘들고. (G2) • (형과 누나랑) 따로 연락은 안 하는 편이에요. (부모님과 할머니의 관계) 어, 그냥 잠깐 말하고 잠깐. (법정대리인) 저는 같이 사는 부모님. (G3) • 엄마에 대해서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거를 아예 모르고 지내던 상태에서 고 1 때 한번 전화 왔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고,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리 잡으면 아마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I1) • 사실 아빠한테 일방적으로 연락이 오긴 하는데 저는 받고 있지를 않아서 그냥 추후에도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I2) • 아버지가 약간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해서서, 연락은 하긴 했었는데 바라는 거나 그런 게 좀 크시고 안 좋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연락)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연락이 꺼려지거나 그런 게 좀 커요. (I3)

4.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및 자립준비지원 서비스

가. 자립준비지원 서비스

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시니어 그룹과의 매칭을 통한 진로 코칭 프로그램 등 일상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립계획서 작성, 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경제 교육이나 LH를 통한 주거 지원, 진학 컨설팅 등 아동의 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언급되었다. 아동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한 프로그램으로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나 해외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진로 적성 프로그램이 언급되었다. 한 종사자는 아동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자체의 예산을 수령해 진행하는 사업도 있다는 점을 들며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시설이 받을 수 있는 예산과 지원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보드게임 등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설거지나 요리 등 보다 생활에 밀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돈 관리 등 경제 교육도 진행되고 있었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생일을 기념해 상을 차려주는 것과 퇴소한 선배들과의 자조모임이 언급되었다. 종사자들은 아동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 연령에 맞는 교육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경제교육이나 LH를 통한 주거 지원,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체험을 동반한 여행 프로그램, 캠프나 자립 기본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언급되었다. 종사자들은 주양육자가 있는 위탁가정의 특성상 센터에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기보다는 허브 역할이 현실적으로 최대한의 개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이나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에는 센터 내 상담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차량 운행부터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학 진학하면 진학 컨설팅. (L1) • (경제 교육) 될 수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그런 자료도 많이 참고하고요. 요즘은 사회 공헌 프로그램, 은퇴 직원들 많이 쓰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 주거는 LH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아이들이 원하면 대학, 직장 근처의 LH를 통해서 기숙사가 되지 않는 한 무조건 다 해 줍니다. (L1) • 자립지원계획서 직접 작성하고 있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수준별, 단계별 반복 학습도 다 진행하고 있죠. (L1) • 집합 교육은 퇴소예정 아동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는 무조건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그런 부분에서는 100%고요. (L1) • 고위험군은 지금 저희가 놀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20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42명인데 20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아동도 별도 3명 지원 따로 하고 있고요. (L1) • 미국에 재미교포가 있어요. MOU를 맺은 거죠. 방학 때 아이들을 선별해서 꿈에 맞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만족감이 되게 크고요. 참여한 애들 보면 좀 더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입식이 아니라 니즈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 (L1) • (일상적 프로그램은) 진로 코칭이 제일 무난하죠. 시니어 그룹하고 실제 경험상을 갖다가 이론 교육, 동반하는 프로그램, 평가 진행하는 식으로 가는데. 직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막연한 생각들은 조금 정리가 됩니다. 진로, 적성 찾는 거는 되게 효과적이어서. MBTI까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프로그램해서 커가면서 바뀌는 자기 진로라든가 성격 유형을 생활지도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도록. (L1) • 이동권리보장원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동처럼 생활하다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나의 환경과 비슷한 사람 말을 제일 많이 믿고 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호응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L1) • 공무원분들의 정도에 따라서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마다 아동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유기적으로. (L4)
공동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설거지 몇 번 하기, 그 다음에 요리하기 이런 거. 그리고 돈 관리에 대해서 부모가 혹시 돈 달라 그러면 그건 부모 돈이 아니라 니 돈이고. (L2) • 애들 생일 차려주는 거. 나가면 자기 원 뿌리에 대한 자기 생일 되게 애들이 많이 목말라 하잖아요. 자기를 누군가가 기억해준다, 라는 거를. 그래서 그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L2) • 돈 관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훗날까지도 생각해서 미리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부모가 나타나도 그 돈은 너의 돈이고. (L2) • 아이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또 같이 피부를 접촉하며 삶을 살기 때문에 서비스를 주기 위한 사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발달 연령에 맞는 거기서부터. 자기 신발 끈 혼자 신는 것부터가 우리는 자립으로 보는 거죠.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 시설이니까 해야 될 의무교육들도 다 있는데 실제로는 살면서 우리가 애들한테는 프로그램이야. 하고 하지는 않지만. (L6)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게 전체적으로 아이에 맞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생활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거를 가지고 일지를 쓰는 거예요. (L6) • (일상적 프로그램은) 보드게임.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하고 연결해서 했거든요. 사회성도 많이 키워주고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배우게 되고. (L6) • 자조 모임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선배들이 어떻게 한 거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L6)
가정위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은 ○○은행 ○○본부와 MOU를 맺어서 직접 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점 은행원들이 아동의 멘토, 멘티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주거교육은 LH강원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주고 계세요. 직접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 주고 있고요. ...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라든지 그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이나 경계 아동 같은 경우는 상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L3) • 기업 연계하고 취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해외 봉사, 작년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동남아 가서 공동묘지에 사는 친구들, 봉사라든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애들이 갈 때 울고. (L3) •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수학여행을 자기만 못 갔대요. 제주도들.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그 후부터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무조건 제주도에서 하거든요. 체험은 딱 한 가지만 해요. ○○항공 조종사 체험. (L3) • 가정위탁은 맞춤형 사례관리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최소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해 주는 허브 역할이 최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인력 충원이 된다고 해도, 주된 양육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 뭔가를 하는 거가 가정위탁의 장점인 반면 단점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자립지원계획서나 자립지원 프로그램 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L5) • 캠프나 자립 기본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종일 때 아이들 만나는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교육이 더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5)

이와 더불어, 종사자들은 보호체계 내에서도 유형별로 운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양육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시설들과 달리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시설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라 지지체계 등이 개발되어 퇴소 후에도 보다 광범위하게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점, 전담기구가 있어 양육시설 간 사례나 정보 공유가 활발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아동과 생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시설과 달리 위탁가정 특성상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팀도 있겠지만 아동양육시설은 전담요원들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장점이고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L1) •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돼 있으니까 오히려 아동이 보호 전에도 이런 지지체제나 이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퇴소할 때 연계되는 부분들이 범위가 크고요. (L4) • SNS든 모임이든 통해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장점들을 꼬집어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서. (L4)
가정위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인 게 긴밀하긴 것 같아요. 근데 가정위탁은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L5)

나. 자립준비 및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1) 자립 계획 수립 경험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퇴소한 선배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자립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들었던 경험을 주로 언급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 중에서는 보호종료 전 구체적으로 경험을 세워본 적이 없는 보호종료 예정아동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에 한 번씩 자립교육이라고 퇴소하는 누나들이나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뭐 자립에 관한 정책을 다 설명해주고 선생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계획표 내겠습니다. 하면 시설에서 알겠다. 그럼 너 이런 걸 해라. 도와주겠다. (F2) 중학교 정도 되면 같은 나이 또래 불러서 전문 상담해주는 분들이 와서 해주 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물어 봐서 상담을 1:1로 하는 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약간 선생님들이 먼저 물어봐서 계획을 같이 짜는 경우도 많아요. (H3)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이랑) 승마해서 뭐를 할 거냐. 아니면 대학 가서 뭐를 할 거냐. 그냥 이런 이야기? 자주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하긴 해요. 요즘은 졸업반이니까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취업을 나갈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H1)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대체로 좀 많이 저는 듣는 편이고, 가끔 제가 먼저 가서 과가 너무 저의 적성에 안 맞아요. (웃음) 이런 얘기?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도움도 많이 받고 스스로도 했던 거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G1) (자립 계획 세워본 경험) 저는 세워본 적 있어요. (G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짜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K1)

2) 자립 계획 준비 과정과 도움을 준 사람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학이나 취업, 주거 등 스스로의 거취를 고민하며 자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준비 과정에서 시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퇴소 후 부모님과 살게 되어 자립을 철저하게 준비하진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선생님이나 주변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립 계획을 준비해나간 아동도 있었던 반면, 구체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아동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	------	-----------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 3 때 일들이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넘어갈 때나 그때 인문계 갈 건지 실업계 가서 무슨 과 갈 건지 그런 거 물어보는. 대학 어디 갈 건지 취업 어디 쪽으로 갈 건지 물어봐서 쌤들이 기록해주셨어요.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하는 시점에 부모님이랑 살기로 결정을 하게 돼서, 아버지와. 혼자 살게 될 거니까 준비를 다 철저히 해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좀 찾아달라고도 이런 식으로.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관리 선생님) 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을 해줘라 이려고 그런 형식으로 했던 거는 있었는데 제가 들으려고 노력했었어요. (G1) (사례관리 선생님) 대학 등록금을 만약에 썼다고 하면 뭐 이거는 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빼고 더 자립에 필요한 데 써라. 그런 식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분의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제 계획서가 더 틀어질 수 있었어요. 심리적으로라도 지지가 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G2) 아직 큰 틀만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그 길대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I2)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자립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없고 경제적인 게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그 딱딱 맞춰서 쓰면 좋은데 아직 그런 개념도 좀 부족하고 쓰고 싶은 데 쓰다 보니까.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한테 좀 꿈을 심어주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책을 또 많이 주시거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는데, 사모님이 되게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공부하거나 진로에 대해 고민 있을 때도 그 분 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K3)

3) 자립준비지원 서비스나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 중에서는 경제 교육이나 퇴소한 선배들과의 상담, 자립 캠프 등을 경험하거나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해 저축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던 반면, 학교 생활로 인해 참여 경험이 부족한 아동도 있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자립캠프 기간이 짧았다거나 경제 교육 등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교육이 지루했다는 등 아쉬웠던 점도 몇 붙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은 학원비를 지원받은 경험이나 자립캠프 참여 경험, 부동산 계약 등 경제 교육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고,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말하기도 했다. 보호종료아동 중에서는 외부 기관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받았던 점, 자립수당이나 LH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별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아동도 있었다.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이 경험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는 합성 프로그램이나 계획 제출 후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진로 장학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 워크숍, 디

딤씨앗통장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만족했다는 보호종료(예정)아동도 있었다. 그 외에도 향수 제조나 제빵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도 있었다. 반면에 선생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후 후회하고 있다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있었고, 퇴소 당시에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사례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와서 돈의 개념과 이런 걸 설명해줘요. 게임을 통해서 돈의 개념과 이런 걸 쉽게 설명해줘서 더 이해가 쉽고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 선배들이 와서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시고.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요.(F2) • (디딤씨앗통장 가지고 있는지?) 네. (F2) • 경제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취업해서 돈 모으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체험해보는 그런 것도 하고. 대부분 3박 4일. 너무 짧아서 솔직히. (웃음)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거의 학교에 붙어있느라 프로그램에 많이 못 참여한 것도 기억에, 조금. 없어서. 프로그램도. (J2) • (경제, 부동산 교육) 보육원에서 특별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지루하고.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교육이라고 형성 숲체원관? 매년 한 번, 두 번씩은 꼭 가거든요. 장학금 받는 지원 그런 것도 방법도 알려주시고. 디딤씨앗?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F1) •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H1) • 연계는 아니고 가고 싶어요, 하면 경제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이 학원 어때? 이러고, 괜찮은데 가게 되고. (학원비 같은 건) 항상 지원을 해주세요.(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에 있어서, 전세에 대한, 부동산 계약 같은 교육도 한다거나. (J1) • ○○아동복지라는 거기서 지원받은 게 있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자립수당이라든지. (LH도 지원 받는지) 네.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너무 멀어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후회가 되고 있어요. ...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할 거예요. (G1)" • 작년에 진행했던 합성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씩 책자가 왔는데 매월 주제가 달랐어요. 자립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마다 그때 그때 설문지를 작성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정리한 게 거의 반영이 돼서 이번 달 행사가 계획이 되니까. (G2)" • 진로 장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랑 계획을 써서 내면, 금액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자격증 취득 아니면 자립 워크숍에서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자립지원금 같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공유도 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I1) • 디딤씨앗통장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I2) •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참여를 했거든요.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 진로장학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내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I2) • 가정위탁지원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해서.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친해지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디딤씨앗통장이라든가 자립정착금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선생님들이 한 분씩 있잖아요.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다 알려주셔서. 자기소개서 쓰고 받았던 거 같아요. (K1) "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으로 되게 지원이 없었던 시기여서 그때는 자립지원금 이런 것도 일체 없었고, 저는 지원을 받았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K2) •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양육보조금? 이런 것도 제가 받았더라고요. 상해보험서비스? (K3)

5.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서비스

가. 보호종료 후 자립 지원 서비스

양육시설 종사자들은 취업 컨설팅, 급여 체납 관련 상담 및 신고 처리, 자조모임 운영 등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취업 여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위탁가정 특성상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연 1회 전화 통화로 자립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생 사례관리. 직장 먼저 컨설팅 해 줘야 되죠. 급여 못 받으면 급여 체납에 대해서 노동부까지 신고까지 해 줘야 되죠. 애들 취직 못 하면 취업 컨설팅 해 줘야 되죠. (L1) • 몇천의 큰 금액을 보호종료 후 월 정기적으로 자조 모임 할 때 밥값을 해 준다든지 연결체계를 위한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결정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L4) • 홈커밍데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자조 모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것 같고요. ... 한 3, 4년 내에는 유기적으로 연락되는데 그 이후 발을 끊긴 애들은 원내에서 하는 것은 싫어하고요. 홈커밍데이 같은 경우. 그래서 원 밖에서 비슷하게 응용해서. (L4)
가정위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관련해서는) 종결된 친구들이 자립정착금 교육 때 일자리센터에서 와서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서 멘토, 멘티 하고 있습니다. (L3) • 자립정착금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후관리 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어요.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 수준 평가를 위해서 연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 정도. (L5)

나.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1)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중에서는 자립정착금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면 소진되는 점,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금액인 점을 언급하며 자립정착금을 800만원 가량까지 증액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지역마다 물가가 달라 생활 차이가 크게 나서 어렵다는 보호종료아동도 있었다. 한 보호종료아동은 주변인 중에서

는 자립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비가 충당이 되니 오히려 무기력해지거나 일을 구하지 않는 등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또한 비슷하게 답했다. 대체로 자립정착금이 증액되었으면 하며, 자립수당은 현재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로 언급되었다. 한편, 단순한 소비로 이어지거나 원가족에서 돈을 요구하는 등 자립정착금이 취지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주변 사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부양할 조부모가 있는 조건에서 생활비와 저축까지 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자립수당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p>활용처(또는 활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자격증 준비할 것 같아요. (F2) <p>금액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역 차이마다 물가가 너무 달라서 그게 좀 그런 거 같아요. 생활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H3)
	보호종료	<p>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당시에는 월세 지원이란 것도 있었는데, 지원을 제가 못 받았고. 왜냐면 월세로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장학금? 백만 원?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자립수당은 17년 5월부터의 퇴소생인데, 제가 16년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LH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J2) <p>금액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정착금) 전세금조차도 안 되고. 보증금조차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내고 생활비를 조금 쓰고 하면은 되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대학생활을 4년 동안 하면은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 800은 돼야. (J2) <p>제도적 보완 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력해지고 점점 그냥 돈 나오는데 뭐 하러 일을 해? 약간 이런 친구들을 몇 명 많이 봐서. 자립수당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용도 받고. 일을 하면 또 돈을 못 받으니까. 일 안하고도 어떻게 살 만한데, 뭐 하러 일을 해.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p>활용처(또는 활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한 달에 딱 생활비 30만 원 쪽으로 계속 쓰고 나머지는 다 저금하고. (F1) <p>금액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수당)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F1) (전반) 괜찮은 것 같아요. (F2) (전반) 지원에 있어서는 금액이 저는 적당했는데. 저 주위에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 (J1) <p>제도적 보완 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아는 그룹홈의 누나가 퇴소해서 자립정착금 받고 나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끊고 사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막 옷 사는 데 뭐 술 마시는 데 다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지라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F1)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보호종료	금액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정착금) 저는... 천만 원이요. (J1) • (자립수당) 전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활용처(또는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정착금) 집 아니면 학교에다 쓸 것 같아요. (G1) 금액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월 60을 주셔도 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할머니 돈 드리고 뭐 저축까지 하고 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G1)

2) 주거지원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집이 적은 점과 지역에 따라 비용과 주거환경에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짚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집의 소유주가 전세 지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점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집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폭이 너무 좁은 거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서울로 간 애들도 있는데 개네들 보면 천안에 비해서 확실히 집이 안 좋더라고요.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당연히 되죠. 수도권에서 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방을 이자 지금 현재 1% 내거든요. 그러면은 7만 원 정도에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J2)
공동생활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주인들이 싫어한다고..... 계속 2년마다 그냥 계약 끝날 때마다 계속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좀 힘든 거 같아서.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퇴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LH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해도. 그리고 점점 물가가 상승할수록 집을 전세로 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J1)

종사자들은 전세 보증금 등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원하는 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집의 소유주에게 부채가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또한 함께 언급되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벌써 십 몇 년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몇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전부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변화가 없어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이 정책이 정말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피가 말라요. 애들 퇴소시킬 때가 되면. (L1) • LH 전세 주택 할 때요. 계약서, 계약금 지급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 (L1)
가정위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금액은 집주인의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집에 대한 부채가 있을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L3)

3) 사후 관리

양육시설에서 현재 보호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정기적으로 자립 상태를 점검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주변의 사례를 언급했다. 한 아동은 주변에서 사례관리사의 관리를 받는 아동의 사례를 통해 시설의 선생님으로부터 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 것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례관리사의 지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 중인 아동의 경우, 사후 관리 기간을 확대했으면 한다는 점과 더불어 지속적이진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립 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적다는 점, 환경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한 번. ... 잘 지내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떻게 지내냐. 뭐 돈은 모으고 있냐. 돈은 어떻게 쓰고 있냐 이런 거. (F2) • (정보 제공) 저희는 그렇게 정보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F2) • (사례관리사) 나간 애 중에 담당이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거든요? 있는 애 말을 들어보면, 약간 있거나 마나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도움을 많이 받을 게 없다고 그래야 되냐? 요즘 사생활 침해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많아서 좀. (H3)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은) 짧은 거 같아요. 음... 7년? ...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안 끊기고 계속 연락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어떻게 진짜 안부 정도만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F1) • (정보 제공) 계속은 아닌데 그래도 필요한 정보면 좋을 것 같아요. (F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이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면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관찰 기간, 지금처럼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최소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G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 안 그래도 불안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장기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문적인 인력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K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지지체계가 없는 조건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자립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보호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공동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5년이 계속되잖아요. 법제화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퇴소 이후에도 계속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들한테 좀 있으면, 지지체계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서게 하는 거. 그게 자립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L6)

6. 보호종료 후 자립 과정 경험

양육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후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겪었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대학 입시를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정서적 어려움과 자립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쓰지 못했을 때 느꼈던 심리적인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자립을 하면서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15년 만에 같이 사는 거니까 거의 가족이라기보다는 친척 같은 느낌이었던 거 같고, 의견 차이가 심할 때도 있었고, 다름 같은 게 있을 때도 있어서. 나중에는 그게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 지더라고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공허함이 많았던 거 같아요. 재수를 하다보니까 공부할 때 와중에도 외로운 것도 있고 좀 공허할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자립지원금을 받고도, 그걸 계획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쓰는 와중에서도 좀 피폐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었던 거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준비되지 않은 독립인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나는 일단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부분도 많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화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K2)

7. 보호와 자립, 친권

가. 아동보호와 친권

친권 때문에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아동과 종사자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 겪는 사례들을 주로 이야기했다. 위탁가정의 한 아동은 친권자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조건에서 미성년인 아동이 휴대폰을 변경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전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	------	-----------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을 바꾸거나 할 때 요즘 깐깐해져서 신분증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하고. (G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또한 통장 개설이나 주택 청약, 휴대폰 구매, 병원 치료 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때에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요구하면 복귀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기도 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유용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게 아이들 개별로 후원금을 만들어요. 100명이면 100명의 후원금 통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 개별 통장을 친권자 아니면 만들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친권자가 사라져서 연락도 안 되는데. (L1) 주택 청약도 해 주거든요. 그것도 친권자 있어야 돼요. 이제 못 만들어요. 지금 고등학생들까지는 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 그 밑의 동생들은 다 없어요. (L1)
공동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가서도 이제 14세가 넘으면 아이가 할 수 있지만 제약이 너무 많아요. (L2) 휴대폰 있잖아요. 그룹홈 시설에서는 4인까지밖에 안 해 줘요. 나머지 애는 제가 전액을 지불해서 휴대폰을 사는 거죠. 사가지고 개한테 주고 다달이 빼는 거예요. (L2) 병원을 갔어요. 응급상황이에요.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걱정보다는 개의 동의자가 없어서 수술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원비는 고사하고, 사인 하나만이라도 제시간에 와서 해 주십시오. (L6) 아동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가고 싶지 않는데 친권이 요구하니가 가야 되는 상황. (L6)

종사자들은 아동의 생활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가정에 친권이 보다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면 공감했다. 다만, 시설 유형별로 다소 간 온도 차가 있었다. 아이들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경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 반면, 양육시설 종사자는 공감은 되지만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도 시설이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경우, 친권이 원가족에게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던 한편 자립정착금의 활용을 비롯해 자립한 아동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성을 위해서 열어야 된다는 반면에 그 외 수반되는 아동 문제, 사고치고 이런 것마저도 책임지냐 이거예요. (L4)
공동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건 절대적이에요. 진짜 꼭 필요해요. (L2)
가정위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연락이 안 되고 수감이 됐을 경우에도 친권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통장이 라든지 수술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L3)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개인한테 주어지는 권리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제한을 뒀어 되는 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L5)

나. 친권 제한에 대한 의견

양육시설 종사자들은 현재 입소하는 아동은 대체로 가정에서 방임한 아동이기 때문에 친권 또한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양육권뿐만 아니라 친권 또한 시설에 이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성년 후견인 제도처럼 아동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시설이 져야하는 경우, 시설장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상당한 책임은 현재도 이미 지고 있는 점을 보고하며, 행정적인 면에서라도 양육하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는 아동이 시설에 입소할 경우 친권자가 부재하면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후견인 선임이 안 되는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에는 유기 아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방임이기 때문에 양육권만 줄 게 아니라 아이들의 친권도 아동양육시설한테 이임해 주면 내 아이처럼 더 키울 수 있을 텐데. (L1) • 시설장들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부담스러워해요. 아이가 퇴소할 때까지 법적인 모든 책임과 모든 이해 서류가 다 그 사람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L1) • 아동 통장에 대한 지출을 전부 법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시설장한테 그런 의무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아니라 좀 더 친권을 제한하고 아동양육시설한테 좀 더 권한을 이임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L1)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건, 사고, 많은 돈이 나왔어도, 빚지고도 그냥 해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많이 생기기도 하죠. (L2) • 키우는 애의 책임져야 될 부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모른 척할 수 없다면 행정적인 거라도. (L6)
가정위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로 가면 시설장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권이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만 친권이 있을 경우는 후견인 선임이 안 됩니다. (L3)

다. 자립지원금, 원가족 부채 상환 사례 및 방지 방안

위탁가정의 한 보호종료아동은 연락이 안 되던 부모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연락이 오는 주변의 사례를 언급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	------	-----------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위탁가정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원 친구들한테도 듣는 게, 부모님이 애들을 보육원에 놓고 가서 연락이 안 되는데, 그 돈 받을 때가 되면 연락이 오신대요. (K2)

종사자들이 언급한 사례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육시설의 종사자는 보호종료 예정아동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후원금 통장을 지급 받는데, 이 시기에 부모들이 나타나 후원금 통장을 받아 가는 사례를 겪었다.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는 아동이 자립 후 원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동이 자립정착금이나 저축으로 마련한 돈을 어머니가 모두 써버린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언급했다. 교육 시에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동이 적금을 해지할 시 은행에서 센터로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고,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있기에 시행에 제한점이 있다고 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합니다. 고 2만 되면 부모 나타납니다. 어떻게 연락하고 찾아와서 아이들의 후원금 통장 다 받아 가세요. 그거는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속상하고요. (L1)
공동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 퇴소한 아동이 자립정착금하고 CDA 저축,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원가족으로 들어갔어요. 계모 엄마가 1년 동안 있는데 2천만 원을 다 썼어. 그 엄마가 다 가져간 거죠. 집안 식구들이 모르는 걸로 다 쓴 거예요. (L6)
가정위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가져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 교육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서약서를 써요. 이거 외에 쓰면 이제 환불 처리한다. 당연히 환불이 안 되겠지만. (L3) •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죠. 사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3) • 사용계획서 작성하되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수증 제출에 대한 것도 권고지 의무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권리 제한인 거 같아요. (L5)

8. 자립지원 욕구 및 자립지원 정책 개선 방향

가. 자립준비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나 한 달 가량을 독립해서 지내보는 체험, 자립 전에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자립해서 해야 할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정보의 주기적 안내 및 제공, 비슷한 생활을 한 선배들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자립 생활 체험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 뭔가 나쁜 맘? 이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흥청망청 쓰지 말고..... 뭐 저금을 해서. (F2) (적정한 자립생활관 체험기간) 2주일에서 한 달? (H3) (아르바이트 경험)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다른 애들은 좀 약간 식당이나 약간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경험을 하는데 (시설아동은) 못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느려지는 거 같아요.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때 대부분 결정이 되잖아요. 취업할 수 있는 친구는 그 쪽에서 자격증을 다 따고 나온다던가. 대학입시라면 최선을 다해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 이런 거 내는 방법이나 저축하게끔 할 건지. 용돈을 받으면 애들 쓰고 싶은데 막 쓰거든요. 좀 더 계획성 있게 어렸을 때부터 좀 계획을 짜보면서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F1)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 같은 거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고.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1) (적금 드는 법이나 집 계약하는 법 등 경제 교육 참여 의향) 네. 필요하죠. 은행 업무 그런 게 제일 어려워요. (H1) 시설처럼 저희도 프로그램 같은 거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H1) (아르바이트 경험) 제 친구들은 다 알바를 해요. 애들이 알바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때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이거 해도 되나?' 약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나도 해봤으면..... (H2) 세금 어떻게 내는지, 월세는 어떻게 내는지 그런 거 H2) 애들의 꿈,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 자기 적성이나 뭐 자기 꿈에 맞는 그런 길로 직업을 정했으면 좋겠다.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희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자립을 해야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충분히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자립하기 이전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던 거 같아요. (자금을) 자립하기 이전에 최대한 끌어모아라. 정보력 싸움도 있는 거 같아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 아이들을 위한 사이트나 그런 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 사항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I1) 진로 선택을 위한 워크숍, 강연 그런 거 필요할 것 같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I1) 자기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I2)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돈인 것 같아요. (I2)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과 조언 같은 거, 멘토링 같은 거를 해서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거나. (I3) 자취 생활을 많이 경험 해보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자주 안 끊기게끔 그렇게 노력을 한다거나 정보 제공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서비스들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I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 선생님한테 여쭙았는데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 있나 봐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K3)

종사자들의 경우, 물질적인 지원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자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	------------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인 지원, 경제적인 교육도 아주 중요하지만 애들이 정신적으로 탈피를 해야지만 또 다른 사회에 가서 자기가 새로운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L1) • 전달체계, 꾸준히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연결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L4)
가정위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체계인 것 같아요. 가정위탁은 주양육자가 계시다 보니 제 3자가 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안 내뿐이라서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도 지지체계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L5)

나.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전까지의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로 언급했다.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시된 셰어하우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양육시설의 아동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들 때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은 자립 후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자립 후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고, 취업 관련 연계 프로그램이나 자립지원금 등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할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선생님. (F2) • (셰어하우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맞춰 가야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혼자 살면서 자기 페이스에 약간 맞춰가면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H3)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사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진로, 취업도 당연히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일 순위, 뭐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거 같아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어하우스) 저도 혼자 살고 싶어요. (H1) • (셰어하우스)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걱정되는 게 남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약간 안전 문제? (H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생활에 있어서는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이 아닐까요. 자립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있을 장소가 집밖에 없다보니까, 저는 의식주 중에 고르자면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해서, 많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잘 타서 그것만 극복하고. (G1) • 금전적인 거 말고는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 먹는 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G2) • 아무래도 돈이 아닐까 싶은데, 대충 4, 500. 충분할 것 같아요. (G3) • 주거 지원이나 금전적인 지원 말고도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I1) • 자립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됐던 금전적인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도움이 됐건 연계돼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I2)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K3) 돈을 받는다고 쳐도 본인이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경제적 지식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사용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K3)

다.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체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대 후반의 아동에게 자립을 요구하는 현재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특성상 자립지원금과 같이 큰 돈을 처음 운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요리 프로그램이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사는 등 실제 자립해서 생활할 단계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지원으로는 보호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종료(예정)아동이 필요한 때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지원과 보호종료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끊기는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자립의 시점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어릴 때부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자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동이 성장할 곳은 결국 위탁가정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친인척을 포함한 보호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LH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서비스와 같이 시설 퇴소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제도들의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보호중/연장	경제 교육 보완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를 하고 나면 큰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니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요. 고칠 점을 알려 주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립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F2)

보호체계	보호여부	아동 인터뷰 결과
		정신 건강 관리 및 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 마음 표현이라 해야 되나? 혼자 마음에 두지 말고 표현하고 싶은 건 표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F2)
	보호종료	자립 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애초에 18살, 19살 아이한테 자립을 하라는 게 좀 너무 가혹한 일인 거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인 거 같고. 애초에 아무리 잘 알려줘도 혼자서 사회에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할 수 밖에. (J2) 정신 건강 관리 및 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지원 상담 서비스라던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립전담요원이 배치가 돼서 분기별로 아동들한테 연락도 돌리고 물품 같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요. (J2) 자립 생활 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 프로그램) 되게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우리가 재료를 장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나가서 자립을 하고 자취를 시작을 하면은, 사실 장보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J2) 퇴소 후에 자기계발 할 시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구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J2)
공동생활 가정	보호중/연장	자립 생활 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 일찍이 적응할 수 있는 법을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F1)
	보호종료	기초생활수급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조금 있어도 수급 유지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생활비) 충당되지 못하다 보니까 알바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기도 해요. (J1)
위탁가정	보호중/연장	위탁가정 지원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가정 자체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가정위탁은 정말 조금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자체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아동이 양육되는 건 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I2)
	보호종료	위탁가정 지원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 전에는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K2) 보호자 검증해야 돼요. 가족이라고 다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고. (K2) 정신 건강 관리 및 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상담가의 치료,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종료 이후까지 꼭 사회에 나와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K2) 위탁아동끼리의 커뮤니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K2) 정책 지원 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상 보호종료아동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LH만 하더라도 보호종료아동 팔호치고 시설 퇴소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입양아동들이나 위탁아동들은 같은 보호아동이지만 지원 못 하거든요. 그런 건 좀. (K2)

종사자들의 경우,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제도 보완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을 양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양육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급여는 적음에도 업무량이 방대한 자립전

담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동생활가정 등에 추가적으로 고용,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장애 아동이나 경계선지능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직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평가제도가 아동 보호의 취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양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 임상심리상담원 지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나아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할 경우 점수에 따라 원가족 복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은 장애 아동 양육 시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립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조건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보다 다각도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되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경우,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조건 속에서 아동과 관계를 쌓아가는 데에 고충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 특성상 지자체별로 보호아동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퇴소 이후의 거처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하는 일이 권한은 없는데 업무는 정말 방대해요. 우리가 정말 급여는 적게 받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업무가 되게 방대하면서도 성과 제일 안 나는 게 저희거든요. 잘못하면 잘못된 것만 나오지 잘한 건 거의 없거든요. (L1)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가야 되는 곳이 지금 그룹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지만, 그룹홈은 생활을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시스템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L1) • 현재 아동 인원 대비 직원 충원이 돼 있잖아요. 7명당 1명 이 정도로 있는데. 아동 특성을 좀 고려하면 경계선이면 경계선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인원을 충원했으면 좋겠어요. (L4)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가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상대평가를 할지 모르겠어요. 서류 위주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생태 체계도가 하나만 제대로 형성돼도 그 아이는 진짜 자립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L1)
	기초생활수급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비는 둘째 치고 잘못하면 시설에서 퇴소도 해야 돼요. 그룹홈은 좀 틀리겠지만 아동양육 시설은 입소 조건이 수급자 정책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소비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해요. (L1)

보호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p>정책 지원 자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인 이하 시설하고 30인 이상 시설로 나누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임상심리상담원의 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요. 30인 미만 시설은 임상 심리 상담을 지원을 안 해 줘요. (L1) <p>원가족 복귀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평가 점수가 좋으면 원가족 복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아동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 (L1)
공동생활 가정	<p>기초생활수급제도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비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20만 원만 넘으면 그만큼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큼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L2) 애들 근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알바비 때문에 근로 못 하게 하는 거. 알바비가 있으면 수급비가 깎이기 때문에 얼마 선 이상을 일하기가. (L6) <p>장애 아동 관련 정책 및 제도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아이가 있는데 제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3번을 나가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문기관을 연계해줬으면 좋겠어요. (L2) <p>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생애적인 플랜을 가지고 1년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시스템)는 그냥 원하는 거를 넣으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슨 직업 훈련을 넣겠습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 대상자와 프로그램, 양식이 너무 좀 동떨어진 거. (L6) 프로그램에 애들은 지쳐 나가요. 인권 교육이든 학교에서 프로그램 다 이수해야죠. 시설이라고 하는 집에 오면 집대로 해야 되죠. 애들은 시간이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죠. 경쟁 사회에서. 무슨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도 많고. (L6) <p>사례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서비스를 누군가 주도를 가지고 하는 거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굉장히 인력 낭비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대상자한테도 효과적일까..... 지체체계에서 어떤 새로운 장을 또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L6)
가정위탁 지원센터	<p>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위탁받아서 3년 다니고 재계약을 해요. 맞춤형 사례관리든 가정위탁의 고충이든 뭐든 이런 걸 잘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아이들을 오래 봐 오고 오래 일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게 사실 제일 맞는 문제인 것 같고요. (L5) <p>기초생활수급제도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비 책정이 완화가 됐어요. 하지만 알바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모르고 있다가 수급비가 확 끊기거나 수급자 탈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L3) <p>아동 지원 정책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사업은 다 지방이양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아동들이 받는 혜택이 다 틀려요.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L3) <p>장애 아동 관련 정책 및 제도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 장애 아동은 갈 데가 없어요. 국가가 좀 책임을 저졌으면. (L3)